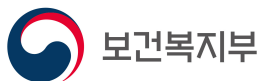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961-12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 -

연구책임자 **이 정 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 정 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도 남 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최 효 미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이 재 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이 윤 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윤 지 연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염 혜 경 (육아정책연구소 위촉연구원)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961-12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 -

발행일 2018년 11월
발행처 보건복지부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전화 044) 202-3542
팩스 044) 202-3910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786-2999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본 보고서는 육아정책연구소가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제 출 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의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목 차

요약	1
<hr/>	
I. 서론	25
<hr/>	
1. 조사의 배경	27
2. 조사 목적	29
3. 조사 방법	31
4. 응답자 특성	50
5. 일러두기	53
II. 영유아 보육사업 현황	55
<hr/>	
1. 어린이집 설치 및 이용	57
2. 비용 지원	66
III. 아동 가구와 가구원 특성	77
<hr/>	
1. 인구학적 특성	79
2. 사회·경제적 특성	91
3. 시사점	121
IV. 영유아 양육 특성	125
<hr/>	
1. 하루 중 돌보는 사람 및 이용기관	127
2. 부모의 양육특성 및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147
3. 장애 영유아 양육	166
4. 영유아 가구의 추가출산계획	170
5. 시사점	179

V.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및 요구 개요 183

1. 최초 보육·교육기관 이용 경험	185
2. 연령대별 보육·교육 이용 실태	192
3. 현재 보육·교육기관 이용 실태	194
4. 보육·교육기관 이용 비용	227
5. 보육·교육기관 제공 서비스	243
6.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프로그램	248
7.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	255
8. 시사점	262

VI. 어린이집 이용 및 요구 267

1. 어린이집 이용 특성	269
2. 어린이집 이용비용	308
3. 어린이집의 제공 서비스	320
4. 어린이집 특별활동	328
5.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개선 요구	339
6. 취약보육	350
7. 시간제보육 이용 실태	356
8. 영유아 가구의 취학 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의사	358
9. 어린이집 입소 대기 경험	369
10. 보육정책 인지도 및 관련 인식	375
11. 시사점	398

VII. 유치원 이용 및 요구 403

1. 유치원 이용 특성	405
2. 유치원 이용 비용	444
3. 유치원 제공 서비스	456
4. 방과후 특성화활동	462
5. 유치원 만족도 및 개선 요구	473
6. 시사점	480

Ⅷ.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및 요구	483
1.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특성	485
2.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비용	498
3.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의 제공 서비스	502
4.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만족도 및 개선 요구	509
5. 시사점	512
Ⅸ.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및 요구	515
1.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특성	517
2.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524
3. 비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535
4. 시사점	544
Ⅹ. 시간제 교육기관 및 개별교육 이용 실태	545
1. 시간제 교육기관 및 개별교육 이용 아동 특성	547
2.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실태	551
3. 개별교육 이용 실태	562
4. 시사점	570
Ⅺ. 육아정책 관련 인식	573
1. 영유아 가구의 육아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575
2. 영유아 보육·교육 인프라 관련 인식	582
3. 영유아 보육·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599
4.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 인식 및 만족도	601
5. 육아지원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613
6. 시사점	628

XII. 정책 제언	633
1. 취업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635
2. 육아정책의 성평등 관점 반영 강화	639
3. 돌봄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640
4. 영아가구를 위한 양육 지원 강화	641
5. 보육·교육서비스 인프라의 접근성 제고	643
6.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644
7. 비용지원의 효과성 제고	646
8. 부모교육 지원 강화	647
9. 육아취약계층의 양육지원 강화	649
10. 유치원 유아교육서비스 개선	650
참고문헌	652
부록	655

표 목차

표 I-3-1	가구조사 내용	33
표 I-3-2	아동조사 내용	34
표 I-3-3	지역별 정부지원유형별 분포(기준시점: 2018.6월 말)	37
표 I-3-4	공표수준별 정부지원유형별 분포(기준시점: 2018.6월 말)	38
표 I-3-5	지역별 나이별 분포(기준시점: 2018.6월 말)	38
표 I-3-6	정부지원유형별 제공근비례배분 결과(1차 총화)	39
표 I-3-7	정부지원유형별, 공표수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른 제공근 비례배분 후 17개 시도별 비례배분 결과(3안)	40
표 I-3-8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와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CV(3안)	40
표 I-3-9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최종 총별(정부지원유형별, 지역별) 표본배정결과	41
표 I-3-10	조사완료 보육료 지원 아동의 연령별 분포	42
표 I-3-11	조사완료 유아학비 지원 아동의 연령별 분포	42
표 I-3-12	조사완료 양육수당 지원 아동의 연령별 분포	43
표 I-3-13	조사완료 아동의 연령별 분포	43
표 I-3-14	조사완료 아동의 정부지원유형별 분포	44
표 I-3-13	지역별 아동 가중치 분포	46
표 I-3-14	지역별 가구 가중치 분포	48
표 I-4-1	지역별 조사완료율 및 조사 가구 및 아동의 지역 분포	50
표 I-4-2	가구 조사 응답가구 특성	51
표 I-4-3	아동 조사 응답자 특성	52
표 II-1-1	기관유형별 어린이집 수/이용아동 수(2009/2012-2018)	58
표 II-1-2	보육아동 연령 분포(2011-2018)	59
표 II-1-3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이용률(2013, 2015, 2017)	60
표 II-1-4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추이(2012-2018)	61
표 II-1-5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추이(2012-2018)	62
표 II-1-6	시간연장형 보육 공급 및 이용 현황(2016-2018)	64
표 II-1-7	시·도별 어린이집 공급률/이용률/정원충족률(2011-2018)	64

표 II-1-8 시·군·구 보육 공급률 및 이용률 평균(2018)	66
표 II-2-1 국고 지원 보육예산(2012-2018)	68
표 II-2-2 보육료 지원 대상/지원 단가(2018)	69
표 II-2-3 보육료 지원 아동 수(2009/2012-2018)	69
표 II-2-4 전국 지역의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액(2018)	70
표 II-2-5 전국 지역의 필요경비의 종류 및 수납 한도액(2018)	72
표 II-2-6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지원 금액(2018)	74
표 II-2-7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2010/2012-2018)	75
표 III-1-1 영유아 가구의 가구원 수 특성	80
표 III-1-2 영유아 가구의 가구형태 특성	81
표 III-1-3 영유아 가구의 가구원별 동거 비율	82
표 III-1-4 영유아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83
표 III-1-5 영유아 부모의 건강 특성	84
표 III-1-6 영유아 가구의 이주민 가구 비율	85
표 III-1-7 이주민 가구 아버지의 출신지	85
표 III-1-8 이주민 가구 어머니의 출신지	86
표 III-1-9 이주민(다문화, 결혼이민자, 귀화자) 부모의 자녀 양육 시 어려운 점 ..	86
표 III-1-10 지역규모별 영유아의 성별	88
표 III-1-11 조사대상 아동의 출생순위	88
표 III-1-12 지역 규모별 영유아의 건강상태	89
표 III-1-13 제 특성별 등록 장애 유형	90
표 III-1-14 제 특성별 등록 장애 등급	90
표 III-2-1 최연소 영유아 연령구분별 부 또는 모의 취업상태	92
표 III-2-2 거주지역규모별 영유아 가구 부모의 직종 특성	93
표 III-2-3 지원유형별 영유아 가구 부모의 직종 특성	94
표 III-2-4 거주지역규모별 영유아 부모의 종사상 지위 및 근무형태(2018) ..	95
표 III-2-5 영유아 부모의 종사상 지위 및 근무형태(2012-2015)	96
표 III-2-6 제 특성별 취업부모의 평일 근로소요 및 주당근로시간	97
표 III-2-7 제 특성별 취업부모의 토요일 근무여부	98
표 III-2-8 제 특성별 취업부모의 일요일 근무여부	98
표 III-2-9 제 특성별 취업부모의 월 평균 근로소득	99
표 III-2-10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해 부 또는 모가 직장 그만둔 경험	100
표 III-2-11 모의 취업 중단 사유	101

표 III-2-12 부모의 자녀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시기	103
표 III-2-13 자녀 출산 양육으로 인한 주된 경력 단절 이유(아버지)	103
표 III-2-14 부 또는 모의 육아휴직 경험	104
표 III-2-15 부모의 육아휴직 시기	105
표 III-2-16 제 특성별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	105
표 III-2-17 미취업모의 취업 계획	106
표 III-2-18 미취업부의 취업 계획	107
표 III-2-19 미취업 모의 취업 계획 시기	108
표 III-2-20 미취업 부의 취업 계획 시기	108
표 III-2-21 취업중인 주양육자의 자녀양육 관련 어려움 정도: 5점 척도	109
표 III-2-22 영유아 가구의 국민기초생활급여 대상 여부	110
표 III-2-23 소득 분위별 평균	111
표 III-2-24 지역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 수준	111
표 III-2-25 모 취업여부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 수준	112
표 III-2-26 가구 규모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 수준	113
표 III-2-27 지역별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지출 수준	114
표 III-2-28 모 취업여부별 영유아 가구의 지출수준	115
표 III-2-29 가구 규모별 영유아 가구의 지출 수준	116
표 III-2-30 영유아 가구의 지역별·제특성별 월평균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출 수준(지역별·제특성별 평균 양육비)	117
표 III-2-31 영유아 가구의 모취업여부별·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출 수준 (모취업여부별·제특성별 평균 양육비)	118
표 III-2-32 가구 규모별 영유아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출 수준	119
표 III-2-33 영유아 가구의 거주 주택 유형	119
표 III-2-34 영유아 가구의 주택 소유 형태	120
표 IV-1-1 제 특성별 낮 시간 동안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	128
표 IV-1-2 평일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130
표 IV-1-4 0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	131
표 IV-1-5 1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	132
표 IV-1-6 2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	133
표 IV-1-7 3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	135
표 IV-1-8 4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	136
표 IV-1-9 5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	137

표 IV-1-10	취업모 자녀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 138
표 IV-1-11	미취업모 자녀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 140
표 IV-1-12	제 특성별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 평일	· 141
표 IV-1-13	제 특성별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 평일	· 143
표 IV-1-14	제 특성별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 주말	· 145
표 IV-1-15	제 특성별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 주말	· 146
표 IV-2-1	영유아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 정서	· 147
표 IV-2-2	제 특성별 부모의 부정적 양육 정서: 5점 척도	· 148
표 IV-2-3	아버지의 자녀돌봄 참여 정도: 5점 척도	· 149
표 IV-2-4	모의 자녀돌봄 참여 정도: 5점 척도	· 151
표 IV-2-5	부모의 자녀 양육과 가사 분담 비율	· 153
표 IV-2-6	연령별 가장 적절한 양육지원서비스	· 155
표 IV-2-7	부모(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이외의 양육지원자: 아이 직접 돌보기	· 156
표 IV-2-8	부모(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이외의 양육지원자: 경제적인 지원	· 157
표 IV-2-9	부모(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이외의 양육지원자: 가사 지원 등	· 158
표 IV-2-10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인지 여부	· 159
표 IV-2-11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인지,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 161
표 IV-2-12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 인지 여부	· 162
표 IV-2-13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163
표 IV-2-14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주로 이용하는 정보	· 165
표 IV-3-1	장애 진단 시기	· 166
표 IV-3-2	장애 진단 계기	· 167
표 IV-3-3	장애아의 이용기관 및 1일 평균 이용시간, 만족도	· 168
표 IV-3-4	제 특성별 장애아의 기관 미이용 이유	· 169
표 IV-3-5	제 특성별 기관 이용 시 어려움	· 169
표 IV-4-1	추가 출산 계획	· 170
표 IV-4-2	추가 출산 계획 시기	· 172
표 IV-4-3	추가 출산 계획 없는 이유	· 174
표 IV-4-4	영유아 월 보육·교육 총비용	· 176
표 IV-4-5	총 보육·교육 비용 부담 정도	· 178
표 V-1-1	최초 이용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 186
표 V-1-2	제 특성별 최초 기관 이용 월령	· 188
표 V-1-3	기관을 처음 이용하게 된 이유	· 189

표 V-1-4 기관 유형별 기관을 처음 이용하게 된 이유 (유아기에 이용 시작한 경우)	191
표 V-2-1 자녀 연령별 이용한 보육·교육서비스 및 개인(중복응답)	192
표 V-2-2 제 특성별 어린이집 중단 경험 여부 및 중단 사유	193
표 V-3-1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가구 및 아동 특성	195
표 V-3-2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별 이용 가구 및 아동 특성	198
표 V-3-3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의 부모 취업 특성	199
표 V-3-4 현재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이유	202
표 V-3-5 현재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이유(유아 이상)	203
표 V-3-6 돌볼 사람이 있는 경우 가정양육 의향	204
표 V-3-7 현재 이용 보육·교육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	205
표 V-3-8 현재 이용 보육·교육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유아반 이상)	206
표 V-3-9 현재 이용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작 월령	207
표 V-3-10 현재 이용 반일제 이상 기관 재원기간	209
표 V-3-11 주당 기관 이용 요일 및 주당 이용 일수	210
표 V-3-12 이용기관별 영유아의 등·하원 시각	211
표 V-3-13 유아의 이용기관별 등·하원 시각	212
표 V-3-14 이용기관 및 모 취업여부별 영유아의 기관 이용시간 (등하원 시간 미포함)	213
표 V-3-15 이용기관 및 모 취업여부별 유아의 기관 이용시간 (등·하원 시간 미포함)	214
표 V-3-16 이용기관별 및 모 취업여부별 영유아의 기관 이용시간 (등·하원시간 포함)	215
표 V-3-17 이용기관 및 모 취업여부별 유아의 기관 이용시간 (등·하원 시간 포함)	216
표 V-3-18 이용기관별 희망 등·하원시각	218
표 V-3-19 이용기관별 유아의 희망 등·하원시각	219
표 V-3-20 이용기관 및 모취업여부별 희망 이용시간(등·하원 시간 미포함) ..	220
표 V-3-21 이용기관 및 모취업여부별 희망 이용시간(유아)	221
표 V-3-22 이용기관 및 모취업여부별 희망 이용시간-실제 이용시간 차이 ..	222
표 V-3-23 이용기관 및 모취업여부별 희망 이용시간-실제 이용 시간 차이 (유아)	223
표 V-3-24 이용기관별 등·하원 방법	224

표 V-3-25	이용기관별 등원 시 소요시간	225
표 V-3-26	등하원 시 교사나 원장과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관련 정보 나눔 정도	226
표 V-3-27	이용기관별 등·하원 차량 교직원 동승 여부	227
표 V-4-1	영유아 월 보육·교육 비용 지불액 평균	229
표 V-4-2	유아의 월 보육·교육 비용 지불액 평균	231
표 V-4-3	이용 기관별 보육료·교육비 분포	232
표 V-4-4	이용 기관별 보육료·교육비 분포(유아)	234
표 V-4-5	이용 기관별 월평균 보육료·교육비 및 가구소득 대비 비율(평균) ..	235
표 V-4-6	이용 기관별 항목별 월평균 추가 비용	236
표 V-4-7	이용 기관별 항목별 월평균 추가 비용(유아)	238
표 V-4-8	제 특성별 기관 이용 영유아 기관 입소 비용(입학준비금, 입학금) ..	239
표 V-4-9	생활수준에 비춘 보육료·교육비 부담 인식	240
표 V-4-10	정부의 비용 지원 없어도 보육·교육기관에 보낼 의향 여부	241
표 V-4-11	질적 수준 개선에 따른 비용 추가부담 의사 및 최대 추가부담 가능 비용	243
표 V-5-1	이용기관별 부모서비스 제공 여부 및 빈도	244
표 V-5-2	반일제 이상 기관 제공 서비스 이용 만족도	246
표 V-5-3	반일제 이상 기관 제공 서비스 이용기관별 만족(매우 만족+만족) 비율	248
표 V-6-1	이용기관별 특별활동 총 이용 수	249
표 V-6-2	기관유형 및 특별활동 종류별 의무 이용 비율	250
표 V-6-3	특별활동 기관별·과목별 월평균 이용 비용(비용지불아동)	251
표 V-6-4	제 특성별 총 특별활동 이용비용	252
표 V-6-5	특별활동 만족도: 5점 척도	253
표 V-6-6	제 특성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특별활동 참여자) ..	254
표 V-7-1	이용기관별 교직원, 시설, 서비스 질, 비용 등 만족 비율	257
표 V-7-2	기관별 이용 만족도: 5점 척도	258
표 V-7-3	기관유형별 도움 경험 비율 및 도움 정도: 5점 척도	260
표 V-7-4	이용기관별 개선사항	261
표 VI-1-1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영유아 특성	270
표 VI-1-2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모취업 및 맞벌이 특성	272
표 VI-1-3	어린이집 이용 이유	273

표 VI-1-4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사항	274
표 VI-1-5 영유아 구분별 및 지역·모취업 여부별 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사항	276
표 VI-1-6 제 특성별 어린이집 중단 여부 및 중단 사유	277
표 VI-1-7 현재 이용 어린이집 최초 이용시기	279
표 VI-1-8 현재 이용 어린이집 이용 지속기간	280
표 VI-1-9 연령 및 영유아별 어린이집 이용 요일 유형	281
표 VI-1-10 토요일육 필요하였으나 이용하지 못한 경험	281
표 VI-1-11 연령 및 영유아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등원시각 (어린이집 도착 시간)	282
표 VI-1-12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등원시각(어린이집 도착 시간) ..	283
표 VI-1-13 연령 및 영유아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하원시각 (어린이집에서 나서는 시간)	284
표 VI-1-14 제 특성별 이용 영유아의 하원 시각	285
표 VI-1-15 연령 및 영유아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이용시간	286
표 VI-1-16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시간(등·하원시간 제외)	287
표 VI-1-17 모 취업특성별 어린이집 이용시간(등·하원시간 제외)	288
표 VI-1-18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시간(등·하원시간 포함)	289
표 VI-1-19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시간 초과 이용	291
표 VI-1-20 어린이집 맞춤형 이용 및 긴급보육바우처 활용 경험	292
표 VI-1-21 어린이집 맞춤형 이용 및 긴급보육바우처 활용 경험(영아만 대상) ..	293
표 VI-1-22 어린이집 운영시간 인지 및 미이용 이유	295
표 VI-1-23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시간 만족 정도	296
표 VI-1-24 부모가 희망하는 어린이집 시작 시각	297
표 VI-1-25 영유아구분별·연령별 어린이집 희망 시작 시각	299
표 VI-1-26 부모가 희망하는 어린이집 종료 시각	299
표 VI-1-27 영유아 구분 및 연령별 어린이집 희망 이용시간	301
표 VI-1-28 가구소득별 어린이집 희망 이용시간	302
표 VI-1-29 제 특성별 어린이집 희망 이용시간	303
표 VI-1-30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등·하원 방법	304
표 VI-1-31 제 특성별 등·하원 시 교사와 정보 교류 빈도	306
표 VI-1-32 제 특성별 어린이집 등·하원 차량 교직원 동승 여부	307
표 VI-2-1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비 분포	308

표 VI-2-2 어린이집 유형 및 모취업 여부별 월평균 보육비용	309
표 VI-2-3 영유아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별 월평균 보육비용	310
표 VI-2-4 어린이집 유형별·제특성별 보육아동 항목별 월평균 추가 비용 (전체아동)	312
표 VI-2-5 어린이집 유형별·제특성별 보육아동 항목별 월평균 추가 비용 (비용 지불 영유아)	314
표 VI-2-6 어린이집 유형별 입학금(원복, 체육복 등) 평균 비용	315
표 VI-2-7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비용 부담 정도	316
표 VI-2-8 질 높은 기관 이용을 위한 비용 추가 의사 및 가능한 부담 비용	318
표 VI-3-1 어린이집 유형별 부모서비스 제공 비율	320
표 VI-3-2 어린이집 유형별 부모서비스 제공 만족도	322
표 VI-3-3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건강검진 여부	323
표 VI-3-4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별 건강검진 사전 안내 여부	324
표 VI-3-5 영유아 구분 및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건강검진 사전안내 여부	325
표 VI-3-6 부모 참여 활동 참여율, 도움 정도, 향후 참여 의향	326
표 VI-3-7 제 특성별 부모 참여 활동 참가율과 참여 의향 비율	326
표 VI-3-8 부모참여의 보육의 질 향상에 대한 도움 정도 인식	327
표 VI-4-1 제 특성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개수	329
표 VI-4-2 내용별·제 특성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비율	330
표 VI-4-3 어린이집 특별활동 1주일 평균 이용횟수	331
표 VI-4-4 특별활동 의무 이용 비율	332
표 VI-4-5 특별활동 미참여 시 어린이집의 대체프로그램 운영 의무 인지여부	333
표 VI-4-6 어린이집 특별활동 별도 비용 지불하는 비율	334
표 VI-4-7 어린이집 특별활동 과목별 월평균 이용 비용	334
표 VI-4-8 제 특성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월평균 이용 비용	335
표 VI-4-9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제 특성별 특별활동 1인당 월평균 비용	336
표 VI-4-10 어린이집 특별활동 만족도: 5점 척도	337
표 VI-4-11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제 특성별 특별활동 선호도	338
표 VI-5-1 어린이집 구성 요소별 만족도	339
표 VI-5-2 영유아 자녀별 모 취업여부에 따른 어린이집 만족도	340
표 VI-5-3 어린이집 유형별 만족도: 5점 척도	341
표 VI-5-4 영유아 구분 및 연령별 어린이집 만족도: 5점 척도	342

표 VI-5-5 지역 및 모 취업여부별 어린이집 만족도: 5점 척도	343
표 VI-5-6 어린이집 유형별(공공형, 서울형, 일반) 만족도: 5점 척도	344
표 VI-5-7 어린이집 유형별 도움 경험 및 도움 받은 비율 비교	345
표 VI-5-8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이 도움이 되는 정도: 5점 척도	346
표 VI-5-9 어린이집 유형별 개선 사항(1+2순위)	348
표 VI-5-10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양육수당 관련 의견	349
표 VI-6-1 취약보육의 이용 빈도(최근 6개월)	351
표 VI-6-2 시간연장보육 주로 이용 하는 요일 및 시간대	351
표 VI-6-3 제 특성별 취약보육의 필요성	353
표 VI-6-4 긴급상황 시 주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나 시설	355
표 VI-7-1 시간제보육 이용주기 및 이용 건당 이용시간(최근 1년 이내)	356
표 VI-7-2 시간제보육기관 방문시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357
표 VI-7-3 시간제보육 이용 기관 및 만족도, 도움정도	358
표 VI-8-1 초등취학 전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의사	360
표 VI-8-2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희망 이유	362
표 VI-8-3 공립유치원 이용 희망 이유	363
표 VI-8-4 연령별 어린이집 수요	364
표 VI-8-5 연령별 유치원 수요	365
표 VI-8-6 2018년생(0세아) 향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수요	365
표 VI-8-7 2017년생(1세아) 향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수요	366
표 VI-8-8 2016년생(2세아) 향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수요	366
표 VI-8-9 2013년생-2015년생(3-5세아) 향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수요	367
표 VI-8-10 출생연도별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현황 및 계획	368
표 VI-8-11 출생연도별 연령별 유치원 이용 현황 및 계획	369
표 VI-9-1 입소 전 대기 경험 및 대기 기간	370
표 VI-9-2 어린이집 입소대기 경험자의 입소 대기 신청방식, 대기 신청 기관	372
표 VI-9-3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만족도 및 만족 사유	373
표 VI-9-4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불만족 시 개선 사항	375
표 VI-10-1 공인어린이집 인지 및 국공립어린이집 질과의 유사성 인식	376
표 VI-10-2 공인어린이집 관련 정보 인지정도	377
표 VI-10-3 공인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동일 기관 인식	378
표 VI-10-4 현재 이용 어린이집의 공공형어린이집 여부 및 기관 선택 시 공공형어린이집의 영향	379

표 VI-10-5 공공형 어린이집의 장점에 대한 인식	380
표 VI-10-6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인지 및 경험, 만족도	381
표 VI-10-7 어린이집 위반사실 조회에 대한 인식 및 경험	383
표 VI-10-8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info.cnildcare.go.kr) 이용 여부/도움 정도 ..	384
표 VI-10-9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info.cnildcare.go.kr)에 필요한 추가 정보 ..	385
표 VI-10-10 열린어린이집 인지 여부	386
표 VI-10-11 열린어린이집 이용 여부 및 만족도	387
표 VI-10-12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인지 여부	388
표 VI-10-13 평가인증 결과 조회 경험 및 점수와 실제의 일치여부	389
표 VI-10-14 평가인증 제도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 기여 정도	390
표 VI-10-15 어린이집 유형별 어린이집 평가인증 여부	392
표 VI-10-16 영유아구분 및 연령별 어린이집 선택 시 평가인증의 영향	392
표 VI-10-17 아이행복카드 결제 빈도 및 결제방법	394
표 VI-10-18 CCTV 이용 관련 의견	395
표 VI-10-19 CCTV 영상정보 열람 신청 방법 인지 여부 및 열람 경험	396
표 VI-10-20 CCTV 열람 신청 사유와 시기	397
표 VI-10-21 어린이집 CCTV 열람 거부 사유	398
표 VII-1-1 유치원 유형별 이용률	406
표 VII-1-2 유아 연령별, 유치원 이용 유형별 모취업 여부, 지역규모 특성 ..	407
표 VII-1-3 연령별 유치원 이용 이유	408
표 VII-1-4 제 특성별 유치원 이용 이유	409
표 VII-1-5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경우) 돌볼 사람이 있을 경우 기관 이용 의사	410
표 VII-1-6 연령별 유치원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412
표 VII-1-7 제 특성별 유치원 선택 시 고려사항	414
표 VII-1-8 가구소득별 유치원 선택 시 고려사항	415
표 VII-1-9 유치원 최초 이용 시기(최초 이용 기관이 유치원인 경우)	416
표 VII-1-10 현재 이용 유치원 최초 이용 시작 시기	417
표 VII-1-11 현재 이용 유치원 재원기간	419
표 VII-1-12 지역 및 모 취업 여부별 유치원 이용 요일 유형	419
표 VII-1-13 연령별 유치원 등원시각	420
표 VII-1-14 제 특성별 유치원 등원시각	422
표 VII-1-15 연령별 유치원 하원시각	423

표 VII-1-16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유치원 하원시각	424
표 VII-1-17 연령별 유치원 이용 시간	425
표 VII-1-18 제 특성별 유치원 이용 시간	427
표 VII-1-19 유치원 이용 시 초과 이용 빈도	429
표 VII-1-20 제 특성별 유치원 이용 시간에 대한 의견	431
표 VII-1-21 연령별 유치원 희망 등원시각	432
표 VII-1-22 제 특성별 유치원 희망 등원시각	434
표 VII-1-23 연령별 유치원 희망 하원시각	435
표 VII-1-24 제 특성별 유치원 희망 하원시각	436
표 VII-1-25 연령별 유치원 희망 이용시간	437
표 VII-1-26 제 특성별 유치원 희망 이용시간	438
표 VII-1-27 유치원 이용 아동의 등원 방법	439
표 VII-1-28 유치원 이용 아동의 하원 방법	440
표 VII-1-29 제 특성별 유치원 이용 아동의 등원 시 소요시간	442
표 VII-1-30 유치원 등·하원 시 유치원과 정보교류 정도	443
표 VII-1-31 제 특성별 유치원 등·하원 차량 교직원 동승 여부	444
표 VII-2-1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월평균 교육비	446
표 VII-2-2 유아 연령 및 유치원 유형별 월평균 교육비	447
표 VII-2-3 유치원 유형별 월평균 추가 교육비	448
표 VII-2-4 제 특성별 유치원 아동 항목별 월평균 추가 교육비	449
표 VII-2-5 유치원 유형별 입학금(원복, 체육복 등) 평균 비용	451
표 VII-2-6 제 특성별 유치원 교육비용 부담정도 및 미지원시 이용 의사	452
표 VII-2-7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유치원 교육비 추가부담 의사 및 추가 부담 가능 비용 수준	454
표 VII-3-1 제 특성별 유치원 부모서비스 제공 여부 및 주기	457
표 VII-3-2 유치원 유형별 서비스 제공 만족도	459
표 VII-3-3 제 특성별 유치원 이용 아동의 건강검진 관리	460
표 VII-3-4 제 특성별 유치원의 건강검진 사전 안내 여부	460
표 VII-3-5 아이행복카드 결제 빈도 및 결제방법(유치원 이용 아동)	462
표 VII-4-1 제 특성별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수	463
표 VII-4-2 제 특성별 유치원 방과후 프로그램 종류별 특성화활동 이용 비율 (중복응답)	464
표 VII-4-3 제 특성별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의무 이용 비율	465

표 VII-4-4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1주일 평균 이용 횟수	466
표 VII-4-5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프로그램종류별 별도 비용 지불 비율	467
표 VII-4-6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프로그램종류별 월평균 지불 비용	468
표 VII-4-7 제 특성별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프로그램종류별 월평균 지불 비용	469
표 VII-4-8 제 특성별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월평균 비용의 범위	470
표 VII-4-9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만족도: 5점 척도	471
표 VII-4-10 유치원 이용 유아 특성별 방과후 특성화활동 선호도 (특별활동 이용자)	472
표 VII-5-1 유치원의 전반적 만족도 비율 및 평균	474
표 VII-5-2 제 특성별 유치원 만족도	475
표 VII-5-3 유치원 유형별 도움 경험 비율 비교	476
표 VII-5-4 제 특성별 유치원의 도움 정도	477
표 VII-5-5 유치원 개선 요구 사항(1순위)	478
표 VII-5-6 유치원 이용 부모의 양육수당 관련 의견	479
표 VIII-1-1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아동의 최초 이용기관	485
표 VIII-1-2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영어학원 등) 이용 이유	486
표 VIII-1-3 연령별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선택 시 고려 사항	487
표 VIII-1-4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작 시기 및 재원기간	488
표 VIII-1-5 연령별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요일 유형 및 주당 정기적 이용 일수	489
표 VIII-1-6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등원시각	490
표 VIII-1-7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하원시각	490
표 VIII-1-8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시간	491
표 VIII-1-9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시간 관련 의견	492
표 VIII-1-10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희망 등원시간	492
표 VIII-1-11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희망 하원시각	493
표 VIII-1-12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희망 이용시간	494
표 VIII-1-13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아동의 등·하원 방법	495
표 VIII-1-14 연령별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아동의 등원 시 소요시간	496
표 VIII-1-15 연령별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아동의 하원 시 소요시간	496
표 VIII-1-16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등·하원 시 정보 교류 정도	497
표 VIII-2-1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월평균 비용	498

표 VIII-2-2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추가비용 항목별 월평균 비용	499
표 VIII-2-3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 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	500
표 VIII-2-4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질적 수준 개선에 따른 비용 추가부담 의사 및 추가 부담 가능 비용 수준	501
표 VIII-3-1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부모서비스 제공 비율	503
표 VIII-3-2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부모서비스의 만족 정도	504
표 VIII-3-3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에서 참여하는 특별활동 수	505
표 VIII-3-4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참여 비율	506
표 VIII-3-5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특별활동 1주일 평균 이용 횟수	506
표 VIII-3-6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특별활동 의무 이용 비율	507
표 VIII-3-7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월평균 이용비용	507
표 VIII-3-8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특별활동 월평균 총비용	508
표 VIII-3-9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만족도와 선호도	509
표 VIII-4-1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만족도	509
표 VIII-4-2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도움 경험 비율	510
표 VIII-4-3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도움정도: 5점 척도	511
표 VIII-4-4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의 지역규모별 개선 요구 사항: 1순위	511
표 IX-1-1 제 특성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518
표 IX-1-2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아동 수와 비율	519
표 IX-1-3 영유아 구분 및 연령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률	520
표 IX-1-4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별 이용자 특성 분포	521
표 IX-1-5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가 돌보는 자녀 수	522
표 IX-1-6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이유	524
표 IX-2-1 혈연 양육지원자 분포	525
표 IX-2-2 취업모의 혈연 양육지원자 분포	526
표 IX-2-3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자의 혈연 양육지원자와 보육·교육기관 등 중복 여부	528
표 IX-2-4 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시간대	529
표 IX-2-5 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장소	530
표 IX-2-6 (돌보는 사람 집에서 돌보는 경우) 자녀 만나는 빈도 및 주기	531
표 IX-2-7 혈연 양육지원자 유형별 비용 지불 여부 및 지불 형태	532
표 IX-2-8 제 특성별 혈연 양육지원자에 대한 비용 지불 여부 및 형태	533
표 IX-2-9 혈연 양육지원자 비용 지불 시 월 평균 금액	534

표 IX-2-10 제 특성별 혈연 양육지원자 비용 지불 시 월 평균 금액	535
표 IX-3-1 비혈연 양육지원자 분포	536
표 IX-3-2 비혈연 양육지원자 채용 경로	537
표 IX-3-3 비혈연 양육지원자와 보육·교육기관 등 중복 이용 여부	538
표 IX-3-4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시간대 및 주당 이용시간	539
표 IX-3-5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장소	540
표 IX-3-6 비혈연 양육지원자 결근 빈도 및 결근 시 대처 방법	540
표 IX-3-7 비혈연 양육지원자 비용 지불 여부 및 지불 형태	541
표 IX-3-8 비혈연 양육지원자별 지불 비용	542
표 IX-3-9 제 특성별 비혈연 양육지원자 비용 지불시 월 평균 비용	543
표 X-1-1 제 특성별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비율(전체아동 대상)	548
표 X-1-2 제 특성별 개별교육 이용 비율(전체아동 대상)	549
표 X-1-3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영유아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현황	550
표 X-2-1 이용하는 총 시간제 교육 프로그램 수(전체아동 대상)	552
표 X-2-2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아동의 제 특성별 프로그램 이용 현황	553
표 X-2-3 시간제 교육기관 주당 총 이용시간	555
표 X-2-4 시간제 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아동연령별 월 평균 비용	556
표 X-2-5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아동특성별 이용비용	558
표 X-2-6 제 특성별 시간제 교육기관 프로그램 월평균 이용비용	559
표 X-2-7 가구소득별 시간제 교육기관 월 평균 비용	559
표 X-2-8 시간제 교육기관 프로그램 만족도	560
표 X-2-9 제 특성별 시간제 교육기관 프로그램 만족도: 5점 척도	561
표 X-2-10 시간제 교육기관 프로그램별 이용비용, 이용시간 비교	562
표 X-3-1 개별 교육 이용 현황	563
표 X-3-2 제 특성별 개별 교육 이용 여부	563
표 X-3-3 개별 교육 이용 개수	564
표 X-3-4 연령 및 영유아별 개별교육 프로그램 월 평균 비용	566
표 X-3-5 부모 및 가구 특성별 개별교육 월평균 이용비용	566
표 X-3-6 개별교육 프로그램별 월평균 이용 비용	568
표 X-3-7 개별교육 이용 아동의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월 평균 비용	568
표 X-3-8 개별교육 프로그램별 만족도	569
표 X-3-9 제 특성별 개별 교육서비스 만족도: 5점 척도	569
표 XI-1-1 영유아 가구 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577

표 XI-1-2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육료 일부 자부담 의사 및 이유	578
표 XI-1-3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보육료 일부 부담의 적절한 기준	580
표 XI-1-4	적절한 무상보육지원시간	581
표 XI-2-1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일반적 설치와 아이를 보낼만한 곳에 관한 의견	582
표 XI-2-2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의견	584
표 XI-2-3	유치원 설치에 대한 의견	585
표 XI-2-4	아이돌봄 서비스 인지 및 이용경험	587
표 XI-2-5	영아 대상 시간제보육반 인지 및 이용 경험	588
표 XI-2-6	거주지역 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인지 및 인지 경로	589
표 XI-2-7	시간제보육 이용 이유	591
표 XI-2-8	시간제보육 이용하지 않은 이유	592
표 XI-2-9	시간제보육 이용하지 않은 이유(‘이용할 필요가 없어서’ 제외)	593
표 XI-2-10	시간제보육 이용 계획	595
표 XI-2-11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1순위)	596
표 XI-2-12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1순위+2순위)	597
표 XI-2-13	시간제보육 지원액 및 지원시간의 적정성에 대한 인식	598
표 XI-3-1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관련 인식	600
표 XI-4-1	정부의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인지 여부	601
표 XI-4-2	제 특성별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인지 비율	603
표 XI-4-3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수혜 여부	605
표 XI-4-4	제 특성별 정부 비용지원 현재 수혜 비율	607
표 XI-4-5	정규적 보육료·교육비 외 지원 수혜여부 및 액수	608
표 XI-4-6	비용 지원 정책의 만족도	609
표 XI-4-7	제 특성별 정부 비용지원 정책 만족 비율	610
표 XI-4-8	제 특성별 양육수당 금액 만족도 및 적정 금액	611
표 XI-5-1	정부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 정책(1순위)	615
표 XI-5-2	정부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 정책(1+2+3순위)	616
표 XI-5-3	부모교육 경험 여부	618
표 XI-5-4	부모교육 경험 내용(중복응답)	620
표 XI-5-5	부모교육을 받은 기관(중복응답)	622
표 XI-5-6	부모교육 필요 여부	623
표 XI-5-7	희망하는 부모교육 내용	624

표 XI-5-8 원하는 부모교육 방식	625
표 XI-5-9 양육수당, 아동수당, 보육료 등 정부 지원 신청 시 부모교육 받을 의향	627
부표 IV-2-1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육아정보 제공 ..	657
부표 IV-2-2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부모상담 및 검사	658
부표 IV-2-3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부모교육 ...	659
부표 IV-2-4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놀이·체험 프로그램	660
부표 IV-2-5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장난감·도서 대여	661
부표 IV-2-6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이용경험 및 도움정도: 육아카페	662
부표 V-3-1 이용기관별 하원 시 소요시간	663
부표 V-7-1 기관유형별 도움 정도: 도움 받은 비율(매우 도움됨+도움됨) ...	663
부표 VIII-1-1 지역 및 모취업 여부별 반일제 학원 선택시 고려 사항	664

그림 목차

그림 I-3-1 가구조사 조사표 개발 추진 과정 및 일정	32
그림 I-3-2 지역별 아동 가중치 상자그림	47
그림 I-3-3 지역별 가구 가중치 상자그림	49

요약

1. 서론

1. 조사의 배경

- 보육실태조사는 보육 분야의 연도에 따른 변화와 효과를 국가 수준에서 수치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보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해보는 척도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매 3년마다 진행하는 전국 단위 보육 실태 자료 수집 과정임.
- 보육실태조사는 2004년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2009년, 2012년, 2015년을 거쳐 이번 2018년 조사는 다섯 번째로 시행된 것이며, 기존의 자료와 마찬가지로 본 조사에서 생산하는 기본 데이터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국가 통계로서의 지위를 갖게 됨.

2. 조사 목적

- 영유아가 이용 가능한 주요 보육·교육서비스의 이용 현황, 비용 부담, 만족도, 요구 등 수요자 지향적 보육·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를 산출하고, 아동연령, 가구 소득, 부모의 취업 등 제 특성별 차이를 규명함.
- 어린이집 등 보육·교육서비스 유형별로 이용, 비용 부담, 만족도, 요구 등 보육 관련 기초 통계 자료를 생산하고 아동연령, 가구 소득, 부모의 취업 등 제 특성별 차이를 규명함.
- 정부 정책이나 육아관련 각종 제도와의 연계 추진을 위한 수요자의 정책 평가, 요구 및 의견 등 기초자료를 생산함.

3. 조사방법

- 본 조사는 가구조사과 아동조사로 구분되며, 먼저 가구조사표를 이용하여 가구사항 파악을 위한 가구조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아동조사표를 사용하여 아동조사를 실시함.

- 조사내용은 가구원 특성, 가구 특성, 보육대상 아동의 가정 내 양육 및 보육교육 기관 이용 여부, 보육교육기관별 이용 실태 및 만족도, 요구 파악 등의 장으로 구성됨.
-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추출틀을 선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2018년에는 2018년 6월 말 기준 사회보장정보원에 구축된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수급 아동 DB를 표본추출틀로 선정, 활용함. 층화 기준은 정부지원유형에 따라 1차 층화, 17개 시·도별로 2차 층화하였으며, 추출방법은 층화 2단 집락추출임.
 - 17개 시도 지역으로 나누어 2차 층화 후 조사 편의상 250여개 읍면동을 추출, 최종 확정된 표본규모를 표본읍면·동별로 평균 10명의 아동 가구를 배정하여, 총 2,500가구를 표집을 목표로 함.

II. 주요 조사결과

1. 아동 가구와 가구원 특성

- 영유아 가구의 특성을 가구형태, 소득수준과 지출, 모 취업 여부를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음.
 - 영유아 가구의 가구원수는 평균 3.9명이며, 전체 영유아 가구 중 3인 가구가 36.1%, 4인 가구가 41.0%로 2015년 대비 4인 가구 비중이 감소함.
 - 영유아 가구의 구성원 형태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83.4%로 대부분 이고, 조부모 1인 이상과 부부,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10.4%임.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은 읍·면지역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편임.
 - 어머니 한부모 +자녀 가구 비율이 2.6%로 2015년 1.0%에서 크게 증가함.
 - 영유아 부모의 평균 연령은 부 39.6세, 모 36.6세이며, 35~39세 구간이 다빈도임. 영유아 가구 중 부의 이주민 비율은 1.0%, 모는 6.5%로 2015년 대비 크게 증가함. 읍·면 지역의 모 이주민 비율이 높은 편임(12.3%). 이주민 부모가 양육에 있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 자녀지도 및 교육, 자신감 결여, 돌봄 지원 부재 순임.
 - 영유아 가구의 모 취업 여부는 취업 44.2%, 휴직중 7.1%, 미취업 47.2%임. 0세 자녀가 있는 경우 모의 휴직 비율은 24.7%로 다른 연령보다 높은 편이고,

취업 비율은 17.4%로 다른 연령에 비해 낮은 편임.

- 취업한 아동 부의 근로소요시간은 1일 평균 11.2시간, 모의 근로소요시간은 1일 평균 8.9시간으로 2015년 대비 감소함.
- 자녀 출산·양육으로 경력단절 경험으로 어머니가 그만 둔 적 있는 경우 40.3%, 아버지가 그만 둔 적 있음 0.3%, 부모 모두 그만 둔 적 있음 0.4%로 어머니가 주로 자녀출산·양육으로 경력단절을 겪고 있었음.
- 경력단절 사유로는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 32.8%, ‘일보다 육아의 가치가 커서’ 31.2%, ‘육아로 인한 업무 지장 때문에’ 11.6%, ‘일이 육아에 지장을 주어서’ 9.8% 순으로 나타남.
- 부모의 육아휴직 경험을 살펴본 결과, 부모 모두 육아휴직 경험 없음이 72.1%, 어머니가 육아휴직한 경험 있음 26.0%, 아버지가 한 경험 있음 1.1%, 부모 모두 육아휴직 경험 있음 0.9% 순으로 나타남.
-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4,541,000원으로 2015년 4,030,000원 대비 증가하였음. 199만원 이하는 4.2%이며, 가장 비중이 높은 구간은 400~499만원으로 19.0%가 해당하였음. 취업 부모의 월평균 근로소득 수준은 부 3,535,000원, 모 2,064,000원으로 2015년 대비 모두 증가함.
- 전체 영유아 가구 중 취업모 가구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5,402,000원, 휴직중일 경우 4,753,000원, 미취업은 3,744,000원으로 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가구 소득 수준에 차이를 보임.
-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지출 수준은 4,021,000원이며, 모가 취업한 가구의 지출 수준은 4,526,000원으로 휴직중이거나(4,312,000원) 모 미취업 가구보다 (3,532,000원) 지출 수준이 높음.

2. 영유아 양육 특성

□ 낮 시간 동안 영유아를 기관에 맡기는 비율은 50.0%, 어머니가 돌보는 비율은 41.6%임.

- 영아의 경우 54.1%는 어머니가 돌보고, 36.2%는 기관에 맡기고, 7.1%는 조부모가 돌봄.
- 유아의 경우 63.5%가 기관을 이용하고 있음.
- 취업모의 경우 기관에 맡기는 비율이 67.4%로 높고, 11.5%는 조부모가, 2.6%는 육아전문인력이 돌봄.

- 평일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을 조사한 결과,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4~5시 이후는 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높으나, 그 사이에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비율이 높음.
 - 0세에는 모든 시간대에서 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나타남.
 - 1세부터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최고 70.6%로 증가하고, 4세부터 어린이집보다 유치원 이용 비율이 더 높아짐.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비율이 낮아지는 오후 시간대에는 혈연이나 비혈연이 돌보는 비율이 증가함.
 - 취업모 자녀의 경우 비혈연 개인양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나타나고,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침 혹은 오후 늦은 시간에 혈연 개인양육서비스 이용 비율이 비교적 높음.
 - 또한 미취업모 자녀에 비해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높음.
- 부모의 양육특성은 다음과 같음.
 - 평일 하루 동안 자녀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어머니는 평균 8시간 24분, 아버지는 평균 3시간 36분을 자녀와 함께 지내며, 어머니는 2015년 대비 감소하고 아버지는 증가함.
 - 주말에는 어머니는 평균 12시간 36분, 아버지는 8시간 54분으로 증가하며, 자녀의 연령이나 가구 소득 등 여건에 상관없이 주말에는 자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
- 부모의 부정적 3가지 양육정서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자녀 양육에 있어 혼란스러운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는 응답 10.2%, 그렇다는 응답이 43.9%로 2015년에 비해 증가하였음.
 - 둘째,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러운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는 응답 3.3%와 그렇다는 응답 31.1%로 2015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음.
 - 셋째, 자기계발을 포기할 때가 많은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 10.8%, 그렇다 27.7%로 2015년에 비해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다소 줄었으나 그렇다는 응답은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부정적 양육정서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자녀수가 많을수록, 어머니가 미취업인 경우 자녀가 귀찮고 짜증스럽게 느끼는 정도가 높았음.

- 영아 자녀일 때와 가구원수가 2인일 때 자녀 양육 시 혼란을 경험하는 정도와 귀찮고 짜증스럽게 느끼는 정도가 높았음.
 - 도시지역 거주자가 읍·면 지역 거주자에 비해 3가지 부정적 양육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가구원수 2인), 미취업모 가구 등에 대한 자녀 양육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 자녀의 아버지가 평소 자녀 돌봄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2012년과 2015년에 비해 아버지의 자녀 돌봄 참여 정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음.
- 한부모 가구의 자녀 돌봄 참여 정도는 낮게 나타났는데, 한부모가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 때문인 것으로 여겨짐.
 - 부부의 자녀양육과 가사자녀양육에서의 분담 정도를 살펴본 결과, 자녀양육에서는 7.21(부인):2.79(남편)로 나타났고, 가사에서는 7.45(부인):2.55(남편)로 어머니가 자녀양육과 가사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령별 선호하는 양육형태에 관하여 살펴본 결과, 만2세 미만의 경우에는 가정양육을 선호하였고, 만3세 이상에서는 기관보육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녀 돌봄, 경제적 지원, 가사 지원 등에 있어 부모 이외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응답자의 55.2%는 자녀를 직접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자녀의 외조부모 22.1%, 친조부모 15.7% 등의 순이었음.
 - 경제적 지원에 있어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83.9%)을 제외하고는 자녀의 친조부모 8.7%, 외조부모 5.9% 등의 순이었음.
 - 가사 지원에 있어서 자녀의 외조부모가 가장 많은 도움을 준다는 응답이 13.6%, 친조부모 9.2%로 경제적 지원의 양상과는 차이를 보임.
 - 전반적으로 자녀 돌봄, 경제적 지원, 가사 지원 등에서 2012년도와 2015년도에 비해 도움 인력이 줄어들었음.
 - 자녀 돌봄, 경제적 지원, 가사 지원 등에서 2012년도와 2015년도에 비해 외조부모나 친조부모가 도와준다는 비율이 조금 높아졌고, 아빠의 형제자매, 이웃, 엄마·아빠 친구가 도와준다는 응답 비율이 낮아졌음.

-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지율은 43.4%,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인지율은 73.5%임.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장난감·도서대여에 대한 인지율이 87.5%로 가장 높음.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이용자 중 50.7%는 주로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하였고, 2015년도에 비해 사이트 이용 경험에 대하여 만족하는 비율은 약 6% 정도 상승하였음.
- 장애 진단 시기 및 진단 계기
 - 출생~12개월에 64.1%가 장애로 진단 받은 것으로 나타나서 장애에 대한 조기 진단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 장애 진단의 가장 결정적인 계기로는 부모의 판단이 50.4%로 가장 많았고, 영유아 건강검진 13.4%, 원장 및 교사 권유 12.6%로 나타났음.
- 장애아의 기관 이용
 - 장애 영유아가 기관을 다니지 않는 경우가 28.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유치원 특수학급 20.0%, 특수학교 유치원(부) 13.6%, 유아특수학교 13.2% 순으로 나타났음.
 - 어린이집 이용 관련하여서는 장애전문 어린이집 11.9%, 일반 어린이집에 11.1%가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응답자의 14.4%는 추가 출산 계획이 있으며, 최연소 자녀가 영아인 경우 22.0%로 상승함.
 - 추가 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임신 중(29.0%)을 제외하고 1년~2년 이내라는 응답이 31.8%로 가장 높음.
 - 추가출산 계획이 없는 경우, 그 이유로는 ‘현재 자녀로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6%, ‘영유아기 양육비용 부담’ 16.4%, ‘자녀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8.2%, ‘취학 후 교육비 부담 때문에’ 7.6%, ‘부모 나이가 많아서’ 6.4%, ‘직장생활로 바빠서’ 5.7% 순으로 나타남.
-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원수가 2인일 때, 어머니가 미취업인 경우 자녀가 귀찮고 짜증스럽게 느끼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 가정 양육을 주로 하는 가구 등에 대한 적극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 과거에 비해 아버지 자녀 돌봄 참여 정도가 높아지고 있고, 아버지의 참여가 요구되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위한 남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에 관한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함.
- 만2세 미만 영아 자녀 부모들에게는 가정에서의 돌봄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안하고 유아 부모를 위해서는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기관 보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함.
- 가정 내 양육지원이 부족함을 나타내었던 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질 높은 보육 기관의 확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요구함.
- 읍·면지역에서, 가구소득이 199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지도가 낮았던 결과를 토대로 취약지역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의 프로그램 지원 방안이 더 요구되는 것을 시사 받음.
- 장애에 대한 부모의 지식이나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엿볼 수 있으나 장애아를 위한 물리적 및 인적 환경이 못 미쳐서 이러한 현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받음.

3.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및 요구 개요

- 최초 기관 이용은 대부분(90.9%) 어린이집을 통해 이뤄지고 있었으며, 최초 기관 이용 월령은 평균 22.7개월로 12~23개월 사이가 44.3%로 가장 많았으며, 24~35개월이 26.7%로 다음을 차지함.
- 기관을 처음 이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28.4%)이며, 사회성 발달(23.4%), 전인적 발달을 위해(22.1%), 양육부담 경감(16.7%) 순임.
 - 모가 미취업인 경우 사회성 발달(32.9%)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모가 취업 중인 경우에는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49.4%로 가장 높아 차이를 보임.
- 자녀의 연령별로 이용한 보육·교육서비스 등의 차이가 발견됨.
 - 어린이집은 1세 이상 취학전까지 꾸준히 이용되나, 특히 2~3세(71.3%), 3~4세(67.0%)의 이용률이 높고, 유치원은 5세 이용률이 49.9%로 증가함.
- 영유아중 현재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비율은 76.1%임.

- 현재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중은 60.8%, 유치원 35.4%, 반일제 학원 3.8%로 조사됨.
 - 유아들의 연령은 높아질수록 유치원 이용 비중이 높아지고 어린이집 이용 비중이 낮아짐.
- 이용 기관별로 등하원 시간을 제외한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어린이집 7시간 24분, 유치원 7시간 12분,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6시간 12분으로 유치원·어린이집은 유사하나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의 이용 시간이 짧았음.
-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을 선택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집과의 거리가(26.8%)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프로그램 14.1%, 주변의 평판 12.8%, 국공립 여부 6.4% 등임.
- 영유아를 돌봐 줄 사람이 있다면, 기관 이용을 지속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기관 이용을 지속하겠다는 응답이 84.0%였음.
 - 아이의 연령별로는 영아의 경우에 돌볼 사람이 있다면 아무데도 보내지 않겠다는 응답이 21.9%로 유아의 경우 9.5%와 대조됨.
- 영유아의 보육·교육기관 등원 시간은 8:31~9:00이 4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하원 시간의 경우에는 15:01~16:00가 35.0%로 가장 많았음.
 - 이용 기관별로 희망 등원시각은 현재 등원 시각처럼 8:01~9:30에 집중되어 있고, 하원 시각은 15:01~17:00 사이에 집중되어 있음.
 - 단, 오전 8시 이전의 등원 희망과 일반적인 경향보다 늦은 시간대의 하원 희망 비율은 2015년 대비 모두 증가함.
 - 영유아들의 등원 방법은 기관차량을 이용한 경우가 48.6%로 절반가량이었으며, 보호자와 걸어서 가는 경우가 30.0%, 가족과 자가용으로 가는 경우 20.4% 순임.
- 전체 영유아의 월 보육·교육기관 이용비용은 평균 149,600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3.4%에 해당하여 2015년(2.7%) 대비 증가함.
 - 한편, 월 보육·교육기관 이용비용을 지불한다고 응답한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지불액 평균은 170,200원이며 가구소득 대비 3.8%에 해당함. 전체 영유아의 평균 이용비용 대비 20,600원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보육료·교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30.3%(매우 부담 4.4% + 부담 25.9%)였

으며,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2%(부담 안됨 14.6% + 전혀 부담 안됨 16.6%)였음.

- 더 좋은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있다면, 비용을 더 많이 내더라도 이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40.5%로 2015년 29.6% 대비 증가하였으며, 최대 지불 가능액은 평균 114,400원임.
-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는 평균 2.5개로, 특별활동 수는 3개가 가장 많아 19.8%를 차지했으며, 5개 이상인 경우 19.1%, 4개인 경우가 13.7% 순임.
 - 아동당 특별활동 총 비용은 5~10만원 미만인 경우가 41.5%로 가장 많았으며, 3~5만원 미만인 경우가 24.0%, 10~15만원 미만인 경우가 13.5% 순임.
- 어떤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능이 3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체육 관련 26.2%, 영어 21.6%,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12.8% 순임.
- 현재 이용하는 기관의 인력, 시설, 서비스, 비용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비중이 80.9%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만족한다는 비중이 80.9%로 유치원 81.2%에 비해 약간 낮았음.
 - 이용 기관의 각 특성 중에서 만족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은 교직원으로 88.2%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생활지도 86.9%, 교육내용 86.1%, 안전관리 84.8%, 시설설비 81.0% 등이 80%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한 항목임.
 - 기관 이용이 양육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7.0%, 취업 및 구직 19.4%, 후속자녀출산 10.5% 순이었음.
- 현재 이용하는 기관의 개선 사항으로는 교육내용 다양화 25.5%, 인력증원 22.2%, 인력의 질 제고 14.9%, 안전관리 강화 11.2%, 노후시설 정비 8.5%, 비용 절감 8.3%, 내부환경 개선 6.0% 순으로 응답됨.

4. 어린이집 이용 및 요구

- 어린이집 이용 유형은 민간어린이집 이용률이 51.9%로 가장 높고, 이어 국공립 어린이집 21.7%, 가정어린이집 14.7% 등의 순 임.
- 이용시작 시기(월령)는 어린이집이 평균 22.3개월임.
 - 취업모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시작 시기가 평균 20.7개월, 미취업모

자녀의 경우 평균 24.3개월로 나타나, 미취업모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이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됨.

- 이용지속 기간은 어린이집이 평균 21.8개월임.
- 현재 이용 기관을 다니는 이유는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가 27.6%로 가장 높고, 이어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27.4%,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23.1%의 순임.
- 이용 기관별로 평균 이용시간은 어린이집 7시간 24분이며 희망이용시간 평균은 8시간 30분이었으며, 구간별로 살펴보면 7~8시간이 22.7%로 가장 높음.
- 영유아의 어린이집 등원 시간은 8:31~9:00이 3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하원 시간의 경우에는 15:01~16:00가 39.6%로 가장 많고, 이어 16:01~17:00 34.0% 등의 순이었음.
 - 이용 기관별로 희망 등원시각은 현재 등원 시각처럼 8:31~9:30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8:31~9:00를 희망하는 응답이 가장 높음.
 - 하원 시각은 15:01~16:00, 16:31~17:00 사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15:01~16:00 대가 가장 많은 24.9%임
 - 영유아들의 등·하원 방법은 기관차량을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보호자와 걸어서 가는 경우, 가족과 자가용으로 등의 순임.
-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1일 12시간, 주6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는 응답이 전체의 29.5%로 미인지율이 높음.
 - 영아반 종일반 또는 유아반을 이용하는 가구 중 12시간보다 적게 이용하는 경우 그 이유로 ‘12시간까지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 없어서’(37.7%)를 가장 높게 꼽았고, 이어 장시간 맡기면 아이가 힘들어해서 22.7%, 가정 내에서 돌봐 줄 사람이 있어서 21.9% 등의 순임.
 - 다니는 어린이집이 12시간보다 짧게 운영해서는 14.7%임.
- 어린이집 맞춤형 이용률은 21.6%이고, 맞춤형을 이용할 경우 긴급보육바우처 활용 경험률은 64.7%임. 영아 중에서는 37.8%가 맞춤형을 이용함.
- 전체 영유아의 17.4%가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내지 않으며 차액 보육료도 89.9%가 내지 않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 61,000원을 월 평균 보육비용으로 지불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민간과 법인·단체 등이 비교적 높은 74,100~75,400원 수준에서 부모가 매달 보육비용을 지불함

- 이용기관에 지출하는 항목별 월평균 추가비용(납부현금)의 평균금액은 특별 활동비 39,700원, 현장학습비 6,700원, (연장보육)급간식비 2,100원, 차량 운행비 3,800원, 교재비 3,300원, 시도특성화비 800원, 기타비용 300원임.
- 영유아 기관 입소 비용(입학준비금, 입학금) 평균 금액은 46,200원임.
 - 입학금은 2015년(52,400,원)보다 2016년(42,400원)에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후에는 조금씩 증가함.
- 보육료·교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20.6%(매우 부담 2.3% + 부담되는 편 18.3%)였으며,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4.7%(부담 안됨 16.2% + 전혀 부담 안됨 18.5%)였음.
 - 응답자 중 63.7%는 정부의 비용 지원 없이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더 좋은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있다면 비용을 더 많이 내더라도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42.5%로 없다는 응답 57.5%보다 낮았음.
 - 부담 가능한 추가 비용의 평균 금액은 월 최고 106,500원 임.
- 이용기관의 항목별 만족도는 모든 항목에서 만족한다는 비율이 73% 이상이고, 평균점 또한 모두 4점 내외로 만족도가 높음 편임.
 - 보육계획표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84.3%로 가장 높고(평균: 4.0점), 부모 교육자료와 부모참여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73.1%(평균: 3.9점)로 가장 낮음.
-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약 81.3%가 올해 건강검진 받았고, 85.2%가 사전 안내도 받았다고 응답함.
- 이용기관의 서비스별 제공여부 및 빈도로 '양방향 알림장'은 매일 제공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보육/교육 계획표'와 '가정통신문'은 매주 1회 제공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 '급식/간식 식단'은 월 1회 제공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자녀발달평가 결과지'는 분기 1회제공한다는 응답이 높음. 한편, '부모교육 자료'는 월1회와 연1~2회 제공한다는 응답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고, '부모상담'과 '부모참여 프로그램'은 연1~2회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 이용기관의 서비스별 만족도의 모든 항목의 평균점이 3.8~4.3점 내외로 만족하는 편임.
 - 만족한다(매우 만족+만족)는 응답의 비율은 가정통신문과 보육계획표에서 83.3~4%로 가장 높았던 반면, 부모참여프로그램에서 73.1%로 가장 낮음.
- 이용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이용아 평균 3.4개이고, 이용 프로그램 수가 3개(22.7%), 5개 이상(11.1%)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고, 4개 13.5%, 2개 13.7% 등의 순임.
 -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9.3%임.
- 특별활동 총 예능(미술, 음악)의 이용률이 61.5%로 가장 높고, 이어 체육관련(60.4%), 영어(45.1%) 등의 순임.
- 아동 당 특별활동 총 비용의 평균은 56,100원이며 5~10만원 미만인 경우가 46.5%로 가장 많았으며, 3~5만원 미만 28.5%, 2~3만원 10.7%, 10~15만원 미만이 8.7%등의 순임
 - 특별활동별 평균 비용은 영어가 월 19,400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 예능(미술, 음악) 19,100원, 체육관련 17,100원, 언어 15,500원, 수학, 과학 관련 14,500원의 순임.
 - 특별활동 만족도는 모든 활동에 대한 평균점이 3.9점 내외로 만족하는 편인 가운데, 만족도 점수 평균은 예능과 체육이 4.0점으로 가장 높고, 나머지는 3.9점임.
 - 어떤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예능'이 34.0%로 가장 높고, 이어 체육 29.2%, 영어 20.5% 등의 순임.
- 어린이집은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을 위한 대체프로그램 운영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41.3%로 대체프로그램 운영의무를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음
- 긴급상황 시 아이를 돌보는 주체로는 부모가 74.9%로 가장 높고, 이어 혈연 23.2%, 비혈연 1.0% 등의 순임.
 - 미취업모 가구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돌본다는 응답이 높고(91.3%), 취업모 가구에서는 조부모 및 친인척이 아이를 돌본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35.3%).

- 아이가 아플 때 아이를 돌보는 주체로는 부모가 77.9%로 가장 높고, 이어 혈연 20.3%, 시간제 보육 1.1%, 비혈연 0.4% 순 임.
 - 미취업모 가구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돌본다는 응답이 높고(93.5%), 취업모 가구에서는 혈연이 아이를 돌본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31.6%).
- 최근 1년 이내 시간제 보육 이용 전체 경험률은 3.6%임. 시간연장보육 경험률 4.5%, 휴일보육 1.0%, 24시간 보육 0.1%의 순 임.
 - 시간제 보육 이용자의 57.8%는 어린이집, 42.2%는 육아종합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았다고 응답하였고, 평균 이용시간은 약 200분 임.
 - 시간제 보육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68.7%(매우+만족)이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77.5%(매우+어느 정도)로 높게 인식함.
- 어린이집·유치원 입학 전 대기신청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3.5%임
 - 지역 규모가 클수록 대기경험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음.
 - 대기 기간은 평균 7.6개월이고, 5~10개월 미만 기다렸다는 응답이 22.3%로 가장 높음.
 - 입소 대기신청 기관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43.9%로 가장 높고, 민간 어린이집(25.1%), 가정어린이집(13.2%) 등의 순으로, 어린이집 대기 신청률이 높음.
 - 어린이집 입소대기 경험자는 대체로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을 통해 대기 신청을 함(85.4%).
 -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 이용자의 만족도는 80.0%로 높은 편이며(매우+대체로 만족), 만족 이유로는 투명한 입소자 관리(46.2%), 우선순위 임의조정 방지(32.2%), 대기기간 단축(16.4%) 순임.
- 초등취학 전까지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냄'이 34.7%로 가장 높고, 이어 '유치원에만 보냄' 32.7%, '어린이집만 보냄' 31.0% 순 임.
- 국·공립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 이용 희망 이유로는 두 곳 모두 '신뢰가 가서' 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이어 비용이 저렴해서가 그 뒤를 이음.
- 어린이집 이용 수요는 영유아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반면, 유치원 이용 수요는 영유아 연령과 비례함.
- 이용기관의 항목별 만족도는 모든 항목에서 만족한다는 비율이 80.9% 이상이고, 평균점 또한 모두 4.0점 내외로 만족도가 높음 편임.

- 교직원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88.8%로 가장 높고(평균: 4.21점), 부모참여 및 교육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73.9%(평균: 3.90점)으로 가장 낮음.
- 어린이집에서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한 결과, 교육내용 다양화가 47.8%로 가장 높고, 인력의 질 제고 37.4%, 인력 증원 35.9% 등의 순임.
- 개선사항으로 인력의 질 제고는 민간어린이집(40.0%)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내부 환경 개선은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24.5%)에서, 안전관리 강화는 사회 복지법인 어린이집(34.9%)에서 높음. 한편, 어린이집에서 교육내용 다양화가 시급하다는 응답은 직장어린이집(70.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기관 이용이 양육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50.6%로 가장 높고, 취업 및 구직이 22.1%로 뒤를 이음.
- 각 항목별 도움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도움 정도를 묻은 결과, 모든 항목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90% 이상이고 평균 점수도 4점을 상회하여 '도움' 이상의 수준임.
- 어린이집 이용 가정 대부분(87.8%)에서 정부가 가정양육수당을 인상하더라도 어린이집을 계속 보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지에 대해, 공공형이 아닌 어린이집 57.4%, 공공형 어린이집 11.8%, 서울형 4.1%의 순임.
-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응답자 74.9%는 기관 선택 시 공공형 어린이집이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함.
- 공공형 어린이집의 가장 큰 장점으로서는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36.9%로 가장 높음.
- 열린어린이집 이용률은 24.4%이고, 이용자의 73.6%가 열린어린이집에 대해 만족함(매우+대체로).
-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응답이 75.2%이고, 어린이집 선택 시 평가인증이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81.2%(많이+어느 정도 영향)로 평가인증이 어린이집 선택 시 중요한 고려 요소임이 확인됨.
- 아이행복 카드를 결제 빈도로 매달 결제가 97.2%이고, 결제 방법으로는 ARS가 33.3%로 가장 높고 카드 전달 30.8%, 인터넷 28.2% 등의 순임.

-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아동학대 예방 효과가 있다(어느 정도+매우)는 응답이 90.9%로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함.
 - CCTV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전혀 문제 될게 없다는 응답이 과반(59.90%)으로 설치 시 인권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응답(34.8%)보다 높음.
- CCTV 영상정보 열람 신청 방법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43.9% 임
 - 인지자 중 열람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약 5.1%임.

5. 유치원 이용 및 요구

- 본 조사에서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유아는 총 1,005명(유치원 이용 영아 제외)으로 전체 아동의 29.8%가 국·공립유치원, 70.2%가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 이용률은 3세 24.7%, 만 4세 32.2%, 만 5세 43.0%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치원 이용률이 높아짐.
 - 유치원 이용 아동의 가구 특성을 살펴보면, 모가 취업하고 있는 비율은 47.4%, 휴직자를 포함하면 50.4%였으며,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지역의 유치원 이용률이 43.9%로 가장 높았음.
- 유치원 이용 이유는 '전인발달을 위해서'가 3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24.3%,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18.5%,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7.0% 순임.
 - '전인발달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에 관계없이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에 응답한 비율은 5세가 25.6%로 높았음.
- 현재 이용 유치원을 최초로 이용한 시기를 살펴보면, 평균 48.0개월경이었으며, 국·공립유치원(50.5개월)보다 사립유치원(46.9개월)의 이용이 다소 빨랐음.
 - 현 유치원의 이용 기간은 평균 16.9개월이었으며, 국공립유치원 15.7개월, 사립유치원 17.4개월로 사립유치원 재원기간이 더 길었음.
- 유치원의 등·하원 시각을 살펴보면, 전체의 3.7%가 8시 이전에 등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시 31분 이후에 유치원에 남아있는 비율은 8.0%임.
 - 유치원 이용 시간은 평균 7시간 12분이었으며, 읍·면지역이 대도시지역보다 36분 정도 길게 나타났으며, 취업모 자녀의 이용시간이 7시간 42분으로 미취업 6시간 42분보다 1시간 정도 길게 나타남.

- 유치원을 선택한 기준을 질문한 결과, '집과의 거리'에 응답한 비율이 23.1%로 가장 높았으나 '프로그램'에 응답한 비율도 21.6%로 높게 나타남.
 - 국·공립유치원은 '국공립여부'가 25.0%로 가장 큰 선택 기준이었으며, 다음으로 '집과의 거리'가 20.3%, 다음으로 '비용'이 12.6%였으나 사립유치원은 '프로그램'이 26.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집과의 거리' 24.3%로 나타나 차이를 보임.
- 유치원 이용 아동이 참여하는 방과후 특성화활동의 평균 개수는 2.9개였고, 참여하는 활동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로 2015년 대비 감소하였음.
 - 방과후 특성화활동의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예능관련이 65.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체육관련 62.0%, 영어 49.0%, 언어 38.5%, 수학/과학관련 37.4%, 기타 10.5% 순임.
- 아이행복카드의 결제 빈도와 결제 방법에 대해 알아본 결과, 매달 결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6.3%로 분기(23.7%) 보다 높았고, 결제 방법으로는 유치원에 카드 전달하여 결제한다는 비율이 61.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유치원 이용 아동이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월평균 교육비는 238,800원이었으며, 순교육비는 135,600원, 추가비용이 103,300원으로 조사됨.
 -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월소득 199만원 이하 가구는 월평균 143,5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비용을 제외한 순교육비는 93,800원으로 가장 낮았음.
 - 유치원의 월평균 추가 교육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특성화활동비 66,9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재비 9,100원, 급간식비 8,400원, 방과후과정비 6,800원, 현장학습비 및 행사비 6,500원, 차량운행비 5,300원 순임.
 - 유치원 교육비의 부담 정도에 대해 알아본 결과, 부담됨(매우부담+부담되는 편)이 42.4%, 적당 29.0%, 부담되지 않음(전혀부담 안됨+부담되지 않음) 28.5% 순으로 2015년 대비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증가함.
- 유치원 이용과 관련한 항목별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생활지도(87.9%)였으며, 다음으로 교직원(87.0%), 교육내용(87.0%), 안전관리(85.8%), 시설설비(83.2%), 급간식관리(80.9%), 건강관리(80.3%), 주변환경(79.2%), 부모참여 및 교육(74.7%), 비용(65.3%) 순임.
 - 전반적인 만족도는 4세가 4.0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규모별로는 대체

로 읍·면지역 유치원의 만족도가 도시지역보다 높게 나타남.

- 유치원의 개선 사항으로는 ‘교육내용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5.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력증원’(20.2%), 인력의 질 제고(15.5%), 비용절감(11.9%), 안전관리강화(10.2%), 노후시설 정비(7.8%), 내부환경 개선(4.7%) 순으로 나타남.
- 양육수당 인상 시 유치원 이용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계속 다니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92.0%로 가장 높았고, ‘그만두고 다른데 보냄’ 3.3%, ‘그만두고 집에서 돌본다’고 응답한 비율은 3.2%, ‘모르겠음’은 1.5%였음.

6.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및 요구

- 현재 반일제 이상 기관을 다니고 있으며, 학원, 체육 센터, 선교원 등을 이용하는 아동은 조사대상 중 총 68명에 해당함.
 -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이유는 아이의 전인적 발달 55.0%, 사회성 발달 14.7%, 특기 교육 11.2%, 초등학교 준비 7.1% 등임.
 -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선택 시 기관의 프로그램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함.
 - 하루 평균 6시간 12분을 이용하고 있음.
-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및 특별활동 형태는 다음과 같음.
 - 부모서비스 중 보육·교육계획표(매주 1회 61.4%)와 가정통신문(매주 1회 65.2%) 가장 자주 제공되고 있음.
 -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에서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37.7%이며, 참여하는 특별활동 수는 평균 1.4개임.
 - 프로그램 중 체육 관련 프로그램 참여 비율이 가장 높고(27.9%), 예능 관련도 유사함(27.4%).
-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의 월평균 전체 비용은 733,900원이며 가구소득 대비 12.8%에 해당함.
 - 기관 이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에 대해 부담되는 편이다 62.3%, 매우 부담된다 8.8%로 나타남.
 -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54.3%이며, 최대 추가 부담 가능액은 월평균 199,900원으로 응답됨.

-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으로 인한 도움 정도는 다음과 같음.
 - 양육부담 완화에 도움이 된 정도는 학업 및 취업훈련이 4.8점, 취업 및 구직 4.6점, 후속자녀출산 4.6점, 양육부담 완화 4.3점 임.
-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만족도 및 요구는 다음과 같음.
 - 기관에 만족하는 비율은 54.0%이며, 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25.7%로 2015년 대비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22.8%에서 증가함.
 -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한다는 비율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직원, 시설설비, 생활지도에 대한 만족도도 80% 이상이며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부분은 '비용'임(56.7%, 3.69점)
 - 가장 개선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내용 다양화가 33.9%로 가장 많았으며, 인력의 질 제고(20.0%), 안전관리 강화(10.0%), 노후시설 정비(9.4%) 순으로 나타남.

7.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아동은 16.3%이며, 단독 이용 비율은 4.7%, 기관 이용을 병행하는 아동은 11.6%임.
 - 개인양육지원서비스 단독 이용 유아는 1.2%, 영아는 10.0%로 영아가 높음. 반면 기관 병행 유아는 14.1%, 영아는 7.7%로 유아가 더 높음. 개인양육 지원서비스 이용 0세 중 94.4%는 개인양육을 단독으로 이용하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기관 이용 병행 비율이 높아짐.
 - 서비스 제공자가 돌보는 자녀수는 평균 1.8명으로 2015년(1.6명) 대비 증가함.
 - 기관 이용을 하지 않고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너무 어려 적응에 애로가 있음'이 대부분임. 영아는 '너무 어려서 적응이 어렵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유아는 '기관이 원하는 시간 이용이 어려움'이 높은 편임.
-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는 다음과 같음.
 - 서비스 제공자는 조부모가 95.7%로 대부분임. 동거 조부모는 25.8%, 비동거 조부모는 69.9%로 비동거 조부모 지원 비율이 높으며, 2015년의 동거조 부모가 높았던 결과와 대비됨.
 - 취업모의 경우, 영아의 비동거 외조부모 지원 비율이 52.5%로 가장 높음.
 -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부모 중 보육·교육기관 병행 이용은 70.0%,

혈연 단독 이용은 26.5%임. 0세아의 단독 이용비율은 87.1%로 높고, 취업 모가 기관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비율이 높음.

- 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시간은 불규칙하게 이용이 28.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관 하원 후~부모 퇴근전'이 27.2%, '출근 후 등원전, 하원 후 퇴근 전' 23.5%, '하루종일' 17.7% 순임.
- 하루 종일 혈연 양육지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영아 24.6%, 유아 12.2%로 영아가 높음.
- 미취업모는 필요시 불규칙하게 이용이 73.4%로 높으나 취업모는 '하원 후 퇴근 전'이 34.5%로 가장 높았음.
-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소는 아이집이 76.4%로 높음.
- 서비스 비용 지불을 하지 않는 비율이 48.9%로 가장 높으나 2015년 대비 감소함. 정기적 현금지불 38.5%, 부정기적 현금지불 9.5%, 현물 지불 3.1% 순임. 지불하는 비용은 평균 703,000원으로 2015년 622,000원 대비 증가함. 미취업모는 별도의 비용 지불을 하지 않는 비율이 81.3%로 높은 편이나 2015년 대비 감소함. 비동거 외조부모에 지불하는 비용이 평균 753,000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비동거 친조부모가 680,000원으로 높은 편임.

□ 비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는 다음과 같음.

- 비혈연 양육지원자는 민간육아도우미 62.3%, 공공 아이돌보미가 26.9%, 이웃·지인 10.8% 순임.
- 비혈연 개인양육지원만 이용하는 비율은 13.7%로 대부분 혈연 인력, 또는 기관을 병행 이용함.
- 이용 시간대는, 부모가 출근하고 없는 시간대에 아동의 등·하원 전후로 이용하는 비율이 29.7%로 가장 높고 아동 하원 후~부모 퇴근 전이 25.1%, 출근 후 등원 전 16.9%, 불규칙 16.7%, 하루종일 11.5% 순임.
- 주당 평균 이용 시간은 21.6시간으로 영아 30.2시간, 유아 16.0시간임.
- 비혈연 양육지원자의 결근은 거의 없음이 71.4%임. 결근 시 대처 방법은 조부모 및 친인척 부탁 42.1%, 부모가 돌봄 41.9% 순임.
- 대부분 비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자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정기적 지불이 87.2%로 대부분임.

- 지불 비용은 월 평균 791,000원임. 민간육아도우미의 월 평균 비용이 1,016,000원으로 가장 높고, 이웃·지인 78.1만원, 아이돌보미 27.1만원 순임.

8. 시간제 교육 기관 및 개별교육 이용

□ 시간제 교육기관 및 개별교육 이용 비율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체 영유아 중에서 체육 관련 시간제 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가 1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예능 10.9%, 언어 3.3%, 수학/과학 2.9%, 영어 2.6% 순으로 나타남.
- 유아인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대도시인 경우, 모 취업인 경우, 반일제 이상 학원에 다니는 경우,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때 비교적 시간제 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임.

- 개별교육 중 학습지 이용 비율이 1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어(2.6%) 보다는 유아(25.3%)의 이용률이 높고,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아동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유치원이 49.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어린이집 32.6%, 이용 안함 11.9%,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영어학원 등) 5.7% 순임.

- 응답 사례수가 적지만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의 대다수는 영어(67.9%)였고, 휴직중인 모의 자녀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37.2%로 가장 높았음.

□ 전체 응답자의 22.3%가 시간제 학원을 이용한다고 답하였으며, 이용 프로그램의 수는 1개가 13.6%, 2개 5.5%, 3개 1.7% 순임.

- 이용 프로그램의 수는 연령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4세 이상은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지역의 경우,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모 취업인 경우에 시간제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음.

□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아동의 프로그램 중 체육 프로그램의 참여 비율이 51.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예능 49.0%, 언어 14.7% 수학 13.0%, 영어 11.7% 순임.

- 연령에 따라서는 0세를 제외하고 체육과 예능 프로그램 참여 비율이 높은 경향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0세의 경우에는 예능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45.9%로 높은 것이 특징적임.

- 초등학교 입학 나이가 가까워질수록 한글과 같은 언어 프로그램 참여가 높아지고 5세에는 초등학교 준비를 위한 한글과 수학프로그램 참여가 높아짐.
 - 시간제 교육기관의 주당 이용시간은 평균 3.7시간으로 2012년 4.03시간에 비해 짧아졌지만, 2015년 3.6시간과는 비슷함.
 - 시간제 교육기관의 각 프로그램별 부모부담 비용을 살펴보면, 영어가 119,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체육 102,500원, 예능 100,200원, 수학/과학 91,000원, 언어 79,300원 순이었으며, 시간제 교육기관의 이용비용은 월 평균 145,200원으로 나타남.
 - 시간제 교육기관 프로그램 만족도를 살펴보면, 수학/과학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4.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체육, 영어가 4.0, 예능 3.9점으로 만족하는 정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학습지, 개별 또는 그룹지도를 이용하는 아동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학습지 이용 비율이 8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개별 또는 그룹지도 12.0%, 교재교구 활용 11.5%, 통신교육 2.1% 순임.
- 서비스별 평균 이용 개수는 학습지가 1.6개로 가장 많았음.
 - 개별교육 서비스의 이용 개수를 살펴보면, 개별교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80.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1개 이용하는 경우가 10.6%, 2개 6.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개별 또는 그룹지도 프로그램이 월평균 148,5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재교구활용 94,300원, 통신교육 80,900원, 학습지 74,900원 순으로 나타남.
 - 개별교육 서비스의 제 특성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3.7점~4.1점 범위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고, 2015년에 비해 학습지와 통신교육의 만족도는 동일한 반면, 개별 또는 그룹지도, 교재교구 활용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증가함.
- 어린 영유아들이 시간제 교육기관이나 집에서 학습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대신 학교 운동장과 같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뛰놀 수 있는 안전한 공간 마련 및 성인의 보호 등을 수반하는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영유아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을 포함한 미디어 매체 노출을 가급적 줄이는 방안 및 이러한 노출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9. 보육정책 관련 인식

- 영유아부모들은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성에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7점 만점 중 6.3점), ‘육아지원 서비스 질 제고’(6.2점), ‘남성의 육아 참여 지원 확대’(6.2점)를 응답하였음.
-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를 일부 자부담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44.0%에 해당하였고, 보육료 부담을 할 적절한 기준으로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가장 적절하다는 응답이 44.0%로 가장 높았음. 이외 ‘가구소득’ 35.1%, 취약계층 여부 20.8% 순으로 응답됨.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급에 대해서는 유치원이 상대적으로 더 부족하다고 인식되며, 2015년 대비 기관이 충분하다는 인식이 감소하였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응답은 증가함.
 - 근거리 내에 보낼 기관이 ‘충분하다’는 응답률은 어린이집의 경우는 45.0%, 유치원은 27.7%이며, 아이를 보낼만한 기관이 1~2곳 있다는 응답률은 각각 60.2%와 54.1%로 조사됨.
 - 어린이집 수가 부족하거나 아이를 보낼만한 곳이 없다는 응답률은 영아(14.9%), 중소도시지역(15.1%) 그리고 기관 미이용 가구(22.3%)에서 더 높게 나타남.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현재+과거 이용)은 시간제 돌봄 7.1%, 영아종일제 돌봄 6.0%이며,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은 1.4%에 불과하였음.
- 시간제 보육반을 전혀 모른다는 비율이 35.9%로 인지도가 낮고,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는 7.1%에 불과함.
 - 거주지역 내 시간제보육기관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25.9%이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알게 된 경로는 아이사랑홈페이지(31.6%), 지인의 소개 21.4%, 시간제 보육제공기관 홍보물(19.0%), 맘카페, 인터넷, 모바일 매체 등 14.8%, 보건복지부·지자체 홍보물 8.5% 순으로 나타남.
 - 시간제 보육은 긴급상황 발생 시 주로 이용하였으며(40.7%), ‘아이가 어려 종일 보육 기관 이용이 부담되어’ 27.9%, ‘자녀양육 이외 개인 시간이 필요해서’ 24.4%, 아이가 현재 종일제 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서 4.5% 순으로 응답됨.
 - 시간제보육 미이용 이유는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가 71.0%이나, 이외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없어서’가 8.4%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
 - 향후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겠다는 경우는 19.8%이고, 이용계획 없다는 응답이

56.4%임.

- 현재 시간제보육 지원액 및 지원시간에 대해서는 각각 84.0%, 83.3%가 적절하다고(매우적절+적절) 인식하였음.
- 보육·교육비용 지원 제도별 인지율(대략 앎+잘 앎)은 가정양육수당 95.5%, 0-2세 보육료 지원 94.9%,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교육비 지원이 86.1%이고, 0-2세 영아 맞춤형보육료 지원 80.5%, 0-2세맞춤반 긴급보육바우처지원 60.0%,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지원, 시간제보육료 지원은 각각 49.1%, 48.6%, 43.7%로 조사됨.
- 현재 수혜 중인 비율은 3-5세 누리과정 57.3%, 가정양육수당 34.4%, 0-2세 보육료 32.3% 순이며, 시간연장형 보육과 시간제보육, 장애아보육료 지원의 경우 현재와 과거의 수혜 경험을 합한 비율이 각각 6.0%, 3.4%, 1.3%임.
- 각 제도별로 만족하는 비율(만족+매우 만족)은 0-2세 보육료와 3-5세 누리과정 지원이 각각 82.6%와 71.8%이며, 가정양육수당은 55.1%로 조사됨.
- 영유아 부모가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35.9%로 가장 높고,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17.5%, ‘보육교육비 지원 단가 인상’ 11.7%,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휴직 시 소득보장’ 10.2%, 양육수당 인상 7.8%, 유연근무제 확대 6.5%, 다양한 보육 유형 확대 5.7%,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3.7% 순으로 응답됨.
- 영유아 부모 중 부모교육 경험이 있는 비율은 37.2%이며, 유아부모, 취업모 가구에서 부모교육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남.
 -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6%였으며, 희망하는 부모교육 내용은 ‘영유아 성장관련 정보·양육방법’ 69.4%, ‘보호자 역할’ 17.1%, ‘아동 인권 및 아동 학대 예방교육’ 4.9%, ‘미디어·인터넷 중독 예방’ 3.1%, ‘가족의 건강 영양 안전교육’ 2.8%, ‘가족윤리 및 예절’ 2.5% 순으로 나타남.
 - 희망하는 부모교육 방식은 ‘집합교육’ 48.8%, ‘1:1 컨설팅’ 33.5%, ‘온라인 교육’ 17.5% 순이며, 집합교육을 원할 경우 ‘자녀가 다니는 기관’을 가장 선호함 (67.3%). 이외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26.4%, ‘직장’ 5.8% 순임.
 - 부모교육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하여, 부모교육과 정부 지원을 연계할 경우 부모교육을 받을 의사는 17.8%, 받지 않겠다는 응답이 82.2%로 나타남.

I

서론

- I-1. 조사의 배경
- I-2. 조사 목적
- I-3. 조사방법
- I-4. 응답자 특성
- I-5. 일러두기



I. 서론

1 조사의 배경

2000년대 이후 출산율 제고와 자녀 양육 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이 커지면서 보육에 대한 정부 정책은 국정과제의 한 부분을 늘 차지할 만큼 중요한 국가 사안으로 자리 잡아 왔다. 영유아의 보육비가 전액 국가 지원이 되면서 전 연령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되어 보육 재정은 급격히 확대되었고, 어린이집 수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2년 영아 무상보육과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 후 어린이집 수와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4년 어린이집은 43,742개소, 이용 아동 수는 1,496,67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어린이집 수와 이용 아동수가 모두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지는 출산율이 직접적으로 어린이집의 존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결과는 향후 보육정책의 방향성이 단순한 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간 보육 사업은 양적으로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그 변화의 속도도 어떠한 정책보다도 빨랐다고 볼 수 있다. 질적으로 보더라도 어린이집에는 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이 도입되어 보육활동이 표준화된 커리큘럼에 기반하여 제공되게 되었고, 2012~2013년을 통해 유치원과의 공통과정인 3-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어 3-5세 유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떤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보육·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선이 이루어졌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교사자격제도개선 및 처우개선,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입을 통한 육아지원서비스의 다양화 등 교사, 보육환경, 프로그램 등 모든 분야에서

선진적인 발전을 거듭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보육실태조사는 이러한 보육 분야의 연도에 따른 변화와 효과를 국가 수준에서 수치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보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해보는 척도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매 3년마다 진행하는 전국 단위의 보육실태 자료 수집 과정이다. 즉, 보육실태조사는 「영유아보육법」 제9조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법정조사로 그 결과는 보육정책 수립 및 정책 개선의 근거로 활용되는, 보육정책과 관련하여서는 가장 대표적이며 기본이 되는 조사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보육실태조사는 2004년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2009년, 2012년, 2015년을 거쳐 이번 2018년 조사는 다섯 번째로 시행된 것이며, 기존의 자료와 마찬가지로 본 조사에서 생산한 기본 데이터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국가 통계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그만큼 보육실태조사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보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초 자료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보고서, 연구논문, 보육학 분야에서의 연구 과제 등에서도 보육실태조사 자료의 활용은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 속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보육실태조사가 최초 실시되기 시작한 이후 2009년, 2012년, 2015년에 이어 2018년에 네 번째로 수행하게 된 육아정책연구소는 이러한 맥락에서 보육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자료를 산출한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제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 3년마다 전국 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실태조사를 가구조사와 어린이집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된 본 조사 및 보고서는 영유아 가정양육 실태, 어린이집을 비롯한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 기관 이용 실태, 육아정책에 대한 영유아 부모의 인식과 요구 등에 집중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난 4차 조사가 실시되었던 2015년 이후에 달라진 보육 정책, 즉 열린어린이집 도입, 시간제 보육의 확대, 맞춤형 보육 도입에 따른 변화와 특히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수립 후 추진된 변화로 국정과제에 반영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확대 추진,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 등 자녀양육 환경의 변화를 일으킬 보육 정책의 변화와 이에 따른 가구의 이용 실태 및 만족도, 요구 등을 모두 포괄하여 다루고 있다.

보육 정책은 실태에 관한 충분한 기초자료 토대 위에 추진하여야만 수요자들의 다양화된 보육·교육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할 수 있다. 그 간의 정책들이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향후 정책은 부모 뿐 아니라 아동의 측면에서의 접근이 강화되어야 하며, 출산율 증진 자체 보다는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 여건 조성 자체에 목적을 두어 자녀양육을 위한 한 차원 높은 양육지원 체계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보육정책으로서 유관 부처와의 연계와 협력까지 고려한 포괄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구조사를 통해 어린이집 이용자만이 아닌 모든 영유아에 대한 양육실태와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는 것은 보다 다양한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며, 협소한 시각을 벗어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2 조사 목적

2018년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는 영유아 부모의 다양한 보육·교육 관련 기관 및 서비스의 이용 실태, 비용지출, 만족도 및 요구를 파악하고, 특히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요구 파악 등 보육 공급과 이용, 운영 전반에 걸친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정부가 부모, 아동 및 운영자의 입장을 고려한 균형 잡힌 시각에서 효율적인 육아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보육실태조사는 어린이집 이용 가구에 한정된 실태 분석이 아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포괄하여, 영유아 가구의 일반적인 양육실태 및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어린이집 외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실태까지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영유아 가구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보육정책의 개선과 수요자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과제 도출에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육실태조사의 ‘가구조사’는 특정 보육·교육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 조사가 아닌 ‘이용자 조사’로서 국내 어떠한 유사 실태조사와도 중복되지 않는 독보적인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한 예로 2017년부터 실시되기 시작한 「유아교육실태조사」의 경우 유아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유치원’을 조사대상으로 하나 조사대상

은 공급자인 원장과 교사에 한정함으로써 유치원 이용 가구의 측면에서는 이용 실태와 요구에 대한 자료가 생산되지 못한다. 반면 본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에서는 보육정책의 주 대상인 어린이집 이용 가구 뿐 아니라 유치원 이용 가구,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가구, 기관 미이용 가정양육 가구 등 모든 유형의 영유아 가구를 포괄하여 이용자 측면에서의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 축적가능한 조사로 가능하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집 이용자만이 아닌 모든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보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이유는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라도 언제든지 어린이집을 이용할 잠재적 보육정책의 대상자이며, 유아교육 정책과 보육정책, 기타 육아지원정책은 국가 육아지원정책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사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자의 관련 서비스 이용 행태와 요구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보육사업의 개선과 보육정책의 발전에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가구조사가 영유아가구 전체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즉,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는 잠재적인 모든 보육 정책의 수요자들의 보육·교육기관 및 서비스 이용실태와 요구를 파악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영유아 가구의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통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가구조사는 이러한 측면에서 보육실태조사 내 ‘어린이집 조사’와도 차별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다. 어린이집조사가 보육정책의 수요자이며 동시에 서비스 공급자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 실태와 공급자 측면의 요구를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면, ‘가구조사’는 철저히 보육서비스의 ‘수요자’ 관점에서 보육정책과 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보육사업 및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영유아 가구의 육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정책 수립의 준거가 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자료를 생산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가구의 전반적인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를 파악하며, 특히 영유아가 이용 가능한 주요 보육·교육서비스의 이용 현황, 만족도, 요구 등 수요자 지향적 보육·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를 산출하고, 아동연령, 가구 소득, 부모의 취업 등 제 특성별 차이를 규명한다.

둘째, 어린이집 등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유형별로 이용, 비용 부담, 만족도,

요구 등 보육 관련 기초 통계 자료를 생산하고 아동연령, 가구 소득, 부모의 취업 등 제 특성별 차이를 규명한다.

셋째, 정부 정책이나 육아관련 각종 제도와의 연계 추진을 위한 수요자의 정책 평가, 요구 및 의견 등 기초자료를 생산한다.

3 조사 방법

가. 조사 절차 및 구성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는 「가구조사」와 「아동조사」로 구분되어 있다. 먼저 가구조사표를 이용하여 가구사항 파악을 위한 가구조사를 가구당 1회 실시하고, 이어서 아동조사표를 사용하여 아동조사를 실시한다.

아동조사는 아동별로 실시하므로 가구 내 포함된 영유아 수만큼 반복하여 실시한다. 가구조사나 아동조사의 응답자가 동일하고, 특히 조사대상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반복되는 조사로 조사시간이 길고 응답자가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아동조사는 각 조사대상 아동을 중심으로 유의하여 응답하도록 한다.

나. 조사 내용

1) 가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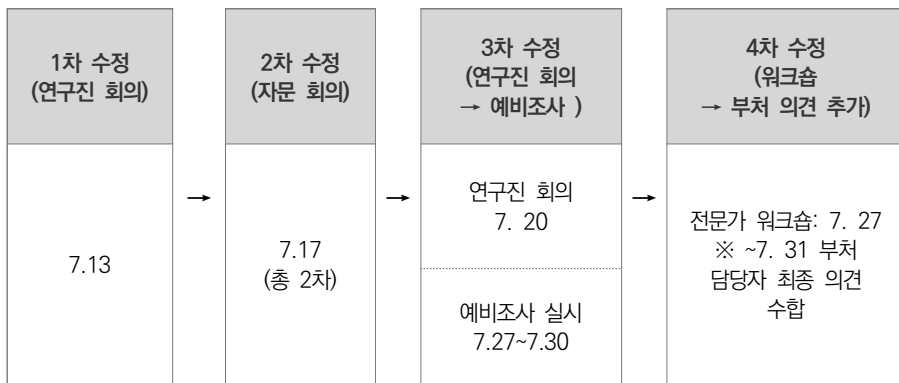
조사표는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항목을 바탕으로 이를 모두 포함하되 조사원이나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고 조사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보기가 주어지는 경우 누락되는 경우의 수가 없도록 하였다.

2018년도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의 조사표는 연구 계획 단계에서 세워진 조사표 개발 계획 및 추진 일정에 따라 체계적인 조사표 개발·수정 과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실태조사’의 특성상 정책 개선에 반영될 여지가 적은 단순 의견 파악 위주의 문항은 삭제하는 등 ‘현황 파악’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이라는 목적에 충실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 문항을 가감하였다. 2015년도 조사 문항 중 조사결과의 활용도가 낮았던 문항, 보육정책 범위에서 개선 추진이 어려

운 타 부처 사업의 만족도, 개선 요구 문항 등은 삭제하고, 이전 조사 이후 새로이 도입된 정책이나 변경된 정책에 대한 내용은 문항에 추가 반영하는 등 수정·보완 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2018년도에 보육실태조사 조사문항의 개발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 [그림 I-3-1]과 같다.

■ 그림 I-3-1 ■ 가구조사 조사표 개발 추진 과정 및 일정



연구진, 자문위원 및 관련 부처와의 수차례 회의를 통한 수정·보완 이외에도 전문 조사원의 현지 사전조사와 영유아 부모 대상의 포커스 그룹 면담을 실시하여 조사과정에서의 응답 오류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조사내용을 주요 영역별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는 가구조사와 아동조사로 구분되며, 가구조사는 응답자에게 1회 질문으로 현황파악이 가능한 조사, 즉 가구원 특성, 아동부모 특성, 자녀양육 행동 및 정서, 각종 육아지원서비스 인지 및 이용 경험, 보육정책 인지 및 수혜경험, 만족도, 가구 경제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가구조사표의 구성 장별로 제시한 조사 내용은 아래 <표 I-3-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I-3-1 가구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I. 가구원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현황: 이름, 대상 아동과의 관계, 성, 연령(생년월) • 교육정도: 학교, 졸업여부 • 결혼상태 • 건강상태: 장애 및 질병 여부 • 경제활동: 취업 여부, 활동 분야 • 동거 가구원수, 가족유형, 동거가구원, 장애 또는 질병 있는 가구원 • 아동수: 36개월 미만 영아, 3세 이상 미취학 유아, 그 이상
II. 아동 부모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비동거 이유, 이주민 여부, 출신지 • 부모 취업 특성: 근로 형태, 종사상 지위, 토요일·일요일 근로 여부, 출퇴근 시간, 1주일 평균 근로시간 • 미취업 부모의 향후 취업 계획: 취업 계획 여부, 시기 • 부모의 경력단절 경험: 자녀출산, 양육을 위한 경력단절 경험 여부, 시기, 직장을 그만 둔 이유 • 부모의 육아휴직 경험: 육아휴직 경험 여부, 육아휴직 시기, 기간 • 취업부모의 직장과 아동 양육의 어려움 • 이주민 부모의 양육의 어려움,
III. 자녀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양육행동 및 양육정서, 부부의 자녀돌보기 참여, 부부의 자녀양육과 가사분담 • 아동양육에 도움을 주는 사람 • 아동 연령별 선호하는 양육 형태 • 양육정보와 상담에 도움을 주는 사람 •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 임신육아종합포털사이트 인지여부, 이용경험, 주로 이용하는 정보, 만족도 • 아이돌봄 자원사업 인지 및 이용 경험
IV. 보육·교육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가구를 위한 육아지원 정책 방향의 필요성 정도 •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인지 여부 • 정부 비용지원 수혜 여부, 만족도 • 육아지원정책 선호도 •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육료 일부 자부담 의향 여부, 자부담 의향 있는 이유, 보육료 일부 자부담의 적절한 기준, 적절한 무상보육 시간
V.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경험 • 공인어린이집 인지 여부 •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인지 및 이용 경험, 만족도, 어린이집 위반사실 조회 경험 •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정보의 정보공개포털에서 찾아본 경험 여부, 정보의 도움 정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 구체적으로 필요한 정보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부모 모니터링단, 부모 자원봉사 참여 여부, 도움 정도, 참여 의향 • 열린어린이집 인지 여부 • 평가인증제도 인지 여부, 평가인증결과 확인 경험, 평가인증 점수의 보육서비스질 반영 정도, 평가인증제도의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제고 기여 정도 • 어린이집·유치원의 충분성 정도, 아이를 믿고 맡길 어린이집, 유치원의 설치 수준 •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 인지 정도 • 시간제보육 인지 및 경험 여부, 시간제보육 이용 이유, 이용하지 않은 이유, 이용 가능한 시간제보육제공기관 인지 여부, 인지 경로, 시간제보육 이용 계획, 이용하지 하지 않으려는 이유, 시간제보육 지원 시간 및 지원액의 적정성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 부모교육 받은 경험, 경험 내용, 경험 기관, 부모교육의 필요성 정도, 희망하는 부모교육 내용, 희망 방식, 희망하는 집합교육 실시 장소, 정부지원 연계 부모교육을 받을 의향.
VI.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출산: 추가출산 계획, 시기, 추가 출산자녀수, 미계획 시 이유, 미취학 자녀에게 지출되는 보육교육 비용 부담 정도
VII. 가구 주택 및 경제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소유 형태, 거주 주택 유형 • 가계경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월평균 가구 총소득, 월평균 근로소득, 월평균 가구 지출액, 영유아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출액

2) 아동조사

아동 조사표는 표본으로 선정된 응답 대상 가구 내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아동조사표는 가구 내의 모든 영유아 각각에 대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경험, 영유아의 하루 중 시간 단위 이용 기관 및 돌보는 사람, 보육·교육 기관 이용과 요구, 특기교육학원 이용, 아동 개별·그룹 교육지도 및 학습지 이용, 영유아 개인양육 지원서비스 이용 등으로 구성되었다.

▮ 표 I-3-2 ▮ 아동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I. 보육·교육이용 과 지원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순위 • 낮시간 주양육자 • 반일제 이상 기관 최초 이용 경험: 최초 이용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기, 이용 이유 • 연령대별 이용한 기관, 부모의 취업 상태 • 어린이집 중단 경험, 중단 이유 • 현재 받고 있는 비용 지원: 시간제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보미 비용, 바우처 수혜 여부 및 지원 액수 • 양육수당 금액 만족도, 만족하지 않을 경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 수준
II. 미취학 아동의 하루 생활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일 아동 활동시간과 이용기관, 돌보는 사람 시간 단위 조사, 평일 및 주말 부모와 보낸 시간
III. 보육·교육 기관 이용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구분 및 이용 이유: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학원 • 가정에서 돌볼 사람이 있을 경우 기관 이용 지속 의향 • 현재 이용 기관: 이용 시작시기, 선택 기준, 이용 요일 및 주당 정기적 이용 횟수, (어린이집) 토요일보육이 필요하였으나 이용하지 못한 경험 • 현재 이용 기관 이용 시간: 하루 평균 이용 시간, 이용 시간 초과 이용하는 빈도, 이용시간에 대한 의견, 희망 이용 시간 • 맞춤형 이용: 이용 여부, 긴급보육바우처 활용 경험 • 어린이집 운영 시간 인지 여부, 운영시간보다 짧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유 • 비용: 규모 및 부담 정도, 부가비용, 입학금, 비용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기관 이용 의향, 질 높은 서비스 기관 이용을 위해 추가 비용을 부담할 의향, 추가로 부담가능한 액수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하원 방법 및 교류 정도, 차량 동승 여부 • 이용 기관 만족도: 교직원, 주변환경, 시설설비, 비용, 건강관리, 안전관리, 급간식 관리, 교육내용, 생활지도, 부모참여 및 교육 • 기관 제공 서비스 제공 빈도 및 만족도 • 특별활동 수, 선택여부, 비용, 횟수, 만족도, 대체프로그램 인지 여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 • 이용 기관의 개선 요구 사항 • 보육교육기관 이용으로 도움받은 일과 도움받은 정도 • 건강검진 관리 • 가정양육수당 인상시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할 의사 및 인상 금액 • 아이행복카드 결제 빈도 및 결제방법 • 자녀 이용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 평가인증의 어린이집 선택 영향 정도, 공공형 어린이집 여부, 공공형 여부의 어린이집 선택 영향 정도, 공공형 어린이집의 장점 • CCTV: CCTV의 아동학대 예방 효과,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 열람신청 방법 인지 여부, 신청 경험, 사유, 열람시기, 열람거부 사유 • 열린어린이집 이용 여부, 만족도
IV. 미취학 아동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유치원 입학 전 대기경험: 여부, 대기기관, 대기 신청 방식,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만족도, 개선사항, 만족이유 • 초등입학 전 이용하기 원하는 기관 유형, 국공립어린이집 희망 이유, 공립유치원 이용 희망 이유 • 취약보육서비스의 필요성: 시간연장보육,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필요성 정도, 이용 빈도, 주로 이용하는 요일 및 시간 • 긴급 돌봄 필요시 돌봐주는 사람: 긴급한 상황, 아이가 아플 때 • 시간제보육반 이용 경험: 이용주기, 평균 이용시간, 서비스 제공기관, 방문시 교통수단 및 소요 시간, 이용시 만족도, 자녀양육 도움 정도
V.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교육기관 이용: 프로그램 수, 이용시간, 비용, 만족도
VI. 교육서비스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 개수, 이용시간, 비용, 만족도
VII. 장애아동 양육 및 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유형 및 장애 등급 • 보육교육기관 이용: 이용 여부, 기관 유형, 1일 평균 이용시간, 만족도 • 기관 미이용 이유, 기관 이용시 어려움 • 장애 발견시기, 장애 진단의 계기
VIII.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양육서비스제공자: 혈연, 비혈연, 비혈연 인력의 구인 경로 • 개인양육서비스 이용 이유 • 이용 행태: 서비스 제공자가 한번에 돌보는 아동수, 돌봄 장소, 돌보는 시간대, 1주일 총 이용 시간 • 비용: 지불 여부, 지불형태 및 금액 수준 • 평가: 비혈연 인력이 못오는 경우 여부 및 대처 방법

다. 표본추출 및 가중치

1) 표본 설계

가) 2018년도 표본 설계의 개요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 조사는 영유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정부의 보육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기초 자료의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보육실태조사는「영유아보육법」제9조에 의거하여 매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정조사이며,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이다.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 조사는 만0세부터 6세 미만 영유아를 둔 가구의 자녀양육 실태조사로 지역·아동연령·아동특성에 따른 보육 이용 실태 및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2개 조사 즉 '가구 조사'와 '아동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대상 및 규모는 전국 표본 읍면동 내 일반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2,500가구이며 조사수행방식은 조사원이 선정된 가구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면접조사이다. 표집틀은 2018년 6월 말 기준 사회보장정보원에 구축된 보육비, 유아학비, 양육수당 수급 아동 DB로 구성하였다. 층화 기준은 정부지원유형으로 1차 층화, 17개 시·도로 2차 층화하였으며 추출방법은 층화 2단 집락추출이다.

2018년 조사에서는 2015년 조사 대비 표본추출틀과 층화 기준에 변경이 있었다. 2015년에도 층화 2단 집락추출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표본추출틀은 2015년 당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인구주택총조사(2010년)'을 선정·활용하였으며, 층화 기준은 16개 시·도, 동부/읍·면부별로 층화하였다. 조사구 추출(1단)은 층별 내재적 층화변수(조사구 특성, 가구원수)로 정렬 후, 가구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계통 추출로 조사구 추출하였으며, 가구추출(2단)은 조사구 내 가구수를 기준으로 계통 추출하였다.

2015년 보육실태조사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일반조사구 내 거주하는 만 0-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를 조사하였지만, 2018년 보육실태조사는 2018년 6월 말 현재 기준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만 0-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조사로 차이가 있다. 2015년 조사모집단 표집틀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였고, 2018년 조사모집단 표집틀은 사회보장정보원의 보육료, 유아

학비, 양육수당 수급아동 DB이다.

보육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유형(보육비, 유아학비, 양육수당)이 중요하기 때문에 2018년 보육실태조사는 정부지원유형으로 1차 층화하였고, 2차 층화는 각 정부지원유형별로 시도별 층화를 하였다.

2015년에는 보육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영유아 가구의 전국적 분포를 미리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구주택총조사를 표본추출틀로 조사구를 추출하여 영유아 가구에 접근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성이 낮았다. 그러나, 2013년 전국의 거의 모든 영유아가 어린이집 보육료·유치원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무상보육·교육’이 실현되어 지원 아동의 DB를 활용하면 영유아 인구의 모집단을 확인 가능하다는 사실에 착안, 2018년에는 사회보장정보원에 구축된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수급 아동 DB로 표본추출틀을 변경, 표본추출에 활용하게 되었다. 이로써 2015년 대비 영유아 가구 조사 성공률 및 조사효율성이 제고되어 목표 기간 내 조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나) 모집단

목표모집단은 조사대상 전체 집합적 개념으로 2018년 보육실태조사의 모집단은 2018년 현재 보육비,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만 0-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이다. 조사모집단은 조사가 가능한 상황을 고려한 조사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모집단이다. 조사모집단은 2018년 6월 말 기준 사회보장정보원에 구축된 보육비, 유아학비, 양육수당 수급 아동 DB를 표본틀로 구성하였으며, 아동DB에서 보육비와 유아학비, 보육비와 양육수당 등 2가지를 중복하여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있는 71명은 표집틀에서 제외하였다.

▣ 표 I-3-3 ▣ 지역별 정부지원유형별 분포(기준시점: 2018.6월 말)

정부지원유형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전국	1,355,256	685,441	689,982
서울	220,038	85,877	140,971
부산	70,985	45,290	45,510
대구	53,420	38,774	31,770
인천	76,118	42,604	41,770
광주	39,503	24,300	17,809
대전	39,326	24,098	18,762

정부지원유형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울산	33,275	18,733	18,198
세종	14,016	6,891	6,390
경기	375,424	193,274	189,915
강원	37,745	16,730	15,252
충북	46,911	17,812	19,674
충남	64,840	28,126	27,013
전북	46,966	24,469	18,104
전남	51,558	20,519	19,692
경북	65,084	39,896	29,062
경남	94,364	51,824	42,362
제주	25,683	6,224	7,728

표 I-3-4 | 공표수준별 정부지원유형별 분포(기준시점: 2018.6월 말)

정부지원유형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전국	1,355,256	685,441	689,982
대도시	532,665	279,676	314,790
중소도시	593,381	311,832	281,220
농어촌	229,210	93,933	93,972

표 I-3-5 | 지역별 나이별 분포(기준시점: 2018.6월 말)

나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합
전국	317,709	38,0189	428,084	443,580	437,141	465,818	258,158	2,730,679
서울	54,469	64,465	70,845	72,340	70,176	74,079	40,512	446,886
부산	18,789	22,587	25,803	26,415	25,846	27,266	15,079	161,785
대구	14,176	17,357	19,469	20,071	19,757	21,192	11,942	123,964
인천	18,816	22,103	25,236	26,358	25,635	27,378	14,966	160,492
광주	8,939	11,038	12,563	13,145	13,295	14,456	8,176	81,612
대전	9,418	11,528	12,894	13,370	13,168	14,008	7,800	82,186
울산	8,183	9,882	11,085	11,421	11,353	11,726	6,556	70,206
세종	3,461	3,879	4,341	4,313	4,280	4,485	2,538	27,297
경기	86,145	104,731	119,110	124,225	121,813	130,797	71,792	758,613
강원	8,304	9,572	10,617	11,121	11,190	12,109	6,814	69,727
충북	10,277	11,914	13,178	13,314	13,509	14,358	7,847	84,397
충남	14,019	16,674	18,732	19,432	19,176	20,389	11,557	119,979
전북	9,977	11,869	13,656	14,608	14,594	15,929	8,906	89,539
전남	10,921	12,709	14,155	14,614	14,680	15,866	8,824	91,769
경북	15,820	18,740	21,071	21,677	21,385	22,649	12,700	134,042
경남	21,288	25,734	29,262	30,827	30,845	32,350	18,244	188,550
제주	4,707	5,407	6,067	6,329	6,439	6,781	3,905	39,635

다) 모집단 층화기준

이 조사에서는 정부지원유형에 따라 보육실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1차 층화변수는 정부지원유형(보육비,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2018년 보육실태조사는 정부지원유형(보육비, 유아학비, 양육수당)으로 1차 층화하고 각 정부지원유형별·시도별로 2차 층화하였다.

1차 층화 및 2차 층화 표본배분은 제공근비례배분 또는 비례배분을 고려하여 17개 시도별 CV값을 비교(1안,2안 시도별 표본 규모에 제시)하였으며, 공표수준인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제공근 비례배분 후 시도별로 비례배분한 결과(3안)도 함께 살펴보았다.

라) 시도별 표본규모

2015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의 지역별 CV 목표정도를 산출하여 비교해보았다.

2018년 6월 말 기준 아동 DB 표집틀의 정부지원유형(보육비, 유아학비, 양육수당)에 따른 제공근비례배분으로 1차 층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 I-3-6 ■ 정부지원유형별 제공근비례배분 결과(1차 층화)

	표집틀	표본수
보육료	1,355,256	1,031
유아학비	685,441	733
양육수당	689,982	736
합	2,730,679	2,500

2차 층화는 17개 시도별 규모에 따라 비례배분(1안) 과 제공근비례배분(2안), 공표수준에 따라 제공근비례배분 후 17개 시도별로 비례배분(3안)을 고려하여 CV값을 비교분석한 결과, 17개 시도별 규모에 따라 제공근 비례배분이 적합하나, 공표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도시 규모에서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2차 층화는 3안으로 선택하였다.

▣ 표 I-3-7 ▣ 정부지원유형별, 공표수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른 제공근 비례배분 후 17개 시도별 비례배분 결과(3안)

정부지원유형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합
전국	1,031	733	736	2,500
서울	157	85	132	374
부산	51	45	43	139
대구	38	39	30	107
인천	54	42	39	135
광주	28	24	17	69
대전	28	24	18	70
울산	24	19	17	60
세종	11	7	7	25
경기	279	199	207	685
강원	31	20	19	70
충북	40	22	26	88
충남	56	36	35	127
전북	36	27	21	84
전남	45	27	27	99
경북	55	48	37	140
경남	78	62	52	192
제주	20	7	9	36

▣ 표 I-3-8 ▣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와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CV(3안)

지역	2015년 조사		2018년 조사	
	가구	CV(가구소득)%	가구	목표 CV(가구소득)%
전국	2,584	1.83	2,500	1.86
대도시	880	2.68	954	2.57
중소도시	955	3.04	974	3.01
농어촌	749	3.99	572	4.56

마) 층별 표본배정

3개 정부지원유형(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으로 1차 층화한 다음, 공표수준 별로 제공근 비례배분 후 17개 시도 지역으로 나누어 비례배분을 고려하여 2차 층화하고, 조사 편의상 읍면동을 250여개 추출하여, 최종 확정된 표본규모를 표본읍면동별로 평균 10명의 아동을 배정하였다. 약 250여개 표본 읍면동 추출 시, 3개 정부지원유형의 가구가 골고루 분포되어야 하므로, 보다 다양한 조사단위들을 표본에 포함시켜 표본의 모집단 대표성을 일정 수준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simple random sampling으로 읍·면/동을 추출단위로 하여 독립적으로 추출 후 3개 정부지원유형의 가구 수 분포를 확인하였다.

1차 추출단위는 표본 읍면동이고 2차 추출단위는 표본 읍면동 내의 아동, 최종 조사단위는 아동이 속한 가구 및 아동이다. 층별 할당결과는 17개 시도별로 층화하여 정부지원유형별로 나타내었고, 목표 표본규모로 작성하였다.

▣ 표 I-3-9 ▣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최종 층별(정부지원유형별, 지역별) 표본배정결과

단위: 가구

정부지원유형	표본수				읍면동수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합	
전국	1,031	733	736	2,500	252
서울	157	85	132	374	37
부산	51	45	43	139	14
대구	38	39	30	107	11
인천	54	42	39	135	14
광주	28	24	17	69	7
대전	28	24	18	70	7
울산	24	19	17	60	6
세종	11	7	7	25	3
경기	279	199	207	685	69
강원	31	20	19	70	7
충북	40	22	26	88	9
충남	56	36	35	127	13
전북	36	27	21	84	9
전남	45	27	27	99	10
경북	55	48	37	140	14
경남	78	62	52	192	19
제주	20	7	9	36	3

바) 대체

응답불응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가능한 당초 설계된 표본 수만큼 모두 조사할 수 있도록, 동일 층(동일한 읍면동) 내에서 예비 표본(표본의 3배수)으로 대체하여 조사 진행하였다. 0-6세 아동 및 가구 조사대상 특성을 고려하여 예비표본을 충분히 고려하여 준비하였고 원표본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연구진 및 표본설계 전문가에 전달하여 원표본을 대체하도록 하였다.

사) 조사 완료 표본수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최종 층별(정부지원유형별, 지역별) 표본배정 결과 총 2,500가구를 조사완료하기로 하였으나, 아동의 연령대를 고려한 배분과정에서 적정 표본수가 산출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최종 표본수는 2,533가구가 조사완료되었다. 최종 조사완료된 가구의 아동수는 총 3,775명이다. 정부지원유형별로 조사완료된 아동의 지역별 연령분포는 <표 I-3-10>~<표 I-3-12>에 제시하였으며, 지원유형을 총합한 아동의 연령 분포는 <표 I-3-13>과 같다.

■ 표 I-3-10 ■ 조사완료 보육료 지원 아동의 연령별 분포

연령	단위: 명							합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전국	21	207	426	459	297	194	149	1,753
서울	4	34	52	68	47	26	21	252
부산	0	14	17	26	12	9	3	81
대구	0	5	18	20	15	4	6	68
인천	2	9	24	22	12	9	5	83
광주	0	5	18	16	6	3	2	50
대전	0	7	17	12	11	5	3	55
울산	0	4	9	12	6	2	3	36
세종	0	0	5	4	5	1	1	16
경기	9	54	121	110	75	48	46	463
강원	0	8	14	14	8	7	4	55
충북	1	10	12	23	9	10	10	75
충남	1	8	26	29	14	16	7	101
전북	3	9	18	12	14	8	10	74
전남	0	12	15	26	12	10	5	80
경북	0	12	27	25	17	15	7	103
경남	0	13	28	36	28	16	14	135
제주	1	3	5	4	6	5	2	26

■ 표 I-3-11 ■ 조사완료 유아학비 지원 아동의 연령별 분포

연령	단위: 명				합
	3세	4세	5세	6세	
전국	101	274	354	280	1,009
서울	15	35	42	32	124
부산	12	19	19	16	66
대구	3	11	18	12	44
인천	3	14	19	16	52
광주	2	8	9	13	32
대전	2	8	10	8	28
울산	0	9	13	7	29

연령	3세	4세	5세	6세	합
세종	0	4	3	3	10
경기	36	70	103	72	281
강원	3	9	12	7	31
충북	3	11	11	9	34
충남	4	14	17	18	53
전북	3	13	10	9	35
전남	5	10	14	9	38
경북	6	16	20	19	61
경남	4	22	32	26	84
제주	0	1	2	4	7

표 I-3-12 조사완료 양육수당 지원 아동의 연령별 분포

나이	단위: 명							합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전국	413	346	109	54	44	26	21	1,013
서울	58	51	17	10	12	7	6	161
부산	27	18	6	4	1	2	2	60
대구	20	12	4	2	2	0	4	44
인천	29	14	8	0	0	2	0	53
광주	8	7	3	0	1	0	1	20
대전	17	12	3	2	1	1	0	36
울산	9	11	2	0	0	0	0	22
세종	6	3	1	1	0	0	0	11
경기	104	93	34	18	15	9	4	277
강원	11	13	4	1	2	0	0	31
충북	14	16	2	1	2	0	0	35
충남	20	17	0	4	1	1	1	44
전북	8	8	3	4	3	0	2	28
전남	21	15	4	4	1	2	0	47
경북	28	21	5	0	1	0	0	55
경남	26	32	13	2	2	2	1	78
제주	7	3	0	1	0	0	0	11

표 I-3-13 조사완료 아동의 연령별 분포

연령	단위: 명							합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전국	434	553	535	614	615	574	450	3,775
서울	62	85	69	93	94	75	59	537
부산	27	32	23	42	32	30	21	207
대구	20	17	22	25	28	22	22	156
인천	31	23	32	25	26	30	21	188

연령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합
광주	8	12	21	18	15	12	16	102
대전	17	19	20	16	20	16	11	119
울산	9	15	11	12	15	15	10	87
세종	6	3	6	5	9	4	4	37
경기	113	147	155	164	160	160	122	1021
강원	11	21	18	18	19	19	11	117
충북	15	26	14	27	22	21	19	144
충남	21	25	26	37	29	34	26	198
전북	11	17	21	19	30	18	21	137
전남	21	27	19	35	23	26	14	165
경북	28	33	32	31	34	35	26	219
경남	26	45	41	42	52	50	41	297
제주	8	6	5	5	7	7	6	44

한편, 조사완료된 아동의 지역별·정부지원유형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 표 I-3-14 ■ 조사완료 아동의 정부지원유형별 분포

단위: 명

정부지원유형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합
전국	1,753	1,009	1,013	3,775
서울	252	124	161	537
부산	81	66	60	207
대구	68	44	44	156
인천	83	52	53	188
광주	50	32	20	102
대전	55	28	36	119
울산	36	29	22	87
세종	16	10	11	37
경기	463	281	277	1,021
강원	55	31	31	117
충북	75	34	35	144
충남	101	53	44	198
전북	74	35	28	137
전남	80	38	47	165
경북	103	61	55	219
경남	135	84	78	297
제주	26	7	11	44

2) 가중치

통계조사에서 가중치의 적용은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구조를 일치시킴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 아동 가중치

추정치 편향을 없애기 위해 사후 층화(Post Stratification)를 하여 가중치 조정을 실시하였다. 최종 가중치 산정에서 모집단의 기준시점은 본 표본을 추출하기 위한 표본 표집틀을 입수한 2018년 6월 말이다.

추출단위의 추출확률 역수를 추출가중치로 산정하고, 정부지원유형(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과 나이에 대해 지역별 2차원 교차표로 순위(raking) 비 조정으로 가중치 조정을 실시하였다.

1단계로 표본 읍면동별로 부여된 1차 가중치 ($d_k^{(0)}$)를 포함한 표본자료와 아동 DB로 부터 ①지역별 정부지원유형별 아동수, ②지역별 각 세별 아동수, ③정부지원유형 및 각 세별 아동수교차표를 구성하였다. 2단계는 1차 가중치를 적용한 표본 교차표를 구성하여 1단계로부터 각각 구한 모집단 교차표의 주변 총계 (marginal sum: 행과 열의 아동수)를 결합한다. 모집단 교차표의 행의 합을 N_{i+} , 열의 합을 N_{+j} 라 하고, 모집단 셀의 아동수를 N_{ij} 이라고 하면, 3단계에서는 2단계로부터 기본 가중치인 $d_k^{(0)}$ 를 이용하여 사후 층별 주변 총계를 구한다.

$$\begin{aligned}\sum_i d_k^{(0)} &= \hat{N}_{+j}, i = 1, 2, \dots, R \\ \sum_j d_k^{(0)} &= \hat{N}_{i+}, j = 1, 2, \dots, C\end{aligned}$$

4단계는 3단계에서 구한 사후 주변총계와 모집단의 주변총계를 이용하여 표본 자료의 각 셀별 가중치를 조정한다.

$$w^{(1,1)} = \left(\frac{N_{i+}}{\sum_{j=1}^C \hat{N}_{ij}^{(0)}} \right) \times d_k^{(0)}$$

$$w^{(1,2)} = \left(\frac{N_{+j}}{\sum_{j=1}^R \hat{N}_{ij}^{(1,1)}} \right) \times w^{(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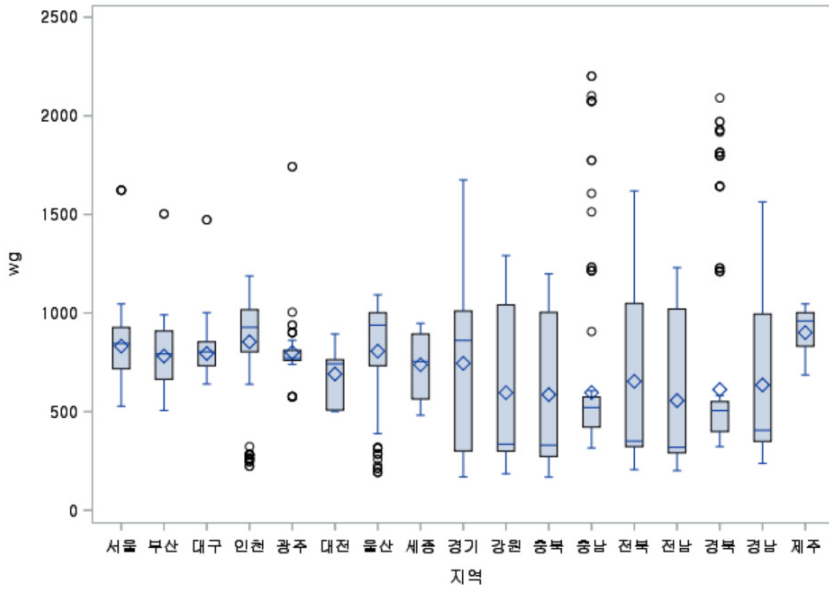
5단계는 수렴할 때까지 3~4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표 I-3-13 지역별 아동 가중치 분포

단위: 수

지역	표본 수	평균값	표준오차	중위수	제1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상대표준오차
전국	3,775	723.36	5.15	740.26	421.04	941.34	0.4
서울	537	832.19	5.84	845.56	717.30	927.18	0.2
부산	207	781.57	10.47	792.48	663.93	908.66	0.2
대구	156	794.64	10.45	803.40	732.67	853.57	0.2
인천	188	853.68	16.31	927.69	802.88	1017.24	0.3
광주	102	800.12	15.21	770.00	759.12	811.33	0.2
대전	119	690.64	11.75	742.32	508.07	762.86	0.2
울산	87	806.97	29.46	938.83	733.03	1001.74	0.3
세종	37	737.76	23.40	754.29	563.46	893.01	0.2
경기	1,018	745.20	10.20	860.95	300.74	1010.50	0.4
강원	117	595.96	36.06	334.93	299.26	1040.74	0.7
충북	144	586.09	30.03	329.89	273.26	1003.23	0.6
충남	201	596.91	25.59	520.63	421.04	574.41	0.6
전북	137	653.57	35.60	350.32	322.52	1048.31	0.6
전남	165	556.18	29.03	319.05	290.97	1020.79	0.7
경북	219	612.06	26.70	505.30	399.04	550.58	0.6
경남	297	634.85	25.21	405.55	349.51	995.03	0.7
제주	44	900.80	19.63	959.57	831.29	1001.18	0.1

그림 I-3-2 지역별 아동 가중치 상자그림



나) 가구 가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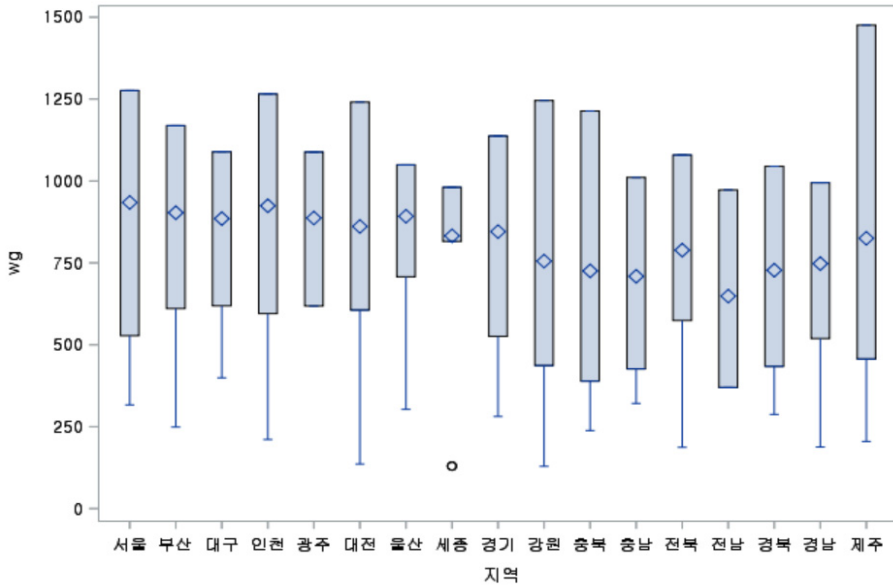
가구가중치는 가구 리스트의 지역별, 영유아 자녀 수 정보를 이용하여 사후 조정을 하였다.

▮ 표 I-3-14 ▮ 지역별 가구 가중치 분포

단위: 가구

지역	표본 수	평균값	표준오차	중위수	제1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상대표준오차
전국	2,533	832.57	6.84	994.93	525.54	1137.25	0.4
서울	381	934.36	19.63	1276.02	527.67	1276.02	0.4
부산	139	903.12	26.49	1168.83	610.79	1168.83	0.3
대구	108	885.01	23.67	1089.13	618.76	1089.13	0.3
인천	135	924.39	32.61	1265.88	595.13	1265.88	0.4
광주	70	887.01	27.98	1088.28	618.18	1088.28	0.3
대전	73	861.12	47.28	605.86	605.86	1240.94	0.5
울산	60	892.23	27.34	1049.17	707.38	1049.17	0.2
세종	25	832.52	54.96	980.80	815.86	980.80	0.3
경기	697	845.37	12.20	1137.25	525.54	1137.25	0.4
강원	71	755.24	52.78	436.59	436.59	1245.77	0.6
충북	88	725.51	44.76	389.04	389.04	1213.76	0.6
충남	128	708.96	26.42	426.34	426.34	1010.59	0.4
전북	85	788.72	34.32	1079.40	574.06	1079.40	0.4
전남	105	648.56	29.22	369.81	369.81	972.83	0.5
경북	140	727.69	26.65	433.95	433.95	1044.80	0.4
경남	192	747.65	19.95	994.93	518.88	994.93	0.4
제주	36	825.08	88.69	456.67	456.67	1475.93	0.6

|| 그림 I-3-3 || 지역별 가구 가중치 상자그림



전체 평균 산출을 위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hat{Y} = \frac{\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sum \sum \sum w_{hij}}$$

w_{hij} : 각 응답자에 부여된 가중치

y_{hij} : 각 응답결과

L : 층의 수

n_h : 층 h 에서의 표본 읍, 면/동의 수

m_{hi} : 층 h 내 i 번째 표본 읍, 면/동의 응답자 수

$w_{...}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전체 응답자에 대한 가중치의 합계

4 응답자 특성

가. 조사 완료 현황

정부지원유형별, 지역별 표본배정 결과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과정에서 동일 층 내에서 예비 표본을 확보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적인 조사 완료 현황은 다음 <표 I-4-1>과 같다. 각 수치는 시·도별 조사완료율, 가구조사의 응답가구 수 및 가구 내 포함된 아동 수(아동조사대상)를 나타낸다. 최종 조사된 총 영유아 가구 수는 2,533가구였고, 조사된 영유아 수는 3,775명이었다.

표 I-4-1 지역별 조사완료율 및 조사 가구 및 아동의 지역 분포

단위: 가구, 명, %

구 분	조사 완료 현황			응답 가구 및 아동							
	조사대상 (A)	조사완료 (B)	조사완료율 (B/A*100)	가구조사				아동조사			
				전체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11,229	2,533	22.6	2,533	946	782	805	3,775	1,362	1,146	1,267
서울	1665	381	22.9	381	381	-	-	537	537	-	-
부산	630	139	22.1	139	139	-	-	207	207	-	-
대구	495	108	21.8	108	108	-	-	156	156	-	-
인천	630	135	21.4	135	125	-	10	188	169	-	19
광주	315	70	22.2	70	70	-	-	102	102	-	-
대전	315	73	23.2	73	73	-	-	119	119	-	-
울산	270	60	22.2	60	50	-	10	87	72	-	15
세종	135	25	18.5	25	-	-	25	37	-	-	37
경기	3,084	697	22.6	697	-	506	191	1,018	-	733	288
강원	315	71	22.5	71	-	29	42	117	-	44	73
충북	397	88	22.2	88	-	41	47	144	-	70	74
충남	578	128	22.1	128	-	13	115	201	-	18	180
전북	381	85	22.3	85	-	38	47	137	-	60	77
전남	436	105	24.1	105	-	39	66	165	-	65	100
경북	608	140	23.0	140	-	18	122	219	-	25	194
경남	840	192	22.9	192	-	62	130	297	-	87	210
제주	135	36	26.7	36	-	36	-	44	-	44	-

나. 응답자 특성

가구조사 응답자와 아동조사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의 <표 I-4-2>, <표 I-4-3>과 같다. 가구조사에는 최종 2,533가구가 포함되었으며, 지역규모에 따른 가구조사 응답자는 대도시 41.0%, 중소도시 30.1%, 읍·면지역 28.9%의 특성을 보이고,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 44.2%, 미취업모 47.2%, 휴직 중 7.1%, 부재 중 1.4%이다. 가구의 지원 유형은 보육료 지원만 받는 가구 35.7%, 유아학비 지원 가구 24.4%, 양육수당 지원 가구 24.8%, 두 가지 이상의 지원을 복합적으로 받는 ‘복합지원’ 가구 15.1%로 분류된다.

▮ 표 I-4-2 ▮ 가구 조사 응답가구 특성

단위: %(가구)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전체	100.0(2,533)	가구소득	
지역규모		199만원 이하	4.2(100)
대도시	41.0(946)	200~249만원	7.1(172)
중소도시	30.1(782)	250~299만원	7.6(197)
읍·면	28.9(805)	300~349만원	14.5(382)
모취업 여부		350~399만원	9.6(246)
취업	44.2(1,093)	400~499만원	19.0(482)
휴직중	7.1(179)	500~599만원	16.2(405)
미취업	47.2(1,229)	600~699만원	8.6(220)
모부재 등	1.4(32)	700만원 이상	13.1(321)
지원유형		모름/무응답	0.2(8)
보육료	35.7(853)		
유아학비	24.4(511)		
양육수당	24.8(506)		
복합지원	15.1(66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복합지원: 조사 대상 표본 가구에 영유아가 지원 받는 유형이 2개 이상인 경우

(예: 영유아가 2명인 가구 중 유아학비 지원을 받는 유아와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가 동시에 있는 경우)

자료: 2018년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육실태조사의 가구조사표 응답 대상인 2,533 가구의 영유아로 아동조사표의 조사대상이 된 영유아는 총 3,775명이었으며, 생활연령 0~2세 영아가 39.2%, 3~6세의 유아가 60.8%였다. 보육연령 기준으로는 영아 49.2%, 유아 50.8%로 영유아가 거의 동 수준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아동 기준으로 어머니가 취업

중인 경우는 42.2%, 휴직중 7.3%, 미취업 49.8%, 모부재 0.8%였으며, 이용기관은 어린이집 이용 46.3%, 유치원 이용 27.0%,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2.9%이며, 보육·교육기관 미이용의 경우가 23.9%에 해당하였다.

▣ 표 I-4-3 ▣ 아동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전체	100.0(3,775)		
영유아구분(생활연령)		영유아구분(보육연령)	
영아	39.2(1,522)	영아	49.2(1,911)
유아	60.8(2,253)	유아	50.8(1,864)
생활연령		보육연령	
0세	10.7(434)	0세	19.6(803)
1세	13.6(553)	1세	14.6(540)
2세	14.9(535)	2세	15.2(568)
3세	15.2(614)	3세	16.7(650)
4세	17.0(615)	4세	14.9(549)
5세 이상	28.6(1,024)	5세	19.1(665)
지역규모		가구소득	
대도시	41.1(1,362)	199만원 이하	3.4(142)
중소도시	41.9(1,146)	200~249만원	5.7(244)
읍·면	17.0(1,267)	250~299만원	7.6(300)
모취업 여부		300~349만원	15.3(591)
취업	42.2(1,588)	350~399만원	9.4(362)
휴직중	7.3(270)	400~499만원	18.9(727)
미취업	49.8(1,880)	500~599만원	16.4(602)
모부재 등	0.8(37)	600~699만원	9.5(328)
이용 기관		700만원 이상	13.5(465)
어린이집	46.3(1,753)	모름/무응답	0.1(14)
유치원	27.0(1,009)		
반일제 이상 기관(영어학원 등)	2.9(68)		
미이용	23.9(945)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가구조사

5 일러두기

본 보고서를 읽고 이해함에 있어 몇 가지 우선적으로 이해해 두어야 할 바를 여기에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통계 수치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안내하기 위함이다.

첫째, 본 보고서에서는 영유아의 연령을 ‘보육연령’과 ‘생활연령’으로 구분하여 연령별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생활연령이란 일상적으로 일반인이 인식하고 있는 보통의 연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유아의 출생 연월일에 따른 만 나이를 말한다. 즉, 현재 조사 시점에서의 영유아 만 연령이 생활연령이 된다. 이에 비해 보육연령은 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게 될 경우 배정되는, 연령구분에 따른 ‘반(班)’ 연령을 의미한다. 어린이집에서 반 구분은 해당 아동의 그 시점에서의 실제 연령과는 상관없이 그해 1월을 기준으로 연령별 반에 배정되어 1년 이상을 지내고 해당 연령의 보육료를 지원받게 되므로, 조사 시점에서 보육연령을 보면 0세 반의 경우 최대 23개월 월령의 영아까지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차이가 보육비용, 어린이집 이용 형태 등 시설 이용 관련 몇몇 변수에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관과 관련된 질문의 분석에서는 보육연령을 기준으로 실시하였고 가정양육이나 기타 기관 이용과 무관한 문항에 대해서는 생활연령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연령 적용 방식 차이로 인해 문항에 따라 연령별 사례수가 다를 수 있다.

둘째, 본 보고서의 내용 중 모취업 여부에 따른 결과치를 이해함에 있어 ‘모의 취업 여부를 모름 또는 모가 부재함’이라는 집단 유형에 속하는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표가 존재함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취업 여부를 통해 알고자 하는 집단 간 비교의 결과가 순수하게 모의 취업, 미취업, 휴직 등 3가지 취업 여부 유형에 따라서만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고 이들 유형 간 비교만이 독립변수로서 의미가 있다고 연구진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모름/모부재’를 결측처리함으로써 전체 사례 수 총계와 모취업 여부별 사례수의 총합이 결과적으로 다를 수 있음을 이러한 이유에서 이해해야 한다. 다만, 2018년에는 어머니의 부재 등의 특성이 해당 결과치를 해석하는데 있어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포함하여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임을 밝혀둔다.

셋째, 결과 분석과 사례수를 이해하는데 있어 가중치와 관측치(실제 사례수)가

같이 적용되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앞서 3절에서 밝혔듯이, 표집에 따른 편포와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중치를 산출하여 활용하고 있어 분석에 따른 모든 수치는 가중치가 반영되어 산출된 결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표 마지막 열 또는 행에 제시되고 있는 사례수 즉 '(수)'는 표의 내용 수치와는 달리 관측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각 독립 변수, 셀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의 실제 사례수가 얼마인지를 아는 것이 정확한 해석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가중치 적용된 사례수를 제시하게 되면 실제로는 한두 사례 조사에 의한 결과치임에도 과대 해석이 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관측치를 제시하였다. 즉, 표 내용의 모든 결과치는 표집 보정을 위한 가중치가 적용되어 정확한 분석이 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고, 다만 조사에 실제 대상이 된 관측 사례 수가 이 정도이다로 참고하면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2009년(서문희 외, 2009)과 2012년(서문희 외, 2012), 2015년(김은설 외, 2016)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서에서와 동일하게 분석된 표는 수치 비교를 통한 연도별 변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2009년, 2012년, 2015년 조사결과를 표에 함께 제시하였다.

II

영유아 보육사업 현황

- II-1. 어린이집 설치 및 이용
- II-2. 비용지원



II. 영유아 보육사업 현황

제2장에서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주요 현황 및 추이를 제시하였다. 보육서비스의 이용가능성 즉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보육 인프라의 공급 및 이용(특수보육 포함)과 비용 지원 현황을 다루었다.

1 어린이집 설치 및 이용

보육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와 보다 향상된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와 이용 현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4조 3항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어린이집을 적절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더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설치 시에는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제12조 1항).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써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2022년에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 언급되었다.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8-2022)에서도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과제로 제시되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7b).

현재까지의 어린이집 설치와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유치원 이용률, 지역별 공급과 이용률의 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보육 인프라 공급과 이용

1) 어린이집 공급과 이용 현황

어린이집 수는 영아 무상보육 실시와 누리과정 도입 연령을 점차 확대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4년 이후부터 어린이집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18년도에는 39,181개소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은 2015년 조사 이후로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5년도에는 6.2%(2,629개소)로 나타났으나, 2018년도에는 9.0%(3,531개소), 이용아동 수 14.2%(200,240명)로 증가하였다. 반면,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립의 수는 2015년도 이후로 점차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전체 어린이집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합친 비율은 전체 어린이집의 82.3%(32,252개소), 이용아동 수는 전체 아동의 71.6%(1,011,939명)으로 나타났다.

표 II-1-1 기관유형별 어린이집 수/이용아동 수(2009/2012-2018)

단위: 개소, 명(%)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2018	어린이집수 (%)	39,181 (100.0)	3,531 (9.0)	1,378 (3.5)	748 (1.9)	13,544 (34.6)	18,708 (47.7)	164 (0.4)	1,108 (2.8)
	아동 수 (%)	1,413,532 (100.0)	200,240 (14.2)	92,822 (6.6)	41,370 (2.9)	710,339 (50.3)	301,600 (21.3)	4,344 (0.3)	62,817 (4.4)
2017	어린이집수 (%)	40,238 (100.0)	3,157 (7.8)	1,392 (3.5)	771 (1.9)	14,045 (34.9)	19,656 (48.8)	164 (0.4)	1,053 (2.6)
	아동 수 (%)	1,450,243 (100.0)	186,916 (12.9)	96,794 (6.7)	43,404 (3.0)	738,559 (50.9)	321,608 (22.2)	4,508 (0.3)	58,454 (4.0)
2016	어린이집수 (%)	41,084 (100.0)	2,859 (7.0)	1,402 (3.4)	804 (2.0)	14,316 (34.8)	20,598 (50.1)	157 (0.4)	948 (2.3)
	아동 수 (%)	1,451,215 (100.0)	175,929 (12.1)	99,113 (6.8)	45,374 (3.1)	745,663 (51.4)	328,594 (22.6)	4,240 (0.3)	52,302 (3.6)
2015	어린이집수 (%)	42,517 (100.0)	2,629 (6.2)	1,414 (3.3)	834 (2.0)	14,626 (34.4)	22,074 (51.9)	155 (0.4)	785 (1.8)
	아동 수 (%)	1,452,813 (100.0)	165,743 (11.4)	99,715 (6.9)	46,858 (3.2)	747,598 (51.5)	344,007 (23.7)	4,127 (0.3)	44,765 (3.1)
2014	어린이집수 (%)	43,742 (100.0)	2,489 (5.7)	1,420 (3.2)	852 (1.9)	14,822 (33.9)	23,318 (54.3)	149 (0.3)	692 (1.6)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아동 수 (%)	1,496,671 (100.0)	159,241 (10.6)	104,552 (7.0)	49,175 (3.3)	775,414 (51.8)	365,250 (24.4)	3,774 (0.3)	39,265 (2.6)
어린이집수 (%)	43,770 (100.0)	2,332 (5.3)	1,439 (3.3)	868 (2.0)	14,751 (33.7)	23,632 (54.0)	129 (0.3)	619 (1.4)
2013 아동 수 (%)	1,486,980 (100.0)	154,465 (10.4)	108,834 (7.3)	51,684 (3.5)	770,179 (51.8)	364,113 (24.5)	3,226 (0.2)	34,479 (2.3)
2013 어린이집수 (%)	42,527 (100.0)	2,203 (5.2)	1,444 (3.4)	869 (2.0)	14,440 (34.0)	22,935 (53.9)	113 (0.3)	523 (1.2)
2012 아동 수 (%)	1,487,361 (100.0)	149,677 (10.1)	113,049 (7.6)	51,914 (3.5)	768,256 (51.7)	371,671 (25.0)	2,913 (0.2)	29,881 (2.0)
2012 어린이집수 (%)	35,550 (100.0)	1,917 (5.4)	1,470 (4.1)	935 (2.6)	13,433 (37.8)	17,359 (43.8)	66 (0.2)	370 (1.0)
2009 아동 수 (%)	1,175,049 (100.0)	129,656 (11.0)	112,338 (9.6)	52,718 (4.5)	622,996 (53.0)	236,892 (20.2)	1,655 (0.1)	18,794 (1.6)

자료: 1)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2) 보건복지부(2018a). 보육정책 DW 시스템(2018. 11. 기준).

2018년 기준 보육아동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보육아동 수는 2세가 28.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1세가 22.5%, 6세 이상 아동을 제외하면 0세가 8.7%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기관유형별로 살펴 보았을 때는 가정어린이집에서 0-2세의 비율이 99.3%의 비중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0-2세 아동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2011년 이후에는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3-5세 연령 아동의 비율은 소폭 감소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아동 연령 분포는 큰 변화 없이 매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II-1-2 보육아동 연령 분포(2011-2018)

단위: %(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이상	계(아동수)
전체	8.7	22.5	28.2	16.6	12.0	11.6	0.4	100.0 (1,413,523)
시설유형								
국공립	3.5	15.7	23.2	21.0	18.4	17.5	0.7	100.0 (200,240)
사회복지법인	3.0	14.5	23.7	21.9	17.5	17.2	2.1	100.0 (92,822)
법인·단체 등	2.7	12.9	21.5	22.2	19.3	18.9	2.5	100.0 (41,370)
민간	5.2	18.7	28.3	20.7	13.6	13.4	0.2	100.0 (710,339)
가정	24.1	40.5	34.7	0.4	0.1	0.1	-	100.0 (301,600)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이상	계(아동수)
부모협동	3.0	13.2	24.1	21.5	17.8	19.6	0.9	100.0 (4,344)
직장	3.5	19.0	24.1	22.0	17.2	14.1	0.2	100.0 (62,817)
2017년	9.6	22.8	27.0	16.3	13.0	10.8	0.5	100.0 (1,450,243)
2016년	9.7	21.9	26.6	18.2	12.4	10.6	0.5	100.0 (1,451,215)
2015년	9.4	21.2	28.9	17.4	12.4	10.1	0.5	100.0 (1,452,813)
2014년	9.3	22.9	27.4	17.7	11.8	10.4	0.6	100.0 (1,496,671)
2013년	10.0	21.9	27.0	17.2	12.4	10.9	0.7	100.0 (1,486,980)
2012년	12.0	21.6	25.1	17.4	13.1	10.1	0.8	100.0 (1,487,361)
2011년	10.9	18.5	25.4	20.2	13.6	10.2	1.3	100.0 (1,348,729)

자료: 1)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2) 보건복지부(2018a). 보육정책 DW 시스템(2018. 11. 기준)

2)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현황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관 이용률이 65.7%, 67.0%, 70.4%로 점차 증가하였으며, 2017년 기준으로 어린이집 이용률은 47.6%, 유치원 이용률은 22.8%로 나타난다. 영유아별 이용률을 살펴보면, 영아의 52.6%가 어린이집을 이용했고 유아는 어린이집 41.8%, 유치원 49.4%로 유치원을 더 많이 이용하였다. 2015년과 비교하여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4.3% 증가하였고,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0.3% 감소하였다. 반면 유아의 유치원 이용률은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3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이용률(2013, 2015, 2017)

단위: 명(%)

구분	전체 아동수	어린이집		유치원		합계		
		재원아동	이용률	재원아동	이용률	재원아동	이용률	
2017	전체	3,044,577	1,450,243	47.6	694,631	22.8	2,144,874	70.4
	영아	1,638,243	862,237	52.6	-	-	862,237	52.6
	유아	1,406,334	588,006	41.8	694,631	49.4	1,282,637	91.2
2015	전체	3,187,718	1,452,813	45.6	682,553	21.4	2,135,366	67.0
	영아	1,791,262	864,596	48.3	-	-	864,596	48.3
	유아	1,396,456	588,217	42.1	682,553	48.9	1,270,770	91.0
2013	전체	3,264,476	1,486,980	45.6	658,188	20.2	2,145,168	65.7
	영아	1,854,265	874,975	47.2	-	-	874,975	47.2
	유아	1,410,211	612,005	43.4	658,188	46.7	1,270,193	90.1

주: 1) 전체아동수(주민등록 0-6세인구통계), 어린이집(보육통합정보시스템), 유치원(교육통계)

2) 영아와 유아 구분은 반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2017a). 어린이집·유치원 포함 시설 이용률. 내부자료 재인용.

3) 특수보육 현황

특수보육에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0~5세 보육 지원 외에도 대상에 따라 장애아보육,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24시간보육 등이 제공된다.

가) 장애아보육

장애아보육료 지원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이 대상이며, 장애아 보육 지원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나누어 운영된다(보건복지부, 2018b).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이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이다(보건복지부, 2018b).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모두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3으로 지정받으며, 장애아 1인당 보육료 449,000원이 지원된다.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교사 혹은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8b).

2018년 기준으로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0.5%에 해당하는 177개소에서 6,225명,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2.5%에 해당하는 988개소에서 4,193명의 아동들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1-4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추이(2012-2018)

단위: 개소, 명(%)

구분	계	국공립	법인/법인 외	민간	가정	(전체)
2018	기관수	177	44	108	24	1
	(비율)	(100.0)	(24.9)	(61.0)	(13.6)	(0.6)
아동현원	6,225	1,341	4,141	728	15	
	(비율)	(100.0)	(21.5)	(66.5)	(11.7)	(0.2)
2017	기관수	178	43	110	24	1
	(비율)	(100.0)	(24.2)	(61.8)	(13.5)	(0.6)
아동현원	6,161	1,783	4,127	724	18	
	(비율)	(100.0)	(28.9)	(67.0)	(11.8)	(0.3)
2016	기관수	177	42	109	25	1
	(비율)	(100.0)	(23.7)	(61.6)	(14.1)	(0.6)
아동현원	6,158	1,249	4,125	767	17	
	(비율)	(100.0)	(20.3)	(67.0)	(12.5)	(0.3)

구분	계	국공립	법인/법인 외	민간	가정	(전체)	
2015	기관수 (비율)	175 (100.0)	40 (22.9)	109 (62.3)	25 (14.3)	1 (0.6)	(0.4)
	아동현원 (비율)	5,895 (100.0)	1,156 (19.6)	4,020 (68.2)	701 (11.9)	18 (0.3)	(0.4)
2014	기관수 (비율)	174 (100.0)	37 (21.3)	109 (62.6)	27 (15.5)	1 (0.6)	(0.4)
	아동현원 (비율)	5,860 (100.0)	1,070 (18.3)	3,996 (68.2)	776 (13.2)	18 (0.3)	(0.4)
2013	기관수 (비율)	172 (100.0)	36 (20.9)	107 (62.2)	28 (16.3)	1 (0.6)	(0.4)
	아동현원 (비율)	5,883 (100.0)	1,048 (17.8)	4,010 (68.1)	810 (13.8)	15 (0.3)	(0.4)
2012	기관수 (비율)	171 (100.0)	34 (19.9)	107 (62.6)	28 (16.4)	2 (1.2)	(0.4)
	아동현원 (비율)	5,994 (100.0)	1,040 (17.4)	4,105 (68.4)	813 (13.6)	36 (0.6)	(0.4)

주: 1) 전체 비율은 해당 년도의 전체 어린이집 수와 보육아동 수 대비 비율임.

2) 직장어린이집과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없어 표에 제시하지 않음.

자료: 1)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2) 보건복지부(2018a). 보육정책 DW 시스템(2018. 11. 기준)

표 II-1-5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추이(2012-2018)

단위: 개소, 명(%)

구분	계	국공립	법인/법인 외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전체)	
2018	기관수 (비율)	988 (100.0)	755 (76.4)	71 (7.2)	140 (14.2)	12 (1.2)	2 (0.2)	8 (0.8)	(2.5)
	아동현원 (비율)	4,193 (100.0)	3,142 (74.9)	361 (8.6)	646 (15.4)	18 (0.4)	4 (0.1)	22 (0.5)	(0.3)
2017	기관수 (비율)	946 (100.0)	709 (74.9)	71 (7.5)	143 (15.1)	14 (1.5)	2 (0.2)	7 (0.7)	(2.4)
	아동현원 (비율)	4,066 (100.0)	3,007 (74.0)	360 (8.9)	653 (16.1)	22 (0.5)	4 (0.1)	20 (0.5)	(0.3)
2016	기관수 (비율)	911 (100.0)	667 (73.2)	71 (7.8)	150 (16.5)	15 (1.6)	1 (0.1)	7 (0.8)	(2.2)
	아동현원 (비율)	4,079 (100.0)	2,997 (73.5)	369 (9.0)	668 (16.4)	20 (0.5)	0	25 (0.6)	(0.3)
2015	기관수 (비율)	899 (100.0)	641 (71.3)	74 (8.2)	159 (17.7)	17 (1.9)	7 (0.8)	1 (0.1)	(2.1)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 외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전체)
아동현원 (비율)	3,929 (100.0)	2,854 (72.6)	367 (9.3)	667 (17.0)	23 (0.6)	17 (0.4)	1 -	(0.3)
기관수 (비율)	872 (100.0)	605 (69.4)	77 (8.8)	167 (19.2)	18 (2.1)	1 (0.1)	4 (0.5)	(2.0)
아동현원 (비율)	3,835 (100.0)	2,781 (72.5)	369 (9.6)	643 (16.8)	23 (0.6)	1 -	18 (0.5)	(0.2)
기관수 (비율)	867 (100.0)	571 (65.9)	82 (9.5)	186 (21.5)	25 (2.9)	1 (0.1)	2 (0.2)	(2.0)
아동현원 (비율)	3,689 (100.0)	2,643 (71.6)	363 (9.9)	620 (16.8)	50 (1.4)	1 -	12 (0.3)	(0.2)
기관수 (비율)	836 (100.0)	527 (63.0)	85 (10.1)	195 (23.3)	26 (3.1)	1 (0.1)	2 (0.2)	(2.0)
아동현원 (비율)	3,565 (100.0)	2,470 (69.3)	366 (10.2)	672 (18.8)	46 (1.3)	3 (0.1)	8 (0.2)	(0.2)

주: 전체 비율은 해당 년도의 전체 어린이집 수와 보육아동 수 대비 비율임.
 자료: 1)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2) 보건복지부(2018a). 보육정책 DW 시스템(2018. 11. 기준)

나) 시간연장형 보육

2018년 기준 시간연장형 보육료는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한 것이며, 매월 60시간에 한하여 일반아동은 180,000원, 장애아동은 240,000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8b).

야간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을 하거나 한 부모 혹은 조손가정의 아동으로서 24시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8b). 휴일보육료는 토요일을 제외하고 정부지원 일 보육료의 150%를 지원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8b).

2018년 기준으로 시간연장형 보육은 전체 어린이집의 22.0%에 해당하는 8,639개소 어린이집에서 전체 아동의 2.2%의 비율을 차지하는 31,381명의 아동들이 이용하였다.

표 II-1-6 시간연장형 보육 공급 및 이용 현황(2016-2018)

단위: 명(%), 개소

시·도	계	시간연장	휴일	24시간	(전체 대비 비율)
2018년 전체					
아동 수	31,381	30,624	165	592	(2.2)
어린이집 수	8,639	8,095	309	235	(22.0)
2017년 전체					
아동 수	35,747	34,772	280	695	(2.5)
어린이집 수	8,803	8,245	306	252	(21.9)
2016년 전체					
아동 수	37,379	36,367	311	701	(2.6)
어린이집 수	8,854	8,296	300	258	(21.6)

자료: 1)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2) 보건복지부(2018a). 보육정책 DW 시스템(2018. 11. 기준)

나. 어린이집 공급 및 이용의 지역적 격차

1) 시·도별 격차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공급률은 2011년 이후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8년에는 전년도 57.7%보다 상승한 59.4%로 나타났다. 시·도별 어린이집 공급률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공급률에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전남, 제주 지역이 70%가 넘는 공급률을 보이는 반면, 부산과 울산은 51.2%, 53.8%로 5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81.6%로 이전년도의 정원충족률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비 공급률이 비교적 낮은 부산, 울산과 같은 지역들은 정원충족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1-7 시·도별 어린이집 공급률/이용률/정원충족률(2011-2018)

단위: 명, %

구분	영유아인구수 (A)	보육정원 (B)	보육현원 (C)	공급률 (B/A)	이용률 (C/A)	정원충족률 (C/B)	유치원 이용률
전체	2,914,567	1,731,785	1,413,532	59.4	48.5	81.6	49.3
서울	473,182	263,167	227,091	55.6	48.0	86.3	39.2
부산	172,146	88,224	73,419	51.2	42.6	83.2	55.0
대구	131,924	72,448	56,718	54.9	43.0	78.3	61.6
인천	170,128	93,724	79,045	55.1	46.5	84.3	52.9
광주	87,185	61,162	43,983	70.2	50.4	71.9	58.0

구분	영유아인구수 (A)	보육정원 (B)	보육현원 (C)	공급률 (B/A)	이용률 (C/A)	정원충족률 (C/B)	유치원 이용률
대전	87,053	51,192	41,534	58.8	47.7	81.1	58.4
울산	74,352	39,996	34,432	53.8	46.3	86.1	53.2
세종	30,330	17,474	14,107	57.6	46.5	80.7	46.3
경기	817,620	465,781	392,388	57.0	48.0	84.2	49.0
강원	74,747	51,533	39,352	68.9	52.6	76.4	46.5
충북	90,199	61,630	48,779	68.3	54.1	79.1	41.7
충남	127,959	86,114	68,241	67.3	53.3	79.2	46.7
전북	94,998	66,268	49,533	69.8	52.1	74.7	52.6
전남	97,410	68,444	51,125	70.3	52.5	74.7	42.8
경북	142,281	89,871	67,754	63.2	47.6	75.4	58.7
경남	200,259	124,813	99,501	62.3	49.7	79.7	53.5
제주	42,794	29,944	26,530	70.0	62.0	88.6	29.8
2017	3,044,577	1,756,603	1,450,243	57.7	47.6	82.6	49.4
2016	3,153,489	1,767,224	1,451,215	56.0	46.0	82.1	49.0
2015	3,187,718	1,790,821	1,452,813	56.2	45.6	81.1	48.9
2014	3,210,156	1,800,659	1,496,671	56.1	46.6	83.1	-
2013	3,264,476	1,782,459	1,486,980	54.6	45.6	83.4	-
2012	3,265,160	1,721,917	1,487,361	52.7	45.6	86.4	-
2011	3,212,933	1,621,948	1,348,729	50.5	42.0	83.2	-

주: 1) 보육 정원 및 보육 현원 중에는 초등학교생이 일부 포함됨.

2) 유치원 이용률은 '유치원 현원/만4-6세 유아 수*100'으로 산출함.

자료: 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18). [http://27.101.213.4/index.jsp#\(2018. 11. 기준\)](http://27.101.213.4/index.jsp#(2018. 11. 기준)).

2)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3) 교육통계(2018). 행정구역별 설립별 학생 수.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4203&sunvSeq=2018&itemCode=01&menuId=m_010108&uppCd1=010108&uppCd2=010108&flag=A\(2018. 4. 기준\)](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4203&sunvSeq=2018&itemCode=01&menuId=m_010108&uppCd1=010108&uppCd2=010108&flag=A(2018. 4. 기준)).

2) 시·군·구별 격차

2018년 시·군·구의 어린이집 공급률 평균은 63.0%이나, 각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울산과 부산은 54.1%, 54.7%로 55%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전남은 85.3%로 매우 높고, 전북 72.6%, 제주도 공급률 평균이 71.5%로 70%를 상회한다. 지역 내 격차도 큰 편인데, 경기지역은 최소가 26.0%, 최대가 92.2%이다. 충북과 충남지역은 최소 지역이 모두 50.5%였으나, 최대 지역은 각각 106.9%, 90.8%로 나타난다.

표 II-1-8 | 시·군·구 보육 공급률 및 이용률 평균(2018)

단위: %

구분	보육 공급률			보육 이용률			국공립 공급률			국공립 이용률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63.0	26.0	106.9	49.0	21.6	75.1	10.1	-	45.3	8.5	-	46.5
서울	58.2	43.5	85.1	49.8	37.4	66.7	20.4	12.3	38.5	18.2	11.3	31.2
부산	54.7	39.4	79.1	45.2	44.9	67.2	10.4	2.8	30.2	9.1	4.9	25.0
대구	58.4	43.7	88.6	45.3	36.6	67.8	4.4	2.6	5.8	4.1	2.3	5.4
인천	57.7	43.2	72.4	46.7	39.3	55.8	12.2	4.3	34.9	9.6	3.5	23.3
광주	69.6	61.9	78.3	50.2	46.8	53.6	3.2	2.1	5.4	2.5	1.4	4.6
대전	62.3	53.6	71.5	49.3	45.3	54.3	3.0	1.6	6.8	2.6	1.4	5.8
울산	54.1	50.9	58.9	46.5	44.3	50.8	4.2	2.4	5.5	3.8	2.3	4.9
세종	57.6	57.6	57.6	46.5	46.5	46.5	5.8	5.8	5.8	46.5	46.5	46.5
경기	58.9	26.0	92.2	48.7	22.4	75.1	7.7	1.5	22.3	6.9	1.5	20.8
강원	69.5	56.5	85.0	51.8	44.3	62.3	14.3	2.8	45.3	11.2	2.3	37.3
충북	71.4	50.5	106.9	53.7	42.3	63.3	8.7	1.8	29.7	7.5	1.6	24.8
충남	71.8	50.5	90.8	54.4	42.1	66.9	5.8	0.9	14.8	4.7	0.8	12.7
전북	72.6	42.4	89.7	48.8	28.1	62.6	1.4	-	28.7	6.3	-	19.4
전남	85.3	45.7	92.0	48.2	31.3	65.2	3.1	-	22.4	6.6	-	18.2
경북	57.9	28.2	77.9	43.7	21.6	60.6	12.1	2.4	28.3	9.3	1.7	21.6
경남	62.9	42.7	90.4	49.6	32.7	67.0	9.4	1.8	36.9	7.9	1.7	31.1
제주	71.5	68.6	74.3	62.3	61.7	63.9	6.7	3.4	9.9	6.2	3.3	9.2

주: 1) 시·도의 각 시·군·구의 평균, 최소, 최대값이며, 대상 연령은 0~6세 이상임.
 2) 통계 산출 단위의 통일성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는 각 시의 구별 통계를 시별 통계로 재산출하여 사용하였음.
 자료: 1) 행정안전부(2018).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27.101.213.4/index.jsp#\(2018. 11. 기준\)](http://27.101.213.4/index.jsp#(2018. 11. 기준))
 2) 보건복지부(2018a). 보육정책 DW 시스템(2018. 11. 기준).

2 비용 지원

영유아 보육이 무상으로 제공됨에 따라 국고지원 보육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보육료지원과 가정양육수당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비용 지원의 경우,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현재까지의 국고 지원 보육 예산의 변화,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보육 예산

영유아보육법 제34조 1항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해야한다. 무상 보육을 제공받는 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아와, 공통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만3세 이상의 영유아에 해당된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 항).

국고지원 보육 예산을 살펴보면, 국고지원 예산은 보육료지원과 가정양육수당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2015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 비용의 경우 2015년도에는 10.1%, 2018년도에는 17.9%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2015년도에는 22.8%, 2018년도에는 19.8%로 소폭 감소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의 비율은 1.1%로, 2015년도 4.5%의 비율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외에 어린이집 기능 보강, 보육 인프라 구축 등의 예산들은 전년과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Ⅱ 표 II-2-1 Ⅱ 국고 지원 보육예산(2012-2018)

단위: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어린이집 운영지원 ¹⁾	423,152(14.0)	444,463	467,111	496,945(10.1)	816,618	901,852	987,744(17.9)
보육료 지원	2,391,291(79.0)	2,594,419	3,329,228	3,049,373(61.7)	3,106,581	3,129,242	3,257,470(59.2)
어린이집 기능 보강	11,867(0.4)	7,595	7,144	6,787(0.1)	6,447	6,447	5,802(0.1)
보육 인프라 구축	15,377(0.5)	38,490	18,268	16,661(0.3)	23,202	16,902	17,745(0.3)
어린이집 평가인증	6,026(0.2)	6,668	8,600	9,800(0.2)	7,653	7,856	8,226(0.1)
어린이집 지원(공공형 등)	78,207(2.6)	153,775	189,061	221,707(4.5)	48,730	55,827	60,999(1.1)
가정양육수당	102,646(3.4)	880,950	1,215,319	1,101,768(22.3)	1,219,200	1,224,184	1,089,137(19.8)
기타 ²⁾	-	20,265	39,088	40,953(0.8)	42,393	31,141	78,108(1.4)
전체	3,028,567(100.0)	4,146,625	5,273,819	4,943,994(100.0)	5,270,824	5,373,451	5,505,231(100.0)

주: 1)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보육돌봄서비스(종사자 인건비) 예산임.

2) 기타 항목은 시간차등형보육, 어린이집 확충 비용임.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나. 보육비용 지원

1)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2018년 기준 보육료 지원 단가는 만0세는 441,000원, 만1세는 388,000원, 만3~5세는 220,000원이다.

표 II-2-2 보육료 지원 대상/지원 단가(2018)

단위: 원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비율	연령	지원 단가			
				종일	맞춤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100%	만0세	441,000	344,000	441,000	661,500
			만1세	388,000	302,000	388,000	582,000
			만2세	321,000	250,000	321,000	481,500
			만3~5세	220,000	-	220,000	330,000

자료: 보건복지부(2018b). 2018 보육사업 안내. p. 325.

보육료 지원 아동 수는 2012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18년에는 총 1,389,747명으로 나타난다. 영아 대상 보육료 지원 아동 수는 802,968명, 누리과정 지원 아동 수는 532,775명으로, 무상보육 이후 여전히 영아 대상 보육료 지원 아동 수가 많지만, 공통적으로 2015년 이후로는 계속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다문화아동 지원 수는 2015년 이후 대폭 증가하여 2018년 기준 41,439명으로 나타났다.

표 II-2-3 보육료 지원 아동 수(2009/2012~2018)

단위: 명

구분	합계	0~4세 보육료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영아 (만0~2세)	누리 (만3~5세)	장애아 무상 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	다문화 아동	방과후
2009	794,755	671,721	107,951	-	-	15,083	(60,704)	-	-
2012	1,351,232	1,160,214	142,772	-	-	13,022	-	35,224	-
2013	1,474,645	-	-	847,885	575,704	11,967	-	35,521	3,568
2014	1,482,767	-	-	865,267	568,542	11,709	-	34,569	2,680
2015	1,438,167	-	-	841,233	550,848	11,540	-	32,593	1,953

구분	합계	0~4세 보육료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영아 (만0~2세)	누리 (만3~5세)	장애아 무상 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	다문화 아동	방과후
2016	1,433,789	-	-	801,058	567,401	11,872	-	41,476	1,535
2017	1,431,940	-	-	821,309	548,441	11,689	-	42,009	1,163
2018	1,389,747	-	-	802,968	532,775	11,723	-	41,439	842

주: 1) 2009~2010년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아동은 차등보육료 지원 아동과 중복되므로 합계에서 제외하고, 2012년 방과후 보육지원 아동을 제외함.
 2) 2009~2011년은 방과후 보육 지원 아동수를 별도 제시하지 않고 0~4세 보육료에 포함함.
 3) 2013년 3월부터 3~5세 누리과정이 실시됨에 따라 보육료 지원 아동 구분을 달리 제시함.
 자료: 1) 보건복지부(각 연도), 각 연도 보육통계.
 2) 보건복지부(2018a), 보육정책 DW 시스템(2018. 11. 기준).

보육료의 수납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어린이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부모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받을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38조). 보육료 수납액의 결정권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이들은 관할 지역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보육료의 수납한도액을 내년 1월 말까지 결정하고, 시달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8b: 83).

2018년 기준 전국 지역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살펴보면, 민간어린이집 만3세 아를 기준으로 최저 277,000원(제주)에서 최대 325,000원(서울)으로 나타났으며, 48,000원의 격차를 보인다. 만4~5세아는 최저 266,000원(세종)에서 최대 309,000원(서울)으로 43,000원의 격차를 보인다.

정부 미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와 부모의 경우, 어린이집 내에서 결정한 보육료와 정부 지원 보육료 차액을 부모로부터 수납을 해야 하므로 보육료 상한액의 지역적 격차는 보육서비스의 측면에서 제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표 II-2-4 전국 지역의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액(2018)

단위 : 원

구분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정부지원시설
	만3세	만4/5세	만3세	만4/5세	
서울	325,000	309,000	325,000	309,000	만0세: 441,000
부산	293,000	278,000	293,000	278,000	만1세: 388,000
대구	285,000	269,000	291,000	279,000	만2세: 321,000
인천	304,000	290,000	304,000	290,000	만3세: 220,000
광주	282,000	270,000	298,000	286,000	만4세: 220,000
					만5세: 220,000

구분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정부지원시설
	만3세	만4/5세	만3세	만4/5세	
대전	292,000	275,000	292,000	275,000	
울산	291,000	275,000	307,000	288,000	
경기	302,000	280,000	305,000	305,000	
강원	286,000	268,000	299,000	288,000	
충북	286,000	267,000	293,000	286,000	
충남	297,000	284,000	307,000	299,000	
전북	287,000	274,000	287,000	274,000	
전남	304,000	285,000	318,000	306,000	
경북	284,000	269,000	289,000	276,000	
경남	287,000	270,000	303,000	295,000	
제주	277,000	269,000	293,000	281,000	
세종	279,000	266,000	280,000	262,000	

자료: 1) 서울특별시(2018). 2018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2)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busan.go.kr/mom/2017nurcare>(2018. 11. 13 인출).
 3)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daegu.go.kr/woman/index.do?menu_id=00050121(2018. 11. 08 인출).
 4) 인천광역시(2018). 2018 인천시 보육사업 안내.
 5) 광주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gwangju.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flag=SI&BBSGB=47&BID=146495>(2018. 11. 08 인출).
 6) 대전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daejeon.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flag=SI&BBSGB=47&BID=146477>(2018. 11. 13 인출).
 7)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ulsan.go.kr/rep/ubnotify/24976?gosiGbn=A>(2018. 11. 13 인출).
 8) 경기도(2018). 2018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9) 강원도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gw/gnews/sub04_01?mode=readForm&articleSeq=20180118173627240(2018.11.13 인출).
 10)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s://chungbuk.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flag=SI&BBSGB=47&BID=146518>(2018. 11. 13 인출).
 11) 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cnet/content.do?mnu_cd=CNMMENU01978(2018. 11. 13 인출).
 12)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board/view.jeonbuk?boardId=JEONBUK_ANNOUNCE&menuCd=DOM_000000102001002001&startPage=49&keyword=수납한도액&dataSid=1670153(2018. 11. 13 인출).
 13) 전라남도 홈페이지. <http://www.jeonnam.go.kr/J0203/boardView.do?seq=15723&menuld=jeonnam0203000000>(2018. 11. 13 인출).
 14) 경상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s://gyeongbuk.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flag=SI&BBSGB=47&BID=146574&clsfcode=&offset=>(2018. 11. 13 인출).
 15) 경상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gyeongnam.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2018. 11. 13 인출).
 16)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jeju.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2018. 11. 13 인출).
 17)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http://www.sejong.go.kr/prog/announce/kor/sub02_03_03/listC/view.do?namno=23716&an_search_con=announce_subject&searchWrd=보육정책위원회&pageIndex=1(2018. 11. 13 인출).

필요경비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 구입 비용과 보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 현장학습, 행사비 등에 사용되는 실비 개념의 비용으로(보건복지부, 2018b:87), 시·도지사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공고해야 한다.

아래 <표 II-2-5>의 2018년 기준 전국 지역의 필요경비 종류와 수납한도액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모두 상이함을 알 수 있다. 필요경비와 수납한도액은 시·도별로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급식비, 시도특성화비를 모두 합한 비용이 부모들이 보육료 외에 어린이집에 추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육료 전액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실질적으로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들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II-2-5 ▣ 전국 지역의 필요경비의 종류 및 수납 한도액(2018)

단위: 원

구분	입학준비금 (년)	특별활동비 (월)	현장학습비 (분기/년)	차량운행비 (월)	행사비(년)	아침·저녁 급식비(월)	시도 특성화비(월)
서울	100,000	정부지원 50,000	80,000/ 320,000	55,000	85,000	40,000	30,000
		정부미지원 80,000					
부산	100,000	국공립 70,000	50,000/ 200,000	25,000	88,000	40,000	-
		국공립외 80,000					
대구	90,000	국공립 60,000	35,000/ 140,000	25,000	80,000	34,000	15,000
		국공립 외 100,000					
인천	100,000	정부지원 44,000	0-1세 75,000/ 300,000	20,000	0-1세 75,000/ 300,000	20,000	67,000
		정부미지원 49,000	18개월이상 67,000/ 201,000		18개월이상 67,000/ 201,000		
광주	90,000	국공립 50,000	45,000/ 180,000	20,000	80,000	26,000	40,000
		국공립 외 55,000					
대전	93,000	국공립 50,000	60,000/ 240,000	국공립 18,000	80,000	30,000	25,000
		국공립 외 60,000		국공립 외 25,000			

구분	입학준비금 (년)	특별활동비 (월)	현장학습비 (분기/년)	차량운행비 (월)	행사비(년)	아침·저녁 급식비(월)	시도 특성화비(월)
울산	100,000	85,000	60,000/ 240,000	20,000	100,000	34,900	-
경기	100,000	26,000			시·군 결정		
강원	90,000	80,000	50,000/ 200,000	25,000	85,000	30,000	25,000
충북	90,000	정부지원 80,000 정부미지원 90,000	50,000/ 200,000	30,000	80,000	26,000	정부지원 80,000 정부미지원 90,000
충남	90,000	90,000	50,000/ 200,000	30,000	70,000	아침 20,000 저녁 30,000	30,000
전북	80,000	90,000	45,000/ 180,000	40,000	150,000	30,000	30,000
전남	100,000	국공립 70,000 국공립외 80,000	50,000/ 200,000	30,000	90,000/ 60,000	25,000	250,000 (년)
경북	100,000	80,000	40,000/ 160,000	23,000	80,000	18,000	25,000
경남	80,000	국공립·민간· 가정 60,000 기타 65,000	30,000/ 120,000	22,000	80,000	24,000	국공립·기타 23,000 민간·가정 30,000
제주	70,000	60,000	30,000/ 120,000	20,000	120,000	30,000	20,000
세종	90,000	80,000	54,000/ 216,000	23,000	100,000	36,900	30,000

주: 1) 월 기준급식비는 지자체에서 1식 기준으로 제시한 경우, 충북의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20일치로 환산하여 입력하였음.

2) 전남지역의 경우, 행사비목이 일반 행사비(90,000)와 앨범비(60,000)로 분리되어 있음. 시도특성화비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1년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1) 서울특별시(2018). 2018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2)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busan.go.kr/mom/2017nurcare>(2018. 11. 13 인출).

3)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daegu.go.kr/woman/index.do?menu_id=00050121(2018. 11. 08 인출).

4) 인천광역시(2018). 2018 인천시 보육사업 안내.

5) 광주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gwangju.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flag=SI&BBSGB=47&BID=146495>(2018. 11. 08 인출).

6) 대전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daejeon.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flag=SI&BBSGB=47&BID=146477>(2018. 11. 13 인출).

7)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ulsan.go.kr/rep/ubnotify/24976?gosiGbn=A>(2018. 11. 13 인출).

8) 경기도(2018). 2018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9) 강원도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gw/gnews/sub04_01?mode=readForm&articleSeq=20180118173627240(2018.11.13 인출).

- 10)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s://chungbuk.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flag=SI&BBSGB=47&BID=146518>(2018. 11. 13 인출).
- 11) 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MENU01978\(2018. 11. 13 인출\).](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MENU01978(2018. 11. 13 인출).)
- 12)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board/view.jeonbuk?boardId=JEONBUK_ANNOUNCE&menuCd=DOM_000000102001002001&startPage=49&keyword=수업한도액&dataSid=1670153\(2018. 11. 13 인출\).](http://www.jeonbuk.go.kr/board/view.jeonbuk?boardId=JEONBUK_ANNOUNCE&menuCd=DOM_000000102001002001&startPage=49&keyword=수업한도액&dataSid=1670153(2018. 11. 13 인출).)
- 13) 전라남도 홈페이지. [http://www.jeonnam.go.kr/J0203/boardView.do?seq=15723&menuId=jeonnam0203000000\(2018. 11. 13 인출\).](http://www.jeonnam.go.kr/J0203/boardView.do?seq=15723&menuId=jeonnam0203000000(2018. 11. 13 인출).)
- 14) 경상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s://gyeongbuk.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flag=SI&BBSGB=47&BID=146574&clsfccode=&offset=\(2018. 11. 13 인출\).](https://gyeongbuk.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flag=SI&BBSGB=47&BID=146574&clsfccode=&offset=(2018. 11. 13 인출).)
- 15) 경상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gyeongnam.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2018. 11. 13 인출\).](http://gyeongnam.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2018. 11. 13 인출).)
- 16)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jeju.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2018. 11. 13 인출\).](http://jeju.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2018. 11. 13 인출).)
- 17)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http://www.sejong.go.kr/prog/announce/kor/sub02_03_03/listC/view.do?namno=23716&an_search_con=announce_subject&searchWrd=보육정책위원회&pageIndex=1\(2018. 11. 13 인출\).](http://www.sejong.go.kr/prog/announce/kor/sub02_03_03/listC/view.do?namno=23716&an_search_con=announce_subject&searchWrd=보육정책위원회&pageIndex=1(2018. 11. 13 인출).)

2) 가정양육수당 지원

2018년도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만84개월 미만의 전 계층 아동이다(보건복지부, 2018b). 2018년도 기준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은 월령별로 100,000원~200,000원이다. 급여액은 대상별로 차이를 보인다. 농어촌 양육수당은 0~11개월, 12~23개월, 24~35개월, 36~47개월 아동에게 각각 200,000원, 177,000원, 156,000원, 129,000원을 지급하며, 장애아동의 경우 35개월 이하는 200,000원, 36개월 이상부터는 100,000원을 지급한다.

▣ 표 II-2-6 ▣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지원 금액(2018)

단위: 원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0-35	200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84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84개월 미만	100천원
		48-64개월 미만	100천원		

자료: 보건복지부(2018b). 2018 보육사업 안내. p. 344.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는 전 계층 확대에 따라 2013년 이후 30%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나, 2016년도 이후로 점차 감소하여 2018년도에는 730,321명으로 나타났다.

0세와 1세아가 각각 10.0%, 7.8%로 높고, 2세아는 2.9%, 3세아부터는 각 연령별로 약 1%선이다.

▣ 표 II-2-7 ▣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2010/2012-2018)

단위: 명(%)

구분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아	5세아	6세이상	계
2010 (전체아동 대비비율)	24,447 (5.45)	27,391 (6.17)	- -	- -	- -	- -	- -	51,838 (1.62)
2012 (전체아동 대비비율)	37,727 (8.12)	44,128 (9.34)	18,486 (3.93)	1,178 (0.26)	573 (0.12)	381 (0.08)	180 (0.04)	102,653 (3.14)
2013 (전체아동 대비비율)	385,585 (11.81)	346,952 (10.63)	145,049 (4.44)	63,164 (1.93)	38,360 (1.18)	40,445 (1.24)	40,929 (1.25)	1,060,484 (32.49)
2014 (전체아동 대비비율)	383,389 (11.94)	309,908 (9.65)	145,075 (4.52)	60,126 (1.87)	39,152 (1.22)	34,803 (1.08)	39,883 (1.24)	1,012,336 (31.54)
2015 (전체아동 대비비율)	386,361 (12.12)	310,212 (9.73)	132,195 (4.15)	66,546 (2.09)	40,139 (1.26)	37,894 (1.19)	35,999 (1.13)	1,009,346 (31.66)
2016 (전체아동 대비비율)	363,178 (11.5)	305,911 (9.7)	117,302 (3.7)	47,840 (1.5)	34,711 (1.1)	30,609 (1.0)	33,602 (1.1)	933,153 (29.6)
2017 (전체아동 대비비율)	317,981 (10.4)	274,578 (9.0)	106,954 (3.5)	43,300 (1.4)	29,134 (1.0)	32,163 (1.1)	32,180 (1.1)	836,290 (27.5)
2018 (전체아동 대비비율)	292,010 (10.0)	228,272 (7.8)	83,314 (2.9)	37,808 (1.3)	27,988 (1.0)	29,013 (1.0)	31,913 (1.1)	730,321 (25.1)

자료: 1)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2) 보건복지부(2018a). 보육정책 DW 시스템(2018. 11. 기준).
 3) 행정안전부(각 년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III

아동 가구와 가구원 특성

- III-1. 인구학적 특성
- III-2. 사회경제적 특성
- III-3. 시사점



Ⅲ. 아동 가구와 가구원 특성

본 장에서는 영유아 가구, 부모, 아동 특성을 포함한 인구학적 특성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절에서는 가구규모, 가구형태, 부모의 건강특성, 이주민 여부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2절에서는 부모의 취업 및 근로 특성, 근로 소득 및 가구소득, 자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경험, 거주 주택 특성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1 인구학적 특성

본 절에서는 2018년 보육실태조사의 조사대상 가구의 규모, 형태 등 가구 특성, 연령·학력, 건강상태 등 부모 특성, 아동의 연령, 장애 여부 등 아동 특성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가구 특성

1) 가구 규모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35.7%가 보육료만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수당만을 받는 가구는 24.8%, 유아학비만 받는 가구는 24.4%, 복합지원을 받는 가구는 15.1%였다. 영아가구 중에 44.5%는 양육수당만 지급받고 있었으며, 유아가구의 경우에는 보육료만 지원받는 가구가 38.0%, 유아학비만 지원받는 가구가 35.6%였다.

가구원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와 유사하게 가구원 수가 4인인 가구가 41.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인 가구 36.1%, 5인 가구 15.1% 순이었다.

읍·면지역의 평균 가구원 수가 평균 4.2명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평균 3.8명에 비해 다소 많았다.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41.1%는 자녀수가 1명이었으며, 2명은 44.3%, 3명 이상은 14.6%였다.

표 III-1-1 영유아 가구의 가구원 수 특성

단위: %(가구)

구 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2015년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지원유형													
보육료	26.5	32.2	28.4	28.8	38.9	35.3	39.5	38.0	35.3	35.3	36.8	35.7	-
유아학비	0.4	0.6	0.2	0.4	34.5	36.2	36.6	35.6	23.2	24.5	25.9	24.4	-
양육수당	47.1	43.5	41.6	44.5	6.7	10.5	3.9	7.0	26.1	26.7	20.7	24.8	-
복합지원	26.0	23.7	29.8	26.4	19.9	18.0	20.0	19.4	15.3	13.5	16.5	15.1	-
가구원수													
2명	0.3	1.2	0.7	0.7	2.4	0.5	1.2	1.5	1.8	0.9	1.2	1.3	0.4
3명	47.2	46.8	32.8	43.1	25.9	25.1	17.1	23.1	40.1	39.6	26.8	36.1	32.3
4명	38.6	37.5	33.2	36.8	53.5	53.3	43.1	50.3	42.6	42.6	37.0	41.0	46.3
5명	10.4	9.5	22.4	13.4	15.0	16.8	22.2	17.7	12.4	13.1	21.2	15.1	15.6
6명 이상	3.5	5.0	10.9	6.0	3.2	4.3	16.3	7.4	3.1	3.9	13.8	6.4	5.3
평균	3.7	3.7	4.2	3.8	3.9	4.0	4.4	4.1	3.8	3.8	4.2	3.9	3.9
(표준편차)	(0.8)	(0.9)	(1.1)	(1.0)	(0.8)	(0.8)	(1.1)	(0.9)	(0.9)	(0.9)	(1.1)	(1.0)	(0.9)
2015평균	3.8	3.9	4.2	3.9	4.0	4.2	4.4	4.2	3.8	3.9	4.2	3.9	-
(표준편차)	(0.8)	(0.8)	(1.1)	(0.9)	(0.8)	(0.8)	(1.0)	(0.8)	(0.8)	(0.8)	(1.0)	(0.9)	-
2012년 평균	3.7	3.8	4.1	3.8	4.1	4.1	4.3	4.2	3.8	3.9	4.1	3.9	-
(표준편차)	(0.9)	(0.9)	(1.0)	(0.9)	(0.9)	(0.8)	(0.9)	(0.9)	(0.9)	(0.9)	(1.0)	(0.9)	-
자녀수													
1명	51.9	50.5	41.8	48.7	29.3	28.2	20.5	26.3	44.7	43.6	33.5	41.1	37.7
2명	40.0	40.3	39.1	39.8	57.7	55.4	51.2	55.1	45.2	44.1	43.2	44.3	49.0
3명 이상	8.1	9.3	19.1	11.5	13.0	16.4	28.3	18.6	10.1	12.3	23.3	14.6	13.4
영아													
없음	-	-	-	-	77.2	76.0	77.1	76.8	51.8	51.5	54.6	52.5	51.3
1명	92.1	92.3	89.7	91.5	22.4	23.1	21.7	22.4	44.4	44.8	40.7	43.5	44.1
2명 이상	7.9	7.7	10.3	8.5	0.5	0.9	1.2	0.8	3.8	3.7	4.7	4.0	4.6
유아													
없음	68.2	66.6	64.3	66.6	-	-	-	-	32.8	32.3	29.2	31.6	29.7
1명	30.2	31.9	32.6	31.4	87.9	86.5	84.9	86.6	59.0	58.6	60.1	59.2	60.7
2명 이상	1.6	1.5	3.1	2.0	12.1	13.5	15.1	13.4	8.2	9.1	10.7	9.2	9.6
초등학생													
없음	89.2	87.2	81.5	86.4	61.4	64.3	53.5	59.9	70.2	71.8	62.1	68.4	68.4
1명	8.9	10.2	13.8	10.7	34.2	30.4	35.9	33.6	26.2	23.7	28.6	26.1	26.4
2명 이상	1.9	2.6	4.7	2.9	4.4	5.3	10.6	6.5	3.6	4.5	9.2	5.5	5.2
중학생 이상													
없음	98.4	98.1	94.1	97.1	95.7	92.1	87.5	92.1	96.4	93.9	88.7	93.4	94.9

구 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2015년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1명	0.4	1.4	2.7	1.4	3.1	5.0	7.9	5.1	2.2	4.0	6.8	4.1	3.3
2명 이상	1.1	0.5	3.2	1.5	1.2	2.9	4.6	2.7	1.4	2.2	4.5	2.5	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13)	(428)	(431)	(1,372)	(681)	(578)	(614)	(1,873)	(946)	(782)	(805)	(2,533)	(2,59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가구 형태

가구 형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부부+자녀로 이뤄진 경우가 83.4%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한 조부모+부모+자녀가 5.6%, 조부모+부모+자녀가 4.8%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2012년과 2015년도에 비해 부부+자녀, 한 조부모+부모+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은 줄었으며, 조부모+부모+자녀 가구와 어머니 한부모+자녀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어머니 한부모+자녀 가구 비율은 2015년도 1.0%에서 2018년도 2.6%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III-1-2 영유아 가구의 가구형태 특성

단위: %(가구)

구 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2015년	2012년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조부모+부모+자녀	45	25	11.9	5.9	26	1.9	7.7	3.9	35	22	9.6	4.8	4.1	4.6
조부모+한부모+자녀	1.0	0.6	0.1	0.7	1.1	2.1	2.4	1.8	1.1	1.6	1.7	1.4	1.3	0.8
한 조부모+부모+자녀	3.3	5.8	9.5	5.8	3.9	4.7	8.4	5.5	3.6	5.1	8.8	5.6	6.3	6.1
한 조부모+한부모+자녀	0.3	0.4	1.7	0.7	1.0	1.2	1.9	1.3	0.8	1.0	2.0	1.2	0.7	0.5
부부+자녀	90.1	88.2	74.5	85.2	86.2	87.9	74.6	83.2	87.2	87.6	73.6	83.4	86.1	86.3
어머니 한부모+자녀	0.7	2.5	1.8	1.5	4.7	2.0	1.5	3.0	3.5	2.3	1.7	2.6	1.0	1.1
아버지 한부모+자녀	-	-	-	-	0.2	0.3	1.3	0.6	0.1	0.2	0.9	0.4	0.2	0.2
(한)조부모+자녀	-	-	0.1	-	-	-	1.7	0.5	-	-	1.2	0.4	0.4	0.2
친인척+자녀	0.1	-	-	0.1	0.1	-	-	-	0.1	-	-	-	-	-
비혈연+자녀	-	-	0.4	0.1	0.2	-	0.5	0.2	0.1	-	0.5	0.2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13)	(428)	(431)	(1,372)	(681)	(578)	(614)	(1,873)	(946)	(782)	(805)	(2,533)	(2,593)	(2,52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3) 동거 가구원 특성

동거가구원 특성을 살펴보면 모와 함께 동거하는 비율은 98.3%, 부와 함께 동거하는 비율은 94.9%였다. 특히 부와 함께 동거하는 비율은 한부모 가구 표본 증가에 영향을 받아 2015년도 97.4%에서 94.9%로 감소하였다.

모 이외에 동거하는 비율이 높은 가구원은 친조모로 7.7%였으며 다음으로 외조모 4.6%, 친조부 4.6% 순이었다. 특히 친조모의 경우에는 읍·면지역에 거주할 때 동거하는 비율이 영아가구에서는 15.6%, 유아가구에서는 15.7%로 상대적으로 동거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III-1-3 영유아 가구의 가구원별 동거 비율

단위: %(가구)

구 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2015년	2012년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부	98.0	96.9	95.8	97.1	93.4	95.6	93.7	94.1	94.8	95.8	94.1	94.9	97.4	97.5
모	99.7	99.6	99.5	99.6	99.0	98.9	94.7	97.7	99.3	99.1	96.1	98.3	98.7	99.2
친조부	5.0	1.2	9.9	5.2	2.0	2.8	8.0	4.0	3.3	2.1	9.0	4.6	4.1	4.0
친조모	5.3	4.3	15.6	7.8	4.9	3.4	15.7	7.7	4.9	3.7	16.1	7.7	7.1	8.3
외조부	1.6	2.8	4.1	2.7	1.7	2.7	4.1	2.7	1.8	3.0	4.3	2.9	2.6	1.8
외조모	2.7	4.2	5.8	4.0	3.7	4.9	5.6	4.6	3.6	4.8	6.0	4.6	4.7	3.3
부모형제자매	0.8	0.5	1.8	1.0	1.3	0.8	0.9	1.0	1.2	0.7	1.2	1.1	1.0	-
부모형제자매자녀	-	0.2	-	0.1	0.1	0.4	0.3	0.3	0.1	0.3	0.2	0.2	0.3	-
조부모형제자매	-	-	-	-	-	-	-	-	-	-	-	-	0.1	-
기타친족	0.1	-	0.3	0.1	0.1	0.5	1.4	0.6	0.1	0.4	1.0	0.4	0.2	-
비혈연	0.1	-	0.4	0.2	0.3	0.0	0.5	0.3	0.2	-	0.5	0.2	0.2	-
(수)	(513)	(428)	(431)	(1,372)	(681)	(578)	(614)	(1,873)	(946)	(782)	(805)	(2,533)	(2,593)	(2,52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나. 부모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 가구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III-1-4>에 제시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각각 39.6세, 36.6세였다. 조사대상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령이 2009년 35.8세, 33.0세에서 매 조사마다 꾸준히 증가하였다. 부의 경우는 유배우자

비율이 98.9%, 사별·별거·이혼한 비율이 1.1%였으며, 모의 경우는 유배우자 비율이 96.7%, 사별·별거·이혼 비율이 2.8%, 미혼모 비율이 0.4%였다.

4년제 대학 졸업한 비율이 부의 경우는 45.4% 모는 44.2%였다. 이러한 비율은 2015년도 조사에서 부 46.5%, 모 40.0%에 비해(김은설 외, 2016: 60) 부와 모의 학력 수준이 거의 동등해진 것을 보여준다.

표 III-1-4 영유아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세

구분	부				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연령								
29세 이하	2.6	4.1	3.5	3.3	5.5	6.3	9.9	7.0
30~34세	13.2	12.8	10.6	12.3	22.8	23.0	21.8	22.6
35~39세	39.1	32.6	32.6	35.3	47.2	42.3	39.0	43.4
40~44세	30.1	32.3	26.3	29.7	20.8	23.3	20.8	21.6
45세 이상	12.8	15.3	24.7	17.0	3.0	3.8	5.1	3.9
부재, 모름	2.1	2.9	2.3	2.4	0.6	1.3	3.3	1.6
평균(표준편차)	39.0(4.7)	39.5(5.5)	40.5(6.2)	39.6(5.5)	36.6(4.3)	36.8(4.8)	36.4(5.2)	36.6(4.7)
2015년	38.5(4.6)	38.9(5.1)	39.1(5.0)	38.8(4.9)	36.5(4.2)	36.3(4.4)	36.2(4.7)	36.4(4.4)
2012년	37.6(5.3)	36.5(4.9)	37.0(5.8)	37.1(5.3)	34.7(4.4)	34.0(4.5)	33.2(4.8)	34.2(4.6)
2009년	35.7(4.5)	35.8(4.7)	36.2(4.7)	35.8(4.7)	33.0(4.3)	33.1(4.9)	32.9(4.9)	33.0(4.5)
결혼상태								
유배우	99.5	99.0	97.8	98.9	96.4	97.0	96.9	96.7
미혼	-	-	-	-	0.5	0.4	0.5	0.4
사별·별거·이혼	0.5	1.0	2.2	1.1	3.1	2.6	2.6	2.8
학력								
무	-	-	-	-	-	-	0.4	0.1
초	0.2	0.2	0.6	0.3	0.2	0.5	1.2	0.6
중	0.3	1.2	1.0	0.8	0.6	1.4	4.1	1.9
고	16.1	24.0	37.4	24.7	18.9	28.5	34.9	26.4
2년제 대학	14.7	21.1	16.0	17.0	17.6	22.9	18.3	19.4
4년제 대학	53.5	43.0	36.4	45.4	53.7	40.4	34.6	44.2
대학원 이상	12.0	7.8	4.8	8.6	8.5	5.4	3.2	6.0
부재, 모름	3.1	2.7	3.7	3.2	0.5	0.9	3.3	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946)	(782)	(805)	(2,533)	(946)	(782)	(805)	(2,53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별거부모 포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건강 특성

조사대상가구 부모의 건강 특성을 살펴보면 부의 건강이 양호한 가구는 97.5%였으며, 장애가 있는 가구는 1.2%, 질병이 있는 가구는 1.3% 장애 및 질병이 있는 가구는 0.1%였다. 모의 건강이 양호한 가구는 98.8%였으며 장애가 있는 가구는 0.4%, 질병이 있는 가구는 0.8%였다. 2015년 조사보다 부와 모가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1-5 영유아 부모의 건강 특성

단위: %(명)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2015년	2012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부														
장애	0.3	0.9	1.2	0.7	1.5	1.5	1.7	1.6	1.0	1.1	1.5	1.2	0.6	1.2
질병	0.6	1.0	0.2	0.6	1.3	1.9	1.3	1.5	1.2	1.7	0.9	1.3	0.8	0.8
장애 및 질병	-	-	-	-	0.2	-	-	0.1	0.2	-	-	0.1	0.1	0.1
양호	99.0	98.0	98.7	98.6	97.0	96.6	97.0	96.9	97.7	97.2	97.6	97.5	97.9	97.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03)	(416)	(414)	(1,333)	(644)	(557)	(583)	(1,784)	(903)	(754)	(764)	(2,421)	(2,523)	(2,470)
모														
장애	0.2	0.1	0.1	0.1	0.5	1.1	0.1	0.6	0.4	0.8	-	0.4	0.3	0.6
질병	0.1	0.5	0.4	0.3	1.5	1.0	0.3	1.0	1.0	0.9	0.4	0.8	0.5	1.1
장애 및 질병	-	-	-	-	-	-	-	-	-	-	-	-	0.2	0.1
양호	99.7	99.4	99.5	99.5	97.9	97.9	99.7	98.4	98.6	98.4	99.6	98.8	99.0	98.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11)	(427)	(429)	(1,367)	(675)	(573)	(589)	(1,837)	(940)	(776)	(779)	(2,495)	(2,556)	(2,50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3) 동거부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3) 이주민가족 부모 특성

조사대상 가구의 이주민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이주민인 가구비율은 6.5%였으며 아버지가 이주민인 가구 비율은 1.0%로 2015년 조사 보다 이주민 가구비율이 부와 모 모두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는 모가 이주민인 비율이 12.3%로 대도시 3.4%, 중소도시 5.2%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표 III-1-6 영유아 가구의 이주민 가구 비율

단위: %(가구)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2015년	2012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부	1.0	0.2	2.2	1.1	0.8	0.7	1.2	0.9	1.0	0.4	1.5	1.0	0.5	0.2
모	3.8	4.1	12.4	6.3	3.6	5.7	12.8	7.0	3.4	5.2	12.3	6.5	2.6	3.9
(수)	(513)	(428)	(431)	(1,372)	(681)	(578)	(614)	(1,873)	(946)	(782)	(805)	(2,533)	(2,593)	(2,52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이주민 가구 아버지의 출신지는 베트남이 35.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주/유럽/대양주 30.6%, 중국 13.1%, 그 외 동남아시아 12.6% 순이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미주/유럽/대양주 출신이 읍·면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III-1-7 이주민 가구 아버지의 출신지

단위: %(가구)

구분	중국	일본	베트남	그 외 동남아시아	몽골/러시아/중앙아시아	미주/유럽/대양주	계(수)
전체	13.1	5.6	35.1	12.6	3.0	30.6	100.0 (25)
지역규모							
대도시	-	-	48.5	-	7.3	44.2	100.0 (10)
중소도시	40.6	-	-	-	-	59.4	100.0 (3)
읍·면지역	16.5	12.2	33.6	27.8	-	9.8	100.0 (11)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다음으로 이주민 가구 어머니의 출신지도 아버지와 동일하게 베트남이 46.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국 20.8%, 그 외 동남아시아 9.8%, 필리핀 8.9% 순이었다.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베트남 출신인 비율이 52.1%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1-8 이주민 가구 어머니의 출신지

단위: %(가구)

구분	중국	중국 (한국계)	일본	베트남	필리핀	그 외 동남 아시아	남부 아시아	몽골/ 러시아/ 중앙 아시아	미주/ 유럽/ 대양주	기타	계	(수)
전체	20.8	2.8	2.9	46.3	8.9	9.8	1.5	3.3	0.4	3.3	100.0	(166)
지역규모												
대도시	28.2	2.5	2.1	45.9	9.7	-	-	6.0	1.8	3.8	100.0	(36)
중소도시	27.9	6.8	6.0	33.6	7.0	13.7	-	5.0	-	-	100.0	(40)
읍·면지역	14.7	1.2	1.9	52.1	9.4	12.0	2.7	1.5	-	4.5	100.0	(90)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이주민 가구 부모의 자녀 양육 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양육비 등 경제적 상황’의 점수가 3.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자녀지도 교육 3.0, 자신감 결여와 돌봄지원 부재 2.8 순이었다.

특히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자신감 결여, 양육비 등 경제적 상황, 아이와 의사소통, 대인관련 부적응의 어려움의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대도시, 중소도시 보다 읍·면지역이 아이의 사회적 부적응, 양육방식 갈등, 대인관계 관련 부적응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9 이주민(다문화, 결혼이민자, 귀화자) 부모의 자녀 양육 시 어려운 점

단위: 점(명)

구분	아이와 의사소통	양육비 등 경제적 상황	양육방식 갈등	자신감 결여	아이의 사회적 부적응	돌봄지원 부재	자녀지도 교육	대인관계 관련 부적응	(수)
전체	2.7	3.1	2.6	2.8	2.6	2.8	3.0	2.7	(186)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2.7	3.0	2.7	2.8	2.6	2.6	2.9	2.7	(103)
유아	2.7	3.2	2.5	2.8	2.6	2.9	3.0	2.6	(83)
t	0.1	-1.3	1.3	-0.3	-0.6	-2.0**	-0.4	0.7	
최연소자녀지원유형									
보육료지원	2.7	3.2	2.7	2.9	2.7	2.9	3.0	2.7	(72)
유아학비지원	2.7	3.1	2.4	2.8	2.7	2.9	3.0	2.6	(34)
양육수당지원	2.8	3.1	2.6	2.7	2.5	2.6	2.9	2.7	(76)
미응답	1.8	2.5	2.5	3.1	2.3	2.2	2.8	2.8	(4)
지역규모									
대도시	2.5	3.0	2.3	2.6	2.3	2.5	2.7	2.5	(41)
중소도시	2.5	3.2	2.5	2.6	2.4	2.7	2.9	2.5	(40)

구분	아기와 의사소통	양육비 등 경제적 상황	양육방식 갈등	자신감 결여	아이의 사회적 부적응	돌봄지원 부재	자녀지도 교육	대인관계 관련 부적응	(수)
읍·면지역	2.9	3.2	2.8	2.9	2.8	2.9	3.1	2.8	(105)
F	2.1	0.7	4.7	2.2	5***	1.9	2.2	2.3*(a)	
모취업 여부									
취업	2.5	3.3	2.6	2.7	2.5	2.8	3.0	2.5	(79)
미취업	2.9	3.0	2.6	2.8	2.6	2.7	3.0	2.8	(103)
모부재 등	2.6	3.2	3.9	3.6	4.0	4.1	3.9	3.6	(4)
F	2.8*	1.1(a)	3.1**	1.3	4.5**	2.7*(a)	1.4	4**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3.1	4.0	3.1	3.7	3.1	3.0	3.2	3.2	(27)
200~249만원	2.9	3.1	2.7	2.8	2.6	2.7	2.9	2.8	(23)
250~299만원	2.6	3.2	2.6	2.8	3.0	2.7	2.9	2.7	(21)
300~349만원	2.9	3.1	2.5	2.6	2.5	2.6	2.9	2.7	(38)
350~399만원	2.8	3.3	2.7	3.0	2.7	3.0	3.1	2.4	(16)
400~499만원	2.5	2.8	2.5	2.6	2.5	2.7	3.0	2.6	(37)
500~599만원	2.0	2.2	2.2	1.8	2.0	2.9	2.6	2.0	(16)
600~699만원	4.0	4.0	3.0	3.0	3.0	2.0	4.0	3.0	(1)
700만원 이상	1.5	1.9	2.2	2.7	2.4	3.0	2.7	2.8	(6)
모름/무응답	2.0	2.0	2.0	2.0	1.0	2.0	4.0	2.0	(1)
F	2.2**	4.9***	1.3	5.3***	1.9*	0.4	0.7	1.9**	
2015년(다문화)	2.5	3.2	2.8	3.0	2.7	2.8	2.9	-	(97)
2012년(다문화)	2.6	3.2	2.8	3.0	2.7	2.6	3.2	-	(10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3) 어려움 정도는 '매우 어려움' 1점~'전혀 어렵지 않음' 5점으로 평정하였으나, 2015년도, 2012년도 조사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역코딩하여 분석함.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이 많음을 의미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5$, ** $p < .01$, *** $p < .001$

다. 아동 특성

1)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 영유아의 지역규모별 영유아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남아는 1,960명, 여아는 1,918명으로 총 3,878명이었다. 2015년 총 3,637명에 비해서 조사대상 아동수가 약 200명가량 증가하였다. 대도시를 제외하고 중소도시 읍·면 지역의 경우 남아 수가 많았다.

표 III-1-10 지역규모별 영유아의 성별

단위: %(명)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2015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남자	415	363	382	1,160	533	491	522	1,546	698	621	641	1,960	1,861
여자	440	364	396	1,200	556	458	511	1,525	714	574	630	1,918	1,776
(수)	(855)	(727)	(778)	(2,360)	(1,089)	(949)	(1,033)	(3,071)	(1,412)	(1,195)	(1,271)	(3,878)	(3,637)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3) 영유아 수는 가구에서 응답한 실제 영유아 수임(가중치 미적용, 초등학교 이상 제외).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조사대상 아동의 출생 순위를 살펴보면 첫째아가 77.3%였으며 다음으로 둘째 21.3%, 셋째 1.4%, 넷째 0.1%였다. 2015년도에는 첫째아의 비율이 51.6%였으며, 둘째아의 비율은 38.5%, 셋째아의 비율은 8.5%였다. 2015년도에 비해 첫째아의 비율이 25%p이상 증가하였으며 둘째아의 비율과 셋째아의 비율은 크게 감소하였다.

표 III-1-11 조사대상 아동의 출생순위

단위: %(명)

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계(수)
전체	77.3	21.3	1.4	0.1	-	100.0 (3,878)
영유아구분						
영아	61.3	35.6	3.0	0.1	-	100.0 (1,568)
유아	87.9	11.8	0.3	-	-	100.0 (2,310)
연령						
0세	60.9	34.8	4.2	0.1	-	100.0 (448)
1세	60.7	36.1	3.1	0.2	-	100.0 (569)
2세	62.2	35.9	1.9	-	-	100.0 (551)
3세	72.3	26.5	1.1	0.1	-	100.0 (630)
4세	85.6	14.3	0.1	-	-	100.0 (631)
5세이상	97.6	2.4	-	-	-	100.0 (1,049)
지역규모						
대도시	78.3	20.5	1.2	-	-	100.0 (1,412)
중소도시	77.3	21.4	1.2	0.1	-	100.0 (1,195)
읍·면지역	75.9	22.3	1.7	0.1	-	100.0 (1,271)
모취업 여부						
취업	78.8	20.0	1.1	0.1	-	100.0 (1,633)
휴직중	77.1	20.8	2.2	-	-	100.0 (281)
미취업	75.6	22.8	1.6	-	-	100.0 (1,926)

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계(수)
모부재 등	92.3	7.7	-	-	-	100.0 (38)
2015년	51.6	38.5	8.5	1.3	0.1	100.0 (3,560)
2012년	51.4	39.4	8.4	0.8	0.1	100.0 (3,343)
2009년	49.5	39.4	9.9	1.1	0.1	100.0 (3,30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아동의 건강 특성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전체 영유아 가구 중 장애영유아가 있는 가구 비율은 0.9%, 질병이 있는 비율은 0.5%, 장애 및 질병이 있는 비율은 0.1%였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보다 읍·면지역의 영유아 가구가 장애영유아가 있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표 III-1-12 지역 규모별 영유아의 건강상태

단위: %(명)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2015년	2012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장애	0.2	0.6	0.3	0.3	0.5	1.3	1.8	1.1	0.3	1.1	1.4	0.9	0.3	0.5
질병	0.1	1.1	0.4	0.5	0.2	0.9	0.5	0.5	0.2	0.8	0.5	0.5	0.3	1.2
장애 및 질병	-	0.1	-	-	-	0.3	-	0.1	-	0.2	-	0.1	-	-
양호	99.7	98.2	99.4	99.1	99.4	97.5	97.7	98.3	99.5	97.9	98.1	98.6	99.4	98.3
(수)	(855)	(727)	(778)	(2,360)	(1,089)	(949)	(1,033)	(3,071)	(1,412)	(1,195)	(1,271)	(3,878)	(3,637)	(2,516)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3) 장애영유아의 특성

본 조사대상 영유아 가구 내 총 장애영유아 수는 32명이었으며 26명은 유아, 6명은 영아였다. 장애 유형은 뇌병변 장애가 28.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폐성 장애 22.6%, 지적 장애 17.6%, 지체장애 15.6% 순이었다.

장애영유아의 모취업 여부를 살펴보면 미취업인 경우가 21명, 취업중인경우가 10명이었으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영유아의 43.1%는 자폐성장애, 18.2%는

언어장애였으며,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중 25.6%는 자폐성 장애, 23.9% 지적장애, 19.7%는 뇌병변 장애였다.

표 III-1-13 제 특성별 등록 장애 유형

단위: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심장 장애	안면 장애	기타	특수교육 진단평가	수
전체	15.6	28.0	-	-	15.3	17.6	22.6	3.7	-	-	5.2	(32)
영유아구분												
영아	29.5	20.0	-	-	15.8	22.8	11.9	-	-	-	-	(6)
유아	12.6	29.7	-	-	15.2	16.5	24.9	4.5	-	-	6.3	(26)
모취업 여부												
취업	21.2	12.5	-	-	8.1	17.9	44.7	-	-	-	3.8	(10)
휴직중	-	-	-	-	-	100.0	-	-	-	-	-	(1)
미취업	13.8	37.5	-	-	19.9	12.3	12.9	5.8	-	-	6.3	(21)
기관유형												
어린이집	11.4	12.7	-	-	18.2	3.0	43.1	11.6	-	-	3.8	(10)
유치원	19.5	19.7	-	-	19.3	23.9	25.6	-	-	-	11.5	(12)
반일제 이상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장애 등급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 영유아 중 2급인 경우가 49.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급 22.8%, 3급 18.9%였다. 영아와 유아 모두 장애가 2급인 비율이 40%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등급보다 비율이 높았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영유아 중 2급인 비율이 58.1%로 유치원의 38.4%에 비해 높았다.

표 III-1-14 제 특성별 등록 장애 등급

단위: %(명)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특수 교육 진단 평가	계(수)
전체	22.8	49.0	18.9	-	-	4.0	5.2	100.0 (32)
영유아구분								
영아	20.0	41.4	38.5	-	-	-	-	100.0 (6)
유아	23.4	50.6	14.7	-	-	4.9	6.3	100.0 (26)
모취업 여부								
취업	22.4	61.3	-	-	-	12.5	3.8	100.0 (10)
휴직중	-	-	100.0	-	-	-	-	100.0 (1)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특수 교육 진단 평가	계(수)
미취업	24.5	45.9	23.3	-	-	-	6.3	100.0 (21)
모부재 등	-	-	-	-	-	-	-	-
기관유형								
어린이집	15.7	58.1	14.3	-	-	8.1	3.8	100.0 (10)
유치원	24.3	38.4	21.7	-	-	4.2	11.5	100.0 (12)
반일제 이상	-	-	-	-	-	-	-	-
기타	-	-	-	-	-	-	-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사회·경제적 특성

본 절에서는 부모의 취업 및 근로특성, 근로소득 및 가구소득, 자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경험, 육아휴직 이용 경험 등 사회·경제적 특성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부모의 취업 및 근로 특성

1) 부와 모의 취업

최연소 영유아 연령 구분별 부와 모의 취업상태 현황을 살펴보면 부의 경우에는 취업률이 94.8%, 모의 취업률은 44.2%였다. 2018년도 조사결과 모의 취업률은 2012년도 35.4%, 2015년도 36.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의 취업률은 자녀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모의 취업률은 최연소 자녀가 0세인 경우 17.4%로 가장 낮다가 3세 이후에 50%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 최연소 영유아 연령구분별 부 또는 모의 취업상태

단위: %(명)

구분	부					모				
	취업 (근로)	휴직 중	미취 업	부재, 모름	전체 (수)	취업 (근로)	휴직중	미취업	부재, 모름	전체 (수)
전체	94.8	0.7	1.3	3.2	100.0 (2,533)	44.2	7.1	47.2	1.4	100.0 (2,533)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96.1	1.1	1.2	1.6	100.0 (1,372)	32.7	12.2	54.8	0.3	100.0 (1,372)
유아	93.7	0.4	1.4	4.6	100.0 (1,161)	54.7	2.5	40.3	2.5	100.0 (1,161)
연령										
0세	94.7	1.4	1.9	2.0	100.0 (438)	17.4	24.7	58.0	-	100.0 (438)
1세	95.7	1.5	0.8	2.0	100.0 (533)	33.8	9.6	56.3	0.4	100.0 (533)
2세	98.3	0.1	0.9	0.7	100.0 (401)	48.1	2.0	49.3	0.5	100.0 (401)
3세	95.2	0.3	1.0	3.4	100.0 (397)	53.8	3.9	41.0	1.3	100.0 (397)
4세	93.6	0.4	0.7	5.3	100.0 (314)	56.3	2.5	40.2	1.0	100.0 (314)
5세이상	92.6	0.5	2.0	4.9	100.0 (450)	54.2	1.7	40.0	4.2	100.0 (450)
자녀수										
1명	93.1	0.9	1.5	4.5	100.0 (758)	43.0	9.4	45.7	2.0	100.0 (758)
2명	95.9	0.7	1.2	2.3	100.0 (1,291)	44.9	5.8	48.3	0.9	100.0 (1,291)
3명 이상	96.7	0.4	0.7	2.2	100.0 (484)	45.8	4.7	48.1	1.4	100.0 (484)
2015년	-	-	-	-	-	36.8	3.9	58.4	0.9	100.0 (2,593)
2012년	-	-	-	-	-	35.4	4.1	59.7	0.9	100.0 (2,516)
2009년	-	-	-	-	-	35.8	-	61.6	4.8	100.0 (2,548)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부모의 직업

영유아 가구의 부모의 직종 특성을 살펴보면 부의 경우에는 사무종사자가 32.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문가 및 관련기능 종사자 14.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2.3% 순이었다. 부의 직업은 2015년도 조사보다 사무종사자의 비율이 다소 감소하긴 하였지만 분포는 유사하였다. 대도시의 경우 사무종사자의 비율이 42.0%로 중소도시 31.2%, 읍면지역 21.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반면 읍·면 지역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의 비율이 15.8%로 도시지역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은 특성을 보였다.

모의 경우 미취업 상태인 48.0%를 제외하면 부모다는 비율이 낮긴 하지만 사무종사자 비율이 22.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0.1%, 서비스 종사자 9.4% 순이었다. 모의 경우 2015년도 조사에 비해 취업률이 증가한 만큼 사무종사자의 비율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다. 지역규모별로 모의 미취업률을 살펴보면 대도시가 43.3%로 가장 낮았으며 중소도시가 54.2%로 가장 높았다.

표 III-2-2 | 거주지역규모별 영유아 가구 부모의 직종 특성

단위: %(명)

구분	부				모				2015년	2012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영유아 가구												
관리자	6.1	9.3	5.6	6.9	5.7	6.9	1.7	1.9	0.8	1.5	0.7	0.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9.1	15.0	7.0	14.4	11.6	13.1	12.3	10.0	6.9	10.1	7.6	12.9
사무종사자	42.0	31.2	21.1	32.7	36.3	28.6	27.6	20.4	15.4	22.0	15.2	12.9
서비스종사자	10.5	11.4	10.6	10.8	11.4	6.0	10.0	6.7	11.3	9.4	8.9	3.6
판매종사자	5.0	6.2	5.5	5.5	7.0	9.9	3.4	3.8	5.2	4.0	3.4	3.5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0.1	1.4	15.8	5.0	1.6	2.6	-	-	7.2	2.0	0.7	0.9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9	14.2	15.2	12.3	12.6	15.8	0.7	0.6	1.3	0.8	1.2	0.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4.6	4.6	8.8	5.8	8.0	7.6	-	0.1	1.3	0.4	0.8	0.3
단순노무종사자	1.8	2.8	2.3	2.2	2.2	5.3	0.8	2.3	2.0	1.6	1.5	2.6
군인	0.6	3.6	6.3	3.1	0.9	1.8	0.1	0.2	0.2	0.2	0.4	-
미취업	1.4	0.5	1.8	1.2	2.0	2.4	43.3	54.2	48.3	48.0	59.1	62.1
모름, 무응답	-	-	-	-	0.7	0.1	-	-	-	-	0.7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903)	(754)	(764)	(2,421)	(2,523)	(2,472)	(940)	(776)	(779)	(2,495)	(2,556)	(2,50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3) 동거부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 영유아 가구가 지원받는 ‘보육·교육비 지원유형’에 따라 영유아 가구 부모의 직종특성을 살펴 본 결과, 지원유형에 따라 부모의 직종에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단, 이러한 보육·교육비 지원유형별 모의 미취업률을 살펴보면 보육료만 지원받는 경우가 36.4%로 유아학비만 지원 받는 경우 43.8%, 양육수당만 지원 받는 경우 62.8% 비해 미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경우 모의 취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표 III-2-3 | 지원유형별 영유아 가구 부모의 직종 특성

단위: %(명)

구분	부					모				
	보육료 지원	유아 학비 지원	양육 수당 지원	복합 지원	전체	보육료 지원	유아 학비 지원	양육 수당 지원	복합 지원	전체
영유아 가구										
관리자	7.1	8.9	4.9	6.6	6.9	2.2	1.6	0.4	1.5	1.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4.6	12.1	16.9	13.5	14.4	12.1	9.6	8.3	9.0	10.1
사무종사자	30.7	32.9	34.3	34.6	32.7	25.0	21.1	20.8	18.3	22.0
서비스종사자	10.1	11.0	12.1	10.0	10.8	12.7	12.1	3.9	6.3	9.4
판매종사자	6.0	6.2	4.5	5.0	5.5	6.2	3.8	1.6	3.4	4.0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6.0	5.1	3.2	5.6	5.0	2.3	2.5	1.2	2.0	2.0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12.3	12.7	11.3	13.1	12.3	1.1	1.1	0.2	1.0	0.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7.4	5.2	3.8	6.3	5.8	0.3	0.9	0.2	-	0.4
단순노무종사자	2.1	1.8	3.6	1.2	2.2	1.7	3.3	0.2	1.0	1.6
군인	2.8	2.4	4.4	3.1	3.1	0.2	0.2	0.2	0.1	0.2
미취업	1.0	1.7	1.2	1.0	1.2	36.4	43.8	62.8	57.6	48.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07)	(482)	(482)	(650)	(2,421)	(837)	(494)	(503)	(661)	(2,49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3) 동거부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3) 종사상 지위 및 근무형태

조사대상 가구의 부모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부의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가 68.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 24.1%, 비정규직 임금근로자가 5.7%였다. 대도시의 거주하는 부의 경우에는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75.4%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부의 경우에는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35.8%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모의 경우에는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32.9%,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8.5%,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가 6.6%였다. 대도시의 거주하는 모의 경우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41.0%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비율이 높았고 읍·면지역인 경우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나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근무형태를 살펴 본 결과, 부의 경우 규칙적으로 출퇴근한다는 비율이 87.6%로 가장 높았고, 특히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93.0%로 매우 높았으며, 모의 경우에도 부와 유사하게 규칙적으로 출퇴근한다는 응답 비율이 35.7%로 가장 높았다. 부와 모 모두 전반적으로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규칙적으로 출퇴근한다는 응답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2018년도 조사에서는 2015년도 조사와 종사상 지위 분류의 변화가 있어, 2018년도 조사결과와 2015년도 조사결과를 각각의 표로 제시하였다. 2015년에 상용근로자에 포함되었던 종사상 지위는 2018년도 조사의 정규직 임금근로자와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일부가 포함된다. 또한 2015년도의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2018년 분류 기준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에 모두 포함된다. 2015년도 조사와 매칭해서 살펴보면 부의 경우에는 2015년도 조사에 비해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모의 경우에는 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아졌다(표 III-2-4, 표 III-2-5 참조).

표 III-2-4 | 거주지역규모별 영유아 부모의 종사상 지위 및 근무형태(2018)

단위: %(명)

구분	부				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종사상 지위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	17.8	21.5	35.8	24.1	5.6	6.9	7.9	6.6
정규직 임금근로자	75.4	70.9	56.3	68.5	41.0	28.9	25.2	32.9

구분	부				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5.3	6.5	5.5	5.7	8.5	7.8	9.2	8.5
무급가족종사자	0.2	0.6	0.5	0.4	1.8	2.2	9.7	4.1
무직	1.3	0.5	1.9	1.2	43.2	54.2	48.1	47.9
무응답, 모름	-	-	-	-	-	-	-	-
근무형태								
규칙적으로 출퇴근	93.0	90.1	77.4	87.6	39.2	31.5	34.9	35.7
불규칙하게 출퇴근	4.5	7.8	9.7	7.0	7.2	5.3	6.5	6.4
출퇴근하지 않음(재택,농어민)	0.3	0.8	10.5	3.4	0.9	1.8	6.8	2.8
휴직 중	0.9	0.9	0.4	0.8	9.6	7.2	3.8	7.2
무직(주부 포함)	1.3	0.5	1.9	1.2	43.2	54.2	48.1	47.9
모름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920)	(763)	(781)	(2,464)	(942)	(776)	(783)	(2,50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부모가 따로 사는 경우에도 포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표 III-2-5 영유아 부모의 종사상 지위 및 근무형태(2012-2015)

단위: %(명)

구분	부				2012 년	모				2012 년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종사상 위치										
고용주	4.8	4.3	3.7	4.4	5.0	1.4	1.0	0.4	1.1	0.7
자영업자	16.7	14.3	19.4	16.1	13.6	4.8	5.1	4.3	4.9	2.8
상용근로자	74.2	75.2	69.9	73.9	70.2	30.0	28.4	24.8	28.5	23.1
임시근로자	0.6	0.7	1.8	0.8	4.7	1.7	3.4	3.7	2.7	6.9
일용근로자	1.2	3.5	2.2	2.3	4.0	0.1	1.9	2.7	1.3	2.0
무급가족종사자	-	0.2	0.1	0.1	-	2.3	1.7	3.6	2.3	3.3
무직	2.2	1.5	2.7	2.0	2.4	58.9	57.8	58.5	58.4	61.4
모름/무응답	0.2	0.3	0.1	0.2	-	0.7	0.7	2.1	0.9	-
근무형태										
규칙적으로 출퇴근	91.3	93.3	84.5	91.0	90.2	30.3	31.2	29.9	30.6	30.2
불규칙하게 출퇴근	5.9	4.8	10.1	6.1	7.3	4.1	5.5	4.1	4.7	3.6
출퇴근하지 않음	0.6	0.3	2.5	0.8	0.2	1.1	1.4	2.4	1.5	0.8
휴직중	-	0.1	0.1	0.1	2.4	4.8	3.4	3.0	3.9	61.3
무직	2.2	1.5	2.7	2.0	-	58.9	57.8	58.5	58.4	4.0
모름/무응답	-	-	-	-	-	0.7	0.7	2.1	0.9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65)	(942)	(739)	(2,546)	(2,479)	(882)	(961)	(750)	(2,593)	(2,511)

출처: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p. 68. <표 III-2-3>

4) 취업부모의 근로시간

취업 부모의 근로시간 및 근로소요 시간을 살펴보면 부의 경우에는 주당 근로시간이 평균 48.1시간, 근로소요시간은 평균 11.2시간이었다. 모의 경우에는 주당 근로시간이 평균 39.3시간이었으며 근로 소요시간은 8.9시간이었다. 부의 경우 평일 근로 소요시간은 지역규모별로 유사하였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대도시 46.8시간에 비해 읍·면지역이 49.8시간으로 길었다. 모의 경우에는 지역규모별로 주당 근로시간 평균은 유사하였지만 평일 근로소요시간은 대도시가 길었다.

전반적으로 부와 모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과 근로소요시간이 2015년에 비해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의 주당 근로시간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 비해 평균 약 3시간 정도 감소하였다.

▮ 표 III-2-6 ▮ 제 특성별 취업부모의 평일 근로소요 및 주당근로시간

단위: 시간, 분(명)

구분	부			모		
	평일 근로 소요시간	주당 근로시간	(수)	평일 근로 소요시간	주당 근로시간	(수)
전체	11시간 12분	48시간 6분	(2,434)	8시간 54분	39시간 18분	(1,272)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11시간 6분	47시간 30분	(1,335)	9시간	39시간 24분	(607)
유아	11시간 18분	48시간 48분	(1,099)	8시간 48분	39시간 12분	(665)
지역규모						
대도시	11시간 12분	46시간 48분	(908)	9시간 6분	39시간 24분	(523)
중소도시	11시간 24분	48시간 30분	(758)	8시간 54분	39시간	(353)
읍·면	11시간	49시간 48분	(768)	8시간 30분	39시간 18분	(396)
2015년	11시간 48분	50시간 42분	(2,494)	9시간 24분	40시간 36분	(905)
2012년	12시간 6분	50시간 50분	(2,418)	9시간 12분	40시간	(837)
2009년	9시간 6분	52시간 24분	(2,335)	8시간	43시간 30분	(86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취업부모를 대상으로 토요일 근무여부를 조사한 결과 부의 경우 토요일은 휴무라는 응답 비율이 54.3%, 매주 전일 근무한다가 23.5%, 격주 반일 근무한다가 11.7%였다. 모의 경우에는 휴무가 62.0%, 매주 전일 근무한다가 9.9%, 매주 반일 근무한다가 5.8%였다. 부모 모두 읍·면지역이 매주 전일 근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2-7 제 특성별 취업부모의 토요일 근무여부

단위: %(명)

구분	부							모						
	매주 전일	매주 반일	격주 반일	격주 반일	휴무	모름/ 무응답	전체 (수)	매주 전일	매주 반일	격주 반일	격주 반일	휴무	모름/ 무응답	전체 (수)
전체	23.5	5.1	11.7	4.6	54.3	0.8	100.0 (2,434)	9.9	5.8	5.0	3.4	62.0	13.9	100.0 (1,272)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23.1	4.3	11.5	5.3	54.7	1.1	100.0 (1,335)	7.8	4.1	3.2	3.3	54.4	27.2	100.0 (607)
유아	24.0	5.9	11.9	3.9	53.9	0.5	100.0 (1,099)	11.5	7.0	6.3	3.4	67.4	4.4	100.0 (665)
지역규모														
대도시	16.7	6.4	10.6	5.0	60.4	0.9	100.0 (908)	6.7	4.8	4.4	3.3	64.0	16.9	100.0 (523)
중소도시	22.6	4.8	13.8	5.6	52.3	0.9	100.0 (758)	8.3	5.6	5.6	4.2	60.5	15.7	100.0 (353)
읍면	34.4	3.6	11.0	2.9	47.7	0.4	100.0 (768)	16.7	7.7	5.5	2.7	60.2	7.3	100.0 (396)
2015년	26.6	4.2	13.7	5.4	49.1	1.0	100.0 (2,494)	14.8	4.8	7.2	3.9	66.8	2.4	100.0 (90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같은 방식으로 취업부모의 일요일 근무여부를 조사한 결과 부의 경우 휴무 82.4%, 매주 전일 근무 8.9%, 격주 반일 근무가 5.1%였다. 모의 경우에는 휴무 76.3%, 매주 전일 근무 4.5%, 격주 반일 근무 2.1% 순으로 나타났다. 토요일 근무와 마찬가지로 부모 모두 읍·면지역이 매주 전일 근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2-8 제 특성별 취업부모의 일요일 근무여부

단위: %(명)

구분	부							모						
	매주 전일	매주 반일	격주 반일	격주 반일	휴무	모름/ 무응답	전체 (수)	매주 전일	매주 반일	격주 반일	격주 반일	휴무	모름/ 무응답	전체 (수)
전체	8.9	1.4	5.1	1.5	82.4	0.8	100.0 (2,434)	4.5	1.9	2.1	1.2	76.3	13.9	100.0 (1,272)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8.9	1.0	5.0	1.5	82.5	1.1	100.0 (1,335)	3.4	1.1	1.6	1.3	65.4	27.2	100.0 (607)
유아	8.9	1.7	5.1	1.6	82.2	0.5	100.0 (1,099)	5.3	2.5	2.5	1.1	84.1	4.4	100.0 (665)

구분	부							모						
	매주 전일	매주 반일	격주 반일	격주 반일	휴무	모름/ 무응답	전체 (수)	매주 전일	매주 반일	격주 반일	격주 반일	휴무	모름/ 무응답	전체 (수)
지역규모														
대도시	5.2	0.8	4.2	1.1	87.8	0.9	100.0 (908)	2.4	0.6	2.3	0.7	77.1	16.9	100.0 (523)
중소도시	7.9	1.0	6.2	2.5	81.4	0.9	100.0 (758)	3.1	1.9	2.2	2.2	74.8	15.7	100.0 (353)
읍·면	15.2	2.6	5.1	1.1	75.6	0.4	100.0 (768)	9.3	4.1	1.7	0.9	76.6	7.3	100.0 (396)
2015년	7.4	0.7	6.3	1.1	83.5	1.0	100.0 (2,494)	4.9	1.2	3.1	1.4	87.0	2.4	100.0 (90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5) 취업부모의 근로소득

취업부모의 월 평균 근로소득을 살펴보았다. 부의 경우에는 평균 353.5만원이었으며 모의 경우에는 206.4만원이었다. 부모 모두 지역규모가 클수록 평균 근로소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사상 지위에 따른 근로소득 격차가 뚜렷하여서, 부모 모두 비정규직 임금근로자가 정규직 임금근로자 보다 100만원 이상 평균소득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경험 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모가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경우 모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기타 경우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III-2-9 제 특성별 취업부모의 월 평균 근로소득

단위: 만원(명)

구분	부			모		
	평균	(수)	t/F	평균	(수)	t/F
전체	353.5	(2,406)		206.4	(1,177)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345.3	(1,322)	-2.3**	203.9	(535)	-0.6
유아	361.2	(1,084)		208.0	(642)	
지역규모						
대도시	379.9	(903)		230.7	(483)	
중소도시	352.9	(750)	28.9***(a)	206.1	(319)	28.1***(a)
읍·면	315.4	(753)		168.8	(375)	

구분	부			모		
	평균	(수)	t/F	평균	(수)	t/F
총사상 지위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	360.1	(594)	15.1***(a)	231.3	(163)	55.1***(a)
정규직 임금근로자	359.2	(1,661)		231.3	(703)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259.9	(145)		126.4	(201)	
무급가족종사자	296.7	(6)		149.1	(110)	
비해당(미취업)	-	-		-	-	
무응답	-	-	-	-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경험 여부						
모 경력단절 경험 있음	361.9	(982)	2.2*	177.8	(391)	11.3***(a)
부 경력단절 경험 있음	364.3	(4)		220.4	(4)	
부모 모두 경력단절 경험있음	253.3	(8)		267.9	(6)	
부모 모두 경력단절 경험 없음	348.2	(1,412)		220.2	(776)	
2015년	321.9	(2,494)		186.1	(905)	
2012년	314.7	(2,419)		161.5	(837)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5$, ** $p < .01$, *** $p < .001$

6) 자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경험

조사대상 전체 가구 중에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해 모가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3%였다. 아버지가 그만둔 적이 있는 경우는 0.3%에 불과하였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의 경우에 모가 그만둔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8.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도시 40.5%, 읍·면지역 31.7%였다.

▮ 표 III-2-10 ▮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해 부 또는 모가 직장 그만둔 경험

단위: %(명)

구분	어머니가	아버지가	부모 모두	부모 모두	계(수)
	그만 둔 적 있음	그만둔 적 있음	그만둔 적 있음	그만둔 적 없음	
전체	40.3	0.3	0.4	59.1	100.0(2,533)
가구 유형					
영아가구	39.8	0.2	0.5	59.6	100.0(1,372)
유아가구	40.7	0.3	0.3	58.7	100.0(1,873)
영유아 가구	40.3	0.3	0.4	59.1	100.0(2,533)
지역규모					
대도시	40.5	0.3	0.3	58.9	100.0(948)
중소도시	48.1	0.2	0.5	51.2	100.0(780)
읍·면	31.7	0.3	0.3	67.6	100.0(805)
χ^2 (df)	43.7(6)***				

구분	어머니가	아버지가	부모 모두	부모 모두	계(수)
	그만 둔 적 있음	그만둔 적 있음	그만둔 적 있음	그만둔 적 없음	
2015년	32.3	-	-	-	-
2012년	25.2	-	-	-	-
2009년	24.6	-	-	-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01$

모의 취업 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이라는 응답 비율이 32.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보다 육아의 가치가 큼이 31.2%, 육아로 인한 업무지장이 큼이 11.6%, 일이 육아에 지장을 줌이 9.8%, 대리 양육 비용 부담이 큼이 6.4% 순이었다.

최연소 자녀 연령이 3세일 때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40.2%로 가장 높았으며, 일보다 육아의 가치가 큼은 4세일 때 35.3%로 가장 높았다. 이전년도 조사에 비해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고 응답한 경우와 일이 육아에 지장을 줌의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에서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37.1%로 대도시 28.0%에 비해 높았다.

표 III-2-11 모의 취업 중단 사유

단위: %(명)

구분	취업 중단 사유										
	대리 양육 비용 부담이 큼	일보다 육아의 가치가 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	일이 육아에 지장을 줌	육아로 인한 업무지장이 큼	직장 내 육아 지원 서비스가 없어서	다자녀 육아 힘들어서	발전 가능성이 희박하여	몸이 힘들어서	기타	계(수)
전체	6.4	31.2	32.8	9.8	11.6	3.9	2.4	-	-	2.0	100.0 (1,030)
영유아 구분											
영아	7.2	30.9	31.4	11.5	9.6	4.3	2.6	-	-	2.4	100.0 (553)
유아	5.6	31.4	34.0	8.3	13.4	3.5	2.2	-	-	1.6	100.0 (477)
χ^2 (df)						9.2(7)					
최연소자녀 연령											
0세	7.4	29.2	29.3	11.9	12.8	4.1	3.0	-	-	2.3	100.0 (167)
1세	6.0	31.1	36.3	8.6	8.8	4.7	3.1	-	-	1.3	100.0 (224)
2세	8.8	32.6	26.3	15.3	7.4	4.0	1.5	-	-	4.2	100.0 (162)
3세	4.9	27.3	40.2	8.9	10.9	4.2	1.8	-	-	2.0	100.0 (174)
4세	4.1	35.3	31.5	9.7	14.6	1.7	2.4	-	-	0.8	100.0 (146)

구분	취업 중단 사유										계(수)
	대리 양육 비용 부담이 큼	일보다 육아의 가치가 큼	민고 맡길 곳이 많지 않음	일이 육아에 지장을 줌	육아로 인한 업무지장이 큼	직장 내 육아 지원 서비스가 없어서	다자녀 육아 힘들어서	발전 가능성이 희박하여	몸이 힘들어서	기타	
5세이상 χ^2 (df)	7.4	31.6	31.1	6.7	14.6	4.4	2.3	-	-	2.0	100.0 (157)
지역규모											
대도시	8.3	31.7	28.0	11.6	10.8	5.5	2.0	-	-	2.1	100.0 (383)
중소도시	3.7	28.7	37.1	9.9	12.6	3.6	2.3	-	-	2.1	100.0 (387)
읍·면	7.1	34.2	34.4	6.4	11.6	1.2	3.3	-	-	1.8	100.0 (260)
χ^2 (df)											26.5(14)**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4.8	31.1	33.1	3.6	10.8	6.7	-	-	-	-	100.0 (37)
200~249만원	7.7	32.5	30.1	10.4	9.0	6.5	2.8	-	-	1.0	100.0 (61)
250~299만원	8.7	35.3	28.4	6.8	9.8	5.3	1.5	-	-	4.1	100.0 (89)
300~349만원	10.9	36.2	28.8	5.6	11.2	2.4	2.7	-	-	2.2	100.0 (182)
350~399만원	5.5	22.5	42.7	11.8	11.5	5.4	-	-	-	0.6	100.0 (113)
400~499만원	2.5	29.9	35.2	9.3	12.9	3.7	5.0	-	-	1.4	100.0 (206)
500~599만원	3.4	30.6	32.0	13.8	12.6	3.5	1.7	-	-	2.4	100.0 (163)
600~699만원	3.4	34.4	32.5	8.5	13.4	4.0	3.1	-	-	0.8	100.0 (69)
700만원 이상	7.7	29.3	30.6	14.2	11.1	1.4	1.4	-	-	4.4	100.0 (108)
모름/무응답	-	64.9	-	35.1	-	-	-	-	-	-	100.0 (2)
χ^2 (df)											72.2(63)
2015년	6.7	-	43.0	16.0	-	-	-	1.9	27.0	5.3	100.0 (1,051)
2012년	3.8	-	48.7	11.4	-	-	-	1.2	32.3	2.5	100.0 (850)
2009년	8.6	-	46.9	32.7	-	-	-	3.4	-	8.4	100.0 (1,75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가구 구분 및 최연소 자녀 연령: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1$

부모의 자녀출산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시기를 살펴보면 모의 경우에는 첫째 자녀를 임신했을 때라고 응답한 비율이 66.2%로 가장 높았다. 첫째 자녀 기준으로 출산·출산 휴가 후 바로는 22.2%였다. 모의 경우 첫째, 둘째, 셋째 자녀 모두 임신했을 때, 출산·출산 휴가 후 바로 경력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부가 자녀출산·양육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경우는 단 15건이었는데, 이 경우 경력단절 시기는 둘째 자녀가 만 3세~취학 전까지 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2 부모의 자녀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시기

단위: %(명)

구 분	부				모				2015	2012	2009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전체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전체			
임신했을 때	14.9	-	100.0	12.3	66.2	37.9	52.6	63.1	55.5	61.3	59.3
출산·출산휴가 후 바로	31.6	18.8	-	25.3	22.2	32.2	25.3	23.2	27.0	22.1	12.7
만 1세 이전	-	37.8	-	15.0	3.0	10.5	7.9	3.9	5.0	3.9	-
만 1~2세	38.5	-	-	21.7	5.6	10.8	3.4	6.0	8.2	7.3	7.9
만 3세~취학전까지	14.9	43.4	-	25.6	2.6	8.5	7.5	3.4	4.2	5.5	7.7
취학 이후	-	-	-	-	0.4	-	3.2	0.5	-	-	-
(수)	(7)	(7)	(1)	(15)	(895)	(99)	(36)	(1,030)	(1,051)	(850)	(1,755)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부가 자녀출산 양육으로 취업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대리양육 비용부담이 커서 라는 응답 비율이 26.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 25.0%, 직장 내 육아지원 서비스가 없어서 20.1%, 일이 육아에 지장을 줌이 13.3% 순이었다. 자녀가 영아인 경우에는 대리양육 비용 부담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38.5%로 가장 높았으며, 유아인 경우에는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1.0%로 가장 높았다.

표 III-2-13 자녀 출산 양육으로 인한 주된 경력 단절 이유(아버지)

단위: %(명)

구분	취업 중단 사유								계(수)
	대리 양육 비용 부담이 큼	일보다 육아의 가치가 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	일이 육아에 지장을 줌	육아로 인한 업무 지장이 큼	직장 내 육아 지원 서비스가 없어서	다자녀 육아 힘들어서	기타	
전체	26.3	7.8	25.0	13.3	7.5	20.1	-	-	100.0 (15)
영유아 구분									
영아	38.5	16.8	18.1	-	-	26.5	-	-	100.0 (7)
유아	15.7	-	31.0	24.8	13.9	14.5	-	-	100.0 (8)
지역규모									
대도시	26.1	10.8	26.1	26.1	-	10.8	-	-	100.0 (5)
중소도시	51.0	-	25.5	11.8	-	11.8	-	-	100.0 (5)
읍·면	-	12.6	23.3	-	24.2	39.9	-	-	100.0 (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7) 취업부모의 육아휴직 경험

부모의 육아휴직 경험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어머니가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6.0%, 아버지가 육아휴직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1%였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2.1%였다. 대부분 어머니가 육아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어머니의 경우도 대도시 거주 어머니의 육아휴직 경험은 34.0%로 중소도시 거주 어머니(24.2%), 읍·면지역 거주 어머니(16.5%)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가구유형에 따라서는 영아가구에서 아버지의 육아휴직 경험 비율이 1.8%로 유아가구 0.5%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 표 III-2-14 ▣ 부 또는 모의 육아휴직 경험

단위: %(명)

구분	어머니가 육아휴직 한 적 있음	아버지가 육아휴직 한 적 있음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한 적 있음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한 적 없음	계(수)
전체	26.0	1.1	0.9	72.1	100.0(2,533)
가구 유형					
영아가구	28.8	1.8	0.8	68.6	100.0(1,372)
유아가구	24.2	0.5	0.9	74.3	100.0(1,873)
영유아 가구	26.0	1.1	0.9	72.1	100.0(2,533)
χ^2 (df)	29.8(6)***				
지역규모					
대도시	34.0	1.3	1.4	63.3	100.0(946)
중소도시	24.2	1.3	0.4	74.1	100.0(782)
읍·면	16.5	0.5	0.6	82.4	100.0(805)
χ^2 (df)	83.0(6)***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3) 영유아 가구: 영아와 유아가 모두 있는 가구를 의미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01$

부모의 육아휴직 시기를 살펴보면 모의 경우에는 자녀의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출산·출산휴가 후 바로 생후 6개월 이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모두 80%이상으로 매우 높았고, 자녀 출생 후 만 1세 이전에 90%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의 육아휴직은 출산·출산휴가 후 바로 생후 6개월 이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5%로 가장 높았으나 모의 비해 자녀 연령에 따른 시기가 크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5 부모의 육아휴직 시기

단위: %(명)

구분	부			모		
	첫째자녀	둘째자녀	셋째자녀	첫째자녀	둘째자녀	셋째자녀
출산·출산휴가 후 바로~생후 6개월 이전	37.5	35.9	-	86.2	83.2	83.1
생후 6개월 이후~만 1세 이전	22.1	36.3	31.4	6.2	8.3	12.3
만 1~2세	25.6	20.6	-	5.2	4.7	3.3
만 3세~취학전까지	13.5	7.3	68.6	1.4	3.8	1.4
초등학교 1학년 입학 후	1.4	-	-	0.8	-	-
초등학교 2학년	-	-	-	0.2	-	-
(수)	(41)	(12)	(4)	(604)	(268)	(60)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을 살펴보면 부의 경우에는 평균 7.7개월, 모의 경우에는 평균 13.9개월이었다. 읍·면지역보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길었다. 최연소 자녀 연령구분에 따라서는 최연소 자녀가 유아인 경우 영아인 경우보다 육아휴직을 더 길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6 제 특성별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

단위: 개월,(명)

구분	부			모		
	평균	(수)	t/F	평균	(수)	t/F
전체	7.7	(49)		13.9	(669)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6.7	(31)	-1.8*	13.8	(383)	-0.5
유아	9.1	(18)		14.1	(286)	
지역규모						
대도시	8.6	(24)	2.8*	14.3	(337)	1.6
중소도시	7.7	(16)		14.0	(192)	
읍·면	4.3	(9)		12.7	(14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5$



8) 미취업 부모의 취업계획

현재 미취업 상태인 부모 모두에 대해 향후 취업 계획을 조사하였다. 먼저, 미취업모의 경우 향후 취업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9.7%로 가장 높았으며 아이가 더 크면 일을 알아볼 생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3.8%, 현재 구직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5%였다. 가구의 최연소 자녀가 영아인 경우에는 아이가 더 크면 일을 알아볼 생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9%로 유아인 경우 31.4%보다 높았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미취업모가 아이가 더 크면 일을 알아볼 생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3.4%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199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재 구직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3.4%로 다른 소득 구간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III-2-17 ▣ 미취업모의 취업 계획

단위: %(명)

구분	현재 구직 중	취업교육, 훈련 중	아이가 더 크면 일을 알아볼 생각	기타	계획 없음	모름/ 무응답	계(수)	χ^2 (df)
전체	4.5	2.0	33.8	-	59.7	-	100.0(1,230)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3.5	2.0	35.9	-	58.6	-	100.0(762)	5.6(3)
유아	5.8	1.9	31.4	-	60.9	-	100.0(468)	
지역규모								
대도시	3.9	1.1	34.7	-	60.3	-	100.0(420)	57.5(6)***
중소도시	6.1	3.1	43.4	-	47.4	-	100.0(423)	
읍·면	3.4	1.7	21.2	-	73.7	-	100.0(387)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3.4	1.5	35.6	-	49.5	-	100.0(59)	33.6(27)
200~249만원	2.6	1.8	33.8	-	61.8	-	100.0(122)	
250~299만원	5.1	1.3	31.8	-	61.7	-	100.0(160)	
300~349만원	2.6	1.1	32.1	-	69.7	-	100.0(268)	
350~399만원	5.1	1.2	36.8	-	57.6	-	100.0(159)	
400~499만원	5.5	3.0	31.3	-	62.4	-	100.0(228)	
500~599만원	2.5	2.7	42.4	-	52.4	-	100.0(124)	
600~699만원	4.9	-	33.2	-	61.9	-	100.0(41)	
700만원 이상	5.4	6.1	29.4	-	59.0	-	100.0(65)	
모름/무응답	-	-	24.4	-	75.6	-	100.0(4)	
2015년	5.8	2.0	55.3	-	36.3	0.7	100.0(1,567)	
2012년	4.2	1.5	64.5	-	0.3	29.6	100.0(1,563)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01

다음으로 미취업부의 취업 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구직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계획이 없다 18.3%, 취업교육·훈련중 17.1%, 아이가 더 크면 알아볼 생각임 9.7% 순으로 응답되었다. 가구소득이 199만원 이하인 경우가 현재 구직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2.0% 다른 소득 구간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 III-2-18 ■ 미취업부의 취업 계획

구분	단위: %(명)					
	현재 구직 중	취업교육, 훈련 중	아이가 더 크면 일을 알아볼 생각	기타	계획 없음	계(수)
전체	54.9	17.1	9.7	-	18.3	100.0(29)
지역규모						
대도시	52.8	19.4	22.2	-	5.5	100.0(11)
중소도시	100.0	-	-	-	-	100.0(5)
읍·면	44.5	19.5	-	-	36.0	100.0(13)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72.0	10.1	-	-	17.9	100.0(12)
200~249만원	48.4	20.5	-	-	31.1	100.0(7)
250~299만원	-	47.2	52.8	-	-	100.0(2)
300~349만원	61.1	-	38.9	-	-	100.0(4)
350~399만원	33.4	66.6	-	-	-	100.0(2)
400~499만원	-	-	-	-	-	-
500~599만원	42.1	-	-	-	57.9	100.0(2)
600~699만원	-	-	-	-	-	-
700만원 이상	-	-	-	-	-	-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미취업모 중 향후 취업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사례에 대해,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시기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3~5년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25.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2년 이내, 2~3년 이내 20.0%, 6개월~1년 이내 16.0% 순이었다.

표 III-2-19 미취업 모의 취업 계획 시기

단위: %(명)

구분	3개월 이내	3~6개월 이내	6개월~ 1년 이내	1년~ 2년 이내	2년~ 3년 이내	3년~ 5년 이내	5년~ 10년 이내	계(수)	χ^2 (df)
전체	6.3	5.5	16.0	20.0	20.0	25.7	6.6	100.0(494)	
지역규모									
대도시	5.7	3.8	14.1	20.2	19.0	31.3	5.8	100.0(165)	
중소도시	4.6	6.6	16.6	20.7	20.4	22.1	8.9	100.0(227)	14.8(12)
읍·면	11.6	6.1	18.2	18.0	20.7	23.1	2.4	100.0(102)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21.8	6.5	15.3	27.2	21.2	8.0	-	100.0(28)	
200~249만원	3.9	2.6	20.6	19.9	16.8	28.4	7.8	100.0(48)	
250~299만원	10.1	10.6	9.7	23.5	12.4	19.4	14.4	100.0(63)	
300~349만원	3.5	3.0	14.0	25.7	20.4	29.0	4.3	100.0(97)	
350~399만원	3.1	7.6	18.5	11.7	31.6	25.6	2.0	100.0(65)	
400~499만원	8.5	5.4	17.0	20.7	17.7	23.6	7.0	100.0(91)	65.2(54)
500~599만원	1.1	6.9	17.0	18.1	21.8	27.7	7.4	100.0(58)	
600~699만원	4.1	3.0	4.1	9.8	21.0	54.0	4.1	100.0(16)	
700만원 이상	8.5	-	24.3	15.3	12.8	27.0	12.1	100.0(27)	
모름/무응답	-	-	-	-	-	100.0	-	100.0(1)	
2015년	3.7	5.5	14.1	16.7	20.7	27.8	11.6	100.0(961)	
2012년	5.0	3.8	9.8	16.0	25.3	31.0	9.1	100.0(1,114)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미취업 부의 취업 계획 시기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3개월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년~3년 이내가 17.6%, 6개월~1년 이내 16.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20 미취업 부의 취업 계획 시기

단위: %(명)

구분	3개월 이내	3~6개월 이내	6개월~ 1년 이내	1년~ 2년 이내	2년~ 3년 이내	3년~ 5년 이내	5년~10년 이내	계(수)
전체	47.0	7.6	16.0	11.8	17.6	-	-	100.0(24)
지역규모								
대도시	34.2	-	20.9	23.5	21.3	-	-	100.0(10)
중소도시	63.3	36.7	-	-	-	-	-	100.0(5)
읍·면	58.4	6.0	15.9	-	19.7	-	-	100.0(9)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58.7	12.3	12.3	12.7	4.0	-	-	100.0(10)
200~249만원	40.6	-	59.4	-	-	-	-	100.0(5)
250~299만원	-	-	-	-	100.0	-	-	100.0(2)
300~349만원	48.1	13.0	-	38.9	-	-	-	100.0(4)
350~399만원	33.4	-	-	-	66.6	-	-	100.0(2)

구분	3개월 이내	3~6개월 이내	6개월~ 1년 이내	1년~ 2년 이내	2년~ 3년 이내	3년~ 5년 이내	5년~10년 이내	계(수)
400~499만원	-	-	-	-	-	-	-	-
500~599만원	100.0	-	-	-	-	-	-	100.0(1)
600~699만원	-	-	-	-	-	-	-	-
700만원 이상	-	-	-	-	-	-	-	-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9) 취업부모의 양육 관련 애로사항

취업 중인 주양육자의 자녀양육 관련 어려움 정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이른 출근, 늦은 퇴근시간, 긴급상황, 보육·교육 기고나 부모참여 부담의 점수가 모두 3점 이상으로 주 양육자가 해당 항목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도시에 거주하는 주 양육자의 경우에 이른 출근, 늦은 퇴근시간, 긴급 상황의 점수가 3.4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이러한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휴일 출근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의 점수가 같거나 증가하였다.

▮ 표 III-2-21 ▮ 취업중인 주양육자의 자녀양육 관련 어려움 정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이른 출근	늦은 퇴근시간	휴일 출근	긴급상황	보육·교육기관 부모참여 부담	(수)
전체	3.2	3.2	2.8	3.2	3.1	(1,295)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3.4	3.3	2.8	3.2	3.1	(610)
유아	3.1	3.2	2.8	3.2	3.0	(685)
<i>t</i>	3.1***	1.7*	-0.8	0.1	1.0	
지역규모						
대도시	3.5	3.4	2.8	3.4	3.2	(527)
중소도시	3.2	3.4	3.0	3.3	3.1	(359)
읍·면	2.8	2.8	2.6	2.8	2.9	(409)
F	29.9***	27.1***	8.1***	21.9***	6.9***	
2015년(취업모)	3.1***	3.1***	-2.9***	3.2***	3.2***	(989)
2012년(취업모)	3.0***	3.0***	-	3.0***	3.2***	(93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3) 자녀양육 관련 어려움은 '어렵지 않음' 1점~ '매우 어려움'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를 의미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5$, *** $p < .001$

나. 가구의 경제적 특성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조사에 응답한 영유아 가구 중 1.6%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2015년도 조사 1.0%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대도시 2.2%, 중소도시 0.8%, 읍·면지역은 1.7%였다. 영아가구에서는 읍·면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1.4%로 가장 많았으나 유아가구에서는 대도시가 2.8%로 가장 높았다.

▣ 표 III-2-22 ▣ 영유아 가구의 국민기초생활급여 대상 여부

단위: %(가구)

구 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2015 년	2012 년
급여 대상	1.1	0.9	1.4	1.1	2.8	0.7	1.8	1.9	2.2	0.8	1.7	1.6	1.0	1.4
비급여	98.9	99.1	98.6	98.9	97.2	99.3	98.2	98.1	97.8	99.2	98.3	98.4	99.0	9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13)	(428)	(431)	(1,372)	(681)	(578)	(614)	(1,873)	(946)	(782)	(805)	(2,533)	(2,593)	(2,52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가구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소득수준

가) 지역별 소득수준

2018년 2/4분기, 3/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10분위별 평균과 본 조사의 소득 10분위별 평균을 비교하였다. 본 조사에 응답한 가구의 소득 수준은 가계동향조사와 비교하였을 때 1~2분위 포함된 가구의 소득은 높고 9~10분위에 포함된 가구소득은 낮았다. 이는 본 조사는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최저소득 계층과 초고소득층의 표본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본 조사의 응답 가구는 소득이 300~600만원 이하인 중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평균 비교 시 2018년도 가계동향조사와 유사하였으며 2015년도 조사에 비해서는 50만원 이상 증가하였다.

표 III-2-23 소득 분위별 평균

단위: 만원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4분기	86.6	178.4	251.6	308.4	362.1	426.4	500.7	588.2	712.3	1,113.4	453.1
3/4분기	85.7	177.7	253.8	314.6	380.2	449.1	523.9	614.0	767.2	1,180.0	474.8
2018년 보육실태	179.1	281.8	316.5	346.0	394.1	434.6	494.3	566.5	674.1	964.4	454.1
2015년 보육실태	170.5	235.2	273.1	302.8	338.4	373.7	408.4	484.1	578.1	853.5	403.0

주: 2018년도 가계동향조사 소득10분위별 가계 수지(전국, 2인이상)
 자료: 1)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H008&conn_path=l2(2018. 10. 31 인출).
 2)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조사에 응답한 가구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영유아가구 전체에서 400~499만원 계층이 19.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0~599만원 16.2%, 300~349만원 14.5%, 700만원 이상이 13.1%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의 가구 소득이 평균 502.1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소도시 443.0만원, 읍·면지역 397.1만원이었다. 2015년 조사 대비 가장 가구소득이 급격하게 증가한 지역은 대도시로 2015년 416.8만원에서 2018년 502.1만원으로 증가하였다.

표 III-2-24 지역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 수준

단위: %(가구), 만원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199만원 이하	3.2	1.8	6.2	3.6	4.4	2.3	6.0	4.2	4.3	2.0	6.3	4.2
200~249만원	7.8	6.5	9.5	7.8	4.2	4.9	11.1	6.5	5.7	5.9	10.5	7.1
250~299만원	6.5	12.4	11.6	9.7	4.3	7.6	7.2	6.2	5.3	9.7	8.6	7.6
300~349만원	11.6	22.1	17.2	16.4	11.3	15.2	16.3	14.0	11.3	17.6	15.9	14.5
350~399만원	10.3	11.9	10.3	10.8	8.7	9.2	8.9	8.9	9.1	10.3	9.6	9.6
400~499만원	19.4	16.1	18.2	18.1	16.9	21.5	21.3	19.6	17.8	19.2	20.4	19.0
500~599만원	13.5	14.7	16.6	14.7	18.3	16.8	14.5	16.7	16.2	16.5	15.7	16.2
600~699만원	11.5	6.2	5.1	8.1	10.7	9.9	5.4	8.9	11.1	8.2	5.4	8.6
700만원이상	16.3	8.3	4.8	10.7	21.2	12.5	8.1	14.7	19.3	10.7	6.8	13.1
모름/무응답	-	-	0.5	0.1	-	-	1.2	0.4	-	-	0.8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13)	(428)	(431)	(1372)	(681)	(578)	(614)	(1873)	(946)	(782)	(805)	(2533)
평균	481.4	418.0	389.1	436.5	518.1	464.6	401.9	467.6	502.1	443.0	397.1	454.1
(표준편차)	(235.0)	(205.3)	(175.6)	(214.4)	(261.7)	(230.1)	(182.5)	(235.9)	(252.2)	(213.8)	(177.7)	(225.6)
2015년												
평균	396.0	400.5	336.1	388.2	428.9	399.5	392.5	410.5	416.8	400.8	372.3	403.0
(표준편차)	(189.2)	(245.3)	(166.5)	(211.5)	(185.8)	(194.8)	(180.7)	(189.4)	(188.9)	(219.1)	(182.5)	(201.6)

구 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2012년												
평균	385.4	33.65	393.5	367.6	403.6	376.6	417.9	391.3	399.3	353.3	408.1	382.1
(표준편차)	(208.3)	(191.0)	(204.4)	(202.4)	(229.6)	(207.3)	(213.6)	(218.2)	(222.0)	(198.6)	(214.0)	(212.6)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가구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나) 모 취업여부별 소득수준

모의 취업별 가구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취업중인 경우가 540.2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휴직 중이 475.3만원 미취업인 경우가 374.4만원이었다. 취업중인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500~599만원 계층이 22.8%로 가장 많았으며 휴직중인 경우는 400~499만원 계층이 27.4%, 미취업인 경우는 300~349만원 계층이 21.3%로 가장 많았다. 2015년 대비 미취업인 경우의 소득이 약 40만원 증가하였고 취업중인 가구의 소득은 약 35만원, 육아휴직중인 경우는 약 15만원 증가하였다.

▣ 표 III-2-25 ▣ 모 취업여부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 수준

단위: %(가구), 만원

구 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취업	휴직 중	미 취업	부재	전체	취업	휴직 중	미 취업	부재	전체	취업	휴직 중	미 취업	부재	전체
199만원 이하	2.2	2.8	4.6	-	3.6	3.7	3.6	4.7	7.1	4.2	3.5	3.2	4.9	6.6	4.2
200~249만원	2.3	3.8	12.1	-	7.8	3.6	4.2	9.0	29.4	6.5	3.3	3.8	10.6	27.4	7.1
250~299만원	1.8	2.3	16.1	-	9.7	3.2	2.7	9.6	11.8	6.2	2.9	2.6	12.6	11.0	7.6
300~349만원	9.1	12.4	21.2	82.7	16.4	7.4	13.4	21.8	10.4	14.0	7.6	11.5	21.3	16.6	14.5
350~399만원	4.7	10.8	14.3	17.3	10.8	5.6	13.4	12.0	16.5	8.9	5.5	11.5	13.0	15.3	9.6
400~499만원	17.2	27.1	16.7	-	18.1	19.3	23.8	20.0	11.5	19.6	18.6	27.4	18.3	10.7	19.0
500~599만원	26.6	14.8	7.7	-	14.7	21.1	15.8	12.2	8.0	16.7	22.8	15.5	10.3	7.5	16.2
600~699만원	16.0	12.6	2.5	-	8.1	13.0	9.5	4.1	5.2	8.9	13.8	11.1	3.4	4.9	8.6
700만원 이상	19.9	13.4	4.6	-	10.7	22.6	13.6	6.2	-	14.7	21.7	13.5	5.4	-	13.1
모름/무응답	0.2	-	0.1	-	0.1	0.4	-	0.3	-	0.4	0.3	-	0.2	-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54)	(153)	(761)	(4)	(1372)	(901)	(82)	(860)	(30)	(1873)	(1093)	(179)	(1229)	(32)	(2533)
평균	556.9	482.2	355.1	313.5	436.5	538.4	467.4	392.7	318.5	467.6	540.2	475.3	374.4	317.7	454.1
(표준편차)	(245.1)	(206.2)	(151.3)	(21.1)	(214.4)	(242.2)	(235.1)	(204.4)	(124.9)	(235.9)	(238.0)	(204.6)	(184.7)	(120.4)	(225.6)
2015년															
평균	526.1	450.5	325.5	-	388.2	495.8	502.5	348.8	-	411.1	505.3	461.1	337.3	-	403.0
(표준편차)	(278.4)	(186.4)	(143.4)	-	(211.5)	(224.7)	(169.0)	(148.2)	-	(197.6)	(237.1)	(186.9)	(142.6)	-	(201.6)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취업	휴직 중	미 취업	부재	전체	취업	휴직 중	미 취업	부재	전체	취업	휴직 중	미 취업	부재	전체
2012년															
평균	475.5	464.1	315.3	-	367.6	459.4	467.3	345.9	-	391.6	469.6	464.0	329.1	-	382.1
(표준편차)	(227.6)	(264.1)	(160.1)	-	(202.4)	(237.7)	(276.1)	(188.8)	-	(218.6)	(239.2)	(258.4)	(172.1)	-	(212.6)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가구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다)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가구규모별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2인 가구에서는 평균 240.6만원이었으며 3인 가구에서는 438.9만원, 4인 가구에서는 469.7만원, 5인 가구에서는 470.3만원, 6인 이상 가구에서는 447.0만원이었다.

표 III-2-26 가구 규모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 수준

단위: %(가구), 만원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전체
199만원 이하	41.2	4.7	2.9	3.9	2.8	4.2
200~249만원	7.3	8.4	6.0	6.1	9.7	7.1
250~299만원	11.5	8.5	6.9	7.1	6.7	7.6
300~349만원	16.0	15.7	13.8	12.7	16.5	14.5
350~399만원	12.2	11.0	8.7	9.0	7.9	9.6
400~499만원	4.0	17.3	19.7	21.9	19.9	19.0
500~599만원	7.8	13.3	18.3	17.4	17.0	16.2
600~699만원	-	8.6	10.5	5.1	6.1	8.6
700만원 이상	-	12.5	12.8	16.7	12.6	13.1
모름/무응답	-	-	0.4	0.1	0.8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5)	(674)	(1,165)	(460)	(209)	(2,533)
평균	240.6	438.9	469.7	470.3	447.0	454.1
(표준편차)	(132.6)	(212.2)	(235.0)	(230.2)	(214.8)	(225.6)
2015년						
평균	186.9	390.2	400.9	439.1	409.2	403.0
(표준편차)	(112.3)	(187.0)	(175.0)	(286.2)	(190.5)	(201.6)
2012년						
평균	186.9	390.2	400.9	439.1	409.2	403.0
(표준편차)	(71.9)	(202.1)	(197.6)	(238.8)	(286.1)	(212.6)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3) 지출수준

가) 지역별 지출수준

지역별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지출 수준에 대한 조사결과 영유아 가구 전체 평균 402.1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대도시가 429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소도시 402.6만원, 읍·면지역 363.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아 가구에 비해 유아가구의 지출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조사에 비해 읍·면지역의 경우 지출 수준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는 약 20만원, 중소도시는 약 8만원 가량 지출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27 지역별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지출 수준

단위: %(가구), 만원

구 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92.4	162.6	151.1	168.1	149.8	205.2	169.1	166.8	164.3	191.7	160.9	166.9
200~249만원	218.5	213.2	213.7	215.6	213.0	234.4	214.5	218.6	216.6	225.3	213.6	217.5
250~299만원	263.9	271.4	264.6	267.1	273.6	272.9	261.1	268.9	269.7	272.6	263.3	268.7
300~349만원	323.5	313.1	311.2	315.6	312.0	311.3	312.4	311.9	316.1	310.9	311.5	312.8
350~399만원	373.4	358.9	354.5	363.4	365.5	361.1	356.9	361.5	369.3	359.8	355.6	362.3
400~499만원	411.4	408.6	412.6	411.0	415.2	411.6	419.3	415.4	413.8	411.6	416.0	413.8
500~599만원	465.4	477.1	463.8	468.5	470.1	469.5	450.9	465.0	466.9	473.7	454.2	465.4
600~699만원	491.4	533.3	481.4	499.5	474.5	498.3	495.1	486.1	485.1	502.6	488.4	490.6
700만원이상	627.4	653.8	585.2	628.4	651.8	658.5	576.5	641.1	636.3	648.7	575.9	630.2
모름/무응답	-	-	339.9	339.9	-	-	314.4	314.4	-	-	314.4	31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00)	(371)	(431)	(1372)	(681)	(578)	(614)	(1873)	(946)	(782)	(805)	(2533)
평균	418.0	385.6	357.1	391.2	439.4	417.3	367.4	411.4	429.0	402.6	363.3	402.1
(표준편차)	(160.1)	(141.3)	(123.5)	(147.1)	(180.7)	(155.2)	(130.4)	(162.2)	(172.2)	(145.7)	(126.7)	(154.6)
2015년												
평균	390.9	396.0	332.6	383.5	419.8	393.6	387.5	403.4	409.5	394.8	368.3	396.8
(표준편차)	(190.2)	(241.8)	(166.4)	(210.1)	(181.2)	(193.8)	(182.7)	(187.2)	(186.6)	(216.9)	(182.9)	(199.6)
2012년												
평균	296.0	278.1	307.7	291.1	319.7	305.6	330.9	315.9	308.4	290.7	322.3	303.7
(표준편차)	(139.8)	(142.5)	(149.0)	(142.7)	(155.2)	(134.6)	(140.3)	(144.2)	(148.9)	(139.5)	(148.7)	(145.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 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가구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나) 모 취업여부별 지출수준

모의 취업여부별 영유아 가구의 지출수준을 살펴보면 취업 중인 가구는 평균 452.6만원이었으며, 휴직 중은 431.2만원, 미취업은 353.2만원이었다. 또한 영아가구, 유아가구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영아가구는 평균 391.2만원을 지출하는데 비해 유아가구는 411.4만원을 지출하여 상대적으로 영아 가구에 비해 유아가구의 지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영아가구 중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는 평균 464.4만원을 지출하여 어머니가 취업중인 유아가구의 452.9만원 보다 지출수준이 높았는데, 이는 영아를 위한 개인양육지원서비스 등 고비용의 지출요인이 어머니가 취업중인 영아가구에 존재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2015년 대비하여 취업 모 가구의 지출수준은 약 45만원, 휴직 중인 가구는 약 25만원 가량 감소하였으나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약 20만원 가량 증가하였다.

표 III-2-28 모 취업여부별 영유아 가구의 지출수준

단위: %(가구), 만원

구 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전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전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전체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164.0	125.4	175.0	-	168.1	155.3	418.2	161.5	160.4	166.8	156.8	239.4	166.7	160.4	166.9
200~249만원	218.3	221.6	214.8	-	215.6	211.9	209.1	223.7	207.5	218.6	212.4	221.3	219.5	207.5	217.5
250~299만원	261.7	275.9	267.2	-	267.1	280.2	284.3	264.9	255.9	268.9	278.4	282.2	266.5	255.9	268.7
300~349만원	313.2	318.3	316.1	305.9	315.6	312.8	330.1	310.6	311.6	311.9	312.5	317.9	312.5	309.7	312.8
350~399만원	359.5	388.2	360.0	375.0	363.4	359.1	361.2	362.5	367.3	361.5	358.6	381.8	360.9	367.3	362.3
400~499만원	417.3	416.5	405.1	-	411.0	421.6	422.1	406.3	467.4	415.4	421.0	419.1	404.8	467.4	413.8
500~599만원	465.0	476.4	471.9	-	468.5	466.2	483.2	461.8	425.0	465.0	464.3	473.9	466.6	425.0	465.4
600~699만원	502.8	505.4	480.1	-	499.5	484.6	438.3	494.4	600.0	486.1	488.3	497.3	491.4	600.0	490.6
700만원이상	647.7	616.5	586.4	-	628.4	630.4	677.0	679.5	-	641.1	625.6	624.0	650.1	-	630.2
모름/무응답	325.0	-	356.8	-	339.9	225.6	-	385.1	-	314.4	225.6	-	385.1	-	314.4
(수)	(454)	(153)	(761)	(4)	(1,372)	(901)	(64)	(860)	(30)	(1,873)	(1093)	(179)	(1229)	(32)	(2533)
평균	464.4	429.5	339.4	317.9	391.2	452.9	434.6	365.9	315.0	411.4	452.6	431.2	353.2	314.4	402.1
(표준편차)	(167.6)	(139.4)	(110.5)	(31.6)	(147.1)	(168.6)	(152.0)	(142.3)	(122.3)	(162.2)	(163.9)	(137.1)	(130.9)	(117.8)	(154.6)
2015년															
평균	520.6	446.9	321.3	-	383.5	488.1	496.6	342.3	-	403.9	498.1	458.1	331.4	-	396.8
(표준편차)	(277.8)	(182.8)	(141.1)	-	(210.1)	(225.4)	(163.6)	(144.6)	-	(196.3)	(237.3)	(184.0)	(138.0)	-	(199.6)
2012년															
평균	352.5	373.6	258.7	-	291.1	349.5	394.0	282.4	-	315.9	352.1	374.1	272.8	-	303.7
(표준편차)	(152.5)	(223.8)	(115.3)	-	(142.7)	(146.8)	(196.0)	(135.0)	-	(144.2)	(152.2)	(220.8)	(125.5)	-	(145.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 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가구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다) 가구규모별 지출수준

가구 규모별 영유아 가구의 지출 수준을 주사한 결과 2인 가구에서는 평균 236.7만원, 3인 가구에서는 391.9만원, 4인 가구에서는 411.9만원, 5인 가구에서는 415.9만원, 6인 이상 가구에서는 398.7만원이었다. 전체 가구의 평균지출은 402.1만원이었으며 400~499만원 구간이 25.4%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15년 조사결과 대비 4인 이하 가구의 지출수준은 증가하고, 5인 이상 가구에서는 다소 감소한 결과를 보였는데, 특히 2인 가구의 지출 증가폭이 크다는 점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 조손가구 등의 가계경제 어려움이 예상된다.

표 III-2-29 가구 규모별 영유아 가구의 지출 수준

단위: %(가구), 만원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전체
199만원 이하	41.2	3.7	2.3	3.3	2.0	3.5
200~249만원	7.3	8.2	5.7	6.4	9.9	7.0
250~299만원	11.5	8.5	7.2	5.8	6.1	7.4
300~349만원	16.0	16.4	13.8	12.8	17.2	14.8
350~399만원	12.2	16.8	15.5	14.8	14.6	15.8
400~499만원	8.1	23.2	27.0	27.8	25.3	25.4
500~599만원	3.7	11.6	18.1	17.6	11.3	15.1
600~699만원	-	5.8	5.6	3.5	5.3	5.3
700만원 이상	-	5.3	4.3	7.6	7.9	5.4
모름/무응답	-	0.3	0.6	0.4	0.4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5)	(674)	(1,165)	(460)	(209)	(2,533)
평균	236.7	391.9	411.9	415.9	398.7	402.1
(표준편차)	(125.4)	(149.9)	(156.8)	(155.7)	(147.0)	(154.6)
2015년						
평균	187.7	383.6	394.0	435.3	403.2	396.8
(표준편차)	(112.1)	(182.8)	(172.4)	(287.7)	(188.9)	(199.6)
2012년						
평균	145.8	276.7	308.9	335.2	377.1	303.7
(표준편차)	(68.6)	(128.3)	(137.3)	(164.7)	(199.7)	(144.6)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 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라)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지출수준

조사에 응답한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지출 수준은 평균 86.9만원이었다. 대도시가 95.2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소도시 88.9만원, 읍·면지역 72.8

만원이었다. 지원유형으로 살펴보면 복합지원을 받는 가구는 112만원이었으며 유아학비만 지원 받는 가구 85.9만원, 보육료를 지원하는 가구 82.2만원,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가구가 79.2만원이었다. 자녀수가 2명인 가구의 경우에 지출되는 양육비는 95.2만원이었고 1명인 경우에는 78.9만원이었다. 특히 대도시에 거주할 때 자녀수가 2명인 경우에 자녀 양육비 지출이 100만원 이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영아가구보다 유아가구의 지출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I-2-30 ▣ 영유아 가구의 지역별·제특성별 월평균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출 수준
(지역별·제특성별 평균 양육비)

단위: (가구), 만원

구 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지원유형												
보육료	103.7	87.6	80.0	91.7	83.6	85.3	72.2	80.5	88.9	83.9	71.4	82.2
유아학비	187.4	98.5	70.0	129.7	100.1	89.9	63.6	85.9	100.1	89.9	63.6	85.9
양육수당	76.3	78.5	67.9	74.8	141.7	110.7	70.0	116.0	82.8	83.1	67.4	79.2
복합지원	119.6	104.8	95.8	108.1	124.7	114.1	99.5	114.0	123.3	111.8	97.1	112.0
자녀수												
1명	79.9	74.6	72.2	76.4	90.4	85.0	62.5	82.2	84.5	79.2	68.0	78.9
2명	112.3	101.3	83.2	101.0	107.4	97.4	81.3	97.2	105.5	96.0	78.9	95.2
3명이상	110.1	100.4	88.6	97.8	99.6	103.0	70.6	87.2	96.3	97.9	68.4	83.7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68.6	54.0	45.5	55.3	44.8	48.2	47.7	46.5	51.9	49.1	47.0	49.3
200~249만원	62.7	65.8	53.1	60.3	64.2	64.7	44.6	54.3	60.0	64.7	45.8	55.2
250~299만원	71.3	67.3	60.8	66.2	75.1	65.7	60.0	66.3	71.0	66.6	57.3	64.8
300~349만원	68.8	79.6	69.6	73.5	80.2	79.6	67.9	75.7	73.7	74.9	65.5	71.5
350~399만원	88.4	77.9	75.3	81.3	75.5	87.2	76.4	79.4	75.7	81.5	71.9	76.5
400~499만원	76.9	88.4	96.3	85.5	80.9	94.1	84.7	86.4	76.7	89.4	84.6	83.0
500~599만원	103.6	90.7	89.4	95.3	106.6	95.7	89.4	98.9	101.2	91.2	82.5	92.9
600~699만원	109.9	124.3	84.0	108.8	115.4	111.0	73.2	106.3	110.7	113.7	73.9	104.8
700만원이상	152.8	144.2	164.7	152.2	152.6	143.7	104.5	142.4	146.4	137.1	116.1	139.5
모름/무응답	-	-	76.1	76.1	-	-	88.9	88.9	-	-	88.9	88.9
(수)	(513)	(428)	(431)	(1372)	(681)	(578)	(614)	(1873)	(946)	(782)	(805)	(2533)
평균	95.3	87.8	79.6	88.6	101.4	94.8	74.4	91.4	95.2	88.9	72.8	86.9
(표준편차)	(72.7)	(58.9)	(54.2)	(64.1)	(70.5)	(64.2)	(55.0)	(65.3)	(70.3)	(60.9)	(53.7)	(63.7)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 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가구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모의 취업 여부별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모가 취업한 가구는 99만원, 휴직중인 가구는 93.2만원, 미취업 중인 가구는 75.3만원이었다. 전반적으로 소득에 따라 자녀 양육비 지출 수준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가구 소득 증가와 같이 급격한 증가는 없었다. 즉, 저소득층일수록 전체 소득에서 영유아 자녀 양육비로 지출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표 III-2-31 ■ 영유아 가구의 모취업여부별·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출 수준
(모취업여부별·제특성별 평균 양육비)

단위: %(가구), 만원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전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전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전체
지원유형															
보육료	101.1	94.2	75.7	142.2	91.7	85.6	93.6	72.4	59.6	80.5	88.6	92.8	71.7	59.6	82.2
유아학비	146.2	180.4	86.3	-	129.7	94.8	78.0	76.5	61.1	85.9	94.8	78.0	76.5	61.1	85.9
양육수당	103.1	78.3	65.9	78.7	74.8	140.8	241.4	90.7	-	116.0	111.3	83.1	67.2	78.7	79.2
복합지원	138.0	119.4	91.6	-	108.1	140.2	127.2	96.0	10.0	114.0	139.8	125.6	93.8	10.0	112.0
자녀수															
1명	98.7	75.6	63.4	78.7	76.4	87.3	98.1	74.4	66.8	82.2	92.0	78.8	67.1	68.3	78.9
2명	122.0	109.8	86.2	142.2	101.0	108.5	120.7	84.4	59.4	97.2	107.8	112.5	82.2	59.4	95.2
3명이상	116.8	109.1	85.6	-	97.8	93.4	120.7	80.1	35.2	87.2	91.3	101.8	76.3	35.2	83.7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39.9	43.7	61.3	-	55.3	41.9	26.8	52.1	44.8	46.5	41.0	36.5	56.4	44.8	49.3
200~249만원	75.9	72.6	57.7	-	60.3	54.9	61.9	55.9	39.6	54.3	56.5	66.8	55.4	39.6	55.2
250~299만원	64.0	112.0	64.9	-	66.2	58.7	113.7	67.1	86.3	66.3	59.9	114.1	63.7	86.3	64.8
300~349만원	82.1	78.9	70.7	71.2	73.5	74.4	101.2	75.5	44.4	75.7	73.5	77.8	70.7	58.8	71.5
350~399만원	102.1	87.6	75.3	225.0	81.3	75.6	93.0	80.4	74.6	79.4	81.2	88.2	73.2	74.6	76.5
400~499만원	100.7	78.4	78.6	-	85.5	87.8	95.7	84.2	77.4	86.4	88.1	80.8	78.8	77.4	83.0
500~599만원	97.3	85.7	95.3	-	95.3	101.6	137.1	90.0	80.0	98.9	95.5	99.0	86.4	80.0	92.9
600~699만원	115.9	82.1	111.8	-	108.8	105.6	104.8	112.6	45.3	106.3	107.4	83.5	108.2	45.3	104.8
700만원이상	163.0	150.2	125.8	-	152.2	140.8	211.1	136.5	-	142.4	141.3	154.7	127.3	-	139.5
모름/무응답	55.0	-	100.0	-	76.1	46.5	-	122.6	-	88.9	46.5	-	122.6	-	88.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54)	(153)	(761)	(4)	(1372)	(901)	(82)	(860)	(30)	(1873)	(1093)	(179)	(1229)	(32)	(2533)
평균	110.4	90.3	75.3	97.8	88.6	99.5	115.8	81.4	59.6	91.4	99.0	93.2	75.3	61.0	86.9
(표준편차)	(77.6)	(70.4)	(48.3)	(73.4)	(64.1)	(72.6)	(85.5)	(52.2)	(34.5)	(65.3)	(73.4)	(72.3)	(49.4)	(34.0)	(63.7)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 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가구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가구 규모별 영유아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출 수준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2인 가구에서는 평균 54.5만원, 3인 가구에서는 78.8만원, 4인 가구에서는 96.9만원, 5인 가구에서는 84.2만원, 6인 이상 가구에서는 81.3만원이었다.

■ 표 III-2-32 ■ 가구 규모별 영유아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출 수준

단위: %(가구), 만원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전체
149만원 이하	100.0	87.0	78.1	83.8	84.9	82.9
150~199만원	-	7.6	10.0	8.1	7.5	8.6
200~249만원	-	3.8	6.9	3.8	3.9	5.0
250~299만원	-	0.3	1.4	1.6	2.1	1.1
300~349만원	-	0.6	1.8	1.5	0.9	1.3
350~399만원	-	-	0.2	0.2	-	0.1
400~499만원	-	0.2	0.7	0.6	-	0.4
500~599만원	-	-	0.1	-	0.2	0.1
600~699만원	-	0.2	0.1	-	-	0.1
700만원 이상	-	-	-	0.1	-	-
모름/무응답	-	0.3	0.6	0.4	0.4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5)	(674)	(1,165)	(460)	(209)	(2,533)
평균	54.5	78.8	96.9	84.2	81.3	86.9
(표준편차)	(27.3)	(54.6)	(69.8)	(67.0)	(58.7)	(63.7)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 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4) 거주 주택 특성

가) 영유아 가구의 거주 주택 유형

영유아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유형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아파트에 거주 비율이 62.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단독주택 19.1%, 연립 다세대 주택 16.2% 순이었다.

■ 표 III-2-33 ■ 영유아 가구의 거주 주택 유형

단위: %(가구)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2015년	2012년
단독주택	6.5	9.5	41.9	17.2	9.0	10.4	46.7	20.6	8.1	9.8	44.4	19.1	14.3	21.3
아파트	74.0	66.8	42.5	63.1	73.1	69.9	39.6	62.1	73.3	68.7	41.0	62.6	63.7	66.1
연립 다세대주택	17.8	22.7	12.5	17.8	15.8	18.1	11.1	15.1	16.5	20.2	11.7	16.2	21.8	11.0

구 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2015년	2012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영업용 건물 내	0.9	0.9	2.0	1.2	1.2	1.3	1.9	1.4	1.1	1.1	1.9	1.3	0.3	1.5
기타	0.8	0.2	1.1	0.7	1.0	0.3	0.7	0.7	1.0	0.3	1.0	0.8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13)	(428)	(431)	(1,372)	(681)	(578)	(614)	(1,873)	(946)	(782)	(805)	(2,533)	(2,593)	(2,52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 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가구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73.3%로 매우 높았으며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44.4%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고, 읍·면지역 내에서는 가장 비율이 높은 거주 주택 유형이었다. 2015년도 조사 대비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감소하였다.

나) 영유아 가구의 주택 소유 여부

영유아 가구의 주택 소유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가구 중 59.5%가 자가였다. 전세는 24.2%, 전월세는 9.5%였다. 읍·면지역은 자가인 비율이 66.4%로 대도시 56.6%, 중소도시 56.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대도시는 전세 비율이 30.7%로 다른 지역 보다 전세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2015년 조사에 비해 자가인 비율이 약 4% 가량 증가하였고 전세인 비율이 약 8% 가량 감소하였다.

▣ 표 III-2-34 ▣ 영유아 가구의 주택 소유 형태

단위: %(가구)

구 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2015	2012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자가	52.6	53.2	60.4	54.9	59.1	59.5	69.0	62.2	56.6	56.9	66.4	59.5	55.0	49.2
전세	35.5	29.7	16.5	28.4	27.2	24.8	10.3	21.4	30.7	26.6	12.5	24.2	32.5	30.6
전월세	8.1	9.6	12.1	9.7	9.1	10.0	11.0	9.9	8.1	10.1	11.0	9.5	9.9	13.6
사글세	0.5	2.0	2.0	1.4	1.7	1.9	3.2	2.2	1.3	1.9	2.8	1.9	1.1	0.8
기타	3.4	5.5	9.0	5.6	2.9	3.8	6.4	4.2	3.3	4.5	7.3	4.8	1.5	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13)	(428)	(431)	(1372)	(681)	(578)	(614)	(1873)	(946)	(782)	(805)	(2533)	(2,593)	(2,52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 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가구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3 시사점

아동 가구와 가구원 특성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8년도 보육실태 조사에서는 지난 2015년도 조사와는 달리 표본추출틀을 보육비, 유아학비, 양육수당 수급가구 데이터베이스로 변경하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의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35.7%가 보육료만 지원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수당만을 지급받는 가구는 24.8%, 유아학비만 지급받는 가구는 15.1%였다.

2015년 조사와 유사하게 4인 가구형태, 부부+자녀로 이뤄진 가구가 가장 많았으나 2015년에 비해 한부모+자녀 가구비율이 1.2%에서 3%로 증가하였다. 또한 조사한 가구의 평균 자녀수는 2015년 3.5명에서 3.9명으로 증가하였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체 한부모 가구(초등학교 입학 이후 자녀 까지 포함) 비율은 10.9%¹⁾ 반해 다소 낮은 편이긴 하지만 자녀의 영유아기 이후에 발생하는 미혼 가구는 본 조사에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비교는 불가하다. 다만 2012년 이후에 꾸준히 한부모 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향후 조사에서는 한부모 가구 비율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변화는 어머니 취업률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2012년도에는 35.4%, 2015년도에는 36.8%였지만 2018년도 조사에서는 44.2%였다. 2017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6세 이하의 맞벌이 비율이 2016년도에는 39.7%로 2015년도 38.1%, 2014년 37.1%와 비교해 볼 때(통계청 보도자료, 2017년 12월 15일)²⁾, 실제로 영유아 가구 어머니의 취업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및 영유아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육료 지원만 받는 가구와 유아학비만 받는 가구와 어머니의 미취업률을 살펴본 결과 보육료 지원을 받는 가구의 미취업률이 낮았다. 즉,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의 경우에는 늦게까지 돌봄을 담당하는 경향이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을 선호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추측해 볼 수

1) 통계청 E-나라지표: 한부모 가구비율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578&board_cd=INDX_001\(2018. 10. 31 인출\)](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578&board_cd=INDX_001(2018. 10. 31 인출))

2) 통계청 보도자료(2017년 12월 15일) 2018 일·가정 양립 지표

있다. 추후 보육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할 때 취업모가 선호하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적절한 보육시간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4년제 대학 졸업한 비율이 부의 경우는 45.4% 또는 44.2%로 2015년도 조사에서 부 46.5%, 모 40.0%에 비해 부와 모의 학력 수준이 거의 동등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버지와 어머니의 취업률의 격차는 존재하였다. 특히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아직까지 취업률이 32.7%로 매우 낮았으며 아버지가 육아 휴직을 하는 경우 매우 드물었다. 어머니의 경력단절을 감소시키기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독려 정책 등, 보육정책 뿐만 아니라 일·가정양립 제도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

2015년에 보육실태조사에서 아버지의 근로시간은 50.7시간, 어머니의 경우는 40.6시간이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아버지의 경우는 48.1시간, 어머니의 경우는 39.3시간으로 각각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취업조사에서도 유사하게 2015년에 남자 46시간, 여자 41.4시간에서 2018년(7월 기준) 남자 43.8시간, 여자 38.3시간³⁾으로 감소한 것을 비추어볼 때 본 조사에서 나타난 부모의 근로시간 감소는 적절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출퇴근까지 포함하는 평일 근로 소요시간은 근로시간만큼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근로시간 감소가 컸던 대도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모가 직장과는 거리가 멀지만 집값이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줄어든 근로시간을 출퇴근 시간으로 대체하여 집값이 저렴한 곳으로 이동하는 경향이다. 이는 주 양육자의 자녀양육 관련 어려움 정도에서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시간으로 어렵다는 응답이 읍·면지역에 비해 근로시간 짧은데도 불구하고 대도시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것과도 맥락이 일치한다.

본 조사에서도 출산연령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대상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균 연령이 2009년엔 35.8세, 33세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이번 조사에서는 39.6세와 36.6세까지 증가하였다. 유사하게 통계청 인구동향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 초혼연령은 남자 31.61세, 여자 28.71세였고, 2017년

3) 경제활동 인구조사(2018). 성/취업시간별 취업자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29S&conn_path=I2
 (2018. 10. 31 인출)

도에는 32.94세 30.24세였으며⁴⁾ 모의 첫째 출산율은 2009년 29.85세에서 2017년 32.60세로 크게 증가하였다.⁵⁾

이번 조사에서는 이주민 가구 비율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주민 비율이 2015년도에는 아버지의 경우에는 0.5%, 어머니의 경우에는 2.6%였으나 이번조사에서는 아버지 1.0%, 어머니 6.5%까지 증가하였다. 아버지의 경우에는 베트남 출신이 35.1%, 미주/유럽/대양주 출신이 30.6%였으며, 어머니의 경우에는 베트남 46.3%, 중국 20.8% 순이었다. 2017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국제결혼 남편 국적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 69.1%), 중국 10.2%, 미국 6.4%, 베트남 2.7% 순이었으며 아내 국적은 베트남 27.7%, 중국 25.0%, (한국 20.0%), 태국 4.7%였다. 전반적으로 남편이 베트남 국적이 많이 추출된 것만 제외하면 유사한 결과였다.

특히 읍·면지역의 어머니가 이주민 경우가 매우 많았다. 읍·면지역 어머니 중 12.3%가 이주민이었다. 이렇게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경우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이주민에 비해 아이의 사회부적응, 양육방식갈등, 대인관계 관련 부적응 등의 양육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읍·면지역의 이주민 가구의 양육지원 방안 정책을 내실화할 필요성이 있다.

조사대상 가구의 소득 수준의 평균은 2015년도에 비해 약 50만원 가량 증가하였다. 특히 대도시에서 가구 소득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지난 조사보다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증가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가계동향조사와 조사대상 가구의 소득 분포 결과를 비교한 결과 중위소득대는 분포가 유사하였으나 지난 조사와는 유사하게 최저소득 계층과 초고소득층의 비율이 부족하였다.

지출규모는 평균 소득이 늘어난 만큼 많이 늘어나진 않았다. 2015년도 평균 396.8만원이었으며 이번조사에서는 402.1만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처음 조사한 자녀 양육비 지출수준을 확인해 본 결과 평균 소득의 454.1만원의 19% 수준인 86.9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자

4)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17). 시도별 평균초혼연령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conn_path=I2
 (2018년 10. 31 인출)

5)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17). 시도/출산순위별 모의 평균 출산연령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0&conn_path=I2
 (2018년 10. 31 인출)

녀 양육비 지출 수준이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소득만큼 극적으로 증가하진 않았다. 즉, 저소득층일수록 가구소득에서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영유아 양육 특성

- IV-1. 하루 중 돌보는 사람 및 이용기관
- IV-2. 부모의 양육특성 및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 IV-3. 장애영유아 양육
- IV-4. 영유아 가구의 추가출산계획
- IV-5. 시사점



IV. 영유아 양육 특성

제 4장은 영유아 가구가 보이고 있는 전반적인 양육 특성에 대하여 서술한다. 제 1절은 하루 중 낮 시간 동안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평일 시간대 별로는 어떠한 이용기관을 주로 이용하며 돌보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담고 있다. 제 2절은 부모의 양육특성 및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3절에서는 장애 영유아 보육 현황도 함께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제 4절은 영유아 가구의 추가 출산계획에 대한 조사결과를 소개한다.

1 하루 중 돌보는 사람 및 이용기관

본 절에서는 영유아의 낮 시간 주된 양육자 또는 기관, 영유아 연령별·시간대 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 등 우리나라 영유아의 양육 특성을 분석하였다.

가. 낮 시간 동안 돌보는 사람

먼저, 영유아를 낮 시간 동안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 즉 ‘주양육자’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낮 시간에는 주로 기관에 맡긴다는 비율이 50%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가 주로 돌본다는 비율은 41.6%로 다음으로 높았다. 조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5.5%였는데 외조부모가 3.3%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육아전문인력이 돌보는 비율은 1.7%였다.

영유아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영아의 경우 54.1%는 어머니가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 그 비중이 가장 컸고, 유아의 경우에는 기관에 맡기는 비율이 63.5%로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육연령 기준으로는 0세의 경우 76.8%가 어머니가 돌본다고 응답하여 영아이고, 연령이 낮을수록 어머니가 돌보는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규모별로는 눈에 띄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중소도시의 경우 기관에 맡기는 경우가 53.1%로 다른 지역보다 다소 많으며, 어머니가 주로 돌본다는 비율은 대도시에서 43.5%로 나타나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모 취업 여부에 따른 구분은 당연히 휴직중인 경우(62.3%), 미취업인 경우(60.6%)가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16.5%)보다 어머니가 낮에 돌보는 비중이 컸고, 모가 취업중인 경우는 67.4%가 낮시간에는 영유아를 주로 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미취업중인 경우에도 37.7%는 영유아를 낮시간에는 주로 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500만원 이상의 상대적으로 고소득 가구에서 기관에 맡긴다는 응답이 50% 이상으로 500만원 미만 소득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고소득 가구에 취업모 비중이 높았던 결과와⁶⁾ 관련지어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15년과 비교 시 전체적으로 기관에 맡기는 비중은 1% 증가로 다소 늘었고, 어머니가 돌본다는 비중도 41.3%인 2015년과 별다른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 표 IV-1-1 ▣ 제 특성별 낮 시간 동안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

단위: %(명)

구분	부	모	부모 형제 자매	친조 부모	외조 부모	기타 친인척	비혈연	육아 전문 인력	기관에 맡김	없음	계(수)	χ^2 (df)
전체	0.7	41.6	0.1	2.2	3.3	0.1	0.3	1.7	50.0	-	100.0(3,775)	
영유아구분												
영아	0.9	54.1	0.2	2.5	4.6	0.1	0.5	1.0	36.2	-	100.0(1,911)	316.3(8)***
유아	0.6	29.6	-	1.9	2.0	0.1	0.1	2.3	63.5	-	100.0(1,864)	
보육연령												
0세	0.8	76.8	0.4	3.3	5.8	0.3	0.8	0.4	11.5	-	100.0(803)	
1세	1.1	40.8	0.1	2.7	4.6	-	0.5	1.7	48.5	-	100.0(540)	
2세	0.7	37.5	-	1.3	3.0	-	0.1	1.1	56.3	-	100.0(568)	668.6(40)***
3세	0.3	30.0	-	2.2	2.3	0.2	-	1.7	63.3	-	100.0(650)	
4세	0.4	31.8	0.1	1.1	1.8	-	0.2	2.8	61.8	-	100.0(549)	
5세	1.0	27.4	-	2.2	1.8	-	0.2	2.5	64.9	-	100.0(665)	

6) 본 보고서 III장 <표 III-2-25> 참조.

구분	부	모	부모 형제 자매	친조 부모	외조 부모	기타 친인척	비혈연	육아 전문 인력	기관에 맡김	없음	계(수)	χ^2 (df)
지역규모												
대도시	1.1	43.5	0.1	2.8	4.9	0.1	0.6	1.3	45.7	-	100.0(1,362)	65.8(16)***
중소도시	0.3	40.3	0.1	1.7	2.0	-	0.1	2.4	53.1	-	100.0(1,146)	
읍면지역	0.8	40.5	0.3	1.8	2.5	0.2	0.2	0.9	52.8	-	100.0(1,267)	
모취업 여부												
취업	1.0	16.5	0.2	4.3	7.2	0.2	0.6	2.6	67.4	-	100.0(1,588)	994.3(24)***
휴직중	2.5	62.3	-	1.3	0.8	-	-	0.5	32.6	-	100.0(270)	
미취업	0.2	60.6	-	0.1	0.3	-	0.1	1.1	37.7	-	100.0(1,880)	
모부재 등	2.7	-	-	31.1	-	-	2.9	-	63.4	-	100.0(37)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1.9	50.8	-	1.5	1.1	-	-	4.2	40.5	-	100.0(142)	359.1(72)***
200~249만원	0.5	52.7	-	0.3	0.9	-	-	1.2	44.3	-	100.0(244)	
250~299만원	1.1	50.8	-	1.5	1.1	-	-	3.3	42.3	-	100.0(300)	
300~349만원	0.8	54.0	-	1.0	0.9	-	0.1	0.8	42.4	-	100.0(591)	
350~399만원	0.8	55.5	0.3	0.6	0.9	0.2	-	0.1	41.7	-	100.0(362)	
400~499만원	0.3	43.6	0.1	2.3	1.6	0.1	0.2	2.1	49.9	-	100.0(727)	
500~599만원	0.4	33.7	0.2	2.1	6.2	0.3	0.2	0.9	56.0	-	100.0(602)	
600~699만원	1.3	25.0	0.3	5.0	6.4	0.1	-	3.4	58.5	-	100.0(328)	
700만원이상	0.8	24.6	-	3.9	6.8	-	1.7	1.5	60.6	-	100.0(465)	
모름/무응답	-	33.6	-	6.7	-	-	-	-	59.7	-	100.0(14)	
2015년 조사	0.6	41.3	0.3	2.9	3.1	-	0.4	1.6	49.0	0.7	100.0(3,560)	
2012년 조사	0.1	37.5	0.1	1.9	3.5	0.1	0.5	0.1	56.0	0.1	100.0(3,343)	
2009년 조사	1.9	60.0	0.6	8.1	4.8	0.2	0.9	-	11.8	4.8	100.0(7,45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 보육연령

자료: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1) 전체 영유아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전체 영유아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오전 9시 이전에는 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66.6% 이상이었으나 오전 9시 이후 38.1% 이하로 감소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등이 돌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오후 4시 반 이후에는 다시 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증가해 16:31~17:00시 사이는 58.9%, 18:01~18:30분에는 83.5%가 부모가 주로 돌보

는 사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때 16:01~16:30분 사이 조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7.1%로 16:00시 이전 4.7%에서 크게 증가하기 시작해 부터 17:31~18:00시 사이 조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10.5%에 이르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하원한 영유아들 중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경우 조부모에 돌봄을 의존하고 있는 결과로 파악된다.

표 IV-1-2 평일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단위: %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사교육 기관	시간제 보육	지역아동 센터 등 기타기관	조부모	기타 친인척	비혈연 육아 인력
07:00~07:30	0.3	0.1	96.1	-	-	-	-	2.6	0.5	0.4
07:31~08:00	1.0	0.3	93.7	-	-	-	-	3.8	0.5	0.7
08:01~08:30	4.9	2.9	85.6	-	-	-	-	5.0	0.5	1.0
08:31~09:00	14.6	11.4	66.6	0.7	-	-	0.1	5.3	0.5	0.9
09:01~09:30	32.3	22.8	38.1	2.2	-	0.1	0.2	3.5	0.2	0.7
09:31~10:00	42.9	26.5	24.5	2.7	-	0.1	0.1	2.6	0.1	0.4
10:01~10:30	46.0	26.9	20.9	2.9	0.1	0.1	0.2	2.5	0.2	0.3
10:31~11:00	46.1	26.9	20.7	2.9	0.1	0.1	0.2	2.5	0.2	0.3
11:01~11:30	46.1	26.9	20.5	2.9	0.2	0.1	0.1	2.5	0.2	0.4
11:31~12:00	46.1	26.9	20.4	2.9	0.2	0.1	0.1	2.6	0.2	0.4
12:01~12:30	46.1	26.9	20.5	2.9	0.1	0.1	0.1	2.6	0.2	0.4
12:31~13:00	46.0	26.9	20.5	2.9	0.1	0.1	0.2	2.7	0.2	0.4
13:01~13:30	45.9	26.4	21.1	2.9	0.1	0.1	0.2	2.7	0.2	0.4
13:31~14:00	45.7	26.1	21.4	2.9	0.2	0.1	0.2	2.7	0.2	0.5
14:01~14:30	45.6	25.0	22.2	2.9	0.6	0.1	0.2	2.7	0.2	0.5
14:31~15:00	45.2	23.8	23.5	2.5	1.0	0.1	0.2	2.8	0.2	0.5
15:01~15:30	43.3	21.9	26.6	1.5	2.0	0.1	0.1	3.7	0.2	0.5
15:31~16:00	36.7	19.6	34.0	0.8	3.2	0.1	0.1	4.7	0.2	0.6
16:01~16:30	25.3	14.6	46.5	0.3	4.8	-	0.2	7.1	0.3	0.8
16:31~17:00	16.4	8.9	58.9	0.1	5.4	-	0.3	8.6	0.4	1.0
17:01~17:30	9.4	3.9	69.9	0.1	4.8	-	0.2	10.1	0.4	1.3
17:31~18:00	5.6	1.9	76.2	-	3.9	-	0.1	10.5	0.5	1.3
18:01~18:30	3.1	0.8	83.5	-	1.5	-	0.1	9.4	0.5	1.0
18:31~19:00	1.2	0.4	89.0	-	0.4	-	0.1	7.4	0.5	0.9
19:01~19:30	0.4	0.2	93.1	-	0.2	-	-	5.1	0.3	0.7
19:31~20:00	0.3	0.1	95.4	-	-	-	-	3.4	0.3	0.3
20:01~20:30	0.2	0.1	96.7	-	-	-	-	2.4	0.3	0.3
20:31~21:00	0.1	0.1	97.7	-	-	-	-	1.7	0.2	0.2
21:01~21:30	0.1	0.1	98.0	-	-	-	-	1.4	0.3	0.2
21:31~22:00	0.1	0.1	98.0	-	-	-	-	1.4	0.2	0.2
22:01~22:30	0.1	0.1	98.2	-	-	-	-	1.3	0.3	0.1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자료: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영유아 연령별·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다음으로 영유아의 연령별로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 보았다. 먼저 0세 아동의 경우 모든 시간대에서 부모가 돌보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2시:31~13:00시 사이에 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가장 낮고(71.6%), 대신 혈연이나(10.3%) 어린이집(15.9%)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5:31~16:00시 사이는 혈연이 돌보는 경우가 10.4%로 혈연 돌봄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간대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는 11:01~12:30 사이로 16.1%의 이용 비율을 보였다. 요컨대 0세 아동은 시간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주로 부모가 돌보며 어린이집은 10:01~15:00시 사이 15%~16% 정도로 이용되며 혈연 돌봄을 일부 받고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 표 IV-1-4 ■ 0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단위: %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기관	혈연	비혈연
07:00~07:30	0.2	-	97.1	-	-	2.7	-
07:31~08:00	0.7	-	95.0	-	-	4.2	0.1
08:01~08:30	2.6	-	91.2	-	-	5.8	0.4
08:31~09:00	5.3	-	87.0	-	-	6.9	0.9
09:01~09:30	10.8	-	79.5	-	-	8.7	1.0
09:31~10:00	14.2	-	76.0	-	-	8.4	1.3
10:01~10:30	15.9	-	73.6	-	-	9.2	1.3
10:31~11:00	15.9	-	73.2	-	0.1	9.4	1.3
11:01~11:30	16.1	-	72.3	0.1	0.4	9.6	1.6
11:31~12:00	16.1	-	71.9	0.1	0.4	10.0	1.6
12:01~12:30	16.1	-	71.8	0.1	0.5	9.9	1.6
12:31~13:00	15.9	-	71.6	0.1	0.3	10.3	1.8
13:01~13:30	15.7	-	72.3	0.1	-	10.0	1.8
13:31~14:00	15.7	-	72.4	0.1	-	9.9	1.8
14:01~14:30	15.6	-	73.0	0.1	-	9.3	2.0
14:31~15:00	15.3	-	73.1	0.1	-	9.5	2.0
15:01~15:30	14.7	-	73.8	-	-	9.8	1.7
15:31~16:00	12.6	-	75.4	-	-	10.4	1.7
16:01~16:30	8.3	-	80.1	-	0.2	9.9	1.5
16:31~17:00	6.2	-	82.4	-	0.2	9.7	1.5
17:01~17:30	4.5	-	84.8	-	-	9.3	1.5
17:31~18:00	2.6	-	87.1	-	-	9.2	1.1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기관	혈연	비혈연
18:01~18:30	1.3	-	90.8	-	-	7.4	0.6
18:31~19:00	0.5	-	93.5	-	-	5.5	0.4
19:01~19:30	0.4	-	95.0	-	-	4.1	0.4
19:31~20:00	0.3	-	96.7	-	-	2.9	0.1
20:01~20:30	0.2	-	97.1	-	-	2.6	0.1
20:31~21:00	-	-	97.9	-	-	2.0	0.1
21:01~21:30	-	-	98.1	-	-	1.9	-
21:31~22:00	-	-	98.1	-	-	1.8	0.1
22:01~22:30	-	-	98.2	-	-	1.6	0.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보육연령 기준

자료: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1세 아동의 경우 오전 9시 이후부터 어린이집에 가는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오후 4시까지의 부모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전후 시간대는 부모가 어린이집보다 돌보는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4시 이후 6시까지는 혈연이 돌보는 비중이 증가하여 최대 13%는 혈연이 돌보며 오후 6시 이후에는 혈연돌봄이 다시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V-1-5 1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단위: %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기관	혈연	비혈연
07:00~07:30	0.4	-	95.5	-	-	3.6	0.5
07:31~08:00	1.4	-	92.6	-	-	5.4	0.6
08:01~08:30	5.1	-	86.0	-	-	7.6	1.2
08:31~09:00	16.8	-	73.1	0.5	-	8.5	1.1
09:01~09:30	47.0	-	46.5	0.5	-	5.2	0.7
09:31~10:00	63.5	-	30.7	0.8	-	4.5	0.5
10:01~10:30	70.5	-	24.7	0.8	0.5	3.3	0.3
10:31~11:00	70.6	-	24.6	0.8	0.5	3.3	0.3
11:01~11:30	70.6	-	24.5	0.8	-	3.8	0.3
11:31~12:00	70.6	-	24.5	0.8	-	3.8	0.3
12:01~12:30	70.6	-	24.5	0.8	-	3.8	0.3
12:31~13:00	69.6	-	25.0	0.8	-	4.1	0.5
13:01~13:30	69.4	-	25.3	0.8	0.1	3.9	0.5
13:31~14:00	69.3	-	25.4	0.8	0.1	3.9	0.5
14:01~14:30	68.7	-	25.8	0.8	0.1	4.0	0.5
14:31~15:00	68.4	-	26.6	0.8	0.1	3.6	0.5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기관	혈연	비혈연
15:01~15:30	65.4	-	28.6	0.8	0.1	4.5	0.5
15:31~16:00	53.4	-	38.0	0.8	0.1	6.8	0.9
16:01~16:30	32.3	-	54.9	-	0.1	10.7	1.9
16:31~17:00	19.3	-	66.3	-	0.1	12.4	1.9
17:01~17:30	10.6	-	74.2	-	0.2	12.6	2.3
17:31~18:00	7.2	-	77.1	-	0.2	13.0	2.5
18:01~18:30	3.5	-	83.6	-	-	11.0	1.8
18:31~19:00	0.8	-	89.0	-	-	8.4	1.8
19:01~19:30	0.6	-	92.0	-	-	6.1	1.2
19:31~20:00	0.2	-	95.8	-	-	3.2	0.7
20:01~20:30	0.2	-	96.8	-	-	2.2	0.7
20:31~21:00	0.2	-	98.3	-	-	1.2	0.3
21:01~21:30	0.2	-	98.3	-	-	1.2	0.3
21:31~22:00	0.2	-	98.3	-	-	1.2	0.3
22:01~22:30	0.2	-	98.3	-	-	1.2	0.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보육연령 기준

자료: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세 아동은 오전 9시 이후 0-1세 아동에 비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본격적인 기관 등원 시간 전인 오전 9시 전까지는 부모가 돌보는 경우가 가장 많으나 오전 9시부터 어린이집 이용비율이 50%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하여 오전 10시 이후부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중이 85.3%에 이르고 있다. 오후 4시 31분 이후에는 다시 부모가 돌보는 비중이 증가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는 부모가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고(61.6%), 오후 5시 31분부터 6시 사이는 혈연이 돌보는 비중이 11.2%로 혈연 돌봄을 가장 많이 받는 시간대로 나타났다.

▮ 표 IV-1-6 ▮ 2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단위: %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기관	혈연	비혈연
07:00~07:30	0.8	-	96.3	-	-	2.8	0.2
07:31~08:00	1.7	-	94.0	-	-	3.8	0.6
08:01~08:30	8.0	0.1	86.2	-	-	5.0	0.8
08:31~09:00	25.4	0.1	67.6	0.3	-	5.6	0.9
09:01~09:30	56.6	0.1	37.7	1.3	0.4	3.2	0.7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기관	혈연	비혈연
09:31~10:00	78.7	0.3	17.8	1.3	0.4	1.3	0.2
10:01~10:30	85.3	0.3	11.5	1.5	0.4	1.0	-
10:31~11:00	85.3	0.3	11.5	1.5	0.4	1.0	-
11:01~11:30	85.3	0.3	11.5	1.5	0.4	1.0	-
11:31~12:00	85.3	0.3	11.4	1.5	0.4	1.1	-
12:01~12:30	85.3	0.3	11.2	1.5	0.6	1.1	-
12:31~13:00	85.3	0.3	11.2	1.5	0.6	1.1	-
13:01~13:30	85.1	0.3	11.7	1.3	0.4	1.3	-
13:31~14:00	84.9	0.3	11.7	1.3	0.4	1.3	0.2
14:01~14:30	84.9	0.1	11.8	1.3	0.4	1.3	0.2
14:31~15:00	84.6	0.1	12.5	0.8	0.4	1.3	0.2
15:01~15:30	81.2	0.1	14.9	0.6	0.6	2.4	0.2
15:31~16:00	68.1	0.1	26.9	0.2	0.5	3.7	0.4
16:01~16:30	46.8	0.1	45.8	-	0.7	5.9	0.6
16:31~17:00	28.2	-	61.6	-	0.7	8.9	0.6
17:01~17:30	16.3	-	71.8	-	0.3	10.7	0.9
17:31~18:00	9.7	-	78.0	-	0.2	11.2	0.9
18:01~18:30	5.6	-	83.2	-	0.2	10.3	0.7
18:31~19:00	2.7	-	87.0	-	0.2	9.4	0.7
19:01~19:30	1.0	-	91.1	-	0.4	6.9	0.6
19:31~20:00	0.7	-	94.3	-	0.4	4.2	0.4
20:01~20:30	0.4	-	95.8	-	0.2	3.5	0.2
20:31~21:00	0.2	-	96.8	-	0.2	2.6	0.2
21:01~21:30	0.2	-	97.3	-	-	2.3	0.2
21:31~22:00	0.2	-	97.3	-	-	2.3	0.2
22:01~22:30	0.2	-	97.4	-	-	2.2	0.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보육연령 기준

자료: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3세 아동 역시 오전 9시 1분 이후 부모가 돌보는 비중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가는 비중이 각 35.3%와 33.1%로 급격히 증가하며 전반적으로 모든 시간대에서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이용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후 4시 31분 이후에는 부모가 돌보는 비중이 51.2%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비중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며 혈연 돌봄은 오후 4시 하원 시간을 전후하여 증가하기 시작해 오후 5시 1분부터 6시 30분까지는 혈연이 돌보는 비중이 11.1%에서 11.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IV-1-7 3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단위: %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기관	혈연	비혈연
07:00~07:30	0.1	0.4	96.4	-	0.1	3.0	0.1
07:31~08:00	1.2	0.2	93.4	-	0.3	4.2	0.6
08:01~08:30	5.2	4.1	85.2	-	0.3	4.7	0.6
08:31~09:00	15.8	15.9	61.7	1.4	0.3	4.4	0.6
09:01~09:30	35.3	33.1	25.7	3.3	0.5	1.6	0.5
09:31~10:00	49.2	38.9	5.9	4.9	0.6	0.5	-
10:01~10:30	51.0	39.7	3.1	5.2	0.6	0.5	-
10:31~11:00	51.2	39.7	2.8	5.2	0.6	0.5	-
11:01~11:30	51.2	39.7	2.8	5.2	0.6	0.5	-
11:31~12:00	51.4	39.7	2.8	5.2	0.6	0.3	-
12:01~12:30	51.4	39.7	3.1	5.2	0.4	0.3	-
12:31~13:00	51.4	39.7	3.1	5.2	0.4	0.3	-
13:01~13:30	51.4	39.5	3.1	5.2	0.4	0.4	-
13:31~14:00	51.0	39.2	3.9	5.2	0.4	0.4	-
14:01~14:30	51.0	37.9	4.4	5.2	0.9	0.7	-
14:31~15:00	50.2	35.3	7.4	4.7	1.3	1.1	-
15:01~15:30	48.6	32.6	12.2	3.0	1.8	1.8	-
15:31~16:00	42.0	29.3	21.4	1.6	2.9	2.7	-
16:01~16:30	31.1	21.8	35.9	0.6	4.0	6.5	-
16:31~17:00	21.3	14.5	51.2	0.2	3.9	8.2	0.7
17:01~17:30	11.3	6.0	66.6	0.2	3.9	11.1	0.9
17:31~18:00	6.2	2.8	74.6	0.2	3.8	11.3	1.0
18:01~18:30	2.9	1.3	82.3	0.2	1.3	11.3	0.6
18:31~19:00	1.0	0.5	89.0	-	0.3	8.7	0.5
19:01~19:30	0.2	0.4	93.4	-	0.3	5.4	0.3
19:31~20:00	-	0.1	95.7	-	0.1	4.1	-
20:01~20:30	-	-	96.9	-	0.1	3.1	-
20:31~21:00	-	-	97.9	-	0.1	2.0	-
21:01~21:30	-	-	98.3	-	0.1	1.6	-
21:31~22:00	-	-	98.3	-	0.1	1.6	-
22:01~22:30	-	-	98.3	-	0.1	1.6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보육연령 기준

자료: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4세 아동은 3세 아동에 비하여 동 시간대 기관 이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시 31분 이후 오후 5시 30분까지는 유치원 이용률이 어린이집 이용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오후 4시 31분 이후에는 부모와 혈연이 돌보는 비중이 기관 이용 비중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오후 4시 30분을 기점으로 기관 이용률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후 5시 31분부터 6시는 혈연이 돌보는 비율 비교를 통해 볼 때 모든 시간대 중에서 가장 높은 11.2%로 나타나고 있다. 오후 4시 반 이후에 기관에 남아있는 아동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비율이 거의 유사하다.

▣ 표 IV-1-8 ▣ 4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단위: %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기관	혈연	비혈연
07:00~07:30	-	-	95.7	-	-	3.7	0.6
07:31~08:00	0.6	1.1	92.6	-	-	4.7	1.0
08:01~08:30	5.8	5.6	81.2	-	-	5.7	1.7
08:31~09:00	15.5	25.4	52.7	0.3	-	5.2	0.9
09:01~09:30	28.8	49.2	18.3	2.0	-	1.4	0.4
09:31~10:00	34.4	56.5	6.0	2.5	-	0.5	-
10:01~10:30	35.8	58.0	3.1	2.6	-	0.5	-
10:31~11:00	35.8	58.2	2.9	2.6	-	0.5	-
11:01~11:30	35.8	58.2	2.6	2.6	0.3	0.5	-
11:31~12:00	35.8	58.2	2.6	2.6	0.3	0.5	-
12:01~12:30	35.8	58.2	2.8	2.6	-	0.6	-
12:31~13:00	35.8	57.9	3.0	2.6	-	0.6	-
13:01~13:30	35.8	56.0	4.2	2.6	0.7	0.6	-
13:31~14:00	35.8	55.1	4.8	2.6	0.9	0.8	-
14:01~14:30	35.5	53.1	6.2	2.6	1.7	0.8	-
14:31~15:00	35.5	51.0	8.7	1.8	2.0	1.0	-
15:01~15:30	34.1	47.2	13.4	0.9	2.7	1.6	-
15:31~16:00	30.0	42.1	20.0	0.9	4.6	2.4	-
16:01~16:30	23.9	31.5	30.4	0.4	8.6	4.9	0.3
16:31~17:00	16.2	18.6	48.7	-	8.8	7.2	0.5
17:01~17:30	8.5	8.7	64.1	-	6.4	10.6	1.6
17:31~18:00	5.3	3.7	73.5	-	4.5	11.2	1.8
18:01~18:30	3.6	1.5	81.2	-	2.1	10.0	1.5
18:31~19:00	1.4	0.5	87.4	-	0.5	8.1	2.0
19:01~19:30	0.1	0.1	92.4	-	0.1	5.8	1.4
19:31~20:00	0.1	0.1	94.7	-	0.1	4.3	0.8
20:01~20:30	0.1	-	97.0	-	0.1	2.0	0.8
20:31~21:00	0.1	-	97.9	-	-	1.3	0.8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기관	혈연	비혈연
21:01~21:30	-	-	98.3	-	-	1.3	0.4
21:31~22:00	-	-	98.3	-	-	1.3	0.4
22:01~22:30	-	-	98.5	-	-	1.3	0.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보육연령 기준

자료: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5세 아동 역시 오전 9시 1분 이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중이 부모와 함께 있는 비중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며 오후 4시 31분 이후 부모가 돌보는 비중이 기관을 이용하는 비중보다 큰 것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을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하며 오후 5시 1분 이후에 기관에 남아있는 아동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중이 거의 유사한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5세 아동의 경우 반일제 이상 학원 및 기타 기관 이용률도 다른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반일제 이상 학원은 오전 9시 1분 이후부터 오후 3시까지 5~6%의 지속적인 이용률을 보이며, 기타 기관은 오후 3시 31분부터 오후 6시까지 10% 이상의 이용률을 보였다.

표 IV-1-9 5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기관	혈연	비혈연
07:00~07:30	0.4	0.2	95.6	-	-	2.9	0.9
07:31~08:00	0.7	0.5	94.0	-	-	3.8	1.1
08:01~08:30	3.9	7.1	83.1	-	-	4.6	1.3
08:31~09:00	12.1	25.9	55.2	1.4	0.2	4.2	1.0
09:01~09:30	23.8	51.7	16.0	5.7	0.4	1.4	0.8
09:31~10:00	29.7	60.0	3.0	6.4	0.4	0.5	-
10:01~10:30	30.8	60.5	1.1	6.6	0.8	0.2	-
10:31~11:00	30.8	60.6	0.9	6.6	0.8	0.2	-
11:01~11:30	30.8	60.6	0.9	6.6	0.8	0.2	-
11:31~12:00	30.8	60.6	0.9	6.6	0.8	0.2	-
12:01~12:30	30.8	60.6	1.3	6.6	0.4	0.2	-
12:31~13:00	30.8	60.5	1.0	6.6	0.9	0.2	-
13:01~13:30	30.8	59.4	2.0	6.6	0.9	0.2	-
13:31~14:00	30.7	59.2	2.2	6.6	1.1	0.2	-
14:01~14:30	30.7	56.2	3.9	6.6	2.2	0.3	-
14:31~15:00	30.4	53.9	5.0	6.4	3.6	0.5	0.2

단위: %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기관	혈연	비혈연
15:01~15:30	28.2	49.3	9.1	3.5	7.4	2.2	0.4
15:31~16:00	24.4	43.8	16.1	1.3	10.9	2.8	0.6
16:01~16:30	16.4	32.8	28.2	0.7	15.3	6.1	0.6
16:31~17:00	11.2	19.4	41.9	0.4	18.6	7.6	0.8
17:01~17:30	7.1	8.3	57.2	0.2	17.2	9.2	0.8
17:31~18:00	4.0	4.4	66.3	-	14.1	10.3	0.9
18:01~18:30	2.4	1.9	78.8	-	5.7	10.1	1.1
18:31~19:00	0.9	1.2	87.4	-	1.9	8.1	0.5
19:01~19:30	0.3	0.5	93.7	-	0.7	4.5	0.3
19:31~20:00	0.3	0.5	95.0	-	-	4.1	0.1
20:01~20:30	0.2	0.3	96.7	-	-	2.7	0.1
20:31~21:00	0.2	0.3	97.3	-	-	2.1	0.1
21:01~21:30	-	0.3	97.7	-	-	1.8	0.1
21:31~22:00	-	0.3	97.9	-	-	1.6	0.1
22:01~22:30	-	0.3	98.3	-	-	1.4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보육연령 기준

자료: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3) 모 취업 여부별·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어머니의 취업 여부를 구분하여 시간대별 이용 기관 및 돌보는 사람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취업모의 경우 오전 9시 전까지는 부모가 주로 돌보다가 오전 9시 1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혈연 돌봄은 기관 등원 전인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10% 이상 나타나며, 오후에는 3시 31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혈연이 아동을 돌보는 비율이 10% 이상으로 오후 5시 31분부터 6시까지 최대 23.2%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연령별로 구분하고 있진 않지만 취업모의 경우 거의 모든 시간대에서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을 유치원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5년 조사 결과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 표 IV-1-10 ▮ 취업모 자녀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단위: %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기관	혈연	비혈연
07:00~07:30	0.5	0.2	93.1	-	-	5.5	0.8
07:31~08:00	2.0	0.5	87.6	-	-	8.3	1.5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기관	혈연	비혈연
08:01~08:30	8.2	5.0	73.3	-	-	11.5	2.1
08:31~09:00	23.1	15.3	46.0	1.1	-	12.4	2.0
09:01~09:30	42.8	26.8	17.7	3.3	0.1	7.8	1.5
09:31~10:00	52.4	29.8	7.2	4.1	0.1	5.8	0.6
10:01~10:30	55.3	30.2	3.9	4.4	0.1	5.5	0.5
10:31~11:00	55.3	30.3	3.8	4.4	0.1	5.5	0.5
11:01~11:30	55.4	30.3	3.6	4.4	0.1	5.6	0.6
11:31~12:00	55.4	30.3	3.5	4.4	0.1	5.6	0.6
12:01~12:30	55.4	30.3	3.5	4.4	0.1	5.6	0.6
12:31~13:00	55.2	30.3	3.2	4.4	0.3	5.9	0.7
13:01~13:30	55.2	30.1	3.4	4.4	0.3	5.9	0.7
13:31~14:00	55.1	30.0	3.6	4.4	0.3	5.9	0.8
14:01~14:30	55.1	29.6	3.7	4.4	0.5	6.0	0.8
14:31~15:00	54.8	28.9	4.2	4.0	0.9	6.3	0.8
15:01~15:30	53.1	27.2	6.7	2.1	1.8	8.3	0.8
15:31~16:00	46.9	25.3	11.2	1.4	3.4	10.7	1.1
16:01~16:30	35.9	19.1	20.6	0.5	6.3	16.1	1.5
16:31~17:00	27.0	13.2	30.5	0.3	8.0	19.3	1.9
17:01~17:30	17.2	6.6	43.3	0.2	7.8	22.4	2.6
17:31~18:00	11.6	3.7	52.0	0.1	6.6	23.2	2.8
18:01~18:30	6.7	1.7	65.8	0.1	2.9	20.6	2.2
18:31~19:00	2.2	0.8	77.8	-	1.2	16.1	2.0
19:01~19:30	0.9	0.4	86.4	-	0.5	10.4	1.4
19:31~20:00	0.5	0.3	91.5	-	0.2	6.8	0.7
20:01~20:30	0.2	0.2	94.3	-	0.1	4.6	0.6
20:31~21:00	0.1	0.2	95.8	-	0.1	3.3	0.5
21:01~21:30	0.1	0.2	96.6	-	-	2.8	0.3
21:31~22:00	0.1	0.2	96.6	-	-	2.8	0.4
22:01~22:30	0.1	0.2	96.9	-	-	2.6	0.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보육연령 기준

자료: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한편 미취업모 가구의 경우 영유아를 낮 시간대에 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취업모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오후 4시 이후에도 기관이 아닌 부모가 돌보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취업모와 경향성이 크게 다르지 않고 유사하나 절대적인 비중은 부모가 돌보는 비중이 전 시간대에 걸쳐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파악된다.

표 IV-1-11 미취업모 자녀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단위: %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기관	혈연	비혈연
07:00~07:30	0.2	-	99.3	-	-	0.5	-
07:31~08:00	0.3	0.1	99.0	-	0.1	0.5	-
08:01~08:30	2.3	1.1	96.0	-	0.1	0.6	-
08:31~09:00	8.1	8.6	82.4	0.2	0.2	0.4	-
09:01~09:30	24.9	21.0	51.9	1.4	0.3	0.4	0.1
09:31~10:00	36.5	25.5	35.5	1.8	0.4	0.4	0.1
10:01~10:30	39.6	25.8	31.8	1.8	0.6	0.4	0.1
10:31~11:00	39.7	25.9	31.5	1.8	0.6	0.4	0.1
11:01~11:30	39.7	25.9	31.3	1.8	0.7	0.5	0.1
11:31~12:00	39.7	25.9	31.2	1.8	0.7	0.6	0.1
12:01~12:30	39.7	25.9	31.5	1.8	0.5	0.6	0.1
12:31~13:00	39.6	25.8	31.7	1.8	0.5	0.6	0.1
13:01~13:30	39.5	24.9	32.6	1.7	0.6	0.5	0.1
13:31~14:00	39.3	24.5	33.1	1.7	0.7	0.5	0.1
14:01~14:30	39.1	22.7	34.5	1.7	1.4	0.5	0.1
14:31~15:00	38.7	21.0	36.7	1.5	1.8	0.3	0.1
15:01~15:30	36.6	18.9	40.1	1.1	2.8	0.4	0.1
15:31~16:00	29.4	16.0	50.2	0.3	3.5	0.5	0.1
16:01~16:30	17.7	12.0	65.2	0.1	4.3	0.6	0.1
16:31~17:00	8.4	5.9	80.6	-	4.2	0.9	0.1
17:01~17:30	3.4	1.7	90.8	-	2.9	1.1	0.1
17:31~18:00	0.7	0.4	95.5	-	2.1	1.1	0.1
18:01~18:30	0.4	0.2	97.8	-	0.7	1.0	-
18:31~19:00	0.4	0.1	98.5	-	0.1	1.0	-
19:01~19:30	0.1	-	99.1	-	0.1	0.7	-
19:31~20:00	0.1	-	99.3	-	-	0.7	-
20:01~20:30	0.1	-	99.4	-	-	0.6	-
20:31~21:00	0.1	-	99.6	-	-	0.3	-
21:01~21:30	-	-	99.7	-	-	0.3	-
21:31~22:00	-	-	99.8	-	-	0.2	-
22:01~22:30	-	-	99.8	-	-	0.2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보육연령 기준

자료: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시간

1) 평일 부모가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

2018년 보육실태조사의 대상인 영유아들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아버지·어머니, 주말·주중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우선 평일 기준으로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4-6시간이 32.9%, 평균 8.4시간을 차지하고 있다. 영유아를 구분하면 영아가 유아보다 다소 긴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아의 경우 4-6시간이 40.6%, 영아의 경우 20.9%로 각각 나타나고 있으며 생활연령별로는 연령이 어릴수록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긴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거주 영유아가 평일 어머니와 함께 하는 시간이 8.7시간으로 가장 길고 중소도시 8.1시간, 읍면지역 8.0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경우 4-6시간이 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평균 6.3시간을 함께 한다고 답하였으나, 미취업모의 경우 7-9시간이 33.5%로 가장 많고 평균 9.7시간을 함께 한다고 응답해 미취업모가 영유아와 함께 하는 시간이 취업모 보다 길었다. 휴직중인 경우는 평균 10.5시간을 함께 한다고 응답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월 500만원 이상 소득 가구의 어머니는 평일 하루 4-6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낸다는 응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이하 소득 가구는 평일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7-9시간이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커서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파악된다. 2015년 대비 평일 영유아가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은 평균 8.7시간에서 8.4시간으로 0.3시간 감소하였다.

▮ 표 IV-1-12 ▮ 제 특성별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 평일

단위: %(명), 시간

구분	없음	1~3시간	4~6시간	7~9시간	10~12시간	13시간 이상	계(수)	평균(표준편차)
전체	0.6	5.3	32.9	28.4	14.9	18.0	100.0(3,738)	8.4(3.9)
영유아 구분								
영아	0.5	4.5	20.9	20.2	22.2	31.7	100.0(1,519)	9.9(4.2)
유아	0.6	5.8	40.6	33.8	10.1	9.1	100.0(2,219)	7.3(3.2)
χ^2 (df)/t			510.0(5)***					20.4***

구분	없음	1~3시간	4~6시간	7~9시간	10~12시간	13시간 이상	계(수)	평균(표준편차)
생활연령								
0세	0.5	2.9	6.3	8.5	32.4	49.3	100.0(434)	12.0(3.6)
1세	0.5	5.0	19.6	18.5	25.1	31.3	100.0(551)	10.0(4.2)
2세	0.5	5.2	32.5	30.1	12.3	19.4	100.0(534)	8.4(3.9)
3세	0.9	4.4	37.1	35.4	11.4	10.7	100.0(607)	7.6(3.4)
4세	0.2	5.7	36.0	37.7	10.5	10.0	100.0(609)	7.6(3.3)
5세 이상	0.7	6.6	45.4	30.5	9.3	7.7	100.0(1,003)	7.0(3.1)
χ^2 (df)/F			819.0(25)***					154***(a)
지역규모								
대도시	0.6	7.3	28.7	24.9	16.1	22.4	100.0(1,357)	8.7(4.1)
중소도시	0.3	4.2	34.9	31.0	14.8	14.7	100.0(1,139)	8.1(3.6)
읍면지역	1.0	3.0	37.9	30.5	12.1	15.5	100.0(1,242)	8.0(3.7)
χ^2 (df)/F			84.5(10)***					13.8***(a)
모취업 여부								
취업	1.1	11.5	51.0	22.7	7.7	6.0	100.0(1,588)	6.3(3.1)
휴직중	0.6	1.9	13.6	26.1	22.5	35.2	100.0(270)	10.5(4.0)
미취업	0.1	0.5	20.3	33.5	19.8	25.7	100.0(1,880)	9.7(3.6)
χ^2 (df)/F			864.9(10)***					484.6***(a)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0.3	5.5	20.4	28.2	20.8	24.7	100.0(140)	9.4(3.9)
200~249만원	0.2	1.4	20.1	32.8	18.0	27.5	100.0(236)	9.7(3.9)
250~299만원	-	2.1	23.7	25.6	18.1	30.5	100.0(297)	9.9(4.1)
300~349만원	0.2	1.4	26.5	31.8	18.0	22.1	100.0(584)	9.1(3.6)
350~399만원	0.9	1.6	26.9	31.9	17.6	21.1	100.0(353)	9.1(3.7)
400~499만원	0.4	4.0	30.3	33.5	15.0	16.9	100.0(724)	8.5(3.7)
500~599만원	1.2	5.3	39.0	29.7	11.2	13.7	100.0(600)	7.7(3.6)
600~699만원	0.4	10.1	44.9	20.0	14.6	10.0	100.0(325)	7.1(3.6)
700만원이상	0.9	14.0	45.0	19.4	9.6	11.0	100.0(465)	6.8(3.7)
모름/무응답	-	-	58.0	22.0	6.8	13.2	100.0(14)	7.7(3.5)
χ^2 (df)/F			369.9(45)***					27***(a)
2015년 조사	0.5	5.7	30.1	26.6	16.8	20.3	100.0(3,528)	8.7(4.2)
2012년 조사	1.1	11.6	37.9	26.2	12.5	10.7	100.0(3,343)	7.1(3.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모가 부재한 케이스는 제외함.

3) 영유아 구분 : 생활연령 기준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평일에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1-3시간이 5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평균 3.6시간을 함께 지내는 것으로

파악되어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평일에 영유아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전체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연령별 구분, 지역규모별 경우에도 1-3시간이 가장 많았으나,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균적으로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고, 어머니와 유사하게 대도시지역 거주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3.8시간으로 가장 길고 중소도시(3.5시간), 읍면지역 3.3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평균 3.7시간으로 미취업모 가정의 3.5시간에 비해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다소 길게 나타났다. 이는 모의 취업에 따라 아버지가 자녀 양육을 분담하고자 하는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모 부재 등의 경우 평일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도 가장 짧은 3.5시간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199만원 이하 소득가구에서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4.7시간으로 현저히 길고, 소득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엇보인다. 한편 2012년, 2015년의 결과와 비교하면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4-6시간인 경우의 비중이 늘어나서, 하루 평균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2012년 2.0시간에서 2015년 3.0시간, 그리고 2018년 3.6시간으로 지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표 IV-1-13 ▮ 제 특성별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 평일

단위: %(명), 시간

구분	없음	1~3시간	4~6시간	7~9시간	10~12시간	13시간 이상	계(수)	평균(표준편차)
전체	5.6	54.3	29.4	5.8	3.1	1.9	100.0(3,689)	3.6(2.8)
영유아 구분								
영아	4.9	51.6	30.9	6.1	4.4	2.1	100.0(1,496)	3.8(2.9)
유아	6.1	56.0	28.4	5.6	2.1	1.8	100.0(2,193)	3.4(2.7)
$\chi^2(df)/t$			23.5(5)***					4***
생활연령								
0세	6.2	47.1	31.8	7.0	4.7	3.3	100.0(427)	4.0(3.2)
1세	3.6	51.4	32.1	5.4	5.2	2.3	100.0(541)	4.0(3.0)
2세	5.0	55.0	29.2	6.1	3.6	1.0	100.0(528)	3.5(2.5)
3세	4.8	56.5	29.7	5.3	2.1	1.5	100.0(601)	3.5(2.6)
4세	5.9	57.1	27.9	5.3	1.7	2.1	100.0(597)	3.4(2.7)
5세 이상	6.9	55.1	28.0	5.9	2.4	1.8	100.0(995)	3.4(2.7)
$\chi^2(df)/F$			43.9(25)**					5.2***(a)
지역규모								
대도시	6.0	50.9	28.7	7.9	3.6	2.9	100.0(1,330)	3.8(3.1)
중소도시	4.9	56.6	30.3	4.3	2.7	1.3	100.0(1,122)	3.5(2.5)

구분	없음	1~3시간	4~6시간	7~9시간	10~12시간	13시간 이상	계(수)	평균(표준편차)
읍면지역	6.3	56.7	28.9	4.3	2.6	1.2	100.0(1,237)	3.3(2.5)
χ^2 (df)/F	45.2(10)***							9.9***(a)
모취업 여부								
취업	5.9	53.1	29.4	7.1	2.3	2.2	100.0(1,544)	3.7(2.8)
휴직중	5.5	52.5	26.4	2.9	10.1	2.6	100.0(266)	4.1(3.4)
미취업	5.4	55.5	29.8	5.0	2.7	1.7	100.0(1,846)	3.5(2.6)
모부재 등	5.5	55.7	27.6	11.2	-	-	100.0(33)	3.5(2.3)
χ^2 (df)/F	64.2(15)***							5.3***(a)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0.9	36.3	36.3	20.8	4.9	0.7	100.0(100)	4.7(2.9)
200~249만원	6.5	50.0	27.5	8.8	6.2	1.0	100.0(233)	3.8(2.9)
250~299만원	4.1	54.5	27.2	6.5	5.1	2.6	100.0(292)	3.8(3.0)
300~349만원	7.0	52.0	30.9	4.1	3.3	2.7	100.0(584)	3.7(2.9)
350~399만원	5.4	54.1	31.0	4.8	3.3	1.5	100.0(357)	3.6(2.6)
400~499만원	5.0	57.9	29.4	4.4	1.8	1.5	100.0(722)	3.4(2.5)
500~599만원	6.9	54.8	26.3	6.7	2.4	3.0	100.0(599)	3.6(3.0)
600~699만원	5.6	50.7	34.8	5.6	3.0	0.3	100.0(324)	3.6(2.4)
700만원이상	4.7	58.3	27.1	5.2	2.6	2.1	100.0(464)	3.4(2.8)
모름/무응답	-	64.5	35.5	-	-	-	100.0(14)	3.2(1.2)
χ^2 (df)/F	100.8(45)***							2.7***(a)
2015년 조사	11.0	59.1	22.5	2.6	3.4	1.3	100.0(3,475)	3.0(2.7)
2012년 조사	15.3	67.5	12.9	1.0	0.6	2.7	100.0(3,343)	2.0(1.7)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부가 부재한 케이스는 제외함.

3) 영유아 구분 : 생활연령 기준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 $p < .001$.

2) 주말 부모가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

다음으로 주말에 부모가 자녀와 지내는 시간을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경우 13시간 이상이 54.6%, 아버지의 경우 26.8%로 주말에도 역시 영유아가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표 IV-1-14, IV-1-15 참조). 주말에 영유아와 함께 하는 시간은 어머니의 경우 평균 12.6시간, 부의 경우 평균 8.9시간을 함께 지내며 2015년과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가 없으나, 아버지의 경우는 2012년 대비 9.3시간에서 8.9시간으로 다소 하락하였다.

표 IV-1-14 제 특성별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 주말

단위: %(명), 시간

구분	없음	1~3시간	4~6시간	7~9시간	10~12시간	13시간 이상	계(수)	평균(표준편차)
전체	0.2	1.0	4.8	6.1	33.3	54.6	100.0(3,738)	12.6(3.1)
영유아 구분								
영아	0.1	1.2	3.6	5.8	35.7	53.6	100.0(1,519)	12.7(3.0)
유아	0.2	0.9	5.6	6.2	31.8	55.3	100.0(2,219)	12.6(3.2)
χ^2 (df)/z			13.7(5)**					1.1
생활연령								
0세	0.3	1.5	1.5	7.9	35.4	53.4	100.0(434)	12.8(3.1)
1세	0.1	1.6	4.3	4.6	37.3	52.1	100.0(551)	12.6(3.1)
2세	0.1	0.6	4.3	5.4	34.3	55.2	100.0(534)	12.7(2.9)
3세	0.4	0.3	5.3	6.5	30.7	56.8	100.0(607)	12.7(3.2)
4세	0.2	1.1	4.1	4.4	35.8	54.4	100.0(609)	12.7(3.0)
5세 이상	0.2	1.1	6.7	7.2	30.0	55.0	100.0(1,003)	12.4(3.3)
χ^2 (df)/F			48.1(25)***					1(a)
지역규모								
대도시	0.2	0.9	5.5	6.2	30.7	56.5	100.0(1,357)	12.7(3.3)
중소도시	0.2	1.0	3.8	5.5	36.9	52.7	100.0(1,139)	12.6(2.9)
읍면지역	0.2	1.3	5.6	7.2	30.8	54.9	100.0(1,242)	12.5(3.3)
χ^2 (df)/F			21.8(10)**					1.2(a)
모취업 여부								
취업	0.3	1.5	7.3	6.9	33.0	51.0	100.0(1,588)	12.3(3.4)
휴직중	-	0.7	3.1	6.0	35.6	54.7	100.0(270)	12.9(3.0)
미취업	0.1	0.6	3.0	5.4	33.2	57.7	100.0(1,880)	12.9(2.8)
모부재 등								
χ^2 (df)/F			54.8(10)***					17.7***(a)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	0.9	2.0	7.5	31.9	57.6	100.0(140)	12.9(2.8)
200~249만원	0.4	1.4	2.9	3.3	33.7	58.2	100.0(236)	13.0(3.0)
250~299만원	-	0.8	3.9	4.1	29.2	62.0	100.0(297)	13.2(3.0)
300~349만원	0.4	0.7	2.4	6.8	32.6	57.1	100.0(584)	12.8(3.0)
350~399만원	0.8	0.4	6.3	5.3	34.2	53.1	100.0(353)	12.3(3.2)
400~499만원	-	0.5	3.6	6.2	37.0	52.6	100.0(724)	12.6(2.9)
500~599만원	0.2	1.5	5.3	7.0	32.7	53.4	100.0(600)	12.4(3.2)
600~699만원	-	2.1	5.5	4.9	31.8	55.8	100.0(325)	12.7(3.3)
700만원이상	-	1.0	9.1	7.1	32.6	50.1	100.0(465)	12.2(3.4)
모름/무응답	-	8.0	6.0	-	43.4	42.6	100.0(14)	11.5(3.7)
χ^2 (df)/F			79.7(45)***					3.6***
2015년 조사	0.2	1.5	7.9	6.9	28.3	55.2	100.0(3,528)	12.5(3.6)
2012년 조사	0.8	1.1	3.2	6.9	38.4	49.6	100.0(3,343)	12.1(2.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모가 부재한 케이스는 제외함.

3) 영유아 구분 : 생활연령 기준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 $p < .001$.

표 IV-1-15 제 특성별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 주말

단위: %(명), 시간

구분	없음	1~3시간	4~6시간	7~9시간	10~12시간	13시간 이상	계(수)	평균(표준편차)
전체	1.2	15.9	20.0	9.8	26.2	26.8	100.0(3,689)	8.9(4.7)
영유아 구분								
영아	0.8	15.6	20.2	9.5	30.1	23.9	100.0(1,496)	8.9(4.6)
유아	1.5	16.1	19.9	10.1	23.6	28.7	100.0(2,193)	8.9(4.8)
χ^2 (df)/t			25.7(5)***					-
생활연령								
0세	0.7	17.0	19.9	10.9	32.2	19.4	100.0(427)	8.6(4.5)
1세	0.5	14.4	21.9	9.1	29.6	24.3	100.0(541)	9.0(4.6)
2세	1.1	15.6	18.8	8.8	29.0	26.7	100.0(528)	9.1(4.7)
3세	1.3	16.3	18.3	9.1	24.6	30.4	100.0(601)	9.1(4.8)
4세	1.0	15.7	21.7	9.1	26.6	25.9	100.0(597)	8.8(4.7)
5세 이상	2.0	16.3	19.7	11.2	21.2	29.5	100.0(995)	8.9(4.9)
χ^2 (df)/F			50.5(25)***					0.8(a)
지역규모								
대도시	1.3	16.1	17.6	10.1	25.2	29.7	100.0(1,330)	9.2(4.9)
중소도시	1.2	11.5	21.3	10.1	28.6	27.3	100.0(1,122)	9.3(4.5)
읍면지역	1.4	26.3	22.7	8.5	22.4	18.6	100.0(1,237)	7.4(4.8)
χ^2 (df)/F			99.4(10)***					37.8***(a)
모취업 여부								
취업	1.5	15.3	18.5	10.5	25.3	28.9	100.0(1,544)	9.1(4.8)
휴직중	-	15.6	18.0	7.4	31.5	27.6	100.0(266)	9.3(4.5)
미취업	1.3	16.5	21.3	9.6	26.0	25.3	100.0(1,846)	8.7(4.7)
모부재 등	-	14.2	37.4	13.5	30.1	4.8	100.0(33)	7.4(4.0)
χ^2 (df)/F			29.2(15)**					3.4**(a)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	12.5	35.3	10.2	22.9	19.1	100.0(100)	8.1(4.6)
200~249만원	0.9	25.6	19.8	8.9	21.7	23.1	100.0(233)	8.0(5.1)
250~299만원	-	19.2	21.5	7.8	24.1	27.4	100.0(292)	8.8(5.0)
300~349만원	1.0	14.1	21.7	9.0	25.4	28.9	100.0(584)	9.1(4.6)
350~399만원	0.8	17.2	23.3	8.8	25.2	24.7	100.0(357)	8.5(4.7)
400~499만원	1.6	17.7	19.3	10.9	27.4	23.0	100.0(722)	8.6(4.7)
500~599만원	2.0	13.8	18.7	11.5	23.3	30.7	100.0(599)	9.2(4.7)
600~699만원	1.4	12.0	18.8	10.2	28.2	29.4	100.0(324)	9.5(4.6)
700만원이상	1.3	14.5	15.9	9.1	31.6	27.5	100.0(464)	9.4(4.7)
모름/무응답	-	26.7	44.1	22.5	6.7	-	100.0(14)	5.7(3.1)
χ^2 (df)/F			83.8(45)***					3.5***(a)
2015년 조사	1.6	17.1	21.4	9.9	23.2	26.8	100.0(3,475)	8.8(5.0)
2012년 조사	2.7	11.4	13.1	13.6	28.9	30.3	100.0(3,343)	9.3(4.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부가 부재한 케이스는 제외함.

3) 영유아 구분 : 생활연령 기준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 $p < .001$.

2 부모의 양육특성 및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본 절에서는 부모의 양육정서와 자녀돌봄 참여,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등 양육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부모의 양육 정서

영유아 부모의 3가지 부정적 양육 정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자녀 양육에 있어 혼란스러운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는 비율이 10.2%, 그렇다는 비율이 43.9%로, 이러한 응답은 2015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러운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3.3%, 그렇다는 응답이 31.1%로 역시 2015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계발을 포기할 때가 많은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 10.8%, 그렇다 39.3%로 응답하여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2015년에 비해 다소 줄었으나 그렇다는 응답은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영유아 어머니는 자녀 양육으로 자기계발을 포기할 때가 많은 것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응답 결과를 요약하면, 2015년에 비해 2018년도에 영유아 부모가 지각하는 부정적 양육 정서는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 영유아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 정서

단위: %

구분	매우 그러함		그러함		보통		아님		전혀 아님	
	2018	2015	2018	2015	2018	2015	2018	2015	2018	2015
양육에 있어 혼란스러움	10.2	9.6	43.9	25.3	21.4	32.1	17.4	22.0	7.1	11.1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러움	3.3	2.0	31.1	15.8	25.1	31.4	26.9	28.5	13.6	22.3
자기계발 포기할 때 많음	10.8	11.0	39.3	27.7	20.7	26.4	20.8	21.7	8.4	13.2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제 특성별 부모의 부정적 양육 정서를 살펴보면, 자녀수가 많을수록, 어머니가 미취업인 경우 자녀가 귀찮고 짜증스럽게 느끼는 정도가 높고, 영아 자녀일 때와 가구원 수가 2인일 때 자녀 양육 시 혼란을 경험하는 정도는 낮고 귀찮고 짜증스럽게 느끼는 정도가 높았으며, 도시지역 거주자가 읍면지역 거주자에 비해 '양육 시 혼란'과 '자기계발 포기'의 부정적 양육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가구원 수 2인), 미취업모 가구 등에 대한 자녀 양육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표 IV-2-2 ▮ 제 특성별 부모의 부정적 양육 정서: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양육시 혼란	귀찮고 짜증스러움	자기계발 포기	(수)
전체	3.3	2.8	3.2	(2,533)
자녀수				
1명	3.4	2.7	3.2	(758)
2명	3.3	2.9	3.3	(1,291)
3명이상	3.2	3.0	3.3	(484)
F	1.7	10.9***	1.3	
가구원수				
2명	3.6	3.2	3.4	(25)
3명	3.4	2.7	3.2	(674)
4명	3.3	2.9	3.2	(1,165)
5명	3.3	2.9	3.2	(460)
6명 이상	3.1	2.9	3.2	(209)
F	2.7**	5.5***	0.3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3.4	2.8	3.2	(1,372)
유아	3.3	2.9	3.2	(1,161)
t	2.1**	-2.3**	0.7	
지역규모				
대도시	3.3	2.8	3.3	(946)
중소도시	3.4	2.8	3.3	(782)
읍면지역	3.2	2.9	3.0	(805)
F	7***(a)	5.7***	17.7***(a)	
모취업 여부				
취업	3.4	2.8	3.3	(1,093)
휴직중	3.3	2.6	3.3	(179)
미취업	3.3	2.9	3.2	(1,229)
모부재 등	3.6	3.1	3.0	(32)
F	1.6(a)	3.7**	1.6	
2015년 조사	3.0	2.5	3.0	(2,556)
2012년 조사	3.3	2.7	-	(2,51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3) '매우 그렇다' 1점~ '전혀 아니다' 5점으로 평정하였으나 이전 조사결과와 비교를 위해 '전혀 아니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리코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가 강함을 의미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1$, *** $p < .001$.

나. 부모의 양육 특성

1) 부모의 자녀 돌봄 참여 정도

자녀의 아버지가 평소 자녀 돌봄(놀아주기, 책 읽어주기, 공부 봐주기, 밥 먹고 옷 입는 것 도와주기 등)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에 대해 대체로 참여한다는 응답이 34.4%로 가장 많았고, 보통 정도로 참여한다는 응답이 33.7%, 적극 참여함 20.7%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수가 1~2명인 경우, 가구원 수가 3~4명인 경우, 영아기 자녀가 있는 경우, 모 취업인 경우 아버지 참여 정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돌봄 참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가 2인인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자녀돌봄 참여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부모가 가정의 경제적인 책임을 혼자 전적으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2012년과 2015년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아버지의 자녀 돌봄 참여 정도는 대체로 참여하거나 적극 참여한다는 비율이 2018년도에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서 과거에 비해 아버지 참여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대 사회가 부부와 1~2명의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많고, 취업 여성의 증가에 따른 아버지의 참여가 더 많이 요구되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표 IV-2-3 ▣ 아버지의 자녀돌봄 참여 정도: 5점 척도

단위: %(명), 점

구 분	전혀 참여 하지 않음	참여하지 않음	보통참여	대체로참여	적극참여	계(수)	5점평균 (표준편차)
전체	3.2	8.0	33.7	34.4	20.7	100.0 (2,464)	3.6(1.00)
자녀수							
1명	2.3	5.7	32.5	35.8	23.8	100.0 (724)	3.7(.96)
2명	3.6	8.7	32.9	35.4	19.4	100.0 (1,265)	3.6(1.01)
3명 이상	4.2	12.6	39.6	27.2	16.4	100.0 (475)	3.4(1.03)
χ^2 (df)/F			40.3(8)***				16.3***
가구원수							
2명	12.1	54.6	-	22.4	10.9	100.0 (9)	2.7(1.31)
3명	2.1	5.0	31.9	36.6	24.5	100.0 (646)	3.8(.95)
4명	3.5	8.8	32.8	35.5	19.4	100.0 (1,151)	3.6(1.01)
5명	2.8	11.1	38.9	28.9	18.3	100.0 (453)	3.5(1.00)
6명 이상	7.3	9.3	40.2	28.3	15.0	100.0 (205)	3.3(1.07)

구분	전혀 참여 하지 않음	참여하지 않음	보통참여	대체로참여	적극참여	계(수)	5점평균 (표준편차)
$\chi^2(df)/F$	96.9(16)***						12.5***(a)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2.7	6.4	32.4	35.8	22.7	100.0 (1,350)	3.7(.98)
유아	3.6	9.6	34.9	33.0	18.9	100.0 (1,114)	3.5(1.02)
$\chi^2(df)/t$	15.9(4)***						-3.8***
모취업 여부							
취업	2.6	7.6	33.6	33.8	22.5	100.0 (1,231)	3.7(.99)
미취업	3.6	8.1	34.5	35.1	18.5	100.0 (1,205)	3.6(1.00)
모부재 등	9.5	23.6	8.0	27.1	31.9	100.0 (28)	3.5(1.41)
$\chi^2(df)/F$	28.2(8)***						2.9*(a)
부학력							
초	37.8	8.2	17.7	36.2	-	100.0 (7)	2.5(1.41)
중	12.5	6.0	34.0	29.0	18.4	100.0 (21)	3.3(1.24)
고	5.7	11.7	33.1	31.2	18.4	100.0 (623)	3.4(1.09)
2년제대학	4.5	8.2	35.6	30.6	21.1	100.0 (452)	3.6(1.05)
4년제대학	1.4	6.8	32.8	38.0	21.0	100.0 (1,152)	3.7(.92)
대학원 이상	0.5	4.2	36.9	32.3	26.1	100.0 (209)	3.8(.90)
$\chi^2(df)/F$	99.6(20)***						9.2***(a)
가구소득							
190만원 이하	8.8	6.8	28.6	28.7	27.1	100.0 (67)	3.6(1.21)
200~249만원	4.8	8.6	38.2	28.0	20.4	100.0 (163)	3.5(1.06)
250~299만원	6.5	2.7	35.8	33.8	21.2	100.0 (190)	3.6(1.05)
300~349만원	3.4	12.2	31.8	31.3	21.3	100.0 (377)	3.5(1.06)
350~399만원	3.5	7.9	37.5	34.2	16.9	100.0 (243)	3.5(.98)
400~499만원	2.2	8.1	37.4	34.6	17.7	100.0 (477)	3.6(.95)
500~599만원	2.6	8.1	30.0	38.4	20.9	100.0 (403)	3.7(.98)
600~699만원	2.5	7.0	29.5	43.0	17.9	100.0 (216)	3.7(.94)
700만원 이상	1.3	7.2	32.4	32.1	27.1	100.0 (320)	3.8(.97)
모름/무응답	-	-	38.9	12.7	48.4	100.0 (8)	4.1(1.02)
$\chi^2(df)/F$	70.8(36)***						1.9*(a)
2015년 조사	2.7	9.9	42.8	28.9	15.7	100.0 (2,500)	3.5(0.96)
2012년 조사	1.2	6.9	41.7	25.2	25.0	100.0 (2,459)	3.7(0.97)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기준

3) '적극 참여함' 1점~'전혀 참여하지 않음' 5점으로 평정하여 이전 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리코딩하여 산출한 결과임.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5$, ** $p < .01$, *** $p < .001$

자녀의 어머니가 평소 자녀 돌봄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에 대해 적극 참여한다는 응답이 76.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대체로 참여함이 17.8%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영아기 자녀가 있는 경우, 미취업인 경우, 그리고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로 낮은 경우 어머니의 적극적인 자녀 돌봄 참여 정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가구원 수가 2인인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자녀 돌봄 참여가 높지 않았는데, 이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한부모가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표 IV-2-4 ▣ 모의 자녀돌봄 참여 정도: 5점 척도

단위: %(명), 점

구 분	전혀 참여 하지 않음	참여하지 않음	보통 참여	대체로 참여	적극 참여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체	0.2	0.6	5.2	17.8	76.2	100.0 (2,501)	4.7(0.61)
자녀수							
1명	0.4	0.4	4.0	18.0	77.1	100.0 (742)	4.7(0.60)
2명	-	0.8	6.0	17.5	75.7	100.0 (1,279)	4.7(0.62)
3명 이상	-	0.3	5.9	18.2	75.6	100.0 (480)	4.7(0.59)
$\chi^2(df)/F$				10.6(8)			0.7
가구원수							
2명	-	-	10.7	31.4	57.9	100.0 (20)	4.5(0.69)
3명	0.3	0.6	3.6	16.8	78.7	100.0 (664)	4.7(0.59)
4명	0.1	0.7	5.7	16.6	76.9	100.0 (1,154)	4.7(0.62)
5명	0.1	-	6.1	22.0	71.8	100.0 (458)	4.7(0.60)
6명 이상	-	1.1	8.3	18.8	71.9	100.0 (205)	4.6(0.68)
$\chi^2(df)/F$				27.6(16)***			2.8**(a)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0.2	0.3	3.6	15.0	80.9	100.0 (1,368)	4.8(0.54)
유아	0.2	0.8	6.6	20.4	71.9	100.0 (1,133)	4.6(0.66)
$\chi^2(df)/t$				30.9(4)***			- 5.4***
모취업 여부							
취업	0.3	0.7	7.1	22.1	69.9	100.0 (1,272)	4.6(0.67)
미취업	0.1	0.4	3.1	13.2	83.2	100.0 (1,229)	4.8(0.51)
$\chi^2(df)/F$				61.5(4)***			57.7***(a)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3	1.4	8.4	28.0	60.9	100.0 (98)	4.5(0.81)
200~249만원	-	0.5	4.0	15.2	80.3	100.0 (164)	4.8(0.55)
250~299만원	-	0.2	5.3	11.4	83.1	100.0 (194)	4.8(0.55)
300~349만원	-	0.9	3.1	15.7	80.4	100.0 (376)	4.8(0.55)
350~399만원	-	0.6	3.1	17.9	78.3	100.0 (240)	4.7(0.54)
400~499만원	0.1	0.3	6.1	17.7	75.7	100.0 (479)	4.7(0.61)

구분	전혀 참여 하지 않음	참여하지 않음	보통 참여	대체로 참여	적극 참여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500~599만원	0.4	0.9	4.2	19.8	74.7	100.0 (403)	4.7(0.63)
600~699만원	0.6	-	5.3	15.0	79.1	100.0 (218)	4.7(0.61)
700만원 이상	-	0.5	8.4	21.6	69.5	100.0 (321)	4.6(0.66)
모름/무응답	-	-	-	5.5	94.5	100.0 (8)	4.9(0.25)
χ^2 (df)/F						56.9(36)***	03.9***(a)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기준

3) '적극 참여함' 1점~'전혀 참여하지 않음' 5점으로 평정하여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의 비교를 위해 리코딩하여 산출한 결과임.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1$, *** $p < .001$.

2) 부부의 자녀 양육 및 가사 분담 정도

현재 자녀 양육과 가사를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지에 대해 합이 10이 되도록 응답하도록 한 결과, 자녀 양육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분담 정도가 7.21:2.79로 나타났고, 가사에서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분담 정도는 7.45:2.55로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비해 가사 참여 정도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읍면지역인 경우, 미취업인 경우, 어머니 학력이 낮을수록, 아버지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300-349만원인 경우 비교적 어머니의 자녀 양육 및 가사 참여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원 수가 2명인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어머니가 혼자서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최연소 자녀가 유아인 경우 영아인 경우에 비해 어머니의 가사 부담 정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17년도 3,000명 대상의 대국민 조사를 시행한 결과, 여성 응답자가 지각하는 부부간 자녀 양육 분담 비율은 본인 7.25 : 남편 2.75인 것으로 나타났고, 가사 분담의 경우에는 본인 7.36 : 남편 2.64인 것으로 나타났다(김동훈·이재희·이혜민, 2017). 2018년도 보육실태조사에서 신규로 추가했던 해당 질문의 응답 결과는 2017년도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되었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 표 IV-2-5 ▣ 부모의 자녀 양육과 가사 분담 비율

단위: 점(명)

구 분	자녀양육				가사				(수)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7.21	1.43	2.79	1.43	7.45	1.67	2.55	1.67	(2,430)
자녀수									
1명	7.11	1.41	2.89	1.41	7.16	1.75	2.84	1.75	(708)
2명	7.24	1.43	2.76	1.43	7.57	1.57	2.43	1.57	(1,250)
3명 이상	7.42	1.50	2.58	1.50	7.91	1.55	2.09	1.55	(472)
F	6.8***(a)		6.8***(a)		32.5***(a)		32.5***(a)		
가구원수									
2명	8.79	1.15	1.21	1.15	9.15	74	85	74	(6)
3명	7.13	1.40	2.87	1.40	7.17	1.74	2.83	1.74	(636)
4명	7.24	1.42	2.76	1.42	7.53	1.59	2.47	1.59	(1,136)
5명	7.26	1.45	2.74	1.45	7.66	1.61	2.34	1.61	(451)
6명 이상	7.35	1.64	2.65	1.64	7.92	1.65	2.08	1.65	(201)
F	3.8***(a)		3.8***(a)		13.9***		13.9***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7.23	1.46	2.77	1.46	7.30	1.70	2.70	1.70	(1,345)
유아	7.20	1.41	2.80	1.41	7.60	1.62	2.40	1.62	(1,085)
t	0.6		-0.6		-4.5***		4.5***		
지역규모									
대도시	7.17	1.49	2.83	1.49	7.43	1.66	2.57	1.66	(916)
중소도시	7.18	1.32	2.82	1.32	7.33	1.67	2.67	1.67	(757)
읍면지역	7.31	1.48	2.69	1.48	7.62	1.65	2.38	1.65	(757)
F	2.3*(a)		2.3*(a)		5.7***		5.7***		
모취업 여부									
취업	6.94	1.49	3.06	1.49	7.13	1.72	2.87	1.72	(1,226)
미취업	7.51	1.31	2.49	1.31	7.80	1.54	2.20	1.54	(1,204)
모부재 등	-	-	-	-	-	-	-	-	-
F	97.5***(a)		97.5***(a)		99.5***(a)		99.5***(a)		
모학력									
무	5.73	3.15	4.27	3.15	7.64	1.89	2.36	1.89	(2)
초	7.61	1.45	2.39	1.45	8.37	1.24	1.63	1.24	(15)
중	7.43	1.41	2.57	1.41	7.85	1.44	2.15	1.44	(48)
고	7.37	1.51	2.63	1.51	7.70	1.69	2.30	1.69	(618)
2년제대학	7.25	1.42	2.75	1.42	7.47	1.73	2.53	1.73	(499)
4년제대학	7.13	1.37	2.87	1.37	7.31	1.61	2.69	1.61	(1,099)
대학원 이상	6.96	1.52	3.04	1.52	7.21	1.69	2.79	1.69	(149)
F	3.6***(a)		3.6***(a)		5.4***		5.4***		

구 분	자녀양육				가사				(수)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부학력									
초	8.58	89	1.42	89	8.14	1.47	1.86	1.47	(7)
중	7.30	1.61	2.70	1.61	7.37	2.27	2.63	2.27	(21)
고	7.33	1.52	2.67	1.52	7.71	1.68	2.29	1.68	(605)
2년제대학	7.32	1.40	2.68	1.40	7.49	1.66	2.51	1.66	(449)
4년제대학	7.12	1.42	2.88	1.42	7.33	1.64	2.67	1.64	(1,139)
대학원 이상	7.11	1.29	2.89	1.29	7.30	1.66	2.70	1.66	(209)
F	4***(a)		4***(a)		4.7***		4.7***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6.99	1.71	3.01	1.71	7.09	1.99	2.91	1.99	(64)
200~249만원	7.25	1.42	2.75	1.42	7.44	1.59	2.56	1.59	(156)
250~299만원	7.42	1.39	2.58	1.39	7.60	1.69	2.40	1.69	(186)
300~349만원	7.45	1.33	2.55	1.33	7.80	1.53	2.20	1.53	(373)
350~399만원	7.39	1.29	2.61	1.29	7.63	1.50	2.37	1.50	(236)
400~499만원	7.30	1.34	2.70	1.34	7.57	1.57	2.43	1.57	(474)
500~599만원	7.10	1.55	2.90	1.55	7.38	1.73	2.62	1.73	(401)
600~699만원	7.01	1.43	2.99	1.43	7.24	1.61	2.76	1.61	(214)
700만원 이상	6.87	1.51	3.13	1.51	7.00	1.83	3.00	1.83	(318)
모름/무응답	7.93	1.00	2.07	1.00	8.34	1.47	1.66	1.47	(8)
F	5.4***(a)		5.4***(a)		6.2***(a)		6.2***(a)		

주: 1)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기준

3) 한부모, 조손 가정을 제외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5$, *** $p < .001$

다.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1) 연령별 선호하는 양육 형태

아동 연령별로 선호하는 양육 형태를 조사한 결과, 1세 미만과 1세~2세 미만은 가정양육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각 98.6%, 85.9%로 2세미만의 경우 가정양육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세~3세 미만의 경우에는 가정양육 43.9%와 기관보육 55.3%로 기관보육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세~4세 미만과 4세~5세 미만, 취학 전(5세 이상)의 경우에는 기관보육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각 87.5%, 96.6%, 97.8%로 3세 이상의 경우에는 기관

보육 선호도가 명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만2세 미만의 경우에는 가정양육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3세 이상에서는 기관보육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V-2-6 ■ 연령별 가장 적절한 양육지원서비스

단위: %(명)

구분	1세 미만	1세~2세 미만	2세~3세 미만	3세~4세 미만	4세~5세 미만	취학전 (5세이상)
가정양육	98.6	85.9	43.9	11.9	2.8	1.4
기관보육	1.4	14.1	55.3	87.5	96.6	97.8
잘 모르겠음	-	-	0.8	0.6	0.6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533)	(2,533)	(2,533)	(2,533)	(2,533)	(2,533)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양육지원자

자녀 돌봄, 경제적 지원, 가사 지원 등에 있어 부모 이외에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조사한 결과, 먼저 자녀를 직접 돌봐주는 사람은 절반 이상(55.2%) 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아이의 외조부모 22.1%, 친조부모 15.7% 등의 순이었다. 최연소 자녀가 영아인 경우 유아 보다 친조부모나 외조부모가 돌보아 주는 비율이 높았고, 읍·면 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 외조부모가 도와주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모 미취업일 때 친조부모나 외조부모가 도와주는 비율도 취업모, 휴직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 비율도 69.4%로 가장 높았다. 또한 가구소득이 낮을 때 대체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2년도와 2015년도에 비해 외조부모나 친조부모가 도와준다는 비율이 조금 높아졌고, 아버지의 형제자매, 이웃, 엄마·아빠 친구가 도와준다는 응답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자녀를 직접 돌봐주는 사람 없다는 비율은 2015년도 51.7%에서 2018년도에는 55.2%로 다소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자녀를 직접 돌보아 줄 수 있는 도움 인력은 2015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7 부모(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이외의 양육지원자: 아이 직접 돌보기

단위: %(명)

구분	아이 친조 부모	아이 외조부모	아빠의 형제 자매	엄마의 형제 자매	이웃, 엄마· 아빠 친구	기타	아동의 형/누나	아이 돌보미 (베이비 시터)	없음	계(수)	χ^2 (df)
전체	15.7	22.1	0.7	3.2	1.4	0.6	0.3	0.8	55.2	100.0(2,533)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17.2	25.2	0.3	3.5	0.7	0.1	0.1	0.8	52.0	100.0(1,372)	43.3
유아	14.4	19.3	1.1	2.8	2.0	1.0	0.4	0.9	58.1	100.0(1,161)	(8)***
지역규모											
대도시	13.5	27.1	0.4	3.1	1.8	0.6	0.3	1.6	51.6	100.0(946)	74.1
중소도시	14.6	22.5	1.1	4.1	0.9	0.3	0.4	0.5	55.6	100.0(782)	(16)***
읍면지역	20.1	14.5	0.8	2.3	1.4	0.9	0.2	0.1	59.9	100.0(805)	
모취업 여부											
취업	20.0	29.6	1.0	2.8	1.9	0.9	0.4	1.5	41.9	100.0(1,093)	345.4
휴직중	14.0	28.3	-	2.8	0.3	0.8	0.8	1.1	51.9	100.0(179)	(24)***
미취업	10.2	14.8	0.4	3.6	1.2	0.2	0.1	0.2	69.4	100.0(1,229)	
모부재 등	75.4	-	7.7	-	-	3.7	-	-	13.2	100.0(32)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19.1	16.6	-	5.2	3.0	0.5	-	0.6	55.1	100.0(100)	314.5
200~249만원	18.8	13.4	0.6	1.3	-	0.8	0.8	-	64.2	100.0(172)	(72)***
250~299만원	11.5	18.0	2.1	3.9	1.3	-	-	-	63.2	100.0(197)	
300~349만원	13.1	17.7	0.2	2.1	1.8	-	-	-	65.1	100.0(382)	
350~399만원	15.0	15.7	1.0	4.8	0.3	-	-	-	63.3	100.0(246)	
400~499만원	14.7	18.2	1.0	3.5	1.5	1.1	0.3	-	59.8	100.0(482)	
500~599만원	17.9	27.7	0.9	3.3	1.8	-	-	0.7	47.8	100.0(405)	
600~699만원	13.0	34.0	-	3.2	1.6	1.2	-	0.6	46.4	100.0(220)	
700만원이상	19.0	31.7	0.5	2.4	1.6	1.5	0.9	5.0	37.5	100.0(321)	
모름/무응답	44.4	-	-	7.2	-	-	19.0	-	29.3	100.0(8)	
2015년 조사	15.3	21.9	3.8	3.7	2.5	1.2	-	-	51.7	100.0(2,500)	
2012년 조사	15.3	16.4	0.6	2.8	2.5	1.0	-	-	61.3	100.0(2,52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01$

경제적 지원에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83.9%)을 제외하고는 아이의 친조부모 8.7%, 외조부모 5.9% 등의 순이었다. 영아기 자녀가 있거나, 대도시의 경우, 모가 휴직중인 경우 및 모 부재의 경우 그리고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인 경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고, 외조부모나 친조부모의 경제적 지원 비율은 다소 늘어난 반면 아버지의 형제자매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V-2-8 ▮ 부모(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이외의 양육지원자: 경제적인 지원

단위: %(명)

구분	아이 친조부모	아이 외조부모	아버지의 형제자매	어머니의 형제자매	이웃, 엄마·아빠 친구	기타	아이 돌보미 (베이비시터)	없음	계(수)	χ^2 (df)
전체	8.7	5.9	0.2	0.7	0.4	0.1	0.1	83.9	100.0(2,533)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10.1	6.6	0.1	0.5	0.1	0.1	0.1	82.4	100.0(1,372)	14.7
유아	7.4	5.3	0.3	0.9	0.6	0.1	0.1	85.3	100.0(1,161)	(7)**
지역규모										
대도시	6.8	8.4	0.1	0.8	0.8	0.1	0.3	82.6	100.0(946)	44.1 (14)***
중소도시	9.5	4.4	0.4	0.4	0.1	-	-	85.2	100.0(782)	
읍면지역	10.4	3.9	-	0.8	0.2	0.2	-	84.4	100.0(805)	
모취업 여부										
취업	8.4	7.2	0.1	0.4	0.7	-	0.3	83.0	100.0(1,093)	117.0 (21)***
휴직중	9.2	9.4	-	0.4	-	0.8	-	80.1	100.0(179)	
미취업	7.9	4.3	0.3	1.1	0.2	-	-	86.2	100.0(1,229)	
모부재 등	39.9	-	-	-	-	3.7	-	56.3	100.0(32)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1.9	14.7	0.6	1.8	-	1.4	-	69.6	100.0(100)	137.2 (63)***
200~249만원	13.0	4.5	-	2.4	-	0.8	-	79.3	100.0(172)	
250~299만원	9.3	4.0	-	0.7	0.3	-	-	85.7	100.0(197)	
300~349만원	7.5	5.3	0.4	0.6	-	-	-	86.2	100.0(382)	
350~399만원	6.2	5.6	-	0.1	0.3	-	-	87.9	100.0(246)	
400~499만원	8.0	5.2	-	0.6	0.1	-	-	86.1	100.0(482)	
500~599만원	10.7	8.0	-	-	0.4	-	-	80.9	100.0(405)	
600~699만원	9.7	3.7	-	1.0	1.5	-	-	84.1	100.0(220)	
700만원 이상	5.8	5.9	0.9	0.6	1.1	-	0.9	84.8	100.0(321)	
모름/무응답	12.7	-	-	7.2	-	-	-	80.0	100.0(8)	
2015년 조사	8.5	4.1	5.0	1.1	0.1	0.1	-	81.1	100.0(2,500)	
2012년 조사	6.6	4.5	0.5	0.4	0.3	-	-	87.7	100.0(2,52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기준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1$, *** $p < .001$

가사 지원 등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74.6%이며, 가사 지원에 있어서 아이 외 조부모가 가장 많은 도움을 준다는 응답이 13.6%이었으며, 친조부모 9.2%로 앞서 살펴본 경제적 지원의 양상과는 차이를 보인다. 즉, 경제적 지원 비율에서는 아이 친조부모가 외조부모에 비해 다소 높았던 반면 가사 지원에서는 외조부모가 친조부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의 경우 아이의 외조부모가 가사를 지원하는 비율이 높았고,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친조부모의 가사 지원 비율이 높았다. 또한, 모 미취업인 경우보다는 휴직을 포함하여 취업중일 때 친조부모와 외조부모의 도움이 많았으며,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인 경우와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인 경우 타인으로부터 가사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과 마찬가지로 2015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가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고, 외조부모로부터의 가사 지원 도움을 받는 비율은 2015년에 비해 많이 높아진 반면 아버지의 형제자매로부터의 가사 지원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V-2-9 ▣ 부모(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이외의 양육지원자: 가사 지원 등

단위: %(명)

구 분	아이 친조부모	아이 외조부모	아빠의 형제자매	엄마의 형제자매	아웃, 엄마,아빠 친구	기타	아이 돌보미 (베이비시터)	없음	계(수)	χ^2 (df)
전체	9.2	13.6	0.3	1.1	0.4	0.2	0.6	74.6	100.0(2,533)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9.3	14.8	0.1	1.2	0.2	-	0.6	73.8	100.0(1,372)	11.5
유아	9.1	12.5	0.4	1.0	0.5	0.4	0.7	75.4	100.0(1,161)	(7)
지역규모										
대도시	6.8	18.0	0.1	1.5	0.5	0.4	1.2	71.4	100.0(946)	
중소도시	7.9	13.7	0.2	0.5	0.3	-	0.3	77.1	100.0(782)	88.6
읍면지역	14.1	7.3	0.5	1.0	0.2	0.2	0.2	76.5	100.0(805)	(14)***
모취업 여부										
취업	11.3	18.6	0.2	0.7	0.6	0.4	1.0	67.2	100.0(1,093)	
휴직중	8.2	19.1	-	2.9	-	-	0.9	68.9	100.0(179)	286.0
미취업	5.8	8.5	0.2	1.2	0.2	-	0.3	83.8	100.0(1,229)	(21)***
모부재 등	61.7	-	4.5	-	-	3.7	-	30.1	100.0(32)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5.1	11.5	-	3.8	-	-	-	69.6	100.0(100)	202.5

구 분	아이 친조부모	아이 외조부모	아빠의 형제자매	엄마의 형제자매	이웃, 엄마·아빠 친구	기타	아이 돌보미 (베이비시터)	없음	계(수)	χ^2 (df)
200~249만원	10.4	9.3	-	0.7	-	0.8	-	78.9	100.0(172)	
250~299만원	5.5	10.4	1.4	1.4	0.3	-	-	81.0	100.0(197)	
300~349만원	6.9	9.1	0.2	1.0	0.1	0.4	-	82.4	100.0(382)	
350~399만원	9.9	11.2	0.4	1.4	0.3	-	-	76.8	100.0(246)	
400~499만원	9.8	10.9	0.2	0.5	0.1	-	0.1	78.4	100.0(482)	(63)***
500~599만원	9.7	15.0	0.2	1.6	0.7	-	0.2	72.6	100.0(405)	
600~699만원	8.6	21.6	-	0.3	0.6	-	0.3	68.7	100.0(220)	
700만원 이상	10.1	22.4	-	0.7	0.9	0.9	4.4	60.6	100.0(321)	
모름/무응답	5.5	-	-	7.2	-	-	-	87.3	100.0(008)	
2015년 조사	8.2	12.2	3.5	1.5	0.3	0.6	-	73.7	100.0(2,500)	
2012년 조사	7.8	9.8	0.6	0.5	-	1.0	-	80.3	100.0(2,52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기준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01$

3)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사이트 이용

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먼저 영유아 가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지 여부를 알아보았다. 과반수 부모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56.6%), 특히 유아 부모, 45세 이상의 부모,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의 경우 및 가구소득이 199만 원 이하인 경우에서 인지 비율이 낮았다.

▮ 표 IV-2-10 ▮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인지 여부

구 분	알고 있음	모름	계(수)	χ^2 (df)
전체	43.4	56.6	100.0(2,533)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45.2	54.8	100.0(1,372)	3.1(1)*
유아	41.7	58.3	100.0(1,161)	
지역규모				
대도시	54.0	46.0	100.0(946)	80.9(2)***
중소도시	36.8	63.2	100.0(782)	
읍면지역	35.2	64.8	100.0(805)	

단위: %(명)

구 분	알고 있음	모름	계(수)	χ^2 (df)
모취업 여부				
취업	42.8	57.2	100.0(1,093)	1.0(3)
휴직중	46.7	53.3	100.0(179)	
미취업	43.4	56.6	100.0(1,229)	
모부재 등	43.0	57.0	100.0(32)	
모연령				
29세 이하	38.6	61.4	100.0(190)	9.1(5)
30~34세	42.5	57.5	100.0(597)	
35~39세	45.6	54.4	100.0(1,139)	
40~44세	43.6	56.4	100.0(494)	
45세 이상	32.6	67.4	100.0(78)	
부재, 모름	38.5	61.5	100.0(35)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25.4	74.6	100.0(100)	29.5(9)***
200~249만원	40.8	59.2	100.0(172)	
250~299만원	47.0	53.0	100.0(197)	
300~349만원	41.3	58.7	100.0(382)	
350~399만원	48.7	51.3	100.0(246)	
400~499만원	42.3	57.7	100.0(482)	
500~599만원	42.9	57.1	100.0(405)	
600~699만원	53.0	47.0	100.0(220)	
700만원 이상	43.1	56.9	100.0(321)	
모름/무응답	10.3	89.7	100.0(8)	
기관이용경험				
어린이집만 이용	45.9	54.1	100.0(1,037)	4.2(3)
유치원만 이용	42.8	57.2	100.0(75)	
둘 다 이용	42.1	57.9	100.0(1,054)	
미이용	41.0	59.0	100.0(367)	
2015년 조사	40.3	59.7	100.0(2,59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3) 2015년 조사는 '이용 경험 있음', '알고 있으나 이용 경험 없음', '들어 본 적 있음'을 '알고 있음'으로 분류하여 함께 수치 산출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5$, *** $p < .001$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장난감·도서대여에 대한 인지율이 87.5%로 가장 높으며, 부모상담 및 검사, 부모교육 및 육아카페에 대해서는 비교적 인지율이 낮은 편이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든 서비스에 대해 과반수를 넘었고, 서비스 인지율이 높은

경우에 이용 비율도 높은 경향을 나타내어, 장난감·도서 대여서비스의 이용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각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도움 정도는 모두 3.6점 이상이며 장난감·도서 대여 서비스에 대해 가장 높아 4.0점에 해당하였고, 다음으로 부모교육, 놀이체험 프로그램, 육아카페가 3.9점이었다. 도움 정도는 2015년 대비 부모교육을 제외하면 모두 하락하였다.

▣ 표 IV-2-11 ▣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인지,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 분	인지율				이용 경험					도움 정도(5점평균)			
	2018	계(수)	2015	2012	자주	가끔	1-2번	경험 없음	계(수)	2018	(수)	2015	2012
육아정보제공	83.0	(1,098)	85.2	21.5	2.9	6.7	7.3	66.7	100.0(911)	3.6	(302)	3.8	3.8
부모상담 및 검사	59.4	(1,098)	63.2	18.5	1.7	2.2	5.6	81.8	100.0(658)	3.6	(125)	4.0	3.7
부모교육	66.7	(1,098)	65.2	-	2.2	1.7	3.9	79.4	100.0(733)	3.9	(152)	3.9	-
놀이·체험 프로그램	76.0	(1,098)	84.6	19.8	2.6	7.3	9.0	65.0	100.0(837)	3.9	(284)	4.0	3.9
장난감·도서 대여	87.5	(1,098)	92.8	28.7	2.5	14.2	9.2	58.6	100.0(961)	4.0	(387)	4.1	3.9
육아카페	66.5	(1,098)	66.3	14.7	4.0	8.9	8.9	69.7	100.0(732)	3.9	(224)	4.0	3.8
기타	-	-	-	-	-	-	-	-	-	-	-	-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5점 평균은 '매우 도움됨' 1점~'전혀 도움안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이전년도와의 비교를 위해 리코딩함.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⁷⁾ 인지 여부와 이용 경험 및 만족 정도를 알아보았다. 먼저, 사이트에 대한 인지율은 73.5%로 높은 편이었으며, 자녀수가 많을수록, 도시지역에서, 어머니가 휴직 중이거나 어머니 연령이 30세 이상 ~ 44세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다.

7) www.childcare.go.kr

표 IV-2-12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 인지 여부

단위: %(명)

구 분	알고 있음	모름	계(수)	χ^2 (df)
전체	73.5	26.5	100.0(2,533)	
자녀수				9.8(2)***
1명	70.2	29.8	100.0(758)	
2명	75.8	24.2	100.0(1,291)	
3명 이상	75.9	24.1	100.0(484)	
최연소자녀구분				0.4(1)
영아	74.0	26.0	100.0(1,372)	
유아	73.0	27.0	100.0(1,161)	
지역규모				24.8(2)***
대도시	76.5	23.5	100.0(946)	
중소도시	76.0	24.0	100.0(782)	
읍면지역	66.6	33.4	100.0(805)	
모취업 여부				30.2(3)***
취업	73.7	26.3	100.0(1,093)	
휴직중	78.3	21.7	100.0(179)	
미취업	73.7	26.3	100.0(1,229)	
모부재 등	34.5	65.5	100.0(32)	
모연령				44.3(5)***
29세 이하	61.5	38.5	100.0(190)	
30~34세	74.5	25.5	100.0(597)	
35~39세	75.9	24.1	100.0(1,139)	
40~44세	75.3	24.7	100.0(494)	
45세 이상	67.3	32.7	100.0(78)	
부재, 모름	38.0	62.0	100.0(35)	
가구소득				52.5(9)***
199만원 이하	51.8	48.2	100.0(100)	
200~249만원	62.7	37.3	100.0(172)	
250~299만원	65.8	34.2	100.0(197)	
300~349만원	73.6	26.4	100.0(382)	
350~399만원	74.9	25.1	100.0(246)	
400~499만원	77.0	23.0	100.0(482)	
500~599만원	77.7	22.3	100.0(405)	
600~699만원	76.3	23.7	100.0(220)	
700만원 이상	77.5	22.5	100.0(321)	
모름/무응답	75.6	24.4	100.0(8)	
기관이용경험				57.5(3)***
어린이집만 이용	77.3	22.7	100.0(1,037)	
유치원만 이용	61.9	38.1	100.0(75)	
둘 다 이용	76.7	23.3	100.0(1,054)	
미이용	60.7	39.3	100.0(367)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기준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01$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를 알고 있는 응답자에게 이용 경험 정도를 물어보았을 때 연 1~3회 31.9%, 이용 경험이 없음 29.2%, 월 1~3회 22.8%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용한 사람들 중 반 정도인 51.1%는 사이트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 한편 2015년도에 비해 사이트 이용 경험에 대하여 만족하는 비율은 약 6% 정도 상승되었다.

▮ 표 IV-2-13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 이용 경험 및 만족도

단위: %(명), 점

구 분	이용경험					만족도			
	주1회 이상	월 1~3회	분기별 1~3회	연 1~3회	이용경험 없음	만족비율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1.9	22.8	14.3	31.9	29.2	51.5	3.5	0.62	(1,380)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2.8	25.1	16.2	29.4	26.5	52.7	3.5	0.61	(784)
유아	1.0	20.7	12.5	34.3	31.6	50.2	3.5	0.63	(596)
$\chi^2(df)/t$			24.0(4)***				0.4		
지역규모									
대도시	2.2	26.7	13.7	30.4	26.9	51.6	3.5	0.62	(556)
중소도시	1.5	19.9	16.0	36.1	26.6	43.1	3.4	0.62	(454)
읍면지역	1.8	19.8	13.0	29.4	36.0	62.5	3.6	0.59	(370)
$\chi^2(df)/F$			27.0(8)***				10.1***		
모취업 여부									
취업	1.2	25.0	13.8	33.1	26.9	52.7	3.5	0.62	(611)
휴직중	2.3	22.7	16.7	28.2	30.1	50.6	3.5	0.61	(106)
미취업	2.4	20.4	14.5	31.8	30.9	50.3	3.5	0.62	(658)
모부재 등	-	37.9	-	10.8	51.3	56.7	3.6	0.54	(5)
$\chi^2(df)/F$			19.2(12)*				1		
모연령									
29세 이하	5.4	22.9	13.6	30.5	27.6	61.2	3.6	0.62	(89)
30~34세	1.2	23.2	14.8	33.9	26.9	50.0	3.5	0.62	(334)
35~39세	2.5	22.3	14.4	32.2	28.7	51.2	3.5	0.62	(655)
40~44세	0.8	22.7	13.5	32.9	30.1	49.6	3.5	0.63	(265)
45세 이상	-	21.4	16.8	17.4	44.4	56.9	3.5	0.61	(30)
부재, 모름	-	40.7	8.8	8.8	41.7	70.5	3.7	0.48	(7)
$\chi^2(df)/F$			33.8(20)**				1.3		

구 분	이용경험					만족도			
	주1회 이상	월 1~3회	분기별 1~3회	연 1~3회	이용경험 없음	만족비율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1	22.3	20.2	21.8	34.5	48.0	3.4	0.69	(39)
200~249만원	1.8	25.8	13.1	27.3	32.1	54.1	3.6	0.63	(76)
250~299만원	2.2	17.3	16.6	33.3	30.6	56.5	3.5	0.60	(95)
300~349만원	2.8	19.9	11.2	32.3	33.8	52.3	3.5	0.63	(196)
350~399만원	3.7	24.1	18.6	26.2	27.3	54.2	3.5	0.64	(139)
400~499만원	0.8	26.1	14.4	31.0	27.7	47.5	3.5	0.60	(279)
500~599만원	2.0	22.5	13.9	34.9	26.7	51.3	3.5	0.65	(239)
600~699만원	1.3	21.5	13.1	33.6	30.5	56.9	3.6	0.60	(124)
700만원 이상	1.4	22.6	13.9	36.2	26.0	48.4	3.5	0.60	(191)
모름/무응답	-	20.9	-	-	79.1	100.0	4.0	-	(2)
$\chi^2(df)/F$			37.5(36)					0.7	
기관이용경험									
어린이집만 이용	2.2	32.1	14.6	27.1	23.9	56.0	3.6	0.61	(620)
유치원만 이용	0.7	20.0	4.4	28.8	46.1	21.3	3.1	0.73	(26)
둘 다 이용	0.7	17.5	13.9	39.0	28.9	49.2	3.5	0.61	(604)
미이용	4.4	12.9	15.9	25.8	41.0	47.8	3.4	0.61	(130)
$\chi^2(df)/F$			118.2(12)***					6.7***	
2015년 조사			-			45.1	3.4	0.65	(1,17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3) 이용 경험은 '안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만족도는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함.

4) 만족비율은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매우 만족' 혹은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임.

5) 만족도는 '매우 만족' 1점, '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하여 2015년도 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리코딩하여 산출함.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5$, ** $p < .01$, *** $p < .001$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이용자 중 반(50.7%) 정도는 주로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하고 있었다. 최연소 자녀가 영아이거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어린이집만 이용하거나 기관 미이용인 경우에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하는 비율이 좀 더 높고, 유치원만 이용한 경우에도 40.0%로 나타났다. 이외 비용지원정보 및 신청 30.8%, 육아정보 18.0% 순으로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V-2-14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주로 이용하는 정보

단위: %(명)

구 분	육아정보	어린이집 이용 정보	비용지원정보 및 신청	온라인 상담	커뮤니티 (블로그 등)	기타	계(수)
전체	18.0	50.7	30.8	0.1	0.4	-	100.0(1,380)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18.2	55.0	26.2	0.3	0.3	-	100.0(784)
유아	17.8	46.4	35.3	-	0.5	-	100.0(596)
$\chi^2(df)/t$			16.0(4)***				
지역규모							
대도시	20.7	50.3	28.1	0.1	0.8	-	100.0(556)
중소도시	13.8	59.6	26.5	-	-	-	100.0(454)
읍면지역	18.7	39.2	41.5	0.3	0.2	-	100.0(370)
$\chi^2(df)/F$			41.1(8)***				
기관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16.1	50.0	32.8	0.2	0.9	-	100.0(620)
유치원만 이용	17.4	40.0	42.7	-	-	-	100.0(26)
둘 다 이용	18.5	49.0	32.4	0.1	-	-	100.0(604)
미이용	22.8	60.5	16.6	-	-	-	100.0(130)
$\chi^2(df)/F$			27.9(12)***				
2015년 조사	21.3	52.4	24.4	0.6	1.0	0.2	100.0(1,17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01$

3 장애 영유아 양육

본 절에서는 장애 영유아의 장애 진단 시기와 기관 이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가. 장애 진단 시기 및 진단 계기

장애 영유아가 있는 부모에게 자녀의 장애 진단 시기를 물어본 결과, 만1개월 이상~만12개월 미만인 35.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출생~만1개월 28.2%로 출생~12개월 사이에 64.1%가 장애로 진단 받은 것으로 나타나서 장애에 대한 조기 진단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5년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전국 장애 영유아 재원 기관 중 500개 기관의 부모를 대상으로 장애 진단 시기를 질문했을 때 주로 36개월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던 결과와는 대비되는 것으로 장애에 대한 부모의 지식이나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엿볼 수 있다.

표 IV-3-1 장애 진단 시기

단위: %(명)

구분	출생 이전	출생 ~ 만1개월	만1개월 이상 ~ 만12개월 미만	만12개월 이상 ~ 만24개월 미만	만24개월 이상 ~ 만36개월 미만	만36개월 이상 ~ 만48개월 미만	만48개월 이상 ~ 만60개월 미만	만60개월 이상	(수)
전체	1.3	28.2	35.9	10.7	5.0	9.2	8.3	1.5	(32)
영유아구분									
영아	7.5	44.9	31.9	15.8	-	-	-	-	(6)
유아	-	24.6	36.7	9.6	6.1	11.2	10.0	1.8	(26)
기관 유형									
어린이집	-	27.0	58.1	11.9	3.0	-	-	-	(10)
유치원	-	10.4	24.3	11.9	11.6	13.9	23.6	4.2	(12)
지역규모									
대도시	-	30.7	14.1	38.0	-	17.2	-	-	(7)
중소도시	-	34.8	41.4	-	-	8.8	15.0	-	(13)
읍면지역	6.7	6.3	48.0	6.1	25.4	-	-	7.5	(12)
모취업 여부									
취업	-	11.3	46.5	11.7	12.7	-	13.3	4.6	(10)
휴직중	-	100.0	-	-	-	-	-	-	(1)
미취업	2.1	32.1	32.8	10.9	1.5	14.4	6.3	-	(2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장애 진단을 받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부모의 판단이 5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 이유를 제외한 영유아 건강검진 13.4%, 원장 및 교사 권유 12.6%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장애에 대하여 부모 스스로가 판단하여 진단을 받게 된 경우가 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는 점에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표 IV-3-2 장애 진단 계기

단위: %(명)

구분	부모의 판단	조부모 및 기타 가족 권유	원장 및 교사 권유	지인 권유	영유아건강 검진	기타	(수)
전체	50.4	-	12.6	3.7	13.4	19.9	(32)
영유아구분		-					
영아	55.1	-	-	-	-	44.9	(6)
유아	49.4	-	15.3	4.5	16.3	14.5	(26)
기관유형		-					
어린이집	53.6	-	-	11.6	22.1	12.7	(10)
유치원	51.9	-	23.8	-	13.9	10.4	(12)
지역규모		-					
대도시	67.2	-	17.2	-	-	15.6	(7)
중소도시	39.7	-	7.7	6.7	17.0	28.9	(13)
읍면지역	59.0	-	20.6	-	20.4	-	(12)
모취업 여부		-					
취업	46.5	-	25.9	-	3.8	23.8	(10)
휴직중	-	-	-	-	-	100.0	(1)
미취업	55.6	-	6.7	5.8	19.1	12.8	(2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기준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나. 장애아의 기관 이용

장애 영유아가 이용하는 보육·교육 기관 유형, 1일 평균 이용 시간 및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장애 영유아가 기관을 다니지 않는 경우가 28.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유치원 특수학급 20.0%, 특수학교 유치원(부) 13.6%, 유아특수학교 13.2% 순으로 나타났고, 어린이집 이용 관련하여서는 장애전문 어린이집 11.9%, 일반 어린이집에 11.1%가 재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6.3시간이며, 89.7%가 다니고 있는 기관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IV-3-3 장애아의 이용기관 및 1일 평균 이용시간,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이용기관										이용 시간	만족도		
	일반 어린이 아집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유치원 일반 학급	유치원 특수 학급	유아 특수 학교	특수학 교유치 원(부)	기타	안다님	계(수)		1일 평균	만족 한다는 비율	만족도 (수)
전체	11.1	11.9	-	1.5	20.0	13.2	13.6	-	28.9	100.0(32)	6.3	89.7	4.2	(24)
영유아구분														
영아	-	11.9	-	-	-	22.8	-	-	65.3	100.0(6)	2.4	65.7	3.7	(2)
유아	13.4	11.9	-	1.8	24.2	11.1	16.5	-	21.1	100.0(26)	6.6	92.0	4.2	(22)
모취업 여부														
취업	11.7	12.5	-	4.6	17.9	-	29.3	-	24.0	100.0(10)	7.5	95.0	4.4	(9)
휴직중	-	-	-	-	-	100.0	-	-	-	100.0(1)	1.0	100.0	4.0	(1)
미취업	11.4	12.3	-	-	22.3	14.4	6.5	-	33.1	100.0(21)	6.0	85.7	4.1	(14)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	-	-	7.1	-	-	35.2	-	57.8	100.0(6)	5.3	100.0	4.4	(3)
200-249만원	17.3	-	-	-	21.1	61.6	-	-	-	100.0(3)	6.1	82.7	4.4	(3)
250-299만원	-	56.2	-	-	43.8	-	-	-	-	100.0(4)	6.2	48.1	4.0	(4)
300-349만원	-	08.5	-	-	10.0	26.6	-	-	54.9	100.0(5)	6.9	100.0	4.0	(3)
350-399만원	28.3	-	-	-	71.7	-	-	-	-	100.0(3)	6.8	100.0	4.3	(3)
400-499만원	32.4	-	-	-	23.9	43.7	-	-	-	100.0(4)	4.5	100.0	4.0	(4)
500-599만원	32.9	-	-	-	-	-	-	-	67.1	100.0(3)	7.0	100.0	4.0	(1)
600-699만원	-	-	-	-	-	-	50.7	-	49.3	100.0(2)	10.0	100.0	4.0	(1)
700만원 이상	-	60.8	-	-	-	-	39.2	-	-	100.0(2)	6.6	100.0	4.6	(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3) 만족도는 '매우 만족' 1점, '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리코딩하여 산출함.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장애 영유아가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대해 이유를 질문한 결과, 아이가 어려서라는 응답이 49.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28.0%, 등하원이 힘들어서 17.6%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 영아의 경우에는 아이가 어려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유아의 경우에는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표 IV-3-4 ▣ 제 특성별 장애아의 기관 미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잘 몰라서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기관을 믿지 못해서	비용이 부담돼서	등하원이 힘들어서	아이가 어려서	기타	계(수)
전체	-	28.0	4.6	-	17.6	49.8	-	100.0(8)
영유아구분								
영아	-	-	11.4	-	30.7	57.9	-	100.0(4)
유아	-	46.5	-	-	9.0	44.5	-	100.0(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장애 영유아가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에 다니는 경우에 현재 다니는 기관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4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등하교 불편 21.7%, 특수교사 부족 15.2%, 편의시설 부족 8.8%, 보육·교육 내용 부적합 5.1% 순으로 나타났다.

▣ 표 IV-3-5 ▣ 제 특성별 기관 이용 시 어려움

단위: %(명)

구분	교사의 편견	다른 부모의 편견	교사의 지나친 관심	편의 시설 부족	보육교육내용 부적합	특수 교사 부족	등하교 불편	기타	어려움 없음	(수)
전체	-	-	-	8.8	5.1	15.2	21.7	-	49.1	100.0(24)
영유아구분										
영아	-	-	-	-	-	-	34.3	-	65.7	100.0(2)
유아	-	-	-	9.6	5.6	16.7	20.6	-	47.5	100.0(22)
기관유형										
어린이집	-	-	-	15.4	-	4.0	30.8	-	49.8	100.0(9)
유치원	-	-	-	7.4	10.4	28.3	12.0	-	42.0	100.0(1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4 영유아 가구의 추가출산계획

본 절에서는 영유아 가구의 추가출산계획 여부와 계획자녀수, 추가출산계획 시기, 이유와 영유아 가구가 지출하는 총 보육·교육비용의 가계부담 정도를 살펴보았다.

가. 추가출산계획

2018년 보육실태조사대상인 영유아가구에게 추가출산계획에 대해 응답하도록 한 결과, 추가출산 계획이 없다는 의견이 75.5%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77.9%에 비하여 추가출산 계획이 없다는 의견이 다소 감소한 결과이다. 그러나 현재 자녀수가 1명인 경우는 생각중인 경우 20.3%, 추가출산 계획이 있다는 경우가 28.4%로, 2명 이상의 자녀 가구에 비하여 추가 출산 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최연소 자녀가 영아인 경우 추가출산계획이 있다는 경우가 최연소 자녀가 유아인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근소한 차이로 '생각 중'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모 취업여부에 따라 큰 수치의 차이는 아니나 휴직중(22.3%), 미취업(15.5%)의 경우 추가출산 계획이 있음이 취업모 가구에 비해(12.6%) 다소 높게 나타났다. 휴직중인 경우는 '생각 중'이라는 응답도 16.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가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경우 추가출산계획이 35.9%로 모가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연령대가 어릴수록, 그리고 가구소득 200만원에서 249만원의 경우 추가출산계획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4-1 추가 출산 계획

단위: %(명)

구 분	추가출산 계획				χ^2 (df)	계획 자녀수(임산중 자녀 포함)		
	있음	없음	생각 중	계(수)		평균(표준편차)	(수)	t/F
전체	14.4	75.5	10.1	100.0(2,533)		1.3(0.63)	(302)	
자녀수					563.3 (4)***			
1명	28.4	51.3	20.3	100.0(758)		1.3(0.59)	(215)	
2명	5.4	91.0	3.6	100.0(1,291)		1.2(0.71)	(75)	0.9
3명 이상	2.1	96.6	1.3	100.0(484)		1.5(1.27)	(12)	
최연소자녀구분								

구 분	추가출산 계획					계획 자녀수(임신중 자녀 포함)		
	있음	없음	생각 중	계(수)	χ^2 (df)	평균(표준편차)	(수)	t/F
영아	22.0	63.2	14.8	100.0(1,372)	186.7	1.2(0.57)	(220)	-0.9
유아	7.5	86.6	5.9	100.0(1,161)	(2)***	1.3(0.75)	(82)	
지역규모								
대도시	14.4	72.7	12.9	100.0(946)	23.2 (4)***	1.2(0.55)	(112)	1.8(a)
중소도시	14.7	75.1	10.3	100.0(782)		1.3(0.63)	(93)	
읍면지역	14.1	79.9	6.0	100.0(805)		1.3(0.72)	(97)	
모취업 여부								
취업	12.6	78.4	9.0	100.0(1,093)	39.7 (8)***	1.3(0.75)	(119)	1.9(a)
휴직중	22.3	61.2	16.5	100.0(179)		1.1(0.45)	(31)	
미취업	15.5	73.9	10.6	100.0(1,152)		1.2(0.56)	(144)	
취업준비중	12.0	78.6	9.4	100.0(77)		1.1(0.27)	(8)	
모부재 등	-	100.0	-	100.0(32)		-	-	
종사상 지위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	11.6	80.4	8.0	100.0(164)	18.0 (10)*	1.5(0.64)	(15)	1.2
정규직 임금근로자	14.7	74.5	10.8	100.0(790)		1.3(0.77)	(98)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11.8	78.3	9.9	100.0(203)		1.3(0.46)	(20)	
무급가족 종사자	16.3	75.8	7.9	100.0(115)		1.1(0.52)	(17)	
비해당(미취업)	15.3	74.2	10.5	100.0(1,229)		1.2(0.54)	(152)	
무응답, 모름	-	100.0	-	100.0(32)		-	-	
부모육아휴직경험 여부								
모 육아휴직경험 있음	18.8	69.9	11.3	100.0(645)	38.9 (6)***	1.2(0.60)	(100)	0.6
부 육아휴직경험 있음	35.9	46.1	18.0	100.0(24)		1.1(0.37)	(7)	
부모 모두 육아휴직경험 있음	25.1	74.9	-	100.0(24)		1.0(-)	(4)	
부모 모두 육아휴직경험 없음	12.4	77.9	9.7	100.0(1,840)		1.3(0.66)	(191)	
모연령								
29세 이하	24.9	59.3	15.8	100.0(190)	216.6 (10)***	1.2(0.59)	(37)	1.2(a)
30~34세	26.5	58.4	15.1	100.0(597)		1.3(0.73)	(126)	
35~39세	12.3	77.4	10.3	100.0(1,139)		1.2(0.48)	(111)	
40~44세	5.7	89.3	5.0	100.0(494)		1.3(0.70)	(26)	
45세 이상	2.8	95.8	1.4	100.0(78)		1.0(-)	(2)	
부재, 모름	-	100.0	-	100.0(35)		-	-	
부연령								
29세 이하	35.9	44.4	19.8	100.0(79)	245.1 (10)***	1.2(0.58)	(23)	1(a)
30~34세	32.5	52.3	15.2	100.0(314)		1.3(0.56)	(82)	
35~39세	15.6	71.2	13.2	100.0(957)		1.2(0.61)	(120)	
40~44세	7.9	85.2	6.9	100.0(730)		1.4(0.84)	(48)	
45세 이상	7.0	88.1	4.9	100.0(399)		1.2(0.50)	(26)	
부부재, 모름	5.8	92.0	2.2	100.0(54)		1.0(-)	(3)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2.9	75.7	11.4	100.0(100)	45.0(18)	1.4(0.71)	(10)	1.8*(a)

구 분	추가출산 계획					계획 자녀수(임신중 자녀 포함)		
	있음	없음	생각 중	계(수)	χ^2 (df)	평균(표준편차)	(수)	t/F
200~249만원	22.8	69.2	8.0	100.0(172)		1.5(0.90)	(34)	
250~299만원	16.1	73.6	10.3	100.0(197)		1.1(0.39)	(26)	
300~349만원	17.0	70.8	12.2	100.0(382)		1.2(0.53)	(54)	
350~399만원	15.6	70.7	13.7	100.0(246)		1.3(0.52)	(31)	
400~499만원	11.7	79.4	8.9	100.0(482)	***	1.2(0.46)	(46)	
500~599만원	14.7	79.0	6.4	100.0(405)		1.4(0.89)	(51)	
600~699만원	13.8	78.8	7.4	100.0(220)		1.2(0.39)	(25)	
700만원 이상	9.7	76.1	14.3	100.0(321)		1.2(0.39)	(25)	
모름/무응답	-	100.0	-	100.0(8)		-	-	
2015년 조사	14.7	77.9	7.4	100.0(2,500)				

주: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가구 구분: 생활연령
 3) 추가 출산 계획에 한부모, 조손가정 등 비해당 가구는 응답하지 않음.

* $p < .05$, ** $p < .01$, *** $p < .001$

추가출산 계획 시기는 1-2년 이내가 31.8% 로 전체적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부가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 추가출산 계획 이 있다는 응답이 30.1%이며, 1-2년 이내는 41.4%로 전체적인 비중과 비교할 때 아버지가 육아휴직 경험 있는 집단에서 빠른 시기에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현재 임신중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29.9%), 다음 으로 1년 이내의 경우가 가장 많은(26.4%) 응답이었던 결과와 비교해 다소 출산 계획 시기가 늦추어진 추세를 보여준다.

▣ 표 IV-4-2 ▣ 추가 출산 계획 시기

단위: %(명)

구분	현재 임신중	1년 이내	1년-2년 이내	2년-3년 이내	3년 이후	잘 모르겠음	계(수)	χ^2 (df)
전체	29.0	16.6	31.8	10.0	3.1	9.6	100.0(302)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26.1	16.3	34.0	11.8	4.0	7.7	100.0(220)	14.1(5)**
유아	36.7	17.4	25.8	5.1	0.5	14.5	100.0(82)	
모취업 여부								
취업	27.2	16.8	29.0	11.6	3.5	11.9	100.0(119)	
휴직중	16.9	14.3	26.1	25.0	3.0	14.8	100.0(31)	21.4(10)**
미취업	33.1	17.0	35.1	5.4	2.7	6.6	100.0(152)	
부모육아휴직경험 여부								
모 육아휴직경험 있음	28.7	16.7	26.3	17.1	1.4	9.8	100.0(100)	
부 육아휴직경험 있음	14.3	30.1	41.4	14.3	-	-	100.0(7)	22.1(15)
부모 모두 육아휴직경험 있음	24.6	-	75.4	-	-	-	100.0(4)	

구분	현재 임신중	1년 이내	1년~2년 이내	2년~3년 이내	3년 이후	잘 모르겠음	계(수)	χ^2 (df)
부모 모두 육아휴직경험 없음	30.0	16.4	33.2	6.2	4.2	10.1	100.0(191)	
모연령								
29세 이하	30.0	8.8	33.0	14.9	7.5	5.8	100.0(37)	37.2(20)**
30~34세	31.4	13.2	31.0	12.9	5.2	6.3	100.0(126)	
35~39세	27.1	18.5	34.7	7.1	-	12.6	100.0(111)	
40~44세	22.9	37.6	23.4	2.0	-	14.1	100.0(26)	
45세 이상	50.0	-	-	-	-	50.0	100.0(2)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39.2	11.1	40.2	-	-	9.5	100.0(10)	49.4(40)**
200~249만원	12.9	25.8	32.7	16.3	3.1	9.3	100.0(34)	
250~299만원	43.5	10.3	31.7	8.3	1.3	4.9	100.0(26)	
300~349만원	22.7	20.3	34.8	8.6	1.9	11.8	100.0(54)	
350~399만원	23.2	10.9	40.8	10.2	3.7	11.2	100.0(31)	
400~499만원	32.8	15.1	23.8	12.2	6.1	10.0	100.0(46)	
500~599만원	36.4	23.6	20.9	6.6	3.4	9.1	100.0(51)	
600~699만원	12.3	4.3	60.3	9.3	4.7	9.1	100.0(25)	
700만원 이상	46.2	13.8	17.9	13.3	-	8.9	100.0(25)	
2015년 조사	29.9	26.4	24.3	9.2	3.9	6.3	100.0(435)	-
2012년 조사	24.7	8.2	36.3	20.7	6.8	3.3	100.0(573)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가구 구분: 생활연령

3) 추가 출산 계획에 한부모, 조손가정 등 비해당 가구는 응답하지 않음.

** $p < .01$, *** $p < .001$

나. 추가 출산 계획 없는 이유

추가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와 관련하여 ‘현재 자녀로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2015년과도 동일한 경향이나 55.4%에서 다소 하락한 결과이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현재 자녀로 충분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등 도시 지역 거주 가구에서 ‘영유아기 양육비용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18.5%, 18.1%로 읍·면지역의 11.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의 경우가 외벌이보다는 영유아기 양육비용 부담을 이유로 추가출산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낮았고, 아버지가 육아휴직경험이 있는 경우 자녀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가 32.9%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아버지의 육아휴직이 자녀양

육을 도와줄 수 있는 여타의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한편,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 나이가 많아서’, 또는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추가 출산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영유아기 양육비용 부담’ 때문에 추가출산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가구소득이 200만원에서 249만원인 경우 영유아기 양육비용 부담을 26.9%가 응답하여 가장 큰 응답 비율을 보였다.

표 IV-4-3 추가 출산 계획 없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영유아기 양육비용 부담	취학 후 교육비 부담	직장 생활로 비싸서	건강이 안좋아서	현재 자녀로 충분함	부모 나이가 많아서	자녀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기타	계(수)
전체	16.4	7.6	5.7	1.7	52.6	6.4	8.2	1.4	100.0(2,231)
자녀수									
1명	25.6	9.6	10.6	2.9	26.2	7.4	15.1	2.6	100.0(543)
2명	13.2	8.0	4.0	1.3	61.4	6.1	5.3	0.7	100.0(1,216)
3명 이상	7.0	2.4	0.8	0.3	81.2	5.2	2.3	0.7	100.0(472)
χ^2 (df)					401.3(14)***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20.3	7.7	7.0	1.1	48.6	5.0	9.0	1.3	100.0(1,152)
유아	13.4	7.6	4.8	2.1	55.6	7.5	7.5	1.4	100.0(1,079)
χ^2 (df)					35.1(7)***				
지역규모									
대도시	18.5	7.2	7.1	1.6	51.7	4.8	8.3	0.9	100.0(834)
중소도시	18.1	9.5	5.9	2.3	47.3	7.5	8.0	1.4	100.0(689)
읍면지역	11.8	6.3	3.6	1.2	59.4	7.6	8.1	2.0	100.0(708)
χ^2 (df)					44.6(14)***				
모취업 여부									
취업	13.9	6.1	10.7	1.0	51.0	6.8	8.8	1.7	100.0(974)
휴직중	16.7	8.5	12.1	1.1	42.2	7.7	11.7	-	100.0(148)
미취업	19.2	9.1	0.3	2.5	55.2	6.0	6.8	0.9	100.0(1,077)
모부재 등	7.1	3.7	-	-	62.0	3.2	13.6	10.4	100.0(32)
χ^2 (df)					172.0(21)***				
맞벌이 여부									
맞벌이	14.3	6.4	10.9	0.9	50.7	7.0	9.3	0.6	100.0(1,069)
외벌이	19.3	9.5	0.5	2.7	54.5	6.1	6.8	0.7	100.0(1,057)
둘다 무직	-	15.7	-	-	84.3	-	-	-	100.0(9)

구분	영유아기 양육비용 부담	취학 후 교육비 부담	직장 생활로 바빠서	건강이 안좋아서	현재 자녀로 충분함	부모 나이가 많아서	자녀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기타	계(수)
비해당/모름 χ^2 (df)	12.0	2.6	4.1	-	51.1	4.5	10.6	15.1	100.0(96)
	308.0(21)***								
부모육아휴직경험 여부									
모 육아휴직경험 있음	15.6	7.6	13.1	0.1	48.1	5.0	10.3	0.3	100.0(545)
부 육아휴직경험 있음	12.1	-	-	-	46.1	9.0	32.9	-	100.0(17)
부모 모두 육아휴직경험 있음	3.8	9.2	4.5	-	56.5	12.9	13.1	-	100.0(20)
부모 모두 육아휴직경험 없음	16.9	7.7	3.4	2.3	54.1	6.8	7.1	1.8	100.0(1,649)
χ^2 (df)	114.4(21)***								
모연령									
29세 이하	24.2	6.2	2.9	2.9	46.4	0.9	12.2	4.2	100.0(153)
30~34세	25.7	9.0	7.3	2.0	45.8	0.8	8.8	0.6	100.0(471)
35~39세	14.4	8.5	6.8	1.7	54.5	3.4	9.5	1.2	100.0(1,028)
40~44세	13.1	6.5	4.0	1.2	55.7	14.2	4.5	0.8	100.0(468)
45세 이상	4.1	2.8	2.8	1.4	54.3	28.9	4.5	1.3	100.0(76)
부재, 모름	13.4	3.3	3.3	-	55.6	2.9	12.1	9.3	100.0(35)
χ^2 (df)	282.2(35)***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9.0	7.0	3.7	4.4	50.9	4.1	6.9	3.9	100.0(90)
200~249만원	26.9	7.5	1.2	3.2	47.6	4.0	5.4	4.2	100.0(138)
250~299만원	18.3	7.4	2.9	1.1	52.5	4.8	11.9	1.1	100.0(171)
300~349만원	14.7	10.5	1.7	2.9	51.3	7.7	9.0	2.3	100.0(328)
350~399만원	23.6	8.2	0.8	2.3	53.0	4.9	6.4	0.7	100.0(215)
400~499만원	17.3	7.7	4.7	1.3	54.3	7.0	7.1	0.6	100.0(436)
500~599만원	14.4	7.2	7.3	0.2	54.4	7.8	7.5	1.3	100.0(354)
600~699만원	11.9	6.8	12.0	1.8	51.2	7.2	9.2	-	100.0(195)
700만원 이상	11.0	5.6	13.5	1.1	52.4	5.5	10.0	0.9	100.0(296)
모름/무응답	-	-	-	-	81.0	19.0	-	-	100.0(8)
χ^2 (df)	154.5(63)***								
2015년 조사	18.4	13.3	5.7	1.5	55.4	5.1	-	0.7	100.0(2,065)
2012년 조사	19.8	27.2	4.1	3.2	35.4	9.2	-	1.0	100.0(1,95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가구 구분: 생활연령

3) 추가 출산 계획에 한부모, 조손가정 등 비해당 가구는 응답하지 않음.

*** $p < .001$

다. 총 보육·교육비용의 가계 부담 정도

영유아 가구에서 지출하는 월 보육 교육 총비용을 살펴보았다. 월 보육교육 총비용은 평균 234,200원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용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비용을 지불하는 영유아를 기준으로 할 때 평균적으로 314,900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0세의 경우 390,600원으로 1세(200,300원)에 비하여 지출의 규모가 2배 가까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모가 취업중인 경우 미취업인 경우보다 지출 규모가 2배 이상 컸고, 대도시의 경우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비하여 지출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한편 2015년 조사결과 총 보육·교육비용이 전체적으로 비용이 증가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표 IV-4-4 영유아 월 보육·교육 총비용

단위: 천원(명), %

구분	전체 영유아				비용 지불 영유아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소득 대비비율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소득 대비비율
전체	234.2	377.5	(3,775)	4.9	314.9	407.6	(2,744)	6.6
보육연령								
0세	85.6	310.8	(803)	1.6	390.6	568.6	(166)	7.3
1세	120.6	282.6	(540)	2.2	200.3	341.8	(320)	3.7
2세	154.2	318.9	(568)	3.3	184.9	341.0	(477)	4.0
3세	295.1	379.7	(650)	6.3	311.5	383.5	(616)	6.6
4세	328.4	375.8	(549)	7.2	346.8	377.8	(516)	7.6
5세	409.3	437.3	(665)	8.6	417.7	437.8	(649)	8.8
$\chi^2(df)/F$	88.5***(a)		105.5***(a)		26.9***(a)		31.0***(a)	
영유아 구분								
영아	117.0	306.6	(1,911)	2.3	224.6	395.3	(963)	4.4
유아	347.9	404.1	(1,864)	7.4	362.5	406.1	(1,781)	7.7
$\chi^2(df)/F$	389.3***(a)		467.9***(a)		74.6***(a)		104.8***(a)	
이용기관유형								
어린이집	168.6	308.1	(1,753)	3.7	197.3	324.7	(1,500)	4.3
유치원	381.0	340.0	(1,009)	8.3	388.2	339.1	(981)	8.5
반일제 이상 기관 (영여학원 등)	1091.6	652.1	(68)	18.0	1091.6	652.1	(68)	18.0
이용기관 없음	91.5	298.4	(945)	1.8	399.9	516.6	(195)	7.8
$\chi^2(df)/F$	393.4***(a)		288.1***(a)		234.3***(a)		143.0***(a)	
지역규모								
대도시	291.1	444.6	(1,362)	5.7	391.7	476.0	(1,006)	7.7
중소도시	228.5	351.1	(1,146)	4.9	302.6	375.3	(838)	6.5

구분	전체 영유아				비용 지불 영유아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소득 대비비율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소득 대비비율
읍면지역	110.6	182.6	(1,267)	3.0	154.2	199.4	(900)	4.2
χ^2 (df)/F	53.6***(a)		27.4***(a)		59.1***(a)		28.8***(a)	
모취업 여부								
취업	353.4	480.0	(1,588)	6.4	407.1	493.5	(1,363)	7.4
휴직중	166.9	343.6	(270)	3.2	295.4	413.9	(148)	5.7
미취업	141.4	222.7	(1,880)	3.8	213.7	243.9	(1,198)	5.8
모부재 등	346.9	437.9	(37)	10.4	377.2	444.2	(35)	11.3
χ^2 (df)/F	102.1***(a)		43.4***(a)		52.1***(a)		11.9***(a)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90.1	153.3	(142)	7.1	142.7	172.6	(87)	11.4
200~249만원	79.5	121.9	(244)	3.8	121.3	132.8	(160)	5.8
250~299만원	109.4	158.6	(300)	4.2	164.1	169.6	(190)	6.3
300~349만원	162.9	330.7	(591)	5.3	240.8	378.2	(392)	7.8
350~399만원	117.7	155.6	(362)	3.3	179.4	160.8	(235)	5.0
400~499만원	197.8	286.8	(727)	4.7	256.6	302.8	(549)	6.1
500~599만원	266.6	361.6	(602)	5.1	332.3	375.7	(478)	6.4
600~699만원	328.4	397.7	(328)	5.3	399.8	405.0	(267)	6.5
700만원 이상	514.8	612.4	(465)	5.7	624.3	621.7	(375)	6.9
모름/무응답	107.4	105.5	(14)	-	132.1	101.1	(11)	-
χ^2 (df)/F	57.7***(a)		5.4***(a)		48.7***(a)		6.1***(a)	
2015년 조사	122.1	229.5	(3,560)	3.0	188.2	262.2	(2,106)	4.6
2012년 조사	208.7	286.7	(3,343)	5.4	274.1	300.0	(2,482)	7.1
2009년 조사	189.5	234.6	(3,303)	6.4	270.3	238.0	(2,316)	9.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보육·교육 총비용은 보육료·교육비, 시간제학원 비용, 개별교육, 개인양육서비스 비용을 합산한 비용 임.

3) 가구소득대비 비율: 가구소득 모름/무응답과 0원은 분석에서 제외함.

4)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 $p < .001$

총 보육-교육 비용의 가계 부담 정도는 전체적으로 다소 부담된다는 의견이 4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5점 평균으로는 3.4점이었다.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며, 중소도시의 경우,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에서 매우 부담된다는 의견이 14.8%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매우 부담됨과 다소부담됨을 합한 결과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5 총 보육·교육 비용 부담 정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부담됨	다소 부담됨	적당	별로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되지 않음	계(수)	5점 평균
전체	7.4	45.6	28.9	14.5	3.7	100.0(2,533)	3.4
자녀수							
1명	5.5	43.4	31.4	15.3	4.4	100.0(1,042)	3.3
2명	7.7	47.3	29.8	12.4	2.8	100.0(1,122)	3.4
3명이상	11.9	46.4	19.1	18.4	4.2	100.0(369)	3.4
$\chi^2(df)/t$			43.8(8)***				7***(a)
최연소자녀 구분							
영아	8.1	45.0	27.9	14.0	5.0	100.0(1,203)	3.4
유아	6.7	46.0	29.8	14.9	2.5	100.0(1,330)	3.4
$\chi^2(df)/t$			13.9(4)***				-0.6
지역규모							
대도시	7.9	44.9	30.3	13.8	3.1	100.0(946)	3.4
중소도시	9.2	49.9	27.4	10.5	3.0	100.0(782)	3.5
읍면지역	4.8	41.9	28.5	19.6	5.2	100.0(805)	3.2
$\chi^2(df)/F$			46.3(8)***				20***(a)
맞벌이 여부							
맞벌이	7.2	43.0	30.8	15.4	3.6	100.0(1,215)	3.3
외벌이	7.5	47.4	27.8	13.3	4.0	100.0(1,209)	3.4
둘 다 무직	-	37.3	38.0	24.8	-	100.0(12)	3.1
비해당/모름	9.4	55.7	18.5	16.0	0.4	100.0(97)	3.6
$\chi^2(df)/F$			21.6(12)**				2.8**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4.8	45.0	21.1	15.8	3.2	100.0(100)	3.5
200~249만원	8.7	54.2	21.3	13.5	2.4	100.0(172)	3.5
250~299만원	4.9	56.3	24.6	11.1	3.2	100.0(197)	3.5
300~349만원	9.2	47.4	25.9	14.5	3.0	100.0(382)	3.5
350~399만원	6.0	45.0	31.1	14.7	3.2	100.0(246)	3.4
400~499만원	6.1	48.5	29.7	13.2	2.5	100.0(482)	3.4
500~599만원	6.9	40.8	29.4	17.5	5.4	100.0(405)	3.3
600~699만원	9.4	40.1	31.0	16.4	3.1	100.0(220)	3.4
700만원 이상	6.0	38.1	37.0	13.1	5.8	100.0(321)	3.3
모름/무응답	-	63.4	7.2	29.3	-	100.0(8)	3.3
$\chi^2(df)/F$			71.8(36)***				2.8***
2015년 조사	7.6	42.5	30.5	15.5	3.9	100.0(2,559)	3.3
2012년 조사	8.1	35.9	22.9	22.9	10.3	100.0(2,133)	2.9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전혀 부담되지 않음' 1점 ~ '매우 부담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3)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 $p < .01$, *** $p < .001$

5 시사점

본 장에서는 우선 하루 중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과 이용 기관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하루 중에 낮 시간 동안에는 기관에 맡기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연령별로 차이가 있었다. 0세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돌보는 비중이 가장 큰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3세 이후부터 기관에 맡기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통해 0-2세에는 가정에서, 3세 이후는 기관에서 양육하고 있는 현상을 살필 수 있다. 취업모인 경우 미취업모에 비하여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용 시간과 관련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오후 4시 이후 기관이 아닌 어머니나 혈연, 기타 양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기관 이용시 오후 4시 이후 시간 대에는 가정 양육을 선호하거나 불가피 하게 혈연을 통해 가정 양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부모 양육 특성과 양육지원서비스 이용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부와 함께 지내는 시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연도별 비교를 통해 볼 때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의 3가지 부정적 양육 정서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2015년에 비해 2018년도의 영유아 부모가 지각하는 부정적 양육 정서는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대 사회가 점점 더 핵가족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전통적인 가족형태에서 받았던 자녀 양육에 대한 물리적 및 정서적 지원이 줄어든 데서 기인할 수 있다고 보인다. 특히,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원 수가 2인일 때, 어머니가 미취업인 경우 자녀가 귀찮고 짜증스럽게 느끼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다자녀 가구, 한 부모 가구, 가정양육을 주로 하는 가구 등에 대한 자녀 양육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시사한다.

자녀의 아버지가 평소 자녀 돌봄에 대한 참여 정도가 2012년과 2015년도 조사결과에 높게 나타나 과거에 비해 아버지 참여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사회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많고, 취업 여성의 증가에 따른 아버지의 참여가 요구되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위한 남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에 관한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

받는다. 2018년도에 처음으로 부부의 자녀 양육 및 가사 분담 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약 7(아내):3(남편) 정도로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담은 여성의 결혼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화를 개선하는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연령별 선호하는 양육 형태에 관하여 2018년에 추가적으로 알아본 결과, 전반적으로 만2세 미만의 경우에는 가정양육을 선호하고 있었고, 만3세 이상에서는 기관보육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이러한 바람과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즉, 만2세 미만 영아 자녀 부모들에게는 가정에서의 돌봄을 지원해줄 수 있는 인력 지원, 양육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정서적 지지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모 자조 모임 장소 등의 제공, 장난감 및 도서대여 프로그램 등을 더욱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유아 부모를 위해서는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기관보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부모 이외의 자녀 돌봄, 경제적 지원, 가사 지원 등에 있어 양육 지원자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지원자가 없다는 응답이 각각 55.2%, 83.9%, 74.6%로 높게 나타나서 가정 내 양육지원이 부족함을 보여주었다. 전반적으로 부모 외 자녀를 직접 돌봐주는 사람 없다는 비율은 2012년도나 2015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다. 또한, 2015년도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외조부모나 친조부모가 도와준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아버지의 형제자매, 이웃, 엄마·아빠 친구가 도와준다는 응답 비율이 낮은 것이 특징적이었다. 자녀 양육에서 조부모나 외조부모 외의 양육 지원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조부모나 외조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양육 스트레스가 더욱 증가할 수 있음을 숙지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질 높은 보육 기관의 확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편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과반수 부모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도시지역보다는 읍·면 지역에서, 가구소득이 199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인지율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과 질 높은 다양한 보육 기회 제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소득 가정에서의 문화적 결핍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들 취약지

역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의 프로그램 지원 방안이 더 요구 되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 영유아의 장애 진단의 64.1%가 출생~12개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서 장애에 대한 부모의 지식이나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엿볼 수 있다. 장애 진단을 받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에 대해서도 부모의 판단이 50.4%로 가장 많았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반면, 장애 영유아가 기관을 다니지 않는 경우가 28.9%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장애 영유아의 비율은 장애전문어린이집 11.9%, 일반 어린이집에 11.1% 정도에 불과하며, 기관 이용 시 어려운 점으로 등하교 불편과 특수교사 부족, 편의시설 부족 등을 들었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사가 배치되고 장애 영유아를 위한 차량 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구체화되어 실현될 필요가 있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진전만큼 장애아동을 위한 물리적 및 인적 환경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현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가출산계획과 관련하여 2015년에 비하여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추가출산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추가출산계획이 없는 이유는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보다는 현재 자녀로 만족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의 비중이 컸는데 자녀의 재생산에 대한 욕구가 크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육·교육 총비용의 가계 부담 정도와 관련하여 다소 부담되거나 매우 부담된다는 의견이 전체의 5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추가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가 절대적으로 경제적 비용 부담 때문은 아니지만, 현재 키우고 있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확실히 느끼고 있는 것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V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및 요구 개요

- V-1. 최초 기관 이용 경험
- V-2. 연령대별 보육·교육기관 이용
- V-3. 현재 보육·교육기관 이용 실태
- V-4. 보육·교육기관 이용 비용
- V-5. 보육·교육기관의 제공 서비스
- V-6. 보육·교육기관의 특별활동프로그램
- V-7.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 요구
- V-8. 시사점



V.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및 요구 개요

제5장에서는 영유아가 이용하는 다양한 기관의 보육·교육서비스, 개인양육지원서비스의 전반적인 이용 실태, 지출 비용 등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1절에서는 영유아의 최초 보육·교육기관 이용 경험을 제시하고, 2절에서는 연령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실태, 3절에서 6절까지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보육·교육기관의 이용과 지출 비용, 기관의 서비스, 특별활동프로그램 이용 실태를 제시하고, 7절에서는 최종적으로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를 제시하였다.

1 최초 보육·교육기관 이용 경험

본 절에서는 영유아가 최초로 이용한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의 유형, 최초 이용 월령, 이용 이유 등 영유아의 최초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 경험을 조사하였다. 2018년 보육실태조사의 응답가구인 2,533가구 내 포함되어 아동조사의 대상이 된 영유아는 3,775명이었으며, 이중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2,871명에 해당하였다.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아동이 최초로 이용한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을 살펴 본 결과, 어린이집이 90.9%, 유치원이 7.4%, 반일제 이상 학원이 1.4%로 어린이집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는 2015년 조사에서 나타난 최초 이용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중 어린이집의 비율(94.1%)에 비하여는 다소 감소한 수치이다.

제 특성별로는 현재 이용기관이 어린이집인 경우 최초 이용기관도 어린이집인 경우가 99.6%에 달하였으며, 현재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최초 이용한 보육·교육기관인 경우가 78.6%, 유치원인 경우가 21.0%로 현재 유치원을 이

용하는 경우 유아기에 들어서 유치원부터 기관 경험을 시작한 경우는 21.0%에 불과하고, 대부분 어린이집부터 이용을 시작하여 유치원으로 기관을 옮겨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취업 중이거나(92.8%) 현재 휴직중인 경우(92.7%) 아동의 최초 이용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이 어린이집인 비중이 어머니가 미취업 상태인 경우에(88.8%) 비해 높았다. 어머니가 미취업 상태인 경우 최초 이용 반일제 이상 기관이 유치원인 경우가 9.7%로 취업중인 경우나(5.5%), 휴직중인 경우(4.6%)에 비해 높았다.

▣ 표 V-1-1 ▣ 최초 이용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기타	계(수)
전체	90.9	7.4	1.4	0.2	100.0 (2,871)
영유아구분					
영아	98.7	0.1	0.8	0.4	100.0 (1,030)
유아	86.7	11.4	1.8	0.2	100.0 (1,841)
$\chi^2(df)$	132.4(3)***				
현재 이용기관					
어린이집	99.6	0.2	0.1	0.1	100.0 (1,753)
유치원	78.6	21.0	0.5	-	100.0 (1,009)
반일제 이상 기관	69.7	-	30.3	-	100.0 (68)
기관 미이용	83.6	-	3.5	12.8	100.0 (41)
$\chi^2(df)$	1396.5(9)***				
모취업 여부					
취업	92.8	5.5	1.7	0.1	100.0 (1,433)
휴직중	92.7	4.6	2.8	-	100.0 (135)
미취업	88.8	9.7	1.0	0.5	100.0 (1,268)
모부재 등	83.2	16.8	-	-	100.0 (35)
$\chi^2(df)$	35.0(9)***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81.8	16.6	-	1.6	100.0 (100)
200~249만원	90.2	6.9	2.0	1.0	100.0 (175)
250~299만원	87.8	11.4	0.8	-	100.0 (203)
300~349만원	90.5	8.1	0.6	0.8	100.0 (410)
350~399만원	90.6	8.5	0.5	0.5	100.0 (250)
400~499만원	92.5	6.2	1.3	-	100.0 (573)
500~599만원	92.2	6.1	1.7	-	100.0 (490)
600~699만원	92.4	7.2	0.4	-	100.0 (279)
700만원 이상	90.2	5.9	3.8	-	100.0 (380)
모름/무응답	91.8	8.2	-	-	100.0 (11)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기타	계(수)
χ^2 (df)	61.2(27)***				
2015년	94.1	4.7	0.6	0.6	100.0 (2,579)
2012년	88.1	8.5	3.0	0.5	100.0 (2,441)
2009년	83.4	12.8	3.6	1.6	100.0 (2,11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반일제 이상 기관이용 경험자 대상임.

3)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다음으로 최초 기관 이용 월령은 평균 22.7개월이었으며, 생후 12~23개월에 해당될 때 최초로 기관 이용을 시작했다는 응답이 44.3%로 가장 많았으며, 24~35개월 사이 26.7%, 36~47개월 13.4%, 12개월 미만은 11.4%였으며, 48~59개월 사이 3.7%, 60개월 이상이 되어서야 기관을 이용했다는 응답은 0.6%에 그쳤다.

최초 기관 이용 월령을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 규모별로는 읍·면지역에(23.3개월) 비해 대도시나(22.5개월) 중소도시의(22.7개월) 경우 최초 기관 이용 시기가 다소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아동이 생후 12개월 미만일 때 처음 기관을 이용한 비중이 16.7%로 휴직중인 경우의 10.6%, 미취업 상태인 경우 5.5%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최초 이용기관이 '기타' 기관인 경우 평균 이용 시작시기가 가장 빨라서 생후 17.4개월에 이용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며, 어린이집은 생후 21.3개월, 반일제 이상 학원 31.1개월, 유치원 38.8개월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조사결과와 비교 시, 2018년에는 24개월 이상에서 기관 이용을 최초로 시작했다는 응답 비중은 감소하였고, 12~23개월 사이에 시작했다는 응답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전년도 조사결과(2009년~2015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최초 기관 이용 시기가 빨라졌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조사 당시 영유아 평균 최초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기는 30개월이었으나, 2012년 26.7개월, 2015년 24.1개월로 앞당겨진 바 있는데, 2018년에는 22.7개월로 영유아의 기관 이용 시작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표 V-1-2 제 특성별 최초 기관 이용 월령

단위: %(명), 개월

구분	12개월 미만	12~23 개월	24~35 개월	36~47 개월	48~59 개월	60개월 이상	모름/무응답	계(수)	평균	표준 편차	χ^2/F
전체	11.4	44.3	26.7	13.4	3.7	0.6	-	100.0(2,871)	22.7	11.0	
영유아구분											
영아	16.5	57.9	23.2	2.3	-	-	-	100.0(1,030)	18.1	7.5	-20.1***
유아	8.6	36.9	28.6	19.4	5.7	0.9	-	100.0(1,841)	25.3	11.8	
보육연령											
0세	58.6	41.4	-	-	-	-	-	100.0(119)	10.2	3.6	96***(a)
1세	14.3	68.0	17.8	-	-	-	-	100.0(395)	17.3	5.8	
2세	8.3	54.1	33.0	4.6	-	-	-	100.0(516)	20.6	7.9	
3세	7.5	44.7	30.6	15.4	1.9	-	-	100.0(638)	23.3	9.8	
4세	10.5	34.6	26.7	21.9	6.2	0.1	-	100.0(540)	25.2	11.9	
5세 이상	8.0	31.9	28.5	20.9	8.5	2.3	-	100.0(663)	27.0	13.0	
지역규모											
대도시	11.9	45.2	25.7	12.6	4.3	0.3	-	100.0(1,024)	22.5	11.0	0.8
중소도시	12.1	43.7	26.9	13.2	3.4	0.7	-	100.0(877)	22.7	11.2	
읍·면	8.2	43.7	28.9	15.7	2.6	0.9	-	100.0(970)	23.3	10.8	
모취업 여부											
취업	16.7	47.5	22.5	11.2	1.6	0.4	-	100.0(1,433)	20.2	10.3	65***(a)
휴직중	10.6	56.7	22.9	8.9	1.0	-	-	100.0(135)	20.4	8.7	
미취업	5.5	39.7	31.8	16.2	6.0	0.8	-	100.0(1,268)	25.7	11.2	
모부재 등	9.6	26.4	28.9	17.7	17.4	-	-	100.0(35)	27.7	14.0	
최초 이용기관											
어린이집	12.3	47.7	28.1	9.6	2.3	-	-	100.0(2,596)	21.3	9.8	216.6***
유치원	1.0	7.2	9.4	56.3	18.5	7.5	-	100.0(239)	38.8	11.4	
반일제 이상 학원	3.8	22.5	33.0	28.0	12.6	-	-	100.0(31)	31.1	11.7	
기타	40.4	40.8	-	18.8	-	-	-	100.0(5)	17.4	13.1	
2015년 조사	11.9	35.4	30.1	18.1	3.5	0.8	0.2	100.0(2,579)	24.1	11.6	
2012년 조사	6.3	18.3	21.7	24.8	17.0	11.8	-	100.0(2,392)	26.7	12.4	
2009년 조사	8.0	23.0	33.0	26.7	8.0	1.3	-	100.0(2,112)	30.0	13.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반일제 이상 기관이용 경험자 대상임.

3) 영유아 구분 : 보육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기관을 처음 이용하게 된 이유로는 '부모가 취업으로 돌보기 어려워져서'가 28.4%로 응답되어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을 하게 된 가장 주요한 이유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에 '사회성 발달을 위해'(23.4%), '전인적 발달을 위해'(22.1%),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16.7%)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3 기관을 처음 이용하게 된 이유

단위: %(명)

구분	전인적 발달	초등 학교 준비	특기 교육	부모가 취업으로 돌보기 어려움	사회성 발달	놀이 상대 없음	비용 전액 지원	양육 부담 경감	미취업이나 다른 일로 비뺌	기타	계(수)
전체	22.1	1.0	0.4	28.4	23.4	4.1	1.8	16.7	1.8	0.3	100.0(2,871)
영유아구분											
영아	21.1	-	0.5	30.2	19.1	4.4	2.1	19.8	2.5	0.4	100.0(1,030)
유아	22.7	1.5	0.4	27.4	25.8	4.0	1.7	15.0	1.5	0.3	100.0(1,841)
χ^2 (df)					45.2(9)***						
지역규모											
대도시	23.1	0.4	0.3	31.4	22.3	3.7	1.4	15.5	1.5	0.4	100.0(1,024)
중소도시	21.9	1.3	0.2	28.5	20.9	3.4	1.9	19.0	2.5	0.3	100.0(877)
읍·면	20.2	1.3	1.0	21.1	32.3	7.0	2.4	13.8	1.0	0.1	100.0(970)
χ^2 (df)					72.8(18)***						
모취업 여부											
취업	17.4	0.7	0.5	49.4	15.7	2.2	0.9	11.3	1.6	0.4	100.0(1,433)
휴직중	17.2	-	-	31.3	17.5	2.7	2.6	26.9	0.8	0.9	100.0(135)
미취업	28.1	1.1	0.4	4.8	32.9	6.2	2.6	21.7	2.2	0.2	100.0(1,268)
모부재 등	11.7	15.9	-	20.9	14.6	13.2	10.2	12.1	1.5	-	100.0(35)
χ^2 (df)					790.0(27)***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29.3	0.4	-	9.9	34.1	6.4	4.2	10.4	4.0	1.3	100.0(100)
200~249만원	28.4	2.9	-	13.8	25.5	6.6	1.0	19.8	2.0	-	100.0(175)
250~299만원	24.5	1.6	-	11.1	37.0	7.1	2.4	13.3	3.1	-	100.0(203)
300~349만원	23.0	1.1	-	16.8	32.3	5.4	1.9	17.5	1.8	0.1	100.0(410)
350~399만원	27.9	1.6	-	17.3	26.9	5.3	3.5	14.7	2.8	-	100.0(250)
400~499만원	22.8	1.4	0.4	24.8	22.9	3.6	2.8	19.6	1.6	-	100.0(573)
500~599만원	18.8	0.1	0.4	35.8	19.9	2.8	0.7	19.9	1.1	0.5	100.0(490)
600~699만원	19.7	0.4	0.7	44.8	14.6	2.9	0.5	14.8	0.8	0.8	100.0(279)
700만원 이상	17.7	0.4	1.1	47.1	14.7	2.7	1.2	12.4	2.2	0.5	100.0(380)
모름/무응답	17.4	-	-	20.3	35.3	-	-	27.0	-	-	100.0(11)
χ^2 (df)					344.3(81)***						
2015년 조사	24.6	0.4	0.4	24.3	23.0	5.2	2.7	13.6	2.3	3.6	100.0(2,579)
2012년 조사	16.9	1.4	0.7	24.6	26.9	8.8	2.9	17.6	-	-	100.0(2,44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반일제 이상 기관이용 경험자 대상임.

3) 영유아 구분 : 보육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제 특성별 최초 기관 이용의 이유를 살펴본 결과,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31.4%), 중소도시(28.5%)의 경우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가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으나, 읍면지역의 경우 이보다 '사회성 발달을 위해' 보냈다는 비중이 32.3%로 높아 가장 주된 이유에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지역에서는 부모의 취업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관 이용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나, 읍·면지역은 아동인구의 감소 영향으로 사회성 발달을 위해 또래 아동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로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읍·면지역의 경우 이밖에도 '놀이 상대가 없어서' (최초의) 기관을 이용하였다는 응답 비율도 7.0%로 도시지역에 비해 높은 비중을 나타냈는 바, 이는 '사회성 발달을 위해'와 유사한 이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모취업 여부에 따라서도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을 최초로 이용한 이유에 차이를 보였는데, 취업모(49.4%)와 휴직모(31.3%)의 경우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미취업모의 경우 '사회성 발달을 위해'가 가장 큰 비중을(32.9%) 차지하였다.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부모가 취업으로 돌보기 어려워서' 최초의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반대로 '사회성 발달', '전인적 발달'을 위해 최초의 기관을 이용하였다는 응답은 가구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대부분 맞벌이인 취업모 가구가 미취업모 가구에 비해 가구소득이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본 조사의 결과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진다⁸⁾. 즉, 맞벌이를 통해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는 무엇보다 부모의 취업 활동 유지를 위한 대리 돌봄의 목적이 기관 이용을 시작하는 가장 주된 이유이며, 이러한 대리 돌봄의 필요성이 없는 가구에서는 아동의 발달적 측면에 대한 기대로 기관 이용을 시작하거나, 그 외 양육자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기관 이용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18년에도 2012년(24.6%), 2015년(24.3%)의 결과와 유사하게 '부모가 취업으로 돌보기 어려워서' 기관을 처음 이용하게 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그 비율은 2018년에 28.4%로 더욱 증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2018년 보육실태조사의 응답 가구에 취업모 비율이 44.2%로 이전 조사⁹⁾에 비해

8) 본 보고서의 <표 III-2-25>를 참조할 것.

상당히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료된다.

▮ 표 V-1-4 ▮ 기관 유형별 기관을 처음 이용하게 된 이유(유아기에 이용 시작한 경우)

구분	전인적 발달	초등 학교 준비	특기 교육	부모가 취업으로 돌보기 어려움	사회성 발달	놀이 상대 없음	비용 전액 지원	양육 부담 경감	미취업이나 다른 일로 비뚤	기타	계(수)
전체	30.8	4.6	0.5	13.5	35.5	4.8	2.0	7.6	0.5	-	100.0(518)
최초 이용 기관											
어린이집	30.4	3.2	0.9	13.9	35.4	5.4	2.2	7.9	0.7	-	100.0(307)
유치원	31.4	7.6	-	12.6	35.8	4.1	1.9	6.3	0.2	-	100.0(197)
반일제 이상 학원	28.1	-	-	17.6	38.4	-	-	15.8	-	-	100.0(3)
기타	100.0	-	-	-	-	-	-	-	-	-	100.0(1)
χ^2 (df)						16.3(2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표 V-1-2>에서 36개월 이상 유아기에 최초로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을 시작한 경우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한편, <표 V-1-4>에서는 <표 V-1-2>에서 36개월 이상 유아기에 최초로 기관 이용을 시작했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최초 이용 기관 유형별로 기관을 처음 이용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유아기에 들어서 반일제 이상 기관을 최초로 이용하기 시작한 경우에는 최초 이용 기관의 유형에 따른 차이 없이 ‘사회성 발달’을 위해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인적 발달’ 등 주로 발달적 욕구에 의해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을 시작하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요컨대, 최근 추세와는 달리 다소 늦은 유아기에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을 시작하는 경우, 부모 대리 돌봄의 욕구 보다는 아동의 발달적 욕구에 따라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이는 달리 말하면 유아기에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을 시작하는 경우는 부모 대리 돌봄의 욕구가 낮은 집단이거나, 기관 보육·교육 외의 형태로 영아기 대리 돌봄 욕구의 해소가 가능한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9) 취업모 비율: 2015년(36.8%), 2012년(35.4%), 2009년(35.8%)

2 연령대별 보육·교육 이용 실태

본절에서는 영유아가 이용하였던 보육·교육서비스를 연령대별로 살펴보았다.

가. 연령대별 보육·교육 이용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의 응답 대상이 된 3,775명의 영유아가 현재 연령에 이르기까지 각 연령대별로 이용한 보육·교육서비스 등 이용 경험을 살펴보았다. 아동의 각 연령대별 보육 교육 이용 실태는 다음 <표 V-2-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부모가 돌본다는 응답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각 연령별로 이용한 보육·교육서비스 중에서는 1세 미만, 5세를 제외하면 어린이집을 이용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어린이집은 1세 이상부터 이용 경험이 급증하여 1세~2세 43.9%, 2세~3세 미만의 경우 71.3%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3~4세 67.0%, 4세~5세 40.9%로 1~5세 미만까지 높은 이용률을 유지하나, 5세에는 27.4%로 대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유치원은 본 조사대상이 된 영유아가 4세까지 이용한 경험은 최대 17.6%에 불과하였으나, 4세 40.5%, 5세 49.9%로 급증하였다. 반일제 이상 기관은 5세의 경우 4.7%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고, 시간제 사교육 기관의 경우도 5세에 5.6%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그 이외에 1세~2세 미만, 2세~3세 미만의 경우 조부모가 돌보는 비중이 각 23.6%와 21.9%로 나타나 기관에 다니면서 조부모가 돌보는 비율을 가늠할 수 있었다.

▣ 표 V-2-1 ▣ 자녀 연령별 이용한 보육·교육서비스 및 개인(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1세 미만	1세~2세 미만	2세~3세 미만	3세~4세 미만	4세~5세 미만	취학전 (5세)
어린이집	6.3	43.9	71.3	67.0	40.9	27.4
유치원	0.1	0.5	2.2	17.6	40.5	49.9
반일제 이상 기관	-	0.3	1.0	2.3	3.5	4.7
시간제 사교육 기관	0.9	1.8	1.5	2.5	3.8	5.6
육아중 또는 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	0.4	0.5	0.4	0.5	0.3	0.3
지역아동센터 등 기타기관	-	0.1	0.1	0.2	0.2	0.3
조부모	21.4	23.6	21.9	18.7	15.5	16.0
기타 친인척	3.5	3.2	2.5	2.2	2.8	2.8

구분	1세 미만	1세~2세 미만	2세~3세 미만	3세~4세 미만	4세~5세 미만	취학전 (5세)
비혈연 육아인력	2.9	2.7	2.0	1.6	1.8	2.2
부모가 돌봄 (수)	95.6 (7,368)	84.9 (3,341)	78.4 (2,788)	73.7 (2,253)	73.9 (1,639)	72.2 (1,02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1~3순위 응답을 합산한 결과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나. 어린이집 이용 중단 경험

어린이집 이용 중단 경험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전체 영유아의 30.1%를 차지하였으나 영아는 3.3%, 유아는 56.0%에 달하여 중단 경험은 주로 3세 이상 유아에서 나타났다. 한편, 어린이집 이용 중단 경험이 있는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기관에 보내기 위해서’였다(78.7%). 영유아를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 이 같은 응답이 영아는 39.5%인데 반하여 유아는 81.0%로 어린이집 중단 이유의 영유아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영아의 경우 그 외에도 집과의 거리가 멀거나 이용시간이 맞지 않거나 해당 연령반이 없는 등의 어린이집과의 조건이 맞지 않아 이용을 중단한 경우가 23.0%를 차지하였다. 한편 세부 연령별 차이도 발견되어, 보육연령 0세의 경우 어린이집 관련 불만으로 이용을 중단했다는 경우가 56.1%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고, 3-5세의 경우는 다른 기관에 보내기 위하여 그만 둔 경우가 77.8%에서 84.3%까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만, 0-2세의 결과는 해당 사례가 매우 희소하여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표 V-2-2 제 특성별 어린이집 중단 경험 여부 및 중단 사유

단위: %(명)

구분	중단 경험 여부		중단 사유									
	있다	(수)	어린이 집관련 불만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어린이 집과의 조건 안맞음 ³⁾	비용 부담	기관 폐원 및 이사	다른 기관 보내려고	집에서 양육 하려고	안전에 대한 의구심	기타	계(수)
전체	30.1	(3,775)	5.5	4.3	6.3	0.3	2.0	78.7	1.2	0.6	1.1	100.0(1,047)
영유아 구분												
영아	3.3	(1,911)	11.2	14.8	23.0	-	6.9	39.5	2.2	0.6	1.9	100.0(60)
유아	56.0	(1,864)	5.2	3.7	5.3	0.3	1.8	81.0	1.1	0.6	1.0	100.0(987)
$\chi^2(df)$	1245.7(1)***						70.2(8)***					

구분	중단 경험 여부		중단 사유									
	있다	(수)	어린이 집관련 불만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어린이 집과의 조건 안맞음 ³⁾	비용 부담	기관 폐원 및 이사	다른 기관 보내려고	집에서 양육 하려고	안전에 대한 의구심	기타	계(수)
보육연령												
0세	0.3	(803)	56.1	-	25.0	-	-	-	-	18.9	-	100.0 (3)
1세	2.5	(540)	-	26.3	29.1	-	2.6	32.3	9.7	-	-	100.0 (13)
2세	8.1	(568)	12.5	12.0	21.1	-	8.5	43.4	-	-	2.5	100.0 (44)
3세	43.9	(650)	4.1	4.0	5.2	0.2	3.8	79.4	1.0	0.8	1.5	100.0 (276)
4세	60.6	(549)	6.5	3.6	7.6	0.4	0.9	77.8	2.2	0.1	0.9	100.0 (314)
5세	63.1	(665)	4.9	3.5	3.7	0.4	1.1	84.3	0.4	0.9	0.8	100.0 (397)
χ^2 (df)	1321.9	(5)***					136.4	(40)***				
모취업 여부												
취업	37.4	(1,588)	6.6	3.3	7.7	0.1	2.0	78.3	0.9	0.2	0.9	100.0 (549)
휴직중	14.4	(270)	8.5	4.0	13.5	-	-	63.6	2.4	3.7	4.3	100.0 (40)
미취업	25.9	(1,880)	3.8	5.7	3.8	0.6	2.3	80.6	1.3	0.9	1.0	100.0 (443)
모부재 등	48.0	(37)	11.9	-	15.2	-	-	69.9	3.0	-	-	100.0 (15)
χ^2 (df)	92.0	(3)***					38.3	(2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 보육연령

3) '어린이집과의 조건 안맞음': 집과의 거리가 멀, 이용시간이 맞지 않음, 해당 연령반이 없음 등.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 $p < .001$.

3 현재 보육·교육기관 이용 실태

본 절에서는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가구 및 아동의 특성, 현재 이용기관 이용 이유 및 선택 기준, 이용 시작시기 및 재원기관, 보육·교육기관 이용시간을 살펴보았다.

가. 보육·교육기관 이용 가구 및 아동 특성

2018년 보육실태조사 응답 대상 가구 2,533가구의 영유아 3,775명 중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등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영유아 중 76.1%에 해당하였다. 제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영유아별 차이가 뚜렷하여서, 유아의 경우 97.1%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을 이

용하여 영아(54.5%)에 비해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즉, 유아에게 있어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은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영유아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의 보편화는 2018년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보육연령 기준 0세의 경우는 단 16.3%만이 이용하여 0세에게 있어서는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은 여전히 보편적인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연령에 따른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행태의 차이는 ‘생활연령’인 경우에는 영아기와 유아기의 차이가 더욱 뚜렷하여서 생활연령 기준 0세는 단 5.9%만이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고 있고, 1세에도 40.2%로 비교적 높지 않으나, 2세 79.6%, 3세 91.1%, 4세 96.0%, 5세 이상 97.9%로 2세 이상에서는 기관 이용이 보편화되는 현상이 뚜렷하였다.

어머니의 취업 상태와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에 차이가 나타났다.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은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90.3%로 대부분 이용하는 경향을 보여, 반일제 이상 기관이 주양육자를 대리한 양육과 그를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의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어머니가 미취업 상태인 경우 67.5%, 휴직중인 경우에도 51.4%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바, 이러한 결과는 반일제 이상 기관이 대리양육 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가구소득은 400만원 이상인 경우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비율이 현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영유아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이 지역규모를 불문하고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 표 V-3-1 ▮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가구 및 아동 특성

단위: %(명)

구분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반일제 이상 기관 미이용	계(수)	χ^2 (df)
전체	76.1	23.9	100.0(3,775)	
영유아구분				
영아	54.5	45.5	100.0(1,911)	940.4(1)***
유아	97.1	2.9	100.0(1,864)	

구분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반일제 이상 기관 미이용	계(수)	χ^2 (df)
보육연령				
0세	16.3	83.7	100.0(803)	1965.7(5)***
1세	71.6	28.4	100.0(540)	
2세	87.5	12.5	100.0(568)	
3세	96.4	3.6	100.0(650)	
4세	96.6	3.4	100.0(549)	
5세	98.1	1.9	100.0(665)	
생활연령				
0세	5.9	94.1	100.0(434)	1951.3(5)***
1세	40.2	59.8	100.0(553)	
2세	79.6	20.4	100.0(535)	
3세	91.1	8.9	100.0(614)	
4세	96.0	4.0	100.0(615)	
5세 이상	97.9	2.1	100.0(1,024)	
지역규모				
대도시	74.5	25.5	100.0(1,362)	4.6(2)
중소도시	77.8	22.2	100.0(1,146)	
읍·면	75.9	24.1	100.0(1,267)	
모취업 여부				
취업	90.3	9.7	100.0(1,588)	350.0(3)***
휴직중	51.4	48.6	100.0(270)	
미취업	67.5	32.5	100.0(1,880)	
모부재 등	93.5	6.5	100.0(37)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67.6	32.4	100.0(142)	92.3(9)***
200~249만원	68.1	31.9	100.0(244)	
250~299만원	67.9	32.1	100.0(300)	
300~349만원	69.2	30.8	100.0(591)	
350~399만원	69.0	31.0	100.0(362)	
400~499만원	78.1	21.9	100.0(727)	
500~599만원	81.9	18.1	100.0(602)	
600~699만원	86.1	13.9	100.0(328)	
700만원 이상	82.3	17.7	100.0(465)	
모름/무응답	81.3	18.7	100.0(1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반일제 이상 기관: 영유아가 아침부터 최소 3시간(점심시간 포함 4시간 이상)을 정기적으로 다니는 기관을 의미

3) 영유아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이러한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아동 2,830명을 이용 기관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용 가구 및 아동 특성을 살펴본 결과를 <표 V-3-2>에 제시하였다.

2018년 보육실태조사에 포함된 3,775명의 전체 영유아 중 현재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는 2,830명이며, 이 중 60.8%가 어린이집을, 35.4%는 유치원, 영어학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은 3.8%가 이용하여 어린이집이 영유아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5년에 비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은 65.8%에서 60.8%로 5.0%p 하락하였고, 유치원은 31.9%에서 35.4%로 3.5%p, 반일제 이상 학원도 1.4%에서 3.8%로 2.4%p 증가하였다.

영유아 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영아의 경우 98.5%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유아의 경우에는 유치원 54.6%, 어린이집 40.2%, 영어학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 5.1%로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중 유치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2015년 보육실태조사결과 유아의 유치원 이용 비율(50.2%)보다도 유치원 이용 비율이 증가하였고, 반면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2015년 46.7%에 비해 감소하였다. 보육연령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아반 시기인 0-2세까지는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영아라면 어린이집을 대부분 이용하나, 유아반이 시작되는 3세 부터는 유치원이라는 대체재를 선택할 수 있음에 따라 이용 기관이 나누어지며, 특히 유아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집 보다는 유치원을 선택, 이용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읍면지역 거주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대도시, 중소도시에서는 읍면지역에 비해 유치원 이용률이 높을 뿐 아니라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률도 높아 대도시 4.9%, 중소도시 4.2%, 읍면지역 0.3%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모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모 부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취업, 휴직중, 미취업인 경우 모두 어린이집 이용률이 유치원 이용률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어머니가 휴직중이면서 아동이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51.4%에 해당하였는데¹⁰⁾ 이들 중 74.4%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영유아의 어머니가 사용 중인

10) <표 V-3-1> 참조

휴직 중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 연령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까지 사용 가능하나, 본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처럼 실제 이용은 대부분 출산 직후 등 자녀가 영아일 때 사용되므로¹¹⁾ 영아기에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외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61.5%, 미취업인 경우 58.9%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어머니가 부재한 아동의 경우는 64.6%가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치원 이용 비율이 더 높았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5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에서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다소 하락하고 유치원과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V-3-2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별 이용 가구 및 아동 특성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등)	기타	계(수)	χ^2 (df)
전체	60.8	35.4	3.8	-	100.0(2,830)	
영유아구분						
영아	98.5	0.2	1.4	-	100.0(1,012)	938.6(2)***
유아	40.2	54.6	5.1	-	100.0(1,818)	
보육연령						
0세	99.2	-	0.8	-	100.0(118)	1025.7(10)***
1세	98.9	-	1.1	-	100.0(389)	
2세	97.9	0.3	1.7	-	100.0(505)	
3세	53.3	41.3	5.4	-	100.0(630)	
4세	37.1	60.2	2.7	-	100.0(532)	
5세	31.4	61.8	6.8	-	100.0(656)	
지역규모						
대도시	59.5	35.6	4.9	-	100.0(1,010)	25.5(4)***
중소도시	59.6	36.3	4.2	-	100.0(862)	
읍·면	66.9	32.8	0.3	-	100.0(958)	
모취업 여부						
취업	61.5	33.6	4.9	-	100.0(1,419)	35.0(6)***
휴직중	74.4	21.8	3.8	-	100.0(135)	
미취업	58.9	38.4	2.7	-	100.0(1,241)	
모부재 등	35.4	64.6	-	-	100.0(35)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60.2	39.8	-	-	100.0(97)	86.3(18)***
200~249만원	72.4	26.3	1.2	-	100.0(170)	
250~299만원	65.8	33.4	0.8	-	100.0(201)	

11) 본 보고서 ‘표 III-2-15)부모의 육아휴직 시기’ 참조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등)	기타	계(수)	χ^2 (df)
300~349만원	62.4	35.0	2.6	-	100.0(406)	
350~399만원	65.5	33.9	0.6	-	100.0(245)	
400~499만원	64.1	34.1	1.8	-	100.0(562)	
500~599만원	57.5	37.2	5.3	-	100.0(485)	
600~699만원	57.9	36.6	5.5	-	100.0(279)	
700만원 이상	51.9	38.5	9.6	-	100.0(374)	
모름/무응답	44.3	55.7	-	-	100.0(11)	
2015년	65.8	31.9	1.4	0.9	100.0(2,535)	
2012년	61.4	33.1	4.9	0.5	100.0(2,392)	
2009년	65.5	29.9	3.7	0.1	100.0(2,05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현재 보육·교육기관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함.
 3) 보육연령 2세(생활연령 3세)인 유치원 이용 아동이 4명 있음.
 4)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한편, 2009년에서 2015년까지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2018년 결과는 어린이집 이용이 증가하고 영어학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이 급격히 감소하였던 2015년보다는 2012년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V-3-3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의 부모 취업 특성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계(수)	유치원				계(수)
	맞벌이	외벌이	둘다 무직	비해당/ 모름		맞벌이	외벌이	둘다 무직	비해당/ 모름	
전체	54.2	42.5	0.4	2.9	100.0 (1,753)	48.4	47.3	0.2	4.1	100.0 (1,005)
보육연령										
0세	68.6	29.4	0.9	1.1	100.0 (117)	-	-	-	-	-
1세	54.8	43.5	0.1	1.6	100.0 (386)	-	-	-	-	-
2세	49.1	48.4	-	2.5	100.0 (495)	-	-	-	-	-
3세	56.4	41.1	0.4	2.2	100.0 (335)	54.6	41.7	0.4	3.3	100.0 (271)
4세	58.2	35.0	1.3	5.5	100.0 (204)	45.9	49.4	0.1	4.6	100.0 (318)
5세	50.1	43.5	0.5	5.9	100.0 (216)	46.7	49.1	0.2	4.0	100.0 (416)
2015년	43.6	53.5	0.7	2.2	100.0 (1,745)	38.8	58.1	0.3	2.8	100.0 (74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2세(보육연령)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다음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의 부모 취업 특성을 살펴보았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는 54.2%, 외벌이 가정의 아동이 42.5%, 부모 모두 무직인 경우 0.4%로 나타나고 있어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유치원의 경우 맞벌이 가정의 아동은 48.4%, 외벌이 47.3%로 맞벌이 비율이 근소하게 높았으며, 부모 모두 무직인 경우는 0.2%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유치원 이용 아동에 비해 맞벌이 가정의 자녀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동일 연령대인 보육연령 3세 이상만을 비교하여도 어린이집 이용 유아가 맞벌이 가구의 자녀인 경우가 3,4,5세에서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중에서도 어린이집이 유치원에 비해 맞벌이 가구를 지원하는 기능이 더욱 강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어린이집이 유치원에 비해 현재 기본 운영시간이 길고, 시간연장형 보육 등 추가적 보육 수요에 대응하는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특징과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맞벌이 가정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은 0세로 68.6%가 맞벌이 가정의 아동이었으며, 반대로 2세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맞벌이 가정 비율이 가장 낮은 연령이었다(49.1%). 이는 2세경부터 대리양육의 필요성 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며 어린이집이 대체재가 거의 없는 영아보육기관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보육연령 3세 이후부터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어린이집을, 발달적·교육적 요구가 높은 경우 유치원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어린이집의 맞벌이 가정 비율이 다시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유치원의 경우 연령별로는 3세의 맞벌이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아 54.6%가 맞벌이 가정의 유아였고, 4, 5세의 맞벌이 가정 유아 비중은 유사하였다. 2018년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아동 중 맞벌이 가정 아동의 비중은 2015년 결과 보다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어린이집의 경우 2015년 43.6%에서 2018년 54.2%로 10.6%p 상승하였고, 유치원의 경우도 2015년 38.8%에서 48.4%로 9.6%p 상승한 결과를 보였다. 앞서 응답자 특성에서 2018년 조사결과에서는 취업모 비중, 맞벌이 가구 비중이 상승하였음을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응답자 특성으로 인해 2018년 조사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의 전반적인

상승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맞벌이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2015년 3세에서 0세로 변화된 것은 2016년 7월 맞춤형 보육 시행 등으로 맞벌이 가정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나. 현재 이용 기관 이용 이유 및 선택 기준

현재 다니는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고(32.4%),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25.8%),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16.8%),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서’(10.1%),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7.7%), ‘비용 부담이 적어서’(3.3%), ‘주위에 놀이상대가 없어서’(2.0%) ‘특기교육을 위해서’(1.8%)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 기관 별로 살펴보면, ‘전인적 발달’과 ‘사회성 발달’을 위해 기관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어린이집은 다른 기관에 비해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23.1%),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14.1%) 이용한다는 응답 비중이 현저히 높았다. 유치원의 경우는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이용한다는 응답 비중이 18.5%로 어린이집 1.5%,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7.1%에 비해 매우 높아, 영유아 부모들에게 유치원은 특히 ‘초등학교 준비 기관’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어학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비해 ‘특기교육을 위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높았다(11.2%). 이상의 영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이유 분석을 통해 영유아 부모들에게 반일제 이상 기관은 보편적으로 아이의 전반적인 발달을 위해 이용해야 하는 기관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영유아기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은 부모의 취업 지원 등 대리돌봄 기관, 양육부담 경감 기관으로, 유치원은 초등학교 준비 기관으로, 영어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은 특기교육 등 특수 수요에 부합하는 기관으로 차별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표 V-3-4 현재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전체	2015	2012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27.6	38.4	55.0	32.4	36.2	28.3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1.5	18.5	7.1	7.7	8.4	12.1
특기교육을 위하여	1.0	2.0	11.2	1.8	1.5	2.6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23.1	7.0	8.2	16.8	14.6	12.6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27.4	24.3	14.7	25.8	25.5	28.8
주위에 놀이상대가 없어서	2.7	0.9	-	2.0	2.8	3.7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14.1	4.1	2.5	10.1	5.8	9.7
비용 부담이 적어서	2.6	4.7	1.3	3.3	2.9	1.8
기타	0.2	-	-	0.1	2.4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53)	(1,009)	(68)	(2,830)	(2,535)	(2,392)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이 같은 결과를 보육연령 기준 3세 이상 유아에 한정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V-3-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이용한다는 경우가 35.9%로 가장 많고 이외 ‘사회성 발달’ 27.3%,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12.4% 등 1~3순위의 결과는 영유아 전체에 대한 응답 경향과 유사하였다. 다만,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에 비해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이유가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인 경우는 5.6%로 현저히 낮게 응답되었고,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에(7.7%) 비해 높은 11.7%로 응답되어 유아의 기관 이용 이유에 차이를 보였다.

한편, 유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이유를 비교한 결과, 어린이집 이용 유아는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가 32.7%로 가장 주된 어린이집 이용 이유이며,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30.5%,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20.3%,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8.2% 순으로 주요한 이용 이유로 응답되었는데, 유치원의 경우는 발달적 기대(전인적 발달, 사회성 발달)로 유치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경향은 어린이집과 유사하나,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이용한다는 응답은 18.5%로 어린이집에 비해(3.0%) 뚜렷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V-3-5 현재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이유(유아 이상)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전체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30.5	38.4	52.8	35.9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3.0	18.5	8.1	11.7
특기교육을 위하여	1.1	2.0	11.5	2.2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20.3	7.0	7.9	12.4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32.7	24.3	16.9	27.3
주위에 놀이상대가 없어서	1.6	0.9	-	1.1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8.2	4.1	1.3	5.6
비용 부담이 적어서	2.6	4.7	1.5	3.7
기타	-	-	-	-
계	100.0	100.0	100.0	100.0
(수)	(755)	(1,005)	(58)	(1,81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3) 보육연령 2세(생활연령 3세)인 유치원 이용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한편, 현재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을 영유아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이 용한다고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만약 영유아를 돌봐 줄 사람이 있다면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돌볼 의향이 있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V-3-6>에 제시된 응답 결과에 따르면, 집에 영유아를 돌볼 사람이 있어도 기관에 계속 보내겠다는 응답은 84.0%로 2015년의 85.6%에 비해서는 1.6%p 감소하였다. 기관 유형별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82.9%, 유치원 90.2%, 반일제 이상 기관 83.4%로 어린이집 이용 가구가 기관에 계속 보내겠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기관별 재원 아동의 연령 분포에 따른 차이로 보여진다. 즉, 아이의 연령별로 살펴 본 결과 영아의 경우 돌볼 사람이 있다면 아무데도 보내지 않겠다는 응답이 21.9%로 유아의 경우 9.5%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는데, 이러한 영아에 대한 상대적으로 가정 양육을 선호하는 응답 경향이 영아가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이용가구의 응답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V-3-6 돌봄 사람이 있는 경우 가정양육 의향

단위: %(명)

구분	영유아 전체				영아			유아				2015	2012
	어린 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영아학원 등)	전체	어린 이집	반일제 이상 (영아학원 등)	전체	어린 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영아학원 등)	전체	영유아 전체	
아무데도 안 보냄	17.1	9.8	16.6	16.0	22.0	-	21.9	8.9	9.8	19.7	9.5	14.4	14.3
기관에 계속 보냄	82.9	90.2	83.4	84.0	78.0	100.0	78.1	91.1	90.2	80.3	90.5	85.6	85.7
계 (수)	100.0 (399)	100.0 (70)	100.0 (6)	100.0 (475)	100.0 (251)	100.0 (1)	100.0 (252)	100.0 (148)	100.0 (70)	100.0 (5)	100.0 (223)	100.0 (359)	100.0 (326)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다음으로 현재 다니고 있는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선택 기준이 되었던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집과의 거리가 2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프로그램 14.1%, 주변의 평판 12.8%, 교사 9.5%, 원장 8.5%, 국공립 여부 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2015년도와 거의 동일하였으나 2015년에 비해서는 ‘국공립 여부’가 현재 기관 선택의 고려사항이었다는 응답 비율이 3.3%에서 6.4%로 3.1%p 증가한 점이 눈에 띄는 변화이다. 한편, 2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주변의 평판’을 고려하였다는 응답이 17.0%로 가장 높았고, 그 외 ‘집과의 거리’ 16.2%, ‘프로그램’ 13.3%, ‘교사’ 9.7%, ‘기관 시설·설비’ 5.5% 순으로 나타났다. 즉, 2018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영유아 가구들은 자녀가 다닐 반일제 이상 기관 선택 시 무엇보다 ‘집과의 거리’, 즉 지리적 접근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기관들 중 프로그램, 평판, 교사, 원장, 시설·설비 등 ‘서비스 질’에 대한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국공립 여부’를 기관 선택 기준으로 고려하였다는 응답이 2015년 대비 대폭 증가한 것은 ‘국공립 기관’을 ‘양질의 서비스’ 자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졌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확충과 이용 비율 확대 정책이 영유아 부모들에게 강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이다. 기관 유형별로도 이러한 경향성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영아의 이용 비중이 높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집과의 거리는 1순위 응답에서 30.1%에 달하여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의 23.1%,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의 8.5%에 비해 현저히 높은 비중을 보였다. 유치

원과 반일제 이상 기관의 경우는 어린이집에 비해 프로그램 때문에 현재 기관에 보내게 됐다는 응답이 현저히 많아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의 21.6%,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중 45.1%가 ‘프로그램’이 기관 선택의 주요 고려사항이라고 응답하였다.

▣ 표 V-3-7 ▣ 현재 이용 보육·교육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전체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2018)
							2018	2015	
원장	9.6	6.0	7.1	3.0	3.9	4.2	8.5	9.8	4.9
교사	10.9	10.3	7.3	8.4	7.7	12.5	9.5	9.8	9.7
운영시간	3.8	4.8	2.1	3.8	-	3.8	3.0	3.1	4.4
비용	2.5	2.9	4.7	6.0	-	2.4	3.2	3.8	3.9
프로그램	7.8	12.2	21.6	14.8	45.1	18.4	14.1	15.4	13.3
건강·영양	1.8	3.4	0.3	3.0	3.7	2.6	1.4	2.1	3.2
기관 학급 규모	1.4	0.9	1.7	1.9	4.0	7.5	1.6	2.1	1.5
실내환경 ²⁾	2.5	4.1	2.5	3.8	3.5	2.6	2.5	3.8 ²⁾	4.0
안전한 보호	1.3	3.4	0.8	3.0	7.2	3.4	1.4	1.6	3.3
집과의 거리	30.1	16.5	23.1	15.9	8.5	13.7	26.8	25.9	16.2
기관 시설·설비	2.4	4.7	3.4	6.4	6.8	9.6	2.9	2.1	5.5
국공립 여부	6.3	2.9	7.5	5.2	-	-	6.4	3.3	3.6
주변의 평판	12.7	17.7	13.6	16.1	7.7	13.8	12.8	11.3	17.0
주변환경	1.5	2.9	1.9	2.8	-	-	1.5	1.5	2.8
평가인증 결과 ³⁾	0.9	2.7	-	-	-	-	0.6	0.7 ³⁾	1.6
차량 운행 여부	0.5	1.2	0.4	1.4	-	3.0	0.5	0.7	1.3
특별활동 (방과후 특성화활동)	0.1	0.1	0.4	1.9	0.4	-	0.2	0.3	0.7
형제 자원 여부	2.7	1.5	1.2	1.7	-	2.7	2.1	1.3	1.6
공공형어린이집 여부	0.4	0.5	-	-	-	-	0.3	0.3	0.3
기타	0.8	1.3	0.6	1.0	1.5	-	0.8	0.9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53)	(1,753)	(1,009)	(1,009)	(68)	(68)	(2,830)	(2,535)	(2,83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15년: '내부분위기'

3) 2015년: '평가인증 여부'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한편 보육연령 기준 3세 이상 유아에 한정하여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교육기관 선택 시 고려한 사항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영아를 포함한 결과와 동일한 경향

이 발견되었다. 즉, 유아의 보육교육기관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기준은 ‘집과의 거리’(23.7%)였으며, 이외 ‘프로그램’ 18.5%, 주변의 평판 12.4%, 교사 8.3%, 원장 7.7%, 국공립 여부 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집과의 거리’의 응답 비율이 전체 영유아 대상의 결과에 비해 다소 낮고, 반대로 ‘프로그램’을 응답한 비율이 전체 영유아보다 유아반 이상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어린이집의 유아반의 결과도 이와 유사하여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전체 대상의 결과 대비 ‘집과의 거리’를 응답한 비율이 다소 하락하고(26.7%), 대신 프로그램을 선택 기준으로 고려하였다는 응답은 7.8%에서 10.5%로 증가하였다.

표 V-3-8 현재 이용 보육·교육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유아반 이상)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전체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원장	9.2	4.6	7.1	3.0	3.0	4.8	7.7	3.7
교사	9.7	8.5	7.3	8.4	7.3	12.8	8.3	8.7
운영시간	4.9	4.5	2.1	3.8	-	3.3	3.1	4.1
비용	3.7	3.8	4.7	6.0	-	2.7	4.0	5.0
프로그램	10.5	15.0	21.6	14.8	47.5	19.5	18.5	15.1
건강·영양	1.8	3.4	0.3	3.0	4.3	1.6	1.1	3.1
기관 학급 규모	1.3	0.4	1.7	1.9	4.6	6.7	1.7	1.5
실내환경 ²⁾	2.0	3.6	2.6	3.8	4.1	3.0	2.4	3.6
안전한 보호	1.1	3.1	0.8	3.0	8.3	3.9	1.3	3.1
집과의 거리	26.7	15.7	23.1	15.9	7.2	15.7	23.7	15.8
기관 시설·설비	2.4	5.4	3.4	6.5	5.8	8.2	3.1	6.1
국공립 여부	8.7	3.5	7.4	5.2	-	-	7.5	4.3
주변의 평판	11.6	17.3	13.6	16.1	5.9	13.0	12.4	16.4
주변환경	1.7	3.1	1.8	2.8	-	-	1.7	2.8
평가인증 결과 ³⁾	0.9	2.3	-	-	-	-	0.3	0.9
차량 운행 여부	0.5	1.2	0.4	1.4	-	3.4	0.4	1.4
특별활동(방과후 특성화활동)	0.2	0.3	0.4	1.9	0.4	-	0.3	1.1
형제 자원 여부	2.4	1.9	1.2	1.7	-	1.5	1.6	1.8
공공형어린이집 여부	0.6	0.7	-	-	-	-	0.2	0.3
기타	0.3	1.5	0.6	1.0	1.7	-	0.5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755)	(755)	(1,005)	(1,005)	(58)	(58)	(1,818)	(181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15년: '내부분위기'

3) 2015년: '평가인증 여부'

4)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다. 현재 보육·교육기관 이용 시작 시기 및 재원기간

1) 이용 시작 시기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 기관에 처음 다니기 시작한 월령은 어린이집의 경우 평균 22.3개월, 유치원 48개월, 반일제 이상 학원 43.7개월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현재 이용 기관 이용 시작 월령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가 휴직 중인 경우가 26.8개월로 이용 시작 시기가 가장 빨랐으며, 취업중인 경우 30.9개월, 미취업인 경우 34.0개월, 모 부재의 경우 42.7개월 순으로 나타났다.

▣ 표 V-3-9 ▣ 현재 이용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작 월령

단위: 개월(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기타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22.3	11.3	(1,753)	48.0	10.4	(1,009)	43.7	13.0	(68)	-	-	-	32.2	16.6	(2,830)
영유아구분															
영아	18.5	7.6	(998)	32.8	9.1	(4)	25.3	6.3	(10)	-	-	-	18.6	7.7	(1,012)
유아	27.3	13.2	(755)	48.0	10.4	(1,005)	46.4	11.5	(58)	-	-	-	39.6	15.4	(1,818)
χ^2		-16.4***			-1.8*			-10.3***						-48.8***	
모취업 여부															
취업	20.7	11.9	(888)	47.8	10.4	(488)	43.7	12.5	(43)	-	-	-	30.9	17.3	(1,419)
휴직중	20.9	9.4	(97)	45.0	12.3	(34)	37.4	13.6	(4)	-	-	-	26.8	14.3	(135)
미취업	24.3	10.5	(751)	48.2	10.2	(469)	44.6	14.1	(21)	-	-	-	34.0	15.7	(1,241)
모부재 등	25.9	11.7	(17)	52.0	12.1	(18)	-	-	-	-	-	-	42.7	17.3	(35)
F		15.2***(a)			1.8			0.7						16.9***(a)	
2015년	26.5	13.2	(1,745)	50.1	9.1	(749)	49.2	17.2	(25)	40.7	14.6	(16)	34.5	16.4	(2,535)
2012년	28.3	13.9	(1,536)	51.9	10.5	(744)	50.5	12.3	(92)	42.0	13.9	(20)	37.3	17.1	(2,392)
2009년	30.7	14.0	(1,342)	51.2	11.1	(612)	48.3	11.2	(75)	44.6	8.0	(20)	37.6	16.1	(2,05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 보육연령 기준

3) 유치원 이용 아동2세(보육연령) 아동 4명을 포함.

4) 2015년에는 반일제 이상 학원과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을 구분하였으나, 2018년 조사에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반일제 이상 기관을 '반일제 이상 기관'으로 포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01$.

2018년에는 2015년 조사결과에 비해 모든 유형의 기관 이용 시작 연령이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26.5개월, 유치원 50.1개월, 반일제 이상 기관 49.2개월로 나타난 2015년에 비해 2018년에는 현재 이용 기관 시작 월령이 어린이집은 4.2개월, 유치원 2.1개월, 반일제 이상 기관 5.5개월이 빨라진 결과를 보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공통적으로 2012년 이후 이용 시작 월령이 지속적으로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속적 확충 정책과 이용 비용에 대한 지원이 보편화·확대됨으로써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특별한 욕구가 있는 경우에 이용하는 기관이 아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당연히 영유아기에 이용해야 하는 기관으로 인식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보편화된 인식이 기관 이용 시작 시기도 앞당기고 있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재원기간

현재 이용하는 기관의 평균 재원기간은 19.9개월로 2015년 15.9개월에서 4개월 가량 증가하였다. 기관 유형에 따라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평균 21.8개월, 유치원 16.9개월, 반일제 이상 기관 16.9개월로 어린이집 재원 기간이 가장 길었다. 영유아 구분에 따라서는 영아들은 평균 12.8개월을 현재 이용 기관에 재원중이었으며, 유아들은 23.7개월째 재원 중으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동일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중이었다. 특히 어린이집 이용 유아들은 동일 어린이집을 33.6개월째 재원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 거주 영유아들이 가장 긴 기간 동안 현재 이용 기관에 재원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21.9개월), 대도시(19.5개월), 중소도시(19.4개월) 거주 영유아의 재원기간은 거의 유사하였다. 한편 어머니가 취업 중인 경우 현재 다니는 기관의 재원 기간이 21.2개월로 다른 경우에 비해 동일 기관을 비교적 길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어머니가 부재한 경우에도 20.3개월째 재원하고 있어 비교적 동일 기관을 지속하여 이용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취업중이거나 부재한 경우 대리 돌봄의 필요 때문에 한번 이용을 시작한 기관을 변경하기 어렵고, 또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는 기관 이용 시작시기도 빠른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이용 기관의 재원 기간은 2009년 11.4개월에서 2012년 13.9개월, 2015년 15.9개월, 2018년 19.9개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바 이는 반일

제 이상 기관 이용 시작 월령이 빨라지는 경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표 V-3-10 ▣ 현재 이용 반일제 이상 기관 재원기간

단위: 개월(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기타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21.8	15.6	(1,753)	16.9	10.8	(1,009)	16.9	11.0	(68)	-	-	-	19.9	14.1	(2,830)
영유아구분															
영아	12.9	8.3	(998)	10.4	8.0	(4)	7.5	4.1	(10)	-	-	-	12.8	8.3	(1,012)
유아	33.6	15.2	(755)	16.9	10.8	(1,005)	18.3	11.0	(58)	-	-	-	23.7	15.1	(1,818)
χ^2	-33.6***			-0.8			-6.9***			-			-24.9***		
지역규모															
대도시	21.3	15.3	(611)	16.6	10.6	(365)	18.2	12.3	(34)	-	-	-	19.5	13.9	(1,010)
중소도시	21.4	15.6	(514)	16.7	10.5	(317)	15.5	9.1	(31)	-	-	-	19.4	13.9	(862)
읍·면	23.7	16.1	(628)	18.1	12.1	(327)	15.4	21.3	(3)	-	-	-	21.9	15.1	(958)
F	3.1**			1.2(a)			0.8			-			5.9***(a)		
모취업 여부															
취업	23.8	16.6	(888)	16.9	11.2	(488)	17.6	11.0	(43)	-	-	-	21.2	15.1	(1,419)
휴직중	18.0	13.3	(97)	15.0	9.3	(34)	15.8	8.8	(4)	-	-	-	17.3	12.4	(135)
미취업	19.9	14.4	(751)	17.0	10.5	(469)	15.5	11.3	(21)	-	-	-	18.6	13.1	(1,241)
모부재 등	25.5	11.9	(17)	17.4	10.1	(18)	-	-	-	-	-	-	20.3	11.3	(35)
F	10.9***(a)			0.3			0.5			-			9***(a)		
2015년	17.3	13.4	(1,745)	13.4	8.7	(749)	13.0	13.5	(25)	9.8	10.5	(16)	15.9	12.2	(2,535)
2012년	14.8	13.0	(1,536)	12.2	9.5	(744)	13.0	10.4	(92)	15.1	14.3	(20)	13.9	11.9	(2,392)
2009년	12.9	11.6	(1,342)	8.3	9.1	(612)	8.5	8.6	(75)	10.3	11.1	(20)	11.4	11.0	(2,05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 보육연령

3) 유치원 이용 아동2세(보육연령) 아동 4명을 포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 $p < .001$.

라. 보육·교육기관 이용일수 및 이용 시간

1) 이용 요일 및 이용일수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이 해당 기관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요일을 모두 표기하도록 한 결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의 평일은 거의 100%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되었다. 반면, 주말에도 정기적으로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서, 토요일을 정기적으로 이용한다는 응답은 0.3%에 불과하였고 일요일을 정기적으로 이용한다는 응답은 없었다. 전반적으로 반일제 이

상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평일 5일은 모두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토요일에도 기관을 정기적으로 이용한다는 응답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만 해당하였다.

▣ 표 V-3-11 ▣ 주당 기관 이용 요일 및 주당 이용 일수

단위: %(명), 일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전체
월요일 이용률	99.9	99.9	100.0	99.9
화요일 이용률	99.8	100.0	98.8	99.9
수요일 이용률	100.0	99.9	100.0	100.0
목요일 이용률	99.9	99.9	98.8	99.9
금요일 이용률	100.0	100.0	100.0	100.0
토요일 이용률	0.4	-	-	0.3
일요일 이용률	-	-	-	-
주당 정기적 이용일 수	5.0	5.0	5.0	5.0
계	100.0	100.0	100.0	100.0
(수)	(1,753)	(1,009)	(68)	(2,83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2세(보육연령) 아동 4명을 포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이용시간

영유아의 보육·교육기관 등하원 시간을 살펴보았다. <표 V-3-12>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들의 42.0%가 8:31~9:00시에 등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9:01~9:30사이 28.5%, 8:01~8:30 사이 15.6%가 등원하여 대부분의 영유아가 오전 8시~9시 30분 사이 등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원은 15:01~16:00시 사이가 35.0%로 가장 많이 하원하며, 16:01~17:00시 사이도 34.3%로 오후 3시~5시 사이는 약 70%의 영유아가 하원 하는 집중 하원 시간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집중 등·하원 시간대는 2015년 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관 유형별로는 모든 반일제 이상 기관에 가장 많은 영유아가 등원하는 시간대는 8:31~9:00시 사이인 것은 동일하나, 유치원이 특히 이 시간대에 가장 많은 유아가 등원하고 있었고(48.0%), 다음으로 반일제 이상 학원이 41.7%이며, 어린이집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시간대 등원 비율이 낮았다(38.5%). 반면 오전 8시 이전 등원 비율은 유치원(3.7%), 반일제 이상 학원(1.3%)에 비해 어린이집이 상

대적으로 높았다(5.1%).

가장 많이 하원 하는 시간은 기관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먼저 어린이집의 경우 15:01~16:00시 사이에 39.6%의 영유아가 하원하며 16:01~17:00시 사이에는 34.0%가 하원하여 15:01~16:00시가 가장 많이 하원 하는 시간대였으나, 유치원은 15:01~16:00시 하원은 27.6%인 반면 16:01~17:00시 사이 하원이 37.7%로 16:01~17:00시가 가장 많이 하원 하는 시간대였다. 한편, 18시 이후에 하원 하는 영유아의 비중은 어린이집의 경우 6.6%이며, 유치원은 3.6%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늦게 하원 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5년 결과와 비교 시 집중 등·하원 시간대는 동일하나, 이 시간대의 등·하원 아동 비율이 더욱 증가하였으며, 오후 6시 이후 하원 비율은 5.9%에서 5.4%로 미미하게 하락하였다.

▮ 표 V-3-12 ▮ 이용기관별 영유아의 등·하원 시간

단위: %(명)

등원시간						하원시간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영아학원 등)	전체	2015 (전체)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영아학원 등)	전체	2015 (전체)
7:30까지	1.6	0.4	1.3	1.2	1.1	14:00까지	1.5	8.1	3.8	3.9	3.9
7:31~8:00	3.5	3.3	-	3.3	4.2	14:01~15:00	5.5	12.1	52.1	9.6	10.2
8:01~8:30	13.7	19.4	10.5	15.6	16.7	15:01~16:00	39.6	27.6	31.4	35.0	34.1
8:31~9:00	38.5	48.0	41.7	42.0	37.1	16:01~17:00	34.0	37.7	8.6	34.3	31.8
9:01~9:30	31.2	23.4	32.4	28.5	30.3	17:01~17:30	7.3	6.6	1.5	6.8	8.3
9:31~10:00	11.0	5.4	13.2	9.1	9.9	17:31~18:00	5.6	4.4	-	5.0	5.8
10:01이후	0.6	0.1	0.9	0.4	0.7	18:01~19:00	5.7	3.3	2.6	4.7	4.6
						19:01이후	0.9	0.3	-	0.7	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53)	(1,009)	(68)	(2,830)	(2,535)	(수)	(1,753)	(1,009)	(68)	(2,830)	(2,53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2세(보육연령) 아동 4명을 포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보육·교육기관 등하원 시간을 3세 이상 보육연령인 유아반 이용자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표 V-3-13>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유아들의 45.0%가 8:31~9:00시에 등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9:01~9:30분 사이 27.1%, 8:01~8:30분 사이 17.4%가 등원하여 대부분의 유아가 오전 8시~9시 30분 사이 등원하고 있었다. 등원 시간은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에 비해 9:00시 이전 등원 비율이 다소

증가하고(66.4%), 9:01에서 9:30분 사이 등원 비율은 다소 감소하여(27.1%)로 영아에 비해 유아가 보육교육기관 등원을 좀 더 이른 시간에 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장 많은 유아가 하원 하는 시간은 16:01~17:00시 사이여서(35.9%), 영아를 포함한 전체 영유아의 하원은 15:01~16:00 사이가 35.0%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던 결과와(표 V-3-12 참조) 차이를 보였다. 즉, 보육·교육기관의 유아반을 이용하는 유아만을 선별하여 살펴 본 결과 유아는 영아에 비해 좀 더 이른게 등원하고 좀 더 늦게 하원 하는 경향이 있어, 결과적으로 유아가 영아보다 더 장시간 보육·교육기관에 머무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관 유형별로는 모든 반일제 이상 기관에서 가장 많은 유아가 등원하는 시간대는 8:31~9:00시로 동일하였고, 이는 전체 영유아 결과와 동일한 경향이였다. 그러나, 하원 시간의 경우는 유아반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기관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와 차이를 나타냈다. 즉, 기관 유형 중 어린이집의 경우 16:01~17:00 사이가 가장 많은 유아가 하원 하는 시간대였는데(36.8%) 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체 영유아 대상 결과에서는 15:01~16:00 사이에 39.6%의 영유아가 하원하여 가장 집중적인 하원 시간대였던 결과와 차이가 있다(표 V-3-12 참조).

표 V-3-13 유아의 이용기관별 등·하원 시간

단위: %(명)

구분	등원시간				구분	하원시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전체
7:30까지	1.0	0.4	1.5	0.7	14:00까지	1.1	8.0	1.6	4.9
7:31~8:00	3.7	3.3	-	3.3	14:01~15:00	5.1	12.1	55.8	11.5
8:01~8:30	15.7	19.4	9.1	17.4	15:01~16:00	34.8	27.6	29.5	30.6
8:31~9:00	40.9	48.0	44.4	45.0	16:01~17:00	36.8	37.7	8.4	35.9
9:01~9:30	31.3	23.4	32.9	27.1	17:01~17:30	9.0	6.6	1.7	7.3
9:31~10:00	6.9	5.4	12.1	6.4	17:31~18:00	6.1	4.4	-	4.9
10:01이후	0.5	0.1	-	0.2	18:01~19:00	5.9	3.3	3.0	4.3
					19:01이후	1.1	0.3	-	0.6
계	100.0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100.0
(수)	(755)	(1,005)	(58)	(1,818)	(수)	(755)	(1,005)	(58)	(1,81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다음으로 이용 기관별로 등·하원 소요 시간을 제외한 ‘순수 기관 이용시간’을 응답하도록 한 결과, 모든 유형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 12분으로 나타났다. 반일제 이상 기관 유형별로는 어린이집 7시간 24분, 유치원 7시간 12분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영어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은 6시간 12분으로 반일제 이상 기관 중 가장 짧은 시간 이용하고 있었다. 이용시간별로는 어린이집의 경우 6~7시간 이용한다는 응답이 33.6%로 가장 많았으며, 유치원의 경우에는 7~8시간 이용한다는 응답이 32.6%로 가장 많았다. 영어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은 5~6시간 이용한다는 경우가 4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22.6%, 유치원 이용 아동은 19.3%, 영어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의 경우 2.6%로 어린이집이 8시간 이상 장시간 이용 아동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편, 모취업 여부별로는 어머니가 취업 중인 경우 기관 이용시간이 평균 7시간 42분으로, 어머니가 휴직 중인 경우(6시간 54분)와 미취업자인 경우(6시간 48분)에 비해 기관 이용 시간이 1시간가량 길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 표 V-3-14 ■ 이용기관 및 모 취업여부별 영유아의 기관 이용시간(등하원 시간 미포함)
단위: %(명), 시간, 분

구분	전체	이용기관별			모 취업여부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취업	휴직중	미취업
5시간까지	5.3	2.6	8.7	16.5	2.9	3.7	8.4
5-6시간	15.7	15.5	13.2	41.9	10.2	23.8	21.1
6-7시간	30.6	33.6	26.2	23.1	25.2	34.8	36.5
7-8시간	27.8	25.8	32.6	15.8	29.5	21.1	26.6
8-9시간	13.0	13.4	13.4	1.3	18.4	14.1	6.3
9-10시간	5.4	6.1	4.8	-	9.3	2.5	1.1
10시간 이상	2.3	3.1	1.1	1.3	4.5	-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830)	(1,753)	(1,009)	(68)	(1,419)	(135)	(1,241)
평균	7시간 12분	7시간 24분	7시간 12분	6시간 12분	7시간 42분	6시간 54분	6시간 48분
표준편차	1시간 18분	1시간 18분	1시간 18분	1시간 6분	1시간 24분	1시간 12분	1시간 6분
F		43.7***(a)			124.9***(a)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2세(보육연령) 아동 4명을 포함.
3) 평균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결과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이용기관별 및 모취업 여부별 기관 이용 시간(등·하원 시간 미포함)을 보육연령 3세 이상의 '유아'에 한정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V-3-15>와 같다. 유아만의 보육·교육기관 이용시간은 7시간 18분으로 영아를 포함한 전체 영유아의 이용시간보다 평균 6분 증가하였다. 이용 기관별로는 유치원과 영어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은 영유아 전체 결과와 동일하나, 어린이집의 경우는 영유아 전체 결과에 비해 유아반에 한정된 이용시간이 평균 6분 증가한 7시간 30분으로 나타나 유아가 영아 보다 장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취업여부별로는 어머니가 휴직중인 경우 7시간 18분으로 영아가 포함된 결과보다(6시간 54분) 평균적으로 이용시간이 약 24분 길게 나타났으며, 취업중이거나 미취업중인 경우는 전체 영유아 대상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이는 어머니가 휴직중인 경우 대상 아동이 유아인 경우 아동이 영아일 때에 비해 기관 이용 시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면에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는 아동의 연령과 거의 무관하게 취업 활동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기관 이용시간이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 표 V-3-15 ▣ 이용기관 및 모 취업여부별 유아의 기관 이용시간(등·하원 시간 미포함)

단위: %(명), 시간, 분

구분	전체	이용기관별			모 취업여부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학원	취업	휴직중	미취업
5시간까지	6.1	1.7	8.6	13.6	2.9	1.1	10.4
5~6시간	14.3	11.6	13.2	46.6	9.2	18.7	19.7
6~7시간	28.6	32.5	26.3	23.0	25.6	26.0	32.6
7~8시간	29.8	28.0	32.6	13.7	29.9	29.1	29.6
8~9시간	14.1	16.6	13.4	1.5	20.0	21.8	6.6
9~10시간	5.1	6.0	4.8	-	8.4	3.3	1.0
10시간 이상	2.1	3.5	1.1	1.5	4.0	-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818)	(755)	(1,005)	(58)	(929)	(66)	(795)
평균	7시간 18분	7시간 30분	7시간 12분	6시간 12분	7시간 42분	7시간 18분	6시간 48분
표준편차	1시간 18분	1시간 18분	1시간 18분	1시간	1시간 24분	1시간 6분	1시간 12분
F		45.9***(a)			81.1***(a)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구분: 보육연령

3) 평균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다음으로 이용 기관별로 등·하원 소요 시간을 포함한 평균 총 이용시간을 살펴본 결과,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의 하루 총 이용시간은 7시간 36분이었으며, 기관유형별로는 어린이집 7시간 42분, 유치원 7시간 36분, 영어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을 6시간 42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6분 정도 더 이용하여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어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간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비해 약 한 시간가량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 조사결과에 비해 전체적으로 등·하원 시간을 포함한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간은 20분 이상 늘어났다. 어린이집 이용이 22분, 유치원 이용 시간이 26분 증가하였다. 단, 영어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간은 2015년 보다 39분이 감소하였다.

한편, 모취업 여부에 따른 기관 이용시간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기관을 가장 오래 이용하여 등·하원 시간을 포함하면 하루 평균 8시간 6분을 이용하고 있었고, 휴직중인 경우는 7시간 18분, 미취업 상태인 경우 7시간 6분으로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미취업 상태인 경우에 비해 하루 한 시간을 더 이용하며, 휴직중인 경우에 비해서는 48분 더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2018년도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시간은 취업모 가구의 경우 10분, 휴직중인 경우 22분, 미취업상태인 경우 18분 등 취업여부를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취업모 가구에 비해 오히려 어머니가 휴직중이거나 미취업 상태인 경우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시간 증가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V-3-16 ▮ 이용기관별 및 모 취업여부별 영유아의 기관 이용시간(등·하원시간 포함)

단위: %(명), 시간, 분

구분	전체		이용기관별								모 취업여부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기타	취업		휴직중		미취업	
(수)	2018	2015	2018	2015	2018	2015	2018	2015	2018	2015	2018	2015	2018	2015	2018	2015
5시간까지	2.4	4.7	1.1	3.3	4.2	7.8	4.8	3.1	-	-	1.3	2.2	3.7	4.6	3.5	6.5
5~6시간	6.8	17.9	4.1	16.1	9.6	20.7	24.7	14.4	-	57.1	3.5	9.7	6.2	18.5	10.6	24.0
6~7시간	24.0	31.1	26.8	36.0	17.8	20.9	35.2	27.1	-	34.8	18.0	23.5	30.7	46.6	30.4	35.9
7~8시간	31.2	23.7	32.2	21.8	30.2	28.1	25.9	28.9	-	-	28.0	24.5	32.4	14.5	34.7	23.8
8~9시간	20.9	13.1	19.2	12.2	25.4	15.3	6.8	12.1	-	-	24.5	19.4	18.8	8.4	17.2	8.3
9~10시간	9.6	6.4	10.3	6.5	9.2	5.7	1.3	14.4	-	8.1	15.3	13.2	8.2	5.6	3.0	1.3
10시간 이상	5.1	3.2	6.3	4.2	3.5	1.5	1.3	-	-	-	9.5	7.5	-	1.7	0.6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830)	(2,535)	(1,753)	(1,745)	(1,009)	(749)	(68)	(25)	-	(16)	(1,419)	(1,009)	(135)	(78)	(1,241)	(1,425)

구분	전체		이용기관별						모 취업여부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기타		취업		휴직중		미취업	
평균	7시간 36분	7시간 16분	7시간 42분	7시간 20분	7시간 36분	7시간 10분	6시간 42분	7시간 21분	-	6시간 31분	8시간 6분	7시간 56분	7시간 18분	6시간 56분	7시간 6분	6시간 48분
표준편차	1시간 24분	1시간 26분	1시간 24분	1시간 26분	1시간 24분	1시간 24분	1시간 6분	1시간 14분	-	0시간	1시간 24분	1시간 36분	1시간 12분	1시간 32분	1시간 6분	1시간 11분
F(2018)											29.6***		127.7***(a)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2세(보육연령) 아동 4명을 포함.
 3) 손 이용 시간에 등·하원 소요시간을 포함한 수치임.
 4) 평균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결과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보육연령 3세 이상 유아반을 기준으로 이용 기관별 이용시간(등·하원 소요시간 포함)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반일제 이상 기관 하루 평균 총 이용시간은 7시간 42분으로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6분 증가하였다. 기관유형별로는 어린이집이 7시간 54분으로 영유아 전체 대상 결과보다 12분 길었으며, 유치원과 영어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은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와 동일하였다.

유아반 대상에서도 모취업 여부별로는 취업중인 경우 8시간 6분을 이용해 가장 장시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휴직중인 경우 7시간 42분, 미취업인 경우 7시간 6분순으로 이용하고 있어, 취업중이거나 미취업중인 경우 변동이 없음에 반하여 유아를 둔 휴직모 가구의 경우는 영아를 둔 휴직모 가구에 비해 장시간 기관을 이용하는 경향을 보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의 기관 이용 시간은 부모의 취업 여부와 함께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 표 V-3-17 】 이용기관 및 모 취업여부별 유아의 기관 이용시간(등·하원 시간 포함)

단위: %(명), 시간, 분

구분	전체		이용기관별				모 취업여부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취업	휴직중	미취업
5시간까지	2.7		0.9	4.1	1.6		1.1	1.1	4.7
5-6시간	7.9		3.3	9.6	25.4		3.7	7.8	12.7
6-7시간	20.8		22.4	17.9	38.8		17.2	21.5	25.2
7-8시간	30.6		31.7	30.3	24.8		27.1	26.3	34.6
8-9시간	23.6		23.4	25.4	6.4		27.1	30.1	19.2
9-10시간	9.7		11.4	9.3	1.5		15.2	13.1	3.2

구분	전체	이용기관별			모 취업여부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취업	휴직중	미취업
10시간 이상	4.8	6.9	3.5	1.5	8.5	-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818)	(755)	(1,005)	(58)	(929)	(66)	(795)
평균	7시간 42분	7시간 54분	7시간 36분	6시간 42분	8시간 6분	7시간 42분	7시간 6분
표준편차	1시간 24분	1시간 18분	1시간 24분	1시간	1시간 24분	1시간 12분	1시간 12분
F		36.1***			83.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3) 순 이용 시간에 등하원 소요시간을 포함한 수치임.
 4) 평균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결과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3) 보육·교육기관 이용 희망 시간

다음으로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시 희망하는 등·하원 시간을 살펴보았다.

이용 기관을 불문하고 희망 등원시각은 현재 등원 시각처럼 8:00~9:30분에 집중되어 약 72.8%가 이 시간대에 등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원 시각은 15:00~17:00시 사이에 집중되어 있어 54%가 이 시간대 하원을 희망하고 있었다. 희망 등원 시간이 주로 8:00~9:30분 사이에 집중되어 있으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아동의 10.0%는 7:30분 이전 등원을 희망하고 있고, 7:31~8:00시 사이에도 10.1%가 희망하여 약 20%는 오전 8시 이전의 다소 이른 시각의 등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표 V-3-12>에서 제시된 바에 따르면 실제 8시 이전 등원 비율은 4.5%에 불과하였는바, 이는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가구 중 실제 등원하는 시간보다 이른 시간의 등원을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하원 시간의 경우 15:00시 이전에 하원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7.0%에 불과하여 매우 적고 90% 이상이 15:00시 이후 하원을 희망하고 있었다. 특히, 15:00~17:00시 사이를 희망하는 경우가 50% 이상으로 가장 집중적으로 하원을 원하는 시간이었으나, 17:00시 이후 하원을 원하는 경우도 38.9%로 상당히 높았으며, 이는 실제 17:00시 이후 하원 비율인 17.2%의 두 배 이상에 해당된다¹²⁾.

이용기관별로는 어린이집의 8시 이전 등원 희망 비율이 22.3%로 유치원 17.8%, 영어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7.7%에 비해 가장 높아 어린이집의 조기 등원 수요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실제 7:30 이전 등원 비율은 1.6%에 불과하나(표 V-3-12 참조) 이 시간대 등원을 원하는 경우가 12.0%에 달하여 희망과 실제 등원 시간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중 하원 시간대가 아닌 17:00시 이후에 하원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어린이집 이용의 경우 44.3%에 달하였고, 유치원 이용의 경우 32.4%, 영어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15.0% 순으로 기관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 시간인 7:30 이후 하원을 원하는 비율도 6.3%로 실제 이 시간대 하원 비율인 0.9%와¹³⁾ 큰 차이를 보였다.

가장 희망하는 등·하원 시간대는 2018년도와 2015년 조사결과가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오전 8시 이전의 등원 희망, 즉 일반적인 수준보다 이른 시간의 조기 등원 희망 비율과 일반적인 경향보다 늦은 시간대의 하원 희망 비율은 모두 2015년 대비 2018년도가 증가하였다.

표 V-3-18 이용기관별 희망 등·하원시간 단위: %(명)

희망 등원시간							희망 하원시간								
구분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2015	구분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2015
	전체	맞춤반 아남	맞춤반	유치원	전체	전체			종일반	맞춤반	유치원	전체	전체		
7:30까지	12.0	12.9	8.7	7.3	3.0	10.0	7.8	14:00까지	0.5	0.3	1.4	3.1	4.1	1.6	1.5
7:31-8:00	10.3	10.7	8.7	10.5	4.7	10.1	9.3	14:01-15:00	2.9	2.9	2.7	6.9	32.3	5.4	7.0
8:01-8:30	13.8	15.2	8.8	17.7	17.1	15.3	14.4	15:01-16:00	24.9	22.6	33.1	25.4	29.8	25.2	26.2
8:31-9:00	39.9	39.7	40.5	45.6	41.8	41.9	37.9	16:01-16:30	8.7	8.8	8.2	10.6	6.9	9.3	10.3
9:01-9:30	16.4	15.5	19.9	13.3	23.2	15.6	21.8	16:31-17:00	18.8	18.7	19.0	21.7	11.8	19.5	19.0
9:31-10:00	7.3	5.7	13.1	5.6	9.3	6.8	8.2	17:01-17:30	6.5	7.1	4.2	5.6	-	5.9	6.9
10:01이후	0.3	0.4	0.3	0.2	0.9	0.3	0.5	17:31-18:00	14.2	14.1	14.4	11.3	8.0	12.9	12.0
								18:00-19:00	11.6	12.2	9.6	9.7	2.7	10.6	8.3
								19:00-19:30	5.7	5.9	5.1	2.5	1.5	4.4	3.8
								19:30이후	6.3	7.4	2.2	3.3	2.8	5.1	5.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53)	(1,380)	(373)	(1,009)	(68)	(2,830)	(2,535)	(수)	(1,753)	(1,380)	(373)	(1,009)	(68)	(2,830)	(2,53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2세(보육연령) 아동 4명을 포함.
 3) 맞춤반 아남: 유아반과 영아반 중 종일반을 의미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12) <표 V-3-12> 참조

13) <표 V-3-12> 참조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시 희망하는 등·하원 시간을 보육연령 3세 이상 유아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이용 기관을 불문하고 유아의 반일제 이상 기관 희망 등원시각은 8:00~9:30분에 집중되어 약 75.3%가 이 시간대에 등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원 시각은 15:00~17:00시 사이에 집중되어 있어 54.2%가 이 시간대 하원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는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와 동일한 경향이였다.

이용기관별로는 어린이집의 8시 이전 등원 희망 비율이 21.8%로 유치원 17.8%, 영어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8.8%에 비해 가장 높아 어린이집의 조기 등원 수요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7:30 이전 실제 등원 비율은 1.6%에 불과하나(표 V-3-12 참조) 이 시간대 등원을 원하는 경우가 11.4%에 달하여 희망과 실제 등원 시간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중 하원 시간대인 17:00시 이후에 하원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어린이집 이용의 경우 47.1%에 달하였고, 유치원 이용의 경우 32.4%, 반일제 이상 학원 15.8% 순으로 기관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보다 전반적으로 비중이 증가하여 유아반에서의 늦은 하원 수요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19 | 이용기관별 유아의 희망 등·하원시각

단위: %(명)

구분	희망 등원시각				희망 하원시각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전체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전체
7:30까지	11.4	7.3	3.4	8.7	14:00까지	0.4	3.0	3.2	1.9
7:31~8:00	10.4	10.5	5.4	10.2	14:01~15:00	2.4	6.9	33.1	6.4
8:01~8:30	15.5	17.7	16.7	16.7	15:01~16:00	22.5	25.4	30.9	24.5
8:31~9:00	40.5	45.5	41.6	43.3	16:01~16:30	8.8	10.6	7.9	9.7
9:01~9:30	17.0	13.3	23.6	15.3	16:31~17:00	19.0	21.8	9.1	20.0
9:31~10:00	5.2	5.6	9.2	5.6	17:01~17:30	7.0	5.6	-	5.9
10:01이후	0.1	0.2	-	0.1	17:31~18:00	15.8	11.3	9.2	13.0
					18:00~19:00	11.7	9.7	3.2	10.2
					19:00~19:30	5.3	2.5	1.7	3.6
					19:31이후	7.3	3.3	1.7	4.8
계	100.0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100.0
(수)	(755)	(1,005)	(58)	(1,818)	(수)	(755)	(1,005)	(58)	(1,81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이러한 희망하는 등·하원 시간을 통해 희망하는 이용시간을 파악하였다. <표 V-3-20>에 따르면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8시간 18분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 이용 가구들은 실제 이용시간 보다 <표 V-3-14 참조> 좀 더 긴 시간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용 기관 유형별로는 어린이집은 8시간 30분 이용을 희망하여 희망이용시간이 가장 길었고, 유치원은 8시간 6분, 영어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은 7시간 6분으로 앞서 <표 V-3-14>를 통해 살펴본 반일제 이상 기관 실제 이용 시간(등하원 시간 미포함)보다 1시간가량 긴 시간 이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취업 여부별로는 취업중인 경우 8시간 54분 이용을 원하여 가장 길었고, 미취업모 가구의 희망 이용시간 7시간 42분보다 1시간 12분가량 길어 차이를 보였다.

▮ 표 V-3-20 ▮ 이용기관 및 모취업여부별 희망 이용시간(등·하원 시간 미포함)

단위: %(%), 시간, 분

구분	어린이집			반일제		모 취업여부별				전체
	전체	맞춤반 아남 ³⁾	맞춤반	유치원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취업	휴직중	미취업	모부재 (이혼, 사망 등)	
5시간까지	1.1	0.7	2.4	3.6	11.0	1.3	2.5	3.5	-	2.4
5-6시간	8.2	7.5	10.6	9.5	26.7	5.6	7.1	13.9	4.6	9.3
6-7시간	21.4	19.4	28.6	21.4	29.6	16.2	21.4	28.2	10.9	21.7
7-8시간	22.7	22.8	22.3	28.4	12.5	20.9	21.6	28.7	15.8	24.3
8-9시간	16.7	17.5	13.9	16.3	7.9	18.8	14.3	13.2	30.5	16.2
9-10시간	11.4	12.1	8.9	7.0	8.0	13.0	7.9	5.9	26.7	9.7
10-11시간	6.4	6.6	5.8	7.0	-	10.0	6.0	2.3	8.5	6.4
11시간 이상	12.2	13.4	7.5	6.8	4.4	14.1	19.2	4.3	2.9	1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53)	(1,380)	(373)	(1,009)	(68)	(1,419)	(135)	(1,241)	(35)	(2,830)
평균	8시간 30분	8시간 42분	8시간 6분	8시간 6분	7시간 6분	8시간 54분	8시간 42분	7시간 42분	8시간 48분	8시간 18분
표준편차	2시간 00분	2시간 00분	1시간 48분	1시간 54분	2시간 6분	2시간 6분	2시간 18분	1시간 30분	1시간 24분	2시간 00분
F		5.7***		37.7***(a)			101.2***(a)			
2015년	8시간 18분	-		7시간 48분	7시간 44분	-	-	-	-	-
2012년	8시간 21분	-		7시간 45분	7시간 7분	-	-	-	-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2세(보육연령) 아동 4명을 포함.

3) 맞춤반 아남: 유아반과 영아반 중 종일반을 의미함.

4) 평균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결과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보육연령 3세 이상 유아의 반일제 이상 기관 희망 이용시간을 살펴본 결과 <표 V-3-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평균적으로 8시간 18분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 전체 대상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이용 기관 유형별로는 어린이집 이용 희망 시간이 8시간 42분으로 가장 길고, 유치원 8시간 6분, 반일제 이상 학원 7시간 6분으로 앞서 <표 V-3-14>를 통해 살펴본 반일제 이상 기관 실제 이용 시간(등하원 시간 미포함)보다 1시간 이상 긴 시간 이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V-3-21 ▣ 이용기관 및 모취업여부별 희망 이용시간(유아)

단위: %(명), 시간, 분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모 취업여부별				전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모부재 (이혼, 사망 등)	
5시간까지	0.4	3.5	10.1	1.6	-	4.0	-	2.6
5-6시간	7.2	9.5	27.7	5.6	7.8	14.2	5.6	9.5
6-7시간	19.5	21.5	30.5	16.7	16.6	26.8	13.2	21.1
7-8시간	24.1	28.4	11.5	21.1	25.9	31.4	19.2	25.8
8-9시간	17.4	16.3	7.5	19.5	18.4	12.1	27.6	16.3
9-10시간	12.8	7.0	9.2	12.0	9.7	6.0	29.1	9.4
10-11시간	6.2	7.0	-	10.3	5.7	1.9	3.5	6.3
11시간 이상	12.4	6.8	3.4	13.0	15.9	3.6	1.8	8.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755)	(1,005)	(58)	(929)	(66)	(795)	(28)	(1,118)
평균	8시간 42분	8시간 6분	7시간 6분	8시간 54분	8시간 48분	7시간 36분	8시간 36분	8시간 18분
표준편차	1시간 54분	1시간 54분	2시간 6분	2시간 6분	2시간 18분	1시간 30분	1시간 24분	2시간
F		35.3***(a)				70.1***(a)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3) 평균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결과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한편, 다음 <표 V-3-22>에는 이용기관별 희망 이용시간과 실제 이용시간의 차이를 제시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반일제 이상 기관 희망 이용시간과 실제 이용시간 간에는 평균 1시간 6분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시간과 실제 이용시간의 격차가 가장 큰 반일제 이상 기관 유형은 어린이집으로 1시간 12분의 차이가 있었다. 즉, 어린이집 이용자들은 이용하고 싶은 시간보다 실제로는 1시간 12분가량 짧게 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밖에 유치원 이용

자는 54분, 영어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도 54분의 '희망-실제 이용시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별 '희망-실제 이용시간 격차'는 어머니가 취업 중인 경우 1시간 12분, 휴직중인 경우 1시간 48분, 미취업중인 경우와 모부재 등의 경우 모두 54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수가 비교적 적은 휴직중인 경우는 일반화하기는 다소 어려운 결과이나,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미취업 상태인 경우에 비해 희망과 실제 이용시간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점은 반일제 이상 기관이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한 돌봄 공백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겠다.

▮ 표 V-3-22 ▮ 이용기관 및 모취업여부별 희망 이용시간-실제 이용시간 차이

단위: %(명), 시간, 분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모 취업여부별				전체
	전체	맞춤반 아남 ³⁾	맞춤반			취업	휴직중	미취업	모부재 (이혼, 사망 등)	
평균	1시간 12분	1시간 12분	1시간 6분	54분	54분	1시간 12분	1시간 48분	54분	54분	1시간 6분
표준편차	1시간 48분	1시간 54분	1시간 42분	1시간 36분	1시간 54분	1시간 48분	2시간 24분	1시간 36분	1시간 12분	1시간 48분
F	0.5(a)			6.7***(a)		16***(a)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53)	(1,380)	(373)	(1,009)	(68)	(1,419)	(135)	(1,241)	(35)	(2,830)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2세(보육연령) 아동 4명을 포함.
 3) 맞춤반 아남: 유아반과 영아반 중 종일반을 의미함.
 4) 평균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결과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표 V-3-23>에는 이용기관별 희망 이용시간과 실제 이용시간 간 차이를 유아에 한정하여 제시하였는데, 유아들의 희망 이용시간과 실제 이용시간 간에는 평균 1시간의 격차가 있어, 영아를 포함한 결과(1시간 6분)에 비하면 격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에 한정하여 희망시간과 실제 이용시간의 격차가 가장 큰 반일제 이상 기관 유형은 어린이집으로 1시간 6분의 차이가 있었으나, 이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전체 대상 결과(1시간 12분)에 비해서는 줄어든 결과이다. 유치원 이용 유아 가구, 영어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유아 가구는 희망 이용시간과 실제 이용시간의 격차가 모두 54분으로 영유아 전체 결과와 동일하였

다. 한편 어머니의 취업 여부별 희망-실제 이용시간 간 격차를 살펴 본 결과, ‘희망-실제 이용시간 격차’는 취업모 가구의 경우 1시간 12분, 휴직중인 경우 1시간 30분, 미취업중인 경우와 모부재 등의 경우 모두 48분으로 나타났다. 사례수가 적은 휴직중인 경우는 일반화하기는 다소 어려운 결과이며,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어머니가 미취업 상태인 경우에 비해 희망과 실제 이용시간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점은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와 동일하였다.

전반적으로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보다 유아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 희망 이용시간과 실제 이용시간의 격차가 적음을 알 수 있다.

▮ 표 V-3-23 ▮ 이용기관 및 모취업여부별 희망 이용시간-실제 이용 시간 차이(유아)

단위: %(명), 시간, 분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모 취업여부별				전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모부재 (이혼, 사망 등)	
평균	1시간 6분	54분	54분	1시간 12분	1시간 30분	48분	48분	1시간
표준편차	1시간 42분	1시간 30분	1시간 48분	1시간 48분	2시간 12분	1시간 30분	1시간 12분	1시간 42분
F		3.3*				8.3***(a)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755)	(1,005)	(58)	(929)	(66)	(795)	(28)	(1,818)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 2) 유치원 이용 아동2세(보육연령) 아동 4명을 제외한 결과임.
- 3)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 4) 평균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결과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01$.

라. 보육·교육기관 등·하원 특성

1) 등·하원 방법 및 소요시간

2018년 보육실태조사에서는 응답대상 영유아들 중 절반가량인 48.6%가 기관 차량을 이용해 등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보호자와 걸어서 가는 경우 30.0%, 가족과 자가용으로 가는 경우 20.4% 순으로 나타났다. 하원도 등원과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하원 시에 기관차량 이용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다. 이는 등원 시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등원한 경우 중 일부가 하원 시에는 기관 차량을 이용해 하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등·하원 방법은 기관차량 이용이나, 이 비율은 등원 기준 2009년 60.5%, 2012년 54.6%, 2015년 53.6%로 지속 감소하여 왔고 2018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2018년에는 가족과 '자가용'을 이용해 등·하원 한다는 비율이 2015년 10.4% 대비 10%p 증가하여 가장 변화가 큰 등·하원 방법이었다. 이는 2015년 이후 기관 등·하원 차량을 운영하지 않는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증가에 기인한 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어린이집의 경우는 이외에도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부모와 함께 등·하원 하는 직장어린이집 이용 증가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V-3-24 이용기관별 등·하원 방법

단위: %(명)

구분	기관차량 이용	가족과 자가용	가족과 대중교통	자녀 혼자 걸어서	보호자와 걸어서	기타	계(수)
등원							
전체	48.6	20.4	0.6	0.5	30.0	-	100.0(2,830)
어린이집	43.4	21.5	0.5	0.4	34.2	-	100.0(1,753)
유치원	54.0	19.8	0.7	0.7	24.8	-	100.0(1,009)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80.2	7.7	-	-	12.1	-	100.0(68)
하원							
전체	49.4	18.1	0.5	0.6	30.3	1.1	100.0(2,830)
어린이집	43.9	20.1	0.6	0.5	34.4	0.5	100.0(1,753)
유치원	55.8	15.7	0.4	0.9	25.1	2.1	100.0(1,009)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77.7	8.8	-	-	13.5	-	100.0(68)
2015년 조사							
등원	53.6	10.4	1.1	1.1	33.6	0.2	100.0(2,535)
하원	54.9	9.1	0.8	1.3	33.6	0.2	100.0(2,535)
2012년 조사							
등원	54.6	10.7	0.4	0.9	33.3	0.2	100.0(2,392)
하원	55.7	9.5	0.7	1.2	32.4	0.5	100.0(2,392)
2009년 조사							
등원	60.5	8.5	0.7	2.3	28.0	-	100.0(2,046)
하원	62.2	7.3	0.9	2.5	27.1	-	100.0(2,04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2세(보육연령) 아동 4명을 포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한편, 기관 유형별로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호자와 걸어서 등원한다는 응답이 34.2%로 유치원(24.8%)에 비해 높았으며, 유치원의 경우에는 기관 차량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54.0%로 높았다. 영어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은 80.2%가 기관 차량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여 기관 차량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 유형이었다.

등원 시 소요 시간은 평균 11.0분으로, 10분 이하인 경우가 70.6%였으며, 11~20분인 경우가 23.0%, 21~30분 5.3%, 31분 이상인 경우 1.1%였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등원 시간이 평균 10.5분으로, 유치원 11.5분이나 영어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15.9분에 비해 짧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어린이집이 영아의 비중이 높고, ‘보호자와 걸어서’ 등·하원 한다는 응답이 다른 기관에 비해 높았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보로 등·하원할 경우 장시간의 도보는 영유아에 부담이 되며, 특히 영아에게는 집과의 거리가 기관 선택의 기준으로 중시되기 때문이다.

하원 시 소요시간은 평균 11.2분으로, 어린이집 10.3분, 유치원 11.5분, 반일제 이상 기관 16.3분으로 등원 시 소요시간과 거의 동일하게 조사되었다. 2015년 조사결과 대비 기관 전체 기준으로 10.5분에서 11.2분으로 소폭 증가하였다¹⁴⁾.

■ 표 V-3-25 ■ 이용기관별 등원 시 소요시간

단위: %(명), 분

구분	10분 이하	11~20분	21~30분	31분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70.6	23.0	5.3	1.1	100.0(2,830)	11.0	7.4	
어린이집	75.6	18.3	4.7	1.4	100.0(1,753)	10.5	7.5	
유치원	65.5	29.0	5.0	0.4	100.0(1,009)	11.5	6.8	31.6*** ^(a)
반일제 이상 기관	37.1	42.9	16.2	3.8	100.0(68)	15.9	8.7	
2015년 조사	76.0	18.5	4.7	0.9	100.0(2,535)	10.5	7.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2세(보육연령) 아동 4명을 포함.

3) 평균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결과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14) <부표 V-3-1> 이용기관별 하원 시 소요시간 참조

2) 이용기관별 등·하원 시 정보교류 정도와 교사 동승 여부

등·하원시 원장 혹은 교사와 아이에 대한 개별 사항 또는 기관 이용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어느 정도 교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일 교류한다는 응답이 48.3%였으며, 주 1~2회 정도 한다는 응답이 30.5%, 월 1~2회 정도만 한다는 의견이 12.5%, 전혀 안한다는 응답은 8.7%였다. 2015년 조사 당시에 비해 ‘매일’ 정보 교류를 한다는 비율이 44.7%에서 3.6%p 상승하였으나, 전혀 안한다는 비율도 7.5%에서 8.7%로 증가하였다. 매일 정보 교류를 한다는 비율은 어린이집이 가장 높아 53.7%로 응답되었고, 유치원 39.8%, 영어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38.8%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교류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어린이집이 6.5%로 가장 낮았고, 유치원 12.3%, 반일제 이상 학원 10.7%로 유치원이 가장 높았다.

▣ 표 V-3-26 ▣ 등하원 시 교사나 원장과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관련 정보 나눔 정도

단위: %(명)

구분	매일	주1~2회	월1~2회	전혀 안함	계(수)
전체	48.3	30.5	12.5	8.7	100.0(2,821)
어린이집	53.7	30.0	9.8	6.5	100.0(1,749)
유치원	39.8	31.4	16.4	12.3	100.0(1,004)
반일제 이상 기관	38.8	31.6	19.0	10.7	100.0(68)
2015년 조사	44.7	34.5	13.3	7.5	100.0(2,51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2세(보육연령) 아동 4명을 포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기관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원 한다고 응답한 경우 교직원이 동승하는지에 대해서는 등·하원 시 모두 동승한다는 응답이 98.0%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직원이 동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교직원이 동승한다는 비중이 98.8%로 가장 높고, 반일제 이상 학원 98.3%, 유치원 96.8%로 유치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15년 대비 ‘등·하원시 모두 동승한다’는 비율이 97.0%에서 98.0%로 증가하였다.

표 V-3-27 | 이용기관별 등·하원 차량 교직원 동승 여부

단위: %(명)

구분	등·하원시 모두 동승	등원시 동승	하원시 동승	동승하지 않음	모름	계(수)
전체	98.0	0.4	0.5	-	1.2	100.0(1,537)
어린이집	98.8	0.3	0.4	-	0.6	100.0(876)
유치원	96.8	0.5	0.7	-	1.9	100.0(607)
반일제 이상 기관	98.3	-	-	-	1.7	100.0(54)
2015년 조사	97.0	0.6	1.0	0.2	1.3	100.0(1,566)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4 보육·교육기관 이용 비용

본 절에서는 영유아 가구가 보육·교육기관 이용에 지출한 비용을 제시하였다. 보육·교육기관 이용비용은 영유아의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학원 등 보육·교육 기관 이용에 지출한 월평균 비용으로, ‘기관’ 이용비용만이 포함되어 있고 영유아를 위한 개인양육서비스 이용비용이나 학습지 등의 교육서비스 이용비용 등 기타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이 비용은 기관 이용 영유아 전체에 대한 이용비용과 비용을 지불하는 영유아에 한정된 지불액 등 두 가지 형태를 산출, 제시하였다.

가. 월평균 보육·교육비 지불액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산출한 보육·교육기관 이용비용은 월평균 149,600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3.4%에 해당하였다. 월평균 이용비용 96,400원에 가구소득 대비 2.7%에 해당하였던 2015년 조사결과에 비해 5만 3,200원이 증가하고 가구소득 대비 비율도 0.7%p 증가한 결과로 영유아를 위한 기관보육교육 기관 이용 부담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비용을 지불한다고 응답한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월 평균 보육교육기관 이용비용 지불액이 170,200원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산출한 지출액 보다 20,600원이 높았으며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3.8%에 해당하였다. 비용 지불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한 보육교육기관 비용 지불액도

2015년 117,000원, 가구소득 대비 3.3%에 비해 역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을 연령별로 살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반일제 이상 기관에 지불하는 보육·교육비용은 증가하고 가구소득 대비 비율도 상승하여 자녀의 연령이 증가하면 가구의 보육·교육비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연령에 따른 보육·교육비 지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비용을 지불하는 영유아를 기준으로 0세는 보육·교육기관 이용비용이 39,800원(가구소득 대비 1.1%)로 절대 비용 수준과 가구소득 대비 비율이 매우 낮았으나, 1세 56,900원(가구소득 대비 1.4%), 2세 81,300원(2.0%), 3세 190,900원(4.2%), 4세 209,700원(4.8%), 5세 233,600원(5.1%)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였다.

거주지역 규모에 따라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이용에 지출하는 비용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지불 영유아를 기준으로 대도시지역의 영유아는 204,400원을 지출하며(가구소득 대비 4.4%), 중소도시지역은 171,200원(가구소득 대비 3.8%), 읍면지역 85,400원(가구소득 대비 2.5%)을 지불하고 있어, 도시지역 거주 영유아 가구의 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용지불 영유아를 기준으로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어머니가 취업 중인 경우 보육·교육기관 이용비용이 186,000원으로 가장 높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미취업중인 경우 155,400원, 휴직중인 경우 149,100원, 어머니가 부재한 경우 136,2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절대 비용은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었으나,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어머니가 부재한 경우, 미취업 중인 경우가 가장 높아서(비용 지불영유아 기준 미취업 4.2%, 모부재 등 4.2%) 어머니 미취업 가구, 모 부재 가구의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이용비용의 부담이 취업모 가구나(가구소득 대비 3.5%) 휴직모 가구에(가구소득 대비 3.2%) 비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보다 미취업 상태인 경우 보육·교육비 부담이 더 높은 것은 2015년과 동일한 경향이나, 휴직중인 경우의 지출비용 부담은 2015년에는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18년에는 가장 낮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

나 차이를 보였다.

가구 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199만원 이하인 경우 86,900원을 지불하여 가구 소득 대비 비율이 6.9%에 달하였고, 비용 지불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경우 107,200원, 가구소득 대비 8.6%에 달하여 가구소득 대비 부담이 가장 큰 소득계층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소득 35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보육·교육비 지출액의 절대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가구소득 300~349만원의 소득계층에서 지출액은 250~299만원 소득계층에 비해 급증하며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199만원 이하 소득계층 다음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가구소득에 따른 보육·교육비 지출액 수준과 가구소득 대비 비율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면, 영유아 가구에서 지출하는 보육·교육비 지출액의 절대액 수준은 가구소득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거나, 가구소득 대비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가구소득 349만원 이하 가구에서 350만원 이상 가구에 비해 높아 저소득 가구의 보육·교육비 부담을 시사하였다.

이용 기관 유형별로는 반일제 이상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 733,900원을 지불하여 지출 비용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영유아가구의 소득 중 12.8%에 달하였다. 그외 유치원 이용 시 238,800원(가구소득 대비 5.4%), 어린이집 이용 시 61,000원(가구소득 대비 1.6%)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가구소득에서 보육·교육비 지출액의 부담 수준이 증가한 경향을 보여, 영유아 가구의 보육·교육비 부담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최하위 소득계층 가구의 보육·교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점은 2015년에 이어 동일한 경향성이며, 오히려 가구소득이 높은 계층의 가구소득 대비 비율이 낮은 경향도 지속되고 있어 저소득 가구의 보육·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별적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 표 V-4-1 ▮ 영유아 월 보육·교육 비용 지불액 평균

단위: 천원(명), %

구분	전체 영유아				비용 지불 영유아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소득 대비비율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소득 대비비율
전체	149.6	198.1	(2,830)	3.4	170.2	202.9	(2,481)	3.8
보육연령 0세	11.9	29.7	(118)	0.3	39.8	43.2	(38)	1.1

구분	전체 영유아				비용 지불 영유아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소득 대비비율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소득 대비비율
1세	39.9	60.6	(389)	0.9	56.9	65.4	(271)	1.4
2세	71.5	84.3	(505)	1.8	81.3	85.4	(446)	2.0
3세	183.8	214.0	(630)	4.1	190.9	215.0	(605)	4.2
4세	198.3	213.5	(532)	4.5	209.7	214.0	(498)	4.8
5세	222.1	235.9	(656)	4.8	233.6	236.3	(623)	5.1
F		93.2***(a)		83.6***(a)		62***(a)		53.6***(a)
지역규모								
대도시	181.2	229.5	(1,010)	3.9	204.4	233.8	(896)	4.4
중소도시	149.3	188.6	(862)	3.3	171.2	192.5	(747)	3.8
읍·면	74.9	93.6	(958)	2.2	85.4	95.3	(838)	2.5
F		51***(a)		26.2***(a)		53.9***(a)		27***(a)
모취업 여부								
취업	163.5	222.0	(1,437)	3.1	186.0	227.7	(1,246)	3.5
휴직중	124.1	172.9	(141)	2.7	149.1	179.5	(114)	3.2
미취업	137.1	170.2	(1,269)	3.7	155.4	173.2	(1,088)	4.2
모부재 등	124.4	143.0	(27)	3.8	136.2	144.2	(33)	4.2
F		5***(a)		5.8***(a)		5.2***(a)		5.5***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86.9	151.4	(97)	6.9	107.2	161.7	(78)	8.6
200~249만원	68.0	84.0	(170)	3.3	80.3	85.7	(146)	3.8
250~299만원	102.3	113.8	(201)	3.9	120.0	114.3	(167)	4.6
300~349만원	125.6	159.4	(406)	4.1	143.4	162.7	(356)	4.6
350~399만원	111.4	110.4	(245)	3.1	127.9	109.0	(214)	3.5
400~499만원	131.3	141.5	(562)	3.1	143.6	141.9	(511)	3.4
500~599만원	164.8	210.9	(485)	3.2	191.0	215.8	(417)	3.7
600~699만원	179.1	220.9	(279)	2.9	205.0	224.8	(245)	3.3
700만원 이상	243.1	304.2	(374)	2.7	270.4	309.2	(336)	3.1
모름/무응답	82.8	73.0	(11)	-	82.8	73.0	(11)	-
F		19.8***(a)		10.7***(a)		20.3***(a)		14.4***(a)
이용기관 유형								
어린이집	61.0	50.5	(1,753)	1.6	73.8	46.3	(1,454)	1.9
유치원	238.8	192.3	(1,009)	5.4	249.6	189.6	(959)	5.6
반일제 이상 기관 (영아학원 등)	733.9	327.0	(68)	12.8	733.9	327.0	(68)	12.8
F		1582.6***(a)		741.8***(a)		1378.7***(a)		614.4***(a)
2015년 조사	96.4	114.2	(2,284)	2.7	117.0	115.9	(1,796)	3.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2세(보육연령) 아동 4명을 포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한편 보육연령 3세 이상 유아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보육·교육기관 이용비용은 월평균 202,600원이며 가구소득 대비 4.5%에 해당하여,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월평균 지출 비용 149,600원(가구소득 대비 3.4%) 보다 높았다. 즉, 유아들이 영아보다 보육·교육기관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아들의 이용 기관 유형에 따른 지출 비용을 살펴본 결과, 어린이집과 영어학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이 영유아 전체 대상 결과에 비해 모두 상승하여 동일한 기관 유형이라도 유아반 비용이 영아반 비용 보다 높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유아들이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반일제 이상 기관은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으로 769,600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유아 가구소득 중 13.4%에 해당하였다. 다음으로 유치원 238,800원(가구소득 대비 5.4%), 어린이집 81,200원(가구소득 대비 2.1%) 순으로 나타났다. 비용 지불 유아에 한정할 경우 어린이집 86,200원(가구소득 대비 2.3%), 유치원 249,700원(가구소득 대비 5.7%)로 다소 증가하였다.

▣ 표 V-4-2 ▣ 유아의 월 보육·교육 비용 지불액 평균

단위: 천원(명), %

구분	전체 유아				비용 지불 유아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소득 대비비율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소득 대비비율
전체	202.6	222.9	(1,818)	4.5	212.5	223.7	(1,726)	4.7
이용기관 유형								
어린이집	81.2	52.7	(755)	2.1	86.2	50.2	(713)	2.3
유치원	238.8	192.3	(1,005)	5.4	249.7	189.6	(955)	5.7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등)	769.6	322.2	(58)	13.4	769.6	322.2	(58)	13.4
F		807.9*** ^(a)		337.5*** ^(a)		802.9*** ^(a)		328.9*** ^(a)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다음으로 보육료·교육비 분포를 ‘순보육·교육비’와 순보육·교육비 외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급간식비, 차량운행비 등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2018년 영유아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에 지출한 총 보육·교육비 지출액은 평균 5~10만원인 경우가 22.6%로 가장 많았으며 1~5만

원 22.3%, 안내는 경우(무료) 12.1%, 10~15만원 11.2% 순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15만원 미만의 보육료·교육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경향은 2015년도 조사결과와 유사하였다. 부대비용을 제외한 순보육·교육비 지출액 수준은 안내는 경우가 가장 많아서 62.5%에 달하였고, 1~5만원 7.0%, 10~15만원 6.6%, 5~10만원 5.6% 순이었다.

이러한 지출액 수준은 이용 기관별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우선 총 비용 기준으로 어린이집 이용자의 경우 5~10만원이 3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부대비용 포함 전혀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경우도 17.4%로 유치원 4.3%, 반일제 이상 학원 0%에 비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현저히 많았다. 유치원의 경우 40만원 수준의 총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16.5%로 가장 많았으나, 1~5만원 15.9%, 20~25만원 14.3%, 25~30만원 지불한다는 경우가 12.7%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린이집에 비해 유치원은 유치원간 비용 격차가 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가 이용하는 기관 중 영어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은 40만원 이상 지불한다는 응답이 84.1%로 가장 고비용의 반일제 이상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은 총비용이 평균 61,000원 소요되나, 유치원은 233,800원, 반일제 이상 학원은 733,900원으로 기관별로 비용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15년에 이어 지속되고 있다.

▣ 표 V-4-3 ▣ 이용 기관별 보육료·교육비 분포

단위: %(명), 천원

구분	총 비용				순보육·교육비용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전체
				2018	2015				
안녕	17.4	4.3	-	12.1	15.3	89.9	22.3	-	62.5
1~5만원	27.4	15.9	-	22.3	17.8	6.5	8.5	-	7.0
5~10만원	33.2	6.9	-	22.6	21.2	3.1	10.6	-	5.6
10~15만원	14.9	6.0	-	11.2	14.0	0.6	17.3	2.8	6.6
15~20만원	5.8	7.9	2.6	6.4	8.3	-	12.5	2.6	4.5
20~25만원	0.8	14.3	1.4	5.6	4.6	-	10.9	2.7	4.0
25~30만원	0.3	12.7	3.5	4.8	1.9	-	4.6	3.3	1.7
30~35만원	0.1	8.7	3.1	3.3	0.6	-	6.8	3.4	2.6
35~40만원	-	6.9	5.3	2.6	0.6	-	1.7	5.6	0.8
40만원 이상	-	16.5	84.1	9.0	2.4	-	4.8	79.5	4.7

구분	총 비용					순보육·교육비용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전체
				2018	2015				
(평균)	61.0	238.8	733.9	149.6	96.4	4.3	135.7	619.5	7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53)	(1,009)	(68)	(2,830)	(2,284)	(1,753)	(1,009)	(68)	(2,83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2세(보육연령) 아동 4명을 포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이 같은 이용 기관별 보육료·교육비 분포를 보육연령 3세 이상 유아에 한정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V-4-4>에 제시된 바와 같다. 2018년 유아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에 지출한 총 보육·교육비 지출액은 평균 5~10만원인 경우가 18.8%로 가장 많았으나 영유아 전체 대상에서의 5~10만원 지출하는 비중인 22.6%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며, 1~5만원 18.2%, 40만원 이상 13.6%, 10~15만원 10.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육료·교육비를 내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4.7%로 영유아 전체에서의 ‘안냄’ 응답 비율 12.1%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반면 40만원 이상의 고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경우는 13.6%로 영유아 전체 대상의 비율 9.0%에 비해 높아 전반적으로 영아에 비해 유아의 보육료·교육비 지출이 높은 경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출액 수준은 이용 기관별로 차이가 뚜렷하였으며,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총 비용 기준으로 어린이집 이용자의 경우 5~10만원이 3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5만원 23.7%, 10~15만원 19.1% 순이며 비용을 내지 않는 경우도 5.7%로 어린이집 이용 유아의 85.9%가 총 비용 15만원 이내로 지출하고 있었으며 30만원 이상을 지출한다는 응답은 없었다. 반면 유치원 이용 유아의 경우 40만원 수준의 총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16.5%로 가장 많고, 15만원 미만 지출한다는 응답은 33.1%로 어린이집 이용 유아와 큰 차이를 보였다. 영어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유아의 경우 40만원 이상 지불한다는 응답이 88.8%로 유아에 한정하여도 가장 고비용의 반일제 이상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아가 이용하는 반일제 이상 기관별로 비용의 편차가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4-4 | 이용 기관별 보육료·교육비 분포(유아)

단위: %(명), 천원

구분	총 비용				순보육·교육비용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전체
안녕	5.7	4.3	-	4.7	76.3	22.2	-	42.9
1~5만원	23.7	15.9	-	18.2	15.2	8.5	-	10.8
5~10만원	37.4	6.9	-	18.8	7.1	10.6	-	8.7
10~15만원	19.1	6.0	-	10.9	1.4	17.3	3.2	10.2
15~20만원	11.7	7.9	1.6	9.1	-	12.5	1.6	6.9
20~25만원	1.7	14.3	-	8.5	-	10.9	1.5	6.0
25~30만원	0.6	12.7	1.5	7.3	-	4.6	1.3	2.6
30~35만원	-	8.7	3.5	4.9	-	6.9	3.9	3.9
35~40만원	-	6.8	4.6	4.0	-	1.7	4.9	1.2
40만원 이상	-	16.5	88.8	13.6	-	4.8	83.6	6.9
(평균)	81.2	238.8	769.6	202.6	10.0	135.6	644.3	11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755)	(1,005)	(58)	(1,818)	(749)	(1,017)	(95)	(1,86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나. 월평균 보육·교육비의 가구소득 대비 비율

한편 이용기관별로 월평균 총보육·교육비, 순보육·교육비, 추가비용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총비용 기준으로 가구소득 대비 비율을 파악하였다.

먼저 총비용은 전체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영유아가 월평균 149,600원을 지출하여, 이중 순보육·교육비는 74,200원, 특별활동비/방과후과정 특성화 활동비, 급간식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등 추가 비용은 75,400원으로 나타났다. 총보육·교육비는 가구소득 대비 3.4%에 해당하였다.

총비용은 어린이집이 61,000원, 유치원 238,800원, 영어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733,900원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 가장 적은 비용이 소요되었고, 순보육·교육비는 어린이집 4,300원, 유치원은 135,700원, 영어학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 619,500원이었다. 보육료·유아학비가 지원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차액 보육료 개념인 순보육·교육비의 비중이 낮고,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총비용 중 순보육·교육비는 약 7%에 불과하였으나, 영어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의 경우는 총비용에서 순보육·교육비 비중이 매우 높은(84.4%)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구 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은 전체 3.4%였으며, 어린이집 1.6%, 유치원 5.4%, 영어학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 12.8%로 어린이집 이용 시의 부담이 가장 적은 것

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총보육·교육비 지출의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2015년 1.9%보다도 감소하였으며, 유치원 총보육·교육비 지출의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2015년 3.5%에서 증가하였다. 영어학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의 경우도 2015년 보다 가구소득 대비 지출액 비율이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보육연령 3세 이상 유아만 선별하여 분석한 결과, 총비용은 전체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영유아가 월평균 202,600원을 지출하며, 이중 순보육·교육비는 111,100원, 특별활동비/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비, 급간식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등 추가 비용은 91,500원이며, 총보육·교육비는 가구소득 대비 4.5%에 해당하였다.

▮ 표 V-4-5 ▮ 이용 기관별 월평균 보육료·교육비 및 가구소득 대비 비율(평균)

단위: 천원(명), %

구분	전체 비용(A)	순보육·교육비(B)	추가비용(A-B)	(수)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2018년(전연령)					
전체	149.6	74.2	75.4	(2,830)	3.4
어린이집	61.0	4.3	56.7	(1,753)	1.6
유치원	238.8	135.7	103.1	(1,009)	5.4
반일제 이상 기관	733.9	619.5	114.4	(68)	12.8
F	1582.6***(a)	2260.2***(a)	133.4***(a)		
2018년(유아선별)					
전체	202.6	111.1	91.5	(1,818)	4.5
어린이집	81.2	10.0	71.3	(755)	2.1
유치원	238.8	135.6	103.3	(1,005)	5.4
반일제 이상 기관	769.6	644.3	125.3	(58)	13.4
F	8079***(a)	1205.2***(a)	35.8***(a)		
2015년(전연령)					
전체	96.4	32.7	63.7	(2,284)	2.7
어린이집	61.5	4.5	57.0	(1,497)	1.9
유치원	130.3	56.7	73.6	(749)	3.5
반일제학원	560.5	479.2	81.2	(22)	11.2
기타 기관	249.3	171.3	78.0	(16)	6.4
F	528.9***	763.7***	43.6***		
2012년(전연령)					
전체	161.7	78.9	82.7	(2,392)	5.0
어린이집	88.8	24.8	63.9	(1,536)	3.5
유치원	193.8	86.9	106.9	(744)	6.0
반일제학원	832.3	677.9	154.4	(92)	13.8
기타 기관	348.3	270.7	77.5	(20)	9.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2세(보육연령) 아동 4명을 포함.
 3)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다. 항목별 월평균 추가 비용

다음으로 추가 비용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아동을 기준으로 특별(특기)활동 교육비는 월평균 50,100원, 교재비 6,000원, 급간식비 4,900원, 현장학습비·행사비가 6,600원, 차량운행비 4,600원, 방과후과정비 2,400원, 시도특성화비 500원이었다. 거의 모든 항목에서 기관 유형 중 어린이집이 추가 비용 수준이 가장 낮았으나, 현장학습비·행사비는 6,700원으로 다른 기관 유형에 비해 다소 높았다. 유치원의 경우 특성화활동 교육비 비용이 다른 기관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66,800원이었으며, 방과후과정비는 6,700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학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은 교재비가 19,700원, 급간식비가 17,300원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의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을 지불하는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비용을 산출해본 결과, 특별(특기)활동 교육비는 69,600원, 교재비 36,800원, 급간식비 29,800원, 현장학습비·행사비 19,600원, 차량운행비 23,600원, 방과후 과정비 56,800원, 시도 특성화비 28,100원 등으로 조사됐다.

2015년 조사결과 대비 2018년에는 비용 지불 아동을 기준으로 특별(특기)활동 교육비, 교재비, 차량운행비, 방과후과정비는 증가하였고, 급간식비, 현장학습비, 시도특성화비, 기타 등의 비용은 다소 감소하였다.

표 V-4-6 이용 기관별 항목별 월평균 추가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특별(특기) 활동교육비	교재비	급간식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방과후 과정비	시도 특성화비
전체아동							
전체	50.1	6.0	4.9	6.6	4.6	2.4	0.5
어린이집	39.7	3.3	2.1	6.7	3.8	-	0.8
유치원	66.8	9.1	8.4	6.5	5.3	6.7	-
반일제 이상 기관	61.6	19.7	17.3	6.1	9.3	-	-
F	74.9***(a)	56.2***(a)	115.8***(a)	0.2(a)	16.1***(a)	90.6***(a)	11.3***(a)
(수)	(2,830)	(2,830)	(2,830)	(2,830)	(2,830)	(2,830)	(2,830)
2015년(전체)	36.7	4.4	5.5	7.4	4.9	2.0	2.2
비용지불 아동							
전체	69.6	36.8	29.8	19.6	23.6	56.8	28.1
어린이집	56.4	24.7	19.6	18.0	21.4	-	28.1

구분	특별(특기) 활동교육비	교재비	급간식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방과후 과정비	시도 특성화비
유치원	83.5	47.8	33.0	22.0	24.7	56.8	-
반일제 이상 기관	238.9	54.5	69.3	42.9	41.6	-	-
F	207.1***(a)	30.4***(a)	97.7***(a)	35.1***(a)	26.7***(a)	-	-
(수)	(2,060)	(473)	(452)	(939)	(531)	(109)	(42)
2015년(전체)	63.5	29.5	30.3	20.4	19.7	42.3	33.7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2세(보육연령) 아동 4명을 포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유아에 한정하여 추가 비용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 본 결과는 <표 V-4-7>에 제시되었다.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전체 유아를 기준으로 특별(특기)활동 교육비는 월평균 60,400원, 교재비 7,600원, 급간식비 6,600원, 현장학습비·행사비가 7,200원, 차량운행비 5,200원, 방과후 과정비 3,700원, 시도특성화비 500원, 기타 400원 이었다. 거의 모든 항목에서 어린이집의 추가 비용 수준이 유치원, 영어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보다 낮았으나, 현장학습비·행사비는 8,300원으로 다른 기관 유형에 비해 다소 높았다. 영어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은 특별활동 교육비 비용이 67,600원, 교재비 20,900원, 급간식비 19,200원, 차량운행비 10,200원으로 해당 항목에 대해 다른 기관에 비해 가장 높았다.

비용지불 유아만을 대상으로 비용을 산출해본 결과, 특별(특기)활동 교육비는 76,400원, 교재비 40,000원, 급간식비 32,500원, 현장학습비·행사비 20,800원, 차량운행비 24,400원, 방과후과정비 56,800원, 시도 특성화비 29,100원 등으로 비용 지불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보다 모든 항목에서 비용이 상승한 결과를 보였다. 즉, 각종 추가 비용에 있어서도 영아반 보다 유아반의 지출 비용이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V-4-7 | 이용 기관별 항목별 월평균 추가 비용(유아)

단위: 천원(명)

구분	특별(특기) 활동교육비	교재비	급간식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방과후 과정비	시도 특성화비	기타
전체유아								
전체	60.4	7.6	6.6	7.2	5.2	3.7	0.5	0.4
어린이집	50.6	3.8	2.5	8.3	4.5	-	1.2	0.5
유치원	66.9	9.1	8.4	6.5	5.3	6.8	-	0.3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67.6	20.9	19.2	7.1	10.2	-	-	0.3
F	13.9***(a)	28.8***(a)	59.7***(a)	4.1*(a)	9.5***(a)	41.2***(a)	16.9***(a)	1.0(a)
(수)	(1,818)	(1,818)	(1,818)	(1,818)	(1,818)	(1,818)	(1,818)	(1,818)
비용지불 유아								
전체	76.4	40.0	32.5	20.8	24.4	56.8	29.1	26.7
어린이집	60.1	22.8	20.0	18.6	21.3	-	29.1	25.9
유치원	83.6	47.8	33.0	22.0	24.7	56.8	-	29.3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239.8	58.4	74.2	42.9	42.3	-	-	20.0
F	124.8***(a)	22.1***(a)	75.2***(a)	24.0***(a)	19.8***(a)	-	-	0.6(a)
(수)	(1,450)	(344)	(352)	(631)	(378)	(109)	(26)	(19)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01$.

추가비용 중 영유아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입소 시 지불하는 1회성 비용으로 입학(준비)금을 별도로 지불한 경우의 비용을 응답하도록 하였던 데, 전체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아동 중 26.0%는 이러한 입학(준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입학(준비)금을 5~10만원 지불한 경우가 28.1%로 가장 많았고, 5만원 미만 지불 18.0%, 10~15만원 미만 지불 17.5%로 응답되었다. 입학(준비)금이 없는 경우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은 15만원 미만을 입학(준비)금으로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입학(준비)금을 납부하였다고 응답한 74%의 비용 지불 아동이 지불한 평균 입소 비용은 94,000원이었으며, 반일제 이상 기관 유형별로 입소비용을 살펴 본 결과 영어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자가 지불한 입소비용이 가장 높았으며(218,000원), 유치원 136,900원, 어린이집 60,700원 순이었다.

한편 보육연령 3세 이상 유아만을 대상으로 기관 입소비용을 살펴본 결과, 입소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25.0%로 전체 영유아 대비 다소 감소한 결

과를 보였고, 전체 유아 대상 입소 비용 평균은 82,500원이며, 비용지불 유아 평균 입소 비용은 110,300원으로 전체 영유아 대비 유아반 이용아동이 높은 입소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 유아는 비용 지출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58,800원을 지출하여 전체 영유아 대상 지출 비용 60,700원보다 다소 낮은 결과를 보였다.

▣ 표 V-4-8 ▣ 제 특성별 기관 이용 영유아 기관 입소 비용(입학준비금, 입학금)

단위: 천원(명), %

구분	없음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15만원 미만	15~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수)	전체평균 (표준편차)	비용지불아동 평균	
(전연령)											
전체	26.0	18.0	28.1	17.5	2.6	7.3	0.5	(2,830)	69.5	106.8	94.0
이용 기관유형											
어린이집	26.3	20.6	35.4	17.0	0.8	-	-	(1,753)	44.8	38.2	60.7
유치원	26.5	15.4	17.6	18.5	4.4	16.4	1.3	(1,009)	100.1	152.4	136.9
반일제 이상 기관	16.4	1.5	10.7	15.1	15.8	40.6	-	(68)	182.2	175.7	218.0
F									166.1*** ^(a)	187.3*** ^(a)	
(유아)											
전체	25.0	17.3	26.0	16.3	3.6	11.2	0.7	(1,818)	82.5	127.6	110.3
이용 기관유형											
어린이집	24.4	21.9	39.4	13.4	1.0	-	-	(755)	44.4	36.6	58.8
유치원	26.4	15.4	17.6	18.5	4.4	16.4	1.3	(1,005)	100.3	152.5	137.0
반일제 이상 기관	14.6	1.7	10.8	14.8	15.0	43.1	-	(58)	194.3	182.9	227.6
F									87.0*** ^(a)	95.7*** ^(a)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전연령: 유치원 이용 아동2세(보육연령) 아동 4명을 포함.

3)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라. 보육료·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및 비용 부담 의사

1) 보육료·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가구 생활수준에 비추어 영유아 자녀를 위해 매월 보육·교육기관에 내고 있는 보육료·교육비가 얼마나 부담되는지 응답하도록 한 결과, 적당하다는 응답이 38.5%로 가장 높았으나, 부담된다는 응답도 30.3%(매우 부담 4.4%+부담 25.9%)로 적지 않은 수준으로 응답되었다. 그러나, 이전 조사와 비교 시, 부담된다(매우 부담+부담)는 응답은 2009년 64.2%, 2012년 44.0%, 2015년 35.2%, 2018년 30.3%로

지속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적당+ 부담 안됨+전혀 부담 안됨)이 2009년 35.9%, 2012년 56.1%, 2015년 64.8%, 2018년에는 69.7%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영유아가 다니고 있는 기관 유형별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가 보육료·교육비 부담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교육비가 부담된다(매우 부담+부담)는 응답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20.6%였으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42.5%,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의 경우는 71.1%로 이용 기관별 비용 부담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어학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부담이 안된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하였다. ‘부담이 안된다’(전혀 부담안됨+부담안됨)는 응답은 2009년 조사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 23.5%로 줄어들었으나, 2018년에는 31.2%로 2012년 수준에는 못 미치나 2015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다.

보육연령 3세 이상의 유아에 한정하여 생활수준에 비춘 보육·교육비 부담 정도를 살펴본 결과, 부담된다(매우 부담+부담)는 응답 비율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가장 낮아 27.8%에 해당하였고, 유치원 이용의 경우 42.4%, 영어학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시 71.0%로 기관별 차이를 보였으며 전체 영유아 대상 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표 V-4-9 생활수준에 비춘 보육료·교육비 부담 인식

구분	단위: %(명)					계(수)
	매우 부담	부담	적당	부담안됨	전혀 부담 안됨	
전체	4.4	25.9	38.5	14.6	16.6	100.0(2,830)
이용 기관유형(전연령)						
어린이집	2.3	18.3	44.7	16.2	18.5	100.0(1,753)
유치원	7.5	35.0	29.0	13.3	15.3	100.0(1,009)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8.8	62.3	27.4	1.5	-	100.0(68)
$\chi^2(df)/F$	255.0(8)***					
이용 기관유형(유아)						
어린이집	3.3	24.5	45.1	15.2	12.0	100.0(755)
유치원	7.5	34.9	29.0	13.3	15.2	100.0(1,005)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8.7	62.3	27.4	1.7	-	100.0(58)
$\chi^2(df)/F$	117.4(8)***					
2015년 조사(전연령)	4.9	30.3	41.3	13.8	9.7	100.0(2,535)

구분	매우 부담	부담	적당	부담안됨	전혀 부담 안됨	계(수)
2012년 조사(전연령)	8.1	35.9	22.9	22.9	10.3	100.0(2,138)
2009년 조사(전연령)	17.7	46.5	20.1	9.7	6.0	100.0(1,910)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전체 영유아 대상 결과는 유치원 이용 아동2세(보육연령) 아동 4명을 포함.
 3)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4) 유아 대상 결과는 보육연령 3세 이상 기준으로 보육연령 2세인 유치원 이용 아동 제외된 결과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2) 보육·교육비 부담 의사

보육·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이 이전 년도 조사에 비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비용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보육·교육 기관에 보낼 의향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V-4-10>에 따르면 응답 대상자의 67.4%가 정부의 보육료·교육비 비용 지원이 없어도 보육·교육기관에 보내겠다고 응답하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6.5%, 비용 지원을 받지 않으면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16.1%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용 기관유형에 따라서는 영어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자가 비용지원 없어도 보육·교육 기관을 보내겠다는 의사가 87.9%로 가장 높고, 유치원 이용자의 71.5%, 어린이집 이용자의 63.7% 순으로 응답되었다.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자가 비용지원이 없어도 지속하여 기관을 이용할 의사가 높은 결과는 이러한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현재도 정부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비용 지원이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의 주요 선택 이유가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 표 V-4-10 ▮ 정부의 비용 지원 없어도 보육·교육기관에 보낼 의향 여부

단위: %(명), 천원

구분	있음	없음	잘 모르겠다	계(수)
전체	67.4	16.1	16.5	100.0(2,830)
이용 기관유형				
어린이집	63.7	17.6	18.8	100.0(1,753)
유치원	71.5	15.1	13.4	100.0(1,009)
반일제 이상 기관(영어학원 등)	87.9	2.7	9.4	100.0(68)
χ^2 (df)		43.0(4)***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2세(보육연령) 아동 4명을 포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한편 더 좋은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있다면, 비용을 더 많이 내더라도 이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40.5%, 없다는 응답이 59.5%로 나타났다. 2009년(26.6%), 2012년(23.5%), 2015년(29.6%) 조사 시에 비해 추가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증가한 결과로,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의 수요자들이 저렴한 비용만이 아니라 서비스 질을 점점 중시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자녀가 이용하는 보육·교육기관의 질적 개선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평균적으로 월 최고 114,400원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추가 부담 의사가 있는 비용은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500,000원까지 응답되었다. 다만, 추가 부담 의사가 있는 사례들이 추가 부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금액 수준은 2009년 수준(109,600원)보다는 다소 높으나 2012년(165,300원), 2015년(118,500원) 보다는 감소하였다. 이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추가 부담 의사 있는 집단이 확대됨에 따라 고소득 계층 등 일부 집단에 집중되었던 이전년도 결과에 비해 평균적인 추가 부담 가능 비용 수준은 평균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그간 보육·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서, 이전에 비해 질적 수준 개선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수준이 이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보육·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의사와 추가 부담 가능한 비용 수준은 영유아 가구의 소득수준과 서비스 질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수준, 현재 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 기관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응답이 42.5%로, 유치원(35.7%)에 다니는 경우에 비해 추가 비용 부담 의향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영어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을 다니는 경우 추가부담 의사는 54.3%로 가장 높았다.

추가 부담 가능한 비용 수준은 어린이집 이용자 106,500원, 유치원 이용자 116,500원으로 유치원 이용 시 1만원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반일제 이상 학원에 다니는 경우 평균 추가 부담 가능 비용은 199,900원으로 매우 높았다.

표 V-4-11 | 질적 수준 개선에 따른 비용 추가부담 의사 및 최대 추가부담 가능 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추가비용 부담 의사			추가 부담의사가 있는 경우 비용				
	있다	없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전체	40.5	59.5	100.0(2,830)	114.4	98.2	10.0	500.0	(1,144)
이용 기관유형								
어린이집	42.5	57.5	100.0(1,753)	106.5	95.4	10.0	500.0	(755)
유치원	35.7	64.3	100.0(1,009)	116.5	88.0	15.0	500.0	(355)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54.3	45.7	100.0(68)	199.9	142.7	50.0	500.0	(34)
χ^2 (df)/F	20.7(2)***			26.1***(a)				
2015년 조사	29.6	70.4	100.0(2,535)	118.5	105.9	5.0	600.0	(712)
2012년 조사	23.5	76.5	100.0(2,392)	165.3	116.4	30.0	700.0	(556)
2009년 조사	26.6	73.4	100.0(2,050)	109.6	96.6	10.0	900.0	(546)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2세(보육연령) 아동 4명을 포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5 보육·교육기관 제공 서비스

본 절에서는 각 기관유형별 서비스 제공 실태 및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가. 이용기관별 부모서비스 제공 여부 및 주기

보육교육계획, 급간식 식단, 가정통신문, 발달평가, 부모상담, 부모교육자료, 부모참여 프로그램, 양방향 알림장 등 기관에서 제공하는 부모 대상 서비스의 제공 여부 및 제공 주기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부모 대상 서비스 중 제공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던 서비스는 ‘발달평가’로 15.5%가 다니는 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이밖에 ‘양방향 알림장’은 12.1%, ‘부모교육자료’는 9.7%, ‘부모참여프로그램’은 6.2%가 제공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영유아 대상 보육·교육기관에서 제공 비율이 낮은 서비스에 해당하였다. 또한 서비스 유형별로 제공 주기에 차이가 있었다. 매일 제공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서비스는 ‘양방향 알림장’이었다(61.2%), 즉 양방향 알림장은 제공하지 않는 비율(12.1%)도 높은 서비스이나, 제공할 경우 제공 주기는 가장 짧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매주 1회 제공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서비스는 '보육교육계획'(68.2%), 가정통신문(73.1%)이었고, '급간식 식단'은 월 1회 제공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57.0%). 양방향 알림장, 가정통신문, 보육교육계획, 급간식 식단 제공 등은 제공 주기가 월 1회 이하로 짧은 서비스에 속하나, 반대로 '발달평가', '부모 상담', '부모참여프로그램'은 비교적 제공 주기가 긴 서비스에 해당하였다.

'발달 평가'의 경우에는 분기별 1회 제공받는다든가 경우가 27.8%로 가장 많았으나, 연 1~2회 제공 받는다는 응답도 25.2%로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부모 상담'과 '부모교육자료', '부모참여프로그램'은 모두 연 1~2회 제공 받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는데, 부모상담은 50.7%, 부모교육 자료는 24.9%, 부모참여프로그램은 46.3%가 이에 해당했다. 부모교육 자료의 경우는 연 1~2회 제공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월 1회 제공한다는 경우가 22.5%, 분기 1회 20.8%, 매주 1회 제공한다는 경우도 13.2%로 기관별 차이가 큰 서비스 제공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기관유형별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부모서비스 제공 여부 및 빈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발달평가'의 경우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유치원 12.4%, 반일제 이상 학원 9.5%에 비해 어린이집이 제공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17.8%), '부모 상담', '부모참여'도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에서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 사료된다. 반면 2018년도 조사에서 최초로 추가된 '양방향 알림장'은 미제공 비율이 유치원(23.7%)에 비해 어린이집이(5.4%)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표 V-5-1】 이용기관별 부모서비스 제공 여부 및 빈도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전체	2015년	2012년	2009년
보육교육계획							
매일	5.1	3.6	1.5	4.4	5.0	0.9	3.4
매주 1회	66.2	72.6	61.4	68.2	64.9	77.1	79.8
월 1회	25.0	20.9	32.7	23.8	27.0	21.1	15.5
분기 1회	2.0	1.7	2.6	1.9	-	-	-
연 1~2회	1.3	0.9	-	1.1	-	-	-
기타	-	-	-	-	1.8	0.2	-
제공 안함	0.3	0.1	0.4	0.2	0.6	0.2	-
모름	0.3	0.3	1.5	0.4	0.7	0.4	1.4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전체	2015년	2012년	2009년
급간식 식단							
매일	9.1	6.2	-	7.8	6.3	2.9	4.7
매주 1회	32.1	37.8	38.7	34.4	35.4	31.3	39.1
월 1회	58.1	55.1	58.2	57.0	55.4	65.1	53.6
분기 1회	0.1	-	1.3	0.1	-	-	-
연 1~2회	0.1	0.5	-	0.3	-	-	-
기타	-	-	-	-	1.0	-	-
제공 안함	0.2	0.3	0.4	0.2	1.0	0.2	-
모름	0.2	0.1	1.5	0.2	0.9	0.4	2.6
가정통신문							
매일	11.6	8.0	6.1	10.1	9.7	36.6	40.6
매주 1회	69.4	80.1	65.2	73.1	70.1	54.8	49.0
월 1회	17.5	9.7	26.9	15.1	17.1	6.2	6.4
분기 1회	0.8	1.3	-	1.0	-	-	-
연 1~2회	0.3	0.5	-	0.4	-	-	-
기타	-	-	-	-	1.6	1.3	0.6
제공 안함	0.2	0.1	0.4	0.2	0.5	0.7	-
모름	-	0.2	1.5	0.1	0.9	0.4	3.3
발달평가							
매일	3.2	1.1	4.5	2.5	3.5	5.1	9.0
매주 1회	5.4	5.9	1.5	5.4	6.8	6.1	6.4
월 1회	13.1	11.5	28.0	13.1	16.4	16.6	10.4
분기 1회	27.2	30.0	17.9	27.8	25.3	22.0	17.3
연 1~2회	21.5	31.2	29.1	25.2	26.0	22.6	19.2
제공 안함	17.8	12.4	9.5	15.5	13.5	16.3	24.6
모름	11.7	8.0	9.5	10.3	8.5	11.3	13.0
부모상담							
매일	2.2	1.0	5.3	1.9	2.0	1.8	1.7
매주 1회	2.3	1.6	5.1	2.1	2.8	3.1	2.1
월 1회	6.1	6.4	17.8	6.6	7.9	6.9	9.8
분기 1회	32.8	32.1	22.1	32.2	26.0	30.1	20.5
연 1~2회	48.9	54.4	44.2	50.7	53.0	48.9	41.0
제공 안함	4.9	2.3	5.6	4.0	4.1	4.6	12.7
모름	2.9	2.2	-	2.6	4.4	4.6	12.3
부모교육 자료							
매일	1.3	0.9	1.8	1.2	1.2	1.8	1.7
매주 1회	12.9	14.0	10.7	13.2	13.3	3.1	2.1
월 1회	23.7	20.0	27.1	22.5	20.4	6.9	9.8
분기 1회	21.0	20.8	16.2	20.8	18.0	30.1	20.5
연 1~2회	23.5	28.1	17.2	24.9	27.4	48.9	41.0
제공 안함	9.1	9.7	20.5	9.7	11.2	4.6	12.7
모름	8.5	6.4	6.4	7.7	8.5	4.6	12.3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전체	2015년	2012년	2009년
부모참여프로그램							
매일	0.9	0.6	-	0.8	0.7	1.3	-
매주 1회	2.6	1.9	3.9	2.4	2.8	16.4	-
월 1회	10.3	7.2	13.5	9.3	10.7	27.8	-
분기 1회	28.6	30.8	22.4	29.2	24.1	14.0	-
연 1~2회	43.9	50.5	46.4	46.3	45.6	19.3	-
제공 안함	6.6	5.1	11.7	6.2	8.9	11.6	-
모름	7.1	3.8	2.1	5.8	7.2	9.4	-
양방향 알림장							
매일	71.6	43.2	62.0	61.2	-	-	-
매주 1회	12.8	18.6	17.2	15.0	-	-	-
월 1회	2.1	3.6	7.1	2.8	-	-	-
분기 1회	3.3	3.3	-	3.1	-	-	-
연 1~2회	1.3	1.3	1.3	1.3	-	-	-
제공 안함	5.4	23.7	9.9	12.1	-	-	-
모름	3.6	6.3	2.4	4.5	-	-	-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한편, 이전 조사결과와 비교 시 각 서비스 항목별 미제공 비율은 ‘발달평가’를 제외하고는 2018년에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이용기관별 부모서비스 제공 만족도

반일제 이상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최소 3.86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서비스 중에서는 ‘보육·교육계획’ 제공, ‘가정통신문’, ‘양방향알림장’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4.05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양방향 알림장은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26.0%에 달하여 부모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은 서비스로 나타났다.

▣ 표 V-5-2 ▣ 반일제 이상 기관 제공 서비스 이용 만족도

구분	단위: %(명), 점					계(수)	평균	표준편차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보육교육계획	21.6	62.9	14.6	0.8	-	(2,812)	4.05	0.63
급간식 식단	21.6	60.5	16.5	1.2	0.2	(2,814)	4.02	0.67
가정통신문	21.7	62.2	15.2	0.8	0.1	(2,819)	4.05	0.64
발달평가	18.2	58.4	20.8	2.3	0.3	(2,093)	3.92	0.71
부모상담	16.9	56.3	24.6	1.9	0.2	(2,624)	3.88	0.71
부모교육 자료	16.2	54.9	27.4	1.4	0.1	(2,343)	3.86	0.69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수)	평균	표준편차
부모참여프로그램	16.0	56.5	25.3	2.1	-	(2,480)	3.86	0.69
양방향 알림장	26.0	55.4	16.7	1.7	0.3	(2,400)	4.05	0.7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5점 평균은 '매우 만족' 1점 ~ '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하여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만족' 5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한 결과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다음으로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별로 기관 제공 서비스의 만족 비율(매우 만족+만족)을 살펴보았다. 각 항목 중에서 어린이집은 다른 기관 유형에 비해 '급간식 식단'(82.4%), '부모교육자료'(73.1%), '양방향 알림장'(83.3%)의 서비스에서 가장 만족비율이 높은 기관이었으며, 유치원은 '보육·교육계획 제공'(85.1%), '가정통신문 제공'(84.7%)에서, 영어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은 '발달평가'(79.1%), '부모상담'(78.1%), '부모참여프로그램'(75.8%)에서 만족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반적으로는 '영어학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의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80.0%, 어린이집 78.6%, 유치원 76.6% 순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결과에서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이 '영어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으로 나타난 점은 비록 사례가 적은 편이나,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영어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에서 특히 만족비율이 높은 항목에는 부모상담, 부모참여프로그램 등 '부모' 대상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발달평가'에 대한 만족도도 어린이집,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보육·교육활동 외의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부모들의 욕구가 높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자녀들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자녀의 발달 상태에 대한 기관의 피드백을 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가 상업 기관인 반일제 이상 학원 등 기타 기관에서 부모들의 욕구에 부합하게 제공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를 보육연령 2세 이하 영아, 3세 이상 유아로 구분하여 어린이집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산출한 결과, 어린이집 영아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보다 유아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부모참여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영아반의 70.8% 대비 유아반의 만족한다는 비율이 76.0%로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반일제 이상 학원 보다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즉, 부모참여 프로그램은 특성상 영아반 보다는 유아반에서 제공의 효과가 높은 서비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V-5-3 반일제 이상 기관 제공 서비스 이용기관별 만족(매우만족+만족) 비율

단위: %(명)

구분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계(수)
		전체	영아	유아			
보육교육계획	84.5	84.3	83.7	85.0	85.1	84.0	(2,812)
급간식 식단	82.1	82.4	81.8	83.1	81.8	80.8	(2,814)
가정통신문	83.9	83.4	82.5	84.6	84.7	84.6	(2,819)
발달평가	76.6	77.4	77.0	77.9	75.1	79.1	(2,093)
부모상담	73.2	74.8	74.6	75.0	70.2	78.1	(2,624)
부모교육 자료	71.1	73.1	72.7	73.7	68.3	64.6	(2,343)
부모참여프로그램	72.5	73.1	70.8	76.0	71.3	75.8	(2,480)
양방향 알림장	81.4	83.3	83.7	82.8	76.8	82.7	(2,400)
전체 평균	77.9	78.6	78.1	79.2	76.6	80.0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3)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4) 전체 평균: 각 항목 비율의 평균으로 산출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6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프로그램

본 절에서는 영유아가 이용하는 기관유형별로 특별활동프로그램 이용 실태, 지출 비용, 만족도를 제시하였다.

가. 이용기관별 특별활동프로그램 이용 특성

이 절에서는 영유아 가구가 보육·교육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특별활동(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에 관해 살펴보았다. 특별활동의 범주를 예능(미술, 음악 등), 체육 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영어, 기타의 6가지 범주로 크게 구분하고 각 범주별로 이용하고 있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를 모두 기입하게 하여 총합한 결과, 영유아들은 보육·교육기관을 다니면서 평균 2.5개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별활동(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프로그램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27.3%에 해당하였고, 3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1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5개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19.1%). 이외 4개인 경

우 13.7%, 2개인 경우가 13.2%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 이용은 영유아별, 연령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영아의 경우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2%로 유아의 20.2%에 비해 특별활동을 이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고, 평균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개수는 영아 1.7개, 유아 2.9개로 영아는 유아보다는 특별활동을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연령별로 살펴보면 2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특별활동 미이용 비율이 큰 차이가 없이 20%를 전후한 미이용률을 나타냈으나, 0세(88.4%), 1세(47.5%)의 경우 특별활동 미이용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등 도시지역 거주 영유아가 특별활동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읍면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 이용 개수는 대도시는 평균 2.6개, 중소도시 2.5개, 읍·면 지역에서는 2.6개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용 기관별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는 평균 2.4개, 유치원은 2.9개, 영어학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 1.4개로 유치원 이용 아동이 가장 많은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V-6-1 ▣ 이용기관별 특별활동 총 이용 수

단위: %(명), 개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계(수)	평균
전체	27.3	7.0	13.2	19.8	13.7	19.1	100.0(2,830)	2.5
영유아구분								
영아	40.2	6.1	16.9	20.5	10.4	6.0	100.0(1,012)	1.7
유아	20.2	7.5	11.1	19.4	15.5	26.2	100.0(1,818)	2.9
$\chi^2(df)/\chi^2$			271.7(10)***					-16.6***
보육연령								
0세	88.4	3.6	3.1	2.6	2.3	-	100.0(118)	0.3
1세	47.5	7.2	19.4	15.1	6.0	4.8	100.0(389)	1.4
2세	22.9	5.8	18.3	28.9	15.8	8.3	100.0(505)	2.4
3세	21.0	7.1	10.7	20.2	14.8	26.1	100.0(630)	2.9
4세	18.9	7.5	11.2	20.8	16.6	25.0	100.0(532)	3.0
5세	20.5	7.9	11.5	17.6	15.3	27.3	100.0(656)	2.9
$\chi^2(df)/F$			549.5(50)***					80***(a)
지역규모								
대도시	28.7	6.8	11.9	18.5	13.5	20.7	100.0(1,010)	2.6
중소도시	28.4	7.3	13.0	19.2	13.0	19.1	100.0(862)	2.5
읍·면지역	20.9	6.8	16.7	24.4	16.1	15.2	100.0(958)	2.6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계(수)	평균
χ^2 (df)/F	55.0(20)***							0.8(a)
이용 기관유형								
어린이집	29.3	5.5	13.7	22.7	13.5	15.4	100.0(1,753)	2.4
유치원	20.0	9.8	12.8	16.3	14.8	26.2	100.0(1,009)	2.9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62.3	5.5	8.5	5.6	6.7	11.5	100.0(68)	1.4
χ^2 (df)/F	209.2(20)***							40.5***(a)
2015년	30.7	7.9	13.2	19.5	13.0	15.9	100.0(2,535)	2.4
2012년	34.5	10.3	17.0	17.9	10.6	9.9	100.0(2,392)	3.0
2009년	41.5	16.7	16.6	12.8	6.4	6.0	100.0(2,048)	-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2009년 이후 총 4회에 걸친 조사를 통해 2009년 이후 반일제 이상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 영유아의 특별활동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5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활동 종류별 이용 사례를 대상으로 그 특별활동을 부모가 선택 가능한지 질문한 결과, 선택 불가하여 의무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특별활동 종류별로 최저 38.2%에서 최고 52.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기준). 기관유형별로는 영어학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에서의 특별활동 의무 이용 비율이 가장 낮아, 종류별로 최저 9.2%에서 최고 37.2%가 의무 이용하고 있었으며, 예능, 체육관련 활동, 수학/과학 관련 활동, 기타 특별활동은 유치원에서, 언어, 영어는 어린이집에서 의무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표 V-6-2】 기관유형 및 특별활동 종류별 의무 이용 비율

단위: %(명)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기타
전체	46.5	49.9	50.9	52.4	44.2	38.2
어린이집	46.8	48.7	50.1	53.2	45.1	37.2
유치원	47.1	53.2	52.9	53.1	43.1	40.6
반일제 이상 기관	21.6	21.2	21.8	9.2	37.2	28.6
(수)	(1,749)	(1,712)	(687)	(893)	(1,254)	(283)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다음으로 특별활동 종류별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지 살펴보았다. 기타가 24,700원으로 가장 비용이 높았고, 영어 24,300원, 예능(미술, 음악) 23,000원, 체육 관련 20,000원, 언어(한글, 한자 등) 19,900원, 수학/과학 관련 19,700원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특별활동 종류별 월평균 이용비용은 최소 값과 최대 값의 편차가 큰 편으로 최소 비용은 종류별로 2~3천원에 불과하였다. 기관 유형별로는 유치원의 경우 영어 과목의 월평균 이용비용이 30,500원으로 다른 과목이나 어린이집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에서 이용하는 특성화프로그램 비용은 종류를 불문하고 어린이집에 비해 모두 비용이 높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어학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의 특별활동 월평균 이용비용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비해 모든 과목에서 현저히 높았다.

표 V-6-3 | 특별활동 기관별·과목별 월평균 이용 비용(비용지불아동)

단위: 천원(명)

구분	전체				기관별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F	
예능(미술, 음악)	23.0	20.6	3.0	260.0	19.2	27.1	87.6	152.8***(a)	(1,734)
체육관련	20.0	18.0	3.0	300.0	17.2	22.3	96.8	247.1***(a)	(1,697)
수학/과학 관련	19.7	20.1	3.0	290.0	14.7	22.1	92.5	89.8***(a)	(677)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19.9	19.9	2.0	320.0	15.6	23.9	85.4	71.1***(a)	(882)
영어	24.3	21.2	3.0	250.0	19.5	30.5	73.3	84.4***(a)	(1,240)
기타	24.7	24.1	2.0	200.0	20.5	26.1	108.3	58.9***(a)	(277)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총 특별활동 이용비용 분포 및 평균 비용을 아동 및 가구 특성별로 살펴 보았다. 아동 당 특별활동 총 비용은 5~10만원 미만인 경우가 41.5%로 가장 많았으며, 3~5만원 미만인 경우가 24.0%, 10~15만원 미만인 경우가 13.5%, 2~3만원 미만 10.0% 순이었으며, 20만원 이상을 특별활동 이용에 지출한다는 경우는 3.1%에 해당하였다. 특별활동을 무료로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인 1.0%를 제외하고 비용을 지불하며 이용하는 경우 특별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월평균 68,900원으로 집계되었다. 제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영유아별, 거주 지역규모별, 기관유형별로 특별활동 이용비용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우선 영유아 구분별로는 영아는 평균 52,400원, 유아는 75,700원을 지출하여 유아의 특별활동을 위한 지출비용이 평균적으로 23,300원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지역 거주 시 평균 77,800원, 중소도시 70,600원, 읍·면 지역 45,800원을 지출하여 지역별 격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관유형별로는 영어학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 평균 163,300원으로 가장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으며, 유치원 83,500원, 어린이집 56,100원으로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비용액 수준이 가장 낮았다. 이는 영유아 구분에서 이미 확인하였듯이 영아의 특별활동 이용비용이 낮기 때문으로, 영아가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이용비용에 이 같은 결과가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한편, 2015년 결과와 비교 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3.2%에서 1.0%로 감소하였으나 지불시 평균 이용비용은 2015년 74,100원에서 68,900원으로 5,200원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표 V-6-4 제 특성별 총 특별활동 이용비용

구분	무료	1만원 미만	1~2만원	2~3만원 미만	3~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15만원 미만	15~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계(수)	단위:%(명), 천원	
											지불시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0	0.1	3.6	10.0	24.0	41.5	13.5	3.3	3.1	100.0(2,077)	68.9	58.5
영유아구분												
영아	1.1	0.4	5.3	10.7	30.3	45.5	6.1	0.4	0.2	100.0(615)	52.4	28.0
유아	1.0	-	2.9	9.8	21.4	39.8	16.5	4.5	4.2	100.0(1,462)	75.7	66.0
$\chi^2(df)/\chi^2$					112.5(8)***							-11.3***
지역규모												
대도시	1.1	-	3.6	7.3	19.6	44.2	16.3	3.4	4.6	100.0(727)	77.8	69.7
중소도시	1.1	0.3	3.1	10.3	21.0	42.3	14.7	4.3	3.0	100.0(610)	70.6	54.5
읍·면	0.5	-	5.0	15.2	40.2	33.6	4.6	0.7	0.2	100.0(740)	45.8	26.5
$\chi^2(df)/F$					137.2(16)***							41.5***(a)
기관유형												
어린이집	0.6	0.2	4.0	10.7	28.5	46.5	8.7	0.9	-	100.0(1,247)	56.1	29.4
유치원	-	-	3.2	9.6	18.4	34.9	21.1	6.7	6.1	100.0(803)	83.5	66.4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31.6	-	-	-	-	20.9	6.4	6.2	34.8	100.0(27)	163.3	209.1
$\chi^2(df)/F$					741.4(16)***							121***(a)
2015년	3.2	0.5	1.7	6.3	20.4	44.6	15.2	5.1	1.7	100.0(1,798)	74.1	48.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한 과목 이상 특별활동 이용 아동이 분석 대상임.

3)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나.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

다음으로 특별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특별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한 결과, 전반적으로 3.9~4점 정도의 점수를 보였다.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 종류는 예능(미술, 음악), 체육 관련, 기타로 모두 5점 만점 중 4.0점에 해당하였다. 수학/과학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만족도는 3.9점, 언어 관련 프로그램도 3.9점, 영어 3.9점으로 특별활동에 대한 만족은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표 V-6-5 | 특별활동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기타
전체	4.0	4.0	3.9	3.9	3.9	4.0
어린이집	4.0	4.0	3.9	3.9	3.9	3.9
유치원	4.0	3.9	3.9	3.9	3.9	4.1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4.2	4.3	3.9	3.9	4.1	3.6
F	1.8	4.6**	0	0	1.9(a)	4.6**
(수)	(1,749)	(1,712)	(687)	(893)	(1,254)	(28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한 과목 이상 특별활동 이용 아동이 분석 대상임.

3) 5점 평균은 '매우 만족' 1점 ~ '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하여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만족' 5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한 결과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다음으로 영유아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에서 특별활동을 한 가지 이상 이용하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응답자들은 어떤 특별활동 프로그램 종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프로그램 종류는 '예능(미술, 음악)'으로 32.3%가 이에 답하였으며, 이외 체육 관련 프로그램 26.2%, 영어 21.6%, 언어(한자, 한글, 기타 외국어 등) 12.8% 순으로 응답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현재 특별활동 프로그램 종류별 이용 사례수의 순위와 거의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V-6-5 참조). 영유아 구분별로는 영아(의 부모)는 유아(부모)에 비해 예능(미술, 음악)에 대한 특별활동 선호가 확연하여 39.5%가 예능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유아의 경우도 예능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영아에

비해 체육, 영어, 언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종류에 대해 상대적으로 고른 선호도가 나타나고 있었다. 예능을 중시한다는 응답은 0세 70.6%에서 5세 26.6%에 이르기까지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반면 영어와 언어 관련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지역은 영어 특별활동이 중요하다는 응답이(29.3%) 중소도시나 읍·면 지역에(16.2%) 비해 높았으며, 읍·면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관련 특별활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읍·면 지역에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높아 한글 교육 등 언어 교육의 중요성이 높게 인식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이다. 기관유형별로는 모든 기관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예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의 경우 영어 특별활동이 중요하다는 응답 비중(24.0%)이 그 다음으로 높은 반면, 영아 비중이 높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체육 특별활동이 중요하다(28.8%)는 응답이 높았다.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참여 아동을 보육연령 기준으로 2세 이하 영아와 3세 이상 유아로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유아에 한정하여서는 영아에 비해 영어 프로그램을 중시한다는 비율이 높게 응답되어 10.2%p의 격차를 보였으며, 반면에 예능(미술, 음악)을 중시한다는 응답은 영아의 39.3%에 비해 현저히 낮은 27.9%만이 응답하여 유치원 이용 유아의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부모들의 영아와 유아에 대한 특별활동 선호도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6-6 제 특성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특별활동 참여자)

단위: %(명)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 (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기타	없음	계(수)
전체	32.3	26.2	2.9	12.8	21.6	2.7	1.4	100.0(2,077)
영유아구분								
영아	39.5	29.5	0.7	8.7	14.9	4.2	2.3	100.0(615)
유아	29.4	24.8	3.8	14.5	24.3	2.1	1.1	100.0(1,462)
보육연령								
0세	70.6	14.5	-	-	12.3	2.6	-	100.0(14)
1세	44.1	28.5	0.3	9.2	6.6	7.3	4.0	100.0(206)
2세	36.0	30.6	1.0	8.8	19.4	2.7	1.6	100.0(395)
3세	33.0	26.7	1.1	13.5	22.3	2.0	1.4	100.0(503)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 (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기타	없음	계(수)
4세	29.1	24.9	6.4	13.2	23.9	1.6	0.9	100.0(430)
5세	26.6	23.0	4.0	16.5	26.5	2.6	0.9	100.0(529)
지역규모								
대도시	28.2	23.3	2.8	13.5	29.3	1.5	1.5	100.0(727)
중소도시	35.1	30.3	2.6	9.3	16.8	4.2	1.8	100.0(610)
읍·면지역	34.9	22.7	3.9	19.7	16.2	2.1	0.5	100.0(740)
기관유형								
어린이집(전체)	33.5	28.8	1.3	11.7	20.2	3.1	1.5	100.0(1,247)
어린이집(영아)	39.3	29.6	0.7	8.8	15.0	4.3	2.3	100.0(610)
어린이집(유아)	27.9	28.0	1.8	14.4	25.2	1.9	0.8	100.0(637)
유치원	30.5	22.5	5.0	14.9	24.0	1.9	1.1	100.0(803)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35.5	21.0	8.9	6.6	15.0	9.0	4.0	100.0(27)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한 과목 이상 특별활동 이용 아동이 분석 대상임.

3)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7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

본 절에서는 이용하는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도움정도, 개선 요구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가. 이용기관별 만족도

현재 이용하는 기관의 인력, 시설, 서비스, 비용 등 요소별 만족도를 응답하도록 한 결과를 <표 V-7-1>에 제시하였다. 만족도는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의 5점 척도로 평정하였고, <표 V-7-1>에는 ‘매우 만족’ 및 ‘만족’이라고 응답한 ‘만족한다는 비율’을 제시하였다. 만족도를 응답하도록 한 요소는 교직원(원장, 교사), 주변환경, 시설설비, 비용, 건강관리, 급간식 관리, 안전관리, 교육내용, 생활지도, 부모참여 및 교육 등 10개 요소이며, 10개 요소에 대한 만족비율을 평균으로 산출한 결과,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자 중 10개 요소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용하는 기관에 만족하는 비율이 80.9%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 중 이용 기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80.9%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만족 비율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80.9%,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81.2%, 영어학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79.7%로 유치원이 가장 높았으나 기관유형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를 보육연령 기준으로 영아, 유아로 구분하여 만족도를 산출한 결과, 유아반 이용 시 전반적인 만족 비율은 81.8%로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보다 미미하나마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각 요소 중 만족비율이 가장 높은 요소는 '교직원'으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88.2%에 달하였다. 이 요소에 대해서는 영어학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만족 비율이 89.0%로 가장 높고, 어린이집 88.8%, 유치원 87.1%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영어학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의 경우는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서 91.1%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교직원 다음으로 '생활지도'에 대한 만족비율이 86.9%로 높고, 교육내용 86.1%, 안전관리 84.8%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요소는 이용자가 만족한다는 비율이 8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주변환경(77.4%), 비용(70.6%), 급간식 관리(79.9%), 부모 참여 및 교육 (74.1%)는 다소 이용자 만족도가 떨어지는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용'은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만족비율을 보인 요소였는데(70.6%),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가구는 56.7%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해 만족 비율이 가장 낮았고, 유치원은 65.3%, 어린이집은 74.7%로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앞서 보육·교육기관 이용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가구소득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저소득 가구의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이는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 비용 지원이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구소득이나 양육비 부담을 고려한 선별적인 비용 지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관 유형별로는 어린이집의 경우 부모참여 및 교육에 대한 만족 비율이 가장 낮고(73.8%), 유치원은 비용에 대한 만족 비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던 바(65.3%), 전반적인 비용 지원 체감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함께 부모 참여 및 부모교육에 대한 만족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 비율을 영아반, 유아반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결과, 부모참여 및 교육에 대한 어린이집의 낮은 만족 비율은 많은 부분 영아반의 만족 비율이 낮은 결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비용에 대한 만족 비율이 비록 어린이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나, 영아반에 비해 유아반의 만족비율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한편, 이용기관에 대한 만족 비율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V-7-1 | 이용기관별 교직원, 시설, 서비스 질, 비용 등 만족 비율

단위: %(명)

구분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기타	(수)
		전체	영아	유아				
교직원	88.2	88.8	88.7	88.8	87.1	89.0	-	(2,830)
주변환경	77.4	76.3	75.3	77.7	79.2	79.5	-	(2,830)
시설설비	81.0	79.1	77.2	81.7	83.2	88.8	-	(2,830)
비용	70.6	74.7	76.8	71.7	65.3	56.7	-	(2,830)
건강관리	80.3	80.4	80.0	80.9	80.3	79.3	-	(2,830)
급간식관리	79.9	79.7	78.4	81.3	80.9	73.5	-	(2,830)
안전관리	84.8	84.5	83.8	85.4	85.9	78.7	-	(2,830)
교육내용	86.1	85.3	84.4	86.5	87.0	91.1	-	(2,830)
생활지도	86.9	86.4	85.8	87.1	88.0	86.6	-	(2,830)
부모참여 및 교육	74.1	73.8	71.8	76.5	74.7	73.7	-	(2,830)
전체 평균	80.9	80.9	80.2	81.8	81.2	79.7	-	(2,830)
2015년	78.3	78.1	-	-	78.7	77.7	72.9	(2,535)
2012년	73.6	75.1	-	-	70.0	76.9	83.3	(2,391)
2009년	63.8	63.1	-	-	66.5	57.4	57.9	(2,04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18년도는 만족도 측정의 요소 중 '전반적 만족도'가 삭제되어, 전체 항목의 평균으로 '전반적 만족도'를 측정함.

3)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이용 기관에 대한 요소별 만족도 점수의 평균은 4.04점이며, 유치원 4.05점, 어린이집 4.03점, 영어학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 4.02점으로 거의 동일하였다. 요소별로는 교직원에 대한 만족도가 4.1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생활지도 4.12점, 교육내용 4.11점, 안전관리 4.10점 등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비용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3.88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부모 참여 및 교육도 3.9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요소였다.

기관 유형별로는 어린이집의 경우 부모참여 및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3.90점으로 가장 낮고, 비용 3.93점, 주변환경 3.95점으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요

소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보육연령을 기준으로 영아와 유아로 구분한 결과 영아반은 '부모참여 및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3.88점으로 가장 낮았으나, 유아반은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아(3.88점) 차이를 보였다. 유치원의 경우는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3.82점으로 어린이집 보다 더 낮았으며, 부모 참여 및 교육도 3.94점으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요소였다.

영어학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의 경우는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높아서 평균 4.27점에 해당하였고, 반면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3.69점으로 모든 기관 중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2009년부터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으며, 2018년도 2015년에 비해 미미하게나마 만족도가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간 지속적인 서비스 질 제고 요구에 대한 대응을 통해 반일제 이상 기관의 서비스 질이 상당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표 V-7-2 ▣ 기관별 이용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기타	(수)	F
		전체	영아	유아					
교직원	4.19	4.21	4.22	4.20	4.16	4.19	-	(2,830)	2.1
주변환경	3.97	3.95	3.93	3.96	4.00	3.98	-	(2,830)	1.6
시설설비	4.04	4.01	3.98	4.04	4.09	4.07	-	(2,830)	4.5**
비용	3.88	3.93	3.96	3.88	3.82	3.69	-	(2,830)	7.7***(a)
건강관리	4.02	4.01	4.00	4.03	4.03	4.01	-	(2,830)	0.3
급간식관리	4.02	4.02	4.01	4.04	4.04	3.87	-	(2,830)	2.5*(a)
안전관리	4.10	4.09	4.09	4.09	4.12	4.02	-	(2,830)	1.7
교육내용	4.11	4.08	4.07	4.10	4.14	4.27	-	(2,830)	5.3***(a)
생활지도	4.12	4.10	4.10	4.11	4.14	4.15	-	(2,830)	1.3
부모참여 및 교육	3.92	3.90	3.88	3.94	3.94	3.92	-	(2,830)	0.6
전체 평균	4.04	4.03	4.02	4.04	4.05	4.02	-	(2,830)	0.4
2015년 조사	4.01	4.02	4.03	4.01	3.74	3.61	4.00	(2,391)	
2012년 조사	3.71	3.70	3.68	3.72	3.74	3.61	4.00	(2,391)	
2009년 조사	3.69	3.68	3.71	3.66	3.72	3.55	3.47	(2,042)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 2) 5점 평균은 '매우 만족' 1점 ~ '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하여 '매우 불만족' 1점~'매우만족' 5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한 결과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 3) 2018년도는 만족도 측정의 요소 중 '전반적 만족도'가 삭제되어, 전체 평균으로 '전반적 만족도'를 측정함.
- 4) 영유아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1$, *** $p < .001$ *

나. 이용기관별 도움 정도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가구에서 각 유형의 기관 이용으로 제시된 도움 항목별로 도움 받은 일이 있는지를 응답하도록 하고, 도움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질문하였다. 각 도움의 항목 중 도움받은 일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던 항목은 ‘양육부담 완화’로 47.0%가 기관 이용을 통해 양육 부담이 경감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취업 및 구직’에 도움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9.4%, 기관 이용을 통해 ‘후속자녀 출산’을 하였다는 응답이 10.5%, ‘학업 및 취업 훈련’에 도움 받았다는 응답이 6.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에게 막연한 도움이 아니라 각 항목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경우만 응답하도록 한 결과이다. ‘양육부담 경감’ > ‘취업 및 구직’ > ‘후속자녀 출산’ > ‘학업 및 취업 훈련’의 순서로 도움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 경향은 모든 유형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자에게서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다만 기관 유형별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양육부담 경감’에 도움 받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아 50.6%가 응답하였고, 유치원 41.3%, 반일제 이상 기관 41.0% 보다 현저히 높았다. 흥미로운 점은 ‘취업 및 구직’, ‘후속자녀출산’, ‘학업 및 취업 훈련’에 있어서 기관 이용으로 도움을 받았다는 비율이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보다 영어학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용비용의 부담이 크기는 하지만 영어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이 어린이집·유치원 보다 이용 가구에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은 어린이집·유치원의 서비스 개선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영아와 유아로 구분한 결과, 어린이집 유아반 이용 시 취업 및 구직에 도움을 받았다는 비율은 반일제 이상 학원 등 기타 기관 보다 높게 나타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한편, 도움 받은 일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도움 정도를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한 결과, 취업 및 구직, 학업 및 취업 훈련, 양육부담 완화는 모두 평균 4.4점에 해당하였으며, 후속자녀 출산의 도움 정도는 4.3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양육부담 완화 외에는 해당 도움 항목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높지 않은 수준이었으나, 도움을 받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조사결과에 비해 도움을 경험한 경우 그 도움의 정도는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 2018년 조사에서 도움 경험 비율이 높지 않은 것은 2018년 조사 시 ‘막연한 도움’이 아니라 그 도움 항목의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았는지를 엄격하게 판별하여 응답하도록 한 결과로 사료된다¹⁵⁾.

표 V-7-3 기관유형별 도움 경험 비율 및 도움 정도: 5점 척도

단위: %(명), 점

구분	2015년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수)	$\chi^2(df)/F$
			전체	영아	유아				
도움 경험 비율									
취업 및 구직	-	19.4	22.1	20.5	24.3	14.5	22.4	(2,830)	12.5***(a)
학업 및 취업 훈련	-	6.0	6.3	6.5	6.0	4.8	11.2	(2,830)	4**(a)
양육부담 완화	-	47.0	50.6	50.8	50.5	41.3	41.0	(2,830)	12.1***(a)
후속자녀출산	-	10.5	11.6	11.4	11.9	8.6	11.3	(2,830)	3.3**(a)
기타	-	-	-	-	-	-	-	(2,830)	
도움 정도: 5점 평균									
취업 및 구직	4.22	4.4	4.4	4.4	4.4	4.4	4.6	(526)	1
학업 및 취업 훈련	4.07	4.4	4.4	4.3	4.4	4.3	4.8	(155)	2.2
양육부담 완화	4.26	4.4	4.4	4.4	4.3	4.3	4.3	(1,269)	0.8
후속자녀출산	3.99	4.3	4.3	4.3	4.3	4.3	4.6	(290)	1.9
기타	-	-	-	-	-	-	-	-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 2) 도움 경험 비율은 도움 받은 일 있음 응답자 비율임.
- 3) 5점 평균은 ‘매우 도움 됨’ 1점~‘전혀 도움 안됨’ 5점으로 평정하여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 됨’ 5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한 결과임.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 4)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 5) 기관유형별 도움 받은 비율(매우도움됨+도움됨 비율)은 [부표 V-7-1]을 참조할 것.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 $p < .001$.

다. 이용기관별 개선요구사항

현재 영유아 자녀가 이용하는 기관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사항을 우선순위별로 2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1순위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교육 내용 다양화’가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25.5%), 다음으로 ‘인력증원’(22.2%), ‘인력의 질 제고’(14.9%), ‘안전관리 강화’(11.2%), ‘노후시설 정비’(8.5%), ‘비용 절감’(8.3%)

15) 예를 들면, ‘후속자녀 출산’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면서 후속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답하도록 하였다.

순으로 나타났다. 즉, 영유아의 부모들 중 많은 부모들이 ‘교육내용’을 매우 중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인력에 대한 개선 요구도 많았는데, 인력의 질 제고 보다 오히려 ‘증원’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전문성, 자격 수준 등 인력의 질이 서비스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이나 현재의 반일제 이상 기관에는 개별 인력의 질 제고에 앞서 인력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양적인 측면에서 과다하다는 부분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이용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반일제 이상 기관의 교직원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던 바, 인력의 질을 더욱 높이는 것보다는 적절한 수의 인력 배치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증원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개선 요구의 순위와 비율이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비용 절감’의 요구는 유치원이(12.0%) 어린이집(6.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영어학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의 경우는 증원에 대한 요구는 4.0%로 낮은 반면, ‘인력의 질 제고’에 대한 요구가 20.0%로 매우 높게 나타나며, ‘교육내용 다양화’에 대한 요구는 33.9%에 달하여 나머지 유형의 두 기관에 비해 수요자에게는 ‘교육 내용’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표 V-7-4 ▣ 이용기관별 개선사항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인력증원	22.2	24.5	20.1	4.0	11.3	12.1	10.2	8.6
인력의 질 제고	14.9	14.3	15.5	20.0	23.6	24.5	22.9	13.6
노후시설 정비	8.5	8.8	7.8	9.4	8.5	8.0	9.2	11.5
내부환경개선	6.0	7.1	4.7	2.6	9.5	10.3	8.1	9.0
비용 절감	8.3	6.2	12.0	8.2	7.9	6.9	9.7	9.1
안전관리강화	11.2	11.8	10.2	10.0	15.2	14.2	14.9	34.3
교육내용다양화	25.5	25.2	25.2	33.9	24.0	23.9	25.0	13.8
모름/무응답	3.3	2.0	4.7	11.8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830)	(1,753)	(1,009)	(68)	(2,633)	(1,658)	(918)	(57)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이러한 수요자 및 이용자의 개선 요구를 종합해 보면,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 유치원·어린이집의 공통커리큘럼인 누리과정 등 교육 내용의 표준화를 통해 그간 어떠한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영유아의 생애초기 출발선의 평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나, 향후에는 기관의 특성 등을 반영한 교육내용의 다양화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고려해야 함을 시사받을 수 있다.

또 하나, 보육교사 휴게시간 시행 및 적법한 근로시간 준수 등을 위해 보육·교육기관 내에서 인력증원에 대한 요구는 지속될 전망이다므로, 인력 증원의 수요와 재정소요를 고려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8 시사점

이 장에서는 하루 최소 3시간(점심시간 포함 4시간) 이상 기관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들의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실태와 요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근거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의 취업부모 지원 기능을 강조, 강화하여 취업부모가 필요로 하는 이용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의 결과, 영유아 부모들은 어린이집은 부모의 취업 지원 등 대리 돌봄을 위해 이용하는 수요가 높아, 초등학교 준비 기관으로 인식되는 유치원, 특기교육 등을 위한 반일제 이상 학원과 이용 목적과 기대하는 기능에 차이가 있었다.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7시간 24분으로 유치원(7시간 12분), 반일제 이상 학원(6시간 12분)에 상대적으로 길지만, 취업모 가정에서 희망하는 시간 보다는 짧게 이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희망 이용시간과 실제 이용시간과의 격차를 줄이고 충분한 이용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 인력 등 인력 지원과 추가 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 하겠다.

둘째, 영유아가 생애 최초로 이용하는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으로서 ‘어린이집’의 영아보육 기능 강화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본 조사결과, 영유아들이 생애 최초로 이용하는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은

대부분(90.9%) 어린이집이었다. 즉, 대한민국의 영유아 10명 중 9명은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을 경험하게 된다.

반일제 이상 기관을 영유아가 처음 이용하기 시작하는 월령은 평균 22.7개월로, 2015년의 24.1개월에 비해서도 앞당겨 졌으며,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영유아중 44.3%가 12~23개월 사이에 기관 이용을 시작하고 있었다. 12개월 미만의 영영아기부터 기관을 이용하기 시작한 경우도 11.4%로 결과적으로 생후 24개월 미만에 55.7%가 기관 이용을 시작하였으며, 이전 조사와 비교 시 생후 24개월 미만에 최초 기관 이용을 시작하는 비율은 2009년 31%에서 약 10년이 경과한 2018년 사이 약 80%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영유아의 기관 이용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이로 인해 영아의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영유아가 가장 먼저 이용하게 되는 ‘어린이집’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유치원’을 최초의 학교라 하지만 그에 앞서 어린이집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최초의 ‘집단보육’경험을 제공하는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결정적일 수 있다. 이에 양질의 영아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아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관리가 더욱 요구된다고 보여진다.

한편, 영유아를 반일제 이상 기관에 보내게 되는 주된 이유는 대리 돌봄의 필요성 때문이거나, 영유아의 사회성, 전인적 발달 등 발달 측면에 대한 기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취업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충분한 이용시간의 보장과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양질의 보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 유치원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영유아에게 동일한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서비스 질 개선이 도모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교육내용과 적절한 교직원 수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에 포함된 영유아의 현재 보육·교육기관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영유아의 연령별로 이용하는 기관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즉, 영아는 보편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나, 유아 중에서는 유치원을 더 많이 이용하여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3-5세 유아반에 대해서는 특히

‘누리과정’이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통 과정이 도입·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차이가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현상으로 사료된다. 초등학교 준비 등 좀 더 교육적인 기능을 기대하는 유아기에 들어서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영유아 중에서도 유치원이나 기타 반일제 이상 학원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바, 유아 부모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어린이집 서비스의 질 제고 노력의 한 방안으로 발달평가나 부모상담 등의 서비스도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린이집의 경우 같은 무상보육·교육기관인 유치원에 비해 낮은 보육료가 부모 부담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요구도 높음을 고려할 때 합리적 수준의 보육료 조정을 통해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진다.

넷째, 적정수준의 가구소득 대비 보육·교육비 지출 비중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저소득 영유아 가구의 보육·교육기관 이용에 드는 비용 부담의 경감을 위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결과 영유아 가구가 보육·교육기관 이용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2015년 대비 절대액이 상승하고(96,500원 →149,600원) 가구소득 대비 비율도 상승하여 부담이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용 지출의 절대액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커지나,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가구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일부 부담하는 체계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조사결과, 더 좋은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면 비용을 더 내더라도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가 40.5%에 달하였다. 특히 어린이집은 42.5%가 추가 비용 부담이 가능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는 이전 조사결과에 비해 추가비용 부담 의사가 상당히 증가한 결과로, 보육·교육서비스 수요자들이 서비스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저소득 가구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선에서 시도해볼만한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영유아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육·교육기관의 ‘총량’적 접근보다는 지역적 안배를 통해 전반적인 ‘접근성’의 제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조사에서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 선택 시의 고려사항 중

가장 많이 응답된 항목은 ‘집과의 거리(26.8%)’로, 현재 기관 선택 시 지리적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2015년에 이어 지속되는 경향이었다. 특히 영아의 이용 비중이 높은 어린이집의 경우 ‘집과의 거리’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꼽은 비중이(30.1%) 유치원(23.1%)에 비해 높았는 바, 특히 어린 연령의 영유아가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더욱 도보로 접근 가능한 어린이집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일곱째, 국공립 보육·교육기관의 확충과 내실화가 필요하다. 본 조사결과 기관 선택의 기준으로 ‘국공립 여부’를 선택한 응답이 2015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영유아의 부모들이 ‘국공립’을 곧 ‘양질의 서비스 기관’으로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민간서비스의 질 제고를 평가인증제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추진하여 왔음에도 부모들은 어떤 방안보다 ‘국공립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큰 상황이므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적 확충을 위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유치원이 양산된다면 ‘국공립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마저 잃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계획적인 국공립 기관의 확충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덟째, 영유아별로 차별화된 정책 방향이 지향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본 조사에서 영유아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면 기관 이용을 하지 않고 가정 양육을 하겠다는 응답이 영아의 경우 21.9%, 유아의 경우 9.5%로, 아이의 연령에 따라 보육·교육서비스 수요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유아들의 경우에는 영유아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기관 이용 의사가 높았으나, 영아의 경우에는 기관 이용이 가구의 부득이한 사정에 기인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에 영아 자녀 등 가정 내 양육 수요가 있는 가정에는 ‘가정 내 양육’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의 구축과 이용 편의성 제고, 부모의 직접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육아지원제도의 강화(육아휴직 등)를 추진하며, 한편 영아를 기관에 맡겨 두고 취업활동을 하여야 하는 부모들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기관 이용이 보편적인 유아가구에 대해서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 이용의 편의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VI

어린이집 이용 및 요구

- VI-1. 어린이집 이용 특성
- VI-2. 어린이집 이용비용
- VI-3. 어린이집 제공 서비스
- VI-4. 어린이집 특별활동
- VI-5.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개선 요구
- VI-6. 취약보육
- VI-7. 시간제 보육 이용 실태
- VI-8. 영유아 가구의 취학 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의사
- VI-9. 어린이집 입소 대기 경험
- VI-10. 보육 정책 인지도 및 관련 인식
- VI-11. 시사점



VI. 어린이집 이용 및 요구

1 어린이집 이용 특성

본 절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 어린이집 이용 이유, 어린이집 최초 이용 시기, 어린이집 이용시간, 등하원 방법 및 소요시간 등 어린이집 이용의 특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특성

1) 설립유형별 이용 특성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이용 특성을 살펴보았다. 조사에 포함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1,753명 중 가장 많은 51.9%는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국공립 21.7%, 가정 14.7%, 법인 4.3%, 법인·단체등 4.3%, 직장 3.1% 순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이나, 영아와 유아로 구분해 보면, 영아는 민간어린이집 (48.1%) 다음으로 가정어린이집의 이용 비율도 24.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유아는 민간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56.9%로 영아 보다 높고, 그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도 27.2%로 영아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 중 3세가 민간어린이집 이용률(62.7%)이 가장 높은 연령이었으며, 4세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32.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가정어린이집에 3세 이상 유아가 다니는 경우는 매우 적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의 이용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나 4세의 경우 6.1%로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지역규모별로 보면 대도시는 민간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소도시는 민간과 가정 이용률이 높고 국공립 이용률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14.9%), 읍면지역은 민간어린이집 이용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41.5%). 반면 국공립(28.8%), 법인(9.5%), 법인·단체등 어린이집(10.5%)의 이용률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도 이용 어린이집 유형의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취업모 가구의 영유아들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23.8%로, 어머니가 미취업 상태이거나(19.5%), 휴직중인 경우(19.4%)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휴직중인 경우는 가정어린이집도 비교적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17.1%).

소득계층별로는 1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민간어린이집 이용을 가장 많이 하고는 있으나(54.5%)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 비율도 31.8%로 전 소득계층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249만원 소득 구간과 300~349만원 소득 구간에서는 민간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각각 61.4%, 60.8%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300~349만원 구간은 국공립 이용 비율이 17.0%에 불과해 가장 낮은 구간이었으며 가정어린이집 이용률도 11.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2018년에는 2015년 조사결과 대비 민간어린이집의 이용률이 58.6%에서 51.9%로 상당히 감소한 대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2015년 14.4%에서 21.7%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공립 확충에 따른 결과로 짐작된다. 이에 2015년에는 이용률 측면에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하였던 국공립어린이집이, 2018년에는 민간어린이집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큰 변화를 보였다.

▣ 표 VI-1-1 ▣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영유아 특성

단위: %(명)

구분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계(수)	χ^2 (df)
전체	21.7	4.3	4.3	51.9	14.7	3.1	-	100.0(1,753)	
영유아구분									
영아	17.6	3.6	3.5	48.1	24.4	2.8	-	100.0(998)	179.3(5)***
유아	27.2	5.3	5.2	56.9	1.9	3.5	-	100.0(755)	
보육연령									
0세	13.1	1.3	3.5	39.5	39.8	2.9	-	100.0(117)	249.4(25)***
1세	15.3	3.2	3.1	46.7	28.4	3.2	-	100.0(386)	
2세	20.5	4.3	3.9	51.4	17.5	2.4	-	100.0(495)	

구분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계(수)	χ^2 (df)
3세	22.8	4.5	4.6	62.7	2.8	2.6	-	100.0(335)	
4세	32.8	7.4	4.7	47.5	1.5	6.1	-	100.0(204)	
5세 이상	28.6	4.6	6.6	56.9	0.9	2.5	-	100.0(216)	
지역규모									
대도시	25.7	2.5	2.3	53.5	12.2	3.8	-	100.0(611)	
중소도시	14.9	3.7	3.3	55.0	20.7	2.5	-	100.0(514)	137.0(10)***
읍면지역	28.8	9.5	10.5	41.5	6.7	2.9	-	100.0(628)	
모취업 여부									
취업	23.8	4.5	4.4	48.3	14.6	4.4	-	100.0(888)	
휴직중	19.4	8.3	1.5	48.6	17.1	5.0	-	100.0(97)	
미취업	19.5	3.5	4.4	56.8	14.5	1.3	-	100.0(751)	33.4(15)***
모부재 등	23.1	3.8	12.4	36.4	24.3	-	-	100.0(17)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31.8	7.7	2.6	54.5	3.3	-	-	100.0(57)	
200~249만원	24.0	2.4	2.5	61.4	9.7	-	-	100.0(123)	
250~299만원	25.4	3.1	4.4	52.7	12.3	2.1	-	100.0(134)	
300~349만원	17.0	4.6	4.8	60.8	11.7	1.2	-	100.0(253)	
350~399만원	21.6	2.8	6.1	51.2	15.9	2.4	-	100.0(164)	
400~499만원	20.9	5.8	2.9	53.4	13.9	3.1	-	100.0(359)	94.8(45)***
500~599만원	21.7	4.6	4.6	48.2	17.3	3.6	-	100.0(286)	
600~699만원	22.7	4.4	5.2	48.4	16.3	2.9	-	100.0(166)	
700만원 이상	22.1	2.8	4.1	42.0	20.8	8.1	-	100.0(206)	
모름/무응답	19.7	-	61.2	19.1	-	-	-	100.0(5)	
2015년 조사	14.4	5.2	3.5	58.6	15.7	2.1	0.4	100.0(1,745)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 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2) 가구별 이용 특성

어머니의 취업과 맞벌이 여부에 따른 이용 특성을 살펴보았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어머니가 취업을 하고 있는 비율은 56.6%(휴직 6.0% 포함)이며 맞벌이 비율은 54.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어머니의 취업 비율은 0세 영아가 가장 높아 58.8%이며, 이 연령대의 부모 맞벌이 비율은 68.9%로 더 높았다. 한편 보육연령 2세아의 경우 취업모 비율이 가장 낮은 연령이었다. 어린이집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중 취업모 비율이 다른 어린이집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어린이집과(79.6%) 법인어린이집이(61.3%)이 다른 유형에 비해 맞벌이 가정의 이용률

이 높았다. 2012년과 2015년 조사결과와 비교 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중 어머니가 취업모인 비율과 맞벌이 가정의 비율이 모두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 표 VI-1-2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모취업 및 맞벌이 특성

단위: %(명)

구분	모취업 여부				맞벌이 여부				계(수)
	취업	휴직중	미취업	모부재/모름	맞벌이	외벌이	둘다 무직	비해당/모름	
전체	50.6	6.0	42.8	0.6	54.2	42.5	0.3	2.9	100.0 (1,753)
보육연령									
0세	58.8	11.8	29.4	-	68.9	29.4	0.8	0.8	100.0 (117)
1세	50.8	5.7	43.3	0.3	54.9	43.5	-	1.6	100.0 (386)
2세	44.0	7.1	48.1	0.8	49.1	48.5	-	2.4	100.0 (495)
3세	51.5	5.6	42.6	0.3	56.5	41.0	0.3	2.2	100.0 (335)
4세	58.4	5.0	35.6	1.0	57.9	35.1	1.5	5.4	100.0 (204)
5세	52.3	2.7	44.1	0.9	50.0	43.7	0.5	5.9	100.0 (216)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55.7	5.3	38.5	0.5	56.7	37.7	0.5	5.0	100.0 (417)
법인	53.3	12.0	34.7	-	61.3	38.7	-	-	100.0 (90)
법인·단체등	51.4	2.7	44.6	1.4	54.1	44.6	-	1.4	100.0 (96)
민간	47.2	5.6	46.9	0.3	50.5	46.1	0.6	2.9	100.0 (874)
가정	50.2	7.0	42.0	0.8	56.2	42.2	-	1.6	100.0 (221)
직장	72.2	9.3	18.5	-	79.6	18.5	-	1.9	100.0 (55)
2015년 조사	42.0	3.4	54.1	0.5	43.6	53.6	0.7	2.2	100.0 (1,745)
2012년 조사	41.5	3.1	54.1	1.2	41.9	56.4	1.7	-	100.0 (1,536)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나. 어린이집 이용 이유

1) 이용 이유 및 이용 변경 의향

영유아 가구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이유로는, 전인적 발달 목적이 27.6%로 가장 높고 사회성발달(27.4%), 부모 대리보호(23.1%) 등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유아의 경우는 영아보다 사회성발달(32.7%)과 전인적 발달(30.5%)을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영아는 '부모 대리보호'(25.2%), '양육부담 경감'(18.6%)을 위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유아보다 높게 나타나 어린이집 이용 이유에 영유아 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

역에서 '사회성 발달'을 위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32.3%로 도시지역(대도시 26.8%, 중소도시 25.8%)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부모의 대리 보호 관련 이유는 18.2%로 도시지역에 비해(대도시 26.1%, 중소도시 22.4%) 가장 낮게 응답되었다.

취업모의 어린이집 이용에서는 부모 대리보호의 이유가 40.2%로 매우 높았고 모 부재의 경우는 사회성 발달을 위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53.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과 민간에서 전인적 발달에 대한 이유가 가장 높았고 법인과 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는 사회성 발달, 가정은 양육부담 경감과 대리보호, 직장어린이집에서는 부모 대리보호의 이유가 가장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2012년과 2015년 조사의 추이를 보면, 사회성보다는 전인적 발달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아이들의 보호나 또래놀이 등 단순한 돌봄에서 전인적 발달을 점차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VI-1-3 ▶ 어린이집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전인적 발달	초등학교 준비	특기 교육	부모 대리보호	사회성 발달	같이 놀 친구 없음	양육부담경감	보육료 교육비 전액 지원	기타	계(수)
전체	27.6	1.5	1.0	23.1	27.4	2.7	14.1	2.6	0.2	100.0 (1,753)
영유아 구분										
영아	25.4	0.3	0.9	25.2	23.4	3.5	18.6	2.6	0.2	100.0 (998)
유아	30.5	3.0	1.1	20.3	32.7	1.6	8.2	2.6	-	100.0 (755)
보육연령										
0세	15.8	-	-	46.4	12.3	2.0	19.1	2.4	2.1	100.0 (117)
1세	23.4	-	0.5	26.8	23.9	3.6	20.8	1.1	-	100.0 (386)
2세	29.2	0.5	1.5	18.8	25.7	3.8	16.6	3.8	-	100.0 (495)
3세	32.1	1.3	1.0	20.0	34.6	1.6	8.0	1.4	0.1	100.0 (335)
4세	32.0	0.5	1.9	23.0	29.7	2.0	7.8	3.0	-	100.0 (204)
5세	26.7	8.0	0.6	18.2	32.7	1.2	8.8	3.8	-	100.0 (216)
지역규모										
대도시	28.7	0.7	0.7	26.1	26.8	1.7	12.8	2.3	0.2	100.0 (611)
중소도시	27.0	1.8	0.9	22.4	25.8	1.7	16.9	3.2	0.2	100.0 (514)
읍면지역	26.3	2.4	1.7	18.2	32.3	6.9	10.4	1.7	0.1	100.0 (628)
모취업 여부										
취업	22.1	1.3	1.2	40.2	20.7	1.5	10.5	2.6	-	100.0 (888)
휴직	31.7	-	-	13.2	28.4	1.5	22.6	2.6	-	100.0 (97)
미취업	33.7	1.8	1.0	4.2	34.8	4.3	17.2	2.6	0.4	100.0 (751)
모부재 등	5.7	-	-	31.4	53.1	-	9.8	-	-	100.0 (17)

구분	전인적 발달	초등학교 준비	특기 교육	부모 대리보호	사회성 발달	같이 놀 친구 없음	양육부 담경감	보육료 교육비 전액 지원	기타	계(수)
어린이집유형										
국공립	28.7	2.1	1.1	25.7	21.9	3.0	10.3	6.6	0.4	100.0 (417)
법인	27.7	2.3	-	15.8	35.0	5.9	10.9	2.5	-	100.0 (90)
법인·단체등	21.2	2.4	3.0	25.6	38.9	4.9	2.7	1.2	-	100.0 (96)
민간	30.9	1.4	1.2	19.4	30.6	2.5	12.7	1.2	0.1	100.0 (874)
가정	18.4	-	-	29.2	19.9	1.4	29.5	1.5	-	100.0 (221)
직장	14.6	2.8	-	43.9	21.1	2.1	10.9	4.7	-	100.0 (55)
2015년 조사	33.4	2.3	1.1	20.3	27.1	3.8	2.0	2.4	7.5	100.0 (1,745)
2012년 조사	22.2	4.4	0.5	18.0	32.4	5.2	14.3	2.5	0.4	100.0 (1,536)
2009년 조사	28.5	4.5	0.9	29.0	29.0	7.7	-	-	0.4	100.0 (1,34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현재 이용 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사항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고려했던 사항을 살펴보면, 집과의 거리가 30.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외 주요 고려사항은 주변의 평판 12.7%, 교사 10.9%, 원장 9.6%, 프로그램 7.8%, 국공립 여부 6.3% 등의 순이었다. 즉, 현재 기관 선택 시 지리적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리적 접근성이 중시되는 경향성은 기관 유형별로도 유사하였고, 가정(40.4%)과 민간 어린이집은(33.3%)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단,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여부’가 선택 시 고려사항이었다는 응답이 28.8%로 가장 높아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공립’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경향을 드러내었고, 직장어린이집은 집과의 거리보다는 ‘운영시간’을 고려했다는 응답이 16.5%로 가장 높아 차이를 보였다.

【표 VI-1-4】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사항

단위: %(명)

구분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전체	2015	2012
원장	4.7	4.2	9.4	11.2	13.4	5.8	9.6	11.7	9.9
교사	8.6	10.9	10.7	11.6	12.1	8.6	10.9	10.7	7.9
운영시간	3.0	2.0	8.6	3.6	2.0	16.5	3.8	4.3	3.0

구분	국공립	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전체	2015	2012
비용	3.1	8.1	1.5	2.2	1.2	4.1	2.5	2.5	2.9
프로그램	7.2	10.4	7.0	10.0	0.8	6.6	7.8	11.0	14.1
건강·영양	2.2	2.0	-	1.9	1.8	-	1.8	2.7	3.0
기관 학급 규모	1.3	0.6	3.6	1.5	0.7	-	1.4	2.3	0.9
실내환경	3.9	1.9	2.0	1.7	3.1	3.5	2.5	4.5	3.1
안전한 보호	0.7	2.0	0.5	0.8	2.4	8.8	1.3	1.9	3.3
집과의 거리	20.3	28.1	22.1	33.3	40.4	10.5	30.1	27.3	29.5
기관 시설·설비	3.2	1.9	1.6	2.6	-	7.4	2.4	1.7	1.3
국공립 여부	28.8	-	-	-	-	-	6.3	3.4	4.4
주변의 평판	9.2	13.3	17.7	12.7	17.5	7.2	12.7	10.5	10.4
주변환경	1.0	1.5	1.5	2.0	-	3.6	1.5	1.5	0.7
평가인증 결과	0.4	-	0.5	1.1	0.5	5.4	0.9	0.8	0.9
차량 운행 여부	0.6	1.5	3.3	0.4	-	-	0.5	0.6	1.3
특별활동	-	-	-	0.2	-	-	0.1	0.1	0.3
형제 자원 여부	1.7	10.4	5.4	2.2	3.0	2.5	2.7	1.3	2.6
공공형어린이집 여부	-	-	-	0.9	-	-	0.4	0.4	-
기타	-	1.1	4.6	0.3	1.0	9.6	0.8	0.9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17)	(90)	(96)	(874)	(221)	(55)	(1,753)	(1,745)	(1,53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1순위 응답비율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어린이집 선택 이유를 제 특성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영유아에 따른 고려사항을 보면, 영아의 경우 유아보다 집과의 거리(32.8%)가 더욱 주된 고려사항이고 그 다음이 주변의 평판(13.6%)과 교사(11.7%) 순이었다. 유아는 ‘집과의 거리(26.7%)’, ‘주변의 평판(11.6%)’, ‘프로그램(10.5%)’ 순으로 응답되어 어린이집 선택 시 영아의 5.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 프로그램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지역 규모별로는 큰 차이가 없이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으나 중소도시의 경우 집과의 거리를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고 원장이 주요 고려사항이었다. 한편, 읍·면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집과의 거리’가 주된 고려사항이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25.5%), 대신 ‘프로그램’을 고려했다는 응답이 11.2%로 도시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읍·면지역의 아동인구 감소로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영유아를 위한 기타 보육·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한 읍·면지

역에서는 어린이집이 중요한 영유아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모취업에 따라서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으나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상대적으로 '운영시간'을 고려했다는 응답이 높고, 미취업인 경우 집과의 거리에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표 VI-1-5 영유아 구분별 및 지역·모취업 여부별 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사항

단위: %(명)

구분	영유아구분		지역규모			모취업여부			
	영아	유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모부재
원장	9.9	9.2	9.1	10.5	8.6	10.3	5.5	9.4	4.1
교사	11.7	9.7	11.9	10.1	10.5	11.3	9.9	10.6	4.2
운영시간	2.9	4.9	4.0	3.9	3.0	5.4	3.6	1.9	3.6
비용	1.6	3.7	2.9	1.5	3.9	2.7	2.0	2.3	12.0
프로그램	5.8	10.5	6.0	8.0	11.2	7.6	3.7	8.7	7.8
건강·영양	1.8	1.8	1.3	2.4	1.6	1.8	-	2.2	-
기관 학급 규모	1.4	1.3	1.1	1.3	2.0	1.1	2.2	1.5	-
실내환경	2.8	2.0	3.0	2.4	1.6	2.2	3.9	2.7	-
안전한 보호	1.4	1.1	1.8	1.1	0.8	1.9	-	0.8	-
집과의 거리	32.8	26.7	30.3	32.1	25.5	26.7	33.3	33.6	48.0
기관 시설·설비	2.4	2.4	2.3	2.6	2.1	2.2	1.7	2.8	-
국공립 여부	4.4	8.7	8.1	4.7	5.8	6.9	9.5	5.2	-
주변의 평판	13.6	11.6	12.8	12.4	13.2	12.1	16.8	12.7	20.4
주변환경	1.3	1.7	1.3	0.7	3.5	1.4	-	1.7	-
평가인증 결과	1.0	0.9	0.9	1.1	0.6	0.7	1.5	1.1	-
차량 운행 여부	0.6	0.5	0.1	-	2.6	0.5	-	0.7	-
특별활동	-	0.2	-	0.2	-	0.2	-	-	-
형제 자원 여부	2.9	2.4	1.6	3.8	2.5	3.5	4.0	1.6	-
공공형어린이집 여부	0.4	0.6	0.5	0.4	0.4	0.3	1.4	0.5	-
기타	1.3	0.3	1.0	0.7	0.9	1.4	1.1	0.2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998)	(755)	(611)	(514)	(628)	(888)	(97)	(751)	(17)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 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다. 어린이집 이용 중단 경험 및 중단 사유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1%로 셋 중 한 명은 중단 경험을 갖고 있었다. 영아는 3.3%만이 중단 경험을 보고하고 있으나 유아는 56.0%로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어린이집 중단 경험률이 증가하여 5세가(63.1%) 가장 많이 중도에 어린이집을 그만 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모 가구(25.9%)보다는 취업모 가구에서(37.4%)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한 경험 비율이 높았다.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한 사유를 보면, 다른 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78.7%로 가장 많았고 기관과의 조건이 맞지 않거나 기관 관련 불만 등의 이유가 있었다. 다른 기관 이용을 위해서라는 응답은 유아의 경우가 81.0%로 대부분이었고 기관과의 조건이 맞지 않는 이유로 인해 중단은 영아의 경우(23.0%)가 유아(5.3%)보다 훨씬 많았다.

▶ 표 VI-1-6 ▶ 제 특성별 어린이집 중단 여부 및 중단 사유

단위: %(명)

구분	중단 여부		중단 사유									
	있다	(수)	어린이 집관련 불만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어린이 집과의 조건 안맞음	비용 부담	기관 폐원 및 이사	다른 기관 보내려고	집에서 양육 하려고	안전에 대한 의구심	기타	계(수)
전체	30.1	(3,775)	5.5	4.3	6.3	0.3	2.0	78.7	1.2	0.6	1.1	100.0(1,047)
영유아 구분												
영아	3.3	(1,911)	11.2	14.8	23.0	-	6.9	39.5	2.2	0.6	1.9	100.0(60)
유아	56.0	(1,864)	5.2	3.7	5.3	0.3	1.8	81.0	1.1	0.6	1.0	100.0(987)
χ^2 (df)	1245.7(1)***		70.2(8)***									
보육연령												
0세	0.3	(803)	56.1	-	25.0	-	-	-	-	18.9	-	100.0(3)
1세	2.5	(540)	-	26.3	29.1	-	2.6	32.3	9.7	-	-	100.0(13)
2세	8.1	(568)	12.5	12.0	21.1	-	8.5	43.4	-	-	2.5	100.0(44)
3세	43.9	(650)	4.1	4.0	5.2	0.2	3.8	79.4	1.0	0.8	1.5	100.0(276)
4세	60.6	(549)	6.5	3.6	7.6	0.4	0.9	77.8	2.2	0.1	0.9	100.0(314)
5세	63.1	(665)	4.9	3.5	3.7	0.4	1.1	84.3	0.4	0.9	0.8	100.0(397)
χ^2 (df)	1321.9(5)***		136.4(40)***									
모취업 여부												
취업	37.4	(1,588)	6.6	3.3	7.7	0.1	2.0	78.3	0.9	0.2	0.9	100.0(549)
휴직중	14.4	(270)	8.5	4.0	13.5	-	-	63.6	2.4	3.7	4.3	100.0(40)

구분	중단 여부		중단 사유									
	있다	(수)	어린이 집관련 불만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어린이 집과의 조건 안맞음	비용 부담	기관 폐원 및 이사	다른 기관 보내려고	집에서 양육 하려고	안전에 대한 의구심	기타	계(수)
미취업	25.9	(1,880)	3.8	5.7	3.8	0.6	2.3	80.6	1.3	0.9	1.0	100.0(443)
모부재 등	48.0	(37)	11.9	-	15.2	-	-	69.9	3.0	-	-	100.0(15)
χ^2 (df)	92.0(3)***		38.3(24)**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10.5	(417)	18.9	3.9	30.7	1.3	3.1	39.4	1.4	-	1.3	100.0(38)
법인	10.5	(90)	-	-	13.7	-	25.8	60.5	-	-	-	100.0(8)
법인·단체등	13.2	(96)	26.4	-	28.6	-	14.8	16.4	-	-	13.8	100.0(8)
민간	9.2	(874)	10.1	8.1	21.0	-	6.8	52.0	0.5	0.9	0.5	100.0(74)
가정	3.7	(221)	14.5	-	20.8	-	25.0	27.3	-	-	12.5	100.0(8)
직장	22.6	(55)	9.2	-	3.5	-	-	76.0	11.2	-	-	100.0(10)
χ^2 (df)	23.2(5)***		48.4(4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 $p < .001$.

다. 어린이집 이용 시기 및 기간

1) 현재 이용 어린이집 최초 이용 시작 시기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가 현 시설을 처음 다니게 된 시기는 평균 생후 22.3개월 즈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는 법인·단체 등의 어린이집이 25.9개월로 평균 이용 시작 시기가 가장 늦었으며 가정어린이집은 16.9개월로 이용 시작 시기가 가장 빨랐다. 영아인 경우 평균적으로 18.5개월 정도에 어린이집 이용을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취업모 자녀는 20.7개월, 미취업모 자녀는 24.3개월로 취업모 자녀가 약 3~4개월 정도 더 빨리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내용은 현재 이용 시설을 처음 이용한 시기를 묻고 있으므로 기관 이용 자체를 언제 시작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과 거리가 있다. 한편 2015년 조사에서는 영유아의 현재 이용 어린이집 최초 이용 시작 시기는 평균 26.5개월로 더 늦었으며, 시설 유형에 따라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평균 이용 시작 시기가 가장 늦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I-1-7 현재 이용 어린이집 최초 이용시기

단위: 개월(명)

구분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23.6	12.0	(417)	24.2	11.7	(90)	25.9	12.9	(96)	22.8	11.2	(874)	16.9	8.1	(221)	21.5	9.2	(55)	22.3	11.3	(1,753)
영유아구분																					
영아	18.8	8.4	(198)	21.1	8.4	(43)	21.1	7.4	(46)	19.0	7.4	(475)	16.6	7.0	(209)	16.9	6.9	(27)	18.5	7.6	(998)
유아	27.7	13.1	(219)	27.0	13.5	(47)	30.1	15.2	(50)	27.1	13.1	(399)	22.4	18.1	(12)	26.4	8.9	(28)	27.3	13.2	(755)
χ^2		-8.1***			-2.3**			-3.3***			-11.3***			-1.2			-4.4***			-16.4***	
지역규모																					
대도시	23.7	12.6	(153)	25.9	9.4	(16)	27.4	11.7	(15)	21.8	10.6	(329)	16.3	8.3	(75)	19.6	8.6	(23)	21.8	11.1	(611)
중소 도시	23.2	12.0	(76)	23.4	12.7	(19)	29.9	15.1	(17)	24.0	11.8	(284)	17.2	8.1	(105)	23.8	10.4	(13)	22.7	11.6	(514)
읍면지역	23.7	10.8	(188)	23.9	12.1	(55)	22.3	10.9	(64)	22.0	11.1	(261)	17.9	6.8	(41)	22.5	7.9	(19)	22.4	10.8	(628)
F		0.1			0.2			2.8*			4.2**			0.5			1.1			1.1	
모취업 여부																					
취업	22.9	13.3	(223)	22.5	12.3	(45)	23.8	12.6	(50)	20.8	11.5	(426)	15.1	8.5	(111)	21.6	9.9	(33)	20.7	11.9	(888)
휴직중	21.7	12.3	(21)	22.7	7.2	(7)	14.4	14.7	(3)	22.3	9.0	(45)	16.9	7.4	(15)	17.9	5.7	(6)	20.9	9.4	(97)
미취업	24.8	9.7	(169)	27.4	11.6	(37)	28.8	12.8	(40)	24.9	10.8	(396)	19.1	7.1	(93)	23.4	7.4	(16)	24.3	10.5	(751)
모부재 등	28.9	10.5	(4)	24.0	-	(1)	25.2	31.9	(3)	29.6	15.9	(7)	18.0	2.7	(2)	-	-	-	25.9	11.7	(17)
F		1.1(a)			1			1.3			10.4***			5.3***			0.6			15.2***(a)	
2015년조사	31.2	14.3	(250)	29.9	13.8	(141)	27.1	12.2	(95)	27.2	12.9	(959)	17.9	8.9	(268)	28.6	14.3	(30)	26.5	13.2	(1,74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1$, *** $p < .001$.

2) 현재 이용 어린이집 재원기간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기간으로는 평균 21.8개월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직장어린이집은 평균 25.4개월로 재원기간이 가장 길고 가정어린이집이 13.3개월로 가장 짧았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영아는 12.1개월, 유아는 35.0개월로 나타나 재원기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평균 영아는 12.9개월, 유아는 33.6개월 정도의 기관 이용 지속기간을 나타내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도시에 비해 읍면에서 재원기간이 긴 것으로 파악되며,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기관 이용 지속기간이 길었다. 휴직을 한 어머니의 경우 지속 이용 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휴직중인 경우 주로 육아휴직중으로 대상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 기간이 짧은 영아가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¹⁶⁾.

표 VI-1-8 현재 이용 어린이집 이용 지속기간

단위: 개월(명)

구분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24.5	16.3	(417)	24.2	17.2	(90)	22.4	15.8	(96)	22.5	15.7	(874)	13.3	10.3	(221)	25.4	14.4	(55)	21.8	15.6	(1,753)
영유아구분																					
영아	13.1	8.6	(198)	12.4	8.3	(43)	11.4	8.4	(46)	13.2	8.1	(475)	12.1	8.3	(209)	15.7	9.5	(27)	12.9	8.3	(998)
유아	34.4	14.8	(219)	34.7	16.2	(47)	32.3	14.3	(50)	33.0	15.6	(399)	35.0	17.4	(12)	35.6	11.2	(26)	33.6	15.2	(755)
t		-17.4***			-7.6***			-7.8***			-23.6***			-4.9***			-7***			-33.6***	
지역규모																					
대도시	22.8	15.9	(153)	15.7	15.5	(16)	23.5	16.5	(15)	21.8	15.4	(329)	14.9	12.1	(75)	26.7	14.8	(23)	21.3	15.3	(611)
중소 도시	27.9	17.2	(76)	26.6	19.0	(19)	16.5	12.9	(17)	22.7	15.7	(284)	12.7	9.4	(105)	22.7	12.4	(13)	21.4	15.6	(514)
읍면지역	23.9	15.6	(188)	26.7	15.3	(55)	26.1	16.6	(34)	24.1	16.7	(261)	11.5	8.6	(41)	27.1	17.3	(19)	23.7	16.1	(628)
F		3.4**			2.8*			2.8*			1.1			1.6(a)			0.5			3.1**	
모취업 여부																					
취업	25.0	16.6	(223)	28.8	18.8	(45)	23.6	16.8	(50)	25.4	17.0	(426)	14.2	10.8	(111)	26.1	14.1	(33)	23.8	16.6	(888)
휴직중	18.5	14.4	(21)	25.2	16.7	(7)	32.2	34.0	(3)	18.3	11.8	(45)	8.6	6.2	(15)	29.5	14.8	(6)	18.0	13.3	(97)
미취업	24.5	16.0	(169)	16.7	12.0	(37)	20.5	14.5	(40)	20.1	14.3	(396)	13.1	10.2	(93)	20.6	15.5	(16)	19.9	14.4	(751)
모부채 등	35.6	12.6	(4)	24.0	-	(1)	24.7	15.0	(3)	28.5	9.4	(7)	12.1	8.0	(2)	-	-	-	25.5	11.9	(10)
F		1.3			2.8**(a)			0.4			9.6**(a)			1.6			0.8			10.9**(a)	
2015년 조사	20.2	15.6	(250)	19.5	14.2	(141)	21.0	12.6	(95)	17.4	13.4	(959)	12.1	8.9	(268)	24.7	15.2	(30)	17.3	13.4	(1,74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 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1$, *** $p < .001$.

라. 어린이집 이용 일수 및 이용 시간

1) 이용 요일 및 이용 일수

영아와 유아 모두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을 주 5일 이용하는 가운데, 토요일 이용률은 전체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5세 이상이 1.3%로 가장 많았으며 0세가 1.0%로 그 다음 순이었다.

16) 본 보고서 III장 <표 III-2-15> 부모의 육아휴직 시기 참조.

표 VI-1-9 연령 및 영유아별 어린이집 이용 요일 유형

단위: %(명)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월요일	99.9	100.0	100.0	100.0	99.7	100.0	100.0	100.0	99.9
화요일	99.9	99.8	99.0	100.0	100.0	100.0	100.0	99.3	99.8
수요일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목요일	99.9	100.0	99.0	100.0	100.0	100.0	100.0	100.0	99.9
금요일	100.0	99.9	100.0	100.0	100.0	100.0	99.8	100.0	100.0
토요일	0.3	0.5	1.0	-	0.5	0.4	-	1.3	0.4
일요일	-	-	-	-	-	-	-	-	-
정기적 이용일 수 (수)	5.0 (998)	5.0 (755)	5.0 (117)	5.0 (386)	5.0 (495)	5.0 (335)	5.0 (204)	5.0 (216)	5.0 (1,753)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토요보육 미이용자 중 ‘토요보육이 필요하였으나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 응답하도록 한 결과 없다는 응답이 83.1%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있었다는 응답도 13.8%(자주 있음+가끔 있음)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12.6%)에 비해 중소도시(16.7%)에서 이러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모취업 여부에 따른 추이를 살펴보면 토요보육이 필요하였으나 이용하지 못한 경험은 취업모(17.8%)가 미취업모(10.0%)에 비해 더 많았다. 이는 취업모가 토요근무로 인해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서 토요보육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표 VI-1-10 토요보육 필요하였으나 이용하지 못한 경험

단위: %(명)

구분	자주 있음	가끔 있음	없음	모름/무응답	(수)
전체	2.4	11.4	83.1	3.1	(1,748)
영유아 구분					
영아	3.0	11.2	82.8	3.0	(996)
유아	1.5	11.7	83.6	3.2	(752)
χ^2 (df)	4.4(2)				
지역규모					
대도시	2.0	10.6	84.5	3.0	(609)
중소도시	3.4	13.3	79.9	3.4	(511)
읍면지역	0.9	9.1	87.5	2.5	(628)
χ^2 (df)	12.0(4)**				

구분	자주 있음	가끔 있음	없음	모름/무응답	(수)
모취업 여부					
취업	3.4	14.4	80.2	2.0	(885)
휴직중	-	8.6	85.6	5.8	(97)
미취업	1.5	8.5	86.1	3.9	(749)
모부재 등	4.2	-	95.8	-	(17)
χ^2 (df)	25.5(6)***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어린이집 이용자 중 토요일 보육 미이용자 대상

3)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 $p < .001$.

2) 이용 시간

가) 제 특성별 어린이집 등하원 시각¹⁷⁾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도착하는 시간인 등원 시각을 보면 전체 중 38.5%가 8:31~9:00시 사이이며, 9:01~9:30분 사이가 31.2%로 두 번째로 높은 등원시간대였다. 영유아 구분에서는 유아가 영아보다 대체로 등원시간이 이른 것으로 나타나서 영아는 9시 30분 이후 등원하는 비율이 14.8%정도였고 유아는 동일시간대 7.4%정도였다.

▮ 표 VI-1-11 ▮ 연령 및 영유아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등원시각(어린이집 도착 시간) 단위: %(명)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7:30까지	2.1	1.0	2.8	1.8	2.2	1.3	1.6	-	1.6
7:31~8:00	3.3	3.7	6.5	3.9	2.1	3.9	5.0	2.2	3.5
8:01~8:30	12.1	15.7	18.1	11.6	11.1	12.6	19.0	17.3	13.7
8:31~9:00	36.7	40.9	31.5	36.1	38.5	38.5	42.4	43.1	38.5
9:01~9:30	31.0	31.3	26.3	29.7	33.3	36.1	25.2	29.9	31.2
9:31~10:00	14.1	6.9	12.9	16.5	12.4	6.8	7.0	7.1	11.0
10:01이후	0.7	0.5	1.9	0.5	0.5	0.8	-	0.3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998)	(755)	(117)	(386)	(495)	(335)	(204)	(216)	(1,753)
χ^2 (df)	30.2(6)***		64.2(3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17) 2015년도 조사에서는 등원 시각을 '(기관 이용을 위해) 집에서 출발하는 시각', 하원 시간을 '(기관이용을 마치고)집에 도착하는 시간'으로 정의하여 2018년 조사에서 등·하원 시각과 직접적 비교가 불가하므로 제시하지 않음.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집을 나서는 시각이 가장 빨라서 오전 8시까지 등원하는 경우가 23.4%에 달하였다. 반면 대부분 영아가 이용하는 가정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등원시각이 늦은 경향을 보여서 9시 30분 이후 등원하는 비율이 16.4%로 이 시간대 등원 비율이 다른 유형 어린이집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8:31~9:00시 사이 등원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보이며 9시 30분 이후에 등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프로그램 시간을 준수하여 등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해석된다. 모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가구 영유아는 8:30분까지 등원하는 비율이 27.4%로 미취업모 가구(9.4%), 휴직중(10.4%)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나 조기 등원 비율이 높고, 반대로 미취업모 가구나 휴직모 가구에 비해 9시 30분 이후 늦은 시간에 어린이집에 도착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표 VI-1-12 ▶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등원시각(어린이집 도착 시간)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모취업 여부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취업	휴직중	미취업	모부재
7:30까지	3.0	0.5	1.0	0.7	3.0	2.5	1.9	1.5	1.3	2.8	-	0.4	-
7:31~8:00	2.4	2.2	5.7	2.6	4.1	20.9	3.7	2.8	4.4	6.2	1.2	0.5	3.8
8:01~8:30	12.2	20.0	29.1	12.3	10.6	31.0	13.2	13.4	15.4	18.4	9.2	8.5	24.9
8:31~9:00	40.9	50.1	31.8	40.2	30.6	24.3	33.6	37.1	52.1	39.0	37.2	37.9	55.8
9:01~9:30	30.4	20.6	19.9	32.9	35.2	19.2	34.2	32.5	21.7	23.7	37.3	39.3	15.5
9:31~10:00	10.2	6.6	12.6	10.7	16.0	2.2	12.5	12.3	4.7	9.3	12.9	12.9	-
10:01이후	0.9	-	-	0.6	0.4	-	0.9	0.4	0.5	0.6	2.2	0.4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17)	(90)	(96)	(874)	(221)	(55)	(611)	(514)	(628)	(888)	(97)	(751)	(17)
χ^2 (df)	133.8(30)***						51.5(12)***			133.8(18)***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어린이집 하원시각은 평균적으로 15:01~16:00시 사이가 39.6%로 가장 많이 하원하는 시간대로 나타났으며, 16:01~17:00시 사이가 34.0%로 그 다음으로 집중 하원하는 시간이었다. 즉,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대부분인 73.6%가 어린이집을 하원하고 있었다. 앞서 논의한 등원 결과와 연결해 보면, 가장 많은 경우가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사이에 집을 나서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귀가함을 알 수 있다. 영유아별로는 영아는 15:01~16:00시 사이 하원 비율이 가장 높았고(43.2%), 유아는 이보다 한 시간 늦은 16:01~17:00시 사이에 가장 많이 하원하고 있어(36.8%) 차이를 보였다.

표 VI-1-13 연령 및 영유아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하원시각(어린이집에서 나서는 시간)

단위: %(명)

구분	영유아구분		보육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14:00까지	1.7	1.1	2.0	2.4	1.1	1.1	1.1	1.2	1.5
14:01~15:00	5.8	5.1	8.5	6.8	4.3	5.1	2.8	7.3	5.5
15:01~16:00	43.2	34.8	32.4	46.6	43.1	35.1	31.8	36.9	39.6
16:01~17:00	31.8	36.8	32.2	28.5	34.4	38.5	39.3	32.2	34.0
17:01~17:30	6.0	9.0	7.6	5.3	6.1	7.9	10.0	9.8	7.3
17:31~18:00	5.3	6.1	7.5	4.9	5.0	8.0	4.7	4.6	5.6
18:01~19:00	5.5	5.9	8.3	4.9	5.2	3.5	8.6	7.1	5.7
19:01 이후	0.7	1.1	1.4	0.6	0.7	0.9	1.7	0.9	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998)	(755)	(117)	(386)	(495)	(335)	(204)	(216)	(1,753)
χ^2 (df)	18.9(7)***		57.5(3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 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오후 6시 이후에 하원하는 영유아의 비율이 직장어린이집에서 23.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에서 모두 약 8~9% 정도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특성상 부모의 퇴근 시 부모와 함께 늦게 귀가하는 영유아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모취업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오후 3~5시 사이의 하원 비율이 높았으나, 미취업모의 경우 15:01~16:00시 사이에 하원하는 비율이 50.2%로 취

업모의 30.0%에 비해 현저히 높았고, 취업모 가구의 영유아는 16:01~17:00시 사이 하원 비율이 가장 높은 35.3%였다.

▮ 표 VI-1-14 ▮ 제 특성별 이용 영유아의 하원 시각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			모취업 여부			
	국공립	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취업	휴직중	미 취업	모 부재
14:00까지	0.9	-	3.0	1.5	2.4	-	2.3	0.9	0.9	1.1	2.2	1.8	-
14:01~15:00	5.7	2.9	5.7	5.6	6.3	2.3	5.3	6.1	4.7	3.0	8.7	8.1	4.4
15:01~16:00	33.7	36.0	33.6	41.9	47.5	16.3	42.5	42.6	26.5	30.0	45.9	50.2	22.3
16:01~17:00	35.8	42.1	39.9	34.0	27.7	32.2	31.4	30.7	46.9	35.3	31.8	32.8	23.7
17:01~17:30	9.8	5.4	5.6	7.1	4.9	9.0	5.8	8.0	8.9	9.3	4.6	5.3	3.6
17:31~18:00	5.1	5.8	3.3	5.6	5.0	16.4	6.4	4.5	6.7	9.0	6.7	1.2	32.3
18:01~19:00	7.1	7.8	8.9	3.6	5.7	22.9	5.5	6.6	4.0	10.6	-	0.5	9.8
19:01 이후	2.0	-	-	0.7	0.5	0.8	0.8	0.7	1.4	1.6	-	0.1	4.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17)	(90)	(96)	(874)	(221)	(55)	(514)	(628)	(888)	(97)	(751)	(17)	(10)
χ^2 (df)	98.0(35)***						55.5(14)***			228.8(21)***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등·하원 시각으로부터 이용시간을 산출한 결과 평균 7시간 24분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1시간 18분이었다. 그러므로 대부분 어린이집을 7~8시간 정도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9시간을 넘어 이용하고 있는 비율은 9.2%정도였다. 연령별로 이용 시간을 살펴보면 유아가 하루 평균 7시간 30분을 이용하며 영아의 7시간 12분에 비해 하루 평균 18분가량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0세의 경우 9시간 이상 이용률이 15.9%에 달했다. 0세아가 다른 연령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이용시간이 길다는 점을 볼 때, 0세에 대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VI-1-15 연령 및 영유아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이용시간

단위: %(명), 시간, 분

구분	영유아구분		보육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5시간까지	3.4	1.7	5.9	4.3	2.0	1.8	1.3	1.9	2.6
5~6시간	18.4	11.6	14.3	20.1	18.0	13.1	7.8	12.8	15.5
6~7시간	34.4	32.5	29.2	34.4	35.7	31.0	29.6	37.3	33.6
7~8시간	24.1	28.0	26.3	22.9	24.4	30.7	29.3	23.0	25.8
8~9시간	11.0	16.6	8.4	10.5	12.0	15.6	18.3	16.6	13.4
9~10시간	6.1	6.0	10.2	5.3	5.7	5.0	7.9	5.9	6.1
10시간 이상	2.7	3.5	5.7	2.5	2.2	2.8	5.8	2.5	3.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998)	(755)	(117)	(386)	(495)	(335)	(204)	(216)	(1,753)
χ^2 (df)	30.7(6)***		65.7(30)***						
평균	7시간 12분	7시간 30분	7시간 30분	7시간 6분	7시간 16분	7시간 24분	7시간 42분	7시간 24분	7시간 24분
표준편차	1시간 16분	1시간 16분	1시간 4분2	1시간 18분	1시간 18분	1시간 12분	1시간 24분	1시간 18분	1시간 18분
F	-4.2***		6.3***(a)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다음으로 제 특성별로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살펴보았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등·하원 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이용시간은 평균 7시간 24분이었으며, 2015년도와 비교해 볼 때 평균 이용시간이 약 24분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의 이용시간이 7시간 42분으로 대도시, 중소도시의 7시간 18분에 비해 24분가량 길었으며 어머니 취업 여부별로 보면 어머니가 취업중일 경우 7시간 48분을 이용하는데 비해 미취업모는 6시간 54분으로 약 1시간 이상의 차이를 보여 모의 취업과 기관 이용시간과 관련이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라도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영유아의 이용시간이 평균 8시간 30분으로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1시간 가량 길고, 이용시간이 9시간 이상인 경우가 36.5% 정도에 이르러 취업모를 위한 보육서비스 지원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표 VI-1-16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시간(등·하원시간 제외)

단위: %(명), 시간, 분

구분	5시간 까지	5~6시간	6~7시간	7~8시간	8~9시간	9~10 시간	10시간 이상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2.6	15.5	33.6	25.8	13.4	6.1	3.1	100.0 (1,753)	7시간 24분	1시간 18분
지역규모										
대도시	3.5	18.8	33.9	22.3	12.5	5.5	3.4	100.0 (611)	7시간 18분	1시간 24분
중소도시	2.4	15.5	36.9	23.3	12.2	6.9	2.8	100.0 (514)	7시간 18분	1시간 18분
읍면지역	1.4	8.2	25.6	38.6	18.2	5.1	3.0	100.0 (628)	7시간 42분	1시간 12분
χ^2 (df)/F				62.9(12)***					9.7***(a)	
모취업 여부										
취업	1.6	9.3	26.6	26.9	19.0	10.7	5.9	100.0 (888)	7시간 48분	1시간 24분
휴직	3.3	24.3	39.5	18.2	11.4	3.3	-	100.0 (97)	6시간 54분	1시간 12분
미취업	3.9	21.7	41.3	25.5	6.6	1.0	0.1	100.0 (751)	6시간 54분	1시간 0분
모부재	-	4.4	17.4	20.6	49.5	4.2	4.0	100.0 (17)	8시간 18분	1시간 6분
χ^2 (df)/F				258.6(18)***					84.6***(a)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1.7	13.0	32.8	27.6	13.6	8.0	3.2	100.0 (417)	7시간 30분	1시간 24분
법인	-	12.5	26.6	36.5	14.3	7.3	2.7	100.0 (90)	7시간 42분	1시간 12분
법인·단체등	4.4	12.5	24.9	29.7	17.8	5.2	5.4	100.0 (96)	7시간 30분	1시간 24분
민간	2.9	16.5	35.3	25.5	13.6	4.4	1.9	100.0 (874)	7시간 12분	1시간 12분
가정	3.9	18.9	37.7	21.8	8.2	5.0	4.6	100.0 (221)	7시간 12분	1시간 24분
직장	-	7.4	12.7	17.0	26.5	24.9	11.6	100.0 (55)	8시간 30분	1시간 24분
χ^2 (df)/F				102.0(30)***					12.7***	
2015년 조사	4.2	19.2	36.2	20.5	11.0	6.0	2.7	100.0 (1,745)	7시간 0분	1시간 26분

주: 1)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3) 평균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결과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나)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 시간

모의 취업특성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취업모 가구의 경우 영아 7시간 24분, 유아 7시간 54분이며, 취업모에 비해 휴직 중이거나 미취업 상태 모의 영유아는 이용시간이 적은 편이었다. 즉, 휴직모의 아동은 영아 6시간 36분, 유아 7시간 24분 이용하며, 미취업모의 아동은 영아 6시간 48분, 유아 7시간으로 나타나 취업모의 아동에 비해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짧았다.

연령별로 보면 취업모의 경우는 0세아의 이용시간이 8시간 6분으로 가장 긴 반면, 휴직 중이나 미취업모인 경우는 각각 6시간 24분, 6시간 36분으로 취업모의 경우와 달리 아동연령 중 0세아의 이용시간이 가장 짧아 다른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앞의 <표 VI-1-16>에서도 보았듯이 전체 영유아 수에서 0세아가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특히 취업모의 0세아가 장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2012년 및 2015년 평균과 비교해보면 2018년 결과는 2009년과 2012년의 전체 영유아 수치와 비슷한 편이며, 2015년에 비해서는 이용시간이 영유아 모두 30분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표 VI-1-17 모 취업특성별 어린이집 이용시간(등·하원시간 제외)

단위: 시간, 분(명)

구분	영유아구분		보육연령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취업모 아동								
평균	7시간24분	7시간54분	8시간16분	7시간36분	7시간42분	7시간54	8시간16분	7시간48분
표준편차	1시간30분	1시간18분	1시간36분	1시간30분	1시간24분	1시간30	1시간24분	1시간24분
(수)	(483)	(405)	(68)	(197)	(218)	(177)	(115)	(113)
모휴직중 아동								
평균	6시간36분	7시간24분	6시간24분	6시간30분	6시간48분	7시간24분	7시간18분	7시간42분
표준편차	1시간16분	1시간16분	0시간54분	1시간10분	1시간12분	1시간12분	1시간16분	1시간12분
(수)	(67)	(30)	(13)	(20)	(34)	(17)	(8)	(5)
미취업모 아동								
평균	6시간48분	7시간10분	6시간36분	6시간42분	6시간54분	6시간54분	7시간16분	6시간54
표준편차	1시간10분	1시간10분	1시간18분	0시간54분	1시간10분	1시간10분	1시간16분	0시간54분
(수)	(441)	(310)	(36)	(168)	(237)	(139)	(78)	(93)
모부재 아동								
평균	8시간42분	7시간54분	-	9시간10분	8시간36분	9시간36분	8시간6	7시간12분
표준편차	0시간42분	1시간18분	-	-	0시간42분	-	1.0	1시간16분
(수)	(7)	(10)		(1)	(6)	(2)	(3)	(5)

구분	영유아구분		보육연령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평균	7시간12분	7시간30분	7시간30분	7시간6분	7시간18분	7시간24분	7시간42분	7시간24분
표준편차	1시간18분	1시간18분	1시간42분	1시간18분	1시간18분	1시간12분	1시간24분	1시간18분
(수)	(998)	(755)	(117)	(386)	(495)	(335)	(204)	(216)
2015년 조사	6시간 53분	7시간 9분	6시간 47분	6시간 49분	6시간 56분	7시간 13분	7시간 10분	7시간 0분
2012년 조사	7시간20분	7시간49분	7시간	7시간16분	7시간29분	7시간43분	7시간58분	7시간47분
2009년 조사	7시간42분	7시간48분	8시간 6분	7시간51분	7시간34분	7시간44분	7시간50분	7시간51분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3) 평균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결과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015년, 2012년 및 2009년 자료와 비교하기 위해서 등·하원시간을 포함한 이용 시간을 살펴보면 2018년 어린이집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등·하원 시간 포함)은 7시간 42분으로 2009년과 유사한 수치를 보임으로써, 2015년까지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경향과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제 특성별로는 유아의 경우(7시간 54분), 읍면지역일 경우(8시간), 취업모의 경우(8시간 12분),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9시간 6분)의 이용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VI-1-18 ▮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시간(등·하원시간 포함)

단위: %(명), 시간, 분

구분	5시간 까지	5~6시간	6~7시간	7~8시간	8~9시간	9~10 시간	10시간 이상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등·하원시간포함)	1.1	4.4	26.8	31.9	19.6	10.0	6.2	100.0 (1,753)	7시간 42분	1시간 24분
영유아 구분										
영아	1.3	5.0	30.3	32.0	16.4	9.2	5.8	100.0 (998)	7시간 30분	1시간 24분
유아	0.9	3.6	22.1	31.7	23.8	11.0	6.9	100.0 (755)	7시간 54분	1시간 18분
χ^2 (df)/F				27.2(6)***						-5***
지역규모										
대도시	1.7	4.8	30.7	29.9	17.6	9.3	6.0	100.0 (611)	7시간 42분	1시간 24분
중소도시	0.9	4.6	27.7	33.3	17.0	9.3	7.1	100.0 (514)	7시간 49분	1시간 24분
읍면지역	0.6	2.7	16.6	33.0	29.5	12.9	4.8	100.0 (628)	8시간 0분	1시간 12분
χ^2 (df)/F				50.0(12)***						10.5***(a)



구분	5시간 까지	5~6시간	6~7시간	7~8시간	8~9시간	9~10 시간	10시간 이상	계(수)	평균	표준 편차	
모취업 여부											
취업	0.9	2.2	18.5	28.3	22.4	15.9	11.8	100.0 (888)	8시간 12분	1시간 30분	
휴직	3.3	5.6	35.4	33.4	14.4	7.9	-	100.0 (97)	7시간 12분	1시간 12분	
미취업	1.1	6.9	35.7	36.0	16.9	2.8	0.6	100.0 (751)	7시간 12분	1시간 0분	
모부재 등	-	-	4.4	26.6	19.4	45.7	4.0	100.0 (17)	8시간 36분	1시간 6분	
χ^2 (df)/F									260.1(18)***	85.2***(a)	
어린이집유형											
국공립	1.0	1.9	23.8	30.8	22.8	13.1	6.5	100.0 (417)	7시간 54분	1시간 24분	
법인	-	2.7	28.2	24.0	27.8	10.6	6.8	100.0 (90)	7시간 54분	1시간 12분	
법인·단체등	0.5	5.8	25.5	22.4	30.3	8.5	7.0	100.0 (96)	7시간 54분	1시간 24분	
민간	1.1	5.4	26.5	35.1	19.1	8.5	4.3	100.0 (874)	7시간 36분	1시간 18분	
가정	2.3	5.0	36.6	28.7	13.2	7.3	6.9	100.0 (221)	7시간 24분	1시간 30분	
직장	-	2.2	6.0	24.6	8.4	26.0	33.0	100.0 (55)	9시간 6분	1시간 36분	
χ^2 (df)/F									151.5(30)***	17.7***(a)	
2015년 조사	3.3	16.1	36.0	21.8	12.2	6.5	4.2	100.0 (1,745)	7시간 20분	1시간 26분	
2012년 조사	5.7	10.5	26.3	26.5	14.9	10.0	6.1	100.0 (1,536)	7시간 34분	1시간 36분	
2009년 조사	7.3	15.3	17.6	18.9	18.0	12.7	22.9	100.0 (1,910)	7시간 45분	1시간 59분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3) 평균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결과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어린이집 일반 운영 시간인 오후 7시 30분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향을 보면, 78.9%는 초과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월1회 이하가 9.4%, 월 2~4 회가 7.4%로 16.8% 정도가 주1회 이하로 가끔 이용시간을 초과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로는 2세아가 시간 초과 이용 비율이 가

장 높고 읍면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 초과 이용 비율이 높았다. 미취업모보다는 취업모가 시간 초과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별로는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순으로 이용 시간을 초과해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 표 VI-1-19 ■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시간 초과 이용

구분	단위: %(명)						계(수)
	월 1회 이하	월 2-4회	주 2-3회	주 4-5회	매일	없음	
전체	9.4	7.4	2.4	0.8	1.0	78.9	100.0 (1,753)
영유아구분							
영아	9.7	7.7	2.9	1.0	1.2	77.5	100.0 (998)
유아	9.0	7.1	1.8	0.5	0.7	80.9	100.0 (755)
보육연령							
0세	6.5	9.8	1.9	1.1	-	80.7	100.0 (117)
1세	9.2	8.1	3.1	1.0	0.9	77.7	100.0 (386)
2세	10.9	6.8	3.0	0.9	1.8	76.5	100.0 (495)
3세	10.5	7.1	1.7	0.4	0.7	79.6	100.0 (335)
4세	7.9	7.6	1.6	0.6	1.1	81.3	100.0 (204)
5세	7.8	6.6	2.2	0.6	0.4	82.4	100.0 (216)
지역규모							
대도시	10.1	8.0	2.2	0.5	1.0	78.1	100.0 (611)
중소도시	10.2	7.5	3.3	1.1	1.2	76.8	100.0 (514)
읍면지역	6.3	6.1	0.9	0.5	0.6	85.5	100.0 (628)
모취업 여부							
취업	11.0	7.9	2.6	0.8	0.6	77.1	100.0 (888)
휴직중	13.4	6.6	1.3	1.1	1.1	76.5	100.0 (97)
미취업	7.1	7.0	2.5	0.7	1.5	81.2	100.0 (751)
모부재 등	-	7.4	-	-	-	92.6	100.0 (17)
어린이집유형							
국공립	9.2	8.4	3.3	0.7	1.9	76.6	100.0 (417)
법인	6.8	2.2	6.3	-	-	84.6	100.0 (90)
법인·단체등	15.8	3.4	2.7	-	-	78.1	100.0 (96)
민간	8.8	7.1	1.6	0.7	0.8	81.1	100.0 (874)
가정	9.0	9.1	3.6	1.7	0.9	75.7	100.0 (221)
직장	17.5	11.5	-	-	2.2	68.8	100.0 (55)
2015년 조사	11.4	9.3	1.9	1.5	0.8	75.1	100.0 (1,745)
2012년 조사	8.8	6.9	1.0		0.5	82.9	100.0 (1,536)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나) 맞춤형 이용

어린이집 맞춤형 이용 여부를 살펴보면, 영유아의 21.6%가 맞춤형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아와 유아를 구분해서 볼 경우 영아 중 37.8%가 맞춤형을 이용하며, 유아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00.0%였다. 이는 맞춤형, 종일반의 개념을 구분하는 맞춤형 보육이 영아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한편, 모 취업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미취업모(72.6%)에 비해 취업모(84.8%)가 맞춤형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다.

맞춤형을 이용한다는 응답자 중에서 긴급보육바우처 활용 경험을 확인한 결과, 맞춤형 이용자 중 64.7%가 긴급보육바우처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의 이용이 더 많았다(81.6%).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났는데,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이용경험 비율이 각각 74.3%, 57.8%로 취업모가 미취업모에 비해 긴급보육바우처를 활용한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VI-1-20 어린이집 맞춤형 이용 및 긴급보육바우처 활용 경험

단위: %(명)

구분	맞춤형 이용 여부			긴급보육바우처 활용 경험		
	예	아니오	(수)	이용경험 있음	이용경험 없음	(수)
전체	21.6	78.4	(1,753)	64.7	35.3	(373)
영유아 구분						
영아	37.8	62.2	(998)	64.7	35.3	(373)
유아	-	100.0	(755)	-	-	-
$\chi^2(df)$	360.8(1)***					
지역규모						
대도시	23.2	76.8	(611)	62.1	37.9	(144)
중소도시	21.4	78.6	(514)	60.9	39.1	(110)
읍면지역	18.5	81.5	(628)	81.6	18.4	(119)
$\chi^2(df)$	2.8(2)			8.9(2)**		
모취업 여부						
취업	15.2	84.8	(888)	74.3	25.7	(141)
휴직중	35.5	64.5	(97)	68.3	31.7	(34)
미취업	27.4	72.6	(751)	57.8	42.2	(197)
모부재(이혼,사망등)	4.1	95.9	(17)	100.0	-	(1)
$\chi^2(df)$	50.7(3)***			10.5(3)**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14.8	85.2	(57)	67.1	32.9	(11)
200~249만원	26.1	73.9	(123)	53.9	46.1	(31)
250~299만원	22.2	77.8	(134)	75.9	24.1	(25)

구분	맞춤반 이용 여부			긴급보육바우처 활용 경험		
	예	아니오	(수)	이용경험 있음	이용경험 없음	(수)
300~349만원	26.0	74.0	(253)	64.0	36.0	(65)
350~399만원	19.8	80.2	(164)	65.2	34.8	(32)
400~499만원	24.2	75.8	(359)	64.1	35.9	(82)
500~599만원	20.3	79.7	(286)	62.1	37.9	(59)
600~699만원	16.9	83.1	(166)	73.2	26.8	(30)
700만원 이상	18.1	81.9	(206)	64.0	36.0	(37)
모름/무응답	19.1	80.9	(5)	-	100.0	(1)
χ^2 (df)	12.0(9)			4.3(9)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 보육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 $p < .001$.

맞춤반 이용 경험이 없는 유아를 제외하고 영아만을 대상으로 맞춤반 이용 여부를 살펴보면,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커서 취업모와 미취업모 공통적으로 맞춤반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으나, 미취업모(53.3%)에 비해 취업모(72.2%)가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다. 즉, 취업모 가구의 영아는 대체로 종일반을 이용중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가구소득별로도 차이를 보여 200만원 미만과 600만원 이상에서 맞춤반을 이용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은 편이었다. 긴급보육바우처 활용 경험의 경우 읍면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취업모가 미취업모에 비해 이용경험이 더 많이 있었다.

▮ 표 VI-1-21 ▮ 어린이집 맞춤반 이용 및 긴급보육바우처 활용 경험(영아만 대상)

단위: %(명)

구분	맞춤반 이용 여부			긴급보육바우처 활용 경험		
	예	아니오	(수)	이용경험 있음	이용경험 없음	(수)
전체	37.8	62.2	(998)	64.7	35.3	(373)
지역규모						
대도시	39.3	60.7	(365)	62.1	37.9	(144)
중소도시	37.3	62.7	(300)	60.9	39.1	(110)
읍면지역	35.3	64.7	(333)	81.6	18.4	(119)
χ^2 (df)	0.9(2)			8.9(2)**		
모취업 여부						
취업	27.8	72.2	(483)	74.3	25.7	(141)
휴직중	52.2	47.8	(67)	68.3	31.7	(34)
미취업	46.7	53.3	(441)	57.8	42.2	(197)
모부재(이혼, 사망 등)	8.2	91.8	(7)	100.0	-	(1)

구분	맞춤반 이용 여부			긴급보육바우처 활용 경험		
	예	아니오	(수)	이용경험 있음	이용경험 없음	(수)
χ^2 (df)	43.9(3)***			10.5(3)**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31.0	69.0	(30)	67.1	32.9	(11)
200~249만원	43.2	56.8	(71)	53.9	46.1	(31)
250~299만원	42.5	57.5	(73)	75.9	24.1	(25)
300~349만원	49.2	50.8	(137)	64.0	36.0	(65)
350~399만원	37.0	63.0	(89)	65.2	34.8	(32)
400~499만원	42.6	57.4	(199)	64.1	35.9	(82)
500~599만원	32.3	67.7	(179)	62.1	37.9	(59)
600~699만원	29.1	70.9	(99)	73.2	26.8	(30)
700만원 이상	29.9	70.1	(119)	64.0	36.0	(37)
모름/무응답	47.7	52.3	(2)	-	100.0	(1)
χ^2 (df)	20.2(9)**			4.3(9)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아: 보육연령 기준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 $p < .001$.

다) 기관 이용 시간에 대한 의견

어린이집의 이용시간과 관련해서 운영시간(1일 12시간, 주 6일 운영)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5%에 그쳤으며 12시간보다 적게 이용하는 이유로는 12시간 이용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37.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아이가 힘들어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2.7%, 가정내 돌봐줄 사람이 있어서가 21.9% 순이었다. 보육연령에 따라서는 유아의 경우 12시간 이용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40.7%로 가장 많았다. 영아의 경우 여전히 12시간 이용이 불필요하다는 이유가 34.1%로 가장 많았지만 아이가 힘들어하거나(26.1%) 돌봐줄 사람이 있다는 이유를 드는 경우가(24.7%) 유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법인과 직장어린이집에서 다니는 어린이집이 12시간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각각 26.4%, 24.6%로 기타 어린이집 유형에 비해 높은 편이었던데 반해, 법인과 직장어린이집이 아이가 힘들어한다는 이유를 드는 비율이 각각 14.3%, 17.9%로 낮은 편이었다.

표 VI-1-22 어린이집 운영시간 인지 및 미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인지 여부		12시간보다 적게 이용하는 이유 (어린이집 영아반 종일반 이용자 + 유아반 대상)							
	인지	(수)	12시간 이용 불필요	다니는 어린이집 12시간 미운영	가정내 돌보줄 사람이 있어서	다른 교육기관 이용	아이가 힘들어서	기타	모름/ 무응답	계(수)
전체	29.5	(2,830)	37.7	14.7	21.9	1.6	22.7	1.0	0.4	100.0(1,380)
영유아 구분										
영아	35.5	(1,012)	34.1	13.5	24.7	0.5	26.1	1.1	-	100.0(625)
유아	26.3	(1,818)	40.7	15.8	19.5	2.6	19.9	0.9	0.6	100.0(755)
χ^2 (df)	26.7(1)***		24.4(5)***							
보육연령										
0세	39.7	(118)	28.2	18.9	24.5	1.7	22.9	3.8	-	100.0(76)
1세	32.1	(389)	36.2	13.2	19.6	-	30.8	0.3	-	100.0(240)
2세	37.2	(505)	34.0	12.3	28.8	0.5	23.3	1.1	-	100.0(309)
3세	27.6	(630)	41.1	16.0	18.5	2.0	20.0	1.5	0.7	100.0(335)
4세	28.8	(532)	42.8	13.7	19.1	0.9	22.4	-	1.0	100.0(204)
5세	23.2	(656)	38.3	17.3	21.2	4.9	17.4	0.7	0.2	100.0(216)
χ^2 (df)	35.6(5)***		62.3(25)***							
지역규모										
대도시	31.8	(1,010)	38.4	9.8	20.7	1.1	28.3	1.2	0.5	100.0(467)
중소도시	29.2	(862)	34.9	19.1	22.2	2.1	20.4	0.9	0.2	100.0(404)
읍면지역	25.0	(958)	42.4	15.1	23.3	1.6	16.6	0.6	0.4	100.0(509)
χ^2 (df)	7.9(2)**		35.0(10)***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42.7	(417)	38.1	11.2	26.8	1.5	20.7	1.5	0.2	100.0(337)
법인	35.3	(90)	42.1	26.4	14.3	1.8	14.3	0.6	0.6	100.0(78)
법인·단체등	24.4	(96)	44.5	12.1	20.5	-	21.8	1.2	-	100.0(83)
민간	34.2	(874)	37.9	15.4	19.7	2.1	24.0	0.6	0.3	100.0(699)
가정	35.6	(221)	29.7	12.2	28.5	0.6	25.8	2.3	0.8	100.0(135)
직장	41.0	(55)	44.4	24.6	13.1	-	17.9	-	-	100.0(48)
χ^2 (df)	13.8(5)**		44.3(25)**							
2015년 조사	4.3	(1,745)	43.7	13.1	16.8	1.9	23.7	0.2	-	100.0(71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인지여부는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자 대상이며, 12시간보다 적게 이용하는 이유는 어린이집 영아반 종일제 이용자와 유아반 이용자 중 12시간 미만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3) 영유아 구분 : 보육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 $p < .001$.

어린이집의 이용시간 만족도에 관해서는 시작시간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92.3% 이고 너무 이르거나 늦다는 비율은 각각 3.4%, 4.4%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끝나는 시간에 대한 응답은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14.9%가 너무 이르다는 응답을 보였고 84.7%가 만족한다고 조사되어 시작시간의 만족도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12년과 2015년과 비교해보면, 시작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2012년에 83.9%에 비해 높아진 편이었으나 2015년에 94.3%와 비교할 때는 오히려 약간 감소한 수준이었다. 종료시간에 있어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65.2%의 만족도를 보인 2012년에 비하면 약 20% 가까이 증가한 편이었으나, 87.8%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2015년과 비교했을 때는 만족도가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23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시간 만족 정도

단위: %(명)

구분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계(수)
	만족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기타	만족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기타	
전체	92.3	3.4	4.4	-	84.7	14.9	0.4	-	100.0 (1,753)
영유아구분									
영아	91.3	3.2	5.5	-	84.1	15.5	0.3	-	100.0 (998)
유아	93.5	3.6	2.9	-	85.6	14.0	0.5	-	100.0 (755)
보육연령									
0세	88.8	1.9	9.2	-	85.3	14.7	-	-	100.0 (117)
1세	90.2	2.9	7.0	-	82.9	16.4	0.6	-	100.0 (386)
2세	92.8	3.7	3.4	-	84.8	15.0	0.2	-	100.0 (495)
3세	92.1	4.1	3.8	-	85.7	13.7	0.7	-	100.0 (335)
4세	95.1	2.0	2.9	-	86.0	14.0	-	-	100.0 (204)
5세	94.2	4.2	1.6	-	85.0	14.4	0.7	-	100.0 (216)
지역규모									
대도시	92.9	2.6	4.5	-	85.0	14.4	0.6	-	100.0 (611)
중소도시	90.4	4.3	5.3	-	83.9	15.8	0.4	-	100.0 (514)
읍면지역	95.1	2.7	2.2	-	86.1	13.9	-	-	100.0 (628)
모취업 여부									
취업	91.6	3.0	5.4	-	83.9	15.6	0.5	-	100.0 (888)
휴직중	89.1	2.7	8.2	-	83.4	16.6	-	-	100.0 (97)
미취업	93.5	3.8	2.7	-	85.9	13.8	0.3	-	100.0 (751)
모부재 등	87.7	8.1	4.2	-	87.4	12.6	-	-	100.0 (17)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93.7	1.5	4.8	-	84.3	15.7	-	-	100.0 (417)

구분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계(수)
	만족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기타	만족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기타	
법인	96.8	3.2	-	-	83.4	16.6	-	-	100.0 (90)
법인·단체등	89.6	8.0	2.4	-	79.3	19.0	1.7	-	100.0 (96)
민간	92.8	4.0	3.2	-	86.3	13.3	0.4	-	100.0 (874)
가정	87.1	2.3	10.6	-	80.3	19.0	0.8	-	100.0 (221)
직장	95.1	4.9	-	-	92.5	7.5	-	-	100.0 (55)
2015년 조사	94.3	2.1	3.5	0.1	87.8	10.9	1.0	0.3	100.0 (1,745)
2012년 조사	83.9	3.9	12.2	-	65.2	32.4	2.5	-	100.0 (1,536)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라) 어린이집 이용 희망 시간

부모가 원하는 어린이집 시작 시각을 보면, 오전 7시 30분 이전이 12.0%정도로 나와 실제로 등원하고 있는 시각보다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시작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이용 시작 시각은 8시 48분으로 분석되었다. 앞서 살펴본 등원시각에서는 오전 9시 이후 등원이 45.8%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가 희망하는 시작 시각은 9시 이후가 24.0%로, 시작 시각이 조금 앞당겨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유아보다는 영아의 경우 오전 9시 30분 이후 시작을 희망하는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고, 대도시나 중소도시 등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희망 시작 시각이 늦었다. 미취업모는 오전 9시 이후 시작 희망이 32.5%로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고 취업모는 17.9%만이 오전 9시 이후를 원해 약 14%p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즉 취업모와 미취업모간 이용 시간에 대한 요구가 다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시설 운영시간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 표 VI-1-24 ▮ 부모가 희망하는 어린이집 시작 시각

단위: %(명), 시:분

구분	7:30 이전	7:31 ~8:00	8:01 ~8:30	8:31 ~9:00	9:01 ~9:30	9:31 ~10:00	10:31 이후	계(수)	$\chi^2(df)$	평균
전체	12.0	10.3	13.8	39.9	16.4	7.3	0.3	100.0 (1,753)		8:48
영유아 구분										
영아	12.5	10.1	12.5	39.4	16.1	8.9	0.5	100.0 (998)	13.2	8:48
유아	11.4	10.4	15.5	40.5	17.0	5.2	0.1	100.0 (755)	(6)*	8:48

구분	7:30 이전	7:31 ~8:00	8:01 ~8:30	8:31 ~9:00	9:01 ~9:30	9:31 ~10:00	10:31 이후	계(수)	$\chi^2(df)$	평균
보육연령										
0세	23.3	11.4	15.7	28.8	11.9	9.0	-	100.0 (117)		8:36
1세	11.2	11.8	13.8	37.9	14.3	10.4	0.6	100.0 (386)		8:48
2세	10.8	8.5	10.8	43.1	18.5	7.7	0.6	100.0 (495)	60.1	8:48
3세	8.4	9.3	13.9	42.2	20.6	5.6	-	100.0 (335)	(30)**	8:48
4세	14.9	11.0	17.0	39.5	11.2	6.4	-	100.0 (204)		8:42
5세	12.5	11.5	16.3	38.9	16.8	3.6	0.3	100.0 (216)		8:42
지역규모										
대도시	14.2	11.0	11.0	33.8	19.7	9.8	0.6	100.0 (611)		8:48
중소도시	12.8	11.5	13.1	40.5	15.5	6.5	0.2	100.0 (514)	77.4	8:42
읍면지역	5.5	6.0	21.3	51.2	11.7	4.0	0.2	100.0 (628)	(12)***	8:48
모취업 여부										
취업	15.8	15.6	15.0	35.7	12.0	5.4	0.5	100.0 (888)		8:36
휴직	25.1	5.9	11.9	38.8	7.7	10.6	-	100.0 (97)	159.5	8:36
미취업	5.6	4.5	12.5	44.9	23.0	9.2	0.3	100.0 (751)	(18)***	9:00
모부재	16.5	11.7	17.3	44.6	9.8	-	-	100.0 (17)		8:30
어린이집유형										
국공립	18.8	10.7	12.8	37.4	13.1	6.9	0.2	100.0 (417)		8:36
법인	5.2	2.7	21.3	51.9	14.4	4.4	-	100.0 (90)		8:54
법인·단체등	7.6	9.0	32.1	33.4	13.6	4.3	-	100.0 (96)	117.8	8:42
민간	8.7	8.6	13.2	42.4	19.0	7.9	0.3	100.0 (874)	(30)***	8:54
가정	17.0	13.7	9.1	34.9	15.7	8.8	0.9	100.0 (221)		8:42
직장	11.3	31.7	17.7	29.4	7.6	2.4	-	100.0 (55)		8:30
2015년 조사	10.3	8.5	14.1	33.5	22.5	10.4	0.8	100.0 (1,745)		8:54
2012년 조사	6.0	15.0	16.0	31.5	19.8	10.6	1.1	100.0 (1,536)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1$, *** $p < .001$.

가장 많이 희망하는 등원 시간대는 8:31~9:00시 사이(39.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영유아 구분별로도 가장 희망하는 시간대는 8:31~9:00시 사이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다만 오전 9시 이후에 시작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영아(25.5%)가 유아(22.3%)에 비해 좀 더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세아와 3세아가 각각 26.8%, 26.2%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평균 희망 시작시각은 0세가 가장 빨라서 8:36분으로 나타났다.

표 VI-1-25 영유아구분별·연령별 어린이집 희망 시작 시각

단위: %(명), 시:분

구분	영유아구분		보육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이상		
7:30까지	12.5	11.4	23.3	11.2	10.8	8.4	14.9	12.5	12.0	
7:31~8:00	10.1	10.4	11.4	11.8	8.5	9.3	11.0	11.5	10.3	
8:01~8:30	12.5	15.5	15.7	13.8	10.8	13.9	17.0	16.3	13.8	
8:31~9:00	39.4	40.5	28.8	37.9	43.1	42.2	39.5	38.9	39.9	
9:01~9:30	16.1	17.0	11.9	14.3	18.5	20.6	11.2	16.8	16.4	
9:31~10:00	8.9	5.2	9.0	10.4	7.7	5.6	6.4	3.6	7.3	
10:01이후	0.5	0.1	-	0.6	0.6	-	-	0.3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998)	(755)	(117)	(386)	(495)	(335)	(204)	(216)	(1,753)	
평균(시간)	8:48	8:48	8:36	8:48	8:48	8:48	8:42	8:42	8:48	
$\chi^2(df)$	13.2(6)**		60.1(3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 $p < .001$.

부모가 희망하는 어린이집 종료 시각을 살펴 본 결과, 15:01~16:00시 사이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가 24.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16:31~17:00시 사이로 18.8%, 17:31~18:00시 사이가 14.2%로 많았다. 그러므로 과반수 이상인 52.4%가 15:01~17:00시 사이에 종료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취업모의 67.5%가 이 시간대의 종료를 희망하고 있었던 반면, 취업모의 경우 40.4%에 지나지 않으며 33.5%가 오후 6시 이후에 종료하기를 희망하여 취업 여부에 따라 희망종료 시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I-1-26 부모가 희망하는 어린이집 종료 시각

단위: %(명), 시:분

구분	14:00 까지	14:01	15:01	16:01	16:31	17:01	17:31	18:01	18:31	19:00	19:31 이후	계(수)	$\chi^2(df)$	평균
		~ 15:00	~ 16:00	~ 16:30	~ 17:00	~ 17:30	~ 18:00	~ 18:30	~ 19:00	~ 19:30				
전체	0.5	2.9	24.9	8.7	18.8	6.5	14.2	5.4	6.3	5.7	6.3	100.0	(1,753)	17:18
영유아 구분														
영아	0.7	3.3	26.7	8.6	18.6	6.2	12.9	5.0	6.6	6.0	5.5	100.0	(998)	17:18
유아	0.4	2.4	22.5	8.8	19.0	7.0	15.8	5.9	5.8	5.3	7.3	100.0	(755)	17:24
보육연령														
0세	1.0	2.4	17.0	8.4	18.9	8.5	10.9	5.2	9.4	10.5	7.7	100.0	(117)	17:36
1세	0.3	4.4	27.9	7.9	17.1	5.5	13.7	6.8	4.6	6.9	4.9	100.0	(386)	17:12



구분	14:00 까지	14:01 ~ 15:00	15:01 ~ 16:00	16:01 ~ 16:30	16:31 ~ 17:00	17:01 ~ 17:30	17:31 ~ 18:00	18:01 ~ 18:30	18:31 ~ 19:00	19:00 ~ 19:30	19:31 이후	계(수)	$\chi^2(df)$	평균
2세	0.8	2.5	28.0	9.1	19.8	6.1	12.9	3.5	7.5	4.2	5.5	100.0 (495)		17:12
3세	0.5	3.0	24.4	9.4	17.3	7.2	17.5	5.7	4.9	5.2	4.8	100.0 (335)		17:18
4세	0.5	2.2	19.8	7.7	19.9	6.5	17.3	4.1	5.4	6.0	10.8	100.0 (204)		17:30
5세	-	1.6	22.1	8.8	20.5	7.1	12.0	7.8	7.6	4.7	7.8	100.0 (216)		17:30
지역규모														
대도시	0.5	2.8	28.9	8.8	15.3	6.7	11.8	4.9	6.7	5.5	7.9	100.0 (611)		17:18
중소도시	0.7	2.9	22.7	7.0	20.6	4.9	14.4	6.3	7.4	7.1	6.0	100.0 (514)	61.7(20) ***	17:24
읍면지역	0.1	2.9	21.2	12.0	21.8	9.7	18.7	4.3	2.8	3.0	3.5	100.0 (628)		17:12
모취업 여부														
취업	0.2	2.4	16.6	7.0	16.8	6.0	17.4	8.7	8.2	7.4	9.2	100.0 (888)		17:42
휴직	1.1	2.1	24.9	7.4	14.5	3.3	17.2	3.4	7.6	10.1	8.4	100.0 (97)	210.2(30) ***	17:30
미취업	0.8	3.5	34.8	10.9	21.8	7.6	9.4	1.6	3.9	3.1	2.6	100.0 (751)	***	16:48
모부재 등	-	-	14.3	-	7.6	-	56.4	14.1	-	7.6	-	100.0 (17)		17:48
어린이집유형														
국공립	0.1	2.0	17.4	8.2	18.9	7.7	15.6	4.7	6.3	7.8	11.3	100.0 (417)		17:42
법인	-	2.9	25.3	5.2	28.3	7.8	5.4	8.8	6.0	5.1	5.3	100.0 (90)		17:12
법인·단체등	1.4	2.0	22.7	10.9	9.1	4.9	28.3	5.8	6.8	1.6	6.5	100.0 (96)	134.9(50) ***	17:24
민간	0.3	3.1	28.9	10.0	19.7	6.3	13.3	4.7	5.3	4.5	4.1	100.0 (874)	***	17:06
가정	1.9	4.2	24.2	6.3	17.5	5.6	11.0	6.6	7.5	9.0	6.1	100.0 (221)		17:18
직장	-	-	15.6	2.5	9.0	6.4	26.8	11.2	17.1	1.6	9.7	100.0 (55)		18:00
2015년 조사	1.1	5.1	25.8	10.8	17.1	6.2	12.3	3.8	5.7	5.3	6.7	100.0 (1,745)		17:11
2012년 조사	1.9	7.1	20.7	7.2	19	5.7	16.2	12.4	3.1	6.7	6.7	100.0 (1,536)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영유아 구분 및 연령에 따른 어린이집 희망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6~8시간이 44.1%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아와 유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별로는 일부 차이를 보여 0세아의 경우 9~10시간을 희망하는 비율이 15.1%로 높은 편이었다. 2012년과 2015년의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전체 평균은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 0세아와 1세아의 어린이집 희망 이용시간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특히 0세아의 경우 3년 단위로 30분 정도씩 계속 증가하여 비교적 증가폭이 컸다.

표 VI-1-27 영유아 구분 및 연령별 어린이집 희망 이용시간

단위: %(명), 시간, 분

구분	영유아구분		보육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5시간까지	1.6	0.4	3.1	1.3	1.5	0.6	0.5	-	1.1
5~6시간	0.9	7.2	3.2	11.4	8.3	8.5	6.4	6.0	8.2
6~7시간	22.8	19.5	16.8	22.5	24.4	21.0	15.9	20.7	21.4
7~8시간	21.7	24.1	23.5	19.6	22.9	26.0	23.8	21.7	22.7
8~9시간	16.2	17.4	9.4	16.3	17.8	16.1	18.5	18.1	16.7
9~10시간	10.4	12.8	15.1	11.0	8.8	13.8	10.7	13.2	11.4
10~11시간	6.6	6.2	8.3	6.0	6.5	4.3	8.6	6.8	6.4
11~12시간	7.4	7.1	13.4	7.4	5.9	5.5	7.9	8.8	7.3
12시간이상	4.6	5.3	7.2	4.5	4.0	4.1	7.8	4.7	4.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998)	(755)	(117)	(386)	(495)	(335)	(204)	(216)	(1,753)
χ^2 (df)	13.3(8)		62.8(40)**						
평균	8시간 30분	8시간 42분	9시간	8시간 24분	8시간 24분	8시간 30분	8시간 54분	8시간 42분	8시간 30분
표준편차	2시간	1시간 54분	2시간 12분	2시간 06분	1시간 54분	1시간 54분	2시간	1시간 54분	2시간
F/t	-1.9*		4.4***(a)						
2015년 조사	8시간 6분	8시간 30분	8시간 30분	8시간 18분	7시간 54분	8시간 30분	8시간 18분	8시간 42분	8시간 18분
2012년 조사	8시간 9분	8시간 35분	7시간 57분	8시간 11분	8시간 11분	8시간 29분	8시간 54분	8시간 22분	8시간 21분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3) 평균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결과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1$, *** $p < .001$.

가구소득에 따라 어린이집 희망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은 평균 8시간 30분(8.5시간 정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구소득별로 차이를 보였다. 월 199만원 이하 소득의 가구에서는 8~9시간을 원하는 비율이 32.9%로 높은 편이었으며, 월 소득이 600만원 이상의 가구에서는 10시간 이상을 원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28 | 가구소득별 어린이집 희망 이용시간

단위: %(명), 시간, 분

구분	가구소득										전체
	199 만원 이하	200~ 249 만원	250~ 299 만원	300~ 349 만원	350~ 399 만원	400~ 499 만원	500~ 599 만원	600~ 699 만원	700 만원 이상	모름/ 무응답	
5시간까지	-	1.3	0.7	1.6	1.9	0.7	1.8	-	0.9	-	1.1
5~6시간	0.7	9.0	12.4	13.1	8.1	7.8	5.6	3.6	9.5	-	8.2
6~7시간	10.8	22.1	20.2	23.2	27.0	22.3	23.1	18.5	15.5	40.3	21.4
7~8시간	29.8	32.7	26.5	16.8	20.2	23.6	19.3	17.4	24.5	40.0	22.7
8~9시간	32.9	19.8	21.1	21.8	14.9	14.5	14.9	12.2	14.1	19.7	16.7
9~10시간	15.0	4.2	10.5	8.9	9.5	10.4	14.9	17.9	10.0	-	11.4
10~11시간	3.6	2.1	3.6	3.9	5.3	11.6	7.0	9.2	7.7	-	6.4
11~12시간	2.3	7.6	3.8	5.6	7.8	7.0	8.5	11.2	8.4	-	7.3
12시간 이상	4.9	1.2	1.1	5.2	5.3	2.3	4.9	9.9	9.3	-	4.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7)	(123)	(311)	(76)	(326)	(197)	(286)	(166)	(206)	(5)	(1,753)
χ^2 (df)	157.4(72)***										
평균	8시간 48분	8시간	8시간 06분	8시간 18분	8시간 24분	8시간 30분	8시간 42분	9시간 18분	8시간 54분	7시간 36분	8시간 30분
표준편차	1시간 30분	1시간 36분	1시간 36분	2시간	2시간	1시간 54분	2시간 06분	2시간 06분	2시간 18분	1시간 24분	2시간
F/t	7***(a)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평균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결과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희망 이용시간을 조사해보면,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이 각각 9.0시간, 9.5시간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특히 직장어린이집은 8~10시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66.7%로 높았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작은 차이나 도시지역과 읍면지역보다 중소도시에서 긴 이용시간을 희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읍면지역에서는 8~9시간을 원하는 비율이 25.4%로 도시지역의 약 14~15%에 비해 높은 편이었던 반면, 6시간 미만을 원하는 경우는 4.2%에 불과해 도시지역보다 낮은 편이었다. 모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도 보여 9~10시간 이용을 희망하는 취업모가 25.5%로 높은 편이었던 반면 미취업모는 6~8시간을 희망하는 경우가 55.8%로 높게 나타나, 일하는 어머니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긴 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기를 희망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취업모와 미

취업모의 평균 희망 이용시간에서 각각 9시간 6분(9.1시간), 7시간 48분(7.8시간)으로 나타나 그러한 경향을 확인해볼 수 있다. 한편 2015년 조사결과와 비교 시 모가 취업중인 경우 어린이집 희망 이용시간은 동일하였으나, 휴직중인 경우(30분), 미취업모(6분)의 경우는 희망 이용시간이 다소 길어졌다.

▮ 표 VI-1-29 ▮ 제 특성별 어린이집 희망 이용시간

단위: %(명), 시간, 분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모취업 여부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작장	협동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취업	휴직중	미취업	모부재
5시간까지	0.4	-	1.4	0.6	4.3	-	-	1.1	1.4	0.2	0.5	2.4	1.7	-
5~6시간	5.2	7.2	4.9	10.2	6.9	5.3	-	11.0	7.3	4.0	4.9	5.3	12.5	-
6~7시간	16.3	23.4	20.8	23.9	22.2	9.3	-	22.3	20.3	21.7	15.3	22.6	28.5	9.5
7~8시간	23.8	27.8	17.3	23.8	20.8	7.6	-	21.0	22.4	27.1	19.6	17.2	27.3	12.5
8~9시간	15.5	13.6	20.6	18.4	11.1	20.9	-	14.9	14.5	25.4	18.0	15.7	15.2	25.6
9~10시간	13.1	14.3	18.4	9.5	9.9	25.9	-	8.4	14.4	11.1	15.4	8.7	6.9	28.3
10시간	7.2	6.5	7.0	5.0	7.2	19.9	-	7.1	6.2	5.6	10.1	5.5	2.0	19.9
11시간	9.4	5.7	7.4	5.2	13.1	1.6	-	7.3	8.7	3.9	9.8	12.0	3.6	4.2
12시간이상	9.1	1.7	2.2	3.4	4.4	9.7	-	6.8	4.8	0.9	6.5	10.6	2.2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17)	(90)	(96)	(874)	(221)	(55)		(611)	(514)	(628)	(888)	(97)	(751)	(17)
χ^2 (df)	151.8(40)***							75.2(16)***			212.0(24)***			
평균	9시간	8시간 24분	8시간 36분	8시간 18분	8시간 36분	9시간 30분	-	8시간 30분	8시간 36분	8시간 24분	9시간 6분	9시간	7시간 48분	9시간 18분
표준편차	2시간 06분	1시간 42분	1시간 48분	1시간 48분	2시간 12분	2시간	-	2시간 12분	2시간	1시간 30분	2시간 00분	2시간 24분	1시간 42분	1시간 18분
F	11.4***(a)							2.3*(a)			61.6***(a)			
2015년 조사	8시간 54분	9시간	8시간 18분	8시간	8시간 24분	9시간 30분	6시간 18분	8시간 24분	8시간 18분	8시간	9시간 6분	8시간 30분	7시간 42분	-
2012년 조사	8시간 53분	8시간 17분	8시간 53분	8시간 17분	8시간	9시간 20분	8시간 18분	8시간 26분	8시간 21분	9시간 11분	8시간 15분	7시간 42분	9시간 5분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평균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결과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01$.

바. 어린이집 등·하원

1) 등·하원 방법 및 소요시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등·하원 방법을 보면 기관 차량을 이용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는 43.4% 정도이고 가족과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는 21.5%, 도보(보호자 또는 자녀 혼자)로 등원하는 경우는 34.6%이다. 기관 차량을 이용하는 비율은 법인과 법인·단체등 시설이 각각 63.6%, 52.8%로 가장 높았고 민간은 51.5%, 국공립 40.0%이며 가정과 직장어린이집의 차량이용 비율이 가장 낮았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보호자와 걸어서 등원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이는 가정어린이집이 주거지 가까이 위치하여 도보 이용이 편리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하원의 경우 또한 등원과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이용 경향을 보였다. 2012년과 2015년과 비교해보았을 때, 등하원 모두 기관 차량을 이용하는 비율은 다소 감소한 반면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한 편이었다.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가족과 자가용 이용 등원 비율이 61.4%로 가장 높았다.

▣ 표 VI-1-30 ▣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등·하원 방법

단위: %(명)

구분	기관 차량 이용	가족과 자가용 이용	가족과 대중교통 이용	보호자와 걸어서	자녀혼자 걸어서	기타	계(수)
등원							
전체	43.4	21.5	0.5	34.2	0.4	-	100.0 (1,753)
어린이집유형							
국공립	40.0	26.7	1.6	30.6	1.0	-	100.0 (417)
법인	63.6	25.1	-	11.4	-	-	100.0 (90)
법인·단체등	52.8	28.5	-	18.7	-	-	100.0 (96)
민간	51.5	17.0	0.2	31.0	0.3	-	100.0 (874)
가정	17.8	18.2	-	64.0	-	-	100.0 (221)
직장	13.8	61.4	2.3	22.4	-	-	100.0 (55)
2015년 조사	49.8	11.0	1.0	37.9	0.3	-	100.0 (1,745)
2012년 조사	46.4	11.9	0.7	0.1	40.7	0.2	100.0 (1,536)
하원							
전체	43.9	20.1	0.6	34.4	0.5	0.5	100.0 (1,753)

구분	기관 차량 이용	가족과 자가용 이용	가족과 대중교통 이용	보호자와 걸어서	자녀혼자 걸어서	기타	계(수)
어린이집유형							
국공립	39.1	27.4	1.5	30.2	1.0	0.7	100.0 (417)
법인	68.0	22.0	-	10.0	-	-	100.0 (90)
법인·단체등	54.8	27.0	-	18.2	-	-	100.0 (96)
민간	52.2	15.4	0.1	31.2	0.5	0.6	100.0 (874)
가정	17.6	16.4	0.9	65.1	-	-	100.0 (221)
직장	17.3	52.7	2.3	26.8	-	1.0	100.0 (55)
2015년 조사	50.5	9.9	0.7	38.0	0.7	0.1	100.0 (1,745)
2012년 조사	47.6	10.8	1.1	0.4	39.9	0.3	100.0 (1,536)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등·하원 시 부모와 보육교직원의 교류

등·하원 시에 부모가 보육교사 또는 원장과 교류하는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면, 매일 교사를 만난다는 비율이 53.7%였고 주 1~2회는 30.0%였다. 월 1~2회라는 응답은 9.8%였고 등하원시 교사를 전혀 만나지 않는다는 비율은 6.5%로 응답되었다. 유아에 비해 영아 자녀를 두었을 때 교사와 교류한다는 비율이 조금 높았으며 유아의 경우 전혀 교류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영아보다 2.7% 더 높았다. 취업모인 경우 매일 교사와 교류한다는 비율이 53.6%, 미취업모는 이에 대해 53.0%로 응답하였으나 두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한편 모부재 등의 경우에 교사와의 교류가 더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례수가 작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지역에서 교사와 매일 만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오히려 월 1~2회로 답한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시설 특성 상 영아가 많은 가정어린이집(66.2%)이나 부모의 직장에서 가까운 직장어린이집(73.7%)에서 매일 만난다는 비율이 매우 높았고 그 외에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2015년과 비교했을 시 교사와 매일 교류하는 비율은 약간 증가하였으며 주1~2회와 월1~2회에 교류한다는 빈도는 다소 감소한 편이었다.

표 VI-1-31 제 특성별 등·하원 시 교사와 정보 교류 빈도

단위: %(명)

구분	매일	주1~2회	월1~2회	전혀안함	계(수)
전체	53.7	30.0	9.8	6.5	100.0 (1,749)
영유아구분					
영아	57.2	29.0	8.4	5.4	100.0 (996)
유아	49.1	31.3	11.6	8.1	100.0 (753)
보육연령					
0세	70.1	21.5	4.0	4.4	100.0 (117)
1세	56.7	30.2	7.8	5.3	100.0 (386)
2세	54.5	29.8	10.0	5.7	100.0 (493)
3세	50.3	28.4	12.6	8.7	100.0 (335)
4세	49.2	32.4	9.7	8.7	100.0 (203)
5세	47.3	34.5	11.8	6.5	100.0 (215)
모취업 여부					
취업	53.6	31.1	10.5	4.9	100.0 (886)
휴직중	59.1	29.3	7.9	3.7	100.0 (96)
미취업	53.0	28.7	9.3	8.9	100.0 (750)
모부재 등	70.9	29.1	-	-	100.0 (17)
지역규모					
대도시	51.2	30.4	13.4	5.0	100.0 (607)
중소도시	56.6	27.0	7.6	8.8	100.0 (514)
읍면지역	52.6	35.9	7.0	4.5	100.0 (628)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51.8	34.1	8.4	5.7	100.0 (414)
법인	58.5	27.0	11.3	3.2	100.0 (90)
법인·단체등	49.4	31.2	13.5	5.9	100.0 (96)
민간	49.8	31.1	11.6	7.6	100.0 (873)
가정	66.2	21.8	5.4	6.6	100.0 (221)
직장	73.7	24.0	2.3	-	100.0 (55)
2015년 조사	49.8	32.5	13.1	4.6	100.0 (1,74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등·하원 방법 중 '자녀 혼자 걸어서'로 응답한 경우 제외

3) 영유아 구분: 보육 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3) 등·하원 차량의 교직원 동승 여부

어린이집의 차량으로 영유아를 등·하원 시킬 때 교직원이 동승하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법적으로 동승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98.8%의 차량에 등하원시 모두 동승자가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고 0.3%는 등원 시에만, 0.4%는 하원 시에만 동승자가 있다고 하였다. 2015년과 비교해보면 등하원시 모두 교직원이 동승하는 비율은 2018년에 조금 감소하였고, 동승하지 않는 비율이 없었던 2015년과 달리 2018년에는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VI-1-32 ▮ 제 특성별 어린이집 등·하원 차량 교직원 동승 여부

구분	단위: %(명)					계(수)
	등하원시 모두	등원시	하원시	동승 안함	모름	
전체	98.8	0.3	0.4	0.1	0.4	100.0(876)
영유아구분						
영아	98.4	0.5	0.6	-	0.5	100.0(439)
유아	99.1	0.1	0.1	0.3	0.4	100.0(437)
보육연령						
0세	96.4	-	3.6	-	-	100.0(39)
1세	97.7	0.9	-	-	1.4	100.0(154)
2세	99.1	0.4	0.5	-	-	100.0(246)
3세	98.5	0.2	-	0.7	0.6	100.0(192)
4세	99.6	-	0.4	-	-	100.0(107)
5세	99.6	-	-	-	0.4	100.0(138)
지역규모						
대도시	97.9	0.8	0.4	0.4	0.4	100.0(238)
중소도시	99.1	-	0.4	-	0.5	100.0(212)
읍면지역	99.2	0.2	0.2	-	0.4	100.0(426)
어린이집유형						
국공립	98.5	0.2	0.3	0.7	0.2	100.0(206)
법인	100.0	-	-	-	-	100.0(60)
법인·단체등	96.2	-	-	-	3.8	100.0(60)
민간	99.0	0.4	0.3	-	0.3	100.0(500)
가정	97.6	-	2.4	-	-	100.0(41)
직장	100.0	-	-	-	-	100.0(9)
2015년 조사	99.7	0.3	-	-	-	100.0(95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 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어린이집 이용비용

본 절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되는 월평균 총 보육비용, 추가비용, 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월평균 1인당 보육비용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부모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정부지원금 외 부모가 지불하는 차액보육료(순보육료)와 각종 추가비용을 합한 '총 비용'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17.4%정도가 전혀 비용을 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설립유형별로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비용을 전혀 안내는 비율이 33.8%로 가장 높았다. 가정어린이집도 31.5%가 비용 부담이 없었으며 국공립이 22.1%, 민간이 12.3%이며 다른 유형은 10% 이하였다. 비용을 내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율인 33.2%가 5~10만원 수준에서 지불하고 있었고 전체 중 92.9%가 비용을 내지 않거나 15만원 미만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립유형에 따라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는 월 20만원 이상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었다. 2012년과 2015년과 비교했을 시 보육비를 전혀 내지 않는 비율이 15.1%에서 17.4%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월 10만원 미만을 지불하는 비율도 증가한 편이었다. 한편, 차액보육료 기준으로는 비용을 전혀 내지 않는다는 경우가 89.9%이며, 이 같은 경우는 특히 국공립과 법인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100%에 해당하였다.

표 VI-2-1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비 분포

단위: %(명)

구분	총 비용								차액 보육료								2015년	2012년		
	국공립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전체	2015년	2012년	국공립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전체			2015년	2012년
안녕	22.1	6.8	6.3	12.3	31.5	33.8	-	17.4	15.1	15.2	100.0	100.0	90.3	82.3	97.6	93.2	-	89.9	70.6	76.3
1~5만원	34.7	39.0	26.1	23.1	26.4	38.3	-	27.4	19.1	22.5	-	-	6.1	11.4	1.9	1.3	-	6.5	6.3	7.4
5~10만원	36.4	37.5	37.9	32.2	32.8	18.3	-	33.2	25.9	27.3	-	-	1.9	5.3	0.5	5.5	-	3.1	2.9	7.6
10~15만원	5.9	13.1	19.1	20.5	9.3	7.3	-	14.9	14.5	17.0	-	-	1.7	1.0	-	-	-	0.6	-	1.6
15~20만원	0.9	3.6	10.5	9.6	-	2.3	-	5.8	4.9	7.6	-	-	-	-	-	-	-	-	-	4.0
20~25만원	-	-	-	1.5	-	-	-	0.8	0.3	3.8	-	-	-	-	-	-	-	-	-	2.0
25만원 이상	-	-	-	0.8	-	-	-	0.4	-	6.6	-	-	-	-	-	-	-	-	-	1.2
모름/무응답	-	-	-	-	-	-	-	-	20.2	-	-	-	-	-	-	-	-	-	15.2	-

구분	총 비용								2015 년	2012 년	차액 보육료								2015 년	2012 년		
	국공 립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전체	국공 립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 (수)	100.0 (417)	100.0 (90)	100.0 (96)	100.0 (874)	100.0 (221)	100.0 (55)	-	100.0 (1,753)	100.0 (1,745)	100.0 (1,536)	100.0 (417)	100.0 (90)	100.0 (96)	100.0 (874)	100.0 (221)	100.0 (55)	-	100.0 (1,753)	100.0 (1,745)	100.0 (1,536)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 61,000원을 월 평균 총 보육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민간과 법인·단체 등이 비교적 높은 74,100~75,400원 수준에서 부모가 매달 보육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어린이집의 경우 57,000원, 국공립은 43,000원이었으며, 가정과 직장어린이집은 각각 39,600원, 34,800원을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비용에서 차액보육료(순보육비)를 살펴보면, 순보육비 평균은 4,300원이며 민간어린이집이 7,300원으로 가장 높고, 직장어린이집 4,700원,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4,600원 수준이었다. 한편 가정어린이집은 800원, 국공립, 법인어린이집의 경우 차액보육료(순보육비)에 드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관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VI-2-2 어린이집 유형 및 모취업 여부별 월평균 보육비용

단위: 천원(명), %

구분	전체비용 (A)		차액 보육료 (B)		추가비용 (A-B)		(수)		가구소득대비 비율		
	2018	2015	2018	2015	2018	2015	2018	2015	2018	2015	2012
전체	61.0	61.5	4.3	4.5	56.7	57.0	(1,753)	(1,497)	1.6	1.9	3.5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43.0	54.1	-	-	43.0	54.1	(417)	(219)	1.1	1.7	2.4
법인	57.0	55.0	-	-	57.0	55.0	(90)	(122)	1.4	1.9	2.6
법인·단체등	74.1	72.2	4.6	9.3	69.5	62.9	(96)	(80)	1.8	2.1	2.6
민간	75.4	69.2	7.3	6.4	68.0	62.8	(874)	(833)	2.0	2.2	4.4
가정	39.6	38.0	0.8	0.9	38.8	37.1	(221)	(214)	0.9	1.2	1.8
직장	34.8	47.4	4.7	7.6	30.1	39.8	(55)	(28)	0.7	0.9	2.2
협동	-	50.0	-	-	-	50.0	-	(1)	-	2.1	4.0
F	41.9*** ^(a)	13.6***	16.7*** ^(a)	12.0***	32.3*** ^(a)	9.7***			35.4*** ^(a)		
모취업 여부											
취업	61.1	63.3	4.3	5.2	56.8	58.1	(888)	(614)	1.3	1.5	2.6
휴직중	57.6	65.0	5.6	4.1	52.0	60.9	(97)	(46)	1.3	1.7	4.7
미취업	61.4	60.2	4.0	4.0	57.3	56.2	(751)	(826)	1.9	2.2	4.0

구분	전체비용 (A)		차액 보육료 (B)		추가비용 (A-B)		(수)	가구소득대비 비율			
모부재 등	50.6	-	0.6	-	49.9	-	(17)	-	1.7	-	-
F	0.3	0.8	0.5	1.2	0.5	0.4			17.2*** ^(a)		

주: 1) 어린이집 이용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 모름/무응답 0원 제외
 2) 차액보육료: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부모가 어린이집에 별도로 납부하는 보육료. 각종 부대비용을 제외한 순보육비임.

3) 추가비용: 총 비용에서 차액보육료(순보육비)를 제외한 각종 부대비용을 의미함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연령별 월평균 보육 총비용을 보면, 0세는 9,900원, 1세는 35,300원, 2세는 62,700원, 3세 82,400원, 4세 78,500원, 5세 이상은 82,100원으로 나타나 유아가 영아보다 월등히 비용이 높았다. 특히 3세 자녀에 대해 지불하는 보육비용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순보육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4세와 5세 이상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영아에서 유아로 이동하는 3세 시기에 비용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 표 VI-2-3 ▮ 영유아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별 월평균 보육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전체							
총비용	9.9	35.3	62.7	82.4	78.5	82.1	61.0
순보육비	-	-	-	13.7	6.3	7.9	4.3
추가비용	9.9	35.3	62.7	68.7	72.2	74.2	56.7
(수)	(117)	(386)	(495)	(335)	(204)	(216)	(1,753)
국공립							
총비용	2.9	18.1	40.2	48.1	58.8	58.1	43.0
순보육비	-	-	-	-	-	-	-
추가비용	2.9	18.1	40.2	48.1	58.8	58.1	43.0
(수)	(15)	(70)	(113)	(88)	(69)	(62)	(417)
법인							
총비용	11.5	31.7	49.4	76.2	68.4	67.1	57.0
순보육비	-	-	-	-	-	-	-
추가비용	11.5	31.7	49.4	76.2	68.4	67.1	57.0
(수)	(2)	(17)	(24)	(18)	(15)	(14)	(90)
법인·단체등							
총비용	5.6	35.6	72.6	109.5	58.6	101.1	74.1
순보육비	-	-	-	16.4	5.1	3.3	4.6
추가비용	5.6	35.6	72.6	93.1	53.6	97.8	69.5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수)	(5)	(15)	(26)	(18)	(12)	(20)	(96)
민간							
총비용	11.8	41.0	76.1	94.8	102.0	95.2	75.4
순보육비	-	-	-	18.9	12.6	12.7	7.3
추가비용	11.8	41.0	76.1	75.8	89.4	82.6	68.0
(수)	(51)	(80)	(244)	(194)	(91)	(114)	(874)
가정							
총비용	10.9	38.3	54.7	68.5	50.9	-	39.6
순보육비	-	-	-	22.8	-	-	0.8
추가비용	10.9	38.3	54.7	45.7	50.9	-	38.8
(수)	(41)	(92)	(76)	(8)	(3)	(1)	(221)
직장							
총비용	6.5	11.6	36.0	61.2	34.6	61.2	34.8
순보육비	-	-	-	15.9	0.6	19.3	4.7
추가비용	6.5	11.6	36.0	45.3	34.0	41.9	30.1
(수)	(3)	(12)	(12)	(9)	(14)	(5)	(5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연령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나. 보육료 외 추가 비용

보육료 외 추가비용을 구성하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특별활동비 39,700원, 현장학습비·행사비 6,700원, (연장보육)급간식비 2,100원, 차량운행비 3,800원, 교재비 3,300원, 시도특성화비 800원, 기타비용 300원으로 산출되었다.

영유아에 따라 추가 비용은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행사비, 차량운행비, 시도특성회비에 있어 차이를 나타내어 유아의 추가비용이 더 많았다. 각 설립유형별로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특별활동의 경우 민간과 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이 45,000원 이상으로 가장 높고 법인, 국공립, 가정, 직장어린이집 순으로 비용이 줄어들고 있었다. 보육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특별활동비가 점차 증가하며 특히 1세에서 2세 간 증가폭이 큰 편이다. 현장학습비도 특별활동비와 같이 연령이 증가하면서 추가비용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며 마찬가지로 2세부터 비용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추가비용이 적게 드는 편이나 교재비에서는 도시지역보다 추가비용이 더 들었다. 한편 모 취업여부에 따라 급간

식비, 차량운행비, 교재비 등에 차이가 있으며 가구소득별로는 특별활동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2015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특별활동비와 급간식비 및 교재비 항목에서는 추가비용이 조금 높아졌으나 차량운행비와 시도특성화비 등에서는 조금 낮아진 결과를 보였다.

▮ 표 VI-2-4 ▮ 어린이집 유형별·제특성별 보육아동 항목별 월평균 추가 비용(전체아동)

단위: 천원(명)

구분	특별 활동비	현장 학습비· 행사비	(연장보육) 급간식비	차량 운행비	교재비	시도 특성화비	기타
전체아동	39.7	6.7	2.1	3.8	3.3	0.8	0.3
영유아구분							
영아	31.5	5.5	1.9	3.4	3.0	0.4	0.1
유아	50.6	8.3	2.5	4.5	3.8	1.2	0.5
χ^2	-11.5***	-5.3***	-1.8	-2.4*	-1.5	-2.7**	-2.6**
어린이집유형							
국공립	30.5	7.6	1.1	-	2.9	0.9	-
법인	36.8	8.1	1.8	6.4	3.0	0.8	-
법인·단체등	45.4	6.8	4.6	6.4	6.1	0.2	0.1
민간	47.4	6.9	2.7	5.7	3.8	0.9	0.4
가정	28.7	4.7	1.2	2.0	1.7	0.4	0.1
직장	22.2	3.5	1.2	0.7	1.7	-	0.8
F	23.1***(a)	3.6***(a)	6.7***(a)	29.5***(a)	2.7**(a)	0.7(a)	2.3**(a)
보육연령							
0세	5.3	1.4	1.0	1.9	0.3	-	-
1세	23.8	4.4	1.8	2.8	2.2	0.2	0.2
2세	43.9	7.4	2.2	4.2	4.2	0.8	0.1
3세	48.6	8.2	2.4	4.9	2.9	1.0	0.7
4세	51.4	9.3	2.6	3.6	3.5	1.2	0.4
5세	52.7	7.5	2.4	4.5	5.3	1.4	0.3
F	63.4***(a)	14.1***(a)	1.3(a)	3.5***(a)	4.7***(a)	2.6**(a)	2.3**(a)
지역규모							
대도시	41.2	8.2	2.5	4.7	2.5	0.6	0.2
중소도시	40.5	5.7	1.8	3.1	3.3	1.1	0.4
읍면지역	34.6	5.9	2.1	3.6	5.2	0.2	0.1
F	4.2**(a)	10.6***(a)	2.2(a)	5.2***(a)	6.6***(a)	3.7**(a)	2.4*(a)
모취업 여부							

구분	특별 활동비	현장 학습비· 행사비	(연장보육) 급간식비	차량 운영비	교재비	시도 특성화비	기타
취업중	39.9	6.8	2.5	3.4	3.4	0.7	0.2
휴직중	39.8	6.7	0.8	3.1	0.9	0.1	0.6
미취업	39.5	6.6	1.9	4.5	3.5	1.0	0.3
모부재 등	29.2	4.6	2.0	1.9	10.8	0.6	0.8
F	0.3	0.2	2.1*(a)	2.5*(a)	3.1**(a)	0.9(a)	1.2(a)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33.4	4.9	2.5	4.3	1.1	-	-
200~249만원	34.3	3.4	2.0	4.0	1.9	0.8	-
250~299만원	38.1	5.5	1.3	2.5	3.3	1.1	0.8
300~349만원	38.8	6.3	1.7	5.0	3.8	0.7	0.8
350~399만원	40.6	7.4	4.1	5.5	4.8	1.7	0.2
400~499만원	41.7	8.4	1.9	4.0	4.2	0.5	0.2
500~599만원	39.8	6.0	2.3	3.0	2.7	0.2	0.1
600~699만원	40.8	6.4	2.5	3.0	3.2	2.1	-
700만원 이상	40.4	7.8	1.4	3.4	2.4	0.1	0.1
모름/무응답	52.4	-	6.0	4.0	6.1	-	-
F	0.7(a)	3***(a)	2.4**(a)	1.9**(a)	1.3(a)	2.9***(a)	2.2**(a)
(수)	(1,753)	(1,753)	(1,753)	(1,753)	(1,753)	(1,753)	(1,753)
2015년 조사	36.0	7.5	1.9	5.1	2.2	3.6	0.8
2012년 조사	39.0	12.1	3.4	-	7.7	-	1.8
2009년 조사	24.0	5.4	6.6	-	9.5	-	8.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1$, *** $p < .001$.

실제 비용을 지불하는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부모가 지불하는 추가비용을 살펴 보면, 모든 항목에서 전체 영유아 대상 월평균 추가 비용에 비해 비용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비용을 지불하는 영유아의 경우 특별활동비가 56,400원, 현장학습비 18,000원, 급간식비 19,600원, 차량운영비 21,400원, 교재비 24,700원, 시도특성화비 28,100원 등으로 앞서 보았던 전체 영유아의 월평균 추가 비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2015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차량운영비와 교재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들에서 추가비용이 약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VI-2-5 어린이집 유형별·제특성별 보육아동 항목별 월평균 추가 비용(비용 지출 영유아)

단위: 천원(명)

구분	특별 활동비	현장 학습비	(연장보육) 급간식비	차량 운영비	교재비	시도 특성화비	기타
비용지불아동	56.4	18.0	19.6	21.4	24.7	28.1	22.6
어린이집유형							
국공립	45.6	18.4	17.7	-	21.7	29.1	17.5
법인	47.8	18.5	17.9	17.3	19.0	25.8	-
법인·단체등	50.7	16.1	24.1	19.4	22.3	14.1	10.0
민간	63.3	18.2	19.5	22.3	26.7	28.1	23.8
가정	51.9	16.4	19.5	20.7	23.6	29.6	20.0
직장	42.6	21.0	29.0	13.5	34.3	-	19.4
F	19.5***(a)	0.8	1.4	2.9**	0.8(a)	0.2	0.5
보육연령							
0세	45.4	13.1	23.4	22.4	28.2	-	10.0
1세	46.0	15.9	18.8	20.9	21.1	14.7	23.8
2세	56.3	18.4	19.3	21.8	30.4	29.9	11.1
3세	58.6	18.4	20.0	21.4	20.7	28.3	24.8
4세	60.4	19.8	20.0	21.1	19.9	27.3	30.0
5세	62.1	17.8	19.9	21.2	27.2	31.4	24.6
F	8.1***(a)	2.1*	0.3	0.1(a)	2.2*(a)	0.7	5.1***
지역규모							
대도시	59.8	17.3	18.0	22.7	21.7	29.7	23.9
중소도시	59.0	20.2	23.7	22.0	27.6	29.7	22.7
읍면지역	45.0	16.2	17.9	17.7	24.5	14.3	14.8
F	25.4***(a)	7.1***(a)	8.2***	7.8***	1.7	1.8(a)	0.6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46.0	17.9	17.5	32.8	14.0	-	-
200~249만원	49.8	13.2	20.2	22.1	20.8	48.7	-
250~299만원	52.8	16.0	22.1	18.7	20.9	34.9	25.1
300~349만원	54.9	18.6	18.7	23.9	23.9	27.6	24.5
350~399만원	57.9	19.3	20.5	23.3	26.4	25.7	15.4
400~499만원	57.6	19.5	17.6	19.8	24.0	21.4	21.7
500~599만원	58.0	17.4	18.9	19.4	27.4	14.1	30.0
600~699만원	60.1	17.1	22.9	20.2	31.5	38.6	20.0
700만원 이상	58.4	17.8	22.0	21.6	24.4	15.0	11.0
모름/무응답	52.4	-	14.9	10.0	15.1	-	-
F	1.6	1.6	0.8	2.8***(a)	0.6	2*(a)	1.2
(수)	(1,239)	(634)	(192)	(310)	(267)	(42)	(19)
2015년 조사	59.3	18.7	20.0	18.5	23.0	33.7	26.1
2012년 조사	51.2	18.9	7.0	-	8.6	-	29.7
2009년 조사	44.4	12.9	27.3	-	19.9	-	78.7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1$, *** $p < .001$.

어린이집 입소 연도별로 입학 시 지불하는 입학금은 평균 46,200원으로 나타났다. 이전 년도와 비교한 결과, 입학금은 2015년(52,400, 원)보다 2016년(42,400 원)에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후에는 조금씩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설립유형별로는 2015년에는 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의 입학금이 가장 높았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민간어린이집의 입학금이 높은 편이었고, 2018년에는 법인어린이집의 입학금이 가장 높았다. 한편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어린이집 유형 중 가장 낮은 입학금을 나타내었다.

▣ 표 VI-2-6 ▣ 어린이집 유형별 입학금(원복, 체육복 등) 평균 비용

구분	단위: 천원(명)			
	2018	2017	2016	2015
전체	46.2	44.5	42.4	52.4
국공립	44.7	31.8	32.8	43.5
법인	52.8	51.9	29.1	36.3
법인·단체등	45.8	36.1	38.1	67.6
민간	46.1	51.5	49.6	61.5
가정	47.0	40.1	36.6	54.5
직장	40.1	29.0	25.3	26.3
(수)	(486)	(497)	(398)	(214)
F	0.2	5***	4.6***(a)	4.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입학금 납부 연도별 평균 비용으로, 2015년도 이전은 제외함.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다. 비용에 대한 부담 인식

1) 부담 인지 정도 및 미지원시 이용의 사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비용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지 부모에게 질문하였다. 부담이 되지 않거나 적당하다는 의견이 79.4%정도였으며 부담이 된다는 의견은 20.6%였다. 영아보다는 보육비용이 많이 드는 유아의 경우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많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담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3세의 경우에 부담된다는 응답 점수가 5점 평균 3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점수가 중간 정도 수준이라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가구소득분위별 비교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거의 모

든 소득계층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거나 적당한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다만 199만원 이하 집단에서 응답 점수가 평균 3점으로 다른 가구소득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과 비교해보면 평균 응답점수가 3.0점에서 2.7점으로 조금 낮아졌으며,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8.8%에서 18.5%로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VI-2-7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비용 부담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어린이집 비용의 부담정도							비용 미지원 시 이용의사			
	매우 부담됨	부담되는 편	적당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되지 않음	계(수)	평균	있다	없다	잘 모름	계(수)
전체	2.3	18.3	44.7	16.2	18.5	100.0(1,753)	2.7	63.7	17.6	18.8	100.0(1,753)
영유아구분											
영아	1.6	13.6	44.4	17.0	23.3	100.0(998)	2.5	62.9	18.7	18.4	100.0(998)
유아	3.3	24.5	45.1	15.2	12.0	100.0(755)	2.9	64.7	16.1	19.2	100.0(755)
$\chi^2(df)/t$			63.3(4)***				-7.9***		2.0(2)		
보육연령											
0세	0.5	4.1	33.1	19.9	42.3	100.0(117)	2.0	58.7	28.8	12.5	100.0(117)
1세	1.1	13.3	48.4	14.6	22.7	100.0(386)	2.6	63.7	18.0	18.3	100.0(386)
2세	2.3	16.2	44.1	18.1	19.2	100.0(495)	2.6	63.2	16.7	20.0	100.0(495)
3세	2.6	26.2	46.6	14.6	10.0	100.0(335)	3.0	72.2	14.6	13.2	100.0(335)
4세	6.5	19.5	44.4	15.9	13.6	100.0(204)	2.9	60.6	13.2	26.3	100.0(204)
5세	1.3	26.7	43.4	15.3	13.3	100.0(216)	2.9	57.5	20.8	21.7	100.0(216)
$\chi^2(df)/F$			127.1(20)***				20.4***(a)		34.3(10)***		
지역규모											
대도시	1.3	18.4	46.2	14.1	20.0	100.0(611)	2.7	63.9	16.9	19.2	100.0(611)
중소도시	3.2	19.8	46.0	15.1	15.9	100.0(514)	2.8	59.3	19.1	21.6	100.0(514)
읍면지역	2.6	14.7	38.6	23.2	20.9	100.0(628)	2.5	73.0	15.4	11.6	100.0(628)
$\chi^2(df)/F$			29.6(8)***				6.6***		20.4(4)***		
모취업 여부											
취업	3.1	15.6	44.2	15.7	21.4	100.0(888)	2.6	68.1	15.0	16.9	100.0(888)
휴직중	-	17.2	44.2	20.3	18.3	100.0(97)	2.6	60.1	21.2	18.7	100.0(97)
미취업	1.8	21.6	45.3	16.2	15.1	100.0(751)	2.8	58.7	20.2	21.1	100.0(751)
모부재 등	-	22.1	46.1	20.0	11.8	100.0(17)	2.8	80.7	8.0	11.2	100.0(17)
$\chi^2(df)/F$			24.1(12)**				3.4**(a)		18.1(6)***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1.0	27.4	34.9	3.8	23.0	100.0(57)	3.0	41.5	42.3	16.2	100.0(57)

구분	어린이집 비용의 부담정도							비용 미지원 시 이용의사			
	매우 부담됨	부담되는 편	적당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되지 않음	계(수)	평균	있다	없다	잘 모름	계(수)
200~249만원	3.6	20.6	40.3	19.9	15.7	100.0(123)	2.8	55.8	23.2	21.0	100.0(123)
250~299만원	2.4	18.4	46.5	16.4	16.3	100.0(134)	2.7	59.1	21.9	19.0	100.0(134)
300~349만원	3.4	24.0	37.8	15.5	19.2	100.0(253)	2.8	60.2	17.9	21.9	100.0(253)
350~399만원	0.2	27.2	46.8	13.4	12.3	100.0(164)	2.9	61.7	10.8	27.6	100.0(164)
400~499만원	1.7	19.3	47.5	15.5	16.0	100.0(359)	2.8	60.5	23.7	15.8	100.0(359)
500~599만원	3.2	12.2	47.7	18.7	18.2	100.0(286)	2.6	72.7	11.7	15.6	100.0(286)
600~699만원	1.9	17.1	49.7	13.1	18.3	100.0(166)	2.7	68.6	12.0	19.5	100.0(166)
700만원 이상	0.2	9.5	41.5	20.4	28.3	100.0(206)	2.3	69.9	13.5	16.6	100.0(206)
모름/무응답	-	-	79.1	20.9	-	100.0(5)	2.8	61.2	-	38.8	100.0(5)
χ^2 (df)/F	96.6(36)***						4.7***(a)	71.1(18)***			
2015년 조사	3.4	24.6	46.8	16.4	8.8	100.0(1,745)	3.0	56.7	24.4	18.9	100.0(1,745)
2012년 조사	4.7	28.8	23.9	28.9	13.7	100.0(1,314)	3.2	66.4	29.4	4.2	100.0(1,536)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비용 부담정도는 '매우 부담됨(1점)'-'전혀 부담되지 않음(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전혀 부담되지 않음(1점)'-'매우 부담됨(5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함. 점수가 높을수록 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음을 의미함.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 $p < .001$.

한편, 이용 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어린이집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질문에 대해 63.7%가 이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17.6%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하였는데 이는 영아 부모 집단에서 응답율이 조금 더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별로는 특히 0세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 미이용 의사를 밝힌 경우가 28.8%였다.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비용을 지원받지 않더라도 어린이집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68.1%로 미취업 가구 58.7%에 비해 높았으며, 모부재 등의 경우도 비용 미지원 시의 어린이집 지속 이용 의사가 80.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별로 비용 미지원 시 이용 여부를 분석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여전히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어 어떠한 방식의 비용 지원 체계에서도 저소득층의 시설 이용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비용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도 어린이집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7%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 비용 추가 부담 의사

더 좋은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비용을 더 부담하면서 자녀를 보낼 의사가 있는지 질문한 결과, 42.5%는 그러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으나 57.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15년 응답에 비해 비용 부담 의사가 있는 부모의 비율이 11.7%p 높아진 결과이다. 또한 추가비용 부담의사가 있다고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질문했을 때 평균적으로 106,500원 정도로 부담한다면 질적 수준이 더 높은 기관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의사를 가진 비율이 유아보다는 자녀가 영아일 때 더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영아의 경우 향후 다른 기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취업모가 미취업모 보다는 추가부담 의사가 많고 부담 가능 비용도 116,100원으로 상당히 높았다. 또한 추가비용 부담의사는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과 2015년과 비교해보면, 질 높은 기관에 비용을 더 부담하며 자녀를 보낼 의사가 있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다만 추가 부담 가능한 비용 수준은 다소 하향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 표 VI-2-8 ▮ 질 높은 기관 이용을 위한 비용 추가 의사 및 가능한 부담 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추가비용 부담 의사			추가 부담의사가 있는 경우 비용		
	있다	없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42.5	57.5	100.0 (1,753)	106.5	95.4	(755)
어린이집유형						
국공립	42.0	58.0	100.0 (417)	104.2	103.9	(180)
법인	44.1	55.9	100.0 (90)	66.6	55.7	(36)
법인·단체등	42.3	57.7	100.0 (96)	88.6	63.5	(38)
민간	41.4	58.6	100.0 (874)	100.3	80.4	(370)
가정	45.3	54.7	100.0 (221)	128.7	115.0	(102)
직장	47.4	52.6	100.0 (55)	183.4	151.9	(29)
$\chi^2(df)/F$	2.1(5)			6.5***(a)		
영유아구분						
영아	46.2	53.8	100.0 (998)	110.6	97.0	(466)
유아	37.4	62.6	100.0 (755)	99.6	92.3	(289)
$\chi^2(df)/t$	13.6(1)***			1.5		

구분	추가비용 부담 의사			추가 부담의사가 있는 경우 비용		
	있다	없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수)
보육연령						
0세	45.4	54.6	100.0 (117)	129.1	116.8	(54)
1세	44.0	56.0	100.0 (386)	109.2	87.8	(172)
2세	48.2	51.8	100.0 (495)	107.4	98.3	(240)
3세	38.0	62.0	100.0 (335)	100.3	100.9	(132)
4세	39.6	60.4	100.0 (204)	101.9	85.1	(80)
5세	34.7	65.3	100.0 (216)	96.3	86.1	(77)
χ^2 (df)/F	16.4(5)***			1		
모취업 여부						
취업	46.5	53.5	100.0 (888)	116.1	102.6	(413)
휴직중	48.3	51.7	100.0 (97)	122.2	92.9	(49)
미취업	37.3	62.7	100.0 (751)	89.5	81.8	(291)
모부재 등	8.7	91.3	100.0 (17)	71.9	-	(2)
χ^2 (df)/F	20.0(3)***			4.9***(a)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5.2	84.8	100.0 (57)	44.5	20.9	(9)
200~249만원	37.9	62.1	100.0 (123)	77.4	70.3	(45)
250~299만원	29.2	70.8	100.0 (134)	77.6	42.8	(43)
300~349만원	29.1	70.9	100.0 (253)	86.7	62.7	(79)
350~399만원	40.9	59.1	100.0 (164)	95.0	76.4	(69)
400~499만원	38.0	62.0	100.0 (359)	91.4	83.9	(140)
500~599만원	53.6	46.4	100.0 (286)	108.7	85.4	(153)
600~699만원	47.0	53.0	100.0 (166)	105.0	93.3	(83)
700만원 이상	64.4	35.6	100.0 (206)	154.6	134.1	(134)
모름/무응답	-	100.0	100.0 (5)	-	-	-
χ^2 (df)/F	107.7(9)***			7.2***(a)		
2015년 조사	30.8	69.2	100.0 (1,745)	117.1	106.4	(508)
2012년 조사	25.0	75.0	100.0 (1,536)	162.6	115.8	(36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3 어린이집의 제공 서비스

본 절에서는 어린이집의 부모 대상 서비스의 제공 실태, 건강검진 안내, 부모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였다.

가. 부모 대상 서비스

어린이집 유형별로 각종 부모 대상 서비스 제공 비율을 보면, 보육계획표는 대체로 매주 1회 제공이 66.2%이고 월 1회로 제공되는 경우도 25.0%정도였다. 급간식 식단은 월 1회 제공이 58.1%로 가장 많았고 매주 1회 제공하는 비율은 32.1%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가정통신문은 매주 1회가 69.4%였으나 매월 17.5%, 매일 11.6%로 다양하게 배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발달평가의 경우 분기 1회 또는 연 1-2회 실시는 각각 27.2%, 21.5% 정도였고 제공하지 않는 비율도 17.8%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상담은 연 1-2회가 48.9%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32.8%인 분기 1회로 나타났다. 부모교육자료는 월1회와 연1~2회가 가장 많아 각각 23.7%, 23.5% 정도였다. 부모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율은 연1~2회가 43.9% 가장 많았고 양방향 알림장의 경우는 매일 71.6%가 제공하였다.

표 VI-3-1 어린이집 유형별 부모서비스 제공 비율

구분	단위: %(명)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전체
보육계획표							
매일	7.3	1.6	2.1	5.3	2.8	4.5	5.1
매주 1회	69.9	63.9	84.0	66.2	55.5	69.0	66.2
월 1회	20.0	29.6	11.6	24.1	38.1	24.3	25.0
분기 1회	2.5	3.3	0.6	2.1	0.7	2.2	2.0
연 1~2회	0.3	1.5	-	1.5	2.2	-	1.3
제공 안함	-	-	-	0.4	0.4	-	0.3
모름	-	-	1.7	0.4	0.1	-	0.3
급간식 식단							
매일	10.2	11.5	5.9	8.4	9.1	15.3	9.1
매주 1회	29.8	35.3	59.0	33.1	23.2	33.2	32.1
월 1회	59.8	53.2	35.0	57.8	66.2	51.6	58.1

구분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전체
분기 1회	-	-	-	0.2	-	-	0.1
연 1~2회	-	-	-	-	1.0	-	0.1
제공 안함	0.2	-	-	0.2	0.4	-	0.2
모름	-	-	-	0.3	0.1	-	0.2
가정통신문							
매일	10.7	7.6	11.0	12.8	8.2	21.4	11.6
매주 1회	77.5	77.4	79.3	68.8	57.8	55.4	69.4
월 1회	11.6	13.5	7.7	16.7	32.0	23.2	17.5
분기 1회	0.2	1.5	2.0	1.1	0.6	-	0.8
연 1~2회	-	-	-	0.3	1.0	-	0.3
제공 안함	-	-	-	0.3	0.4	-	0.2
모름	-	-	-	-	-	-	-
자녀발달평가							
매일	3.4	-	2.1	3.4	3.7	2.1	3.2
매주 1회	6.9	8.1	6.3	5.0	4.1	2.8	5.4
월 1회	9.2	3.8	19.3	14.5	13.7	19.6	13.1
분기 1회	27.8	27.8	17.6	30.5	18.3	22.4	27.2
연 1~2회	20.9	27.1	20.0	20.9	20.3	37.2	21.5
제공 안함	17.0	25.7	20.7	15.0	26.9	11.7	17.8
모름	14.8	7.5	14.0	10.7	13.0	4.2	11.7
부모상담							
매일	1.6	-	-	2.1	4.5	2.6	2.2
매주 1회	2.5	3.4	5.2	1.6	3.6	-	2.3
월 1회	5.9	2.8	10.2	5.5	6.8	11.6	6.1
분기 1회	31.8	26.4	34.5	35.9	25.8	28.1	32.8
연 1~2회	52.2	58.3	46.5	47.9	45.3	50.4	48.9
제공 안함	2.7	8.5	1.0	4.1	10.6	5.3	4.9
모름	3.3	0.5	2.5	2.9	3.4	2.1	2.9
부모교육자료							
매일	1.1	1.7	3.0	1.3	0.5	2.5	1.3
매주 1회	14.5	9.5	20.3	10.5	16.7	16.8	12.9
월 1회	25.8	29.9	20.6	22.8	23.1	23.5	23.7
분기 1회	21.5	15.8	15.1	21.7	18.6	32.2	21.0
연 1~2회	22.4	35.1	28.8	25.4	14.2	20.4	23.5
제공 안함	6.4	6.1	2.9	9.1	17.2	1.3	9.1
모름	8.2	1.9	9.2	9.1	9.7	3.4	8.5
부모참여프로그램							
매일	0.5	-	-	1.4	0.5	-	0.9
매주 1회	4.6	-	1.6	1.3	4.7	3.6	2.6
월 1회	16.7	12.2	11.8	7.3	9.4	15.0	10.3

구분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전체
분기 1회	29.8	27.2	32.2	29.3	24.6	25.1	28.6
연 1~2회	36.5	53.6	48.4	46.3	39.9	55.1	43.9
제공 안함	4.6	5.3	1.5	6.8	11.9	-	6.6
모름	7.3	1.7	4.4	7.6	9.0	1.3	7.1
양방향 알림장							
매일	69.9	68.4	72.6	69.2	80.4	83.4	71.6
매주 1회	16.7	11.2	14.9	12.4	8.2	13.1	12.8
월 1회	1.0	0.6	1.6	3.1	1.3	-	2.1
기타	3.0	0.5	-	4.4	2.4	-	3.3
제공 안함	1.3	0.6	0.7	1.8	0.5	-	1.3
모름	3.4	9.8	8.8	5.7	5.9	1.0	5.4
모름	4.7	9.0	1.4	3.5	1.4	2.6	3.6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다음은 부모가 어린이집으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만족 비율과 점수로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또는 ‘매우 만족한다’에 응답한 부모들의 비율을 보면 70~87% 수준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만족 비율은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015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급간식식단, 가정통신문, 발달평가 등의 만족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점 평가 점수로 보면 3.8~4.3점 정도로 만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모든 항목에서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거의 모든 항목에서 직장어린이집의 부모서비스의 만족 평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5년 조사결과와 유사하다.

표 VI-3-2 어린이집 유형별 부모서비스 제공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만족한다는 비율								5점 평가							
	보육 계획표	급간식 식단	가정통 신문	발달 평가	부모 상담	부모교 육자료	부모참 여프로 그램	양방향 알림장	보육 계획표	급간식 식단	가정 통신문	발달 평가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부모참 여프로 그램	양방향 알림장
전체	84.3	82.4	83.4	77.4	74.8	73.1	73.1	83.3	4.0	4.0	4.0	3.9	3.9	3.9	3.9	4.1
국공립	86.4	85.8	87.4	81.8	79.4	75.2	75.1	83.9	4.1	4.1	4.1	4.0	4.0	3.9	3.9	4.1
법인	83.6	80.6	85.9	76.0	74.7	75.1	77.9	87.3	4.0	3.9	4.0	3.9	3.8	3.8	3.8	4.1
법인·단체등	85.4	83.1	79.1	77.4	70.7	70.3	75.4	82.0	4.1	4.0	4.0	4.0	3.9	3.9	4.0	4.0
민간	84.0	81.2	82.2	76.3	72.5	71.3	71.0	82.6	4.0	4.0	4.0	3.9	3.8	3.8	3.8	4.0

구분	만족한다는 비율								5점 평가							
	보육 계획표	급간식 식단	가정통신문	발달 평가	부모 상담	부모교 육자료	부모참여 프로그램	양방향 알림장	보육 계획표	급간식 식단	가정 통신문	발달 평가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부모참여 프로그램	양방향 알림장
가정	80.0	80.7	82.0	76.2	76.6	73.7	73.4	83.6	4.0	4.0	4.0	3.9	3.9	3.9	3.9	4.2
직장	94.5	88.4	85.9	74.5	78.1	84.9	81.5	86.4	4.2	4.2	4.2	4.1	4.1	4.1	4.0	4.3
(수)	(1,743)	(1,745)	(1,748)	(1,238)	(1,611)	(1,453)	(1,515)	(1,609)	(1,743)	(1,745)	(1,748)	(1,238)	(1,611)	(1,453)	(1,515)	(1,609)
F	1.8(a)	1.2(a)	1.4(a)	0.7(a)	1.5(a)	1.2(a)	1.1(a)	0.3	3.2***	4.4***	3.2***	2.1*	4.7***	2.8**	3.2***	2.8**
2015년 조사	84.1	83.3	84.1	80.7	72.8	72.1	71.3	-	4.1	4.0	4.1	4.0	3.9	3.9	3.9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부모서비스 만족도 5점 평균은 '매우 만족' 1점 ~ '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하여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5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한 결과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1$, *** $p < .001$.

나. 건강검진 실시 안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건강검진을 받았는지에 대해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응답은 81.3%이고 받지 않음 15.9%, 잘 모름 2.8%였다. 영아보다는 유아의 경우 건강검진 실시율이 높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이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0세는 71.2%인데 비해 5세는 86.8%에 이르러 15.6%p의 차이를 보였다. 지역규모별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대도시의 건강검진 비율이 높았다. 2012년에 비하면 건강검진 실시 비율이 높아졌으나 2015년 결과와 비교하면 받지 않음 비율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VI-3-3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건강검진 여부

구분	받음	받지 않음	잘 모름	계(수)
전체	81.3	15.9	2.8	100.0 (1,753)
영유아구분				
영아	78.7	18.0	3.4	100.0 (998)
유아	84.9	13.0	2.1	100.0 (755)
χ^2 (df)		10.4(2)***		
보육연령				
0세	71.2	21.0	7.7	100.0 (117)
1세	80.3	16.2	3.5	100.0 (386)
2세	79.2	18.7	2.1	100.0 (495)
3세	84.8	12.7	2.5	100.0 (335)
4세	82.8	15.4	1.8	100.0 (204)
5세	86.8	11.4	1.8	100.0 (216)

구분	받음	받지 않음	잘 모름	계(수)
χ^2 (df)		25.0(10)***		
지역규모				
대도시	84.8	13.3	1.8	100.0 (611)
중소도시	78.5	17.1	4.4	100.0 (514)
읍면지역	80.3	18.4	1.3	100.0 (628)
χ^2 (df)		18.0(4)***		
2015년 조사	82.5	14.8	2.6	100.0 (1,745)
2012년 조사	81.4	17.9	0.7	100.0 (1,536)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건강검진에 대한 사전 안내를 어린이집으로부터 받았는지 확인한 결과, 전체의 85.2%가 사전 안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2년의 91.6% 보다는 낮고 2015년 83.8%보다 높아진 결과이다. 건강검진 사전안내 실시율은 어린이집 설립유형과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어린이집 이용 시 96.6%로 안내 받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법인·단체등(94.5%), 민간(85.3%)의 순서이고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에서 사전 안내를 받은 비율이 88.3%로 중소도시 82.1%, 읍·면지역 85.4%에 비해 높았다.

표 VI-3-4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별 건강검진 사전 안내 여부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전체	2015년	2012년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받음	85.0	96.6	94.5	85.3	79.7	81.5	88.3	82.1	85.4	85.2	83.8	91.6
받지 않음	10.2	2.1	3.6	10.8	11.2	12.5	7.9	11.3	11.9	10.1	9.5	7.5
잘 모름	4.8	1.4	1.9	3.9	9.1	6.1	3.8	6.6	2.7	4.8	6.6	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17)	(90)	(96)	(874)	(221)	(55)	(611)	(514)	(628)	(1,753)	(1,745)	(1,536)
χ^2 (df)			25.2(10)***						16.4(4)***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영유아 구분이나 연령별로 건강검진 안내를 어린이집으로부터 받았는지 비교해 보면, 영아(82.4%)에 비해 유아(88.9%)의 경우 검진 안내를 받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3세(88.4%)와 5세(91.8%)의 안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표 VI-3-5 ■ 영유아 구분 및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건강검진 사전안내 여부

단위: %(명)

구분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받음	82.4	88.9	71.2	80.8	86.4	88.4	86.4	91.8
받지 않음	11.7	7.9	15.8	12.4	10.1	7.9	9.7	6.1
잘 모름	5.9	3.2	13.0	6.8	3.5	3.6	3.8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998)	(755)	(117)	(386)	(495)	(335)	(204)	(216)
χ^2 (df)	15.0(2)***		43.8(1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 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다. 부모 참여

어린이집에 영유아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들 중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부모 모니터링단, 부모 자원봉사 등에 실제로 참여한 경우의 비율을 보면 부모자원봉사가 26.6%로 가장 높고 운영위원회가 25.7%, 부모 모니터링단 19.1%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과 2015년에 비해 모두 증가한 비율이다. 부모 참여 활동을 모르거나 해당어린이집에 각 활동이 없다는 경우를 제외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부모참여 활동이 보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질문한 결과 약 30~34%정도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전 년도의 비율 보다는 낮아진 상태로 도움의 정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역시 모 참여 활동을 모르거나 해당어린이집에 각 활동이 없다는 응답자를 제외하고 각 제도에 대해 향후 참여의향을 살펴 본 결과, 참여의향을 밝힌 비율은 50.0% 이상으로, 참여의향이 실제 참여율보다는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2012년과 2015년 조사결과보다는 증가하였다.

【표 VI-3-6】 부모 참여 활동 참여율, 도움 정도, 향후 참여 의향

단위: %(명)

구분	참여율				도움 정도				참여의향			
	2018	(수)	2015	2012	2018	(수)	2015	2012	2018	(수)	2015	2012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25.7	(985)	23.5	8.0	34.1	(872)	68.0	56.4	55.5	(564)	33.0	42.7
부모 모니터링단	19.1	(856)	17.2	2.4	30.4	(737)	69.7	55.2	51.3	(452)	30.9	43.0
부모 자원봉사	26.6	(891)	20.4	5.0	34.2	(780)	71.5	56.3	58.0	(495)	30.4	42.6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부모 참여활동의 참여율, 각 활동의 보육의 질 향상에 도움됨 비율, 각 활동 참여의향 비율은 각 활동에 대해 모름, 없음으로 응답하거나, 무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응답 중 산출한 비율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앞서 논의한 세 가지의 부모참여 비율과 향후 참여 의향을 제 특성별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한 결과 영유아구분과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자원봉사에 참여한 비율은 영아보다는 유아 부모 집단에서 높았다. 또한 대도시지역의 부모들이 자원봉사에서 더 높은 참가율을 보이고 참여의향도 대체로 높았다. 모취업에 따라서 향후 자원봉사 참여 의향은 휴직자에서 높게 나타났고 미취업자에게서도 참여 비율은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2015년의 참여비율과 참여 의향 비율보다 상당히 높아진 결과이다.

【표 VI-3-7】 제 특성별 부모 참여 활동 참가율과 참여 의향 비율

단위: %(명)

구분	참여 비율			참여 의향 있는 비율		
	운영위원회	모니터링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모니터링	자원봉사
전체	25.7	19.1	26.6	55.5	51.3	58.0
최연소 자녀 영유아구분						
영아	25.1	18.4	22.4	57.4	49.9	55.9
유아	26.3	19.7	30.2	53.9	52.4	59.8
χ^2 (df)	0.1(1)	0.2(1)	6.0(1)**	0.6(1)	0.3(1)	0.6(1)
지역규모						
대도시	26.3	21.7	30.7	55.4	50.5	59.1
중소도시	26.8	16.7	27.3	52.6	51.2	56.9
읍면지역	24.0	17.6	20.1	58.6	52.6	57.2
χ^2 (df)	0.6(2)	2.4(2)	8.5(2)**	1.0(2)	0.1(2)	0.2(2)
모취업 여부						
취업	23.6	17.5	24.5	56.8	50.7	56.8
휴직	23.3	19.8	28.8	50.8	60.5	64.6
미취업	29.3	21.4	29.5	56.0	52.1	60.2
모부재 등	6.3	6.3	6.3	9.9	9.9	9.9
χ^2 (df)	4.9(3)	2.4(3)	4.0(3)	5.2(3)	4.7(3)	6.7(3)*

구 분	참여 비율			참여 의향 있는 비율		
	운영위원회	모니터링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모니터링	자원봉사
기관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25.6	19.6	26.4	57.2	52.3	58.9
유치원만 이용	-	-	-	-	-	-
둘 다 이용	26.1	17.6	27.1	51.2	48.5	55.8
미이용	-	-	-	-	-	-
χ^2 (df)	0.0(1)	0.3(1)	0.0(1)	1.5(1)	0.4(1)	0.3(1)
(수)	(985)	(856)	(891)	(564)	(452)	(495)
2015년 조사	15.8	10.3	12.6	33.0	30.9	30.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최연소 자녀 영유아 구분: 생활 연령

3) 부모 참여활동의 참여율, 각 활동 참여의향 비율은 각 활동에 대해 모름, 없음으로 응답하거나, 무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응답 중 산출한 비율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5$, ** $p < .01$.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가구의 응답자 중 부모참여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에 그러한 프로그램이 없거나, 부모가 그러한 프로그램을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부모참여 프로그램이 실제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하였다. 응답 결과, 도움된다는 비율은(매우 도움됨 + 도움됨) 세 가지 부모 참여 방식 모두 비슷한 30.4~34.2% 정도 였으며, 제 특성별로는 영아보다는 유아 부모가 세 가지 부모참여프로그램이 보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특히 부모자원봉사와 운영위원회가 보육의 질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대도시와 휴직하고 있는 부모들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둘 다 이용하는 부모들이 자원봉사가 보육의 질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VI-3-8 ▮ 부모참여의 보육의 질 향상에 대한 도움 정도 인식

단위: %(명)

구 분	운영위원회		부모모니터링단		부모 자원봉사	
	도움된다는 비율	(수)	도움된다는 비율	(수)	도움된다는 비율	(수)
전체	34.1	(872)	30.4	(737)	34.2	(780)
최연소자녀 구분						
영아	31.5	(496)	28.2	(423)	29.6	(441)
유아	36.5	(376)	32.5	(314)	38.2	(339)
지역규모						
대도시	36.5	(321)	34.0	(279)	39.3	(309)
중소도시	34.3	(246)	30.6	(188)	35.1	(201)

구 분	운영위원회		부모모니터링단		부모 자원봉사	
	도움된다는 비율	(수)	도움된다는 비율	(수)	도움된다는 비율	(수)
읍면지역	31.0	(305)	25.8	(270)	26.4	(270)
모취업 여부						
취업	35.5	(437)	29.9	(369)	33.7	(390)
휴직	28.1	(57)	28.2	(52)	38.1	(57)
미취업	33.5	(370)	31.7	(308)	34.5	(325)
모부재 등	21.3	(8)	21.3	(8)	21.3	(8)
기관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33.8	(584)	30.8	(500)	33.4	(526)
유치원만 이용	-	-	-	-	-	-
둘 다 이용	35.0	(288)	29.3	(237)	36.1	(254)
미이용	-	-	-	-	-	-
2015년 조사	68.0	(228)	69.7	(146)	71.5	(16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3) 부모참여활동을 모름, 해당 어린이집에 제도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움정도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도움 된다는 비율은 무응답은 제외하고 산출함.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4 어린이집 특별활동

본 절에서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개수 및 종류, 비용, 만족도와 선호도 등 특별활동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가. 이용 프로그램 개수 및 종류

어린이집에서 이용하고 있는 특별활동의 개수를 보면 평균 2.4개로 조사되었고, 이용 아동은 평균 3.4개 정도를 이용하고 있었다. 최대 8개까지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혀 특별활동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29.3%였다. 영유아별로 영아는 평균 1.5개였고(이용아 평균은 2.8개)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47.9%였으나 유아는 평균 2.9개의(이용아 평균은 3.6개) 특별활동을 하고 17.8%만이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용아만을 기준으로 4세가 평균 이용 개수가 3.9개로 가장 많이 이용하며 지역적으로는 도시지역 이용 아동의 평균 이용 개수가 3.5개로 중소도시 3.3개, 읍·면지역 3.2개에 비해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는 가정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2.1~3.0개의 비슷한 개수 수준을 보이며 법인단체 등의 이용 개수가 3.0개로 가장 많았으나 이용 아동만을 기준으로 하면 민간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프로그램 이용 개수가 3.6개로 가장 많았다.

■ 표 VI-4-1 ■ 제 특성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개수

구분												단위: %(명), 개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계(수)	평균	이용아 평균
전체	29.3	5.5	13.7	22.7	13.5	11.1	3.5	0.7	0.2	-	-	100.0 (1,753)	2.4	3.4
영유아구분														
영아	47.9	6.5	17.3	15.7	7.0	4.6	0.8	0.3	-	-	-	100.0 (654)	1.5	2.8
유아	17.8	4.8	11.4	27.0	17.5	15.1	5.1	0.9	0.4	-	-	100.0 (1,099)	2.9	3.6
$\chi^2(df)/F$	266.0(8)***											-17***	-9.8***	
생활연령														
0세	88.1	6.1	-	5.8	-	-	-	-	-	-	-	100.0 (21)	0.2	2.0
1세	69.7	5.6	13.1	6.3	4.7	0.6	-	-	-	-	-	100.0 (207)	0.7	2.4
2세	35.6	6.9	20.2	20.6	8.5	6.6	1.1	0.4	-	-	-	100.0 (426)	1.9	2.9
3세	22.4	5.3	15.9	28.8	17.9	7.8	1.5	0.3	0.2	-	-	100.0 (459)	2.5	3.2
4세	13.6	3.5	10.6	24.0	19.4	18.6	7.5	2.0	0.8	-	-	100.0 (297)	3.3	3.9
5세 이상	15.5	5.4	6.6	27.2	15.5	21.1	7.6	0.7	0.3	-	-	100.0 (343)	3.2	3.8
$\chi^2(df)/F$	467.5(40)***											88.4***(a)	30.5***(a)	
지역규모														
대도시	30.7	4.9	11.8	22.6	13.4	11.4	4.0	0.8	0.4	-	-	100.0 (611)	2.4	3.5
중소도시	30.9	5.3	13.6	22.2	12.9	11.2	3.0	0.7	0.2	-	-	100.0 (514)	2.3	3.3
읍면지역	22.7	7.1	17.8	23.8	15.0	9.9	3.5	0.3	-	-	-	100.0 (628)	2.5	3.2
$\chi^2(df)/F$	19.5(16)											0.8(a)	3.4**	
설립유형														
국공립	32.4	8.2	15.4	23.3	10.5	7.6	2.2	0.4	-	-	-	100.0 (417)	2.1	3.0
법인	22.8	1.0	11.1	33.6	16.4	7.3	7.7	-	-	-	-	100.0 (90)	2.7	3.5
법인·단체 등	10.6	6.3	19.6	23.2	24.2	7.9	5.0	3.2	-	-	-	100.0 (96)	3.0	3.4
민간	25.1	4.7	9.8	23.0	15.5	15.9	4.7	0.8	0.5	-	-	100.0 (874)	2.7	3.6
가정	43.7	5.9	23.0	17.4	7.1	2.8	-	-	-	-	-	100.0 (221)	1.5	2.6
직장	43.7	2.1	17.2	21.5	13.3	2.2	-	-	-	-	-	100.0 (55)	1.7	2.9
$\chi^2(df)/F$	184.5(40)***											25.4***(a)	19.5***(a)	
2015년 조사	32.2	5.4	12.9	22.2	13.1	6.8	3.8	2.1	1.1	0.4	0.2	100.0 (1,745)	2.4	-
2012년 조사	33.4	8.5	14.8	20.1	11.4	6.9	3.3	0.9	0.5	0.3	0.1	100.0 (1,536)	3.2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3) 영유아보육법 제29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해 18개월 미만의 영아는 어린이집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음. 따라서 본 절은 보육연령이 아닌 생활연령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생활연령 구분으로 분석하였음.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 $p < .001$.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비율을 보면 미술과 음악 등의 예능이 61.5%로 가장 많고 다음은 체육 관련이 60.4%이었다. 그 다음으로 영어45.1%, 언어 27.6%, 과학과 과학 관련 18.2% 순으로 나타났다. 영아와 유아 모두 예능과 체육의 이용 비율이 높으나 유아의 경우는 영어의 이용 비율이 높아지고 언어와 과학 관련 특별활동도 이용 비율이 25~37% 정도 나타나 유아의 다양한 특별활동 이용을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예능과 체육 관련 프로그램이 읍면지역 어린이집에서의 이용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영어의 이용 비율은 대도시에서 가장 높았다(48.2%). 설립유형별로는 법인·단체등 어린이집에서 예능과 체육, 법인 어린이집에서 언어와 영어 프로그램 이용 비율이 높았다.

표 VI-4-2 내용별·제 특성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비율

단위: %(명)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 관련	과학/ 과학 관련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기타
전체	61.5	60.4	18.2	27.6	45.1	9.6
영유아구분						
영아	44.9	43.3	6.9	12.2	19.2	8.9
유아	71.7	71.0	25.3	37.1	61.1	10.1
생활연령						
0세	11.9	5.8	-	-	-	-
1세	26.1	24.0	1.7	3.4	7.4	6.8
2세	55.4	54.2	9.6	17.0	25.8	10.4
3세	67.3	67.0	13.4	27.1	47.5	10.5
4세	76.6	75.2	33.7	43.3	71.3	9.2
5세 이상	73.2	72.6	33.1	44.3	69.6	10.2
지역규모						
대도시	60.8	60.0	20.2	25.7	48.2	9.1
중소도시	62.0	59.9	16.6	26.3	42.9	10.1
읍면지역	61.7	62.7	17.8	34.6	43.4	9.7
어린이집유형						
국공립	56.8	55.8	14.0	21.2	41.8	6.9
법인	66.4	67.2	19.1	43.3	53.5	5.2
법인·단체등	72.2	73.6	26.0	38.8	52.3	9.2
민간	66.9	65.0	23.5	34.4	52.8	11.5
가정	46.9	48.4	4.2	10.1	18.8	9.9
직장	51.6	45.9	15.5	4.5	43.5	2.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한편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1주일 평균 이용 횟수를 알아본 결과, 언어가 가장 많은 1.5회였으며 영어는 1.4회, 예능, 수학/과학 관련 등이 1.3회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능, 체육, 영어, 수학/과학 관련 평균 이용 횟수는 어린이집 이용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언어, 예능과 수학/과학, 영어 관련은 법인·단체 등에서 많았고, 직장어린이집에서는 언어와 영어 등의 횟수가 많았다.

▮ 표 VI-4-3 ▮ 어린이집 특별활동 1주일 평균 이용횟수

단위: 회(명)

구분	전체				어린이집 유형							F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예능(미술, 음악)	1.3	0.6	1.0	5.0	1.2	1.2	1.6	1.4	1.3	1.2	5.5***(a)	(1,061)	
체육관련	1.2	0.5	1.0	5.0	1.1	1.1	1.3	1.2	1.1	1.1	2.9**(a)	(1,058)	
수학/과학 관련	1.3	0.7	1.0	5.0	1.1	1.5	1.6	1.3	1.0	1.2	2.4**(a)	(310)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1.5	1.0	1.0	5.0	1.5	1.3	1.8	1.5	1.2	2.0	1.4(a)	(495)	
영어	1.4	0.8	1.0	5.0	1.4	1.4	1.6	1.5	1.1	1.5	2.6**(a)	(770)	
기타	1.3	0.8	1.0	5.0	1.2	1.1	1.3	1.4	1.3	1.0	0.4	(175)	

주: 1)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특별활동 종류별 이용한다는 응답자 대상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 $p < .001$.

나. 특별활동 의무 이용 및 대체 프로그램 제공 인지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활동을 부모가 의무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의무 이용은 프로그램별로 다른데, 언어는 전체의 53.2%가 의무인 것으로 인지 하고 있었고 수학/과학도 50.1%가 의무 이용하고 있었다. 예능, 체육 관련 및 영어는 의무 이용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했다.

지역 규모별로 보면, 대도시의 경우 의무 이용 비율이 50% 넘는 경우가 많았고 읍면의 의무 이용 비율도 비교적 높은 편이나 중소도시는 의무 이용 비율이 50%에 거의 미치지 못했다. 한편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전반적으로 언어에 대한 의무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어린이집의 언어 의무 비율은 83.6%나 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지의 의무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VI-4-4 특별활동 의무 이용 비율

단위: %(명)

구분	예능 (미술, 음악 등)	체육 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 (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기타
전체	46.8	48.7	50.1	53.2	45.1	37.2
영유아구분						
영아	55.7	55.6	72.5	68.9	58.1	51.5
유아	43.4	46.2	46.4	50.0	42.6	29.3
지역규모						
대도시	50.1	53.4	57.1	61.9	47.4	39.4
중소도시	42.3	44.3	37.9	41.4	42.0	30.5
읍면지역	50.1	48.7	59.2	59.6	46.7	48.3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41.2	46.6	51.9	43.2	38.3	43.9
법인	46.5	42.9	23.7	51.9	41.0	56.2
법인·단체등	31.9	39.3	41.0	53.2	37.1	33.5
민간	50.8	51.8	53.2	54.5	48.7	35.2
가정	46.3	50.7	53.5	67.4	46.5	38.1
직장	33.9	18.3	24.3	83.6	34.5	-
(수)	(1,061)	(1,058)	(310)	(495)	(770)	(175)

주: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각 특별활동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의무 이용 여부를 질문한 결과임.

3)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특별활동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 어린이집에서는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활동 미 참여 시의 대체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20.1%만이 잘 알고 있었다. 나머지 79.9%는 대체프로그램 의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대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인지하는 비율이 차이가 있어 1세와 3세의 경우 더 잘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 거주인 경우 대체프로그램 운영 의무에 대한 인지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고, 이용 어린이집 설립유형별로는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대체프로그램의 운영 의무를 인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21.3%) 반대로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이용자의 경우 인지율이 12.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2015년에 비해 의무 인지 비율은 증가되었다.

표 VI-4-5 특별활동 미참여 시 어린이집의 대체프로그램 운영 의무 인지도부

단위: %(명)

구분	특별활동 미참여 시 어린이집의 대체프로그램 운영 의무 인지			
	전혀 모름	잘 모름	잘 앎	계(수)
전체	41.3	38.6	20.1	100.0(1,653)
영유아구분				
영아	44.2	36.7	19.1	100.0(596)
유아	39.7	39.7	20.7	100.0(1,057)
χ^2 (df)		3.2(2)		
생활연령				
0세	48.9	35.2	16.0	100.0(20)
1세	48.3	31.1	20.6	100.0(174)
2세	42.2	39.1	18.7	100.0(402)
3세	40.9	35.4	23.7	100.0(439)
4세	35.2	46.2	18.5	100.0(284)
5세	41.7	39.5	18.8	100.0(334)
χ^2 (df)		16.6(10)*		
지역규모				
대도시	38.7	40.7	20.6	100.0(571)
중소도시	44.3	34.2	21.5	100.0(484)
읍면지역	40.3	43.8	15.9	100.0(598)
χ^2 (df)		12.5(4)**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43.9	36.6	19.5	100.0(389)
법인	45.9	34.6	19.5	100.0(86)
법인·단체등	39.6	47.8	12.6	100.0(92)
민간	38.0	40.8	21.3	100.0(836)
가정	51.8	28.9	19.3	100.0(201)
직장	27.9	52.7	19.4	100.0(49)
χ^2 (df)		25.9(10)***		
2015년	43.2	43.3	13.5	100.0(1,48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3) 특별활동을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집의 원아 100명을 제외함.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1$, *** $p < .001$.

다. 특별활동 비용

어린이집에서 진행되는 특별활동에 대해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으로 약 97~99%의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의 경우 비

용을 지불하고 교육받는 비율이 더 높은 편인데 직장어린이집의 언어가 비교적 낮은 비율이었고 수학과 과학 관련도 낮았으며 가정어린이집의 기타 특별활동 비용 지불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였다.

▣ 표 VI-4-6 ▣ 어린이집 특별활동 별도 비용 지불하는 비율

단위: %(명)

구분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전체	(수)
예능(미술, 음악)	98.8	100.0	100.0	100.0	97.8	91.9	99.3	(1,061)
체육관련	98.8	100.0	100.0	100.0	97.8	94.7	99.4	(1,058)
수학/과학 관련	95.1	100.0	100.0	100.0	100.0	88.8	98.9	(310)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96.8	100.0	100.0	100.0	100.0	61.4	99.3	(495)
영어	98.4	100.0	100.0	100.0	97.3	90.4	99.2	(770)
기타	94.0	100.0	100.0	100.0	89.5	100.0	97.5	(175)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그리고 어린이집 특별활동 과목별 월평균 비용은 약 14,500원에서부터 19,9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예능, 영어나 기타 등이 19,100원~19,900원 정도로 높았으며, 대부분의 과목에서 어린이집 유형별 비용에 차이가 있었다.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월평균 이용 비용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 표 VI-4-7 ▣ 어린이집 특별활동 과목별 월평균 이용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전체				어린이집 유형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F	
예능(미술, 음악)	19.1	10.9	0	95.0	16.9	15.1	18.1	19.9	22.7	13.7	8.1***	(1,061)
체육관련	17.1	9.2	0	76.0	14.1	14.2	15.1	17.9	20.5	15.9	11.1*** ^(a)	(1,058)
수학/과학 관련	14.5	8.2	0	50.0	11.6	11.4	16.8	15.5	14.2	9.8	3.3***	(310)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15.5	9.0	0	60.0	13.6	12.9	14.4	16.1	19.7	3.4	3.8***	(495)
영어	19.4	10.2	0	80.0	17.8	16.6	17.6	20.7	18.8	13.1	5***	(770)
기타	19.9	12.1	0	70.0	15.8	12.0	21.5	21.1	19.9	23.0	1.2	(17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특별활동 종류별 이용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특별활동 월평균 비용을 영유아별로 구분하여 비교해보면, 예능과 체육 관련하여 비용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영아의 비용이 유아의 비용보다 약 2,000원 정도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예능과 체육 등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2세와 3세의 비용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차이를 나타냈는데, 예능과 체육 관련 프로그램은 대도시에서, 그 외 프로그램은 중소도시에서 이용 비용이 높게 나타났고, 읍·면지역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가장 비용이 낮았다.

■ 표 VI-4-8 ■ 제 특성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월평균 이용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 (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기타
전체	19.1	17.1	14.5	15.5	19.4	19.9
영유아구분						
영아	20.8	18.2	14.1	15.9	19.0	19.5
유아	18.4	16.7	14.6	15.4	19.5	20.2
t	3.2***	2.5**	-0.5	0.5	-0.6	-0.4
생활연령						
0세	29.8	30.0	-	-	-	-
1세	19.3	17.3	13.5	14.8	14.2	13.4
2세	21.1	18.3	14.2	16.0	19.6	21.3
3세	20.0	18.0	15.2	16.5	20.3	23.4
4세	17.5	15.1	13.5	13.9	18.7	19.6
5세 이상	17.5	16.4	15.2	15.9	19.4	16.6
F	4.7***	4.5***	0.7(a)	1.6	1.7(a)	2.9**(a)
지역규모						
대도시	20.0	18.0	14.6	15.4	19.8	19.9
중소도시	19.4	17.5	15.6	16.8	20.5	21.1
읍면지역	16.5	14.3	12.1	13.5	15.9	17.4
F	7.5***	12.3***	3.5**	4.8***	10.7***	1.1
(수)	(1,061)	(1,058)	(310)	(495)	(770)	(17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 $p < .001$.

특별활동 비용을 아동 1인당 월평균 지불액으로 살펴보면, 전체 평균 56,100원 정도로 산출되었고 표준편차는 29,400원이다. 이는 2015년의 71,100원, 2012년의 63,400원 보다 훨씬 낮아진 금액으로 특별활동비가 꾸준히 올랐다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 결과를 보면 월간 5~10만원을 지출한다는 응답이 4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3~5만원이 28.5%로 나타났다.

영유아별로 특별활동 월평균 이용비용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유아의 지불 비용은 58,900원으로 영아의 49,000원에 비해 약 일만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있어서도 대도시에서 읍면으로 갈수록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었다. 설립유형별로는 민간어린이집이 높은 비용을 보였고 직장어린이집이 가장 낮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었다.

표 VI-4-9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제 특성별 특별활동 1인당 월평균 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무료	1만원 미만	1~2만원	2~3만원	3~5만원	5~10만원	10~15만원	15~20만원	2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계(수)	지불시 평균	표준 편차	2015년	2012년	2009년
전체	0.6	0.2	4.0	10.7	28.5	46.5	8.7	0.9	-	-	100.0 (1,247)	56.1	29.4	71.1	63.4	39.6
영유아구분																
영아	0.8	0.8	6.5	13.4	29.0	44.7	4.2	0.7	-	-	100.0 (341)	49.0	26.3	53.8	54.3	32.8
유아	0.5	-	3.0	9.6	28.3	47.2	10.4	1.0	-	-	100.0 (906)	58.9	30.1	76.7	69.5	42.4
$\chi^2(df)/t$					31.5(7)***							-5.7***		57.0***	-6.3***	19.9**
생활연령																
0세	-	-	-	51.2	-	48.8	-	-	-	-	100.0 (2)	44.4	31.1	-	-	-
1세	2.1	-	6.2	7.9	56.9	25.2	1.6	-	-	-	100.0 (63)	39.2	17.8	-	-	-
2세	0.5	0.9	6.7	14.2	23.1	49.0	4.8	0.8	-	-	100.0 (276)	51.3	27.4	-	-	-
3세	0.7	-	3.2	8.8	31.1	45.6	10.7	-	-	-	100.0 (363)	56.9	27.9	-	-	-
4세	1.0	-	2.1	12.4	27.1	45.8	10.0	1.6	-	-	100.0 (253)	58.3	30.9	-	-	-
5세 이상	-	-	3.4	8.2	26.1	50.1	10.5	1.7	-	-	100.0 (290)	61.6	31.6	-	-	-
$\chi^2(df)/F$					82.2(35)***							8.4**(a)				
지역규모																
대도시	0.4	-	4.0	8.1	25.4	51.2	10.6	0.3	-	-	100.0 (427)	59.5	28.7	71.0	65.8	47.0
중소도시	0.8	0.5	4.0	10.6	24.8	48.0	9.5	1.8	-	-	100.0 (349)	58.6	31.2	71.5	63.7	35.5
읍면지역	0.6	-	3.8	15.5	41.8	34.3	3.4	0.5	-	-	100.0 (471)	44.7	23.8	70.6	57.4	32.9
$\chi^2(df)/F$					60.9(14)***							24.9**(a)		0.03	3.1*	19.3**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1.0	1.0	7.7	14.0	36.4	36.2	3.6	-	-	-	100.0 (282)	45.1	23.7	65.4	27.5	31.4
법인	-	-	-	17.4	42.7	35.3	4.7	-	-	-	100.0 (69)	47.8	24.4	73.7	17.6	30.2
법인·단체등	-	-	6.8	14.0	29.2	40.6	9.4	-	-	-	100.0 (87)	50.7	29.1	56.2	19.2	36.9
민간	-	-	2.6	8.8	23.4	51.6	12.0	1.7	-	-	100.0 (654)	63.3	30.9	75.4	40.6	44.2
가정	1.9	-	4.1	6.1	32.3	50.3	5.3	-	-	-	100.0 (126)	51.0	23.9	61.4	33.6	30.7
직장	7.4	-	3.7	26.2	28.5	34.2	-	-	-	-	100.0 (29)	39.4	24.7	57.4	30.0	38.1
협동	-	-	-	-	-	-	-	-	-	-	-	-	-	160.0	-	-
$\chi^2(df)/F$					134.8(35)***							21.2**(a)		6.7***	13.2***	8.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1$, *** $p < .001$.

라. 특별활동 이용 만족도 및 선호 프로그램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특별활동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볼 때 5점 척도상 3.9~4.0 범위에 있으며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5년 3.7~4.1, 2012년의 3.6~3.9, 2009년의 3.6~3.9임을 볼 때 조금씩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만족도는 어린이집 유형별로 예능, 체육, 수학/과학 관련, 영어 등에서 차이가 유의미하였고 전반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의 만족도가 높았다.

▮ 표 VI-4-10 ▮ 어린이집 특별활동 만족도: 5점 척도

구분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전체	F	(수)	단위: 점(명)			
										2015 년	2012 년	2009 년	
예능(미술, 음악 등)	4.0	4.0	3.9	3.9	4.1	4.0	4.0	5***(a)	(1,061)	미술	3.9	3.8	3.7
										음악	3.9	3.8	3.8
체육 관련	4.1	4.0	4.0	4.0	4.1	4.0	4.0	2.8**(a)	(1,058)	체육	3.9	3.8	3.7
										과학	4.0	3.7	3.7
수학/과학 관련	3.9	3.9	4.2	3.8	4.2	4.1	3.9	2.8**	(310)	수학	3.9	3.8	3.7
										한글	3.9	3.8	3.8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4.0	3.9	3.9	3.9	3.9	4.8	3.9	1.7	(495)	한자	3.7	3.7	3.7
										기타외국어	3.8	3.6	3.6
										영어	3.9	3.8	3.7
영어	3.9	3.7	4.0	3.9	4.0	4.1	3.9	2*(a)	(770)	컴퓨터	4.1	-	-
										교구	3.9	3.9	3.9
기타	3.8	3.7	4.2	3.9	3.9	4.0	3.9	1.1(a)	(175)	기타	4.0	3.9	3.7

주: 1)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5점 평균은 '매우 만족' 1점~'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한 결과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1$, *** $p < .001$.

특별활동 중 응답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호 프로그램을 질문한 결과, 예능이 34.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은 29.2%로 체육이었다. 영아는 예능의 선호도가 높았고 유아는 체육, 영어와 언어의 선호도가 높았고 연령이 많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예능과 체육은 선호도가 감소하는 편이며 영어와 언어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씩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지역규모별로 보면, 대도시에서 영어의 선호도가 높은 반면 읍면에서는

언어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 유형에 있어서는 예능은 법
인·단체 등과 직장에서, 체육은 가정에서, 영어는 국공립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2012년과 2015년은 체육과 영어의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높았으나 최근 영어에
대한 선호도는 약간 감소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VI-4-11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제 특성별 특별활동 선호도

단위: %(명)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 (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기타	계(수)				
	미술	음악			한글	한자							
전체	34.0	29.2	1.3	11.8	20.5	3.1	100.0(1,231)						
영유아구분													
영아	42.1	30.4	0.2	9.9	12.1	5.3	100.0(333)						
유아	30.9	28.8	1.8	12.6	23.8	2.2	100.0(898)						
생활연령													
0세	100.0	-	-	-	-	-	100.0(2)						
1세	51.1	32.9	1.1	5.2	4.0	5.7	100.0(61)						
2세	39.5	30.2	-	11.0	14.0	5.3	100.0(270)						
3세	35.3	31.6	1.1	9.4	19.5	3.1	100.0(358)						
4세	33.6	27.6	0.6	13.1	24.5	0.6	100.0(251)						
5세 이상	23.7	26.5	3.4	15.8	27.9	2.7	100.0(289)						
지역규모													
대도시	31.1	27.2	1.1	12.0	27.6	0.9	100.0(417)						
중소도시	36.5	33.1	0.8	8.3	15.5	5.7	100.0(344)						
읍면지역	34.4	25.2	2.6	18.5	17.3	2.0	100.0(470)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30.1	26.2	1.0	12.5	28.2	2.1	100.0(281)						
법인	29.9	33.3	-	18.4	16.2	2.3	100.0(69)						
법인·단체등	42.7	21.0	-	10.1	25.1	1.1	100.0(87)						
민간	34.4	27.3	1.6	12.6	21.0	3.0	100.0(643)						
가정	34.9	43.4	0.4	7.8	6.1	7.4	100.0(123)						
직장	41.9	40.9	6.9	-	10.3	-	100.0(28)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한자	기타외 국어	영어	컴퓨터	교구	기타	
2015년 조사	11.7	11.0	33.9	0.6	0.6	7.1	-	-	22.7	-	10.3	1.7	100.0(1,207)
2012년 조사	8.5	9.7	26.4	1.6	1.7	9.8	1.2	-	32.0	-	8.4	0.7	100.0(1,00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5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개선 요구

본 절에서는 어린이집의 구성 요소별, 영유아 특성별로 어린이집의 만족도를 살펴보고, 어린이집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개선 요구를 분석하였다.

가. 만족도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성요소별로 만족 정도를 응답하도록 한 결과 5점 척도에서 평균 4.03점의 만족 수준이었다. 응답분포를 보면 만족 이상에 응답한 부모가 80.9%에 이르렀고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도 24.7%였다. 불만족스럽다(매우 불만족+불만족)고 응답한 비율은 2.3% 정도로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가 높았다.

각 항목별로 만족도 점수를 보면, 가장 높은 만족도 점수를 받은 것은 ‘교직원’ 항목으로 4.21점이었다. 다음은 생활지도(4.10점), 안전관리(4.09점), 교육내용(4.08점) 순으로 약 4.1점 정도의 만족도 수준을 나타내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부모참여 및 교육(3.90점), 비용(3.93점), 주변환경(3.95점)이었다. 불만족을 표한 비율이 높은 항목으로는 주변환경과 비용 등으로 나타났는데, 2015년도 비교할 때 평균 점수는 유사하나 만족한다는 비율은 6.7% 정도 증가하여 만족도는 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VI-5-1 어린이집 구성 요소별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5점평균 (표준편차)
교직원(원장, 교사)	0.1	1.6	9.5	54.4	34.4	100.0(1,753)	4.21 (0.68)
주변환경	0.5	4.3	18.9	52.6	23.7	100.0(1,753)	3.95 (0.80)
시설설비(교재·교구)	-	2.3	18.5	55.2	24.0	100.0(1,753)	4.01 (0.72)
비용	0.6	4.1	20.6	51.3	23.4	100.0(1,753)	3.93 (0.81)
건강관리	0.2	1.4	18.0	57.9	22.5	100.0(1,753)	4.01 (0.69)
급간식관리	0.3	1.8	18.2	54.8	24.9	100.0(1,753)	4.02 (0.73)
안전관리	0.2	1.2	14.1	58.8	25.7	100.0(1,753)	4.09 (0.67)
교육내용	0.1	1.2	13.5	60.8	24.5	100.0(1,753)	4.08 (0.65)
생활지도	-	0.6	13.1	62.0	24.3	100.0(1,753)	4.10 (0.62)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5점평균 (표준편차)
부모참여 및 교육	0.5	2.0	23.7	54.3	19.6	100.0(1,753)	3.90 (0.74)
전체 평균	0.3	2.0	16.8	56.2	24.7	100.0(1,753)	4.03 (0.72)
2015년 조사	0.3	2.0	19.5	52.0	26.2	100.0(1,745)	4.02 (0.7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5점 평균은 '매우 만족' 1점~'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하여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함.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어린이집 만족도를 영유아 여부와 모의 취업여부별로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영아와 유아의 만족도는 비슷(4.3)한 것으로 나타났고 영아보다 유아의 취업모의 만족도가 약간 높았다. 영아와 유아의 경우 취업모의 만족도가 미취업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아자녀를 둔 취업모의 만족도는 영아의 취업모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보이나 미취업모의 경우는 영아의 만족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역에 따른 비교를 보면, 전반적으로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영아는 중소도시에서, 유아는 읍면지역에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취업모는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 미취업모는 읍면지역에서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VI-5-2 】 영유아 자녀별 모 취업여부에 따른 어린이집 만족도

단위: 점(명)

구분	취업		휴직중		미취업		전체		(수)
	2018	2015	2018	2015	2018	2015	2018	2015	
영아	4.04	3.97	4.09	3.97	4.00	4.07	4.03	4.03	(654)
대도시	3.96	3.89	4.13	3.97	3.98	4.05	3.99	3.98	(234)
중소도시	4.13	4.00	4.03	3.83	4.01	4.06	4.06	4.02	(205)
읍면지역	4.02	4.12	4.08	4.30	4.03	4.16	4.03	4.15	(215)
유아	4.06	3.98	4.22	4.19	3.96	4.02	4.03	4.01	(1,099)
대도시	4.03	3.96	4.16	4.19	3.93	4.08	4.00	4.04	(377)
중소도시	4.04	4.05	4.26	4.04	3.98	3.98	4.02	4.01	(309)
읍면지역	4.20	3.88	4.24	4.44	4.01	4.00	4.12	3.96	(413)

주: 1)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5점 평균은 '매우 만족' 1점~'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하여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함.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3)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다음은 어린이집의 항목별 만족도를 이용 어린이집의 설립유형별로 비교하였다. 5점 척도에서 직장어린이집의 만족도가 4.37로 가장 높고 국공립 4.11, 법인·단체등 4.09의 순이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3.97, 4.01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직장어린이집은 2012, 2015년에 이어 2018년에도 만족도가 가장 높은 수준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은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항목별로 보면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4.2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였고 다른 유형과의 비교에서도 모든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국공립어린이집도 4.0이상의 고른 만족도를 보였다.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부모참여 및 교육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VI-5-3 ▣ 어린이집 유형별 만족도: 5점 척도

구분	단위: 점(명)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교직원	4.24	4.19	4.26	4.19	4.20	4.35	-
주변환경	4.04	3.98	3.81	3.89	3.97	4.26	-
시설설비	4.07	4.02	4.10	3.98	3.91	4.42	-
비용	4.21	4.07	4.00	3.74	4.00	4.42	-
건강관리	4.09	4.06	4.05	3.95	4.00	4.39	-
급간식관리	4.07	4.09	4.13	3.97	4.02	4.39	-
안전관리	4.15	4.18	4.18	4.03	4.07	4.37	-
교육내용	4.12	4.09	4.18	4.06	4.02	4.40	-
생활지도	4.15	4.13	4.15	4.07	4.06	4.42	-
부모참여 및 교육	3.96	3.94	3.99	3.85	3.89	4.24	-
전체 평균	4.11	4.07	4.09	3.97	4.01	4.37	-
(수)	(417)	(90)	(96)	(874)	(221)	(55)	-
2015년 조사	4.08	4.15	3.80	3.97	4.09	4.39	4.78
2012년 조사	3.85	3.69	3.86	3.65	3.67	4.13	4.08

주: 1)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입.

2) 5점 평균은 '매우 만족' 1점-'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하여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함.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를 영유아 자녀별로 구분해보면 영아는 전반적 만족도는 4.02점, 유아는 4.04점으로 거의 차이가 없으나 시설설비, 비용, 부모참여 및 교육 등에서는 영아와 유아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 시 전반적으로 유아의 만족도가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보았을 때는 전반적인 만족도인 전체 점수는 5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 고(4.09점) 3세의 만족도가(4.00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비용과 안전관리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비용은 0세, 1세와 5세가 다른 연령과 차이가 있고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1세와 2세, 4세와 5세가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 표 VI-5-4 ▣ 영유아 구분 및 연령별 어린이집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영아	유아	t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F
교직원	4.22	4.20	0.6	4.22	4.26	4.19	4.19	4.15	4.28	1.3
주변환경	3.93	3.96	-0.8	3.98	3.94	3.92	3.93	3.98	4.00	0.4
시설설비	3.98	4.04	-1.7*	4.04	3.96	3.98	4.02	4.05	4.07	0.9
비용	3.96	3.88	2**	4.11	3.97	3.92	3.79	3.92	3.98	3.6***(a)
건강관리	4.00	4.03	-0.9	4.08	4.04	3.95	4.00	4.05	4.05	1.4
급간식관리	4.01	4.04	-0.8	4.01	4.05	3.98	4.01	4.02	4.09	0.9
안전관리	4.09	4.09	-0.1	4.04	4.09	4.09	4.01	4.13	4.17	1.9*
교육내용	4.07	4.10	-1.0	4.01	4.07	4.08	4.06	4.15	4.12	0.8
생활지도	4.10	4.11	-0.3	4.06	4.11	4.09	4.06	4.11	4.17	0.9
부모참여 및 교육	3.88	3.94	-1.7*	3.85	3.88	3.88	3.92	3.90	4.00	1.1
전체 평균	4.02	4.04	-0.6	4.04	4.04	4.01	4.00	4.04	4.09	0.9
(수)	(998)	(755)		(117)	(386)	(495)	(335)	(204)	(216)	
2015년 조사	4.03	4.01	-0.7	4.09	4.00	4.05	4.03	4.05	4.04	0.9

주: 1)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5점 평균은 '매우 만족' 1점~'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하여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함.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3)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1$, *** $p < .001$.

지역규모에 따른 각 항목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읍면지역(4.9)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고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교직원, 주변환경, 비용, 급·간식관리, 안전관리, 부모참여 및 교육에서 지역규모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2015년 조사결과 대비 대도시를 제외하고 만족도가 약간 증가하였다.

한편 모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휴직중이거나 모의 부재 집단에서의 만족도도 높고 취업모의 만족도가 미취업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15년 조사결과와는 다른 결과로서 이전의 취업모의 낮은 만족도가 변화하

였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 만족도가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휴직중이거나 모의 부재 집단의 항목별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부모참여 및 교육 항목에서 취업모의 만족도가 가장 낮다는 점은 향후 개선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 표 VI-5-5 ■ 지역 및 모 취업여부별 어린이집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지역규모				모취업 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F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채등	F
교직원	4.16	4.25	4.24	3.3**(a)	4.25	4.31	4.16	4.43	3.4**
주변환경	3.90	3.96	4.03	3.1**(a)	3.98	4.05	3.89	4.50	4.1***
시설설비	3.97	4.02	4.07	2.1	4.03	4.21	3.95	4.42	5.4***
비용	3.95	3.85	4.06	7.7***(a)	3.98	3.90	3.87	4.16	2.7**(a)
건강관리	3.98	4.02	4.07	2	4.02	4.13	3.98	4.38	2.4*
급간식관리	3.98	4.04	4.08	2.6*	4.04	4.19	3.97	4.42	4.1***
안전관리	4.04	4.11	4.13	2.8*	4.12	4.21	4.03	4.32	3.7**(a)
교육내용	4.05	4.10	4.13	2.2(a)	4.10	4.22	4.04	4.42	4***(a)
생활지도	4.08	4.11	4.12	0.6(a)	4.11	4.29	4.06	4.42	5.5***(a)
부모참여 및 교육	3.82	3.95	3.97	6.9***(a)	3.93	4.06	3.84	4.19	4.1***
전체 평균	3.99	4.04	4.09	3.4**(a)	4.06	4.16	3.98	4.37	5.5***
(수)	(611)	(514)	(628)		(888)	(97)	(751)	(17)	
2015년 조사	4.02	4.02	4.03	-	3.98	4.08	4.04	-	-

주: 1)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5점 평균은 '매우 만족' 1점~'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하여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함.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정부가 지정하여 국공립 수준에 준하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는 2015년 결과와 유사하게 서울형보다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높았고 각 항목 전반에서 공공형의 만족도가 높았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는 공공형이 더 만족도가 높았으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는 공공형이나 서울형이 동일한 만족도를 보였다.

표 VI-5-6 어린이집 유형별(공공형, 서울형, 일반)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전체(민간+가정)			민간			가정		
	공공형	서울형	일반	공공형	서울형	일반	공공형	서울형	일반
교직원	4.28	4.22	4.16	4.28	4.17	4.14	4.30	4.34	4.19
주변환경	4.02	4.00	3.87	4.03	3.96	3.85	3.98	4.10	3.94
시설설비	4.10	4.00	3.94	4.09	3.97	3.97	4.18	4.08	3.87
비용	3.94	3.94	3.84	3.90	3.82	3.77	4.25	4.24	4.03
건강관리	4.05	3.99	3.96	4.02	3.85	3.96	4.27	4.33	3.95
급간식관리	4.13	3.97	3.95	4.10	3.82	3.95	4.37	4.33	3.97
안전관리	4.13	4.09	4.03	4.12	3.99	4.03	4.17	4.33	4.03
교육내용	4.18	4.07	4.02	4.15	4.03	4.04	4.36	4.16	3.96
생활지도	4.19	4.13	4.05	4.17	4.09	4.07	4.30	4.25	4.02
부모참여 및 교육	3.99	3.86	3.81	3.99	3.84	3.79	3.95	3.93	3.85
전체 평균	4.10	4.03	3.96	4.08	3.95	3.96	4.21	4.21	3.98
(수)	(191)	(42)	(555)	(172)	(30)	(419)	(19)	(12)	(136)
2015년 조사	4.14	4.11	3.96	4.16	4.00	3.92	4.03	4.56	4.07

주: 1)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어린이집 이용 사례 중 해당어린이집을 공공형, 서울형, 기타로 구분하여 분석함.

3) 5점 평균은 '매우 만족' 1점~'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하여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함.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나. 도움 받은 경험 및 정도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면서 도움을 받은 일이 있는 경우를 알아보았다. 전체 응답자 중 50.6%가 양육부담 완화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은 22.1%가 취업 및 구직, 자녀의 추가 출산 11.6%, 학업 및 취업 훈련 경험에 6.3%가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설립유형별로 살펴 보면, 취업 및 구직에는 법인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의 도움경험 비율이 높고 학업 및 취업훈련에 있어서는 공립과 가정어린이집의 도움을 받았다는 비율이 높다. 또한 양육부담 완화는 법인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으로부터 도움받았다는 응답이 특히 높았고, 자녀 추가출산의 경우는 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이 도움 경험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도움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도움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각 항목의 도움 비율이 거의 유사하여 92.1~92.6%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았을 때 직장어린이집이 각 항목에서의 도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어린이집도 도움이 되는 비율이 높았으나 양육부담 완화 항목

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2012년과 2015년 결과를 비교하면 도움 받은 비율(매우 도움됨+도움됨)은 모든 항목에서 상승하였다. 2018년 조사에서는 ‘도움 경험’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막연한 도움’이 아니라 그 도움 항목의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았는지를 판별하여 응답하도록 하여 도움 경험 비율은 비교적 높지 않았으나 도움들 받은 경험이 있는 사례는 도움 정도를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결과라 사료된다¹⁸⁾.

▮ 표 VI-5-7 ▮ 어린이집 유형별 도움 경험 및 도움 받은 비율 비교

단위: %(명)

구분	도움 경험 비율					(수)	도움 받은 비율				
	취업 및 구직	학업 및 취업 훈련	양육 부담 완화	자녀 추가 출산	기타		취업 및 구직	학업 및 취업 훈련	양육 부담 완화	자녀 추가 출산	
전체	22.1	6.3	50.6	11.6	-	(1,753)	92.2	92.1	92.6	92.3	
국공립	21.7	9.2	49.7	14.8	-	(417)	92.6	93.5	92.9	90.6	
법인	31.1	5.2	59.2	8.7	-	(90)	90.2	100.0	89.3	100.0	
법인·단체등	26.7	5.7	51.5	9.3	-	(96)	100.0	70.5	100.0	100.0	
민간	21.2	5.4	47.9	10.4	-	(874)	89.3	89.4	90.4	91.4	
가정	20.2	5.9	58.3	12.2	-	(221)	98.0	100.0	96.9	92.6	
직장	30.3	5.1	54.3	15.2	-	(55)	100.0	100.0	97.4	100.0	
2015년 조사	-	-	-	-	-	-	24.3	16.4	62.9	19.2	
2012년 조사	-	-	-	-	-	-	38.8	12.6	94.7	18.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도움 받은 비율은 도움받은 일 있음 응답자가 도움 정도를 ‘매우 도움됨’, ‘도움됨’에 응답한 비율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어린이집 이용이 도움이 되는지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후속 자녀출산 4.3점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모두 4.4점을 나타냈다. 이를 영유아 구분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영아와 유아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한편 양육 부담 완화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보였는데, 영아기에 양육부담 완화에 대한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규모별로는 학업 및 취업 훈련을 제외하고 세 영역에서 모두 지역에 다른 차이를 보였다. 취업 및 구직과 양육 부담 완화는 대도시에서, 후속자녀 출

18) 예를 들면 ‘후속자녀 출산’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어린이집 이용을 하면서 후속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답하도록 하였음

산은 중소도시에서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모 취업에 따른 차이를 보면 취업 및 구직에서 집단 간 차이가 보이는데, 취업 중이거나 휴직 중인 응답자들이 도움이 된다는 점수가 높았다.

가구소득에 있어서는 취업 및 구직과 학업 및 취업 훈련 등에서 소득에 따른 집단에 차이가 보였다. 취업 및 구직 항목에서는 소득이 높은 경우와 250~299만원, 350~399만원 구간 등에서 더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학업 및 취업 훈련 항목에서는 250~299만원, 500~599만원 소득자들이 더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용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비교에서는 취업 및 구직과 양육 부담완화 항목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 및 구직과 양육 부담 완화에 있어서는 직장어린이집의 도움 정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은 가정어린이집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2년과 2015년 조사와 일관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이용이 각 항목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정도가 더 높아지고 있으며 취업 및 구직과 양육부담 완화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I-5-8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이 도움이 되는 정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취업 및 구직	학업 및 취업 훈련	양육 부담 완화	후속자녀출산
전체(5점평균)	4.4	4.4	4.4	4.3
(수)	(372)	(97)	(840)	(196)
영유아구분				
영아	4.4	4.3	4.4	4.3
유아	4.4	4.4	4.3	4.3
t	0.7	-0.3	1.6	-0.7
보육연령				
0세	4.5	4.2	4.5	4.5
1세	4.5	4.5	4.4	4.3
2세	4.4	4.3	4.4	4.2
3세	4.4	4.5	4.4	4.4
4세	4.3	4.1	4.2	4.0
5세	4.5	4.6	4.4	4.4
F	1.4	1.4	2.2*	1.1
지역규모				
대도시	4.5	4.3	4.4	4.3
중소도시	4.4	4.4	4.4	4.4
읍면지역	4.2	4.1	4.1	4.1
F	6.9***(a)	0.7(a)	18.5***(a)	2.8*(a)

구분	취업 및 구직	학업 및 취업 훈련	양육 부담 완화	후속자녀출산
모취업 여부				
취업	4.5	4.5	4.4	4.3
휴직중	4.4	4.2	4.4	4.2
미취업	4.1	4.2	4.3	4.3
모부재 등	4.0	-	4.7	-
F	4.3*** ^(a)	1.3	0.8	0.4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4.3	4.3	4.4	4.7
200~249만원	3.9	4.0	4.2	4.1
250~299만원	4.5	4.8	4.3	4.4
300~349만원	4.4	4.2	4.3	4.4
350~399만원	4.5	3.8	4.3	4.1
400~499만원	4.4	4.5	4.4	4.3
500~599만원	4.3	4.8	4.4	4.3
600~699만원	4.5	4.5	4.4	4.3
700만원 이상	4.5	4.3	4.4	4.4
모름/무응답	-	-	4.5	-
F	2.0**	2.4**	1.0	0.9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4.4	4.5	4.4	4.4
법인	4.2	4.1	4.3	4.3
법인·단체등	4.6	4.2	4.4	4.3
민간	4.3	4.2	4.3	4.2
가정	4.6	4.6	4.6	4.3
직장	4.7	4.0	4.7	4.3
F	2.6**	1.2 ^(a)	6.5***	0.5
2015년 조사				
전체(5점평균)	4.30	4.14	4.29	4.07
(수)	(466)	(312)	(1,124)	(378)
2012년 조사				
전체(5점평균)	4.13	3.94	4.13	4.04
(수)	(568)	(212)	(1,459)	(304)

주: 1)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5점 평균은 '매우 도움됨' 1점~'전혀 도움 안됨' 5점으로 평정하여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5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한 결과임.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3) 2012년과 2015년에는 학업 및 취업 훈련은 취업 훈련으로, 후속 자녀출산은 추가출산으로 조사하였음

4)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1$, *** $p < .001$.

다. 개선 요구

어린이집의 개선사항에 대해 알아본 결과, 교육내용 다양화가 47.8%로 가장 많았고 인력의 질 제고가 37.4%, 인력 증원이 35.9%, 안전관리 강화 25.3% 순이었다. 설립유형별로 개선사항 요구는 유사한 응답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교육내용의 다양화, 인력의 질 제고, 인력 증원이 주요 개선 사항이었다.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은 유사하게 교육내용의 다양화와 인력 증원이 주요 개선사항이었으나 직장어린이집의 교육내용 다양화에 대한 요구는 훨씬 높은 70.6% 수준이었다.

표 VI-5-9 어린이집 유형별 개선 사항(1+2순위)

단위: %(명)

구분	국공립	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전체
인력 증원	39.5	34.3	25.5	36.5	32.2	35.7	35.9
인력의 질 제고	34.7	37.3	32.5	40.0	37.6	18.4	37.4
노후 시설 정비	18.8	14.0	20.8	15.6	17.9	3.0	16.4
내부 환경(인테리어 등) 개선	15.6	9.7	24.5	16.4	19.1	20.2	16.8
비용 절감	8.7	10.4	17.6	15.1	8.5	15.1	12.7
안전관리 강화	24.6	34.9	29.0	25.3	24.1	16.7	25.3
교육내용 다양화	54.4	45.9	48.1	44.0	47.1	70.6	47.8
모름/무응답	0.9	6.7	-	1.2	5.1	4.7	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17)	(90)	(96)	(874)	(221)	(55)	(1,753)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라.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양육수당 관련 의견

정부가 가정양육수당을 현행 보다 인상한다면 이 자녀의 기관 이용을 중단할 의향이 있는지와 가정양육을 할 경우 양육수당의 인상 금액을 질문하였다. 먼저 기관 이용 중단 의견을 알아보면 ‘기관에 계속 다님’으로 응답한 비율이 87.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만두고 다른 데 보냄’과 ‘그만두고 집에서 봄’이 각각 4.3%와 5.7%에 불과하였다. 구체적으로 0세의 경우, ‘그만두고 집에서 보겠다’는 응답 비율이 11.4%로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2015년 결과와 유사하며 ‘기관에 계속 다닌다’는 비율만 85.8%에서 87.8%로 증가하였다. 한편, 기관에 계속 다닌다고 응답한 비율은 보육연령 5

세에서 92.2%, 읍면지역 92.1%, 법인단체 어린이집 97.3%, 가구소득 500~599만원 수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편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할 시에는 기관 이용을 중단한다고 응답한 경우, 희망 인상액은 평균 28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보육연령 기준 2세에서 가장 높은 30만원 정도의 인상을 요구하였고, 1세와 3세의 인상 금액이 높았다. 지역 규모에서는 중소도시지역이, 어린이집 유형에서는 법인어린이집이, 가구소득에 있어서는 250만원대와 500만원대에서 평균 금액이상으로 요구하는 경향이 보였다.

▶ 표 VI-5-10 ▶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양육수당 관련 의견

단위: %(명), 만원

구분	양육수당 인상 시 기관 이용 중단 의견					가정양육 위한 인상 금액		
	계속다님	그만두고 다른데 보냄	그만두고 집에서 보	잘 모름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87.8	4.3	5.7	2.2	100.0(1,753)	28.0	17.9	(164)
보육연령								
0세	83.3	4.8	11.4	0.6	100.0(117)	27.5	16.7	(20)
1세	86.0	5.1	6.4	2.5	100.0(386)	28.5	14.9	(42)
2세	89.2	3.3	5.1	2.3	100.0(495)	30.4	21.6	(42)
3세	87.6	5.3	5.3	1.8	100.0(335)	29.8	22.5	(30)
4세	86.0	5.9	4.2	3.8	100.0(204)	22.6	11.7	(17)
5세	92.2	2.1	4.8	1.0	100.0(216)	24.1	10.1	(13)
지역규모								
대도시	88.6	5.6	4.7	1.2	100.0(611)	26.9	14.4	(62)
중소도시	85.2	4.3	7.5	3.0	100.0(514)	29.5	20.5	(62)
읍면지역	92.1	1.6	3.9	2.4	100.0(628)	25.1	17.5	(40)
어린이집유형								
국공립	85.4	5.1	7.1	2.4	100.0(417)	29.3	19.5	(40)
법인	94.4	1.7	3.0	1.0	100.0(90)	33.8	11.6	(6)
법인·단체등	97.3	1.2	1.0	0.5	100.0(96)	26.1	23.6	(4)
민간	88.3	5.0	5.0	1.7	100.0(874)	27.5	18.8	(85)
가정	84.1	2.8	8.7	4.4	100.0(221)	27.2	14.5	(25)
직장	92.7	2.9	3.7	0.8	100.0(55)	27.0	5.4	(4)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83.6	5.3	2.6	8.4	100.0(57)	15.2	4.8	(3)
200~249만원	86.0	4.5	7.9	1.6	100.0(123)	22.2	7.4	(16)
250~299만원	82.2	6.8	9.9	1.2	100.0(134)	33.2	22.9	(17)
300~349만원	88.0	3.6	4.2	4.2	100.0(253)	25.3	11.4	(20)
350~399만원	88.7	3.4	6.1	1.9	100.0(164)	27.3	9.8	(14)
400~499만원	84.9	7.3	6.2	1.6	100.0(359)	29.3	20.9	(46)
500~599만원	91.2	3.2	4.6	0.9	100.0(286)	30.8	24.2	(22)

구분	양육수당 인상 시 기관 이용 중단 의견					가정양육 위한 인상 금액		
	계속다님	그만두고 다른데 보냄	그만두고 집에서 보	잘 모름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수)
600~699만원	89.7	2.2	5.7	2.4	100.0(166)	26.1	12.4	(11)
700만원 이상	90.7	2.5	5.0	1.8	100.0(206)	27.1	13.9	(15)
모름/무응답	100.0	-	-	-	100.0(5)	-	-	-
2015년 조사	85.8	2.0	7.0	5.2	100.0(1,745)	21.9	13.8	(146)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가정양육을 위한 인상금액은 '그만두고 다른데 보냄' '그만두고 집에서 보겠음'에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6 취약보육

본 절에서는 시간연장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등 취약보육의 활용률, 이용 요일 및 시간대 등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긴급 상황시 자녀 돌봄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취약보육 이용

취약보육(시간연장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활용률은 매우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취약 보육 중에서 조금이나마 활용 빈도가 높은 형태는 시간연장보육으로, 전체 응답자의 4.5%만이 활용했다고 응답했으며, 활용했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월 1~2회 이용했다는 응답이 2.0%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 주 3일이상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했다는 응답은 1.2%였다.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한적 없다는 응답은 2015년에 비해 2.5%p가량 증가하였다.

24시간보육의 경우에도 2015년도보다 이용률이 매우 낮아져, 99.9%가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0.1%는 월 3~4회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휴일보육의 경우에는 24시간보육보다는 이용률이 약간 높지만, 이용한적 없다는 응답 비율이 99.0%에 달해 대다수의 경우에 휴일보육도 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일보육 이용자의 경우에도 월 1~2회 이용한다는 응답이 0.7%로 이용하는 경우에 최다 빈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2015년도 대비 취약보육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VI-6-1 | 취약보육의 이용 빈도(최근 6개월)

단위: %(명)

구분	없음	월1~2회	월3~4회	주1~2번	주3회 이상	계(수)
시간연장보육						
2018년 조사	95.5	2.0	0.4	0.9	1.2	100.0(1,753)
2015년 조사	93.0	3.2	0.7	1.1	2.0	100.0(1,745)
24시간보육						
2018년 조사	99.9	-	0.1	-	-	100.0(1,753)
2015년 조사	98.6	1.2	0.1	0.1	-	100.0(1,745)
휴일보육						
2018년 조사	99.0	0.7	0.1	0.1	0.1	100.0(1,753)
2015년 조사	97.8	1.5	0.4	0.2	0.1	100.0(1,745)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시간연장보육을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는 평일에는 공식적으로 시간 연장 보육이 시작되는 19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 1시간이었으며, 토요일의 경우에는 15시 42분부터 18시 24분까지 2시간 42분 정도였다. 이용 시간대는 영유아 여부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영아가 유아에 비해 약간 길게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평일 기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의 이용률이 5.8%로 다른 경우에 비해 높았으나, 이용 시간 자체는 휴직자에 비해 길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았고,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의 토요일 이용 시간이 약간 긴 편으로 조사되긴 했으나, 관측치가 5명에 불과하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표 VI-6-2 | 시간연장보육 주로 이용 하는 요일 및 시간대

단위: %(명), 시, 분

구분	평일				토요일								
	이용률	(수)	시작시간	종료시간	이용률	(수)	시작시간	종료시간	(수)				
			시	분	시	분	시	분					
전체	4.5	(1,753)	19	30	20	30	4.5	(1,753)	15	42	18	24	(73)
영유아구분													
영아	4.8	(998)	19	30	20	36	4.8	(998)	15	36	18	18	(44)
유아	4.0	(755)	19	30	20	18	4.0	(755)	15	54	18	36	(29)
지역규모													
대도시	6.0	(611)	19	30	20	42	6.0	(611)	15	48	18	24	(37)

구분	평일						토요일						
	이용률	(수)	시작시간		종료시간		이용률	(수)	시작시간		종료시간		(수)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중소도시	4.2	(514)	19	30	20	18	4.2	(514)	15	36	18	30	(21)
읍면지역	2.0	(628)	19	30	20	18	2.0	(628)	16	6	18	42	(15)
모취업 여부													
취업	5.8	(888)	19	30	20	24	5.8	(888)	15	48	18	24	(51)
휴직중	4.9	(97)	19	30	20	48	4.9	(97)	15	30	19	18	(3)
미취업	2.9	(751)	19	30	20	36	2.9	(751)	15	36	18	24	(18)
모부재 등	4.0	(17)	19	30	20	30	4.0	(17)	15	30	18	0	(1)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5.6	(417)	19	30	20	36	5.6	(417)	15	54	18	12	(23)
사회복지법인	7.2	(90)	19	30	20	36	7.2	(90)	15	54	19	6	(4)
법인·단체등	8.5	(96)	19	30	20	12	8.5	(96)	15	30	19	0	(5)
민간	2.6	(874)	19	30	20	36	2.6	(874)	15	42	18	24	(22)
가정	6.9	(221)	19	30	20	30	6.9	(221)	15	36	18	18	(15)
직장	7.9	(55)	19	30	20	18	7.9	(55)	15	48	18	48	(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한편, 시간연장보육이 필요한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필요 없다는 응답이 74.2%로 실제 활용률에 대비하여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24시간보육이 필요 없다는 응답은 95.2%, 휴일보육이 필요없다는 응답은 85.7%로 시간연장보육에 비해서는 낮은 필요도를 보였다.

시간연장보육이 필요없다는 응답은 0세의 경우에만 다른 연령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났으며, 0세와 2세 이하 영아의 경우에는 상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유아기 자녀의 경우에는 사교육 등 다른 서비스의 추가 이용이 가능한데 반해 영아 자녀의 경우에는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경우 동일한 기관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하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한편,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읍면 지역 거주자가 시간 연장 보육이 필요없다는 응답이 82.1%로 높았으며,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모가 미취업인 경우에 필요없다는 응답이 81.3%로 높았다.

24시간보육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낮은 가운데, 보육연령이나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큰 의견 차이를 보이지 않고,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만 휴직자인 경우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 등으로 어린 연령의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휴일보육의 경우에는 15%내외가 휴일보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한달에 1~2번 필요하다는 응답이 5.8%로 가장 높았고, 1년에 1~2번이 5.2%로 휴일보육 이용 빈도가 많지는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어린이집이 이러한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휴일보육을 운영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 표 VI-6-3 ▣ 제 특성별 취약보육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시간연장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상시 1~2번	1주일 에 1~2번	한달에 1~2번	1년에 필요 없음	계 (수)	상시 1~2번	1주일 에 1~2번	한달에 1~2번	1년에 필요 없음	계 (수)	상시 1~2번	1주일 에 1~2번	한달에 1~2번	1년에 필요 없음	계 (수)
전체	5.8	7.2	8.4	4.4	74.2 (1753)	0.7	0.6	0.8	2.7	95.2 (1753)	1.8	1.5	5.8	5.2	85.7 (1753)
보육연령															
0세	7.3	9.2	10.4	9.0	64.2 (117)	0.4	-	-	2.5	97.1 (117)	3.0	1.9	10.2	4.1	80.7 (117)
1세	5.9	7.5	9.4	2.9	74.3 (386)	0.9	0.5	1.0	2.1	95.5 (386)	1.9	1.7	6.9	4.7	84.8 (386)
2세	7.1	5.6	9.1	6.0	72.2 (495)	0.9	0.7	0.5	3.4	94.4 (495)	1.2	1.5	5.2	7.3	84.8 (495)
3세	4.1	6.4	8.3	3.8	77.3 (335)	-	0.5	0.6	2.6	96.4 (335)	2.1	1.4	4.2	3.2	89.1 (335)
4세	4.5	10.6	6.3	3.8	74.9 (204)	1.2	0.6	1.4	1.5	95.3 (204)	1.6	1.2	6.4	5.8	84.9 (204)
5세	5.9	7.2	6.1	2.4	78.4 (216)	0.4	0.9	1.4	3.5	93.8 (216)	1.8	1.5	4.8	4.5	87.4 (216)
$\chi^2(df)$	29.6(20)*					14.4(20)					18.9(20)				
지역규모															
대도시	5.6	5.6	9.8	5.0	74.1 (611)	0.8	0.7	1.0	2.8	94.7 (611)	1.2	1.1	4.9	6.5	86.3 (611)
중소도시	6.7	8.9	8.8	4.9	70.7 (514)	0.6	0.4	0.7	3.0	95.4 (514)	2.2	2.1	8.0	5.1	82.7 (514)
읍면지역	4.5	6.7	4.6	2.1	82.1 (628)	0.6	0.9	0.6	1.8	96.0 (628)	2.2	1.1	3.0	2.7	91.0 (628)
$\chi^2(df)$	23.1(8)***					3.5(8)					23.0(8)***				
모취업 여부															
취업	6.8	8.9	9.5	4.9	69.8 (888)	0.5	0.6	0.8	2.7	95.4 (888)	2.2	2.4	6.3	5.9	83.2 (888)
휴직중	9.8	14.9	11.8	4.0	59.4 (97)	2.6	2.5	-	6.2	88.6 (97)	3.8	2.3	6.2	8.6	79.1 (97)
미취업	4.0	4.1	6.7	3.9	81.3 (751)	0.6	0.3	1.0	2.2	95.9 (751)	1.0	0.4	5.3	4.0	89.4 (751)
모부재 등	16.6	4.9	-	-	78.6 (17)	-	-	-	4.2	95.8 (17)	-	-	-	4.2	95.8 (17)
$\chi^2(df)$	53.1(12)***					26.7(12)***					27.3(12)***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01$.



나. 긴급 상황 시 자녀 돌봄 기관 또는 인력

일상생활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은 부모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아, 긴급한 상황에서는 74.9%, 아이가 아플 때는 77.9%가 부모가 돌본다고 응답하였다. 부모 이외에는 혈연관계의 사람이 긴급상황시 23.2%, 아이가 아플 때 20.3% 돌본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외에 비혈연이나 시간제보육, 아이돌보미 등은 1%내외의 낮은 응답비중을 보였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에 사는 경우에 부모가 돌본다는 응답이 낮고, 혈연관계의 사람이 돌본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반면, 읍면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부모가 돌본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모가 취업 중인 경우 혈연관계의 사람이 돌본다는 응답이 긴급상황 발생시 35.3%, 아이가 아플 때 31.6%로 현격히 높은 비중을 보였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혈연관계의 사람이 돌본다는 응답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이는 맞벌이 가구의 가구소득이 홑벌이 가구의 가구소득에 비해 높은 것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결국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이가 아픈 경우에 타인보다는 부모 혹은 혈연관계의 사람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혈연관계의 사람이 돌본다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맞벌이 가구의 부모들은 긴급 상황이나 아이가 아플 때 생기는 돌봄 공백에 대해서 보다 심한 압박을 느끼게 됨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일가정 양립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한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조사에서는 부모가 돌본다는 응답이 80.6%, 혈연관계의 사람이 돌본다는 응답이 18.2%로, 2018년도에는 혈연관계의 사람이 돌본다는 응답 비중이 약간 증가한 경향이 있다. 하지만, 2012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서는 혈연관계의 사람이 돌보는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 표 VI-6-4 ▮ 긴급상황 시 주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나 시설

단위: %(명)

구분	긴급시						아이가 아플 때						계(수)
	부모	혈연	비혈연	시간제 보육	아이 돌보미	기타	부모	혈연	비혈연	시간제 보육	아이 돌보미	기타	
전체	74.9	23.2	1.0	0.3	0.5	0.2	77.9	20.3	0.4	1.1	0.1	0.1	100.0(1,753)
지역규모													
대도시	69.0	27.9	1.5	0.5	0.8	0.4	73.8	23.8	0.7	1.2	0.2	0.4	100.0(611)
중소도시	77.3	21.4	0.9	0.2	0.2	-	79.0	19.7	0.2	1.1	-	-	100.0(514)
읍면지역	81.7	17.1	0.1	0.2	0.7	0.1	84.0	14.6	0.1	0.9	0.3	-	100.0(628)
χ^2 (df)				30.3(10)***						23.1(10)**			
모취업 여부													
취업	62.1	35.3	1.5	0.2	0.9	-	66.4	31.6	0.7	1.1	0.1	-	100.0(888)
휴직중	71.7	26.1	1.0	1.1	-	-	69.9	27.2	-	2.8	-	-	100.0(97)
미취업	91.3	7.6	0.4	0.3	0.2	0.4	93.5	5.2	-	0.8	0.2	0.3	100.0(751)
모부재 등	7.4	88.6	4.0	-	-	-	11.6	84.5	4.0	-	-	-	100.0(17)
χ^2 (df)				218.1(15)***						219.8(15)***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73.5	26.5	-	-	-	-	78.5	21.5	-	-	-	-	100.0(57)
200~249만원	91.6	7.7	0.4	-	-	0.4	93.3	6.4	0.4	-	-	-	100.0(123)
250~299만원	85.3	11.5	1.0	-	0.3	1.9	88.9	8.3	-	0.6	0.3	1.9	100.0(134)
300~349만원	83.5	16.1	-	0.4	-	-	82.2	15.7	-	2.0	-	-	100.0(253)
350~399만원	86.1	13.2	-	0.7	-	-	90.3	7.0	-	2.7	-	-	100.0(164)
400~499만원	80.4	19.0	-	0.3	0.2	-	81.2	17.5	-	1.1	0.2	-	100.0(359)
500~599만원	64.5	33.3	1.2	-	0.9	-	71.8	28.2	-	-	-	-	100.0(286)
600~699만원	60.8	34.2	2.7	0.7	1.7	-	64.7	31.8	1.3	1.5	0.7	-	100.0(166)
700만원이상	58.7	36.6	3.4	0.3	1.0	-	63.1	34.2	1.8	1.0	-	-	100.0(206)
모름/무응답	100.0	-	-	-	-	-	100.0	-	-	-	-	-	100.0(5)
χ^2 (df)				169.4(45)***						163.0(45)***			
2015년 조사	80.6	18.2	0.5	0.4	0.3	0.1	83.0	14.9	0.8	1.1	0.2	-	100.0(1,745)
2012년 조사	61.3	33.4	2.8	-	-	0.8	77.4	20.2	1.3	-	-	-	100.0(1,536)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 $p < .001$.

7 시간제보육 이용 실태

시간제보육 이용 현황과 관련된 이용시간, 방문 관련 사항, 이용만족도 등의 특성은 이하와 같다.

가. 이용 실태

자녀가 6개월~36개월 미만인 경우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지를 질문한 결과에 서는 이용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6.4%로 대부분이었다.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 답한 경우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이 1.0%, 1년에 한두번 이용한다는 응답이 0.9%, 1주일에 2~3번과 한달에 1~2번이 0.7%, 1주일에 한번이 0.2%로 다양했다. 이 용할 때 평균 이용시간은 199.6분 즉 3시간 20분 정도였다. 다만, 시간제보육서 비스 이용자가 전체의 3.6%에 불과하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표 VI-7-1 시간제보육 이용주기 및 이용 건당 이용시간(최근 1년 이내)

단위: %(명), 분

매일	이용 주기					이용경험 없음	계(수)	이용 건당 이용시간		계(수)
	1주일에 2~3번	1주일에 1번	한달에 1~2번	1년에 1~2번	평균			표준 편차		
1.0	0.7	0.2	0.7	0.9	96.4	100.0(1,392)	199.6	191.7	100.0(4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아동조사대상이 생후 6~36개월 미만 영아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결과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시간제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방문시 교통수단은 도보가 43.4%, 자가용 41.0%, 대중교통 15.6% 순이었다. 시간제보육기관 방문시 교통수단은 지역규모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중소도시의 경우 자가용으로 방문한다는 응 답이 58.6%로 높은 반면, 대도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37.7%로 차이 를 보였다. 이때 응답자 수가 많지 않으므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도 시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대중교통망이 보다 편리하게 구축되어 있고 시간제 보육기관이 대중교통으로 이용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 여진다.

시간제보육기관 방문 시 교통수단별 소요시간은 평균 도보로 8.3분, 자가용으

로 14.6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23.9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 보다 시간이 많이 걸림을 알 수 있었다. 교통수단별 소요 시간은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중소도시의 경우에 자가용으로 방문 시 소요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보건대, 시간제보육기관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최대 30분 이내에 근접한 곳에 위치해야 이용이 가능함으로 유추해볼 수 있으며, 시간제보육기관의 이용률이 이러한 근접성의 문제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 표 VI-7-2 ▮ 시간제보육기관 방문시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단위: %(명), 분

구분	방문시 교통수단					방문시 교통수단별 소요시간(분)								
	도보	대중 교통	자가용	기타	계(수)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43.4	15.6	41.0	-	100.0(43)	8.3	4.4	(18)	23.9	17.0	(7)	14.6	12.5	(18)
지역규모														
대도시	47.3	37.7	15.0	-	100.0(17)	9.8	4.9	(8)	23.6	17.4	(6)	21.0	17.8	(3)
중소도시	41.4	-	58.6	-	100.0(20)	7.1	3.9	(8)	-	-	-	12.4	8.7	(12)
읍면지역	36.6	12.9	50.5	-	100.0(6)	7.5	13.5	(2)	30.0	-	(1)	25.8	43.4	(3)
χ^2 (df)/F			15.9(4)***			0.9			0.0			1.2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관은 어린이집이 57.8%, 육아종합지원센터가 42.2%로, 2015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86.1%로 매우 높았던 것에 비해 2018년도에는 어린이집을 통해 제공받았다는 응답이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비해 부모들 입장에서 보다 근접성이 높은 어린이집 이용을 선호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5점 기준 평균 3.7점으로 2015년 3.85점에 비해 약간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만족한다(매우만족+만족) 비중도 2018년에는 68.7%로 2015년에 비해 약간 낮았다.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자녀 양육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5점 만점에 4.0점으로 만족도에 비해서는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2015년에 비해 이 수치도 약간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만족도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결과로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이 포함되므로, 이를 통해 서비스의 객관적 질이나 수준이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자녀의 생활연령에 따라서는 특히 0세아 부모들의 만족도와 도움정도가 낮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족도와 자녀 양육에 도움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0세아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분리 불안 등을 보다 심하게 표현하거나 부모가 0세아를 기관에 단시간 맡기는 것에서 오는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자가 워낙에 적은데다가 특히 0세아 응답자는 6명밖에 되지 않아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표 VI-7-3 시간제보육 이용 기관 및 만족도, 도움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서비스 제공기관			만족도				자녀양육 도움 정도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기타	만족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수)	도움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57.8	42.2	-	68.7	3.7	1.0	(43)	77.5	4.0	1.0	(43)
생활연령											
0세	35.9	64.1	-	34.4	2.6	1.4	(6)	42.2	2.8	1.7	(6)
1세	61.8	38.2	-	69.3	3.9	0.7	(17)	70.3	4.0	0.9	(17)
2세	65.3	34.7	-	80.4	4.0	0.8	(18)	91.7	4.3	0.6	(18)
3세	-	100.0	-	36.9	3.4	0.7	(2)	100.0	4.0	-	(2)
χ^2 (df)/F		5.0(3)			4.5***(a)				4.4***(a)		
2015년 조사	13.9	86.1	-	71.4	3.85	0.66	(9)	84.2	4.06	0.64	(9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만족도와 도움정도 평균은 '매우만족(매우 도움 됨)' 1점 ~ '매우 불만족(전혀 도움되지 않음)' 5점으로 평정하여 '매우 불만족(전혀 도움되지 않음)' 1점, '매우 만족(매우 도움 됨)' 5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한 결과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와 자녀양육 도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8 영유아 가구의 취학 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의사

본 절에서는 영유아의 취학 전까지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계획과 그 중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이유, 그리고 연령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의사에 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향후 기관 이용 계획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보육·교육기관 이용의사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보내겠다는 응답이 34.7%로 가장 많고, 유치원에만 보내겠다는 응답이 32.7%, 어린이집만 보내겠다는 응답이 31.0% 순이었다. 영아의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모두 보내겠다는 응답이 65.0%에 달했는데 반해 유아의 경우에는 유치원에만 보내겠다는 응답이 56.8%로 높았다. 한편, 유아의 경우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지 않겠다는 응답이 2.7%로 영아(0.3%)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는데, 이는 현재 반일제 학원 등을 이용하는 유아의 경우 향후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의사가 없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보육연령에 따라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0세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보내겠다는 응답이 73.6%로 매우 높는데 반해 그 비중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점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반면,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치원에만 보내겠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포착되는데, 단, 5세아의 경우에는 어린이집만 보내겠다는 응답이 43.8%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5세아의 경우 현재 다니는 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다가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현재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초등 취학전까지 어린이집만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0.5%,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39.8%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유아와 향후 영아기에는 어린이집을 유아기에는 유치원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현재 영아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어린이집만 보내겠다는 응답 비중이 26.9%로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의 경우에 어린이집만 보내겠다는 응답이 34.0%로 미취업모(29.3%)에 비해 높았으며, 유치원만 보내겠다는 응답도 36.4%로 미취업모(31.7%)에 비해 높았다. 즉, 미취업모의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모두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37.9%로 취업모(27.5%)에 비해 높았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을 이용하려는 경향성이 뚜렷하게 포착되었다. 이는 유치원의 경우 수업료 등 부모 부담금이 많아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경우 비용 부담으로 인한 현상으로 추측된다. 다만,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영유아 가구 부모가 스스로 유치원 이용을 꺼려하게 된 것인지 혹은 유치원을 이용하고 싶음에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는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표 VI-8-1 ▣ 초등학교 전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의사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만 보냄	유치원에만 보냄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안보냄	계(수)	
전체	31.0	32.7	34.7	1.5	100.0	(3,759)
영유아구분						
영아	27.0	7.7	65.0	0.3	100.0	(1,896)
유아	34.9	56.8	5.6	2.7	100.0	(1,863)
보육연령						
0세	23.9	2.6	73.6	-	100.0	(798)
1세	27.1	3.0	69.6	0.2	100.0	(533)
2세	30.9	18.7	49.6	0.8	100.0	(565)
3세	29.5	49.7	17.0	3.8	100.0	(649)
4세	29.6	67.7	-	2.7	100.0	(549)
5세	43.8	54.6	-	1.6	100.0	(665)
현재이용기관						
어린이집	40.5	19.4	39.8	0.3	100.0	(1,747)
유치원	20.6	77.0	1.7	0.8	100.0	(1,009)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영어학원 등)	35.1	27.5	2.4	35.0	100.0	(64)
반일제 이상 기관 미이용	24.1	9.0	66.0	0.9	100.0	(939)
지역규모						
대도시	26.9	33.3	38.3	1.5	100.0	(1,352)
중소도시	33.3	33.4	31.5	1.8	100.0	(1,140)
읍면지역	35.4	30.0	33.8	0.9	100.0	(1,267)
모취업 여부						
취업	34.0	36.4	27.5	2.1	100.0	(1,581)
휴직중	25.1	17.0	56.9	1.0	100.0	(268)
미취업	29.3	31.7	37.9	1.1	100.0	(1,873)
모부재 등	41.5	47.3	11.2	-	100.0	(37)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41.1	31.2	27.7	-	100.0	(141)
200~249만원	38.5	19.7	40.8	1.0	100.0	(243)
250~299만원	30.9	32.0	37.1	-	100.0	(299)

구분	어린이집만 보냄	유치원에만 보냄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안보냄	계(수)
300~349만원	31.7	26.8	39.6	1.9	100.0 (589)
350~399만원	33.0	28.8	38.1	0.1	100.0 (361)
400~499만원	28.9	33.0	37.6	0.6	100.0 (723)
500~599만원	30.6	35.9	31.8	1.6	100.0 (600)
600~699만원	31.0	39.9	27.8	1.3	100.0 (326)
700만원이상	26.7	39.3	29.1	4.9	100.0 (463)
모름/무응답	41.8	44.7	13.5	-	100.0 (14)
2015년 조사	21.5	27.8	47.1	0.5	100.0 (3,560)
2012년 조사	20.2	27.5	48.5	3.7	100.0 (3,343)
2009년 조사	25.7	27.9	43.9	2.5	100.0 (3,30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15년 기타 0.5%, 잘모르겠음 2.6%가 있었으며, 2012년에는 잘 모르겠음이 0.1% 응답되었음.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희망 이유

영유아 부모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이유는 신뢰가 가서라는 응답이 53.5%, 비용이 저렴해서 27.3%, 교사가 우수해서 10.6% 순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2015년도 보육실태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경향성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보다 신뢰할만한 기관이라는 점에는 다수의 영유아 부모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영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희망 이유가 신뢰가 가서라는 응답이 60.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유아의 경우에는 교사가 우수해서라는 응답이 29.0%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특이한 점은 보육연령별로 5세 이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경우에 교사가 우수해서라는 응답이 52.2%로 매우 높다는 점이다. 5세아는 현재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사의 질에 대한 평가가 매우 높음을 엿볼 수 있었다. 단, 5세 이외의 다른 연령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뢰가 가서라는 응답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비용이 저렴해서라는 응답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에 사는 경우에 신뢰가 가서라는 응답(58.4%)가 상대적으로 높고,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저렴해서라는 응답(30.0%)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모가 휴직 중인 경우에 신뢰가 가서라는 응답이 67.2%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이는데, 이는 모가 휴직 중인 경우 영아 자녀의 비중이 높은 것과 연관되어 있다.

▣ 표 VI-8-2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희망 이유

단위: %(명)

구분	비용이 저렴해서	신뢰가 가서	집에서 가까워서	교사가 우수해서	보육내용이 좋아서	계(수)
전체	27.3	53.5	3.2	10.6	5.4	100.0(1,337)
영유아구분						
영아	27.1	60.7	3.5	2.6	6.1	100.0(947)
유아	27.8	37.1	2.5	29.0	3.7	100.0(390)
χ^2 (df)			212.4(4)***			
보육연령						
0세	25.9	64.0	2.4	3.1	4.6	100.0(500)
1세	28.4	60.6	2.6	2.8	5.6	100.0(237)
2세	28.3	53.4	7.1	0.9	10.2	100.0(210)
3세	32.9	49.4	3.1	6.9	7.7	100.0(136)
4세	38.6	41.2	7.7	6.1	6.4	100.0(81)
5세	20.1	27.7	-	52.2	-	100.0(173)
χ^2 (df)			464.8(20)***			
지역규모						
대도시	25.9	58.4	2.9	9.3	3.5	100.0(513)
중소도시	30.0	47.8	3.1	11.9	7.3	100.0(349)
읍면지역	25.6	52.6	4.3	11.2	6.3	100.0(475)
χ^2 (df)			17.2(8)**			
모취업 여부						
취업	24.6	51.9	4.9	13.8	4.8	100.0(481)
휴직중	21.9	67.2	2.4	5.1	3.3	100.0(134)
미취업	30.1	52.2	2.2	9.2	6.2	100.0(713)
모부재 등	24.4	33.2	5.5	36.9	-	100.0(9)
χ^2 (df)			34.6(12)***			
2015년 조사	26.6	52.9	6.0	5.9	7.6	100.0(1,091)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3) 2015년 보육실태조사와 질문 방식이 다르므로, 주의를 요함.
 4) 2015년 보육실태조사에는 기타 0.8, 모름/무응답 0.3이 있으나,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5)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 $p < .001$.

공립 유치원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신뢰가 가서라는 응답이 55.3%로 가장 높았고, 비용이 저렴해서 25.1%, 교사가 우수해서 9.7% 순이었다. 영아 자녀가 유아 자녀에 비해 보육연령이 어릴수록 신뢰가 가서 공립 유치원을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아지는 특성이 발견되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희망 이유와 동일한 경향으로 5세의 경우에는 교사가 우수해서라는 응답이 43.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휴직자의 경우에 신뢰가 가서라는 응답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즉,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립 유치원 이용 희망 이유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대체로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 표 VI-8-3 ▣ 공립유치원 이용 희망 이유

단위: %(명)

구분	비용이 저렴해서	신뢰가 가서	집에서 가까워서	교사가 우수해서	교육내용이 좋아서	기타	계(수)
전체	25.1	55.3	2.6	9.7	6.7	0.7	100.0(1,763)
영유아구분							
영아	26.6	60.6	3.4	2.0	6.7	0.6	100.0(1,020)
유아	23.0	48.0	1.4	20.2	6.6	0.8	100.0(743)
χ^2 (df)			160.6(5)***				
보육연령							
0세	25.0	64.8	2.9	1.3	5.4	0.5	100.0(458)
1세	30.1	57.3	2.1	2.1	7.9	0.4	100.0(282)
2세	25.5	57.5	5.5	3.0	7.6	0.9	100.0(280)
3세	30.7	49.9	3.1	2.3	12.2	1.8	100.0(247)
4세	39.3	44.7	1.6	2.3	11.3	0.8	100.0(193)
5세	8.1	48.6	-	43.2	-	-	100.0(303)
χ^2 (df)			580.0(25)***				
모취업 여부							
취업	22.1	56.5	3.3	10.0	7.1	1.1	100.0(689)
휴직중	18.0	64.6	0.9	7.4	6.9	2.3	100.0(135)
미취업	28.5	53.0	2.3	9.6	6.5	0.1	100.0(925)
모부재 등	9.1	58.6	7.9	24.4	-	-	100.0(14)
χ^2 (df)			34.6(15)***				
2015년 조사	31.0	49.4	6.6	3.6	8.2	1.1	100.0(1,587)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공립유치원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3) 2015년 보육실태조사와 질문 방식이 다르므로, 주의를 요함.

4)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다. 연령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의사

연령별로 향후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비중은 생활연령 기준 2세까지는 90% 이상이 이용을 희망한 반면, 4세와 5세의 경우에는 낮은 이용의향을 밝혔다. 0세를 기준으로 2019년도에는 98.4%가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이 3세가 되는 2021년까지 98.2%의 높은 이용 의향을 보였다. 이후 이들이 4세가 되는 2022년에는 이용 희망이 84.4% 감소하고, 5세때인 2023년에는 44.0%, 6세 때인 2024년에는 20.1%만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전반적으로 영아기에 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선호를 보이다가, 아이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차츰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 2019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3세 이하 아이들의 대다수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고, 이 연령대의 아이들은 유치원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전년도 출생아의 대다수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 표 VI-8-4 ▣ 연령별 어린이집 수요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출생년도						
전체	65.6	67.5	60.1	48.3	32.3	20.1
2018년생 (0세)	98.4	98.4	98.2	84.4	44.0	20.1
2017년생 (1세)	95.8	95.8	85.1	53.7	26.3	-
2016년생 (2세)	95.9	84.1	51.2	27.1	-	-
2015년생 (3세)	80.6	55.7	30.7	-	-	-
2014년생 (4세)	46.4	29.7	-	-	-	-
2013년생 (5세)	37.6	-	-	-	-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전체 응답 대상 기준으로 질문한 결과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한편, 유치원 이용 희망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은 이용 희망을 보였다. 0세아의 경우에는 6세가 되는 2024년에 78.7%가 유치원 이용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5세아의 경우에는 2019년도에 60.3%가 유치원 이용을 희망하였다. 즉, 장기적으로 유치원 희망자는 더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현재 이용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선호에 따른 수요가 그대로 반영되는데 반해, 현재 5세아 중에는 이미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다른 기관으로의 변경 없이 동일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 표 VI-8-5 ■ 연령별 유치원 수요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출생년도						
전체	32.8	30.8	38.9	50.8	67.2	78.7
2018년생 (0세)	1.3	1.3	1.8	14.8	55.2	78.7
2017년생 (1세)	4.2	4.2	14.9	46.3	73.2	-
2016년생 (2세)	3.3	14.3	47.0	71.1	-	-
2015년생 (3세)	18.6	42.9	67.9	-	-	-
2014년생 (4세)	49.8	66.3	-	-	-	-
2013년생 (5세)	60.3	-	-	-	-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전체 응답 대상 기준으로 질문한 결과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이용 현황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성이 보다 쉽게 발견되는데, 아래 <VI-8-6>에서 보는 바와 같이 0세아의 경우에는 생활연령기준 5세가 되는 2023년에 어린이집 이용 의향이 44.0%로 급감한 반면, 유치원 이용 희망은 55.2%로 급증함을 알 수 있다.

■ 표 VI-8-6 ■ 2018년생(0세아) 향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수요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이용희망 기관	어린이집	98.4	98.4	98.2	84.4	44.0	20.1
	유치원	1.3	1.3	1.8	14.8	55.2	78.7
	반일제학원	0.3	0.3	-	0.8	0.8	1.1
(수)	(271)	(271)	(271)	(271)	(271)	(27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전체 응답 대상 기준으로 질문한 결과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1세아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수요에서도 생활연령기준 5세가 되는 2022년에 어린이집 이용 의향이 53.7%로 급감한 반면, 유치원 이용 희망은 46.3%로 급증하는 현상이 유지된다. 다만, 5세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0세아에 비해 1세아의 어린이집 이용 의향이 약간 높은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표 VI-8-7 | 2017년생(1세아) 향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수요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이용희망 기관	어린이집	95.8	95.8	85.1	53.7	26.3
	유치원	4.2	4.2	14.9	46.3	73.2
	반일제학원	-	-	-	-	0.4
(수)		(532)	(532)	(532)	(532)	(53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전체 응답 대상 기준으로 질문한 결과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현재 2세아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의향도 1세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생활연령기준 5세가 되는 2021년에 51.2%가 어린이집을, 47.0%가 유치원을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표 VI-8-8 | 2016년생(2세아) 향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수요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이용희망 기관	어린이집	95.9	84.1	51.2	27.1
	유치원	3.3	14.3	47.0	71.1
	반일제학원	0.8	1.6	1.8	1.7
(수)		(540)	(540)	(540)	(54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전체 응답 대상 기준으로 질문한 결과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반면, 현재 생활연령 3세인 영아의 경우 2019년도에도 80.6%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생활연령 기준 5세가 되는 2020년은 55.7%만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고, 2021년에는 67.9%가 유치원을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세아의 경우에는 유치원 희망 비율이 5세 때인 2019년도에는 49.8%, 2020년에는 66.3%였으며, 5세아는 6세가 되는 2019년에 60.3%가 유치원 이용을 희망했다.

즉, 모든 연령에서 취학 전 2년 전부터는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에 보내고자 하는 의향이 강해지는데, 취학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연령대의 아이들일수록 취학 전 2년간 유치원 이용 희망이 더욱 강한 경향성을 보였다. 즉, 다른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학부모들의 요구에만 맞추어 보육·교육서비스를 공급

하려고 한다면, 취학 전 2년(생활연령기준 5세와 6세) 동안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치원 공급을 현재보다 크게 증가시켜야 하며, 어린이집은 4세 이하의 영유아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 수급 균형상에서 적합한 방식이라 볼 수 있다.

▮ 표 VI-8-9 ▮ 2013년생-2015년생(3-5세아) 향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수요

단위: %(명)

구분	2015년생(3세아)			2014년생(4세아)		2013년생(5세아)	
	2019	2020	2021	2019	2020	2019	
이용희망 기관	어린이집	80.6	55.7	30.7	46.4	29.7	37.6
	유치원	18.6	42.9	67.9	49.8	66.3	60.3
	반일제학원	0.8	1.4	1.4	3.8	4.0	2.1
(수)	(568)	(568)	(568)	(650)	(650)	(1,21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전체 응답 대상 기준으로 질문한 결과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이하에서는 출생년도별로 연령별로 지금까지의 기관 이용 현황과 이용 의향을 하나의 표로 제시한 것이다. 아래 표에서 음영 표시된 부분은 해당 아동이 아직 그 연령에 도달하지 않아서 향후 의향에 해당하며, 백색 부분은 지금까지 아동이 이용한 경험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먼저 어린이집 이용 현황과 향후 이용 계획을 살펴보면, 2018년에 6세로 이미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이용이 종료된 2012년생의 경우에 어린이집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0세에는 3.3%, 1세 때는 10.0%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3세와 4세 때 70.9%로 정점을 기록한 후, 5세때 45.5%, 6세때 26.9%가 어린이집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기할만한 점이라면 모든 출생년도에서 1세 때의 이용 경험과 의향을 살펴보면, 실제 1세때 기관을 이용한 경험은 2016년생이 13.2%로 가장 높았는데, 2018년생의 1세때 이용 희망을 질문한 결과에서는 98.4%가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해당 설문 문항이 기관을 이용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설문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¹⁹⁾, 기관을 선택한 결과에 기인한 바일 수도 있으나, 실제 이용률과 이용 희망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향은 자녀 연령이 3세가 되는 시기까지 발견되는 현상이었다. 실제

19) 영아기에는 기관 보육보다 가정 양육을 희망하는 비중이 높는데, 이러한 수요가 모두 어린이집 이용 희망으로 잡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함.

3세때는 어린이집 이용 비중이 60~70%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이용희망과의 간극이 좁혀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20%p 이상의 간극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반면, 4세 이상의 유아기 때의 어린이집 이용 현황 및 계획을 살펴보면, 5세를 기준으로 이미 기관 이용이 종료된 2012년생과 2013년생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각각 45.5%와 32.2%였다. 2013년생 이후 출생한 아이들의 6세가 될 때의 이용 희망을 살펴보면, 2012년생의 이용률에 비해서는 약간 높거나 낮은 정도의 수준을 보였다. 다만, 아직 6세까지 1년밖에 남지 않은 2013년생의 어린이집 이용 희망이 37.6%인데 반해, 6세까지 가장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2018년생의 경우에는 20.1%만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해서 대조를 보였다.

표 VI-8-10 출생연도별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현황 및 계획

단위: %

구분	생활연령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2012년생	3.3	10.0	39.3	70.9	70.9	45.5	26.9
2013년생	3.4	10.0	44.6	67.1	67.1	32.2	37.6
2014년생	2.2	7.0	48.1	58.5	58.5	46.4	29.7
2015년생	2.4	9.2	53.1	63.4	80.6	55.7	30.7
2016년생	3.6	13.2	38.2	95.9	84.1	51.2	27.1
2017년생	3.3	11.2	95.8	95.8	85.1	53.7	26.3
2018년생	-	98.4	98.4	98.2	84.4	44.0	20.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백지에 적힌 부분은 기존에 이용 경험(현황)이며, 음영 처리된 부분은 향후 계획을 의미함.

3) 전체 응답 대상 기준으로 절묘한 결과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반면, 어린이집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유아기 아동에게 있어 대체재적 성격을 지니는 유치원 이용 희망을 출생연도별로 살펴보면, 아동이 6세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출생 코호트, 즉 6세까지 시간이 아직 남아 있을수록 유치원 이용 희망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이 뚜렷이 관측되었다. 2012년생의 경우 6세때 응답자의 49.6%가 유치원을 이용했다고 응답한 반면, 2018년생들은 아이가 6세가 되면 유치원을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중이 78.7%에 달했다. 즉, 자녀가 취학에 가까워질수록 영유아 부모들의 유치원에 대한 선호가 높아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I-8-11 출생연도별 연령별 유치원 이용 현황 및 계획

단위: %

구분	생활연령		
	4세	5세	6세
2012년생	17.1	43.4	49.6
2013년생	21.7	34.1	60.3
2014년생	10.5	49.8	66.3
2015년생	18.6	42.9	67.9
2016년생	14.3	47.0	71.1
2017년생	14.9	46.3	73.2
2018년생	14.8	55.2	78.7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백지에 적힌 부분은 기존에 이용 경험(현황)이며, 음영 처리된 부분은 향후 계획을 의미함.

3) 전체 응답 대상 기준으로 질문한 결과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9 어린이집 입소 대기 경험

어린이집 입소 대기 현황, 입소 대기 관리시스템과 관련된 만족도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이하와 같다.

가. 입소 대기 실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 대기 신청을 했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3.5%로, 대기 기간은 5~10개월미만이 22.3%로 가장 많았고, 1개월 17.6%, 10~15개월미만 15.3%, 3개월 14.2%, 2개월과 15개월 이상이 13.1% 순이었다. 평균 입소 대기 기간은 7.6개월로 2015년도에 비해 0.6개월(약 18일)정도 길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영유아 여부별로는 영아에 비해 유아들의 대기 경험이 약간 더 많고, 대기 기간도 약간 더 길었다. 연령별로는 2세들의 대기 경험 비중이 가장 많아서 43.4%가 대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3세 37.7%, 5세 34.9% 순이었다. 대기기간은 영유아 연령이 증가할수록 길어지는 경향성을 보이며, 5세 이상의 경우 8.7개월, 4세는 8.2개월 등이었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대기 경험 비율이 40.6%로 매우 높고,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5.4%만이 대기한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평균 대기 기간도 대도시 거주자는 9.2개월, 읍면지역 거주자는 4.3개월로 큰 차이를 보였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미취업모의 경우가 취업모 혹은 휴직자 등에 비해 대기 경험 비중이 낮았지만, 대기 기간 자체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모가 휴직 중인 경우 평균 대기 기간은 8.1개월인데 반해 미취업모는 7.3개월로 약간 짧긴 했으나, 이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2012년도와 2015년 대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기 경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대기 기간도 약간씩 길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평균 대기 기간은 6.4개월이었으나, 2015년 7개월, 2018년 7.6개월로 길어졌다. 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 표 VI-9-1 ▣ 입소 전 대기 경험 및 대기 기간

단위: %(명), 개월

구분	대기경험		대기 기간							계(수)	평균
	있다	(수)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10 개월 미만	10~15 개월 미만	15 개월 이상		
전체	33.5	(3,775)	17.6	13.1	14.2	4.4	22.3	15.3	13.1	100.0(1,123)	7.6
영유아구분											
영아	31.8	(1,911)	18.7	11.7	13.5	4.6	25.1	15.1	11.2	100.0(527)	6.8
유아	35.2	(1,864)	16.6	14.2	14.8	4.2	19.9	15.5	14.7	100.0(596)	8.2
χ^2 (df)/t	5.0(1)**										-3.1***
보육연령											
0세	21.0	(803)	21.6	12.7	7.9	4.5	29.4	14.2	9.7	100.0(142)	6.1
1세	34.2	(540)	19.0	12.5	15.4	7.7	21.5	12.0	11.9	100.0(165)	6.7
2세	43.4	(568)	16.7	10.5	15.6	2.4	25.2	17.9	11.7	100.0(220)	7.3
3세	37.7	(650)	17.0	16.0	17.9	2.6	17.5	15.2	13.8	100.0(222)	7.7
4세	32.7	(549)	18.0	13.0	11.3	4.5	22.9	12.4	17.9	100.0(160)	8.2
5세	34.9	(665)	15.3	13.5	14.4	5.7	19.8	18.1	13.2	100.0(214)	8.7
χ^2 (df)/F	83.7(5)***										2.5**(a)
지역규모											
대도시	40.6	(1,362)	13.5	12.2	12.5	4.6	21.5	17.6	18.1	100.0(547)	9.2
중소도시	33.9	(1,146)	20.5	13.4	15.7	3.8	23.7	14.0	8.9	100.0(381)	6.2
읍면지역	15.4	(1,267)	28.6	16.5	17.5	6.8	19.7	7.3	3.7	100.0(195)	4.3
χ^2 (df)/F	130.0(2)***										25.6***(a)

구분	대기경험		대기 기간							계(수)	평균
	있다	(수)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10 개월 미만	10~15 개월 미만	15 개월 이상		
모취업 여부											
취업	37.5	(1,588)	16.7	13.9	13.4	4.2	23.2	16.0	12.6	100.0(521)	7.6
휴직중	38.7	(270)	12.3	5.1	13.2	7.9	36.8	7.5	17.2	100.0(92)	8.1
미취업	29.8	(1,880)	19.6	13.6	15.0	4.0	18.8	16.1	12.9	100.0(507)	7.3
모부재 등	7.5	(37)	-	-	80.7	-	-	-	19.3	100.0(3)	8.8
χ^2 (df)/F	35.2(3)***										0.3
2015년 조사	27.7	(3,560)	23.0	12.7	13.2	4.4	22.6	12.5	11.5	100.0(820)	7.0
2012년 조사	22.6	(3,343)	20.8	15.3	11.2	7.0	22.2	14.9	8.7	100.0(713)	6.4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 $p < .001$.

어린이집 입소대기 경험자의 입소대기 방식은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통한 경우가 85.4%로 대부분이지만, 수기 방식으로 신청했다는 경우도 14.6% 있었다. 영유아 구분에 따라서는 영아가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으로 대기했다는 응답이 87.1%로 약간 더 높았으며, 2세를 제외하고는 보육연령이 낮을수록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었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의 경우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기했다는 응답이 60.0%로 중소도시(84.8%)나 대도시(89.5%)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휴직 중인 경우에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

입소대기 신청 기관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43.9%, 민간 어린이집 25.1%, 가정 어린이집 13.2%, 사립유치원 6.9%, 공립 유치원 4.6% 순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소 대기한 경험은 영유아 구분이거나, 보육연령, 모 취업여부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지역규모에 따라 대도시의 거주자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3.1%로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VI-9-2 어린이집 입소대기 경험자의 입소 대기 신청방식, 대기 신청 기관

단위: %(명)

구분	대기방식(어린이집 입소대기 경험자)			대기 신청 기관(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대기 경험자)									
	수기	관리 시스템	(수)	국공립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계(수)	
전체	14.6	85.4	(1,002)	43.9	2.1	2.4	25.1	13.2	-	1.8	4.6	6.9	100.0(1,131)
영유아구분													
영아	12.9	87.1	(524)	43.3	2.2	2.7	30.0	17.4	-	2.3	1.4	0.6	100.0(533)
유아	16.5	83.5	(478)	44.3	2.0	2.2	20.8	9.5	-	1.4	7.4	12.3	100.0(598)
$\chi^2(df)/t$		3.0(1)*											
보육연령													
0세	9.6	90.4	(142)	45.2	0.7	1.4	29.4	18.6	-	3.2	0.8	0.7	100.0(144)
1세	10.3	89.7	(164)	44.2	1.9	3.8	23.3	21.1	-	3.2	1.8	0.7	100.0(167)
2세	16.8	83.2	(218)	41.5	3.3	2.6	35.3	14.0	-	1.1	1.6	0.5	100.0(222)
3세	11.5	88.5	(186)	45.1	2.3	2.6	25.2	8.4	-	1.1	5.3	10.0	100.0(223)
4세	15.7	84.3	(138)	47.8	2.2	2.8	20.9	10.0	-	2.4	7.9	6.0	100.0(161)
5세 이상	22.6	77.4	(154)	41.0	1.7	1.4	16.5	10.3	-	1.0	8.9	19.2	100.0(214)
$\chi^2(df)/F$		17.4(5)***											
지역규모													
대도시	10.5	89.5	(500)	53.1	1.0	1.6	22.4	11.7	-	1.9	2.3	5.9	100.0(54)
중소도시	15.2	84.8	(334)	34.2	3.1	2.1	28.5	16.2	-	1.3	6.8	7.7	100.0(386)
읍면지역	40.0	60.0	(168)	37.0	3.6	9.4	23.1	6.8	-	4.5	7.1	8.4	100.0(198)
$\chi^2(df)/F$		49.8(2)***											
모취업 여부													
취업	15.4	84.6	(465)	43.6	1.6	3.1	23.2	14.6	-	2.7	3.5	7.7	100.0(523)
휴직중	4.1	95.9	(88)	45.8	3.1	-	19.8	23.0	-	0.6	6.2	1.6	100.0(96)
미취업	15.4	84.6	(446)	43.9	2.4	2.1	28.2	9.7	-	1.2	5.5	7.0	100.0(509)
모부재	100.0	-	(3)	-	-	35.9	-	64.1	-	-	-	-	100.0(3)
$\chi^2(df)/F$		21.0(3)***											
2015년 조사	31.6	68.4	(728)	41.0	3.3	2.9	29.8	11.1	0.2	1.2	5.4	5.0	100.0(82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15년 기타 11.9%, 2015년 5.0%가 있었음.

3) 대기방식은 '어린이집 입소대기 경험자'에 한해 응답한 결과이며, 대기신청기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기경험 있는 응답자 전체 대상임.

4)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01$.

나.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만족도 및 개선 요구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80.0%였으며, 4점 만점에 2.9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만족하는 경우에 그 이유는 투명한 입소자 관리가 46.2%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다음으로 우선순위 임의조정 방비 32.2%, 대기기간 단축 16.4% 순이었다.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는 취업모의 경우에 약간 높았으며,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하지만, 그 이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한편, 현재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 85.8%가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높은 지지를 보였고, 만족도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4점 기준 3.0점으로 가장 높았다. 2015년도에 비해서는 만족 비율은 1.6%p가량 낮아졌으며, 만족도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만족한 사유도 2015년도와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 표 VI-9-3 ▣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만족도 및 만족 사유

단위: %, 점(명)

구분	만족도				이유					
	만족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수)	대기기간 단축	투명한 입소자 관리	우선순위 임의조정 방비	맞벌이 자녀 입소거부 차단	기타	계(수)
전체	80.0	2.9	0.6	(836)	16.4	46.2	32.2	2.0	3.2	100.0(664)
영유아구분										
영아	78.3	2.9	0.6	(446)	19.5	44.8	30.5	2.1	3.2	100.0(347)
유아	82.0	2.9	0.6	(390)	13.1	47.7	34.0	1.9	3.3	100.0(317)
$\chi^2(df)/t$		-0.9						6.0(4)		
보육연령										
0세	79.9	2.9	0.6	(125)	21.6	40.5	28.5	4.1	5.3	100.0(98)
1세	76.6	2.8	0.7	(146)	16.5	50.9	27.4	0.9	4.2	100.0(113)
2세	78.5	2.9	0.7	(175)	20.4	42.8	34.2	1.6	1.0	100.0(136)
3세	79.5	2.9	0.6	(163)	15.8	42.4	36.6	2.1	3.0	100.0(131)
4세	77.2	2.8	0.6	(111)	12.1	52.7	27.5	2.7	5.0	100.0(86)
5세	89.7	3.0	0.5	(116)	10.8	49.7	36.3	1.0	2.1	100.0(100)
$\chi^2(df)/F$		1.9*(a)						23.1(20)		
모취업 여부										
취업중	83.2	2.9	0.6	(381)	16.2	47.0	31.6	1.9	3.3	100.0(310)
휴직중	75.7	2.8	0.6	(83)	15.4	40.4	36.1	4.8	3.3	100.0(63)

구분	만족도				이유					
	만족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수)	대기기간 단축	투명한 입소자 관리	우선순위 임의조정 방지	맞벌이 자녀 입소거부 차단	기타	계(수)
미취업 모부재 등	77.6	2.8	0.6	(372)	16.8	46.6	32.0	1.4	3.2	100.0(291)
χ^2 (df)/F	3.4**(a)				3.2(8)					
지역규모										
대도시	76.9	2.8	0.6	(448)	13.6	46.3	32.6	3.9	3.6	100.0(337)
중소도시	83.3	2.9	0.6	(284)	18.6	47.1	31.2	-	3.0	100.0(235)
읍면지역	86.9	3.0	0.6	(104)	24.9	38.0	35.3	-	1.7	100.0(92)
χ^2 (df)/F	3.3**(a)				20.4(8)***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85.8	3.0	0.5	(175)	19.7	50.1	24.0	3.0	3.2	100.0(146)
법인	83.0	2.9	0.7	(17)	26.3	65.9	7.8	-	-	100.0(14)
법인·단체등	68.3	2.8	0.7	(24)	14.5	19.2	63.7	-	2.6	100.0(17)
민간	83.7	2.9	0.6	(222)	15.3	47.1	34.6	0.6	2.4	100.0(184)
가정	72.9	2.8	0.7	(82)	23.4	44.9	26.5	1.6	3.6	100.0(59)
직장	76.4	2.9	0.6	(13)	23.3	26.0	38.4	-	12.2	100.0(10)
χ^2 (df)/F	0.9(a)				29.2(20)*					
2015년 조사	81.6	2.9	0.6	(474)	15.2	55.4	26.3	2.5	0.5	100.0(38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만족도 평균은 '매우 만족' 1점-'매우 불만족' 4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매우 불만족' 1점, '매우 만족' 4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한 결과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3)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1$, *** $p < .001$.

반면,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불만족(불만족+매우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개선점으로는 입소아동 중 일부 기관 재량권, 특별전형 인원부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35.5%로 가장 많았고,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부모에 대한 예외 신청 방법이 있어야한다는 의견이 28.3%, 입소 신청시 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첨부하여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한다는 의견이 27.7%로, 특정 사유에 몰리지 않고 다양한 항목에 비슷한 비중으로 응답되었다. 2015년도 조사에서는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부모에 대한 예외 신청 방법이 있어야한다는 의견이 42.9%로 다소 높게 나타나, 지난 3년간 약간의 의견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I-9-4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불만족 시 개선 사항

단위: %(명)

구분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부모에 대한 예외 신청 방법	입소 신청 시 동해 서류 첨부하여 정확한 정보 입력	시스템을 입소 아동 중 일부 기관 재량권, 특별전형 인원 부여	기타	계(수)
전체(2018)	28.3	27.7	35.5	8.4	100.0(166)
2015년 조사	42.9	28.9	24.2	4.1	100.0(91)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1 보육정책 인지도 및 관련 인식

본 절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 어린이집 정보공개, 열린어린이집, 평가인증, 아이행복카드, 어린이집 CCTV 설치 등 다양한 보육정책 및 제도에 대한 영유아 가족의 인지도와 관련된 인식을 살펴보았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1) 제도 인지

정부가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와 서울형어린이집 제도의 인지도와 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였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 ‘명칭만 들어봄’이 37.3%로 가장 높았고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36.1%, ‘들어봤고 내용도 얕’ 26.5% 순으로 조사되었다. 공인어린이집 제도의 인식에 대해 영유아 집단의 차이는 없으나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을 들어봤고 내용도 아는 비율이 높았으며 잘 모르는 경우는 중소도시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조사결과와 유사한 양상이나 들어봤고 내용을 아는 비율이 더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인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이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사한 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약간 유사’하다고 판단한 비율이 45.0%로 가장 높고, ‘약간 다름’은 24.5%, ‘많이 유사’는 11.3% 순이었다. 이러한 인식에 대해 영아와 유아 간의 차이가 나타나 영아

집단에서 더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유아는 다르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 또한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2015년과 비교할 때 유사하다고 느끼는 인식의 비율은 약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 표 VI-10-1 ▣ 공인어린이집 인지 및 국공립어린이집 질과의 유사성 인식

단위: %(명)

구분	인지 여부				보육서비스 질의 국공립어린이집과의 유사성					
	명칭만 들어봤고 들어볼 내용도	잘 모름	잘 모름	계(수)	많이 유사	약간 유사	약간 다름	매우 다름	잘 모름	계(수)
전체	37.3	26.5	36.1	100.0 (1,400)	11.3	45.0	24.5	6.2	13.0	100.0 (372)
최연소 자녀구분										
영아	37.6	26.2	36.1	100.0 (817)	10.3	46.5	27.3	2.2	13.7	100.0 (221)
유아	37.1	26.8	36.1	100.0 (583)	12.3	43.5	21.9	10.0	12.3	100.0 (151)
χ^2 (df)	0.0(2)				10.5(4)**					
지역규모										
대도시	36.8	33.7	29.5	100.0 (517)	11.6	45.1	22.8	7.2	13.3	100.0 (179)
중소도시	38.0	20.1	41.9	100.0 (415)	17.5	37.8	29.3	4.7	10.7	100.0 (83)
읍면지역	37.4	23.0	39.6	100.0 (468)	5.5	50.8	23.8	5.5	14.4	100.0 (110)
χ^2 (df)	27.5(4)***				8.3(8)					
2015년 조사	33.4	26.9	39.7	100.0 (1,480)	9.7	48.1	25.8	7.1	9.3	100.0 (352)
2012년 조사			-		4.0	26.7	52.7	16.6	-	100.0 (1,228)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어린이집 이용 가구 대상 질문임.
 3)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4) 공인어린이집은 공공형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을 포함함.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1$, *** $p < .001$.

공인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이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사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공인어린이집이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국공립어린이집과 보육료가 동일하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음' 34.3%, '들어봤으나 잘 모름' 35.9%, '잘 모름' 29.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은 지역규모별로 차이가 나타나 읍면에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도시에 잘 모르는 비율이 높았다.

| 표 VI-10-2 | 공인어린이집 관련 정보 인지정도

단위: %(명)

구분	정부에서 운영비 지원받음				국공립과 보육료 동일함			
	잘 알고 있음	들어봤으나 잘 모름	잘 모름	계(수)	잘 알고 있음	들어봤으나 잘 모름	잘 모름	계(수)
전체	34.3	35.9	29.8	100.0(372)	35.6	34.0	30.4	100.0(372)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32.6	40.3	27.1	100.0(221)	33.7	39.9	26.4	100.0(221)
유아	35.9	31.7	32.4	100.0(151)	37.3	28.5	34.2	100.0(151)
χ^2 (df)	2.8(2)				4.8(2)*			
지역규모								
대도시	34.4	40.1	25.5	100.0(179)	36.8	38.1	25.1	100.0(179)
중소도시	30.4	26.4	43.3	100.0(83)	31.1	23.0	45.9	100.0(83)
읍면지역	37.5	35.4	27.1	100.0(110)	36.8	35.3	27.9	100.0(110)
χ^2 (df)	8.6(4)*				12.0(4)**			
2015년 조사	40.9	35.3	23.9	100.0(352)	40.6	33.5	25.9	100.0(35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5$, ** $p < .01$.

국공립어린이집과 보육료가 동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음’ 35.6%, ‘들어봤으나 잘 모름’ 34.0%, ‘잘 모름’ 30.4%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은 영유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유아의 경우 더 잘 알고 있고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였다. 또한 지역규모별로도 차이나 나타나 잘 모르는 경우는 중소도시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공인어린이집에 대한 이해도는 낮다고 판단되며 2015년 조사에 비해 잘 알고 있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약간 낮아졌다.

공인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관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다르다’ 56.9%, ‘거의 비슷하다’ 34.7%, ‘전혀 다르다’ 8.4%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영유아와 지역규모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없었다. 공인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2015년 조사 결과와 동일하였다.

표 VI-10-3 공인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동일 기관 인식

단위: %(명)

구분	전혀 다름	약간 다름	거의 비슷	계(수)	
전체	8.4	56.9	34.7	100.0	(372)
최연소 자녀구분					
영아	7.4	57.0	35.6	100.0	(221)
유아	9.4	56.9	33.8	100.0	(151)
χ^2 (df)	0.4(2)				
지역규모					
대도시	8.5	59.6	31.8	100.0	(179)
중소도시	8.7	47.9	43.4	100.0	(83)
읍면지역	8.0	59.1	32.9	100.0	(110)
χ^2 (df)	3.4(4)				
2015년 조사	11.4	53.9	34.7	100.0	(35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공공형 어린이집 여부의 기관 선택 시 영향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중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비율은 11.8%, 서울형어린이집은 4.1%였으며, '잘 모름'으로 응답한 비율이 26.8%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5년 결과에 비해 공공형어린이집 여부에 대해 인식이 약간 높아졌다. 이러한 인식은 영유아 구분과 지역규모와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공공형 여부에 대해서는 유아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읍면지역에서, 법인단체 등에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공공형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공공형 여부가 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그려함'으로 응답한 비율(대체로 그려함+매우 그려함)이 74.9%에 달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여부는 기관 선택 시 주된 선택 요인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기관 선택 시 공공형어린이집 여부는 대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와 법인·단체 등을 이용하는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5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영향을 미친 비율은 약간 감소하였으나 영향에 대한 평점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0-4 현재 이용 어린이집의 공공형어린이집 여부 및 기관 선택 시 공공형어린이집의 영향

단위: %(명), 점

구분	공공형어린이집 여부				(전체수)	어린이집 선택 시 공공형의 영향				계수	4점 평균
	공공형	서울형	잘 모름	공공형 아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전체	11.8	4.1	26.8	57.4	(1,753)	7.9	17.1	52.3	22.6	100.0 (231)	2.9
영유아구분											
영아	10.8	3.8	25.2	60.1	(998)	8.0	16.6	52.5	22.8	100.0 (123)	2.9
유아	13.0	4.4	28.9	53.7	(755)	7.8	17.7	52.1	22.4	100.0 (108)	2.9
$\chi^2(df)/t$	7.2(3)*					0.0(3)					-0.9
보육연령											
0세	11.3	2.9	27.3	58.6	(117)	9.8	53.7	12.5	24.0	100.0 (14)	2.5
1세	11.7	3.9	23.6	60.7	(386)	3.3	12.1	55.1	29.5	100.0 (50)	3.1
2세	10.0	4.0	26.0	60.0	(495)	11.7	10.8	61.0	16.5	100.0 (59)	2.8
3세	11.6	4.9	24.4	59.1	(335)	2.7	21.3	57.5	18.5	100.0 (42)	2.9
4세	15.1	2.0	31.8	51.1	(204)	3.8	25.3	45.8	25.2	100.0 (31)	2.9
5세	13.0	5.9	32.8	48.2	(216)	18.7	5.0	51.7	24.6	100.0 (35)	2.8
$\chi^2(df)/F$	21.8(15)					32.5(15)***					1.3
지역규모											
대도시	10.0	9.5	19.0	61.5	(611)	-	3.2	59.7	37.1	100.0 (60)	3.3
중소도시	10.0	0.6	30.3	59.2	(514)	14.0	24.4	43.5	18.1	100.0 (52)	2.7
읍면지역	19.5	0.5	35.5	44.6	(628)	9.3	23.7	54.7	12.3	100.0 (119)	2.7
$\chi^2(df)/F$	141.5(6)***					32.3(6)***					16.4***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	5.0	19.5	75.5	(417)	-	-	-	-	-	-
사회복지법인	12.0	3.2	31.4	53.3	(90)	-	38.6	52.5	8.9	100.0 (9)	2.7
법인·단체등	28.0	0.6	29.6	41.8	(96)	7.7	12.2	60.3	19.7	100.0 (30)	2.9
민간	17.1	3.9	29.0	50.0	(874)	7.7	14.5	52.5	25.3	100.0 (173)	3.0
가정	7.9	5.4	23.4	63.3	(221)	12.9	33.1	42.7	11.3	100.0 (19)	2.5
직장	-	-	47.7	52.3	(55)	-	-	-	-	-	-
$\chi^2(df)/F$	157.5(15)***					10.3(9)					1.7
2015년 조사	9.8	5.7	30.6	53.8	(1,745)	7.5	14.7	59.9	17.9	100.0 (164)	2.8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향 정도 평균은 '매우 그러함' 1점 ~ '전혀 그렇지 않음' 4점으로 평정하여, '전혀 그렇지 않음' 1점 ~ '매우 그러함' 4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한 결과임. 점수가 높을수록 기관선택 시 영향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3)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기준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01$.

3) 공공형 어린이집의 장점 인지

자녀가 공공형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장점으로서는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36.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추가 보육료 지원 19.1%, 원장의 보육철학이 16.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과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인식의 차이를 가져왔는데, 2세(48.5%)와 5세(39.8%)와 민간어린이집 이용자에서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장점으로 꼽았으며 추가보육료 지원은 가정어린이집(25.8%)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5년과 비교하면 정부의 철저한 관리에 대한 장점 인식은 동일하나 약간 비율이 감소한 반면, 추가보육료 지원 관련 인식과 질 높은 교사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다.

▶ 표 VI-10-5 ▶ 공공형 어린이집의 장점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 분	추가 보육료 지원	정부의 철저한 관리	질 높은 교사	원장의 보육철학	기타	장점 없음	계(수)
전체	19.1	36.9	15.3	16.3	-	12.3	100.0 (230)
영유아구분					-		
영아	21.3	41.0	11.9	11.6	-	14.2	100.0 (122)
유아	16.6	32.4	19.2	21.5	-	10.3	100.0 (108)
χ^2 (df)			6.9(4)				
보육연령					-		
0세	12.8	21.6	19.6	-	-	45.9	100.0 (14)
1세	21.7	38.7	16.5	13.6	-	9.5	100.0 (50)
2세	23.2	48.5	5.5	13.0	-	9.7	100.0 (58)
3세	15.9	27.8	20.2	27.8	-	8.2	100.0 (42)
4세	19.8	31.0	20.9	12.3	-	16.0	100.0 (31)
5세	14.2	39.8	16.1	23.0	-	6.9	100.0 (35)
χ^2 (df)			30.5(20)*				
어린이집 유형							
법인	4.2	17.4	39.9	-	-	38.6	100.0 (9)
법인·단체등	23.9	37.1	10.6	5.3	-	23.0	100.0 (30)
민간	18.4	39.0	14.8	20.0	-	7.7	100.0 (172)
가정	25.8	29.5	13.1	6.5	-	25.1	100.0 (19)
χ^2 (df)			25.6(12)**				
2015년 조사	12.2	47.6	8.0	23.4	0.9	7.9	100.0(16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1$.

나. 어린이집 정보공개

1) 인지 및 이용 경험, 만족도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 2014년부터 운영되는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인지 및 이용 경험을 질문하였다. 우선 정부가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어린이집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37.3%로 가장 높고 ‘들어본 적 있음’은 24.0%, 알고 있다(잘 안다+대충 안다)는 경우는 38.8%로 조사되었다. 제도 인지 비율은 지역규모와 모 취업 여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읍면지역에서 인지 비율이 더 낮아 정보공개 포털을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43.8%였고 취업모(휴직 포함)가 더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5년 조사 시 인지 정도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정보공개 포털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에게 이용 경험과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이용 경험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가 55.3%로 가장 많았고 연 1~3회 경험이 그 다음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영유아, 지역규모 등에 의해 차이가 나타났는데, 영아보다 유아의 부모가 이용 경험이 없는 비율이 높았고 중소도시에서 이용 경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만족한다는 비율(만족+매우 만족)은 38.1%였고 평균 점수는 3.3이었다. 이러한 만족도는 지역규모에 따라서만 차이를 보였는데 대도시에서 만족도와 평점이 높았다. 이러한 만족도는 2015년 결과와 유사하다.

▣ 표 VI-10-6 ▣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인지 및 경험,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인지 정도				계(수)	이용 경험					만족 정도		
	잘 안다	대충 안다	들어본 적 있음	모름		1주일에 한 회 이상	한 달에 1~3회	분기별 1~3회	연 1~3회	없음	계(수)	만족 한다는 평균 비율	평균 (수)
전체	18.7	20.1	24.0	37.3	100.0 (1,400)	1.4	5.7	8.3	29.3	55.3	100.0 (872)	38.1	3.3 (399)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20.9	19.4	22.9	36.9	100.0 (817)	1.5	6.0	10.2	33.9	48.6	100.0 (509)	35.8	3.3 (262)
유아	16.5	20.9	25.0	37.6	100.0 (583)	1.4	5.5	6.4	24.8	61.8	100.0 (363)	41.1	3.3 (137)
$\chi^2(df)/t$			4.3(3)					15.1(4)***				-0.2	

구분	인지 정도					이용 경험						만족 정도		
	잘 안다	대충 안다	들어본 적이 있음	모름	계(수)	1주일에 1회 이상	한 달에 1~3회	분기별 1~3회	연 1~3회	없음	계(수)	만족한다는 비율	평균	(수)
지역규모														
대도시	20.2	23.8	25.4	30.6	100.0 (517)	1.1	4.7	7.0	30.7	56.6	100.0 (366)	41.4	3.4	(165)
중소도시	20.0	19.8	20.2	39.9	100.0 (415)	3.0	5.3	12.3	32.4	47.0	100.0 (250)	31.4	3.2	(135)
읍면지역	15.2	15.4	25.6	43.8	100.0 (468)	0.3	8.0	6.2	23.6	61.8	100.0 (256)	41.4	3.3	(99)
χ^2 (df)/F	24.6(6)***					22.0(8)***						2.6*		
모취업 여부														
취업	20.1	21.5	20.6	37.8	100.0 (689)	1.7	4.6	8.3	32.8	52.6	100.0 (422)	38.0	3.3	(203)
휴직중	20.4	22.0	31.5	26.1	100.0 (88)	2.7	1.6	4.4	35.0	56.2	100.0 (64)	45.0	3.5	(32)
미취업	17.2	18.6	26.8	37.4	100.0 (608)	0.9	8.1	8.8	24.4	57.8	100.0 (379)	37.2	3.3	(163)
모부재 등	-	3.9	39.5	56.6	100.0 (15)	-	-	9.0	-	91.0	100.0 (7)	-	3.0	(1)
χ^2 (df)/F	17.8(9)**					17.2(12)						1.0		
2015년 조사	16.2	25.3	21.0	37.5	100.0 (1,480)	-	-	-	-	-	-	37.8	3.3	(36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 응답한 문항임.
 3) 만족도 평균은 '매우 만족' 1점-'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하여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한 결과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4)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5$, ** $p < .01$, *** $p < .001$.

2) 어린이집 위반사실 조회에 대한 인지 및 경험 여부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을 알고 있는 응답자에 한하여 어린이집의 위반 사실(보조금 수령, 허위아동 등록, 운영기준 위반 등)을 조회해본 적이 있는지를 알아 보았다. '전혀 알지 못함'이 45.5%로 가장 높고 '들어본 적은 있으나 조회해본 적은 없음'은 40.9%, '조회 경험 있음' 8.4%였다. 해당 제도의 이용 경험 즉 정보를 조회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률은 취업모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전혀 알지 못함'과 '조회 경험 있음' 모두 취업모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VI-10-7 어린이집 위반사실 조회에 대한 인식 및 경험

단위: %(명)

구분	조회 경험 있음	들어본 적 있으나 조회 경험없음	전혀 알지 못함	모름/무응답	계(수)
전체	8.4	40.9	45.5	5.2	100.0(1,400)
최연소 자녀 구분					
영아	9.9	40.3	45.2	4.5	100.0(817)
유아	7.0	41.4	45.8	5.8	100.0(583)
χ^2 (df)			3.2(2)		
지역규모					
대도시	8.1	45.7	42.6	3.6	100.0(517)
중소도시	9.0	35.5	48.2	7.3	100.0(415)
읍면지역	8.3	39.6	46.9	5.2	100.0(468)
χ^2 (df)			7.2(4)		
취업모 여부					
취업	9.0	37.9	47.7	5.4	100.0(689)
휴직중	7.4	53.4	35.1	4.0	100.0(88)
미취업	8.1	43.3	43.4	5.1	100.0(608)
모부재 등	-	31.7	68.3	-	100.0(15)
χ^2 (df)			11.0(6)*		
2015년 조사	22.3	44.8	32.9		100.0(37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이용 경험자만 응답함.

3)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5$.

3) 자녀 이용 어린이집 정보 조회 경험 및 도움 정도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정보를 정보공개 포털에서 찾아본 경험과 도움 정도를 파악하였다. 먼저 조회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한 결과 ‘찾아본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5.3%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이용 여부는 영유아와 연령, 자녀 수, 모 연령과 취업 여부, 지역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유아보다는 영아 부모가, 0-2세, 자녀 수가 1명 일 때, 모 연령이 30~34세일 경우, 취업 모, 대도시 거주일 경우 이용을 더 많이 하였다.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정보를 찾아본 적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해당 정보가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도움됨+매우 도움됨)이 59.9%로 나타났다. 도움 정도는 5점 척도 기준으로 3.5점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도움 정도는 영유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유아에서 더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2015년과 비교하면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조금 상승하였으며 평균 점수도 약간 상승하였다.

▣ 표 VI-10-8 ▣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info.cnildcare.go.kr) 이용 여부/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 분	이용 여부		제공정보의 도움 정도						
	이용	(수)	전혀 도움안됨	별로 도움안됨	보통	도움	매우 도움	계(수)	5점 평균
전체	25.3	(1,400)	1.8	13.2	25.1	50.0	9.9	100.0(357)	3.5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29.5	(817)	1.2	15.4	24.3	45.8	13.3	100.0(233)	3.5
유아	21.3	(583)	2.7	10.1	26.2	55.7	5.3	100.0(124)	3.5
$\chi^2(df)/t$		11.3(2)***				9.5(4)*			0.4
보육연령									
0세	26.3	(195)	2.1	14.5	26.9	45.8	10.7	100.0(52)	3.5
1세	30.1	(304)	2.3	16.7	24.8	44.6	11.6	100.0(86)	3.5
2세	30.4	(318)	-	14.7	22.8	46.7	15.8	100.0(95)	3.6
3세	22.1	(294)	1.0	12.8	27.8	48.9	9.4	100.0(66)	3.5
4세	22.0	(153)	3.6	7.8	21.5	63.4	3.6	100.0(31)	3.6
5세	19.5	(136)	4.3	8.2	28.3	59.2	-	100.0(27)	3.4
$\chi^2(df)/F$		27.8(10)***				18.6(20)			0.4
자녀수									
1명	26.9	(290)	2.9	14.2	22.5	50.2	10.2	100.0(77)	3.5
2명	24.2	(816)	1.3	12.9	28.9	46.4	10.6	100.0(203)	3.5
3명 이상	25.8	(294)	1.3	11.7	18.7	61.2	7.1	100.0(77)	3.6
$\chi^2(df)/F$		9.9(4)**				5.4(8)			0.2
모 연령									
29세 이하	14.8	(116)	4.6	4.6	27.6	46.8	16.5	100.0(18)	3.7
30 - 34세	30.1	(338)	2.6	10.2	23.3	51.7	12.1	100.0(101)	3.6
35 - 39세	26.1	(663)	1.9	17.7	25.5	46.2	8.7	100.0(174)	3.4
40 - 44세	26.3	(233)	-	4.8	28.2	57.7	9.2	100.0(60)	3.7
45세 이상	12.2	(34)	-	48.6	-	51.4	-	100.0(4)	3.0
모부재 등	-	(16)	-	-	-	-	-	-	-
$\chi^2(df)$		22.3(10)**				20.5(16)			1.8(a)
모취업 여부									
취업	26.0	(689)	1.6	13.3	18.2	56.2	10.8	100.0(179)	3.6
휴직중	25.3	(88)	-	12.6	24.8	52.7	10.0	100.0(25)	3.6
미취업	25.3	(608)	2.4	13.1	34.3	41.6	8.7	100.0(153)	3.4
모부재 등	-	(15)	-	-	-	-	-	-	-
$\chi^2(df)$		15.0(6)**				11.7(8)			1.9

구 분	이용 여부		제공정보의 도움 정도					계(수)	5점 평균
	이용	(수)	전혀 도움안됨	별로 도움안됨	보통	도움	매우 도움		
지역규모									
대도시	29.1	(517)	2.1	9.9	26.6	51.9	9.5	100.0(160)	3.6
중소도시	25.0	(415)	1.5	18.0	24.7	46.0	9.8	100.0(103)	3.4
읍면지역	20.5	(468)	1.7	13.8	22.6	51.2	10.8	100.0(94)	3.6
χ^2 (df)	15.3	(4)***				4.2(8)			0.5
2015년 조사	22.9	(1,745)	3.1	13.4	26.1	47.3	10.1	100.0(391)	3.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도움정도 평균은 '매우 도움 됨' 1점~'전혀 도움 안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 됨' 5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한 결과임.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3)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5$, ** $p < .01$, *** $p < .001$

4)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 추가 제공되어야 할 정보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이용자 중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한 경우 추가로 제공되어야 할 정보를 확인하였다. 교직원 관련 30.2%, 보육과정 관련 27.8%, 특별활동 관련 13.6%, 환경안전 관련 12.6% 순으로 나타났다,

▮ 표 VI-10-9 ▮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info.cnildcare.go.kr)에 필요한 추가 정보

단위: %(명)

	교직원 관련	특별활동 관련	급식 관련	환경안전 관련	보육과정 관련	경비 관련	회계 관련	기타	계(수)
전체	30.2	13.6	7.1	12.6	27.8	6.2	2.5	-	100.0(52)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33.1	11.4	9.0	8.9	23.7	9.8	4.0	-	100.0(36)
유아	25.2	17.2	3.7	19.1	34.8	-	-	-	100.0(16)
χ^2 (df)					4.4(6)				
자녀수									
1명	30.8	23.9	7.7	7.5	14.2	15.9	-	-	100.0(13)
2명	26.7	5.8	8.6	14.8	38.7	-	5.4	-	100.0(27)
3명 이상	40.4	11.1	-	19.8	28.7	-	-	-	100.0(12)
χ^2 (df)					12.2(12)				
모취업 여부									
취업	39.3	14.2	2.5	10.6	27.9	5.5	-	-	100.0(29)
휴직중	70.8	-	-	-	29.2	-	-	-	100.0(2)
미취업	14.1	14.3	13.6	16.6	27.5	7.8	6.0	-	100.0(21)
모부재 등	-	-	-	-	-	-	-	-	-
χ^2 (df)					8.7(12)				

	교직원 관련	특별활동 관련	급식 관련	환경안전 관련	보육과정 관련	경비 관련	회계 관련	기타	계(수)
지역규모									
대도시	31.8	28.3	11.6	3.6	16.0	8.7	-	-	100.0(18)
중소도시	36.4	6.8	3.6	7.9	37.5	7.9	-	-	100.0(17)
읍면지역	18.5	1.3	5.4	33.5	31.1	-	10.2	-	100.0(12)
χ^2 (df)					18.1(12)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다. 열린어린이집 인지 및 이용

1) 열린어린이집 인지

2015년에 소개된 열린어린이집에 대해 알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열린어린이집에 대해 ‘모름’이 52.6%, ‘들어본 적 있음’은 20.2%, ‘대충 앎’ 15.8%, ‘잘 알고 있음’은 11.5% 정도였다. 이러한 인식은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모들이 잘 알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 표 VI-10-10 ▮ 열린어린이집 인지 여부

구분					단위: %(명)
	잘 알고 있음	대충 앎	들어본 적 있음	모름	계(수)
전체	11.5	15.8	20.2	52.6	100.0(1,400)
모 연령					
29세 이하	6.4	15.4	18.9	59.2	100.0(116)
30 - 34세	7.8	14.9	18.6	58.7	100.0(338)
35 - 39세	12.6	17.5	20.7	49.2	100.0(663)
40 - 44세	15.5	12.0	19.6	52.9	100.0(233)
45세 이상	10.2	17.8	22.1	49.8	100.0(34)
부재, 모름	6.7	19.9	34.7	38.7	100.0(16)
χ^2 (df)			21.3(15)		
지역규모					
대도시	16.2	20.3	19.5	43.9	100.0(517)
중소도시	7.2	12.2	19.9	60.8	100.0(415)
읍면지역	9.0	13.0	21.3	56.7	100.0(468)
χ^2 (df)			42.4(6)***		
모취업 여부					
취업	11.9	15.9	19.7	52.5	100.0(689)
휴직중	10.2	14.3	20.8	54.7	100.0(88)
미취업	11.1	15.9	20.2	52.8	100.0(608)

구분	잘 알고 있음	대충 알	들어본 적 있음	모름	계(수)
모부재 등	7.4	12.3	37.9	42.4	100.0(15)
χ^2 (df)	3.6(9)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 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가구조사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람의 응답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01$.

2) 열린어린이집 이용 및 만족도

열린어린이집 이용 및 만족도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이용 비율은 24.4% 정도로 나타났으며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대도시(27.2%)에서 이용 비율이 높았다. 또한 이용자에 한하여 이용 만족도를 확인하였더니 만족하는(매우 만족+대체로 만족) 비율은 73.6%로 이용자의 과반수 이상이 만족하고 있었으며 5점 평점에 3.9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 만족도는 지역규모와 모취업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도시의 만족 비율과 평점이 높고 휴직 중인 부모의 만족비율과 평점이 높게 나타났다.

▮ 표 VI-10-11 ▮ 열린어린이집 이용 여부 및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5점 평균 (표준편차)
	네	아니오	계(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모름/ 무응답	계(수)	
전체	24.4	75.6	100.0 (1,753)	16.5	57.1	23.8	1.7	0.1	0.9	100.0(418)	3.9(0.7)
보육연령											
0세	21.3	78.7	100.0 (117)	21.4	45.1	26.5	6.9	-	-	100.0(25)	3.8(0.9)
1세	22.1	77.9	100.0 (386)	13.5	60.6	23.2	2.1	0.5	-	100.0(79)	3.8(0.7)
2세	23.6	76.4	100.0 (495)	17.0	54.3	24.8	1.9	-	2.1	100.0(120)	3.9(0.7)
3세	25.0	75.0	100.0 (335)	12.9	63.1	22.4	-	-	1.6	100.0(80)	3.9(0.6)
4세	26.3	73.7	100.0 (204)	20.0	45.2	32.1	2.7	-	-	100.0(51)	3.8(0.8)
5세	28.9	71.1	100.0 (216)	19.1	64.5	16.4	-	-	-	100.0(63)	4.0(0.6)
χ^2 (df)/F	4.7(5)			20.6(25)						0.7(a)	
지역규모											
대도시	27.2	72.8	100.0 (611)	18.5	59.8	19.8	0.6	-	1.3	100.0(160)	4.0(0.6)
중소도시	22.3	77.7	100.0 (514)	19.3	54.4	22.7	2.8	-	0.8	100.0(114)	3.9(0.7)
읍면지역	23.1	76.9	100.0 (628)	5.2	56.4	35.8	2.0	0.6	-	100.0(144)	3.6(0.6)
χ^2 (df)/F	4.7(2)*			18.0(10)*						6.7***(a)	
모취업 여부											
취업	25.4	74.6	100.0 (888)	13.1	59.6	24.6	1.4	0.2	1.1	100.0(214)	3.9(0.7)

구분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네	아니오	계(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모름/무응답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휴직중	20.4	79.6	100.0 (97)	46.8	46.8	6.4	-	-	-	100.0(19)	4.4(0.6)
미취업	23.5	76.5	100.0 (751)	17.4	54.3	25.4	2.3	-	0.7	100.0(180)	3.9(0.7)
모부재 등	40.8	59.2	100.0 (17)	-	100.0	-	-	-	-	100.0(5)	4.0(0.0)
χ^2 (df)/F	3.2(3)			23.3(15)*							4.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만족도 평균은 '매우 만족' 1점~'매우 불만족'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매우 불만족'1점~'매우 만족' 5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한 결과임.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01$.

라. 평가인증

1) 제도인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확인한 결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알고 있는(잘 알고 있음+대충 앎) 비율이 65.6%였고 이러한 인식은 모 연령과 모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모 연령 40~44세와 취업 모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 표 VI-10-12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인지 여부

구분	단위: %(명)				
	잘 알고 있음	대충 앎	들어본 적 있음	모름	계(수)
전체	29.9	35.7	18.3	16.1	100.0(1,400)
모 연령					
29세 이하	30.7	25.9	17.1	26.3	100.0(116)
30 - 34세	29.0	32.2	17.4	21.3	100.0(338)
35 - 39세	28.7	39.4	18.9	13.1	100.0(663)
40 - 44세	33.5	38.1	17.2	11.2	100.0(233)
45세 이상	32.3	27.3	15.3	25.2	100.0(34)
부재, 모름	30.3	10.2	42.4	17.1	100.0(16)
χ^2 (df)	38.2(15)***				
지역규모					
대도시	31.1	38.7	16.0	14.2	100.0(517)
중소도시	28.0	36.0	18.5	17.5	100.0(415)
읍면지역	30.3	31.1	21.3	17.2	100.0(468)
χ^2 (df)	8.9(6)				
모취업 여부					

구분	잘 알고 있음	대충 알	들어본 적 있음	모름	계(수)
취업	32.2	35.2	16.5	16.1	100.0(689)
휴직중	28.9	37.5	18.2	15.4	100.0(88)
미취업	27.4	36.8	19.8	16.0	100.0(608)
모부재 등	23.8	11.1	46.3	18.7	100.0(15)
χ^2 (df)	14.8(9)*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5$, *** $p < .001$.

2) 자녀 이용 기관의 평가인증 결과 조회 경험/ 서비스 질 관련성

2013년 하반기부터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가 공개되고 있는데,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해당 정보를 찾아본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평가 인증 결과 조회를 한 적이 '있음' 33.9%, '없음' 66.1%로 나타났으며 이는 영유아 구분과 지역 규모, 모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용 경험은 영아의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할 경우, 30-34세의 경우 이용 경험 비율이 높았다. 2015년 결과와 비교하면, 이용 경험 비율이 약 13% 정도 증가한 셈이다.

다음으로 자녀가 이용 중인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6.9%이며, '아닌 편임' 24.2%, '전혀 관계없음'은 12.4%로 조사되었다. 평가인증 점수에 따른 서비스 수준 일치가 집단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한편 점수와 서비스 수준 일치 정도는 2015년 조사와 비교할 때 약간 증가하였다.

▶ 표 VI-10-13 ▶ 평가인증 결과 조회 경험 및 점수와 실제의 일치여부

구분	이용 경험			점수와 서비스 수준의 일치 여부				
	있음	없음	계(수)	전혀 관계없음	아닌 편임	어느 정도 일치	잘 모름	계(수)
전체	33.9	66.1	100.0(1,029)	12.4	24.2	56.9	6.6	100.0(400)
최연소영유아구분								
영아	39.9	60.1	100.0(682)	12.9	22.7	57.5	6.9	100.0(259)
유아	28.2	71.8	100.0(496)	11.6	26.3	56.1	6.1	100.0(141)
χ^2 (df)	15.7(1)***			0.8(3)				
지역규모								
대도시	37.3	62.7	100.0(442)	7.4	26.5	58.0	8.0	100.0(166)
중소도시	37.3	62.7	100.0(347)	16.1	22.5	53.9	7.5	100.0(126)

단위: %(명)

구 분	이용 경험			점수와 서비스 수준의 일치 여부				
	있음	없음	계(수)	전혀 관계없음	아닌 편임	어느 정도 일치	잘 모름	계(수)
읍면지역	25.8	74.2	100.0(389)	17.2	21.8	58.6	2.4	100.0(108)
χ^2 (df)	12.6(2)***			9.3(6)				
모연령								
29세 이하	30.9	69.1	100.0(87)	7.7	25.3	57.1	9.9	100.0(28)
30 - 34세	41.8	58.2	100.0(273)	15.7	22.3	53.9	8.1	100.0(111)
35 - 39세	32.7	67.3	100.0(574)	11.5	26.4	55.9	6.2	100.0(186)
40 - 44세	33.3	66.7	100.0(205)	13.0	19.7	62.2	5.1	100.0(69)
45세 이상	18.9	81.1	100.0(26)	-	22.8	77.2	-	100.0(4)
부재, 모름	14.7	85.3	100.0(13)	-	70.6	29.4	-	100.0(2)
χ^2 (df)	13.2(5)**			8.8(15)				
2015년 조사	21.2	78.8	100.0(1,325)	11.8	24.1	54.9	9.2	100.0(269)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평가인증 결과를 찾아본 경우만 점수와 서비스 수준의 일치 여부에 응답함.
 3) 영유아 구분: 보육 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1$, *** $p < .001$.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약간 그렇다+매우 그렇다)이 57.4%로 조사되었다. 해당 인식은 영유아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영아의 경우와 2세의 경우 평가인증 제도가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2015년에 비해 약간 감소한 추세이다.

표 VI-10-14 평가인증 제도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 기여 정도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름	계(수)
전체	11.3	46.1	31.0	8.1	3.5	100.0 (1,178)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13.6	46.3	28.6	6.8	4.7	100.0 (682)
유아	9.2	46.0	33.2	9.3	2.3	100.0 (496)
χ^2 (df)						12.7(4)**
보육연령						
0세	7.8	45.7	34.5	3.1	9.0	100.0 (155)
1세	13.0	43.2	30.9	9.3	3.6	100.0 (251)
2세	16.2	48.9	24.6	6.3	4.1	100.0 (276)
3세	11.1	42.7	36.0	8.8	1.5	100.0 (252)

구분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름	계(수)
4세	9.2	51.0	27.8	9.9	2.2	100.0 (134)
5세	6.2	46.1	34.6	9.4	3.7	100.0 (110)
χ^2 (df)	34.5(20)**					
모 연령						
29세 이하	15.2	49.0	29.7	2.6	3.5	100.0 (87)
30~34세	9.9	47.8	29.4	7.3	5.6	100.0 (273)
35~39세	12.8	43.5	31.4	8.6	3.7	100.0 (574)
40~44세	8.5	49.7	30.5	9.9	1.5	100.0 (205)
45세 이상	9.0	51.8	35.0	4.2	-	100.0 (26)
부재, 모름	8.9	38.5	43.3	9.3	-	100.0 (13)
χ^2 (df)	18.2(20)					
지역규모						
대도시	11.4	50.1	28.8	7.6	2.0	100.0 (442)
중소도시	11.8	42.1	31.8	8.6	5.8	100.0 (347)
읍면지역	10.7	44.5	33.3	8.2	3.3	100.0 (389)
χ^2 (df)	11.0(8)					
2015년 조사	14.4	53.5	26.9	5.2		100.0 (1,676)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평가인증이 무엇인지 모르는 응답자는 제외함.

3) 영유아 구분: 보육 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1$.

3) 어린이집 선택 시 평가인증의 영향 정도

현재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았는지를 질문한 결과, ‘평가인증을 받았다’ 75.2%, ‘평가인증 여부를 모른다’ 18.1%로 응답하였다.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 가정 등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평가인증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81.6%, 80.9%, 76.1%, 78.1%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과 직장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는 ‘평가인증 여부를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1.2%와 26.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5년 결과와 매우 유사하며 2012년 결과에 비해서는 약간 비율이 증가한 정도이다.

표 VI-10-15 어린이집 유형별 어린이집 평가인증 여부

단위: %(명)

구분	국공립	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전체	2015년	2012년
평가인증 받음	81.6	80.9	76.1	71.7	78.1	68.0	75.2	75.3	72.9
평가인증 안받음	2.1	3.7	-	2.2	4.9	5.4	2.6	2.7	7.8
평가인증 여부 모름	13.2	10.0	22.4	21.2	13.3	26.6	18.1	18.9	15.5
평가인증 제도 모름	3.2	5.3	1.5	4.9	3.7	-	4.1	3.8	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17)	(90)	(96)	(874)	(221)	(55)	(1,753)	(1,745)	(1,535)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이용 중인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 평가인증 여부가 현재의 어린이집 선택 시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어느 정도 영향 있음’ 58.8%, ‘많이 영향을 있음’ 22.4%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인증의 영향은 지역규모와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기관 선택 시 평가인증 여부는 특히 대도시지역에서 더 큰 영향이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이 다른 유형과 달리 더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5년에 비해 영향이 더 많아졌고 2012년에 비하면 훨씬 영향을 미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표 VI-10-16 영유아구분 및 연령별 어린이집 선택 시 평가인증의 영향

단위: %(명)

구분	많이 영향 있음	어느 정도 영향 있음	전혀 영향 없음	계(수)
전체	22.4	58.8	18.7	100.0(1,308)
영유아구분				
영아	23.4	56.9	19.7	100.0(734)
유아	21.2	61.4	17.5	100.0(574)
$\chi^2(df)$		2.8(2)		
보육연령				
0세	18.4	59.6	22.0	100.0(82)
1세	26.6	57.1	16.3	100.0(287)
2세	22.1	56.1	21.9	100.0(365)
3세	19.9	61.5	18.6	100.0(248)
4세	21.8	61.8	16.3	100.0(157)
5세	22.4	60.6	16.9	100.0(169)
$\chi^2(df)$		8.9(10)		
지역규모				
대도시	28.2	55.4	16.4	100.0(463)

구분	많이 영향 있음	어느 정도 영향 있음	전혀 영향 없음	계(수)
중소도시	17.2	63.2	19.6	100.0(382)
읍면지역	21.8	56.5	21.7	100.0(463)
χ^2 (df)	20.5(4)***			
어린이집유형				
국공립	31.5	56.0	12.5	100.0(336)
법인	13.8	57.9	28.3	100.0(72)
법인·단체등	15.1	56.6	28.3	100.0(74)
민간	19.9	61.2	18.9	100.0(616)
가정	20.8	57.4	21.8	100.0(172)
직장	26.0	54.3	19.7	100.0(38)
χ^2 (df)	31.0(10)***			
2015년 조사	27.7	50.9	21.4	100.0(1,326)
2012년 조사	9.4	53.6	37	100.0(1,116)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마. 아이행복 카드

어린이집 아이행복 카드의 결제 빈도와 결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결제 빈도를 보면, 매달 하는 경우가 97.2%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고 분기별로 결제하는 경우는 2.8%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제 빈도는 영유아 구분, 연령, 지역 규모,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은 결제 방법에 대해 파악한 결과, ARS방식의 결제가 33.3%, 카드 전달이 30.8%, 인터넷 결제 28.2%, 방문이 7.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제 방법은 영유아 구분, 지역규모,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영아는 ARS 결제가 많았으나 유아는 카드 전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읍면지역에서는 카드 전달 방식이 많았고 중소도시는 ARS 결제, 대도시는 인터넷 결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공립, 가정, 직장은 ARS 결제, 법인, 법인단체, 민간은 카드전달 방식이 많았다.

표 VI-10-17 아이행복카드 결제 빈도 및 결제방법

단위: %(명)

구분	결제 빈도			결제 방법					
	매달	분기별	계(수)	방문	카드 전달	카드 맡김	인터넷	ARS	계(수)
전체	97.2	2.8	100.0(1,753)	7.7	30.8	-	28.2	33.3	100.0(1,753)
영유아구분									
영아	97.6	2.4	100.0(998)	7.2	28.5	-	31.2	33.2	100.0(998)
유아	96.6	3.4	100.0(755)	8.5	33.8	-	24.2	33.5	100.0(755)
χ^2 (df)	1.4(1)			12.5(4)**					
보육연령									
0세	99.0	1.0	100.0(117)	7.1	27.9	-	38.9	26.2	100.0(117)
1세	97.2	2.8	100.0(386)	8.3	26.6	-	32.1	32.9	100.0(386)
2세	97.6	2.4	100.0(495)	6.3	30.0	-	28.6	35.0	100.0(495)
3세	96.4	3.6	100.0(335)	9.1	32.7	-	27.0	31.2	100.0(335)
4세	96.5	3.5	100.0(204)	7.5	33.5	-	22.0	37.0	100.0(204)
5세	97.1	2.9	100.0(216)	8.5	35.7	-	22.0	33.7	100.0(216)
χ^2 (df)	3.2(5)			26.5(20)					
지역규모									
대도시	98.0	2.0	100.0(611)	9.7	24.3	-	36.2	29.8	100.0(611)
중소도시	96.7	3.3	100.0(514)	5.5	29.8	-	25.6	39.2	100.0(514)
읍면지역	96.6	3.4	100.0(628)	8.6	46.7	-	17.2	27.6	100.0(628)
χ^2 (df)	2.5(2)			92.8(8)***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98.8	1.2	100.0(417)	8.6	26.9	-	27.0	37.5	100.0(417)
법인	94.2	5.8	100.0(90)	11.6	44.8	-	20.8	22.9	100.0(90)
법인·단체등	97.4	2.6	100.0(96)	6.7	48.8	-	20.5	24.0	100.0(96)
민간	96.6	3.4	100.0(874)	7.6	32.7	-	27.7	32.0	100.0(874)
가정	97.9	2.1	100.0(221)	6.2	22.0	-	35.0	36.9	100.0(221)
직장	96.2	3.8	100.0(55)	8.3	22.2	-	33.1	36.4	100.0(55)
χ^2 (df)	8.3(5)			58.2(2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 $p < .001$.

바. 어린이집 CCTV 설치

1) 어린이집 CCTV 설치 효과에 대한 인식

201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된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아동학대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였다. 그 결과 ‘어느 정도 효과 있음’ 63.5%, ‘매우 효과 있음’ 27.4%로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어느 정도 효과 있음+매우 효과 있음)은 집단 구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아동 및 보육교사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절반 수준을 넘는 59.9%였으며, ‘인권보호 장치가 필요함’은 34.8%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인정보침해 의견은 영유아와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유아를 둔 가구, 법인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두드러졌다.

■ 표 VI-10-18 ■ CCTV 이용 관련 의견

단위: %, 점(명)

구분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효과 인식				개인정보침해 의견			계(수)
	전혀 없음	별로 없음	어느정도 있음	매우 큼	문제없음	인권보호 장치 필요	잘 모름	
전체	0.5	8.5	63.5	27.4	59.9	34.8	5.2	100.0(1,753)
영유아구분								
영아	0.8	8.8	62.5	27.9	59.4	34.4	6.2	100.0(998)
유아	0.2	8.3	64.9	26.7	60.7	35.5	3.9	100.0(755)
	$\chi^2(df)/t$ 4.4(3)				4.8(2)*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	9.9	59.3	30.8	56.7	37.8	5.5	100.0(417)
법인	-	3.7	78.9	17.5	46.5	52.3	1.2	100.0(90)
법인·단체등	0.5	10.0	67.2	22.3	54.4	42.8	2.8	100.0(96)
민간	0.7	8.4	64.3	26.6	61.9	32.3	5.8	100.0(874)
가정	0.5	7.9	63.0	28.6	64.2	30.3	5.5	100.0(221)
직장	2.3	8.8	57.3	31.6	56.1	42.5	1.3	100.0(55)
	$\chi^2(df)/F$ 19.0(15)				22.2(10)**			
2015년 조사	0.6	10.7	60.7	27.9	53.5	39.0	7.5	100.0(1,74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1$.

2) CCTV 영상정보 열람 신청에 대한 인지 및 경험

어린이집의 CCTV 영상정보 열람 신청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CCTV 영상정보 열람 신청 방법에 대한 인지를 확인한 결과, 알고 있음이 43.9%, 모름이 56.1%로 모르는 경우가 과반이 넘었다. 이는 지역규모와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보였는데, 대도시지역의 부모들과 국공립어린이집의 부모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CCTV 영상정보 열람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94.9%가 경험이 없었고 5.1%만이 열람 경험이 있었다.

표 VI-10-19 CCTV 영상정보 열람 신청 방법 인지 여부 및 열람 경험

단위: %, 점(명)

구분	CCTV 영상정보 열람 신청 방법 인지			CCTV 영상정보 열람 경험		
	알고있음	모름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전체	43.9	56.1	100.0 (1,753)	5.1	94.9	100.0 (761)
영유아구분						
영아	44.1	55.9	100.0 (998)	4.7	95.3	100.0 (433)
유아	43.7	56.3	100.0 (755)	5.7	94.3	100.0 (328)
$\chi^2(df)$	0.0(1)			0.4(1)		
지역규모						
대도시	48.3	51.7	100.0 (611)	4.7	95.3	100.0 (292)
중소도시	40.9	59.1	100.0 (514)	5.4	94.6	100.0 (207)
읍면지역	41.4	58.6	100.0 (628)	5.6	94.4	100.0 (262)
$\chi^2(df)$	8.8(2)**			0.3(2)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52.0	48.0	100.0 (417)	5.4	94.6	100.0 (203)
법인	45.4	54.6	100.0 (90)	5.9	94.1	100.0 (37)
법인·단체등	48.4	51.6	100.0 (96)	3.5	96.5	100.0 (45)
민간	41.8	58.2	100.0 (874)	5.4	94.6	100.0 (372)
가정	39.2	60.8	100.0 (221)	3.6	96.4	100.0 (85)
직장	37.2	62.8	100.0 (55)	6.4	93.6	100.0 (19)
$\chi^2(df)$	15.8(5)***			0.8(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 $p < .001$.

마지막으로 CCTV 영상정보 열람 경험이 있는 부모들에 한하여 열람 신청 사유와 시기를 알아보았다. 열람 신청 사유는 안전사고 의심의 경우가 46.9%, 아동학대 의심 32.5%, 단순 의심 20.6%로 나타났다. 이러한 열람 신청 사유는 지역 규모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대도시의 경우 안전사고 의심의 사유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았다.

한편 CCTV 영상정보 열람 시기는 신청 즉시가 42.9%, 신청 당일 36.4%, 신청 후 10일 이후가 14.6%, 열람 거부당함도 6.1%가 있었다. 이러한 열람 시기는 영유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유아의 경우는 즉시 또는 10일 이후가 많았고 영아는 신청 당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VI-10-20 ▮ CCTV 열람 신청 사유와 시기

단위: %(명)

구분	CCTV 영상정보 열람 신청 사유			CCTV 영상정보 열람 시기					계(수)
	아동학대 의심	안전사고 의심	단순의심	즉시	신청 당일	신청 후 10일 이내	신청 후 10일 이후	열람 거부 당함	
전체	32.5	46.9	20.6	42.9	36.4	-	14.6	6.1	100.0(41)
영유아구분						-			
영아	42.7	38.3	18.9	25.8	56.1	-	6.6	11.6	100.0(22)
유아	21.1	56.4	22.5	62.0	14.3	-	23.7	-	100.0(19)
χ^2 (df)		1.9(2)					12.1(3)***		
지역규모									
대도시	6.0	70.7	23.4	31.7	45.2	-	23.2	-	100.0(13)
중소도시	48.1	24.4	27.6	58.9	25.1	-	8.4	7.7	100.0(12)
읍면지역	53.7	46.3	-	31.5	42.6	-	10.5	15.3	100.0(16)
χ^2 (df)/F		10.9(4)**					7.0(6)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51.8	23.1	25.1	30.6	49.3	-	12.7	7.3	100.0(14)
법인	-	19.8	80.2	80.2	-	-	19.8	-	100.0(2)
법인·단체등	100.0	-	-	-	70.3	-	-	29.7	100.0(3)
민간	29.3	58.8	11.9	51.9	22.5	-	19.5	6.1	100.0(18)
가정	-	62.4	37.6	37.6	62.4	-	-	-	100.0(3)
작장	-	100.0	-	-	100.0	-	-	-	100.0(1)
χ^2 (df)/F		17.8(10)*					10.5(1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1$, *** $p < .001$.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열람 신청에 대한 거부 사유는 4명에 불과하여 많지는 않았으나 기간 경과가 51.7%,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 48.3%였다.

■ 표 VI-10-21 ■ 어린이집 CCTV 열람 거부 사유

						단위: %(명)
기간 경과(60일)	사생활 침해	영상자료 훼손	신청 사유 부적합	단순 거부	계(수)	
51.7	48.3	-	-	-	100.0(4)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11 시사점

제 6장에서는 어린이집 이용 실태 및 요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근거로 결론 및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집 이용 특성, 비용, 제공서비스와 특별활동 및 만족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전반적인 어린이집 이용에 있어서 민간어린이집 이용률은 51.9%로 이전보다 줄었으나, 가정 어린이집이 14.7%로서 약 67%에 해당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21.7%정도에 그치고 있다. 현재 보육의 공공성이 주요한 보육정책의 이슈임을 고려할 때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률을 높이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질 제고를 위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희망이용시간의 격차가 1시간 정도 나타나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이용 시간만큼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용시간과 희망시간 격차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에 대한 인지율이 높지 않으며 12시간까지 이용이 필요 없다는 의견도 많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아이의 발달과 부모 및 현장의 요구가 가장 잘 부합하는 선에서 이용시간과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여전히 취업모와 미취업모가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취업모와 미취업모간 이용 시간을 차별화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맞춤형 보육 제도를 도입하여 이미 맞춤형 보육이 실시되고 이용률이 21.6%로 나타나고 있다. 미취업모는 평균 7시간 48분

이용을 원하고 취업모는 평균 9시간 6분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취업 여부에 따른 요구사항이 반영된 어린이집 운영 시간 조정이 필요함을 재차 알 수 있다.

셋째, 더 좋은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다면, 비용을 더 많이 내더라도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42.5%로, 2012년 조사 23.5%, 2015년 29.6%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담 의사가 있는 경우 비용 부담 수준은 평균 106,500원으로 2015년 평균 118,500원, 2012년에 비해(평균 165,300원)에 비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질 제고는 필요하나 취약 계층을 위한 비용의 정책적 배려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현재 기관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평균 2.4개, 이용 아동 평균은 3.4개로 나타나 2015년과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별활동 프로그램 중에서는 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34.0%)가 가장 높았다. 아동 특성별로 영아와 유아 모두 예능에 대한 선호가 더욱 두드러졌는데, 이는 2015년과는 다른 양상이나 체육에 대한 선호(29.2%)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관의 특별활동이 무분별한 학원 이용을 자제시키고,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반추해 볼 때,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때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비용 지원보다는 교육과정의 활동에 대한 강화 및 직접적인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한 방법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다섯째,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개선 요구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부모들의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하는 추세이고 부모 참여에 대한 의향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어린이집 만족도가 유사하고 약간의 차이만 나타났다. 그러나 만족도 세부 항목에서 취업모의 부모 참여와 교육 항목에서는 취업모의 만족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부모 참여에 대한 의향은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취업모의 참여와 교육에는 어려움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취업모의 어린이집 참여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어린이집의 취약보육, 시간제보육 이용 실태, 보육서비스 이용 의사, 입소대기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취약보육 활용률은 매우 낮은 편으로 계 중에서는 시간연장보육 활용률이 어린이집 이용자의 4.5%로 높은 편이었다.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용 시간도 평일 약 1시간, 주말 약 2시간 42분 남짓으로 활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취약 보육서비스는 어린이집 이 외에 다른 대안적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영유아 가구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지원 정책이기는 하나, 이용률 자체가 지나치게 낮아 공급 자체를 증가시키는 데에도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취약보육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아 다시 이용률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간연장보육 등 취약보육 지원체계에 대해서는 영유아 가구 입장에서 보다 이용이 편리한 형태로 전면적인 지원 체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긴급 상황이나 아이가 아플 때 영유아 부모들은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본다고 응답하였으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부모가 돌본다는 응답이 매우 높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혈연관계의 사람이 돌본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긴급 상황이나 아이가 아픈 경우와 같은 긴급 돌봄 필요에 대해 공공서비스보다는 영유아 가구가 개별적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맞벌이 영유아 가구의 심리적 압박을 강하게 만들어서 일가정 양립이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만, 긴급 돌봄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공공의 기관 등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제공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측면에서 제도 개선과 지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취약보육서비스나 긴급 보육과 마찬가지로 시간제보육의 경우에도 이용률이 높지 않았으며, 만족도도 5점 기준 평균 3.7점으로 다른 서비스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하지는 않았다. 특히 0세아의 경우에 낮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이는 0세아들의 분리불안 등으로 인한 현상으로 보인다. 시간제보육은 기본적으로 가정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는데 이의 효과성이 낮고 만족도 제고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아이가 익숙한 장소에서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가정 보육사를 파견하는 등의 다른 형태의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 볼 직 할 것이다.

넷째, 영유아의 취학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의사와 관련하여서는 영아기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다가, 취학 전 2년 동안은 유치원에 대한 높은 선호를 보였다. 특히 취학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유치원에 대한 선호는 더 뚜렷이 관측되는데, 이는 자녀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유치원의 공급 상황이나 현재 이용 기관 등을 고려하여 영유아 가구가 수요를 조정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즉, 다른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학부모들의 요구에만 맞추어 보육·교육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한다면, 생활연령 기준 5세와 6세의 경우에는 유치원 공급을 현재보다 크게 증가시켜나가고, 어린이집은 영아기와 4세아들에 대한 지원으로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수급 균형에 맞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영유아 부모들은 어린이집 뿐 아니라 유치원의 경우에도 국공립 기관에 대한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가능하면 국공립 기관을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처럼 영유아 부모들이 국공립 기관을 선호하는 이유는 민간 혹은 사립 유치원에 비해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공립 유치원이 신뢰가 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사항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국공립 기관이 보다 믿을 수 있다는 영유아 부모들의 기대를 엿볼 수 있었다. 따라서, 국공립 기관의 전반적인 확충과 더불어 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영유아 부모들의 보육·교육서비스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소대기 경험은 33.5%, 대기 기간은 평균 7.6개월로 2015년 대비 약간 길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의 경우가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기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대한 인지는 매우 높았다. 또한, 80%의 이용자가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투명한 입소자 관리가 된다는 점과 우선순위의 임의조정이 방지된다는 점에 높은 지지를 보였다. 다만, 일부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이 오히려 이용에 불편이 있음을 호소하

고 있으며, 수기 방식을 선호하기도 하였다.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불만족하는 사유는 매우 다양하여 특정 사유에 쏠림이 없어서, 인터넷 사용 등이 용이하지 않은 읍면지역 거주자나 저소득 가구 등이 보다 편리하게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만 개선된다면 투명하면서도 형평성이 보장되는 대기자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보육정책 인지도 및 관련 인식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육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이전에 비해 나아졌지만, 여전히 일부 보육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나,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식되는 비율(약간 다름+거의 비슷)이 약 91.6%에 달하므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과 더불어 민간 인프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이용률도 그리 높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 그간의 홍보와 공모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낮은 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어린이집 CCTV 설치의 아동학대 예방 효과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열람 신청방법에 대한 인지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수요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에 대한 홍보와 정보 안내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다가서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겠다.

VII

유치원 이용 및 요구

- VII-1. 유치원 이용 특성
- VII-2. 유치원 이용 비용
- VII-3. 유치원 제공 서비스
- VII-4. 방과후 특성화활동
- VII-5. 유치원 만족도 및 개선 요구
- VII-6. 시사점



VII. 유치원 이용 및 요구

7장에서는 유치원 이용 아동(만 3-5세)의 기관 이용 특성과 요구를 연령, 지역 규모, 유치원의 설립유형, 어머니의 취업여부 등에 따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유치원 이용 특성

유아교육법 제11조에 의하면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유아(개정 2010.3.24)로,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유아교육법 개정 2010.3.24.). 본 조사에서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유아는 총 1,009명이었으나, 이중 생활연령으로는 3세이나 학급(보육)연령으로는 2세인 영아(4명)는 분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본 절에서는 유형별 유치원 이용률을 비롯하여 유치원 유형별 이용 아동의 특성, 이용 시기 및 기간, 이용 일수 및 시간, 등·하원 등 유치원 이용과 관련된 특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가. 유형별 유치원 이용률

본 조사에 응답한 유치원 이용 아동을 보육연령에 따라 구분한 결과, 3세 24.7%, 4세 32.2%, 5세 43.0%로 5세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치원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2012년, 2015년에 이어 지속되고 있다. 유아가 이용하는 유치원의 유형을 국·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국·공립유치원은 29.8%가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70.2%의 유아가 사

립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년도 조사결과와 함께 살펴보면 우리나라 유아의 국·공립유치원 이용 비율은 2012년 22.6%, 2015년 24.9%, 2018년 29.8%로 지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진다.

표 VII-1-1 | 유치원 유형별 이용률

단위: %(명)

구분	2018년		2015년		2012년	
	비율	계(수)	비율	계(수)	비율	계(수)
전체	100.0	100.0 (1,005)	100.0	100.0 (742)	100.0	100.0 (744)
보육연령						
3세	24.7	100.0 (271)	22.2	100.0 (159)	22.0	100.0 (161)
4세	32.2	100.0 (318)	37.0	100.0 (294)	37.4	100.0 (279)
5세	43.0	100.0 (416)	40.8	100.0 (289)	40.5	100.0 (301)
유치원 유형						
국·공립	29.8	100.0 (365)	24.9	100.0 (240)	22.6	100.0 (168)
사립	70.2	100.0 (640)	75.1	100.0 (502)	77.4	100.0 (576)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나. 유치원 유형별 이용 아동 특성

유치원 이용 아동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는 47.4%로 2015년 39.0%, 2012년 40.3%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휴직중인 3.0%를 포함하면 50.4%에 달하여 취업모 가구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²⁰⁾. 유아의 연령별로는 3세 유아 어머니의 취업률이 51.8%로 가장 높았으며, 휴직중인 비율도 3세 유아에서 가장 높아 4.5%에 해당하였다. 유치원 유형별로는 국·공립유치원 이용 유아의 어머니가 취업 중인 비율은 43.4%, 사립유치원 이용 유아의 어머니 취업 중인 비율은 49.1%로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의 어머니가 취업중인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사립유치원이 등하원 차량을 운행하며, 방과후 과정을 실시하는 등 취업모 또는 맞벌이 가구의 요구에 더욱 부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유치원 이용 유아의 43.9%가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도시에 40.5%, 읍·면지역에 15.6% 순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유치원 이용 아동 중 중소도시 거주 비율과 읍·면지역 거주 비율이 다소 하락하였고, 대도시지역 거주 비율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경향은 유사하였다.

20) 이는 2018년도 보육실태조사 응답가구의 특성임.

한편 유치원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중소도시가 가장 높았고(40.8%), 읍·면지역(33.9%), 대도시(25.3%) 순으로 대도시 거주 유아들이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이 가장 낮았으나, 2015년 조사에서 대도시지역의 국·공립유치원 이용 유아 비율이 19.6%에 불과하였던 결과에 비하면²¹⁾ 상당히 증가한 결과이다. 대도시지역의 국·공립유치원 이용 비율이 낮은 것은 타지역에 비해 대도시 지역의 국·공립유치원 설치율이 낮은 현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립유치원은 대도시(46.9%), 중소도시(45.2%), 읍·면지역(7.9%) 순으로 도시지역에서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VII-1-2 유아 연령별, 유치원 이용 유형별 모취업 여부, 지역규모 특성

단위: %(명)

구분	해당 비율	모 취업 여부				지역규모			계(수)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등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전체	100.0	47.4	3.0	47.9	1.7	40.5	43.9	15.6	100.0(1,005)
보육연령									
3세	24.7	51.8	4.5	42.6	1.1	41.3	44.2	14.5	100.0(271)
4세	32.2	44.6	3.6	50.5	1.4	39.7	43.2	17.1	100.0(318)
5세	43.0	47.0	1.7	49.0	2.3	40.6	44.2	15.2	100.0(416)
유치원 유형									
국·공립	29.8	43.4	2.7	51.5	2.4	25.3	40.8	33.9	100.0(365)
사립	70.2	49.1	3.1	46.4	1.4	46.9	45.2	7.9	100.0(640)
2015년 조사	100.0	39.0	2.4	57.7	-	38.0	44.7	17.3	100.0(742)
2012년 조사	100.0	40.3	1.4	57.8	-	36.3	43.4	20.3	100.0(744)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다. 유치원 이용 이유

1) 이용 이유

유아 가구에서 유치원을 이용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표 VII-1-3>에 따르면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유치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38.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가 24.3%,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가 18.5%,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7.0% 순으로 응답되었다. 이 같은 응답 경향은 2015년과 거의 동일하였으나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의 응답이 2015년 3.3%

21) 김은설 외(2016). <표 VII-1-2> 참조.

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도 2.6%에서 4.1%로 다소 증가하였다. 유아의 연령별로는 다소간의 응답률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유치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연령에 상관없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3세(42.2%), 4세(43.5%)에 비해 5세에는(32.3%)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유치원을 이용한다는 응답 비율이 3세 8.0%에서 4세 17.1%, 5세 25.6%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은 3세에 8.1%로 가장 높았다.

즉, 유치원은 전반적으로 유아의 발달을 위해 이용하고자 하나, 초등학교를 준비하는 기관으로서도 강하게 인식되고 있어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취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이용 이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조사의 결과를 통해 유치원이 비록 대표적인 '유아교육' 기관이나 어린 연령의 유아에게는 부모를 대신할 '대리 돌봄'의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었다. 이는 유치원도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의 유아를 위해서는 '돌봄' 기능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하겠다.

표 VII-1-3 연령별 유치원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3세		4세		5세		전체	
	2018	2015	2018	2015	2018	2015	2018	2015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42.2	44.7	43.5	35.9	32.3	44.0	38.4	41.2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8.0	13.3	17.1	22.1	25.6	23.8	18.5	20.9
특기교육을 위하여	2.0	1.4	2.1	1.5	2.0	0.2	2.0	0.9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8.1	4.9	6.6	3.7	6.7	2.1	7.0	3.3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28.2	27.3	20.5	25.6	24.9	18.2	24.3	22.9
주위에 놀이상대가 없어서	.7	1.2	.6	1.2	1.2	0.1	.9	0.7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5.7	3.9	4.6	1.4	2.9	3.0	4.1	2.6
비용 부담 적어서	5.2	1.1	4.8	5.6	4.4	6.3	4.7	4.9
기타	-	2.1	-	3.0	-	2.4	-	2.5
계(수)	100.0 (271)	100.0 (159)	100.0 (318)	100.0 (294)	100.0 (416)	100.0 (289)	100.0 (1,005)	100.0 (742)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한편 이러한 유치원 이용 이유를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유치원 유형에 따라서는 유치원 이용 이유의 순위는 국·공립, 사립유치원 이용을 불문하고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사회성 발달을 위해’,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이용한다는 주요한 이유들은 동일한 순위로 나타났으나, 응답 비율에 차이가 발견되었다. 국·공립유치원은 상대적으로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26.6%로 사립유치원 이용 이유의 15.1%에 비해 11.5%p나 높은 비중으로 응답되었다. 또한 국·공립유치원 이용 이유로 ‘비용 부담이 적어서’라는 응답이 12.4%로 사립유치원의 이용자의 응답률 1.5%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즉, 국·공립유치원은 ‘저렴한 비용’이 장점이자 부모들의 국·공립유치원 이용의 주요 이유로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공립유치원은 대다수가 초등학교에 병설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환경을 미리 접하여 적응력이 높고, 많은 부분 초등학교의 체계가 많이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이용한다는 응답도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이유는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8.4%로 국·공립유치원의 3.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되었는데, 이는 취업모와 맞벌이 가구를 배려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국·공립유치원보다 사립유치원에서 더 활성화 되어 있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 표 VII-1-4 ▣ 제 특성별 유치원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취업 여부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등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27.8	42.8	40.3	41.3	25.3	38.0	49.3	38.1	35.9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26.6	15.1	16.5	17.5	26.5	17.3	9.6	19.6	38.4
특기교육을 위하여	0.8	2.6	2.1	1.6	3.0	3.3	-	1.1	-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3.8	8.4	7.8	7.2	4.4	13.2	4.8	0.9	11.9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20.7	25.8	25.8	21.0	29.6	22.2	19.7	27.5	-
주위에 놀이상대가 없어서	1.8	0.5	0.8	-	3.7	.6	-	1.1	5.4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6.1	3.3	2.9	5.0	5.0	1.9	11.8	5.7	8.4
비용 부담 적어서	12.4	1.5	3.9	6.3	2.6	3.6	4.8	6.0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65)	(640)	(364)	(317)	(324)	(486)	(33)	(468)	(18)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한편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모두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에 응답한 비율이 각각 40.3%, 41.3%로 가장 높았으나 읍면지역의 경우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가 29.6%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또한 읍면지역에서는 '사회성 발달'을 위해 유치원을 이용한다는 응답 다음으로도 '전인적 발달'이 아닌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유치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26.5%로 높아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읍면지역은 '주위에 놀이상대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7%로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읍면지역의 영유아 인구가 적고, 밀집도가 낮기 때문에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관련 없이 유치원을 이용하는 이유로 '아이의 전인적 발달', '사회성 발달', '초등학교 준비' 순으로 응답하는 경향은 유사하였으나, 특히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는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 서'의 응답 비율이 13.2%로 미취업모 0.9%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가 부재중인 경우도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 서' 유치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11.9%로 주요 응답에 해당하였다.

2) 돌볼 사람이 있을 경우 유치원 이용 의사

한편, 유치원 이용 이유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 서'라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집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면 유치원을 계속 이용할 것인지 의사를 질문한 결과, 90.2%의 응답자가 '기관에 계속 보내겠다'고 응답하였다.

▮ 표 VII-1-5 ▮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 서라고 응답한 경우) 돌볼 사람이 있을 경우 기관 이용 의사

단위: %(명)

구분	3세		4세		5세		전체	
	2018	2015	2018	2015	2018	2015	2018	2015
아무데도 안 보냄	12.5	10.1	4.7	19.1	11.6	-	9.8	10.9
기관에 계속 보냄	87.5	89.9	95.3	80.9	88.4	100.0	90.2	89.1
계(수)	100.0(23)	100.0(10)	100.0(22)	100.0(12)	100.0(25)	100.0(8)	100.0(70)	100.0(30)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즉, 집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면 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겠다는 응답은 9.8%에 불과하였고, 이는 2015년 조사결과 10.9%에 비해서도 감소한 수치이다.

앞서 살펴본 유치원 이용 중 주요한 이유는 유아의 전인발달과 사회성발달, 초등학교 준비였기 때문에 돌보는 사람의 유무와 관계없이 유치원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유치원 선택 시 고려사항

조사대상 유아가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현재 이용하는 유치원을 선택할 때 주요하게 고려한 사항을 우선순위별로 2가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유아의 부모들이 유치원 선택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던 기준들을 살펴본 결과, ‘집과의 거리’를 고려하였다는 응답이 23.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관의 ‘프로그램’을 고려하였다는 응답이 21.6%, ‘주변의 평판’이 13.6%로 응답되어 유아의 부모들은 대체로 유치원이 집에서 얼마나 가까운지를 고려하며, 그 밖에 교육의 내용, 주변 부모들로부터 얻은 기관에 대한 평판을 유치원 선택 시 우선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주었다. 주요한 선택 기준 외에 기관이 국·공립인지 여부도 비교적 중시하는 사항이었으며(7.4%), 이외에도 ‘교사’(7.3%), 원장(7.1%), 비용(4.7%) 순으로 응답되었다. 이러한 유치원 선택 시 중시하는 사항들은 유아의 연령에 관계없이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다만 3세의 경우는 ‘실내환경(3.5%)’, ‘안전한 보호(1.0%)’, ‘건강·영양(0.6%)’ 등 케어와 관련된 요소들은 4세, 5세에 비해 응답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유치원 선택 시 부모들이 고려한 사항들은 2015년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다만 2018년에는 ‘국·공립 여부’가 선택 시 고려사항이라는 응답 비율이 2015년 3.5%에서 2018년 7.4%로 크게 증가하였고, 반면 ‘비용’을 고려하였다는 응답은 2015년 6.7%에서 4.7%로 2.0%p 감소하여 차이를 보였다. 이는 부모들의 요구에 의해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확대 정책으로 인해 ‘국·공립 기관’에 대한 부모들의 선호가 더욱 증가되었고, 또한 이를 기관의 서비스 질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대변하는 기준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더욱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표 VII-1-6 연령별 유치원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단위: %(명)

구분	3세		4세		5세		전체	
	2018	2015	2018	2015	2018	2015	2018	2015
원장	7.4	4.5	7.0	7.4	7.0	6.1	7.1	6.2
교사	7.6	8.7	7.6	6.2	7.0	8.4	7.3	7.7
운영시간	1.0	1.8	1.9	1.1	2.9	0.3	2.1	0.9
비용	4.2	4.0	4.9	6.8	4.8	8.1	4.7	6.7
프로그램	19.9	24.7	21.6	21.7	22.5	19.7	21.6	21.5
건강·영양	0.6	0.9	0.4	0.2	0.1	1.9	0.3	1.0
기관 학급 규모	0.7	2.7	1.8	0.9	2.1	2.6	1.7	2.0
실내환경	3.5	2.8	1.6	1.8	2.8	2.9	2.6	2.5
안전한 보호	1.0	3.2	0.6	0.3	0.9	0.8	0.8	1.1
집과의 거리	25.4	25.0	22.1	25.9	22.5	21.7	23.1	24.0
기관 시설·설비	4.0	1.0	2.6	4.6	3.6	2.8	3.4	3.0
국·공립 여부	7.7	0.6	8.3	3.0	6.6	5.4	7.4	3.5
주변의 평판	14.3	14.4	14.0	12.8	12.8	13.4	13.6	13.4
주변환경	1.3	1.9	2.3	2.1	1.8	1.1	1.8	1.6
차량 운행 여부	-	-	0.8	0.7	0.3	2.3	0.4	1.2
특별활동	0.5	0.6	-	1.3	0.7	0.3	0.4	0.8
형제 자원 여부	0.4	2.8	1.8	0.7	1.2	0.7	1.2	1.2
기타	0.5	0.6	0.8	2.4	0.6	1.5	0.6	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수)	(271)	(159)	(318)	(294)	(416)	(289)	(1,005)	(74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1순위 응답비율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현재 이용하는 유치원 선택 시 고려하였던 사항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각각 살펴보았다.

우선, 국·공립, 사립의 유치원 유형에 따라서 선택 시 고려사항을 살펴본 결과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현재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국·공립 여부’가 기관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응답이 25.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집과의 거리’가 20.3%, ‘비용’ 12.6%, ‘교사’와 ‘프로그램’이 모두 9.0%로 나타났다. 반면 사립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프로그램’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다는 응답이 26.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집과의 거리’

24.3%, ‘주변의 평판’ 16.3%, ‘원장’ 8.7%, ‘교사’ 6.7% 순으로 응답되었다. 즉, 국·공립유치원의 경우는 ‘국·공립유치원’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선택 기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 같은 결과는 ‘국·공립’이 내포하고 있는 ‘저렴한 비용의 양질의 서비스’라는 측면이 많은 부모들에게 깊이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한편, 이러한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선호는 2015년에 비해서도 더욱 뚜렷해져서, 2015년 ‘국·공립 여부’가 고려사항이었다는 응답이 13.6%이었으나²²⁾ 2018년 25.0%로 대폭 상승하였다. 또한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사립유치원에 비해 ‘비용’이 고려되었다는 응답이 현저히 높아 ‘저렴한 비용’이 국·공립유치원의 차별적인 장점임이 드러났다. 반대로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응답자들 중 ‘비용’을 고려하였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하였다.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 ‘프로그램’을 고려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는 바, 이러한 결과는 부모들은 사립유치원의 프로그램을 기관별로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었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에서 유치원을 이용하는 응답자들이 ‘프로그램’을 기관 선택시 고려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25.3%), 대도시(24.9%)와 읍면지역은(20.6%) ‘집과의 거리’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지역규모별로 유치원 선택 시 중시되는 고려사항에 차이를 보였다.

모취업 여부별로는 뚜렷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는 집과의 거리와 프로그램을 거의 동일하게 고려하며, 휴직중인 경우는 집과의 거리보다 프로그램, 미취업 상태인 경우는 프로그램 보다 집과의 거리를 더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에 비해(4.4%) 미취업 상태인 경우 ‘비용’을 고려한다는 비중이 다소 높았고(5.1%), ‘실내환경’, ‘기관의 시설, 설비’에 대해서도 어머니가 미취업 상태인 경우가 취업중인 경우에 비해 고려한다는 비율이 더 높았다.

22) 김은설 외(2016). p.279 <표 VII-2-25> 참조

표 VII-1-7 제 특성별 유치원 선택 시 고려사항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취업 여부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등
원장	3.3	8.7	9.1	6.1	4.6	6.0	6.9	7.7	19.4
교사	9.0	6.7	8.5	5.5	9.6	7.1	3.1	7.8	7.9
운영시간	2.0	2.1	1.7	2.0	3.1	2.2	6.1	1.7	-
비용	12.6	1.4	4.1	3.6	9.2	4.4	-	5.1	7.6
프로그램	9.0	26.9	20.0	25.3	15.3	23.7	26.4	20.0	-
건강·영양	0.5	0.2	0.7	-	0.2	0.1	-	0.6	-
기관 학급 규모	3.3	1.0	1.7	1.5	2.0	1.6	1.2	1.9	-
실내환경	3.1	2.3	3.0	1.8	3.5	2.2	-	3.1	-
안전한 보호	0.1	1.1	0.6	1.1	0.5	0.6	-	1.1	-
집과의 거리	20.3	24.3	24.9	22.4	20.6	23.7	20.7	22.4	29.8
기관 시설·설비	2.2	3.9	2.9	4.3	1.9	1.9	3.4	4.9	-
국·공립 여부	25.0	-	5.2	7.6	12.6	7.8	5.2	7.0	15.2
주변의 평판	7.2	16.3	14.0	13.9	11.6	12.7	18.4	14.1	13.6
주변환경	0.6	2.4	2.3	1.2	2.4	2.7	-	1.2	-
차량 운행 여부	0.8	0.2	-	0.3	1.5	0.6	-	-	4.0
특별활동	0.8	0.2	0.5	0.3	0.3	0.5	-	0.4	-
형제 자원 여부	0.3	1.6	0.5	1.9	0.9	1.4	8.7	0.4	2.6
기타	0.1	0.8	0.2	1.1	0.2	0.8	-	0.5	-
(수)	(365)	(640)	(364)	(317)	(324)	(486)	(33)	(468)	(1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1순위 응답비율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집과의 거리’, ‘프로그램’, ‘주변의 평판’, ‘국·공립 여부’가 부모들이 유치원 선택 시 가장 많이 고려한 사항들로 나타났으나, 소득구간 400만원 이상 가구에서 특히 ‘프로그램’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가구소득 400만원 미만에서는 ‘집과의 거리’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유치원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가구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유치원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 ‘비용’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가구소득 25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비용’을 유치원 선택 기준으로 응답한 비율이 1.4%에서 최대 6.8%에 불과하였음에 반하여,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인 경우 16.6%, 200~249만원 이하에서는 17.2%에 달하여 응답 비중이 현저히 높았다.

표 VII-1-8 | 가구소득별 유치원 선택 시 고려사항

단위: %(명)

구분	199 만원 이하	200 ~249 만원	250 ~299 만원	300 ~349 만원	350 ~399 만원	400 ~499 만원	500 ~599 만원	600 ~699 만원	700 만원 이상	모름/ 무응답
원장	2.0	6.7	11.7	9.8	6.8	11.4	6.6	3.7	3.9	-
교사	3.6	2.4	7.9	6.3	8.7	11.4	7.6	6.8	5.1	18.8
운영시간	6.0	2.6	4.2	4.2	0.9	-	0.2	2.5	2.8	-
비용	16.6	17.2	4.0	1.6	6.8	3.0	3.7	3.4	1.4	-
프로그램	5.9	5.1	13.7	16.1	16.9	19.7	28.0	36.8	26.7	-
건강·영양	-	-	1.7	0.8	-	-	-	-	-	-
기관 학급 규모	1.8	4.5	2.0	-	-	1.2	2.9	0.3	2.7	-
실내환경	-	3.8	2.4	1.4	3.8	6.4	2.7	-	1.4	-
안전한 보호	1.1	1.0	0.6	5.8	-	-	1.4	-	0.8	-
집과의 거리	22.7	18.2	18.9	29.5	28.7	19.4	22.1	18.9	26.4	47.6
기관 시설·설비	-	4.9	5.7	-	4.7	1.4	2.6	1.9	3.9	-
국·공립 여부	16.0	23.8	8.1	4.5	7.8	6.6	5.4	9.9	2.2	33.7
주변의 평판	13.2	8.7	16.9	18.0	11.6	11.1	13.4	9.7	17.0	-
주변환경	4.3	-	-	2.1	1.5	5.7	1.7	2.1	1.8	-
차량 운행 여부	3.5	-	0.7	-	-	-	0.8	-	-	-
특별활동	3.3	-	1.2	-	-	-	-	0.9	-	-
형제 자원 여부	-	1.2	0.3	-	1.6	-	0.2	2.2	3.2	-
기타	-	-	-	-	0.2	2.8	0.7	0.8	0.6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1순위 응답비율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라. 유치원 이용 시기 및 기간

1) 유치원 이용 시작 시기

현재 유치원 이용 유아의 유치원 이용 시작 시기는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표 VII-1-9>에서는 2018년 보육실태조사 대상 영유아중 현재 유치원 이용 유아가 최초로 이용했던 반일제 이상 기관도 유치원이었던 경우 그 유치원을 ‘최초로’ 이용 시작한 시기를 살펴보고, <표 VII-1-10>에서는 현재 유치원 이용 유아들의 현재 재원중인 유치원 이용 시작 시기를 살펴보았다.

먼저, <표 VII-1-9>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 이용 유아중 최초로 이용했던 반일제 이상 기관이 유치원인 유아는 233명이며 이들은 평균 46.2개월에 유치원 이용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유치원 이용 유아는 평균 46.4개월,

사립유치원 이용 유아는 46.1개월로 기관유형을 불문하고 시작 시기가 유사하였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 거주 유아의 유치원 이용 시작 시기가 가장 빨라서 평균 42.1개월에 시작하였으며, 대도시 46.5개월, 중소도시 48.2개월로 중소도시 거주 유아의 유치원 이용 시작 시기가 가장 늦었던 것으로 조사 되었다. 지역 규모별 시작 시기의 경향은 기관유형을 불문하고 동일하였으나, 유치원 이용 시작 시기가 가장 늦은 것은 중소도시 거주 국·공립유치원 이용 유아로 이용 시작 시기가 유아의 월령이 50.5개월인 때였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별로 유치원 이용 시작 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부재한 경우 등에 유아의 월령 42.2개월에 유치원을 이용해 가장 빨랐고, 휴직중인 경우 42.4개월, 취업중인 경우 44.8개월, 미취업인 경우 47.4개월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 유치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이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표 VII-1-9 유치원 최초 이용 시기(최초 이용 기관이 유치원인 경우)

단위: 개월(명)

구분	국·공립			사립			전체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46.4	11.3	(104)	46.1	9.5	(129)	46.2	10.1	(233)
지역규모									
대도시	47.5	12.5	(16)	46.2	9.8	(49)	46.5	10.4	(65)
중소도시	50.5	7.9	(21)	47.2	8.5	(48)	48.2	8.4	(69)
읍면지역	42.5	11.9	(67)	41.0	11.3	(32)	42.1	11.6	(99)
F	4.0**			2.7*			6.0***(a)		
모취업 여부									
취업	45.3	12.4	(40)	44.5	10.0	(51)	44.8	10.8	(91)
휴직중	46.3	17.1	(2)	41.3	12.4	(4)	42.4	11.1	(6)
미취업	47.6	10.3	(59)	47.2	9.0	(72)	47.4	9.5	(131)
모부재 등	27.8	7.9	(3)	50.3	2.5	(2)	42.2	12.8	(5)
F	1.8			1.4			1.6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현재 유치원 이용 유아 중 최초 이용 기관이 유치원인 경우를 대상으로 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현재 유아가 재원중인 유치원을 최초로 이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평균 48.0개월이었으며, 국·공립유치원(50.5개월) 보다 사립유치원(46.9개월)의 이용이 약 3.6개월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 거주 유아가 평균적으로 46.9개월에 유치원 이용을 시작하여, 대도시와 중소도시에(48.2개월) 비해 약 1.3개월 정도 일찍 유치원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휴직중인 경우 45.2개월에 유치원 이용을 시작하여 가장 빨랐고, 다음으로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47.8개월, 미취업 48.2개월, 부재 등 52.0개월로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를 2015년, 2012년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유치원을 이용 중인 경우, 현재 이용 중인 유치원의 최초 이용 시기가 지속적으로 빨라지고 있는 경향을 엿볼 수 있었다. 다만, <표 VII-1-10>에 제시한 결과는 ‘현재 (이용하는)’ 유치원의 최초 이용 시작 시기로 유치원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어린이집이나 다른 유치원 이용 경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작 시기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실제 현재 유치원 이용 아동 중에도 최초로 이용한 기관은 어린이집인 경우가 많으므로, 반일제 이상 기관의 이용 시기 등 전반적인 경향은 어린이집과 반일제 이상 학원을 포함한 결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전에 어린이집 등 여타의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다가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유치원 이용 시기가 이전에 비해 점차 빨라지고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현재의 유치원이 유아가 최초로 이용하는 반일제 이상 기관인 경우 및 여타의 기관에서 현재의 유치원으로 이동하여 이용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유치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기가 이전에 비해 빨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VII-1-10 | 현재 이용 유치원 최초 이용 시작 시기

단위: 개월(명)

구분	국·공립			사립			전체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50.5	11.3	(365)	46.9	9.8	(640)	48.0	10.4	(1,005)
지역규모									
대도시	51.6	10.8	(69)	47.4	9.7	(295)	48.2	10.0	(364)
중소도시	52.3	11.1	(89)	46.6	9.7	(228)	48.2	10.4	(317)
읍면지역	47.6	11.5	(207)	45.6	11.1	(117)	46.9	11.4	(324)
F	5.4***			1.1			1.0		
모취업 여부									
취업	50.1	10.6	(169)	47.0	10.2	(317)	47.8	10.4	(486)
휴직중	52.5	15.2	(11)	42.6	9.9	(22)	45.2	12.1	(33)
미취업	50.7	11.5	(175)	47.1	9.4	(293)	48.2	10.2	(468)

구분	국·공립			사립			전체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모부재 등 F	53.6	17.8	(10)	50.8	6.3	(8)	52.0	12.1	(18)
		0.3			2.0			1.7	
2015년 조사	53.3	9.9	(240)	49.1	8.5	(502)	50.2	9.1	(742)
2012년 조사	55.8	11.5	(168)	50.8	9.9	(576)	51.9	10.5	(74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2) 현재 이용 유치원 재원기간

다음으로 현재 이용하는 유치원의 재원기간을 살펴보았다. 현재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유아들은 현재의 유치원을 16.9개월째 이용하고 있었으며, 기관유형별로는 국·공립유치원 15.7개월, 사립유치원 17.4개월로 사립유치원 재원 기간이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약 1.7개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표 VII-1-10>에서 국·공립유치원 보다 사립유치원 이용자의 이용 시작시기가 빨랐던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거주 유아의 유치원 재원기간은 16.6개월, 16.7개월로 거의 동일하였는데 반하여, 읍면지역 유아의 재원기간은 18.1개월로 약 1.4~1.5개월가량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단, 국·공립유치원의 경우는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읍면지역 거주 유아의 재원 기간이 3.4개월 길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부재한 경우 재원 기간이 가장 길었고(17.4개월), 어머니가 휴직중인 경우 15.0개월 재원 중으로 재원 기간이 가장 짧았다. 어머니가 미취업 상태인 경우 17.0개월째 재원 중으로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16.9개월)에 비해 재원 기간이 미미하게 길었으나 어머니 취업 여부에 따른 현재 이용 유치원 평균 재원 기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현재 이용 유치원 재원기간은 2012년 12.23개월, 2015년 13.4개월에서 16.9개월로 지속하여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유치원 이용 시기가 앞당겨지는 경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한편으로는 한 기관을 선택 시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증가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표 VII-1-11 현재 이용 유치원 재원기간

단위: 개월(명)

구분	국·공립			사립			전체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15.7	10.4	(365)	17.4	10.9	(640)	16.9	10.8	(1,005)
지역규모									
대도시	14.6	8.7	(69)	17.1	10.9	(295)	16.6	10.6	(364)
중소도시	14.6	9.3	(89)	17.5	10.8	(228)	16.7	10.5	(317)
읍면지역	18.0	12.3	(207)	18.4	11.9	(117)	18.1	12.1	(324)
F	3.7**(a)			0.4			1.2(a)		
모취업 여부									
취업	15.2	10.2	(169)	17.6	11.5	(317)	16.9	11.2	(486)
휴직중	11.5	12.3	(11)	16.2	7.9	(22)	15.0	9.3	(33)
미취업	16.3	10.3	(175)	17.3	10.6	(293)	17.0	10.5	(468)
모부재 등	16.9	13.9	(10)	17.8	7.3	(8)	17.4	10.1	(18)
F	0.8			0.1			0.3		
2015년 조사	13.3	9.0	(240)	13.5	8.6	(502)	13.4	8.7	(742)
2012년 조사	9.60	7.81	(168)	13.02	9.81	(576)	12.23	9.49	(74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p < .01.

마. 유치원 이용 일수 및 이용 시간

1) 이용 요일 및 이용 일수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가 유치원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요일을 모두 표기하도록 하여,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요일 및 주당 정기적 이용 일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VII-1-12〉에 따르면 유치원 이용 유아는 평일기준으로 5일은 거의 100% 정기적으로 이용하며, 반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1-12 지역 및 모 취업 여부별 유치원 이용 요일 유형

단위: %(명)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취업	휴직중	미취업	모부재 등
월요일	100.0	99.8	100.0	100.0	100.0	99.8	100.0
화요일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요일	100.0	99.8	100.0	100.0	100.0	99.8	100.0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취업	휴직중	미취업	모부재 등
목요일	100.0	99.7	100.0	100.0	100.0	99.7	100.0
금요일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토요일	-	-	-	-	-	-	-
일요일	-	-	-	-	-	-	-
정기적 이용일 수 (수)	5.0 (364)	5.0 (317)	5.0 (324)	5.0 (486)	5.0 (33)	5.0 (468)	5.0 (1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이용 시간

가) 등하원 시각

유치원의 등원 시각을 살펴보면, 전체의 3.7%가 8시까지 등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아동이 등원하는 시각은 오전 8:31~9:00시 사이로 48.0%의 아동이 이 시간대에 등원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오전 9:01~9:30분 사이에 23.4%, 8:01~8:30분 사이에 19.4% 순으로 등원하는 아동이 많았다. 2012, 2015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8시까지의 등원 비율은 2012년 6.2%, 2015년 4.8%, 2018년 3.7%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아의 연령별로는 4세 유아가 8시 31분에서 9시 사이에 등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50.6%), 9시 30분 이후의 등원 비율이 3세는 8.6%, 4세 6.2%, 5세 3.2%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9시 30분 이후의 비교적 늦게 등원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표 VII-1-13 | 연령별 유치원 등원시각

구분					단위: %(명)	
	3세	4세	5세	전체	2015	2012
7:30까지	-	0.8	0.3	0.4	0.7	0.4
7:31~8:00	1.9	3.9	3.8	3.3	4.1	5.8
8:01~8:30	21.9	16.1	20.3	19.4	21.0	28.5
8:31~9:00	43.9	50.6	48.5	48.0	42.6	37.0
9:01~9:30	23.7	22.4	24.0	23.4	26.8	24.4
9:31~10:00	8.6	6.0	3.2	5.4	4.7	3.8
10:01 이후	-	0.2	-	0.1	0.1	-

구분	3세	4세	5세	전체	2015	2012
계(수)	100.0 (271)	100.0 (318)	100.0 (416)	100.0 (1,005)	100.0 (742)	100.0 (744)
χ^2 (df)	21.2(12)**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한편,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어머니의 취업 여부 등 제 특성에 따른 등원 시각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VII-1-14>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우선 국·공립, 사립 등 유치원 유형에 따라서는 유아의 등원 시각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였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모두 8:31~9:00시 사이에 등원하는 비율이 각각 55.3%, 44.9%로 가장 높았으나 국·공립유치원은 8시 30분 이전 등원하는 비율도 30.9%로 사립유치원에(19.7%) 비해 11.2%p나 높았다. 8시 이전 조기 등원도 국·공립유치원 이용 유아의 6.5%로 사립유치원 이용 유아(2.5%)에 비해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립유치원은 9시 30분 이후의 등원 비율이 7.2%로 국·공립유치원 이용 유아의 1.2%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즉, 국·공립, 사립의 유치원 유형을 불문하고 8:31~9:00시 사이 등원 비율이 가장 높으나, 상대적으로 국·공립유치원 이용 유아는 일찍 등원하는 경향이 있고 사립유치원은 상대적으로 등원 시간이 늦은 경향이 나타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규모별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대도시, 중소도시 거주 유아에 비해 읍면지역 거주 유치원 이용 유아의 등원이 비교적 빨라 8시까지 등원이 8.0%에 달해, 대도시 3.0%, 중소도시 2.8%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반면, 대도시, 중소도시 유아는 8:31~9:00시 사이 등원 다음으로 9:01~9:30분 사이의 등원 비율이 가장 높아 9시 이후 등원 비율이 대도시 31.3%, 중소도시 32.9%에 달하고 있음에 반하여, 읍면지역 거주 유아는 9시 이후의 등원 비율이 매우 낮아 11.3%에 불과하여, 도시지역보다 일찍 등원하는 경향을 보였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별로 살펴본 결과, 유아들은 어머니가 부재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8:31~9:00시 사이에 가장 많이 등원하고 있었다. 특히 미취업모의 이 시간대 등원 비율이 높아 53.6%에 달하였다. 어머니가 취업 중인 경우 상대적으

로 유아들의 등원 시각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8시까지 등원하는 경우가 어머니가 미취업 상태인 경우 1.3%에 불과하였으나 취업모 가정의 유아는 5.7%가 8시까지 등원하였고, 8:01~8:30분 사이 등원도 25.6%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어머니가 휴직중인 경우와(33.0%) 미취업인 경우(26.9%) 두 번째로 등원 비율이 높은 시간대는 9:01~9:30분 사이로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에 비해 다소 늦게 등원하는 경향을 보였다. 어머니가 부재한 경우는 사례수가 매우 작아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8:01~8:30분 사이의 등원 비율이 41.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7:31~8:00시 사이 등원 비율도 22.8%에 달하는 등 어떤 경우보다 등원을 일찍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VII-1-14 제 특성별 유치원 등원시각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등
7:30까지	0.4	0.4	0.3	0.3	0.8	0.7	-	0.1	-
7:31~8:00	6.1	2.1	2.7	2.5	7.2	5.0	-	1.2	22.8
8:01~8:30	24.4	17.2	20.2	16.0	26.4	25.6	26.4	12.0	41.9
8:31~9:00	55.3	44.9	45.4	48.3	54.2	44.4	35.7	53.6	14.4
9:01~9:30	12.3	28.1	26.0	25.9	9.7	19.6	33.0	26.9	13.7
9:31~10:00	1.2	7.2	5.3	7.0	1.1	4.6	4.8	6.2	7.2
10:01 이후	0.2	-	-	-	0.5	0.2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65)	(640)	(364)	(317)	(324)	(486)	(33)	(468)	(18)
$\chi^2(df)$	60.2(6)***		45.3(12)***			80.8(18)***			

주: 1)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유치원의 하원 시각을 살펴보면, 16:01~17:00시 사이에 귀가하는 비율이 37.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5:01~16:00시 사이 하원이 27.6%, 14:01~15:00시 사이 하원이 12.1%로 나타났다. 14:00시까지 하원 하는 비율은 8.0%였으며, 전반적으로 17:00시까지 하원 하는 비율이 85.4%였는데, 이러한 경우가 2012년 78.1%에서 2015년 81.2%, 2018년 85.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서, 반대로 17:00시 이후 하원 하는 유아의 비율은 감소하여 유치원의 하원 시각은 점차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VII-1-15 연령별 유치원 하원시간

구분					단위: %(명)	
	3세	4세	5세	전체	2015년	2012년
14:00까지	5.9	9.5	8.0	8.0	8.4	7.1
14:01~15:00	12.8	11.7	11.9	12.1	14.3	22.5
15:01~16:00	27.0	24.8	30.0	27.6	26.3	24.7
16:01~17:00	40.0	36.0	37.8	37.7	32.2	23.8
17:01~17:30	6.1	8.7	5.4	6.6	10.9	9.5
17:31~18:00	4.0	5.7	3.7	4.4	3.8	6.9
18:01~19:00	3.6	3.4	3.0	3.3	3.6	5.5
19:01이후	0.6	0.2	0.2	0.3	0.5	-
계(수)	100.0(271)	100.0(318)	100.0(416)	100.0(1,005)	100.0(742)	100.0(744)
χ^2 (df)	10.1(1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한편,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어머니의 취업 여부 등 제 특성에 따른 하원 시각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 특성에 따른 결과는 <표 VII-1-16>에 제시하였는데, 유치원 국·공립, 사립 등 유치원 유형에 따라서는 유아의 하원 시각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모두 16:01~17:00시 사이 하원 비율이 가장 높아서 국·공립유치원 이용 유아의 39.3%, 사립유치원 이용 유아의 37.1%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국·공립유치원은 14:00시까지의 하원 비율이 20.9%에 달해 사립유치원(2.5%)에 비해 조기 하원 비율이 현저히 높았으며, 오후 5시 이후 하원 비율은 국·공립유치원 이용 유아의 9.7%, 사립유치원 이용 유아의 16.6%로 사립유치원 이용 유아에 비해 국·공립유치원 이용 유아의 하원이 빠른 경향이 확연히 드러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도시지역에 비해 읍면지역 유치원 이용 유아의 하원이 다소 늦은 경향을 보였다. 14:00시까지의 하원 비율이 대도시지역 유아의 9.5%, 중소도시지역 유아의 8.2%에 해당함에 반하여 읍면지역 거주 유치원 이용 유아는 3.5%에 불과하였고, 16:01~17:00시 사이 하원 비중도 대도시 39.7%, 중소도시 31.1%에 비해 읍면지역이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51.3%).

어머니의 취업 여부별 유치원 이용 유아의 하원 시각에는 확연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어머니가 휴직중인 경우와 어머니가 부재한 경우 15:01~16:00시 사이에 가장

많이 하원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중, 미취업중인 경우는 모두 16:01~17:00 시 사이 하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만, 휴직중인 경우와 어머니가 부재한 경우 모두 사례가 희소하여 이러한 경향을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대체로 15:01~17:00시 하원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었다. 한편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는 14:00시까지의 이른 하원도 2.8%로 희박하였으나, 15:00시까지 확대하여도 10.6%에 불과하여, 어머니가 휴직중인 경우의 22.2%, 미취업 상태인 경우의 29.3%, 부재 중인 경우 16.2%에 비하여서도 매우 낮게 응답되었다.

반대로 오후 5시 이후의 하원 비율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23.4%로, 휴직중인 경우 17.8%, 미취업중인 경우 5.4%에 비해 상당히 높았는데, 이는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늦은 하원의 필요성이 실제로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다만 어머니가 부재한 경우에도 28.0%가 오후 5시 이후에 하원 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보다 더 높은 비중을 보인 점은 주목할 만하다. 비록 유치원 이용 유아 중 어머니가 부재중인 사례수는 희소한 수준이어서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으나 어머니가 부재한 경우의 돌봄 공백을 어린이집, 유치원 등 이용 기관이 효과적으로 메워주기 위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 받을 수 있다.

표 VII-1-16 |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유치원 하원시간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취업 여부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등
14:00까지	20.9	2.5	9.5	8.2	3.5	2.8	2.5	13.6	2.5
14:01~15:00	6.4	14.5	11.7	14.7	5.6	7.8	19.7	15.7	13.7
15:01~16:00	23.6	29.3	25.8	30.0	25.3	24.3	32.1	30.4	30.8
16:01~17:00	39.3	37.1	39.7	31.1	51.3	41.7	27.9	34.9	25.0
17:01~17:30	6.4	6.7	6.3	6.6	7.8	9.4	17.8	3.2	8.6
17:31~18:00	0.8	5.9	4.2	5.2	2.5	7.0	-	1.6	19.4
18:01~19:00	1.8	3.9	2.6	3.8	3.6	6.3	-	0.6	-
19:01 이후	0.7	0.1	0.2	0.3	0.5	0.7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65)	(640)	(364)	(317)	(324)	(486)	(33)	(468)	(18)
χ^2 (df)	119.9(7)***		31.4(14)***			133.3(2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나) 이용 시간

유치원 재원 유아가 유치원에 머무는 시간, 즉 유치원 이용시간을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를 다음 <표 VII-1-17>에 제시하였다. 2018년도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유아는 등·하원에 소요되는 시간(이하, 등·하원 소요시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하루 평균 7시간 12분을 유치원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유아가 하루 7~8시간 유치원을 이용하며(32.6%), 다음으로 6~7시간 26.3%, 8~9시간 13.4%, 5~6시간이 13.2% 순으로 나타났다. 5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유아는 8.6%이며, 하루 10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는 1.1%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하루 7~8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분포하였으나, 특히 3세 유아 중에서는 36.2%가 하루 7~8시간을 이용하여 4세 28.5%, 5세 33.6%에 비해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5시간까지 이용하는 유아는 4세에 가장 많이 분포하여 9.5%에 해당하고, 3세는 7.3%로 가장 적었다. 연령별 평균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3~5세 모두 하루 평균 약 7시간 12분을 이용하여 연령별 차이가 없었다.

2012년, 2015년의 결과는 등·하원 소요시간을 포함하여 측정한 결과로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2018년도 순수 이용 시간에 연령별 등·하원 소요 시간을 합산하여 살펴 본 결과, 총 이용시간은 평균 약 7시간 36분이며, 연령별 차이는 없었다. 이는 2012년, 2015년 조사결과에 비해 증가한 결과이다. 즉, 3세의 경우 등·하원 소요시간을 포함한 총 이용시간이 2015년 7시간 6분에서 7시간 36분으로 약 30분 증가하여 증가폭이 가장 컸고, 4세, 5세는 7시간 12분에서 7시간 36분으로 24분 증가하였다. 등·하원 소요시간은 2015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므로, 등·하원 소요시간을 제외한 유치원 순수 이용 시간이 모든 연령에서 20분 이상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 표 VII-1-17 ▮ 연령별 유치원 이용 시간

단위: %(명), 시간, 분

구분	3세	4세	5세	전체
5시간까지	7.3	9.5	8.7	8.6
5~6시간	14.6	14.0	11.9	13.2
6~7시간	24.6	26.1	27.4	26.3
7~8시간	36.2	28.5	33.6	32.6

구분	3세	4세	5세	전체
8~9시간	11.9	14.9	13.2	13.4
9~10시간	4.7	6.1	3.9	4.8
10시간 이상	0.7	1.0	1.3	1.1
계(수)	100.0(271)	100.0(318)	100.0(416)	100.0(1,005)
평균(순수이용시간) ³⁾	7시간 12분	7시간 12분	7시간 12분	7시간 12분
표준편차	1시간 18분	1시간 18분	1시간 24분	1시간 18분
F			0.1	
평균(총 이용시간 ⁴⁾)	7시간 36분	7시간 36분	7시간 36분	7시간 36분
표준편차(총 이용시간)	1시간 18분	1시간 24분	1시간 18분	1시간 24분
F(총 이용시간)			0.1	
2015년 조사(총 이용시간)	7시간 6분	7시간 12분	7시간 12분	7시간 12분
2012년 조사(총 이용시간)	7시간 3분	7시간 13분	7시간 16분	7시간 12분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3) 순수이용시간: 등·하원 시간을 제외한 이용시간

4) 총 이용시간: 순수이용시간에 등하원 시간을 합산한 이용시간을 의미함. 2012, 2015년 조사는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등원시각'으로, '집에 도착하는 시간'을 '하원시각'으로 표기하여 '이용시간(하원시각-등원시각)'에 '등하원 소요시간'이 포함됨. 2018년에는 '기관에 도착하는 시간'을 '등원시각'으로, '기관에서 (집으로) 하원 하는 시간'을 '하원시각'으로 표기하여 '이용시간'은 등·하원 소요시간을 제외한 순수 이용시간을 의미함. 2015년 조사에서 유치원 이용 아동의 '등원 소요시간'은 평균 11.5분이므로(김은설 외, 2016: p.277 <표 VII-2-23>참조), 유치원 이용아동의 등·하원 소요시간은 평균 23분으로 볼 수 있음.

5) 평균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결과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다음으로 유아의 유치원 이용 시간을 유치원 설립유형, 지역규모,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살펴보았다. 유치원 유형에 따라서는 순수 이용시간이 사립유치원 7시간 18분, 국·공립유치원 7시간으로 사립유치원 이용시간이 더 길었으며 이는 2015년의 유형별 이용시간의 경향과는 반대의 결과이다. 지역규모별로는 7~8시간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모든 지역규모에서 가장 높았으나 특히 읍면지역은 49.9%가 7~8시간 이용에 해당하여 대도시(29.6%), 중소도시(29.2%)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평균 이용시간도 읍면지역이 7시간 42분으로 대도시, 중소도시의 7시간 6분에 비해 36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발견되는 차이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7시간 이상 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65.7%로 휴직중인 경우(49.5%),미취업중인 경우(37.7%)에 비해 장시간 이용 비율이 확연히 높았다. 다만 모 부재 등의

경우도 7시간 이상 이용 비율이 72.1%에 달하였는바, 모 부재 가구의 경우 주된 양육자의 부재로 장시간 돌봄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전 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순수이용 시간에 등·하원 소요 시간을 합산하여 '총 이용시간'을 산출하였다. 2012, 2015년도 결과와 비교 시 유치원 유형별로는 사립유치원의 총 이용시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36분), 지역구 모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총 이용시간이 증가하였으나, 특히 읍면지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여 2015년 대비 30분, 2012년 대비 19분 증가하였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휴직중인 경우의 총 이용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해당 사례의 수가 한정되어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좀 더 보편적인 경향으로 어머니의 취업 상태에 관계없이 유치원 이용 시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 표 VII-1-18 ▣ 제 특성별 유치원 이용 시간

단위: %(명), 시간, 분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등
5시간까지	18.7	4.3	10.0	9.2	3.2	3.1	2.5	14.8	-
5~6시간	9.2	15.0	13.4	15.4	6.7	7.9	22.6	17.8	16.2
6~7시간	15.3	30.9	28.1	28.0	16.6	23.4	25.4	29.7	11.6
7~8시간	38.9	29.9	29.6	29.2	49.9	35.5	23.7	30.1	36.5
8~9시간	12.8	13.7	14.2	11.0	18.4	19.7	25.8	6.4	16.2
9~10시간	4.0	5.1	3.6	6.3	3.8	8.2	-	1.2	19.4
10시간 이상	1.2	1.0	1.1	.9	1.4	2.3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65)	(640)	(364)	(317)	(324)	(486)	(33)	(468)	(18)
χ^2 (df)	83.1(6)***		45.8(12)***			149.3(18)***			
평균 (순수이용시간 ³⁾)	7시간	7시간 18분	7시간 6분	7시간 6분	7시간 42분	7시간 42분	7시간 12분	6시간 42분	7시간 48분
표준편차	1시간 36분	1시간 12분	1시간 24분	1시간 24분	1시간 6분	1시간 18분	1시간 12분	1시간 12분	1시간 18분
t/F	-2.7***		12.1***(a)			50.5***			
평균 (총 이용시간 ⁴⁾)	7시간 18분	7시간 42분	7시간 30분	7시간 24분	8시간	8시간 6분	7시간 36분	7시간 6분	8시간 12분
표준편차	1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등
(총 이용시간)	30분	18분	24분	24분	6분	18분	12분	18분	6분
t/F(총 이용시간)	-3.3***		11.9***(a)			51.1***			
2015년 조사 (총 이용시간)	7시간 12분	7시간 6분	7시간 6분	7시간 12분	7시간 30분	7시간 48분	6시간 18분	6시간 42분	-
2012년 조사 (총 이용시간)	7시간 32분	7시간 6분	7시간 10분	7시간 1분	7시간 41분	7시간 56분	7시간 56분	6시간 39분	-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3) 순수이용시간: 등·하원 시간을 제외한 이용시간
 4) 총 이용시간: 순수이용시간에 등하원 시간을 합산한 이용시간을 의미함. 2012, 2015년 조사는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등원시각'으로, '집에 도착하는 시간'을 '하원시각'으로 표기하여 '이용시간(하원시각-등원시각)'에 '등하원 소요시간'이 포함됨. 2018년에는 '기관에 도착하는 시간'을 '등원시각'으로, '기관에서 (집으로) 하원 하는 시간'을 '하원시각'으로 표기하여 '이용시간'은 등·하원 소요시간을 제외한 순수 이용시간을 의미함. 2015년 조사에서 유치원 이용 아동의 '등원소요시간'은 평균 11.5분이므로(김은설 외, 2016: p.277 <표 VII-2-23>참조), 유치원 이용 아동의 등·하원 소요시간은 평균 23분으로 볼 수 있음.
 5) 평균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결과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p <.001.

한편 부모의 사정으로 평소 유치원을 이용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응답하도록 한 결과, 대부분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없었으나 (88.3%) 월 1회 이하로 초과 이용한다는 응답이 6.1%, 월 2~4회 정도 초과 이용 3.4%, 주 3~4회 정도 초과 이용 1.0%, 주 4~5회 초과이용 0.6%, 매일 0.6% 순으로 응답되었다. 유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평소 이용시간을 초과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에서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시간 초과가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별로는 어머니가 취업 중인 경우 평소시간보다 초과 이용하는 비율이 14.6%에 해당해 휴직중 5.1%, 미취업 상태인 경우 9.4%, 모 부재 등의 경우 6.5%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다. 이는 어머니가 취업 중인 경우 평소 정규적으로 등원하는 시간보다 이른 등원, 또는 평소 하원 시간보다 늦은 하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에 따라 긴급하게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유치원의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VII-1-19 | 유치원 이용 시 초과 이용 빈도

단위: %(명)

구분	월 1회 이하	월 2~4회	주 3~4회	주 4~5회	매일	시간 초과 없음	계(수)
전체	6.1	3.4	1.0	0.6	0.6	88.3	100.0(1,005)
보육연령							
3세	6.6	4.7	1.2	0.7	0.9	85.9	100.0(271)
4세	4.9	3.4	1.7	0.4	0.7	88.7	100.0(318)
5세	6.7	2.6	0.4	0.7	0.2	89.3	100.0(416)
지역규모							
대도시	8.6	3.0	0.7	0.2	0.6	87.0	100.0(364)
중소도시	4.7	4.3	1.5	1.1	-	88.4	100.0(317)
읍면지역	3.7	1.8	0.6	0.3	2.2	91.4	100.0(324)
모취업 여부							
취업	6.7	3.8	1.9	1.2	1.0	85.4	100.0(486)
휴직중	5.1	-	-	-	-	94.9	100.0(33)
미취업	5.8	3.1	0.3	0.1	0.1	90.6	100.0(468)
모부재 등	-	4.0	-	-	2.5	93.5	100.0(18)
유치원 유형							
국·공립	3.9	0.9	0.7	0.1	1.1	93.2	100.0(365)
사립	7.0	4.4	1.2	0.8	0.4	86.2	100.0(64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3) 이용 시간 만족도

유치원 이용 시간에 대한 부모의 만족 정도를 유아의 연령,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 이용 유치원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적으로는 유치원 시작 시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91.1%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너무 늦다' 5.5%, '너무 이르다' 3.3%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한다는 비율은 2012년 84.4%에서 2015년에 91.6%로 크게 상승한 이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5년 결과와 비교 시 시작 시간이 '너무 이르다'는 응답은 4.5%에서 3.3%로 다소 낮아진 반면, '너무 늦다'는 응답은 3.9%에서 5.5%로 높아져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5세의 만족 비율이 93.6%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았고, 4세의 만족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87.4%), 4세의 경우 시작 시간이 '너무 늦다'는 응답도 7.5%로 다른 연령에 비해 시작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연령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주 지역의 규모에 따른 시작 시간에 대한 만족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모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중인 경우 시작 시간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88.1%, 휴직중 90.0%, 어머니가 미취업중인 경우 94.0%, 부재 등의 경우 97.4%로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에 가장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에는 특히 시작 시간이 너무 늦다는 응답이 8.2%로 나타나 미취업중인 경우의 2.8%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는 바, 이는 어머니의 출근 시간과 유치원 등원 시간 간의 돌봄 공백 등 어려움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치원의 유형별로는 시작 시간에 대한 만족 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유치원이 끝나는 시간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80.5%로 응답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시작시간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짐을 보여주었다. 특히 끝나는 시간은 ‘너무 이르다’는 응답이 18.3%에 달하였는데, 이같은 결과는 유치원 이용 가구가 원하는 하원 시간 보다 일찍 하원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즉, 유치원의 경우 하원 시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끝나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2012년 60.9% 대비 2015년 80.7%로 크게 상승하여 2015년 수준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끝나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별로 차이가 있어서, 5세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84.8%), 3세(77.0%), 4세(77.5%)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 끝나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유아의 거주 지역규모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는 바, 읍면지역 거주 유아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89.0%), 대도시 81.8%, 중소도시 76.3%로 읍면지역에서의 끝나는 시간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 만족한다는 응답이 가장 낮은 중소도시는 끝나는 시간이 ‘너무 이르다’는 응답이 22.4%로 끝나는 시간 불만족의 이유는 대부분 ‘이른 하원’시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휴직중인 경우 끝나는 시간에 대한 만족비율이 가장 높고(87.5%), 미취업 중인 경우 가장 낮았으나(79.0%)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용하는 유치원 유형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사립유치원의 끝나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82.7%)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만족도(75.4%)에 비해 높았고, 국·공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너무 이르다’는 응답이 24.2%로 국·공립유치원의 사회적 책무성을 고려할 때 이용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위한 이용시간 연장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표 VII-1-20 ▮ 제 특성별 유치원 이용 시간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계(수)
	만족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기타	만족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기타	
전체	91.1	3.3	5.5	-	80.5	18.3	1.2	-	100.0(1,005)
보육연령									
3세	91.8	2.9	5.3	-	77.0	22.2	0.8	-	100.0(271)
4세	87.4	5.2	7.5	-	77.5	21.3	1.2	-	100.0(318)
5세	93.6	2.2	4.2	-	84.8	13.7	1.4	-	100.0(416)
χ^2 (df)		8.9(4)*				11.0(4)**			
지역규모									
대도시	89.3	4.2	6.6	-	81.8	16.9	1.3	-	100.0(364)
중소도시	92.1	2.4	5.5	-	76.3	22.4	1.2	-	100.0(317)
읍면지역	93.3	3.7	3.0	-	89.0	10.0	1.0	-	100.0(324)
χ^2 (df)		4.6(4)				12.7(4)**			
모취업 여부									
취업	88.1	3.8	8.2	-	81.6	17.5	0.8	-	100.0(486)
휴직중	90.0	1.1	8.8	-	87.5	12.5	-	-	100.0(33)
미취업	94.0	3.2	2.8	-	79.0	19.3	1.7	-	100.0(468)
모부재 등	97.4	-	2.6	-	80.1	19.9	-	-	100.0(18)
χ^2 (df)		17.0(6)***				3.3(6)			
유치원 유형									
국·공립	91.1	4.1	4.8	-	75.4	24.2	0.4	-	100.0(365)
사립	91.1	3.0	5.8	-	82.7	15.7	1.6	-	100.0(640)
χ^2 (df)		1.0(2)				12.4(2)***			
2015년 조사	91.6	4.5	3.9	-	80.7	17.8	1.2	0.3	100.0(742)
2012년 조사	84.4	6.3	9.4	-	60.9	34.8	4.3	-	100.0(74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1$, *** $p < .001$.

4) 희망 이용시간

앞서 유치원 이용 유아의 '실제 등원 시각'과 '실제 하원 시각'을 통해 '실제 이용시간'을 산출하고, 이용시간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견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유치원 이용시간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응답자가 희망하는 등·하원 시각을 표기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산출한 희망 이용시간을 분석하였다.

가) 희망 등·하원 시각

먼저, 희망하는 등원 시각을 살펴본 결과, 8:31~9:00시 사이에 등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45.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오전 8:01~8:30분 사이 등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17.7%로 과반수 이상이 오전 8:01~9:00시 사이 등원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3.2%). 오전 8:01~9:00시 사이 등원을 희망하는 비율은 실제 이 시간대 등원 비율인 67.4% 보다 다소 낮았으나, 가장 희망하는 등원 시간대의 순위는 실제 등원 시간의 순위와 동일하였다.

다만, 오전 8시까지의 실제 등원 비율이 3.7%인데 반하여(VII-1-13 참조), 8시까지의 등원 희망 비율은 17.8%에 달하여 14.1%p의 격차를 보였다. 즉, 실제 등원 시간보다 이른 등원을 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2018년 희망 등원 시간은 2015년 대비 7시 30분까지의 이른 등원 희망 비율은 더욱 증가하고, 9:01~9:30분 사이의 등원 희망 비율은 감소하여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 가장 등원을 희망하는 시간대는 3~5세 모두 동일하게 오전 8:31~9:00시 사이이며 희망 비율도 유사하였다. 다만 오전 8시까지의 이른 등원 희망 비율은 4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21.2%), 5세 17.9%, 3세 13.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I-1-21 | 연령별 유치원 희망 등원시각

단위: %(명)

구분	3세	4세	5세	전체	
	2018	2018	2018	2018	2015
7:30까지	6.5	7.2	7.8	7.3	3.1
7:31~8:00	6.8	14.0	10.1	10.5	10.9
8:01~8:30	21.4	13.3	18.8	17.7	15.7
8:31~9:00	45.6	45.8	45.3	45.5	45.9

구분	3세	4세	5세	전체	
	2018	2018	2018	2018	2015
9:01~9:30	12.1	13.1	14.2	13.3	20.4
9:31~10:00	7.7	6.2	3.9	5.6	3.9
10:01 이후	-	0.5	-	0.2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71)	(318)	(416)	(1,005)	(74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다음으로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취업 여부 등 제 특성별로 희망 등원시각을 살펴보았다. <표 VII-1-22>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우선 유치원 유형별로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모두 오전 8:31~9:00시 사이에 응답한 비율이 각각 50.9%, 43.3%로 가장 높았으나 국·공립유치원은 8시까지 등원 희망 비율도 19.3%로 나타나 사립유치원 17.1%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실제 등원시각이 8시까지인 경우는 국·공립 6.5%, 사립 2.5%로 나타나(표 VII-1-14 참조) 8시 이전 조기 등원에 대한 실제와 희망의 격차는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14.6%p)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12.8%p) 비하여 더 크다고 볼 수 있었다. 즉, 현재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 가구 중에 8시 이전 등원을 원하나 실제로는 못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규모별로 가장 등원을 희망하는 시간대는 오전 8:31~9:00시 사이인 것은 동일하였으나, 이 시간대 등원 희망 비율은 읍면지역의 경우 57.2%로 대도시(41.2%), 중소도시(45.4%)에 비해 현저히 높아 이 시간대 수요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대도시지역에서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8시 까지 등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21.1%로 중소도시(16.0%), 읍면지역(13.9%)에 비해 가장 높았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의 경우 이른 시간 등원 수요가 높은 것으로 짐작되는 결과가 나왔다.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오전 7시 30분 까지 12.1%가 등원을 원하였으며, 7:31~8:00시 사이 14.1%, 8:01~8:30분 사이 20.8%로 가장 많이 등원하는 시간대 이전인 8시 30분까지 반수에 달하는 47.0%가 등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가 휴직중인 경우는 24.4%가, 미취업중인 경우 23.9%가 오전 8시 30분까지 등원하기를 원하여 취업모와 약 두 배 정도의 차

이를 보였다. 취업모의 실제 등원 시간을 참고하여 살펴보면(표 VII-1-14 참조), 오전 7시 30분까지 어머니가 취업중인 유아의 0.7%만이 실제 등원하고 있고, 7:31~8:00시 사이 5.0%, 8:01~8:30분 사이에 25.6%가 등원하고 있다. 이는 곧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8시까지 유치원 등원을 희망하는 경우 중 상당수가 등원 시간을 늦추어 8시 이후에 등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 표 VII-1-22 ▣ 제 특성별 유치원 희망 등원시간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등
7:30까지	5.2	8.1	8.6	7.5	3.2	12.1	15.0	2.2	2.2
7:31~8:00	14.1	9.0	12.5	8.5	10.7	14.1	4.8	6.6	29.4
8:01~8:30	21.1	16.3	18.1	16.1	21.2	20.8	4.6	15.1	28.4
8:31~9:00	50.9	43.3	41.2	45.4	57.2	39.8	54.2	51.4	25.6
9:01~9:30	7.2	15.9	13.1	16.1	6.0	10.0	15.4	16.9	-
9:31~10:00	1.3	7.4	6.2	6.5	1.3	3.1	6.0	7.7	14.4
10:01 이후	0.2	0.1	0.2	-	0.5	0.2	-	0.2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65)	(640)	(364)	(317)	(324)	(486)	(33)	(468)	(18)
$\chi^2(df)$	39.2(6)***		35.0(12)***			100.0(1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동일한 방식으로 희망하는 하원시각을 살펴보았다. 희망 등원시각에 비해 희망 하원시각은 다소 분산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는데, 가장 하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시간대인 15:01~16:00시 사이에 25.4%가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16:31~17:00시 사이가 21.8%, 17:31~18:00시 사이가 11.3%, 16:01~16:30분 사이가 10.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희망 하원 시각은 2015년도와 유사한 응답 순위와 유사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15:01~18:00시 사이 하원을 원하는 비율이 74.7%로 나타났으나, 오후 6시 이후의 늦은 하원을 희망하는 요구도 15.5%로 적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6시 이후 하원 수요는 2015년의 9.3% 대비 증가하였다. 앞서 살펴본 현재 실제 하원시각(표 VII-1-15 참조)의 결과에서는 6시 이후 하원 비율은 3.6%에 불과하여, 희망 하원시각과 실제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른 등원에 대한 요구 뿐 아니라, 유치원을 늦게

까지 이용하고자 하는 잠재적 수요를 고려한 대응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하겠다.

■ 표 VII-1-23 ■ 연령별 유치원 희망 하원시간

단위: %(명)

구분	3세	4세	5세	전체	
	2018	2018	2018	2018	2015
14:00까지	1.3	4.1	3.1	3.0	2.4
14:01~15:00	7.2	5.4	7.8	6.9	10.8
15:01~16:00	23.2	24.0	27.6	25.4	27.2
16:01~16:30	11.2	9.4	11.1	10.6	9.0
16:31~17:00	24.2	18.3	23.0	21.8	22.1
17:01~17:30	4.1	7.2	5.3	5.6	8.4
17:31~18:00	12.6	14.0	8.4	11.3	10.9
18:01~18:30	2.5	6.7	1.7	3.5	2.7
18:31~19:00	7.2	4.2	7.1	6.2	3.6
19:01~19:30	3.3	2.7	2.0	2.5	0.8
19:31이후	3.2	4.1	2.9	3.3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71)	(318)	(416)	(1,005)	(74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어머니의 취업 여부 등 제 특성별로 유치원 희망 하원 시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VII-1-24>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16:31~17:00시 사이 하원 희망 비율이 25.6%로 가장 높은 반면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15:01~16:00시 사이 하원 희망 비율이 가장 높아 가장 선호하는 하원 시간대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오후 5시 30분 이후 하원을 원하는 비율이 29.9%로 국·공립유치원 이용하는 경우의 19.6%에 비해 늦은 시간대의 하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오후 2시까지 하원 희망 비율이 7.3%로 사립유치원 이용하는 경우(1.2%)에 비해 조기 하원 희망 비율이 현저히 높았는 바,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조기 하원 희망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고 늦은 하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립유치원에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의 비율이(49.1%) 국·공립유치원에(43.4%) 비해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지역규모에 따라서도 희망하는 하원 시간대의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가장 희망하는 하원시간대는 15:01~16:00시 사이로, 대도시 23.6%, 중소도시 29.2%의 수요를 나타냈으나, 읍면지역 거주자의 경우 그보다 늦은 16:31~17:00시 사이에 하원 희망 비율이 25.7%로 가장 높아 차이를 보였다.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 살펴보면, 취업모는 6시 이후에 하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25.9%로 미취업모 5.5%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7시 31분 이후에 하원을 희망하는 비율도 5.9%나 되어 늦은 시간까지 유치원 이용을 필요로 하는 요구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6시 이후 하원 희망 비율은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미취업중인 경우 모두 2015년 조사에 비해 증가하여서²³⁾, 유치원 이용 시간의 연장을 원하는 수요가 보편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 표 VII-1-24 ▣ 제 특성별 유치원 희망 하원시간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취업 여부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등
14:00까지	7.3	1.2	2.8	3.5	2.0	1.1	-	5.2	-
14:01~15:00	5.5	7.5	9.0	6.4	2.9	4.3	8.7	9.3	7.2
15:01~16:00	22.2	26.7	23.6	29.2	19.2	19.0	18.5	32.4	18.1
16:01~16:30	14.1	9.1	11.7	7.6	15.8	8.0	18.1	12.9	4.0
16:31~17:00	25.6	20.1	22.4	19.7	25.7	20.6	21.6	22.9	23.2
17:01~17:30	5.6	5.6	6.0	4.7	7.3	7.2	8.3	3.8	6.4
17:31~18:00	8.4	12.5	7.6	12.5	17.1	13.9	3.4	8.2	36.7
18:01~19:00	6.8	10.9	9.9	10.3	7.4	14.9	15.2	4.4	4.5
19:01~19:30	1.6	2.9	3.8	1.8	1.1	5.1	3.1	0.1	-
19:31이후	2.8	3.6	3.2	4.2	1.5	5.9	3.1	1.0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65)	(640)	(364)	(317)	(324)	(486)	(33)	(468)	(18)
χ^2 (df)	47.5(10)***		45.9(20)***			147.5(3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23) 2015년 보육실태 조사결과 오후 6시 이후에 하원을 희망하는 비율은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중 20.3%, 어머니가 미취업 상태인 경우 1.6%에 해당하였음(김은설 외, 2016: 272).

나) 희망 이용시간

유치원의 평균 희망 이용시간은 8시간 6분으로 본 조사결과인 현재 이용시간 7시간 12분(표 VII-1-17 참조)보다 54분 정도 길게 나타났다. 희망 이용시간이 7~8시간인 경우가 28.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6~7시간 21.5%, 8~9시간 16.3% 순이었다. 하루 6시간~9시간 이용을 원하는 경우가 보편적으로 보이나 하루 10시간 이상 유치원 이용을 희망하는 수요도 13.8%에 해당하여 장시간 이용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시간 이상 이용을 원하는 비율은 2012년 9.6%에서 2015년 7.5%로 하락하였으나, 2018년에 다시 상승하였다.

하루 7~8시간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모든 연령의 유아에 일관된 경향이었으나 5세의 경우 30.0%로 가장 높았고, 3세는 29.3%, 4세는 25.6%가 7~8시간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VII-1-25 연령별 유치원 희망 이용시간

단위: %(명), 시간, 분

구분	3세	4세	5세	전체		
				2018	2015	2012
5시간까지	2.3	3.9	4.0	3.5	4.5	4.7
5~6시간	10.9	10.2	8.2	9.5	11.2	15.4
6~7시간	20.3	18.0	24.7	21.5	22.8	22.5
7~8시간	29.3	25.6	30.0	28.4	28.7	22.1
8~9시간	16.6	19.1	14.1	16.3	17.1	17.5
9~10시간	6.6	8.6	6.0	7.0	8.3	8.1
10~11시간	7.0	7.1	7.0	7.0	4.4	6.3
11~12시간	5.2	4.3	3.2	4.1	2.5	1.1
12시간 이상	1.9	3.2	2.8	2.7	0.6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71)	(318)	(416)	(1,005)	(742)	(744)
평균	8시간 12분	8시간 12분	8시간 6분	8시간 6분	-	-
표준편차	1시간 42분	2시간 00분	1시간 54분	1시간 54분	-	-
2015년 조사	7시간 42분	7시간 54분	7시간 48분	-	7시간 48분	-
2012년 조사	7시간 37분	7시간 52분	7시간 45분	-	-	7시간 45분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 3) 평균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결과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다음으로 유치원 이용 희망 시간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취업 여부 등 제 특성에 따라 살펴보았다. 유치원 유형에 따른 희망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사립유치원의 희망 이용시간이 8시간 12분으로 국·공립유치원(8시간 6분)보다 6분 가량 길었으며, 국·공립유치원 이용 가구의 희망 이용시간은 2015년 조사결과와 동일하고, 사립유치원 희망 이용시간은 2015년 대비 30분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현재의 유치원 유형별 이용시간이 희망 이용시간에도 반영이 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사립유치원 이용 시간이(평균 약 7시간 18분) 국·공립유치원 이용 시간(평균 7시간)보다 길었는데, 이는 국·공립유치원이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에 비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으로 취업모 가구 등 장시간 이용이 필요한 수요자들은 현재 국·공립유치원보다 사립유치원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결과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 유치원 이용가구가 희망하는 이용시간이 약 8시간 18분으로 대도시·중소도시(8시간 6분)에 비해 길게 나타났다.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의 유치원 희망 이용시간은 8시간 48분으로 휴직 중인 경우의 8시간 12분, 미취업 중인 경우 7시간 30분에 비해 확연히 긴 장시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가 부재한 경우 등에도 평균 8시간 30분 이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처럼 돌봄 공백에 따라 유치원의 장시간 이용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VII-1-26 제 특성별 유치원 희망 이용시간

단위: %(명), 시간, 분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 취업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취업	휴직중	미취업	모부재 등
5시간까지	7.0	2.1	3.5	4.0	2.2	1.8	-	5.6	-
5~6시간	6.2	10.9	11.7	9.7	3.0	4.4	14.7	14.3	7.2
6~7시간	17.4	23.2	20.5	24.9	14.5	15.9	16.9	27.6	11.6
7~8시간	35.3	25.5	27.8	25.4	38.6	23.9	34.8	32.9	17.7
8~9시간	17.2	16.0	15.7	13.7	25.5	21.7	12.3	10.7	33.2
9~10시간	6.8	7.0	5.1	7.8	9.7	9.2	1.5	4.4	25.9
10~11시간	5.1	7.8	7.1	8.1	3.8	11.3	8.8	2.9	2.2
11~12시간	3.5	4.3	6.2	2.7	2.3	7.0	7.9	1.0	2.2
12시간 이상	1.5	3.2	2.4	3.8	0.4	4.8	3.1	0.7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65)	(640)	(364)	(317)	(324)	(486)	(33)	(468)	(18)
χ^2 (df)/F	33.6(8)***		52.3(16)***			170.9(24)***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 취업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취업	휴직중	미취업	모부재 등
평균	8시간 6분	8시간 12분	8시간 6분	8시간 6분	8시간 18분	8.시간 48분	8시간 12분	7시간 30분	8시간 30분
표준편차	2시간 00분	1시간 48분	1시간 54분	2시간 6분	1시간 24분	2시간 6분	1시간 54분	1시간 30분	1시간 24분
tF	-1.0		0.3(a)			48.1*** ^(a)			
2015년 조사	8시간 6분	7시간42분	7시간 42분	7시간48분	7시간54분	8시간36분	7시간42분	7시간18분	-
2012년 조사	7시간56분	7시간42분	7시간40분	7시간45분	7시간57분	8시간35분	8시간 9분	7시간 9분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3) 평균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결과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p <.001.

바. 유치원 등·하원

1) 등·하원 방법 및 소요시간

〈표 VII-1-27〉에서는 유치원 이용 아동의 등원 방법을 살펴보았는데 등원 시 기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54.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호자와 걸어서’ 24.8%, ‘자가용 이용’ 19.8% 순으로 나타났다. 이전 조사에 비해 기관차량을 이용해 등원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자가용을 이용해 등원하는 비율이 2012년 9.4%, 2015년 8.8%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특히 기관 유형별 등원 방법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보호자와 걸어서’의 비율이 가장 높아 37.6%에 달하였으나 사립유치원은 도보로 등원한다는 비율은 19.3%로 두 유형 간 18.3%p 가량의 격차를 보였다. 반대로 사립유치원은 63.7%가 기관 등하원 차량을 이용한다고 하여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기관차량 이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표 VII-1-27 유치원 이용 아동의 등원 방법

단위: %(명)

구분	기관 차량	자가용	가족과 대중교통	보호자와 걸어서	자녀 혼자 걸어서	기타	계(수)
전체	54.0	19.8	0.7	24.8	0.7	-	100.0(1,005)
보육연령							
3세	54.9	20.5	0.6	24.0	-	-	100.0(271)
4세	56.6	18.9	0.6	23.5	0.4	-	100.0(318)
5세	51.6	20.1	0.8	26.2	1.3	-	100.0(416)

구분	기관 차량	자가용	가족과 대중교통	보호자와 걸어서	자녀 혼자 걸어서	기타	계(수)
지역규모							
대도시	57.4	15.7	1.6	24.6	0.6	-	100.0(364)
중소도시	47.7	20.7	-	30.8	0.9	-	100.0(317)
읍면지역	63.3	27.9	0.2	8.3	0.3	-	100.0(324)
모취업 여부							
취업	50.5	26.1	0.9	21.9	0.5	-	100.0(486)
휴직중	52.4	33.2	-	10.5	4.0	-	100.0(33)
미취업	57.0	13.1	0.6	28.7	0.6	-	100.0(468)
모부재 등	70.6	8.5	-	20.9	-	-	100.0(18)
유치원 유형							
국·공립	31.3	27.2	2.0	37.6	1.9	-	100.0(365)
사립	63.7	16.7	0.2	19.3	0.2	-	100.0(640)
2015년 조사	60.1	8.8	1.0	26.5	2.9	0.7	100.0(742)
2012년 조사	63.4	9.4	0.1	24.4	2.3	0.4	100.0(74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하원 방법은 등원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등원 시에 비해 기관 차량을 이용해 하원 한다는 비율이 1.8%p 높고, 반대로 자가용 이용 비율은 등원 시 19.8%에 비해 4.1%p 낮은 15.7%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등원 시와 하원 시 이용 방법이 다소 변경되는 것은 등원 시 출근하는 부모와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으로 등원한 경우 중 부모의 퇴근 시간보다 이른 시간 하원을 위해 기관 차량을 이용해 하원 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모취업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등원 시 자가용으로 등원하는 비율이 26.1%이 나(표 VII-1-27 참조) 하원 시에는 19.1%로 하락하고, 반대로 기관 차량 이용 비율이 등원 시에는 50.5%이나(표 VII-1-27 참조) 하원 시에는 53.9%로 증가한다는 응답 결과에 이 같은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표 VII-1-28 ▮ 유치원 이용 아동의 하원 방법

단위: %(명)

구분	기관 차량	자가용	가족과 대중교통	보호자와 걸어	자녀 혼자 걸어서	기타	계(수)
전체	55.8	15.7	0.4	25.1	0.9	2.1	100.0 (1,005)
보육연령							
3세	56.6	16.8	0.8	25.4	0.4	-	100.0 (271)

구분	기관 차량	자가용	가족과 대중교통	보호자와 걸어	자녀 혼자 걸어서	기타	계(수)
4세	55.7	16.7	-	25.2	0.4	2.0	100.0 (318)
5세	55.5	14.2	0.6	24.8	1.6	3.4	100.0 (416)
지역규모							
대도시	59.1	13.3	0.8	25.4	0.6	.8	100.0 (364)
중소도시	50.4	14.1	0.2	30.8	1.3	3.2	100.0 (317)
읍면지역	62.7	26.2	0.2	8.2	0.3	2.4	100.0 (324)
모취업 여부							
취업	53.9	19.1	0.3	23.1	0.7	2.9	100.0 (486)
휴직중	58.8	28.3	2.5	6.4	4.0	-	100.0 (33)
미취업	57.6	11.7	0.5	28.3	0.9	1.0	100.0 (468)
모부재 등	55.9	8.1	-	20.9	-	15.2	100.0 (18)
유치원 유형							
국·공립	32.4	22.3	1.2	39.2	1.8	3.0	100.0 (365)
사립	65.8	12.8	0.1	19.1	0.5	1.7	100.0 (640)
2015년 조사	62.7	7.1	0.9	26.3	2.5	0.5	100.0 (742)
2012년 조사	64.4	8.3	0.1	23.0	3.0	1.2	100.0 (74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유치원 이용 아동의 등원 시 소요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11.5분으로 10분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65.5%로 나타났으며, 11~20분 29.0%, 21~30분 5.0%, 31분 이상이 04% 순이었다. 이는 이전 조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나 10분 이하 응답 비율은 2012(68.3%), 2015년(69.6%) 대비 감소하고 11~20분이라는 응답 비율은 2012년(24.6%), 2015년(22.7%) 대비 상당히 증가하였다. 30분을 초과한다는 비율은 0.4%로 2015년 대비 감소하여, 2012년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지역규모별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대도시의 경우 평균 11.7분으로 읍면 지역(11.5분), 중소도시(11.2분) 대비 다소 등원 소요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유형에 따라서는 국·공립유치원의 소요시간이 10.1분으로 사립유치원(12.1분)보다 다소 짧았는데, 이는 앞서 <표 VII-1-27>, <표 VII-1-28>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공립유치원은 차량운행 비율이 낮고 도보 등하원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도보 이용이 가능한 근거리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II-1-29 제 특성별 유치원 이용 아동의 등원 시 소요시간

단위: %(명), 분

구분	10분이하	11~20분	21~30분	31분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65.5	29.0	5.0	0.4	100.0(1,005)	11.5	6.8
보육연령							
3세	61.6	32.7	5.6	0.2	100.0(271)	11.6	6.5
4세	68.6	28.1	3.3	0.1	100.0(318)	11.1	5.9
5세	65.5	27.7	6.1	0.8	100.0(416)	11.7	7.5
지역규모							
대도시	64.2	31.8	3.7	0.3	100.0(364)	11.7	6.5
중소도시	66.4	27.2	6.0	0.3	100.0(317)	11.2	6.9
읍면지역	66.4	27.0	5.7	0.9	100.0(324)	11.5	7.1
유치원 유형							
국·공립	73.3	23.7	2.5	0.5	100.0(365)	10.1	6.0
사립	62.2	31.3	6.1	0.4	100.0(640)	12.1	7.0
2015년 조사	69.6	22.7	6.0	1.8	100.0(742)	11.5	8.8
2012년 조사	68.3	24.6	6.6	0.5	100.0(744)	11.6	7.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3) 평균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결과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등·하원 시 부모와 유치원의 정보 교류

유치원 등·하원 시 기관과의 정보교류 정도를 알아본 결과, 매일 정보를 교류한다는 응답이 39.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주 1~2회 정보를 교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1.4%, 월 1~2회 16.4%, 전혀 정보 교류를 안한다는 경우가 12.4%로 응답되었다. 정보교류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15년 13.7%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며, 2015년에는 ‘주 1~2회’ 정보를 교류한다는 응답이 37.2%로 가장 많았으나 2018년에는 ‘매일’ 정보교류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아져, 등·하원 시 부모와 유치원의 정보 교류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전체 응답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매일 정보교류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7.4%로 대도시(40.6%), 중소도시(36.4%)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고, ‘주 1~2회’ 교류한다는 응답도 역시 읍면지역이(36.0%) 가장 높아서, 읍면지역의 유치원과 부모들이 등·하원 시간을 통한 정보교류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남을 보여주었다.

표 VII-1-30 유치원 등·하원 시 유치원과 정보교류 정도

단위: %(명)

구분	매일	주1~2회	월 1~2회	전혀 안함	계(수)
전체	39.8	31.4	16.4	12.4	100.0(1,000)
보육연령					
3세	39.7	31.3	17.3	11.7	100.0(271)
4세	37.8	31.4	17.4	13.4	100.0(317)
5세이상	41.3	31.6	15.1	12.0	100.0(412)
지역규모					
대도시	40.6	32.4	15.9	11.2	100.0(362)
중소도시	36.4	28.9	18.6	16.1	100.0(315)
읍면지역	47.4	36.0	11.6	5.1	100.0(323)
모취업 여부					
취업	38.3	32.3	16.8	12.6	100.0(485)
휴직중	26.9	35.2	20.1	17.9	100.0(32)
미취업	41.6	30.9	15.6	12.0	100.0(465)
모부재 등	54.4	15.9	22.4	7.3	100.0(18)
유치원 유형					
국·공립	39.5	33.3	14.4	12.8	100.0(361)
사립	39.9	30.7	17.3	12.2	100.0(639)
2015년 조사	35.8	37.2	13.3	13.7	100.0(72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3) 등·하원 방법에 '자녀 혼자 걸어서'로 응답한 사례를 제외하고 조사한 결과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3) 유치원 차량 이용 시 교직원 동승 여부

등·하원 방법으로 기관차량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 유치원 등·하원 차량에 교직원이 동승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등·하원 시 모두 동승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6.8%로 대다수였으며, 등원 시에만 동승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0.5%, 하원 시에만 동승한다는 경우가 0.7%로 나타났다. 비록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교직원이 차량에 동승하고 있으나, 등·하원 시 모두 동승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5년 대비 다소 감소한 결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 0.01%의 비율이라도 차량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육·교육기관 등·하원 차량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아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등·하원 모두 교직원이 동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VII-1-31 제 특성별 유치원 등·하원 차량 교직원 동승 여부

단위: %(명)

구분	등하원시 모두 동승	등원시만 동승	하원시만 동승	동승하지 않음	모르겠다	계(수)
전체	96.8	0.5	0.7	-	1.9	100.0(605)
보육연령						
3세	99.1	-	0.3	-	0.7	100.0(164)
4세	97.0	0.9	0.7	-	1.4	100.0(193)
5세이상	95.4	0.5	1.0	-	3.1	100.0(248)
지역규모						
대도시	94.2	0.9	1.6	-	3.3	100.0(226)
중소도시	99.4	-	-	-	0.6	100.0(163)
읍면지역	97.4	0.6	0.4	-	1.6	100.0(216)
유치원 유형						
국·공립	93.6	2.7	0.9	-	2.7	100.0(158)
사립	97.6	-	0.7	-	1.7	100.0(447)
2015년 조사	99.2	0.3	0.2	0.3	-	100.0(44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3) 등·하원 시 모두 차량 이용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유치원 이용 비용

본 절에서는 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해 지불하는 교육비와 기타 추가비용, 부모의 유치원 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과 비용 미지원 시 유치원 이용 의사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가. 유치원 교육비

유치원 이용 아동이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월평균 교육비는 238,800원이었으며, 현장학습비, 행사비, 교재비, 급간식비 등 다양한 부대비용을 제외한 '순교육비'는 월평균 135,600원, 그 외 추가비용(부대비용)이 103,300원으로 조사되었다. 2012년 193,800원에서 2015년 130,500원으로 월평균 교육비가 상당히 낮아진 바 있으나, 2018년에는 2015년 대비 약 83%(108,300원) 큰 폭으로 증가

하였다. 총교육비의 증가와 함께 부대비용을 제외한 순교육비도 2015년 56,700원에서 135,600원으로 약 2.4배 증가하여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유치원 교육비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지역규모별 차이가 뚜렷하였는바, 읍면지역이 총교육비 116,300원으로 가장 낮았고, 대도시가 295,400원, 중소도시 230,300원으로 지역규모가 클수록 교육비 총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부재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어머니가 휴직중인 경우에 지출하는 총교육비용이 279,7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는 266,200원, 미취업 상태인 경우는 211,900원으로 미취업모 가구에서 지출하는 교육비 수준이 가장 낮았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월소득 25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지출하는 유치원 교육비 총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여서, 가구소득 250~299만원 가구에서는 총교육비 지출 수준이 190,000원이나 가구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353,100원을 지출하여 가구소득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순교육비의 경우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한편, 유치원 유형에 따라서 살펴보면, 국·공립유치원은 총지출 교육비가 44,200원에 불과하였으나, 사립유치원은 월평균 321,300원으로 무려 7.3배 가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유치원 교육비 지출액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가구소득 대비 유치원 교육비는 5.4%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는 2009년 8.0%, 2012년 6.0%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2015년 3.5%에 비해서는 상당히 증가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특히,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지역(6.3%), 모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미취업모 가구(5.9%), 199만원 이하 소득가구(11.5%), 사립유치원 이용시(7.1%) 가구소득 대비 유치원 교육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특히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가구의 가구소득 대비 비중이 컸으며, 교육비 절대액은 가구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나, 그럼에도 가구소득 대비 차지하는 교육비의 비율은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여 유치원 교육비가 특히 저소득 가구에 부담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VII-2-1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월평균 교육비

단위: 천원(명), %

구분	전체 비용(A)	순교육비 (B)	추가비용 (A-B)	(수)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2018년	2015년	2012년	2009년
전체	238.8	135.6	103.3	(1,005)	5.4	3.5	6.0	8.0
지역규모								
대도시	295.4	170.2	125.2	(364)	6.3	4.3	7.1	9.0
중소도시	230.3	131.4	99.0	(317)	5.3	3.3	6.1	8.0
읍면지역	116.3	57.7	58.6	(324)	3.5	2.6	3.2	5.4
F	55.9***(a)	43.6***(a)	27.6***(a)		17.5***	23.2***	23.0***	16.5**
모취업 여부								
취업	266.2	144.2	122.0	(486)	5.0	3.2	5.0	7.3
휴직중	279.7	156.1	123.5	(33)	5.6	3.9	18.3	-
미취업	211.9	127.1	84.7	(468)	5.9	3.7	6.4	8.6
모부재 등	165.0	97.9	67.0	(18)	5.0	-	-	-
F	7.9***(a)	2.0	12.9***(a)		2.5*	5.6**	24.9***	5.7***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	-	-	-	-	7.7	18.1	11.9
199만원 이하	143.5	93.8	49.7	(40)	11.5	3.7	6.3	8.7
200~249만원	95.0	31.0	63.9	(45)	4.5	4.9	7.5	10.2
250~299만원	190.0	103.3	86.7	(66)	7.3	4.6	6.2	8.7
300~349만원	199.3	106.4	92.8	(144)	6.5	4.6	5.7	7.8
350~399만원	187.0	118.1	68.8	(80)	5.2	3.2	5.2	6.7
400~499만원	236.5	133.3	103.2	(195)	5.6	2.6	5.1	6.1
500~599만원	247.3	150.1	97.2	(183)	4.8	3.0	5.9	6.1
600~699만원	263.1	140.3	122.8	(103)	4.3	2.8	3.2	5.0
700만원 이상	353.1	201.0	152.1	(143)	4.0	2.0	4.4	-
모름/무응답	94.2	44.2	49.9	(6)	-	-	-	-
F	13.1***(a)	9.5***(a)	8.7***(a)		11.4***(a)	5.7***	18.3*	-
유치원 유형								
국·공립	44.2	2.8	41.4	(365)	1.3	1.0	1.6	-
사립	321.3	191.8	129.5	(640)	7.1	4.4	7.0	-
t	-39.9***	-40.8***	-18.4***		-21.6***	-19.6***	328.1***	-
2015년 조사	130.5	56.7	73.8	(742)				
2012년 조사	193.8	86.9	106.9	(74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3) 2018년에는 가구소득을 199만원 이하로 통합하여 분석하였음. 2009~2015년도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의 결과는 150~199만원의 결과를 의미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1$, *** $p < .001$.

유치원 월평균 교육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세 241,000원, 4세 240,600원, 5세 236,300원으로 3세의 교육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순교육비의 경우 연령 별로는 3세 140,900원, 4세 133,000원, 5세 이상 134,500원으로 역시 3세의 지출액이 가장 높았으며, 2015년 대비 78,900원이 증가해 총교육비와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매우 컸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유치원 유형에 따른 총교육비와 순교육비 격차도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역시 2012년 조사결과 대비 2015년에 대폭 감소하였다가 2018년에 다시 큰폭으로 증가하여 2012년 이상 증가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2012~2013년에 걸친 3-5세 누리과정 도입과 누리과정 비용 지원으로 인해 2012년 대비 2015년에 대폭 하락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며, 다만 2015년 이후 특히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교육비, 부대 비용 상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VII-2-2 유아 연령 및 유치원 유형별 월평균 교육비

단위: 천원(명)

구분	3세	4세	5세	전체	F	2015년	2012년
전체							
총비용	241.0	240.6	236.3	238.8	0.1	130.5	193.8
순교육비	140.9	133.0	134.5	135.6	0.3	56.7	86.9
(수)	(271)	(318)	(416)	(1,005)		(742)	(744)
국·공립유치원							
총비용	38.6	44.6	46.1	44.2	0.5	29.7	36.0
순교육비	2.3	2.6	3.1	2.8	0.5(a)	6.4	8.5
(수)	(80)	(121)	(164)	(365)		(240)	(168)
사립유치원							
총비용	301.2	328.2	329.3	321.3	1.9	164.0	241.4
순교육비	182.1	191.2	198.7	191.8	1.1	73.5	110.5
(수)	(191)	(197)	(252)	(640)		(502)	(576)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나. 추가 비용

유치원의 월평균 추가 교육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특성화활동비가 66,9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재비 9,100원, 급간식비 8,400원, 방과후과정비 6,800원, 현장학습비 및 행사비 6,500원, 차량운행비 5,300원 순이었다. 2015년 대비 특성화활동비, 차량운행비, 방과후과정비, 교재비는 비용이 상승하였고, 반면에 현장학습비, 행사비, 급간식비는 하락하였다. 특성화활동비가 2015년도 대비 약 80% 상승하여(29,700원) 상승폭이 가장 컸다.

한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비 납부 수준을 살펴본 결과, 2015년 대비 특성화활동비, 차량운행비, 방과후과정비, 교재비는 상승하였고, 반면에 현장학습비 및 행사비, 급간식비는 하락하였다. 유치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립유치원의 추가 교육비가 모든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그 중 특성화활동비가 특히 차이가 컸다. 비용지불아동의 지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공립유치원 이용 아동은 특성화활동비를 39,500원 지불하였으나, 사립유치원 이용 아동은 99,800원을 지불하여 사립유치원이 약 2.5배 높은 비용을 특성화활동비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2-3 유치원 유형별 월평균 추가 교육비

단위: 천원(명)

구분	특성화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급간식비	차량운행비	방과후과정비	교재비	기타
전체 아동							
전체	66.9	6.5	8.4	5.3	6.8	9.1	0.3
국·공립	28.7	4.5	3.3	0.8	3.0	1.3	-
사립	83.1	7.3	10.6	7.3	8.3	12.4	0.4
(수)	(1,005)	(1,005)	(1,005)	(1,005)	(1,005)	(1,005)	(1,005)
<i>t</i>	-17.1***	-3.7***	-8.1***	-11.3***	-3.9***	-9.0***	-2.7***
2015년 조사							
2015년 조사	37.2	7.5	10.9	4.8	5.5	7.4	0.5
2012년 조사							
2012년 조사	42.6	14.0	20.8	-	9.1	18.0	2.4
비용지불아동							
전체	83.6	22.0	33.0	24.7	56.8	47.8	29.3
국·공립	39.5	18.5	23.3	16.8	85.5	33.8	-
사립	99.8	23.1	34.9	25.2	54.0	48.7	29.3
(수)	(800)	(295)	(243)	(207)	(109)	(181)	(7)
<i>t</i>	-18.1***	-2.7***	-5.6***	-1.9*	1.7	-1.1	-

구분	특성화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급간식비	차량운행비	방과후과정비	교재비	기타
2015년 조사	68.5	24.0	33.6	22.3	42.3	32.1	39.5
2012년 조사	68.3	20.6	34.8	-	56.4	33.8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01$

추가 교육비를 제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지역규모별로는 방과후과정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대도시 지역의 월평균 교육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성화활동비, 급간식비, 차량운행비, 교재비의 경우는 읍·면지역과 대도시 지역 간 차이가 특히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미취업모 가구에 비해서 모든 추가 교육비 항목에 대해 더 높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특히 방과후과정비의 경우는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미취업 상태인 경우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유아가 방과후과정 이용률이 높으며, 방과후과정 시간에 실시되는 특성화활동 참여 비율도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비용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다만, 어머니가 취업중일 경우 이용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되는 비용 외에도 현장학습, 행사비, 급간식비, 교재비 등 이외 항목 전반에 비용 지출이 모두 어머니가 미취업 상태인 경우에 비해 높은 것은 어머니가 취업중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외벌이 가구에 비해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용비용이 높은 유치원을 취업모 가구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즉, 제 특성별 추가교육비 지출액의 차이는 결국 유아가 있는 가구의 소득 수준과 이에 따른 부담 능력의 차이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표 VII-2-4 ▶ 제 특성별 유치원 아동 항목별 월평균 추가 교육비

단위: 천원(명)

구분	특성화 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급간식비	차량 운행비	방과후 과정비	교재비	기타	(수)
전체	66.9	6.5	8.4	5.3	6.8	9.1	0.3	(1,005)
지역규모								
대도시	79.0	7.4	11.9	7.3	7.0	12.3	0.2	(364)
중소도시	65.4	6.1	7.0	4.3	8.1	7.6	0.4	(317)



구분	특성화 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급간식비	차량 운영비	방과후 과정비	교재비	기타	(수)
읍·면	39.8	5.0	3.4	3.0	2.3	5.1	-	(324)
F	19.8***(a)	2.1(a)	15.7***(a)	9.6***(a)	4.2**(a)	5.4***(a)	1.6(a)	
모취업 여부								
취업	77.0	7.1	10.7	5.7	10.2	11.2	0.2	(486)
휴직중	85.7	3.8	7.5	9.1	9.0	8.4	-	(33)
미취업	55.9	6.3	6.6	4.9	3.5	7.3	0.3	(468)
모부재 등	63.2	0.7	-	0.9	-	2.3	-	(18)
F	8.7***(a)	1.8(a)	5.6***(a)	2.0(a)	8.5***(a)	2.0(a)	0.2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29.2	5.8	0.5	6.1	0.4	7.8	-	(40)
200~249만원	45.2	3.4	6.6	2.8	4.0	2.0	-	(45)
250~299만원	59.4	5.8	6.3	2.7	2.2	10.2	0.2	(66)
300~349만원	64.0	7.2	7.6	5.3	3.0	4.7	1.0	(144)
350~399만원	43.4	5.7	6.7	6.5	2.5	3.4	0.6	(80)
400~499만원	61.6	7.2	8.8	5.6	6.6	13.4	-	(195)
500~599만원	68.2	5.5	7.1	5.2	4.1	6.8	0.3	(183)
600~699만원	73.8	8.2	9.6	5.5	19.5	6.3	-	(103)
700만원 이상	98.0	6.7	13.5	6.2	10.4	17.3	0.1	(143)
모름/무응답	48.4	1.5	-	-	-	-	-	(6)
F	7.2***(a)	0.7	2.7***(a)	0.8(a)	7.1***(a)	3.7***(a)	1.4(a)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 $p < .001$.

다음으로 3-5세반 유아가 유치원에 입학할 당시인 2016년~2018년 사이 유치원 입학 시에 지불한 입학(준비)금을 유치원 유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국·공립유치원 이용 유아가 지불한 입학금은 2016년 평균 7,600원, 2017년 13,600원, 2018년 11,500원 수준이었으며, 사립유치원 이용 유아는 2016년 입학 시에는 166,700원, 2017년 132,800원, 2018년 136,800원 수준이었다. 각 유형별 입학금 수준은 매년 다소간의 등락이 있었으며,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간의 입학금 차이는 2016년 약 22배, 2017년 약 10배, 2018년에는 약 12배로 유형간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났다.

표 VII-2-5 유치원 유형별 입학금(원복, 체육복 등) 평균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2018	2017	2016
전체	92.0	99.8	122.6
국·공립	11.5	13.6	7.6
사립	136.8	132.8	166.7
(수)	(350)	(373)	(207)
<i>t</i>	-13.6***	-12.0***	-8.5***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3) 입학금 납부 연도별 평균 비용으로, 2015년도 이전은 제외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다. 비용 부담

1) 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 및 미지원시 이용 의사

유치원 교육비에 대해 부모가(유아의 보호자인 응답자) 느끼는 부담 정도에 대해 알아본 결과, 부담된다는 응답(매우 부담+부담되는 편)이 42.4%, 적당 29.0%,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전혀 부담 안됨+부담되지 않음) 28.5% 순으로 나타났다. 누리과정 도입 이후 교육비에 대한 전면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치원 교육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2012년(56.7%), 2015년(47.7%)에 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한 결과를 보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부담 정도에 특별한 차이가 없었으며,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평균 3.3점으로 부담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 읍·면지역 거주 유아 부모의 부담감은 2.3점으로 도시지역보다 비용 부담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였다. 한편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감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의 부담감 수준이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유치원 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앞서 <표 VII-2-1>에서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교육비 지출의 절대액 수준이 대체로 증가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비 지출액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저소득 가구에서 오히려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저소득가구가 부담하

는 교육비 지출액의 절대적 수준이 낮다는 점이, 가구소득 대비 교육비가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보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감을 낮추는데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유아 가구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구소득 수준에 비춘 상대적인 비율 보다도, 교육비의 절대적 수준 자체가 어느 정도 저렴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 표 VII-2-6 ▣ 제 특성별 유치원 교육비용 부담정도 및 미지원시 이용 의사

단위: %(명), 점

구분	교육 비용의 부담 정도								미지원시 이용 의사			
	매우 부담됨	부담되는 편	적당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 안됨	계(수)	5점 평균	있음	없음	잘 모름	계(수)	
전체	7.5	34.9	29.0	13.3	15.2	100.0 (1,005)	3.1	71.6	15.0	13.4	100.0 (1,005)	
보육연령												
3세	7.0	36.0	32.0	12.6	12.5	100.0 (271)	3.1	74.5	12.8	12.7	100.0 (271)	
4세	5.1	32.9	32.8	12.9	16.3	100.0 (318)	3.0	69.1	16.0	14.9	100.0 (318)	
5세	9.6	35.8	24.5	14.1	16.0	100.0 (416)	3.1	71.8	15.6	12.6	100.0 (416)	
χ^2 (df)/F							1.3(a)	2.6(4)				
지역규모												
대도시	7.5	43.1	27.3	12.0	10.0	100.0 (364)	3.3	71.9	16.6	11.5	100.0 (364)	
중소도시	9.5	33.8	32.0	11.3	13.4	100.0 (317)	3.1	70.7	14.3	15.0	100.0 (317)	
읍·면	1.8	16.9	24.9	22.6	33.8	100.0 (324)	2.3	73.2	13.1	13.7	100.0 (324)	
χ^2 (df)/F							43.3***	3.3(4)				
모취업 여부												
취업	6.9	36.6	30.3	12.0	14.3	100.0 (486)	3.1	76.8	12.7	10.5	100.0 (486)	
휴직중	13.5	41.0	27.2	10.1	8.2	100.0 (33)	3.4	83.1	7.9	9.0	100.0 (33)	
미취업	7.4	33.6	28.4	15.0	15.6	100.0 (468)	3.0	66.6	17.2	16.3	100.0 (468)	
모부재 등	15.9	16.6	14.4	8.8	44.2	100.0 (18)	2.5	47.2	33.1	19.7	100.0 (18)	
χ^2 (df)/F							2.5*(a)	21.2(6)***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7.0	18.8	18.5	23.6	22.1	100.0 (40)	2.8	40.6	48.9	10.4	100.0 (40)	
200-249만원	-	27.5	17.0	17.0	36.8	100.0 (45)	2.4	72.6	20.9	6.5	100.0 (45)	
250-299만원	5.7	18.7	36.8	17.5	20.2	100.0 (66)	2.9	54.7	19.1	26.2	100.0 (66)	
300-349만원	5.5	29.7	18.4	18.8	16.6	100.0 (144)	2.9	75.9	13.2	11.0	100.0 (144)	
350-399만원	7.0	28.5	17.6	10.8	16.9	100.0 (80)	3.1	63.8	26.2	10.0	100.0 (80)	
400-499만원	9.0	34.4	17.5	5.6	8.8	100.0 (195)	3.2	71.4	15.7	12.8	100.0 (195)	
500-599만원	9.9	22.2	20.3	14.0	13.5	100.0 (183)	3.1	78.0	10.0	12.0	100.0 (183)	
600-699만원	8.5	35.3	10.8	12.9	9.6	100.0 (103)	3.2	77.4	8.1	14.5	100.0 (103)	

구분	교육 비용의 부담 정도								미지원 시 이용 의사			
	매우 부담됨	부담되는 편	적당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 안됨	계(수)	5점 평균	있음	없음	잘 모름	계(수)	
700만원 이상	4.6	31.5	15.4	10.7	10.8	100.0 (143)	3.2	73.7	10.5	15.8	100.0 (143)	
모름/무응답	-	38.0	8.4	52.4	17.7	100.0 (6)	2.4	70.1	14.8	15.2	100.0 (6)	
χ^2 (df)/F								3.2*** ^(a)	66.8(18)***			
2015년 조사	7.0	40.7	31.1	9.4	11.8	100.0 (742)	3.2	64.8	15.8	19.4	100.0 (742)	
2012년 조사	11.6	45.1	20.6	16.3	6.4	100.0 (712)	2.6	86.6	11.5	2.0	100.0 (74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3) 평균은 '매우 부담됨' 1점~'전혀 부담되지 않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역코딩하여 산출함.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감이 높음을 의미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01$.

한편, 보육·교육기관 이용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기관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1.6%는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15.0%의 응답자는 비용 지원이 없다면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2015년 조사결과 대비 비용 지원이 없어도 기관을(유치원을) 이용하겠다는 의사는 64.8%에서 약 6.8%p 증가하였고, 지원이 없는 경우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15.8%에서 다소(0.8%p) 감소하였다. 즉, 2015년에 비해 유아의 부모들이 비용을 불문하고 유아의 기관 이용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거나, 유아의 기관 이용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추가 비용 부담 의사 및 추가 부담 가능 수준

더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치원이 있다면 추가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질 높은 유치원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그러한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35.8%, 없다는 응답이 64.2%로 나타났다. 추가 비용을 더 내서라도 더 좋은 유치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2012년 20.4%, 2015년 26.0%에서 2018년 35.8%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추가 비용 부담을 할 수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이러한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위해서라면 추가비용 부담을 할 수 있다는 응답은 유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

니었다. 거주지역규모, 유치원 유형에 따른 응답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는데,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응답은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38.9%)가 미취업모인 경우(33.1%)에 비해 높았으며, 가구소득 증가에 따라 대체로 비용을 추가 부담할 수 있다는 의사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표 VII-2-7 ▣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유치원 교육비 추가부담 의사 및 추가 부담 가능 비용 수준
단위: %(명), 천원

구분	추가비용 부담 의사			추가 부담 의사가 있는 경우 비용				
	있다	없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전체	35.8	64.2	100.0(1,005)	116.4	87.9	15.0	500.0	(354)
보육연령								
3세	39.2	60.8	100.0(271)	110.4	86.4	20.0	500.0	(104)
4세	35.9	64.1	100.0(318)	112.9	95.7	15.0	500.0	(113)
5세	33.7	66.3	100.0(416)	123.1	82.5	20.0	500.0	(137)
χ^2 (df)/F	2.0(2)			0.8				
지역규모								
대도시	38.1	61.9	100.0(364)	119.9	97.1	20.0	500.0	(141)
중소도시	34.6	65.4	100.0(317)	118.7	82.6	20.0	500.0	(108)
읍·면	32.9	67.1	100.0(324)	99.2	72.2	15.0	300.0	(105)
χ^2 (df)/F	1.8(2)			1.2(a)				
모취업 여부								
취업	38.9	61.1	100.0(486)	122.6	92.6	20.0	500.0	(186)
휴직중	44.1	55.9	100.0(33)	183.4	151.4	20.0	500.0	(13)
미취업	33.1	66.9	100.0(468)	103.9	71.6	15.0	300.0	(153)
모부재 등	8.6	91.4	100.0(18)	89.0	114.2	50.0	200.0	(2)
χ^2 (df)/F	10.8(3)**			4.1***(a)				
유치원 유형								
국·공립	34.1	65.9	100.0(365)	126.9	90.9	15.0	500.0	(121)
사립	36.5	63.5	100.0(640)	112.2	86.6	20.0	500.0	(233)
χ^2 (df)/F	0.5(1)			1.4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6.0	84.0	100.0(40)	85.0	38.1	50.0	150.0	(8)
200~249만원	20.7	79.3	100.0(45)	76.4	68.8	15.0	300.0	(10)
250~299만원	37.6	62.4	100.0(66)	106.4	68.2	50.0	300.0	(24)
300~349만원	30.2	69.8	100.0(144)	103.2	63.6	30.0	300.0	(40)
350~399만원	26.5	73.5	100.0(80)	124.0	94.1	20.0	300.0	(22)
400~499만원	39.7	60.3	100.0(195)	98.5	76.0	20.0	300.0	(79)

구분	추가비용 부담 의사			추가 부담 의사가 있는 경우 비용				
	있다	없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500~599만원	43.0	57.0	100.0(183)	113.1	81.3	20.0	500.0	(75)
600~699만원	34.5	65.5	100.0(103)	121.0	116.8	20.0	500.0	(33)
700만원 이상	40.8	59.2	100.0(143)	155.2	101.5	20.0	500.0	(63)
모름/무응답	-	100.0	100.0(6)	-	-	-	-	-
χ^2 (df)/F	22.8(9)***			2.6***(a)				
2015년 조사	26.0	74.0	100.0(742)	122.6	108.4	5.0	500.0	(181)
2012년 조사	20.4	79.6	100.0(744)	158.5	106.8	50.0	500.0	(15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 $p < .001$.

추가부담 의사가 있는 경우, 매월 최대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은 평균 116,400 원이라 응답되었다. 최대 지불 가능액수는 2012년 158,500원, 2015년 122,600 원에 비해 하락하였는데, 이는 부모가 지출하고 있는 유치원 교육비 총액이 2012년(193,800원), 2015년(130,500원) 대비 2018년(238,800원)이 이미 매우 높기 때문에 추가 지출 가능액수는 낮아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유치원 이용 유형에 따라서 현재 비용 지출 수준이 낮은 국·공립유치원 이용가구에서 추가로 지출 가능한 비용 수준이(126,900원)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이용 가구(112,200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비용 수준이란 이러한 현재 지출하는 비용 수준만이 아니라 ‘서비스 질에 대한 선호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 ‘기관 의존도(예: 취업모)’,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가구소득)’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응답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유치원 제공 서비스

본 절에서는 유치원 서비스의 제공 여부 및 제공 행태(주기), 만족도, 건강검진 안내, 아이행복카드 결제 관련 조사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부모 대상 서비스

교육계획표, 급·간식 식단, 가정통신문, 발달평가, 부모상담, 부모교육자료, 부모참여 프로그램, 양방향 알림장 등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부모 대상 서비스의 제공 여부 및 제공 주기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으나, 유치원이 제공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던 것은 '양방향알림장'으로 23.7%의 유아가 이용하는 유치원에서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응답되었다. 이밖에 '자녀발달평가'는 12.4%가, '부모교육자료'는 9.7%, '부모참여프로그램'은 5.1%가 제공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유치원 서비스 중 상대적으로 제공 비율이 낮은 서비스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서비스 유형별로 제공 주기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서비스 중 '매일 제공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서비스는 '양방향 알림장'이었다(43.3%), 즉 유치원에서 양방향 알림장은 제공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은 서비스이나, 제공할 경우에는 제공 주기가 가장 짧은 유형으로 볼 수 있겠다. 양방향 서비스 외에는 '매일' 제공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서비스는 '가정통신문'(8.0%), '급·간식 식단 제공'(6.2%)이었다. 다음으로 매주 1회 제공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서비스는 '가정통신문'으로 80.1%에 달하였고, 다음으로 '교육계획표 제공'도 72.6%였으며, '급간식 식단'은 월 1회 제공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55.0%). 이처럼 양방향 알림장, 가정통신문, 교육계획표 제공, 급·간식 식단 제공 등은 제공 주기가 월 1회 이하로 짧은 서비스에 속하나, 반대로 '발달평가', '부모 상담', '부모참여프로그램'은 분기 또는 연 1~2회 정도 제공되는 비율이 높아, 비교적 제공 주기가 긴 서비스에 해당하였다.

'발달 평가'의 경우에는 연 1~2회 제공받는다는 경우가 31.1%로 가장 많았으나, 분기에 1회 제공 받는다는 응답도 29.9%로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부모 상담(54.4%)'과 '부모교육자료(28.2%)', '부모참여프로그램(50.5%)'은 모두 연 1~2회

제공 받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부모교육 자료의 경우는 연 1~2회 제공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분기 1회 제공 20.7%, 월 1회 20.1%, 매주 1회 제공한다는 경우도 14.0%로 기관별로 제공 주기가 다양한 서비스 제공 항목으로 보인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 여부와 제공 주기는 유아 연령,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등에 따른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2015년 조사결과와도 큰 경향성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VII-3-1 제 특성별 유치원 부모서비스 제공 여부 및 주기

단위: %(명)

구분	연령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전체	2015년
	3세	4세	5세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교육계획표										
매일	2.9	3.1	4.3	4.5	3.2	4.6	2.1	4.9	3.6	4.5
매주 1회	78.6	70.2	71.0	75.5	71.4	64.1	81.9	68.5	72.6	67.6
월 1회	16.7	22.8	21.6	16.8	22.5	26.6	14.1	24.4	20.8	24.4
분기 1회	0.8	2.1	1.9	1.0	2.0	3.2	0.4	1.4	1.7	1.8
연 1~2회	0.5	1.4	0.8	1.3	0.7	1.4	0.6	0.4	0.9	0.9
제공 안함	0.4	-	-	-	0.1	-	0.2	-	0.1	0.3
모름	0.2	.4	.4	1.0	0.1	-	0.6	0.5	0.3	1.4
급·간식식단										
매일	6.2	7.0	5.6	9.3	4.9	8.0	4.9	5.4	6.2	4.6
매주 1회	37.1	34.7	40.6	32.2	40.2	31.4	42.9	40.1	37.8	38.2
월 1회	55.5	56.5	53.6	57.3	54.1	59.3	51.6	53.5	55.0	55.5
연 1~2회	0.5	1.2	-	0.9	0.3	1.1	-	0.5	0.5	0.2
제공 안함	0.4	0.5	0.1	-	0.4	-	0.6	0.2	0.3	-
모름	0.3	-	0.1	0.4	-	0.2	-	0.2	0.1	1.5
가정통신문										
매일	7.4	8.3	8.2	11.3	6.6	11.8	5.1	6.5	8.0	7.9
매주 1회	78.5	80.7	80.5	76.7	81.5	75.1	85.3	78.2	80.1	76.2
월 1회	11.8	8.3	9.7	10.5	9.4	10.0	8.0	14.2	9.8	13.4
분기 1회	0.3	2.2	1.2	1.1	1.4	2.1	1.0	0.2	1.3	0.6
연 1~2회	0.9	0.6	0.2	0.2	0.6	1.1	-	0.5	0.5	0.5
제공 안함	0.4	-	-	-	0.1	-	0.2	-	0.1	0.2
모름	0.7	-	0.1	0.1	0.3	-	0.3	0.5	0.2	1.7
자녀발달평가										
매일	0.6	1.5	1.1	1.3	1.0	1.7	0.9	0.4	1.1	1.3
매주 1회	6.7	5.5	5.8	5.6	6.0	5.9	4.6	9.9	5.9	7.3
월 1회	13.6	11.5	10.3	9.6	12.3	10.7	9.2	20.0	11.5	14.0
분기 1회	26.2	30.8	31.4	28.7	30.4	36.3	26.2	24.0	29.9	29.9
연 1~2회	28.3	28.4	34.8	30.6	31.4	27.5	36.0	26.7	31.1	61.9



구분	연령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전체	2015년
	3세	4세	5세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제공 안함	15.8	13.3	9.7	12.5	12.3	12.2	13.5	9.5	12.4	10.2
모름	8.8	8.9	7.0	11.6	6.5	5.8	9.6	9.4	8.0	5.3
부모상담										
매일	0.7	1.3	.8	1.0	1.0	2.1	0.2	0.2	1.0	1.0
매주 1회	2.0	1.8	1.3	1.9	1.5	1.6	1.6	1.8	1.6	2.9
월 1회	6.6	5.8	6.7	7.3	5.9	5.4	7.1	6.7	6.4	5.4
분기 1회	33.5	34.9	29.3	27.4	34.2	38.3	27.4	29.6	32.1	84.6
연 1~2회	49.0	54.2	57.7	58.0	52.9	49.0	59.2	55.0	54.4	
제공 안함	4.1	0.8	2.3	2.3	2.3	1.0	3.2	2.8	2.3	2.5
모름	4.0	1.2	1.9	2.1	2.3	2.6	1.3	3.9	2.2	3.6
부모교육자료										
매일	0.3	1.1	1.1	0.5	1.1	2.3	-	-	0.9	1.9
매주 1회	19.3	11.5	12.7	12.0	14.8	13.1	17.8	5.2	14.0	15.6
월 1회	21.2	19.9	19.6	20.5	19.9	19.6	22.1	15.6	20.1	18.8
분기 1회	18.4	21.7	21.3	21.0	20.6	24.2	17.3	21.0	20.7	49.1
연 1~2회	22.1	31.6	29.1	32.6	26.3	25.8	24.5	44.5	28.2	
제공 안함	11.9	8.7	9.3	7.0	10.9	9.5	12.0	4.0	9.7	7.3
모름	6.9	5.5	6.9	6.5	6.4	5.5	6.2	9.5	6.4	7.4
부모참여프로그램										
매일	0.4	0.8	0.6	1.3	0.3	1.2	0.2	-	0.6	0.6
매주 1회	3.1	2.3	1.0	1.1	2.3	1.2	2.7	1.4	1.9	4.0
월 1회	7.1	6.7	7.7	7.5	7.2	10.8	4.9	4.6	7.2	7.7
분기 1회	34.3	26.9	31.8	29.6	31.3	34.6	30.4	22.4	30.8	78.0
연 1~2회	47.4	53.7	50.0	48.1	51.6	45.1	51.6	61.6	50.5	
제공 안함	3.8	6.4	4.8	6.0	4.7	4.4	6.0	4.1	5.1	4.5
모름	3.9	3.2	4.1	6.5	2.7	2.6	4.2	5.8	3.8	5.1
양방향 일립장										
매일	44.7	40.6	44.5	38.8	45.2	43.5	38.5	56.3	43.3	-
매주1회	16.9	20.3	18.2	16.4	19.5	15.8	20.0	21.7	18.6	-
월 1회	5.5	2.6	3.2	2.4	4.1	5.0	2.2	3.6	3.6	-
분기 1회	2.6	3.2	3.7	4.6	2.7	6.0	1.1	2.1	3.3	-
연 1~2회	1.0	0.4	2.3	1.0	1.5	2.5	0.6	0.4	1.3	-
제공안함	23.7	25.9	22.1	28.6	21.6	21.4	30.7	9.9	23.7	-
모름	5.7	7.0	6.1	8.2	5.4	5.8	6.8	6.0	6.3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71)	(318)	(416)	(365)	(640)	(364)	(317)	(324)	(1,005)	(74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중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유치원 제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우선 만족한다는 비율(매우 만족 + 만족)은 교육계획표 85.0%, 가정통신문 84.7%, 급간식 식단 81.7% 순으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모교육은 68.2%로 만족 비율이 가장 낮은 서비스로 나타났다. 5점 평균으로 평정한 결과, 만족 비율이 높았던 계획표는 평균 4.1점, 가정통신문 4.0점, 급·간식 식단 제공 4.0점이나, ‘부모교육’ 3.8점, ‘부모 상담’ 3.8점이며, ‘부모참여 프로그램’도 3.9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나 유치원 서비스 중 ‘부모’ 대상의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치원이 ‘유아교육’기관이기는 하나,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 영유아를 포함한 가족 대상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의 기능 확대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향후에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내실화도 더욱 필요함을 의미한다 하겠다.

한편, 유치원 유형별로는 국·공립유치원 이용자의 만족비율과 점수가 사립유치원 이용자에 비해 모두 높게 나타났다. 모든 서비스 항목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과 점수가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이용 비용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출 비용을 고려하여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가성비’로 평가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만족도의 격차는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기를 원하나 이용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는 더욱 큰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으로, 사립유치원의 비용 부담을 줄이거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VII-3-2 | 유치원 유형별 서비스 제공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만족한다는 비율								5점 평균							
	계획표	급간식 식단	가정통신문	발달 평가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부모 참여 프로그램	양방향 알림장	계획표	급간식 식단	가정통신문	발달 평가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부모 참여 프로그램	양방향 알림장
전체	85.0	81.7	84.7	75.2	70.1	68.2	71.2	76.7	4.1	4.0	4.0	3.9	3.8	3.8	3.9	3.9
국·공립	88.4	85.9	90.7	82.4	77.8	73.5	78.6	85.9	4.1	4.1	4.1	4.0	3.9	3.9	4.0	4.1
사립	83.6	80.0	82.2	72.3	66.8	65.9	68.3	73.4	4.0	4.0	4.0	3.9	3.8	3.8	3.8	3.9
(수)	(999)	(999)	(1,001)	(798)	(946)	(837)	(903)	(730)	(999)	(999)	(1,001)	(798)	(946)	(837)	(903)	(73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입.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3) 5점 평균은 ‘매우만족’ 1점~‘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역코딩하여 산출한 결과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나. 건강검진 실시 안내

유치원 이용 아동 중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을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4%가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령,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VII-3-3 제 특성별 유치원 이용 아동의 건강검진 관리

단위: %(명)

구분	연령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전체	2015
	3세	4세	5세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받음	81.0	73.9	78.0	76.8	77.7	80.5	75.7	74.1	77.4	80.4
받지 않음	16.3	23.3	18.8	19.4	19.7	17.3	20.7	22.6	19.6	17.4
잘 모름	2.7	2.8	3.2	3.7	2.6	2.2	3.5	3.3	2.9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71)	(318)	(416)	(365)	(640)	(364)	(317)	(324)	(1,005)	(742)
χ^2 (df)	4.9(4)			0.7(2)		4.5(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한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유치원으로부터 사전 안내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1.0%가 안내를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나 안내를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12.5%나 되었으며, 안내를 받았다는 응답비율은 2015년의 84.5% 대비 하락하였다. 연령별, 유치원 유형별로 뚜렷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지역이(83.9%)이 중소도시(78.8%), 읍·면지역(79.8%)에 비해 사전안내를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VII-3-4 제 특성별 유치원의 건강검진 사전 안내 여부

단위: %(명)

구분	연령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전체	2015
	3세	4세	5세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받음	81.4	80.3	81.3	80.9	81.1	83.9	78.8	79.8	81.0	84.5
받지 않음	10.2	12.8	13.6	13.3	12.2	10.0	14.2	14.4	12.5	11.3
잘 모름	8.3	6.9	5.0	5.8	6.7	6.1	7.0	5.8	6.4	4.1

구분	연령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전체	2015
	3세	4세	5세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71)	(318)	(416)	(365)	(640)	(364)	(317)	(324)	(1,005)	(742)
$\chi^2(df)$	4.4(4)			0.4(2)		4.6(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다. 아이행복카드 결제 방법

아이행복카드의 결제 빈도와 결제 방법에 대해 알아본 결과, 매달 결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6.3%로 높았고, 분기별로 결제한다는 응답은 23.7%로 나타났다. 매달 결제한다는 비율은 유아 연령이 어릴수록 높은 경향을 보여 3세 80.7%, 4세 77.5%, 5세 72.8%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결제 방법으로는 유치원에 카드를 전달하여 결제한다는 비율이 6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터넷 결제 16.1%, ARS 15.5%, 방문 결제 6.5% 순이었다. 2015년에는 카드 맡김과 카드 전달 결제 비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018년에는 카드를 맡겨 결제한다는 응답은 없어 차이를 보였다.

한편 결제방법은 지역규모와 유치원 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인터넷으로 결제한다는 비율은 대도시지역에서 23.6%에 달하나 중소도시 11.9%, 읍·면 지역 8.5%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읍·면지역 보호자의 PC나 모바일 등을 통한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반면에 읍·면지역에서는 방문(10.0%) 및 카드전달(69.0%)을 통한 결제 비율이 높았는 바, 읍·면지역 등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을 위해 인터넷, ARS 등을 이용해 결제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방법의 안내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표 VII-3-5 아이행복카드 결제 빈도 및 결제방법(유치원 이용 아동)

단위: %(명)

구분	결제 빈도			결제 방법						
	매달	분기	계(수)	방문	카드 전달	카드 맡김	인터넷	ARS	무응답	계(수)
전체	76.3	23.7	100.0 (1,005)	6.5	61.9	-	16.1	15.5	-	100.0 (1,005)
보육연령										
3세	80.7	19.3	100.0 (271)	6.1	59.1	-	17.8	16.9	-	100.0 (271)
4세	77.5	22.5	100.0 (318)	7.3	60.6	-	14.8	17.3	-	100.0 (318)
5세	72.8	27.2	100.0 (416)	6.1	64.5	-	16.1	13.3	-	100.0 (416)
χ^2 (df)	5.7(2)*			4.7(6)						
지역규모										
대도시	77.3	22.7	100.0 (364)	7.1	56.2	-	23.6	13.2	-	100.0 (364)
중소도시	74.6	25.4	100.0 (317)	4.7	64.7	-	11.9	18.7	-	100.0 (317)
읍·면	78.3	21.7	100.0 (324)	10.0	69.0	-	8.5	12.5	-	100.0 (324)
χ^2 (df)	1.3(2)			39.2(6)***						
유치원 유형										
국·공립	73.1	26.9	100.0 (365)	13.5	60.4	-	10.7	15.5	-	100.0 (365)
사립	77.6	22.4	100.0 (640)	3.5	62.6	-	18.4	15.5	-	100.0 (640)
χ^2 (df)	2.3(1)			41.5(3)***						
2015년 조사	76.9	23.1	100.0 (742)	11.1	33.9	35.0	8.0	11.0	1.0	100.0 (74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중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01$.

4 방과후 특성화활동

본 절에서는 유치원 이용 원아의 방과후 특성화활동 이용 행태, 이용비용, 만족도 등 방과후 특성화활동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가. 이용프로그램 개수 및 종류

유치원 이용 아동이 참여하는 방과후 특성화활동의 평균 프로그램 개수는 2.9개로 2015년 평균 2.6개 대비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참여하는 활동이 없다

고 응답한 비율은 20.0%로 2015년 25.4% 보다 감소하였다. 이용하는 경우 5개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1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개 16.3%, 4개 14.8%, 2개 12.9%, 1개 9.8%, 6개 5.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 지역규모에 따른 이용 개수의 차이는 없었으나, 모취업 여부, 유치원 유형,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평균 3.2개의 특성화 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취업인 경우의 2.6개에 비해 많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취업모 가구의 유아는 더 긴 시간 유치원에 머무르며,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면서 특성화활동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국·공립유치원에(2.3개) 비해 사립유치원 이용 유아의 특성화활동 프로그램 이용 개수가(3.1개) 많은 것도 사립유치원 이용 유아의 유치원 이용 시간이 평균적으로 더 길었던 결과와(표 VII-1-18 참조) 관련하여 해석해 볼 수 있겠다.

표 VII-4-1 제 특성별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수

구분	단위: %(명), 개											평균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계(수)
전체	20.0	9.8	12.9	16.3	14.8	17.4	5.4	1.5	1.4	0.3	0.1	100.0(1,005)	2.9
보육연령													
3세	22.6	10.8	10.5	16.6	11.4	18.3	6.7	2.8	0.3	-	-	100.0(271)	2.8
4세	19.4	10.0	12.4	18.2	16.6	15.2	4.1	1.8	1.9	0.4	-	100.0(318)	2.9
5세	18.9	9.2	14.5	14.8	15.4	18.5	5.7	0.7	1.5	0.5	0.2	100.0(416)	3.0
F													0.4
지역규모													
대도시	19.9	10.2	12.6	13.5	14.9	19.1	4.2	1.1	3.4	0.9	0.2	100.0(364)	3.0
중소도시	21.0	10.8	12.5	15.7	13.7	16.7	7.5	2.3	-	-	-	100.0(317)	2.8
읍·면	17.3	6.3	14.6	25.5	17.9	15.2	2.7	0.6	-	-	-	100.0(324)	2.8
F													1.1(a)
모취업 여부													
취업	14.6	9.2	13.2	15.9	17.6	18.1	7.1	2.2	1.7	0.2	0.2	100.0(486)	3.2
휴직중	17.6	8.2	23.2	24.3	11.2	5.3	1.5	4.9	3.7	-	-	100.0(33)	2.7
미취업	26.0	9.6	12.1	16.5	12.4	16.9	4.2	0.7	1.0	0.5	-	100.0(468)	2.6
모부재 등	4.5	36.0	6.5	8.4	13.3	31.4	-	-	-	-	-	100.0(18)	2.8
F													6.7***
유치원 유형													
국·공립	27.4	7.0	13.7	22.3	17.4	10.0	2.1	-	-	-	-	100.0(365)	2.3
사립	16.8	11.1	12.5	13.8	13.7	20.5	6.8	2.2	1.9	0.5	0.1	100.0(640)	3.1
t													-6.0***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계(수)	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33.7	10.4	18.5	11.0	14.4	12.1	-	-	-	-	-	100.0(40)	2.0
200~249만원	15.4	1.0	14.7	20.1	21.6	23.7	3.6	-	-	-	-	100.0(45)	3.2
250~299만원	26.8	2.1	9.3	11.9	25.8	13.4	6.4	2.3	1.9	-	-	100.0(66)	3.0
300~349만원	16.0	10.8	19.5	16.3	14.0	15.1	4.2	4.1	-	-	-	100.0(144)	2.8
350~399만원	27.2	16.0	5.2	22.7	9.3	12.6	1.8	1.1	4.0	-	-	100.0(80)	2.5
400~499만원	20.5	10.1	13.1	15.2	13.9	16.3	6.2	2.3	1.2	0.7	0.5	100.0(195)	2.9
500~599만원	21.1	6.9	12.1	15.6	14.3	22.9	4.6	0.6	1.9	-	-	100.0(183)	3.0
600~699만원	10.6	11.6	11.4	20.2	18.2	15.6	10.6	-	1.9	-	-	100.0(103)	3.2
700만원 이상	19.8	13.1	12.7	14.8	12.0	18.3	5.9	1.3	0.8	1.4	-	100.0(143)	2.9
모름/무응답	14.8	-	-	-	-	85.2	-	-	-	-	-	100.0(6)	4.3
F													1.7*
2015년 조사	25.4	12.2	14.4	14.9	13.2	8.2	4.6	3.0	2.0	1.4	0.7	100.0(742)	2.6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p <.05, ***p <.001.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프로그램의 종류별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예능(미술, 음악)이 65.9%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종류였으며, 다음으로 체육관련 프로그램이 62.0%, 영어가 49.0%,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38.5%, 수학/과학 관련 프로그램 37.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읍·면지역에서는 예능, 체육관련 프로그램 이용률이 대도시, 읍면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고, 반면 영어, 수학/과학 관련 프로그램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유치원 유형에 따라서는 사립유치원에서 영어 이용 비율이 57.9%로 국·공립유치원의 28.0%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이용률을 보였으며, 이외에도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언어, 수학/과학관련 프로그램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VII-4-2 제 특성별 유치원 방과후 프로그램 종류별 특성화활동 이용 비율(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기타
전체	65.9	62.0	37.4	38.5	49.0	10.5
보육연령						
3세	62.1	61.5	33.2	38.3	48.9	13.8
4세	65.1	60.7	40.0	36.7	46.2	10.8
5세	68.8	63.2	38.0	39.8	51.3	8.3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기타
지역규모						
대도시	63.0	60.0	41.0	42.3	54.8	11.4
중소도시	65.6	60.9	35.9	34.1	47.7	10.5
읍·면	74.6	70.3	32.5	40.8	37.7	7.9
모취업 여부						
취업	70.9	66.0	41.1	39.9	57.4	11.0
휴직중	60.8	59.2	31.1	28.4	49.1	5.2
미취업	61.5	58.8	34.2	36.6	40.5	10.3
모 부재 등	62.4	45.8	37.4	66.7	55.4	9.1
유치원 유형						
국·공립	63.4	62.5	30.6	27.9	28.0	7.8
사립	67.0	61.8	40.3	42.9	57.9	11.6
(수)	(1,005)	(1,005)	(1,005)	(1,005)	(1,005)	(1,00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3) 복수응답 결과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유치원의 방과후 특성화 활동 종류별로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참여하는지를 응답하도록 한 결과, 의무 이용 비율은 활동에 따라 상이하였으나, 체육관련 프로그램의 의무 이용 비율이 53.2%,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53.1%로 가장 의무 이용 비율이 높은 종류였으며, 영어(43.1%), 기타(40.6%)는 의무 이용 비율이 다소 낮은 종류였다. 2015년은 종류별이 아닌 프로그램별 의무 이용비율을 조사하였는 바, 2018년도의 조사결과와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프로그램 별로 최고 85.7%가 의무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있었던 바²⁴⁾, 의무 이용비율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표 VII-4-3】 제 특성별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의무 이용 비율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유형		연령			지역규모			전체	(수)
	국·공립	사립	3세	4세	5세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예능(미술, 음악)	63.5	40.5	44.7	42.0	52.0	44.7	43.4	61.6	47.1	(665)
체육관련	63.3	48.9	52.4	50.3	55.8	50.5	50.7	65.2	53.2	(630)
수학/과학 관련	76.3	45.3	45.3	45.8	62.2	54.0	44.8	74.1	52.8	(363)

24) 김은설 외(2016). p. 287, <표 VII-2-36> 참조.



구분	유치원 유형		연령			지역규모			전체	(수)
	국·공립	사립	3세	4세	5세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73.0	47.6	43.7	46.9	62.6	52.1	46.4	71.6	53.1	(383)
영어	49.1	41.9	41.8	38.6	46.8	42.5	40.7	53.5	43.1	(468)
기타	73.4	31.3	35.3	37.3	49.1	42.4	31.6	67.9	40.6	(10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방과후 특성화활동을 1주일 동안 이용하는 횟수를 조사한 결과, 1주일 평균 전체 프로그램의 이용 횟수는 최소 1회에서 최대 30회까지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영어의 주당 평균 이용 횟수가 1.7회로 가장 많았으나, 대부분 주당이용횟수는 종류별로 1.3회~1.7회 사이에 분포하였다. 방과후 특성화활동의 주당 평균 이용 횟수는 유치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사립유치원 이용자의 경우 주당 평균 5.2회 특성화 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어 평일 기준으로 하루 1회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공립유치원 이용자의 3.9회에 비해 1회 이상 참여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어와 언어, 예능 프로그램 이용 횟수에서 사립유치원 이용자의 이용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결과와 비교 시 주당 특성화활동 이용 횟수는 3.5회에서 2018년 4.9회로 1.4회 증가하였고, 유치원 유형별로는 특히 사립유치원의 이용 횟수가 평균 3.5회에서 5.2회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성화활동 이용은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유아의 사교육 이용과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으로 과열된 특성화활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표 VII-4-4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1주일 평균 이용 횟수

단위: 회(명)

구분	전체				유치원 유형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국·공립	사립	t	
전체	4.9	3.1	1.0	30.0	3.9	5.2	-5.8***	(800)
예능(미술, 음악)	1.5	1.0	1.0	7.0	1.3	1.6	-4.8***	(665)
체육관련	1.3	0.7	1.0	5.0	1.2	1.3	-1.2	(630)
수학/과학 관련	1.4	0.8	1.0	5.0	1.3	1.4	-0.7	(363)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1.5	1.1	1.0	5.0	1.4	1.6	-1.4	(383)

구분	전체				유치원 유형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국·공립	사립	t	
영어	1.7	1.2	1.0	5.0	1.3	1.8	-5.1***	(468)
기타	1.3	0.9	1.0	5.0	1.4	1.3	0.2	(103)
2015년	3.5	2.0	1.0	10.0	3.7	3.5	0.9	(664)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3) 최대값 30회: 각 과목에 대하여 주5일 매일 한다고 응답한 경우임.
 4) 복수응답 결과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p < .001.

나. 특성화활동 비용

방과후 특성화활동 이용비용을 별도로 지불하는지 질문한 결과, 모든 활동 종류별로 별도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100%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특성화활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VII-4-5 ▣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프로그램종류별 별도 비용 지불 비율

단위: %(명)

구분	연령			지역규모			유치원 유형		전체	(수)
	3세	4세	5세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국·공립	사립		
예능(미술, 음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65)
체육관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30)
수학/과학 관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63)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83)
영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68)
기타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3)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방과후 특성화활동에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월 평균 비용을 조사한 결과는 <표 VII-4-6>과 같다. 프로그램 종류별로 최저 2,000원에서 최고 320,000원까지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는 영어프로그램에 지불하는 비용이 월평균 30,500원으로 가장 높고, 예능 27,100원, 기타 프로그램 26,100원 순이며 대부분 22,000~23,000원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유형



별로는 대부분의 활동에서 사립유치원의 특성화활동 프로그램 이용 비용이 높아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간 비용의 차이가 있었는데, 기타를 제외하면 영어 프로그램 이용 비용의 절대액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 사립유치원 이용자의 영어 프로그램 이용 비용은 33,800원 국·공립유치원 이용자의 영어 이용 비용은 14,200원으로 19,600원의 차이가 났으며, 예능도 국·공립유치원(13,700원)과 사립유치원(32,500원)간 18,800원의 차이가 났다.

표 VII-4-6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프로그램종류별 월평균 지불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전체				유치원 유형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국·공립	사립	t	
예능(미술, 음악)	27.1	24.9	4.0	200.0	13.7	32.5	-13.3***	(665)
체육관련	22.4	18.9	3.0	180.0	12.7	26.5	-12.3***	(630)
수학/과학 관련	22.1	17.8	3.0	200.0	12.8	25.0	-8.5***	(363)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23.9	24.3	2.0	320.0	11.9	27.3	-9.0***	(383)
영어	30.5	28.3	3.0	250.0	14.2	33.8	-11.3***	(468)
기타	26.1	22.3	2.0	150.0	10.1	30.7	-7.7***	(103)

주: 1) 비용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p < .001.

방과후 특성화활동의 월평균 지불 비용을 연령, 지역규모, 유치원 유형별로 살펴해보았다. 연령별로는 4세가 모든 방과후 활동 종류별로 3세, 5세 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지역규모별로는 예능을 제외한 모든 방과후 활동 종류별로 대도시지역 유아의 이용 비용이 높게 나타나며, 대도시 > 중소도시 > 읍·면지역 순으로 나타나 지역규모에 따른 특성화 활동 비용 부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유형별로는 사립유치원 이용자가 모든 방과후 활동 종류별로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4-7 제 특성별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프로그램종류별 월평균 지출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예능(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기타
전체	27.1	22.4	22.1	23.9	30.5	26.1
보육연령						
3세	25.6	21.7	21.4	23.7	29.5	25.3
4세	29.7	23.5	23.3	27.0	33.1	24.8
5세	26.1	21.9	21.4	21.9	29.3	28.2
F	1.7	0.5	0.5	1.5	0.9(a)	0.2
지역규모						
대도시	28.8	25.3	24.5	29.4	35.3	32.9
중소도시	30.3	23.2	22.1	21.7	28.6	22.7
읍·면	15.4	13.7	14.1	14.4	19.1	13.6
F	16.9***(a)	15.9***(a)	6.8***	10.5***(a)	8.9***(a)	5.0***
설립유형						
국·공립	13.7	12.7	12.8	11.9	14.2	10.1
사립	32.5	26.5	25.0	27.3	33.8	30.7
t	-13.3***	-12.3***	-8.5***	-9.0***	-11.3***	-7.7***
(수)	(665)	(630)	(363)	(383)	(468)	(10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다음으로 방과후 특성화활동 비용에 지불되는 총 지출액을 기준으로 지출 비용의 수준을 제 특성별로 살펴보았다. 우선 전체적인 지출 비용의 범위를 살펴보면, 총액 기준 5~10만원을 지출한다는 경우가 가장 많아서 34.9%에 해당하였고, 10~15만원 미만 지출이 21.1%, 3~5만원 18.4%, 2~3만원 9.6%, 15~20만원 6.7%, 20만원 이상 6.1%로 나타났으며, 특성화활동에 소요되는 월평균 총 비용은 평균 83,600원이었다. 유치원 이용 아동이 특성화활동 프로그램에 지출하는 비용은 2012년 68,600원, 2015년 75,400원에서 지속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VII-4-8 제 특성별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월평균 비용의 범위

단위: %(명), 천원

구분	무료	1만원 미만	1~2만원	2~3만원 미만	3~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15만원 미만	15~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계(수)	지불시 평균	표준 편차
전체	-	-	3.2	9.6	18.4	34.9	21.1	6.7	6.1	100.0 (800)	83.6	66.5
보육연령												
3세	-	-	4.2	9.8	16.9	34.9	22.9	6.2	5.2	100.0 (211)	81.9	64.3
4세	-	-	3.6	8.6	15.8	37.7	17.7	8.1	8.5	100.0 (252)	87.8	67.4
5세	-	-	2.4	10.2	21.1	32.7	22.6	5.9	4.9	100.0 (337)	81.4	67.0
χ^2 (df)/F					11.4(12)							0.8
지역규모												
대도시	-	-	3.1	6.7	12.3	34.9	25.2	8.2	9.6	100.0 (288)	98.6	78.5
중소도시	-	-	1.9	10.5	16.9	35.9	22.5	7.3	5.0	100.0 (248)	82.7	58.4
읍·면	-	-	7.2	14.6	37.6	31.9	7.0	1.1	0.5	100.0 (264)	48.1	31.2
χ^2 (df)/F					84.4(12)***							29.0*** ^(a)
유치원 유형												
국·공립	-	-	8.3	22.3	44.8	19.3	4.5	0.9	-	100.0 (270)	39.5	25.8
사립	-	-	1.4	4.9	8.6	40.6	27.2	8.8	8.4	- (530)	99.8	69.4
χ^2 (df)/F					281.9(6)***							-18.1***
2015년 조사	6.4	1.4	1.2	7.5	18.8	38.8	19.2	4.8	1.9	100.0 (560)	75.4	47.8
2012년 조사	9.1	4.1	3.4	4.8	20.4	37.2	15.0	3.2	2.7	100.0 (513)	68.6	45.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한편, 연령별로는 4세가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으며,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평균 총 지출액이 대도시 98,600원, 중소도시 82,700원, 읍·면지역이 48,100원으로 지역규모가 클수록 지출액이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립유치원이 99,800원, 국·공립유치원 39,500원으로 총액 기준 약 6만원의 차이가 나타나 2015년 대비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특성화활동 이용 비용 차이가 더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다. 특성화활동 만족도 및 선호프로그램

방과후 특성화활동에 만족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활동에 따라 3.86점에서 (영어) 4.10점(기타) 사이의 분포를 보여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치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특성화활동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모든 특성화활동 종류에 대해 국·공립유치원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영어를 제외한 모든 특성화활동 종류별 만족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단, 이러한 차이는 기관 유형에 따른 차이로 해석하기 보다는 개별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활동의 질에 따른 차이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만족도는 지출하는 비용에 대비한 ‘가성비’로 평가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표 VII-4-9 ▶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 (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기타
전체	3.96	3.95	3.88	3.91	3.86	4.10
국·공립	4.12	4.13	4.11	4.15	3.92	4.35
사립	3.90	3.87	3.80	3.84	3.85	4.02
<i>t</i>	4.4***	5.0***	4.2***	4.4***	0.9	2.4**
(수)	(665)	(630)	(363)	(383)	(468)	(103)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3) 5점 평균은 '매우 만족'1점~ '매우 불만족'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역코딩하여 산출함.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p* < .01, *p* < .001.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특성화 활동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선별하여, 특성화활동 중 가장 선호하는 활동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성화 활동은 예능으로 30.5%가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영어 24.1%, 체육관련 프로그램 22.4%, 언어 15.0%, 수학/과학 관련 프로그램 5.0% 순으로 응답되었다. 1.1%의 응답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선호하는 프로그램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중소도시의 경우, 체육 활동을 선호하는 비율이 27.2%로 대도시(19.1%), 읍·면지



역(18.1%)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응답되었고, 반면 영어는 대도시(32.6%)가 중소도시(19.8%), 읍·면지역(14.2%)에 비해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유형별로는 국·공립유치원 이용자의 경우, 예능(37.7%)과 체육 관련 활동(25.2%)을 중시한다는 비율이 사립유치원 이용자에 비해 높았고, 반면 사립유치원 이용자는 '영어'를 중시한다는 비율이 27.4%로 예능(27.8%) 다음으로 높아 차이를 보였다.

표 VII-4-10 유치원 이용 유아 특성별 방과후 특성화활동 선호도(특별활동 이용자)

단위: %(명)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 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기타	없음	계(수)
전체	30.5	22.4	5.0	15.0	24.1	1.9	1.1	100.0(800)
보육연령								
3세	30.0	23.6	1.7	14.4	25.7	3.0	1.6	100.0(211)
4세	29.9	24.1	8.4	12.7	22.5	1.4	0.9	100.0(252)
5세	31.1	20.5	4.3	16.9	24.3	1.8	1.1	100.0(337)
지역규모								
대도시	25.3	19.1	4.8	15.9	32.6	2.0	0.3	100.0(288)
중소도시	33.2	27.2	4.9	11.3	19.8	1.7	1.9	100.0(248)
읍·면	35.8	18.1	5.9	22.5	14.2	2.4	1.0	100.0(264)
유치원 유형								
국·공립	37.7	25.2	6.8	13.4	15.0	1.5	0.5	100.0(270)
사립	27.8	21.4	4.4	15.5	27.4	2.1	1.4	100.0(53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5 유치원 만족도 및 개선 요구

본 절에서는 유치원 이용과 관련한 항목별 만족도와 도움 정도, 개선 요구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만족도

유치원 이용과 관련한 항목별 만족도를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매우 만족+만족)과 5점 척도로 평정한 점수로 살펴보았다.

우선 만족한다는 비율은 항목별로 최저 65.3%~87.9% 범위를 나타냈고,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생활지도(87.9%)이었으며, 다음으로 교직원(87.0%), 교육내용(87.0%), 안전관리(85.8%), 시설설비(83.2%), 급간식관리(80.9%), 건강관리(80.3%), 주변환경(79.2%), 부모참여 및 교육(74.7%), 비용(65.3%) 순으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가장 낮은 항목은 '비용'이었다. 유치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만족비율은 '교육내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사립유치원보다 높았다. 만족한다는 비율이 국·공립유치원은 평균 87.7%에 달하였으나, 사립유치원은 78.3%로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만족비율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2015년 결과와 비교시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만족한다는 비율은 모두 상승하였으나, 국·공립유치원의 만족도 상승에 비해 사립유치원의 만족도는 다소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어 사립유치원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서비스의 질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립유치원의 만족도 측정 항목 중 만족비율과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게 평가된 항목은 '비용'(평균 3.54점, 만족한다는 비율 53.5%)이며, 다음으로 부모참여 및 교육(평균 3.87점, 만족한다는 비율 72.0%), 급·간식관리(평균 3.95점, 만족한다는 비율 76.8%)로 사립유치원에 대해 특별히 만족도가 낮은 항목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표 VII-5-1 유치원의 전반적 만족도 비율 및 평균

단위: %(명), 점

구분	만족하는 비율				5점 평균			
	전체	국·공립	사립	(수)	전체	국·공립	사립	t
교직원	87.0	89.0	86.2	(1,005)	4.16	4.20	4.14	1.2
주변환경	79.2	84.4	76.9	(1,005)	4.00	4.11	3.96	3.0***
시설설비	83.2	85.3	82.4	(1,005)	4.09	4.14	4.07	1.6
비용	65.3	93.3	53.5	(1,005)	3.82	4.46	3.54	18.2***
건강관리	80.3	86.5	77.6	(1,005)	4.03	4.20	3.96	4.9***
급간식관리	80.9	90.4	76.8	(1,005)	4.04	4.25	3.95	5.9***
안전관리	85.8	91.3	83.5	(1,005)	4.12	4.24	4.07	3.7***
교육내용	87.0	86.8	87.0	(1,005)	4.14	4.19	4.11	1.7*
생활지도	87.9	89.0	87.5	(1,005)	4.14	4.22	4.10	2.6***
부모참여 및 교육	74.7	81.1	72.0	(1,005)	3.94	4.08	3.87	4.1***
전체 평균	81.1	87.7	78.3	(1,005)	4.05	4.21	3.98	-
2015년 조사	78.6	83.2	77.1	(742)	4.00	4.10	4.00	-
2012년 조사	66.3	72.3	64.4	(744)	3.74	3.88	3.70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3) 5점 평균은 '매우 만족' 1점~ '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역코딩하여 산출함.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p < .05, ***p < .001.

유치원 만족도를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만족도는 4세가 4.06점으로 3세(4.03점), 5세(4.05점)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지역규모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읍·면지역 유치원 이용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아 평균 4.22점으로, 대도시(4.02점), 중소도시(4.01점)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에 대한 만족도가 읍면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2012년, 2015년 조사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이는 특히 읍면지역에서 나타나는 '비용'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다른 항목에 대한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중인 경우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4.10점), 미취업인 경우(4.01점), 모 부재 등의 경우(3.93점), 휴직중인 경우(3.84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어머니가 휴직중인 경우에는 특히 비용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3.42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급·간식관리, 부모참여 및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만족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다만 본 조사에서 휴직중인 사례가 희소하여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제 특성별 유치원 만족도를 살펴 본 결과 유아 연령, 어머니 취업여부를 불문하고 유치원의 비용 만족도가 공통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다수의 유아가 이용하는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수준이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현저히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에 사립유치원은 높은 비용에 상응하는 서비스 개선 노력이 요구되며 동시에 불필요한 추가비용을 감축시키기 위한 투명한 운영이 요구된다 하겠다.

표 VII-5-2 제 특성별 유치원 만족도

단위: 점(명)

구분	연령				지역규모				모취업여부				
	3세	4세	5세	F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F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등	F
교직원	4.12	4.16	4.18	0.5	4.15	4.13	4.26	2.0	4.21	3.98	4.12	4.01	2.3*
주변환경	4.01	4.02	3.99	0.2	4.01	3.92	4.21	8.0***	4.05	3.83	3.97	3.91	1.7
시설설비	4.10	4.08	4.10	0.1	4.09	4.04	4.23	4.5**	4.16	3.96	4.03	4.00	3.4**
비용	3.76	3.82	3.85	0.7	3.70	3.76	4.27	21.9*** ^(a)	3.84	3.42	3.82	3.90	1.8 ^(a)
건강관리	4.02	4.04	4.04	0.1	4.02	3.98	4.20	5.6***	4.08	3.86	3.99	4.03	1.8
급간식관리	3.98	4.09	4.03	1.6	4.02	3.99	4.21	5.3***	4.06	3.62	4.04	3.96	3.3**
안전관리	4.10	4.13	4.13	0.2	4.09	4.10	4.25	3.7**	4.18	3.97	4.09	3.83	3.0**
교육내용	4.15	4.14	4.12	0.2	4.09	4.13	4.27	4.5**	4.22	3.99	4.07	3.97	5.0***
생활지도	4.14	4.15	4.12	0.2	4.12	4.13	4.21	1.2	4.17	4.03	4.11	3.95	1.6
부모참여 및 교육	3.91	3.94	3.95	0.3	3.94	3.88	4.09	4.4** ^(a)	3.99	3.72	3.90	3.75	2.7**
전체 평균 (수)	4.03 (271)	4.06 (318)	4.05 (416)	0.2	4.02 (364)	4.01 (317)	4.22 (324)	8.9***	4.10 (486)	3.84 (33)	4.01 (468)	3.93 (18)	3.4**
2015년 조사	4.0	4.0	4.1	-	4.0	4.0	4.2	-	4.0	4.1	4.0	-	-
2012년 조사	3.85	3.69	3.73	-	3.74	3.70	3.86	-	3.82	3.69	3.70	-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3) 5점 평균은 '매우 만족' 1점~ '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역코딩하여 산출함.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1$, *** $p < .001$.

나. 도움 경험 비율 및 정도

유치원 이용 가구에서 유치원 이용으로 제시된 항목에 대해 도움 받은 일이 있는지, 도움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도움의 항목 중 유치원 이용 응답자가 도움 받은 일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던 항목은 '양육부담 완화'로 41.2%가 유치원 이용을 통해 양육 부담이 경감되

었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취업 및 구직’에 도움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4.4%, 기관 이용을 통해 ‘후속자녀 출산’을 하였다는 응답이 8.5%, ‘학업 및 취업 훈련’에 도움 받았다는 응답이 4.8%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에게 막연한 도움이 아니라 각 항목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경우만 응답하도록 한 결과이다. ‘양육부담 경감’ > ‘취업 및 구직’ > ‘후속자녀 출산’ > ‘학업 및 취업훈련’의 순서로 도움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국·공립, 사립유치원을 불문하고 동일하였으나, 사립유치원 이용자의 경우는 ‘취업과 구직’(15.8%), ‘후속자녀 출산’에 도움을 받았다는 경우(9.7%)가 국·공립유치원 이용자에 비해 ‘취업 및 구직’ 4.6%p, ‘후속자녀 출산’ 3.9%p만큼 높았다. 이러한 도움 경험 비율은 2012년, 2015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8년 조사 시 ‘도움 받은 경험’을 엄격하게 적용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표 VII-5-3 유치원 유형별 도움 경험 비율 비교

단위: %(명)

구분	취업 구직	학업 및 취업훈련	양육 부담 완화	후속자녀 출산	기타	(수)
전체	14.4	4.8	41.2	8.5	-	(1,005)
국·공립	11.2	5.6	39.9	5.8	-	(365)
사립	15.8	4.4	41.8	9.7	-	(640)
2015년 조사	21.7	18.5	55.3	11.6	-	(742)
2012년 조사	35.3	13.4	92.6	12.9	0.1	(744)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 3) 도움 경험 비율은 도움을 받은 일 있음 응답자 비율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한편, 도움을 받은 일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도움 정도를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한 결과, 취업 및 구직은 4.4점, 학업 및 취업 훈련, 양육부담 완화는 모두 평균 4.3점에 해당하여 상당히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양육부담 완화 외에는 해당 도움 항목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높지 않은 수준이었으나, 도움을 받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움 정도는 2012년, 2015년 대비 다소 상승한 결과를 보였다.

유아의 연령별, 유치원 유형별로는 도움항목별로 도움정도의 차이가 없었고, 취업 및 구직에의 도움 정도는 대도시지역이 4.5점, 중소도시 4.4점, 읍면지역

4.2점으로 지역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양육부담 완화도 지역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 표 VII-5-4 ▣ 제 특성별 유치원의 도움 정도

단위: 점

구분	취업 구직	학업 및 취업훈련	양육 부담 완화	후속자녀출산	기타
전체	4.4	4.3	4.3	4.3	-
보육연령					
3세	4.5	4.5	4.3	4.4	-
4세	4.3	4.2	4.3	4.4	-
5세	4.4	4.3	4.4	4.2	-
F	1.4	0.7	1.1	1.1	
지역규모					
대도시	4.5	4.2	4.4	4.2	-
중소도시	4.4	4.3	4.3	4.3	-
읍·면	4.2	4.4	4.2	4.3	-
F	2.8*	0.1	2.6*(a)	0.4(a)	
모취업 여부					
취업	4.4	4.4	4.4	4.2	-
휴직중	4.9	4.5	4.5	4.5	-
미취업	4.1	4.3	4.2	4.3	-
모부재 등	4.0	4.0	4.1	-	-
F	3.1**(a)	0.3(a)	2.9**	1.1	
2015년 조사	4.0	3.9	4.2	3.7	-
2012년 조사	4.09	3.85	4.04	3.90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3) 5점 평균은 '매우 도움 됨' 1점 ~ '전혀 도움 안 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역코딩하여 산출함.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1$.

다. 개선 요구

유치원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우선순위로 2가지 응답하도록 한 결과, '교육내용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5.1%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다음으로 '인력 증원' 20.2%, '인력의 질 제고' 15.5%, '비용 절감' 11.9%, 안전관리 강화 10.2%, 노후시설 정비 7.8%, 내부 환경 개선 4.7% 순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에는 교육내용 개선이 가장 많이 요구되고 있었는데, 누리과정 도입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교육내용이 표준화됨에 따라 유치원 이용 부모들에게는 다시 교육내

용의 차별화,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력의 양적 개선과 질적 개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양적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교육내용과 인력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순위로 응답되었으며, 그 뒤로 비용과 물리적 환경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뒤따르고 있었다.

한편 유치원 유형에 따라서는 응답 경향의 차이를 보였는데, 국·공립유치원은 특히 교육내용 다양화에 대한 요구 비율이 32.7%에 달하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요구비율(21.9%) 보다 현저히 높았으며, 사립유치원에서는 ‘비용 절감’에 대한 요구가 16.4%로 국·공립유치원의 1.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요구되어 차이를 보였다. 지역규모별로도 다소간 차이가 나타나 대도시지역에서는 무엇보다 ‘인력의 질 제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21.0%), ‘교육내용 다양화’에 대한 요구는 중소도시에서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었으며(29.1%), 비용 절감에 대한 요구도 중소도시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14.0%). 이는 지역별 유치원 유형별 분포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응답 경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지역에 따른 개선 요구는 단순히 ‘지역규모’만에 의한 차이가 아니라 지역별 유치원의 분포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 표 VII-5-5 ▣ 유치원 개선 요구 사항(1순위)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전체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인력 증원	19.0	20.7	20.6	19.0	22.3	20.2
인력의 질 제고	16.6	15.0	21.0	11.8	11.5	15.5
노후시설 정비	8.3	7.6	8.8	6.5	8.9	7.8
내부 환경 개선	7.5	3.5	3.3	6.2	3.9	4.7
비용 절감	1.3	16.4	11.5	14.0	6.9	11.9
안전관리 강화	9.5	10.5	9.4	9.6	13.6	10.2
교육내용 다양화	32.7	21.9	20.9	29.1	25.1	25.1
모름/무응답	5.2	4.5	4.4	3.8	7.8	4.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65)	(640)	(364)	(317)	(324)	(1,00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라. 유치원 이용 부모의 양육수당 관련 의견

양육수당을 현재의 지원수준보다 인상한다면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을 할 의사가 있는지와, 현재 이용하는 유치원을 그만두겠다고 한 경우 어느 정도로 양육수당이 더 인상되면 가정양육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하였다.

▮ 표 VII-5-6 ▮ 유치원 이용 부모의 양육수당 관련 의견

단위: %(명), 만원

구분	양육수당 인상 시 이용 중단 의견					가정양육 위한 인상 금액		
	계속다님	그만두고 다른데 보냄	그만두고 집에서 볼	모르 겠음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92.0	3.3	3.2	1.5	100.0(1,005)	24.1	15.7	(65)
보육연령								
3세	92.9	1.4	3.8	1.9	100.0(271)	23.9	19.4	(16)
4세	91.6	3.9	2.4	2.1	100.0(318)	20.7	8.9	(18)
5세	91.9	3.9	3.4	0.8	100.0(416)	26.4	17.6	(31)
지역규모								
대도시	94.2	2.3	2.7	0.8	100.0(364)	26.6	19.0	(19)
중소도시	89.7	4.5	4.0	1.9	100.0(317)	23.4	13.7	(28)
읍·면	93.1	2.5	2.2	2.2	100.0(324)	21.1	17.0	(18)
모취업 여부								
취업	94.1	2.2	1.9	1.8	100.0(486)	31.3	22.5	(23)
휴직중	79.4	-	15.5	5.1	100.0(33)	33.6	21.0	(4)
미취업	90.8	4.6	3.7	0.8	100.0(468)	19.7	8.2	(37)
모부재 등	92.4	-	4.0	3.6	100.0(18)	17.0	-	(1)
유치원 유형								
국·공립	91.1	4.0	1.6	3.3	100.0(365)	20.3	11.6	(21)
사립	92.4	3.0	3.9	0.7	100.0(640)	25.5	16.9	(44)
2015년 조사	89.5	0.4	5.5	4.5	100.0(742)	20.3	12.4	(34)
2012년 조사	97.7	0.9	1.4	0.1	100.0(744)	28.1	130.5	(1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 보육연령 기준 2세인 아동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표 VII-5-6〉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양육수당을 인상할 경우에도 현재 이용하는 유치원을 계속 다니겠다고 응답이 가장 높아서 92.0%가 이에 응답하였다. 유치원을 그만 두고 다른데 다니겠다고 응답이 3.3%, 그만 두고 집에서 보겠다고 응답은 3.2%로 가정양육수당이 유치원 이용 유아에 가정양육을 유발할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짐작되었다. 본 조사에서 유치원 이용 이유로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가 가장 주된 이유였던 결과를 고려하면, 가정양육수당지급 여부와 지급 수준이 유치원 이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양육수당이 인상되더라도 양육수당을 수령하며 가정양육을 하지 않고, 다니던 유치원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2012년(97.7%)에 비해서는 낮으나 2015년에(89.5%)에 비해서는 높아졌다. 유치원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이 2015년에 비해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이용 의사가 수당 수령액에 따라 영향을 받는 비중이 낮아졌다는 결과는 유아의 기관 이용은 비용 부담과 관계없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더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가정양육수당이 인상되면 집에서 가정양육을 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들은 평균 24.1만원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6 시사점

본 장에서는 유치원 이용 아동(3-5세)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유치원 이용 특성과 요구를 연령, 지역규모, 설립유형, 모취업 여부 등에 따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였다. 결과를 토대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도시지역 취약지역에 우선적인 국·공립유치원 설치가 필요하다. 2018년도 보육실태조사에서 유치원 이용 아동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사립유치원에 재원하고 있었으며(70.2%), 전체 유치원 이용 유아의 지역규모별 분포에서 대도시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40.5%에 해당하였으나, 대도시지역 유아의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은 25.3%로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비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대도시지역의 국·공립유치원 설치율이 낮기 때문이다. 2015년 조사결과에 비해 전반적인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지역별 국·공립 설치 현황에 불균형이 존재하므로, 설치율이 미비한 대도시 취약지역을 고려한 균형 있는 국·공립유치원 설치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치원에도 돌봄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발견되었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38.4%)’, ‘사회성 발달을

위해(24.3%)',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18.5%)'로 유치원은 유아교육기관으로서의 이용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있었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사한 기능으로 수렴하고 있는 현상도 발견되었다. 즉, 어린이집에서도 발달과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것처럼, 유치원에도 '돌봄'의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이 발견되어,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이용한다는 응답이 7.0%였으며, 이러한 응답이 2015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취업모 가구(13.2%),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3세 유아(8.1%) 가구에서는 부모 대리 돌봄의 목적으로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즉, 유치원도 이용 유아가 3세까지 확대되어 있으며, 유치원도 취업모 가구가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육아지원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취업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적합한 서비스로서 기능을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용시간의 확대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유치원 이용 가구가 실제 필요로 하는 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8시까지 등원 비율은 취업모의 경우도 5.7%에 불과하였으나 희망 등원시간이 8시 이전인 경우는 취업모 기준으로 26.2%에 달하여 조기 등원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함께 6시 이후 하원 하는 비율은 3.6%에 불과하였으나, 6시 이후 하원을 희망하는 비율은 15.5%에 달하여 6시 이후까지 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간의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유아의 등하원 시간을 제외한 순수한 유치원 이용시간은 평균 7시간 12분이었는데, 등하원 시간을 포함하면 평균 7시간 34분으로 2015년 7시간 12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희망 이용시간은 등·하원 시간 제외 기준으로 8시간 6분으로 나타나 실제 이용시간과 54분의 격차가 있었다. 특히 취업모의 희망 이용시간은 8시간 48분으로 실제 이용시간인 7시간 42분 보다 약 1시간 6분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어, 취업모가 필요로 하는 이용시간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대다수 유치원 이용 가구의 경제적 부담 절감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도 조사된 유치원 이용 아동의 월평균 교육비, 순교육비는 각각 238,800원, 135,600원으로 모두 2015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교육비는 2015년 대비 83% 증가하였고, 순교육비는 2015년

대비 2.4배나 증가하여 2015~2018년 사이 유치원 교육비가 크게 증가하고 이로 인해 유치원 이용 가정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교육비는 유치원 유형별 격차가 매우 커서, 국·공립유치원은 총지출교육비가 44,200원에 불과하였으나, 사립유치원은 321,300원으로 무려 7.3배 가량의 차이가 나타났다. 사립유치원 이용 시 가구소득 대비 유치원 교육비의 비율은 7.1%로 국·공립유치원 이용 시 가구소득 대비 비율인 1.3%에 비해 현저히 높은 부담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사립유치원 교육비의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2015년 4.4%에 비해서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선호가 높으나 이용 정원은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기관 유형별 비용 부담까지 이렇게 큰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기관 이용의 형평성을 더욱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다섯째, 사립유치원의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서비스 질의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의 제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서비스 항목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유치원 교직원, 주변 환경 등 전반적인 만족도 측정 항목에서도 ‘교육내용’을 제외한 모든 측정 항목에서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사립유치원 이용에 소요되는 높은 ‘비용’을 고려해 이용자가 평가한 ‘가성비’ 측면에서의 만족도로 서비스의 절대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최근 사립유치원의 문제점이 대대적으로 지적되면서 수요자의 신뢰도가 많이 하락한 상황이므로, 사립유치원은 비용 수준에 부합하는 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VIII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및 요구

- VIII-1.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특성
- VIII-2.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비용
- VIII-3. 반일제 이상 기관 제공 서비스
- VIII-4.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만족도 및 개선 요구
- VIII-5. 시사점

VIII.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및 요구

VIII장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아닌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이하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현황 및 요구에 대해 살펴본다.

1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특성

2018년 보육실태조사에 포함된 영유아 중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이 아닌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등)을 이용하는 아동 수는 총 68명이었다. 본 절에서는 이들 영유아 가구의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의 이용 이유, 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 이용 일수 및 이용 시간, 등·하원 특성 등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아동의 최초 이용기관

현재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에서 해당 아동이 최초로 이용한 기관은 어린이집이 69.7%, 반일제 이상 학원이 30.3%였다. 영아의 경우 반일제 이상 학원을 최초로 이용한 경우가 57.4%, 유아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게 된 경우가 73.8%였다.

표 VIII-1-1 |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아동의 최초 이용기관

구분	단위: %(명)		
	어린이집	학원(반일제 이상)	계(수)
전체	69.7	30.3	100.0 (68)
영유아구분			
영아	42.6	57.4	100.0 (10)

구분	어린이집	학원(반일제 이상)	계(수)
유아	73.8	26.2	100.0 (58)
$\chi^2(df)$	5.5(1)**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나. 이용 이유

영유아 가구가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영어학원 등)을 이용하는 이유는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55.0%로 가장 많고, 사회성 발달 14.7%, 특기교육 11.2%,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8.2%, 초등학교 준비 7.1% 순이었다.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응답자 수가 3명에 불과하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회성 발달에 응답한 비중이 높은 반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특기교육에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미취업모 가구 중에서는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없었음에 반해 취업모 가구, 휴직중인 가구의 경우 이러한 응답 비율이 각각 10.4%, 29.9%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반일제 이상 학원이 ‘돌봄’의 용도로도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단, 휴직중인 사례는 매우 희소하므로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미취업모 가구는 또한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취업모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5년 이전 조사와 비교해볼 때,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6.8%p가량 높았으며, 2012년에 비해서도 그 비중이 증가한 양상을 보인다. 한편, 2012년도에는 특기교육을 위해서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을 보낸다는 응답이 37.3%로 높았던 것에 반해 해당 항목에 대한 응답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표 VIII-1-2 |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영어학원 등)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아이의 전인적 발달	초등학교 준비	특기교육	부모 돌보기 어려움	사회성 발달	양육부담 완화	비용 부담이 적어서	계(수)
전체	55.0	7.1	11.2	8.2	14.7	2.5	1.3	100.0 (68)
지역규모								
대도시	53.3	10.7	13.4	8.0	12.0	-	2.5	100.0 (34)

구 분	아이의 전인적 발달	초등학교 준비	특기 교육	부모 돌보기 어려움	사회성 발달	양육부담 완화	비용 부담이 적어서	계(수)
중소도시 읍면	57.3	3.2	8.3	8.5	17.4	5.3	-	100.0 (31)
모취업 여부	39.6	-	31.1	-	29.3	-	-	100.0 (3)
취업중	50.3	11.0	14.6	10.4	10.0	3.8	-	100.0 (43)
휴직	42.3	-	-	29.9	27.7	-	-	100.0 (4)
미취업	67.0	-	6.0	-	22.7	-	4.3	100.0 (21)
2015년 조사	48.2	13.7	19.1	4.5	13.3	-	-	100.0 (41)
2012년 조사	41.0	7.5	37.3	0.7	9.7	0.7	-	100.0 (11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주위에 놀이상대가 없어서'는 2012년 2.2%였으며, 기타 응답은 2012년 0.7%, 2015년 1.2% 있었으며, 2018년 응답 값이 없어서 제시하지 않음.

자료 :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다.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

연령별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때문이라는 응답이 45.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집과의 거리(8.5%), 교사(7.7%)와 주변의 평판(7.7%) 순이었다. 2015년도에 비해 프로그램에 집중되던 응답이 다소 분산되는 양상을 보이기는 했으나, 여전히 반일제 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프로그램인 것으로 조사됐다²⁵⁾.

▮ 표 VIII-1-3 ▮ 연령별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선택 시 고려 사항

단위: %(명)

구분	보육연령						전체	2015년 조사	2012년 조사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원장	-	-	15.9	8.7	-	-	3.9	2.5	2.3
교사	-	34.9	-	8.4	-	8.7	7.7	13.6	3.8
운영시간	-	-	-	-	-	-	-	-	0.8
비용	-	-	-	-	-	-	-	-	3.8
프로그램	-	31.1	31.4	46.0	79.4	38.7	45.1	58.9	61.4
건강·영양	-	-	-	-	-	8.6	3.7	-	1.5
기관 학급 규모	-	-	-	4.3	10.1	3.0	4.0	0.8	3.0
실내 환경	-	-	-	-	-	8.1	3.5	3.2	1.5
안전한 보호	-	-	-	8.7	-	10.6	7.2	-	8.3
집과의 거리	100.0	-	16.0	4.5	-	11.3	8.5	7.3	3.8

25) 지역규모와 모 취업여부에 따른 반일제 학원 선택 시 고려사항은 <부표 VIII-1-1>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란다.

구분	보육연령						전체	2015년 조사	2012년 조사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기관 시설·설비	-	-	21.4	5.8	-	7.7	6.8	2.5	0.8
주변의 평판	-	34.1	15.4	12.5	10.5	-	7.7	8.2	-
주변 환경	-	-	-	-	-	-	-	-	5.3
차량 운행 여부	-	-	-	-	-	-	-	-	-
특별프로그램	-	-	-	1.2	-	-	0.4	-	3.0
형제재원여부	-	-	-	-	-	-	-	2.5	0.8
기타	-	-	-	-	-	3.4	1.5	0.4	-
(수)	(1)	(3)	(6)	(24)	(10)	(24)	(68)	(41)	(112)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라.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작 시기 및 재원 기간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영어학원 등) 이용 시작 시기를 살펴보면, 자녀 월령이 13~24개월이하인 경우에 최초 이용을 시작한 경우가 10.2%로 2015년에 비해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작 시기가 빠른 월령 비중이 약간 증가하였다. 하지만, 49개월 이상이 되어야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응답도 38.0%로 2015년 대비 약간 증가하였다. 한편,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그 기관에 지금까지 재원하고 있는 기간이 13~24개월이라는 응답이 40.4%로 가장 많았으며, 12개월 이하라는 응답이 40.1%로 다음이었다.

▣ 표 VIII-1-4 ▣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작 시기 및 재원기간

단위: %(명)

구분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작 시기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재원기간		
	2018년	2015년	2012년	2018년	2015년	2012년
12개월 이하	-	-	-	40.1 (31)	74.8 (26)	47.4 (58)
13~24개월이하	10.2 (8)	7.4 (4)	1.8 (3)	40.4 (25)	9.7 (7)	37.6 (33)
25~36개월이하	19.9 (14)	21.7 (10)	20.4 (27)	10.8 (7)	2.0 (2)	8.3 (12)
37~48개월이하	32.0 (24)	38.5 (18)	35.4 (39)	8.7 (5)	13.5 (6)	6.8 (9)
49개월 이상	38.0 (22)	32.3 (9)	42.5 (43)	-	-	-
계	100.0 (68)	100.0 (41)	100.0 (112)	100.0 (68)	100.0 (41)	100.0 (112)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마.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일수 및 이용 시간

1) 이용 요일 및 이용 일수

반일제 학원 이용 요일 유형은 대체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이용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다만 영아(2세) 중 일부가 월수금으로 반일제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화요일과 목요일에만 응답 비중이 약간 낮았다. 반일제 학원의 정기적 이용일 수는 평균 5일로, 영아는 4.8일, 유아는 5일이었다. 단, 이때 영아 중 반일제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관측치가 적으므로, 이를 과다하게 해석하는 것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표 VIII-1-5 연령별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요일 유형 및 주당 정기적 이용 일수

단위: %(명), 일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월요일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화요일	90.4	100.0	100.0	100.0	84.6	100.0	100.0	100.0	98.8
수요일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목요일	90.4	100.0	100.0	100.0	84.6	100.0	100.0	100.0	98.8
금요일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기적 이용일 수 (수)	4.8 (10)	5.0 (58)	5.0 (1)	5.0 (3)	4.7 (6)	5.0 (24)	5.0 (10)	5.0 (24)	5.0 (6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토요일과 일요일 이용자는 없어서 생략함.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이용시간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의 등원 시간은 8:31~9:00시가 41.7%로 가장 많았으며, 9:01~9:30분이 32.4%로 다음을 차지했다. 2015년도 조사에서는 9:01~9:30이 47.7%로 최다 빈도였던 것에 비해 등원 시간이 약간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12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는 매우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특히 2018년도에는 9:31~10:00 응답 비중도 13.2%로 2015년도나 2012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 VIII-1-6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등원시각

구분	단위: %(명)						계(수)
	7:30이전	8:01~8:30	8:31~9:00	9:01~9:30	9:31~10:00	10:01 이후	
전체	1.3	10.5	41.7	32.4	13.2	0.9	100.0 (68)
2015년 조사	3.2	6.9	31.5	47.7	10.7	-	100.0 (41)
2012년 조사	0.8	14.3	42.1	39.8	3.0	-	100.0 (112)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한편,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의 하원시각은 14:01~15:00시가 5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15:01~16:00시가 31.4%였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의 하원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비해 비교적 빠른 시각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15년도에는 14:01~15:00시에 하원 한다는 응답이 17.1%에 그치고, 15:01~16:00시 39.3%, 16:01~17:00시가 20.8%로 비교적 늦게 하원 하는 경향성을 보였었다. 즉, 2018년도의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의 등·하원 시각은 2015년도보다는 2012년도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VIII-1-7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하원시각

구분	단위: %(명)							계(수)
	14:00 이전	14:01~15:00	15:01~16:00	16:01~17:00	17:01~17:30	17:31~18:00	18:01~19:00	
전체	3.8	52.1	31.4	8.6	1.5	-	2.6	100.0 (68)
2015년 조사	-	17.1	39.3	20.8	14.1	8.8	-	100.0 (41)
2012년 조사	3.7	42.5	34.3	11.9	6.0	-	1.5	100.0 (111)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한편,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간은 5~6시간이 41.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6~7시간 23.1%, 5시간이내 16.5%, 7~8시간 15.8% 순이었다. 평균 이용 시간은 6시간 12분이었다. 보육연령별로는 2세 이하의 경우에는 관측치가 매우 작으므로 평균 이용 시간이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3세 이상 유아의 경우 3세가 평균 6시간 30분, 4세 5시간 54분, 5세 6시간 6분으로 대체로 6시간 전후의 이용 시간을 보이고 있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기관 이용 시간이 짧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한편,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도 모가 미취업자인 경우에는 5시간 42분, 취업모 가구의 경우 6시간 18분으로 약 30~40분의 이용시간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큰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2012년도에는 5~6시간 이용한다는 응답이 43.5%, 7~8시간이 21.7%, 6~7시간이 18.1% 순이었으며, 2015년도에는 5~6시간 31.1%, 6~7시간 30.1%, 7~8시간이 17.6% 순이었다. 2012년도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간은 6시간 25분, 2015년도에는 약간 증가하여 7시간 2분이었으나, 2018년도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시간은 6시간 12분으로 2012년에 비해서도 약간 짧았다.

■ 표 VIII-1-8 ■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시간

단위: %(명), 시간, 분

구분	5시간 까지	5~6 시간	6~7 시간	7~8 시간	8~9 시간	9~10 시간	10시간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6.5	41.9	23.1	15.8	1.3	-	1.3	100.0 (68)	6시간 12분	(1시간 6분)
보육연령										
0세	100.0	-	-	-	-	-	-	100.0 (1)	4시간 0분	-
1세	-	-	34.9	65.1	-	-	-	100.0 (3)	7시간 0분	(0시간 42분)
2세	46.9	15.9	21.4	15.9	-	-	-	100.0 (6)	5시간 24분	(1시간 18분)
3세	10.7	41.5	22.3	16.7	4.3	-	4.5	100.0 (24)	6시간 30분	(1시간 18분)
4세	32.6	32.3	14.1	21.0	-	-	-	100.0 (10)	5시간 54분	(1시간 6분)
5세	9.7	54.6	26.2	9.5	-	-	-	100.0 (24)	6시간 6분	(0시간 48분)
모취업 여부										
취업	17.7	36.7	21.3	20.2	2.0	-	2.1	100.0 (43)	6시간 18분	(1시간 6분)
휴직	19.0	23.3	-	57.7	-	-	-	100.0 (4)	6시간 36분	(1시간 36분)
미취업	13.7	55.7	30.6	-	-	-	-	100.0 (21)	5시간 42분	(0시간 42분)
2015년	1.9	31.1	30.1	17.6	7.4	12.0	-	100.0 (41)	7시간 2분	(1시간 12분)
2012년	8.0	43.5	18.1	21.7	6.5	0.7	1.4	100.0 (112)	6시간 25분	(1시간 9분)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3) 기관 이용시간 만족도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시간과 관련하여 시작시간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97.3%로 대부분이었다. 반면, 끝나는 시간에 만족한다는 의견은 81.2%로 다수가 끝나는 시간에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시작 시간에 비해서는 만족도가 다소 낮다고 볼 수 있다. 이 수치는 앞서 살펴본 등원시간과 하원시간을 고려할 때, 2015년 대비 약간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나는 현상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며 영유아 부모들이 현재보다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의 이용시간이 약간은 더 길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표 VIII-1-9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시간 관련 의견

단위: %(명)

구분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계(수)
	만족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만족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전체	97.3	-	2.7	81.2	18.8	-	100.0(68)
2015년 조사	93.4	2.0	4.6	94.3	5.7	-	100.0(41)
2012년 조사	85.1	5.2	9.7	69.4	28.4	2.2	100.0(112)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4) 희망 이용시간

이에 구체적으로 희망 등·하원 시각을 알아본 결과, 먼저 영유아 부모들이 가장 희망하는 등원시각은 8:31~9:00시로 41.8%가 현재 등원시각과 거의 동일한 시각을 응답하였다. 다만, 등원시각이 8:01~8:30분이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이 17.1%로, 현재 8:01~8:30분 등원하는 경우(10.5%)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즉, 영유아 부모들은 현재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의 등원시각에 대체로 만족하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약간 더 빨라지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경향성은 지역규모에 따라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희망 등원시각의 분포가 크게 벌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취업모의 경우에는 9:00시 이전에 등원을 희망하는 비중이 높아 미취업모 가구가 9:01~9:30분을 가장 선호(40.2%)하는 것과 대조를 보였다.

표 VIII-1-10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희망 등원시간

단위: %(명)

구분	7:30이전	7:31~8:00	8:01~8:30	8:31~9:00	9:01~9:30	9:31~10:00	10:01이후	계(수)
전체	3.0	4.7	17.1	41.8	23.2	9.3	0.9	100.0 (68)
지역규모								
대도시	2.8	6.4	15.7	43.6	24.1	5.5	1.8	100.0 (34)
중소도시	3.2	2.9	19.2	39.3	22.8	12.7	-	100.0 (31)
읍면지역	-	-	-	60.4	-	39.6	-	100.0 (3)
모취업 여부								
취업	2.3	7.3	16.1	47.9	15.0	11.4	-	100.0 (43)
휴직	-	-	57.7	-	23.3	-	19.0	100.0 (4)
미취업	4.9	-	12.8	35.7	40.2	6.4	-	100.0 (21)
2015년	4.5	10.2	5.3	55.8	16.5	6.9	0.9	100.0 (41)
2012년	3.0	3.8	11.4	52.3	26.5	2.3	0.8	100.0 (112)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희망 하원시각은 14:01~15:00시가 32.3%, 15:01~16:00시가 29.8%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5:01~16:00시 하원을 희망하는 비중(36.4%)이 가장 높고,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14:01~15:00시 하원을 희망하는 경우(34.8%)가 가장 많았다.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의 경우 15:01~16:00시 하원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34.3%로 가장 많기는 하나 14:01~15:00시도 30.3%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면, 미취업모의 경우에는 14:01~15:00시 하원을 희망한다는 의견이 38.6%로 다른 시간대에 비해 비교적 분명한 선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경향성은 2015년도에는 16:31~17:00시를 희망한다는 의견이 30.1%로 가장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2018년에는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들이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의 이용시간이 다소 짧은 것에는 어느 정도 동의는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이용시간(14:01~15:00)에 52.1%가 하원하고 있음보다는 약간 더 긴 시간 기간을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표 VIII-1-11 ▣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희망 하원시각

단위: %(명)

구분	14:00 이전	14:01~ 15:00	15:01~ 16:00	16:01~ 16:30	16:31~ 17:00	17:01~ 17:30	17:31~ 18:00	18:01~ 19:00	19:01~ 19:30	19:31 이후	계(수)
전체	4.1	32.3	29.8	6.9	11.8	-	8.0	2.7	1.5	2.8	100.0 (68)
지역규모											
대도시	5.2	29.3	36.4	2.6	5.2	-	12.9	2.8	-	5.5	100.0 (34)
중소도시	2.9	34.8	23.4	10.8	19.4	-	2.7	2.7	3.2	-	100.0 (31)
읍면지역	-	60.4	-	39.6	-	-	-	-	-	-	100.0 (3)
모취업 여부											
취업	2.1	30.3	34.3	2.4	16.2	-	8.2	4.3	-	2.3	100.0 (43)
휴직중	-	19.0	23.3	27.7	-	-	29.9	-	-	-	100.0 (4)
미취업	8.8	38.6	21.5	13.2	4.4	-	4.2	-	4.9	4.5	100.0 (21)
2015년	-	11.6	24.9	6.1	30.1	7.5	19.0	0.8	-	-	100.0 (41)
2012년	2.9	27.9	44.1	3.7	10.3	3.7	3.7	1.5	-	1.5	100.0 (112)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결과적으로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들이 이용을 희망하는 이용시간은 6~7시간이 29.6%로 가장 많고, 5~6시간 26.7%, 7~8시간 12.5% 순으로, 평균 희망 이용시간은 7시간 6분이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시간은 6시간 12분으로, 현재보다 약 1시간가량 길어진 시간을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평균 7시간 18분을 이용하기를 희망하여 다소 길었으며, 취업모의 경우에 7시간 12분을 이용하기를 희망하여 미취업모에 비해 30분가량 더 이용하기를 희망하였다.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희망 이용시간은 2015년에 평균 7시간 44분으로 2018년에는 약 30분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표 VIII-1-12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희망 이용시간

단위: %(명), 시간, 분

구분	5시간 미만	5-6 시간	6-7 시간	7-8 시간	8-9 시간	9-10 시간	10시간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1.0	26.7	29.6	12.5	7.9	8.0	4.4	100.0 (68)	7시간 6분	(2시간 18분)
지역규모										
대도시	7.0	30.1	30.1	11.6	5.2	10.6	5.5	100.0 (34)	7시간 18분	(2시간 30분)
중소도시	15.7	22.0	28.6	13.9	11.0	5.5	3.2	100.0 (31)	6시간 48분	(1시간 42분)
읍면지역	-	60.4	39.6	-	-	-	-	100.0 (3)	6시간 12분	(0시간 30분)
F									0.8	
모취업 여부										
취업	9.2	23.2	29.6	17.4	10.1	8.2	2.3	100.0 (43)	7시간 12분	(2시간 6분)
휴직	19.0	-	23.3	27.7	-	29.9	-	100.0 (4)	7시간 18분	(2시간 12분)
미취업	13.5	38.1	30.4	-	4.4	4.2	9.4	100.0 (21)	6시간 42분	(2시간 6분)
F									0.7	
2015년	1.1	19.1	19.5	23.3	29.3	5.7	2.1	100.0 (41)	7시간 44분	(1시간 21분)
2012년	5.2	27.6	31.3	20.1	9.0	3.7	2.9	100.0 (112)	7시간 7분	(1시간 39분)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바.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등·하원 실태

1) 등·하원 방법 및 소요시간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아동의 등·하원 방법은 주로 기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로 등원 시 80.2%, 하원 시 77.7%가 기관 차량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외에 보호자와 걸어서 등·하원한다는 응답이 자가용 이용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도에는 가족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등·하원 한다는 응답이 전혀 없어서, 2015년 3.2%가 응답한 것과는 약간 차이를 보였다. 2015년도에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등·하원한다는 응답이 15.9%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한편,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기관 차량 이용 비중이 등원 시 88.9%, 하원 시 86.3%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모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아동의 등·하원 방법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 표 VIII-1-13 ▮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아동의 등·하원 방법

단위: %(명)

구분	등원방법				하원방법				계(수)
	기관 차량	자가용	가족과 대중교통	보호자와 걸어서	기관 차량	자가용	가족과 대중교통	보호자와 걸어서	
전체	80.2	7.7	-	12.1	77.7	8.8	-	13.5	100.0 (68)
지역규모									
대도시	88.9	-	-	11.1	86.3	-	-	13.7	100.0 (34)
중소도시	71.8	16.4	-	11.7	70.2	18.1	-	11.7	100.0 (31)
읍면지역	29.3	-	-	70.7	-	29.3	-	70.7	100.0 (3)
모취업 여부									
취업	80.4	5.5	-	14.1	78.6	7.3	-	14.1	100.0 (43)
휴직중	81.0	-	-	19.0	81.0	-	-	19.0	100.0 (4)
미취업	79.7	13.5	-	6.9	75.2	13.5	-	11.3	100.0 (21)
2015년 조사	75.8	15.9	3.2	5.2	76.7	15.0	3.2	5.2	100.0 (41)
2012년 조사	92.5	4.5	-	3.0	93.3	3.0	0.7	3.0	100.0 (11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자녀 혼자 걸어서 간다는 응답과 기타 응답은 응답자가 없어서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아동의 등원 시 소요시간은 평균 15.9분으로, 자녀연령에 따라 특정한 패턴을 보이지는 않았다. 등원 시 소요시간은 11~20분이라는 응답이 42.9%로 가장 많았으며, 10분 이하도 37.1%였다. 그러나 31분 이상 소요

된다는 응답도 3.8%에 해당하였다. 2012년 반일제 학원 등원 시 소요시간 평균 13.4분, 2015년 14.2분에 비해 2018년도에는 약간 길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 표 VIII-1-14 ■ 연령별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아동의 등원 시 소요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연령						전체	2015년 조사	2012년 조사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10분 이하	100.0	34.9	47.4	31.8	35.1	38.4	37.1	36.5	45.9
11~20분	-	34.1	31.3	47.2	54.8	40.2	42.9	54.7	47.4
21~30분	-	-	21.4	12.4	10.1	21.4	16.2	8.8	6.8
31분 이상	-	31.1	-	8.5	-	-	3.8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	(3)	(6)	(24)	(10)	(24)	(68)	(41)	(112)
평균	10.0	18.6	14.7	17.1	14.1	15.8	15.9	14.2	13.4
(표준편차)	-	(17.4)	(7.4)	(9.9)	(7.5)	(7.7)	(8.7)	(6.2)	(6.3)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하원 시 소요 시간은 16.3분으로 등원 소요시간과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 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하원에 31분 이상 소요된다고 응답한 비중이 등원에 비해 약간 많아진 것에 기인한 결과라 사료된다.

■ 표 VIII-1-15 ■ 연령별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아동의 하원 시 소요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연령						전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10분 이하	100.0	34.9	47.4	27.4	35.1	41.4	37.2
11~20분	-	34.1	31.3	47.3	54.8	37.4	41.8
21~30분	-	-	21.4	12.4	10.1	21.1	16.0
31분 이상	-	31.1	-	12.8	-	-	5.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	(3)	(6)	(24)	(10)	(24)	(68)
평균	10.0	21.0	14.7	18.6	14.1	15.3	16.3
(표준편차)	-	(14.7)	(7.4)	(10.8)	(7.5)	(7.6)	(9.0)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등·하원 시 부모와 기관의 정보 교류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등·하원 시 원장 또는 교사와의 정보 교류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빈번하게 이뤄지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매일 교류가 있다는 응답이 38.8%로 가장 많고, 주 1~2회 31.6%, 월 1~2회 19.0%, 전혀 안함 10.7%였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중소도시의 경우에 매일 한다는 응답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약간 높긴 했으나, 중소도시 거주자 중 19.2%가 전혀 안한다고 응답하여, 등·하원 시 원장 혹은 교사 등과의 정보 교류 빈도가 지역규모에 따라 특정한 패턴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모가 미취업자인 경우에는 매일 교류한다는 응답이 45.9%, 주 1~2회 32.7%로 취업모에 비해 더 빈번한 교류가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VIII-1-16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등·하원 시 정보 교류 정도

단위: %(명)

구분	매일	주 1~2회	월 1~2회	전혀 안함	계(수)
전체	38.8	31.6	19.0	10.7	100.0 (68)
지역규모					
대도시	36.6	37.5	23.4	2.5	100.0 (34)
중소도시	40.5	25.8	14.5	19.2	100.0 (31)
읍면지역	70.7	-	-	29.3	100.0 (3)
모취업 여부					
취업	34.3	32.0	21.4	12.3	100.0 (43)
휴직	53.3	19.0	27.7	-	100.0 (4)
미취업	45.9	32.7	12.4	9.0	100.0 (21)
2015년 조사	14.3	60.2	18.9	6.5	100.0 (41)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비용

본 절에서는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에 지출되는 비용 및 비용 부담과 관련된 특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가. 이용비용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월평균 이용비용은 73만 3,900원으로 항목별로는 순보육비 61만 9,500원, 추가비용 11만 4,400원이었다. 가구소득 대비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비용 비율은 12.8%에 달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이용비용이 76만 9,4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도시 69만 9천원, 읍면지역 56만 1,200원 순이었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의 이용비용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반면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가 발견되지만,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가구소득 구간별로 관측치가 매우 작아 평균값이 불안정하게 산출되는 것에 기인한다. 한편, 2015년도에 반일제 학원 이용비용은 43만 4,300원으로 2018년과 큰 차이를 보였다. 다만, 2012년도 반일제 학원 이용비용은 78만 8,300원으로 2018년 대비 평균 5만 5천원가량 많았다.

표 VIII-2-1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월평균 비용

단위: 천원(명), %

구분	전체 비용 (A)	순보육·교육비 (B)	추가 비용 (B-A)	(수)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전체	733.9	619.5	114.4	(68)	12.8
지역규모					
대도시	769.4	639.5	130.0	(34)	14.3
중소도시	699.0	604.2	94.7	(31)	10.7
읍면지역	561.2	356.3	204.9	(3)	23.7
F	0.8	0.7(a)	0.8		4.8**(a)
모취업 여부					
취업	747.8	633.8	114.0	(43)	12.3
휴직중	547.3	433.0	114.3	(4)	13.2
미취업	734.6	619.3	115.4	(21)	13.7
모부재 등	-	-	-	-	-
F	0.9	1.1	-		0.4

구분	전체 비용 (A)	순보육·교육비 (B)	추가 비용 (B-A)	(수)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	-	-	-	-
200~249만원	485.4	295.1	190.2	(2)	24.3
250~299만원	241.0	200.0	41.0	(1)	8.2
300~349만원	667.6	574.3	93.3	(8)	21.0
350~399만원	450.0	450.0	-	(1)	11.8
400~499만원	518.1	408.9	109.2	(6)	12.5
500~599만원	754.5	675.4	79.1	(16)	14.7
600~699만원	831.9	732.5	99.4	(10)	13.5
700만원 이상	790.2	635.8	154.4	(24)	8.7
F	2.0*	2.2**(a)	0.7		5.7***(a)
2015년 조사	434.3	354.4	79.9	(41)	9.3
2012년 조사	788.3	640.8	147.5	(112)	13.4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1$, *** $p < .001$.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의 추가비용은 항목별로 특기교육비 6만 1,600원, 교재비 1만 9,700원, 급간식비 1만 7,300원, 차량 운행비 9,300원, 현장학습비 6,100원 등이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중소도시의 경우 특기교육비가 6만 5,100원으로 대도시에 비해 약간 높았던데 반해, 대도시의 경우에는 교재비(2만 6,600원)과 급·간식비(2만 4,500원) 등이 높았다. 한편, 미취업모 가구의 경우에 특기교육비 지출이 6만 9,600원으로 취업모인 경우 5만 6,100원에 비해 많았다. 반대로 취업모의 경우에는 교재비(2만 3,800원)과 급·간식비(2만 1,500원)에 대한 지출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의 반일제 학원 이용비용이 2018년과 큰 차이를 보였던 만큼 추가비용 또한 2018년도에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급·간식비의 경우에는 2015년도와 2018년에 약 1천원가량의 상승만 포착되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표 VIII-2-2 ▶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추가비용 항목별 월평균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특기 교육비	교재비	급간식비	현장 학습비, 행사비	차량 운행비	기타	(수)
전체	61.6	19.7	17.3	6.1	9.3	0.3	(68)
지역규모							

구분	특기 교육비	교재비	급간식비	현장 학습비, 행사비	차량 운영비	기타	(수)
대도시	59.6	26.6	24.5	8.7	10.1	0.6	(34)
중소도시	65.1	9.2	8.2	3.5	8.7	-	(31)
읍면지역	15.6	130.4	58.9	-	-	-	(3)
모취업 여부							
취업	56.1	23.8	21.5	5.5	7.0	-	(43)
휴직중	84.3	-	15.0	-	15.0	-	(4)
미취업	69.6	14.4	8.9	8.4	13.1	1.0	(21)
모부재 등	-	-	-	-	-	-	-
2015년 조사	45.4	13.1	16.3	3.0	2.2	-	(38)
2012년 조사	34.2	25.0	32.0	14.8	15.4	-	(112)

주: 방과후 과정비, 시도특성화비는 응답 값이 없으므로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나. 비용 부담

1) 부담 인지 정도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 비용 부담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전혀 부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없어서, 2015년도와 차이를 보였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도 8.8%에 그쳐, 2015년도의 20.6%에 비하면 크게 감소하였다.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이 부담되는 편이라는 응답이 62.3%였으며, 적당한 편이라는 응답이 27.4%였다. 5점을 기준으로 평균 3.8점 정도도 약간의 부담감을 느끼는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역규모가 클수록 실제 이용비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 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VIII-2-3 |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 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부담되지 않음	부담되지 않음	적당함	부담되는 편	매우 부담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	1.5	27.4	62.3	8.8	100.0 (68)	3.8	0.6
지역규모								
대도시	-	-	34.5	57.0	8.5	100.0 (34)	3.7	0.6
중소도시	-	3.1	19.4	69.9	7.6	100.0 (31)	3.8	0.6
읍면지역	-	-	31.1	-	68.9	100.0 (3)	4.4	1.8

구분	전혀 부담되지 않음	부담되지 않음	적당함	부담되는 편	매우 부담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모취업 여부								
취업	-	-	27.2	64.4	8.4	100.0 (43)	3.8	0.6
휴직	-	-	46.7	23.3	29.9	100.0 (4)	3.8	1.0
미취업	-	4.8	24.6	64.3	6.4	100.0 (21)	3.7	0.7
모부재 등	-	-	-	-	-	-	-	-
2015년 조사	7.6	0.8	17.4	53.5	20.6	100.0 (41)	3.8	1.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평균은 '매우 부담됨' 1점~'전혀 부담되지 않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역코딩하여 산출함.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을 많이 느낄을 의미함.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비용 추가 부담 의사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의 질적 수준 개선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 부담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54.3%, 없다는 응답이 45.7%로, 부담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약간 많긴 하지만 팽팽하게 맞서는 양상을 보였다. 추가 부담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얼마까지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평균 19만 9,900원으로 상당히 높은 금액을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들이 추가 비용 부담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70.6%에 달해,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 비용 증가에 대해 보다 호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 가구의 경우 추가 비용 부담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64.7%로, 미취업모 가구(41.3%)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비용 추가 부담 의사는 2012년 26.7%, 2015년 45.8%에 비해 증가하였다.

표 VIII-2-4 |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질적 수준 개선에 따른 비용 추가부담 의사 및 추가 부담 가능 비용 수준
단위: %(명), 천원

구분	추가비용 부담 의사			추가비용 부담 의사가 있는 경우 부담 가능 비용				
	있다	없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수)
전체	54.3	45.7	100.0 (68)	199.9	142.7	50.0	500.0	(34)
지역규모								
대도시	70.6	29.4	100.0 (34)	200.5	140.0	50.0	500.0	(23)
중소도시	37.7	62.3	100.0 (31)	198.6	152.1	50.0	500.0	(11)
읍면	-	100.0	100.0 (3)	-	-	-	-	-
모취업 여부								

구분	추가비용 부담 의사			추가비용 부담 의사가 있는 경우 부담 가능 비용				
	있다	없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취업	64.7	35.3	100.0 (43)	203.8	140.0	50.0	500.0	(26)
휴직중	-	100.0	100.0 (4)	-	-	-	-	-
미취업	41.3	58.7	100.0 (21)	187.1	156.3	50.0	500.0	(8)
2015년 조사	45.8	54.2	100.0 (41)	101.5	65.6	10.0	200.0	(16)
2012년 조사	26.7	73.3	100.0 (112)	230.3	148.7	50.0	500.0	(33)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3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의 제공 서비스

본 절에서는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부모 대상 서비스와 특별활동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부모 대상 서비스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의 부모서비스 제공 비율을 살펴보면, 보육·교육계획표는 매주 1회 제공한다는 경우가 61.4%, 월 1회 32.7%였다. 2015년도에는 매주 1회 제공이 44.8%, 월 1회가 37.2%로 2015년 대비 제공 빈도가 잦아졌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발달평가 결과는 2015년도에는 월 1회 제공한다는 응답이 39.3%, 분기 1회가 29.6%였는데 반해, 2018년도에는 주기가 다소 길어져 연 1~2회 제공한다는 응답이 29.1%로 가장 많았다. 급간식 식단표는 월 1회 제공한다는 응답이 58.2%로 가장 많았는데, 2015년도에는 제공안한다는 응답이 9.6% 있었던 것에 비해 2018년도에는 0.4%만이 제공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기관이 급간식 식단표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상담은 연 1~2회 실시한다는 응답이 44.2%로 2015년 대비 제공 주기가 다소 길어진 경향성을 보인 반면, 가정통신문은 매주 1회 제공한다는 응답이 65.2%로 2015년도보다는 주기가 짧아진 반면 2012년 대비로는 약간 주기가 길어진 양상을 보였다. 부모교육 자료의 경우에는 월 1회가 27.1%로 최다 빈도이긴 했으나, 제공 안함 20.5%, 연 1~2회 17.2%, 분기 1회 16.2% 등으로 기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중임을 알 수 있었다. 부모참여프로그램은 연

1~2회 제공한다는 응답이 46.4%로 가장 많았으며, 2018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문항인 양방향 알림장은 매일 제공한다는 응답이 62.0%로 가장 많았다. 즉, 양방향 알림장의 제공 주기가 가장 짧고, 보육·교육계획표, 가정 통신문은 매주 1회, 급·간식 식단은 월 1회, 그 외 부모서비스는 분기 1회 이상의 긴 주기로 제공되고 있었다.

표 VIII-3-1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부모서비스 제공 비율

단위: %(명)

구분	2018년	2015년	2012년	구분	2018년	2015년	2012년
보육·교육계획표				발달평가결과			
매일	1.5	3.2	2.3	매일	4.5	-	1.5
매주 1회	61.4	44.8	59.1	매주 1회	1.5	2.8	6.0
월 1회	32.7	37.2	31.1	월 1회	28.0	39.3	26.9
분기 1회	2.6	1.9	1.5	분기 1회	17.9	29.6	43.4
연 1~2회	-	-	1.5	연 1~2회	29.1	3.2	11.2
제공 안함	0.4	9.6	-	제공 안함	9.5	18.7	4.5
모름	1.5	3.3	4.5	모름	9.5	6.4	6.7
급·간식 식단				부모상담			
매일	-	5.8	3.0	매일	5.3	9.6	2.3
매주 1회	38.7	33.3	26.1	매주 1회	5.1	1.5	6.8
월 1회	58.2	48.0	65.7	월 1회	17.8	22.8	8.3
분기 1회	1.3	-	-	분기 1회	22.1	25.8	40.6
연 1~2회	-	-	-	연 1~2회	44.2	31.0	26.3
제공 안함	0.4	9.6	4.5	제공 안함	5.6	3.3	4.5
모름	1.5	3.3	27.6	모름	-	6.0	11.3
가정통신문				부모교육자료			
매일	6.1	3.2	27.6	매일	1.8	-	3.0
매주 1회	65.2	53.2	54.5	매주 1회	10.7	1.3	8.9
월 1회	26.9	30.8	13.4	월 1회	27.1	26.8	26.7
분기 1회	-	1.9	-	분기 1회	16.2	20.9	22.2
연 1~2회	-	-	-	연 1~2회	17.2	15.8	11.1
제공 안함	0.4	7.7	-	제공 안함	20.5	28.5	15.6
모름	1.5	3.3	4.5	모름	6.4	6.8	12.6
부모참여프로그램				양방향 알림장			
매일	-	-	-	매일	62.0	-	-
매주 1회	3.9	-	-	매주 1회	17.2	-	-
월 1회	13.5	20.5	-	월 1회	7.1	-	-
분기 1회	22.4	14.7	-	분기 1회	-	-	-
연 1~2회	46.4	36.3	-	연 1~2회	1.3	-	-
제공 안함	11.7	22.5	-	제공 안함	9.9	-	-

구분	2018년	2015년	2012년	구분	2018년	2015년	2012년
모름	2.1	6.0	-	모름	2.4	-	-
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수)	(68)	(41)	(112)	(수)	(68)	(41)	(112)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제공 부모 서비스에 대한 만족 정도는 대체로 4점대(5점기준) 이상으로 보육·교육계획표, 가정통신문, 부모상담, 양방향 알림장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부모교육은 3.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부모교육의 경우에는 만족한다는 비율도 64.6%로 다른 부모서비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2015년도 조사에서는 부모상담, 부모교육 등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발달평가, 급간식 식단 등에 대한 낮았던 것과는 매우 상반된 결과이다.

표 VII-3-2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부모서비스의 만족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만족한다는 비율								5점 평균							
	보육·교육 계획 표	급 간식 식단	가정 통신 문	발달 평가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부모 참여 프로그램	양방 향알 립장	보육·교육 계획 표	급 간식 식단	가정 통신 문	발달 평가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부모 참여 프로그램	양방 향알 립장
전체	84.0	80.8	84.6	79.1	78.1	64.6	75.8	82.7	4.1	4.0	4.1	4.0	4.1	3.8	4.0	4.1
(수)	(66)	(66)	(66)	(53)	(63)	(49)	(59)	(59)	(66)	(66)	(66)	(53)	(63)	(49)	(59)	(59)
2015년 조사	64.8	58.6	70.5	57.5	83.5	78.0	64.1	-	3.8	3.7	3.9	3.7	4.1	4.0	3.9	-
2012년 조사	74.2	71.4	83.5	72.9	77.9	76.3	-	-	3.9	3.8	4.0	3.9	4.0	3.9	-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부모서비스를 제공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만 대상으로 함.
 3) 만족한다는 비율은 '매우 만족' 혹은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4) 5점 평균은 '매우 만족' 1점 ~ '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리 코딩하여 산출함.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나. 특별활동

1) 특별활동 이용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에서 참여하는 특별활동이 없다는 응답이 62.3%로 가장 많았고,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2개가 8.5%로 최다 빈도였다. 평균 특별활동 개수는 1.4개였다.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의 특별활동은 지역규모에 따라 대도시의 경우 없다는 응답이 중소도시에 비해 7.4%p가량 높았다. 또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미취업모 가구가 취업모 가구에 비해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3.5%p가량 높았다.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에서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중은 2015년 62.9%, 2012년 64.9%로 2018년도에도 유사한 비중을 보였다.

표 VIII-3-3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에서 참여하는 특별활동 수

구분	단위: %(명, 개)									평균(표준편차)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계(수)	
전체	62.3	5.5	8.5	5.6	6.7	5.1	3.9	2.5	100.0	(68)	1.4	(2.2)
지역규모												
대도시	66.2	4.0	7.8	5.0	5.2	6.9	4.9	-	100.0	(34)	1.2	(1.9)
중소도시	58.8	7.3	9.4	5.3	7.8	3.2	2.9	5.4	100.0	(31)	1.6	(2.5)
읍면지역	29.3	-	-	39.6	31.1	-	-	-	100.0	(3)	2.4	(3.1)
모취업 여부												
취업	61.8	5.3	8.9	6.1	7.6	2.3	4.0	3.9	100.0	(43)	1.4	(2.3)
휴직중	48.9	-	27.7	23.3	-	-	-	-	100.0	(4)	1.3	(1.4)
미취업	65.3	6.6	4.4	1.6	6.0	11.8	4.3	-	100.0	(21)	1.3	(2.1)
2015년 조사	62.9	19.8	3.7	6.6	2.7	1.3	2.9	0.8	100.0	(41)	1.6	1.9
2012년 조사	64.9	7.5	6.0	7.5	10.4	1.5	-	2.2	100.0	(112)	3.0	1.4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의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참여 비율을 살펴보면, 체육이 27.9%로 가장 많고, 예능(미술, 음악)이 27.4%, 영어 21.5% 순이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중소도시의 경우에 예능(미술, 음악)이나 수학/과학관련 특별활동을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대도시에 비해 높은 반면, 영어나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를 한다는 응답이 낮았다. 2015년과 비교하여 언어 관련 특별활동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특별활동 참여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체육, 예능 관련 특별활동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 VIII-3-4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참여 비율

단위: %(명)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 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한글, 한자, 기타외국어 등)	영어	기타
전체	27.4	27.9	15.8	14.5	21.5	7.1
지역규모						
대도시	24.4	27.0	11.8	15.8	23.8	7.2
중소도시	30.4	27.8	19.8	11.5	18.6	7.3
읍면지역	39.6	70.7	31.1	70.7	31.1	-
(수)	(68)	(68)	(68)	(68)	(68)	(68)
2015년 조사	19.2	12.5	15.1	18.1	15.2	4.7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15년 조사에서는 과목별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예능은 미술과 음악 참여비율을, 언어는 한글, 한자, 외국 참여비율을 합산하여 산출한 값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에서의 특별활동 이용 횟수는 기타를 제외하고는 영어 수업이 1.91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체육관련 1.70회, 예능(미술, 음악) 1.59회, 수학/과학관련 1.42회,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1.37회 순이었다.

표 VIII-3-5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특별활동 1주일 평균 이용 횟수

단위: 회(명)

구분	전체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예능(미술, 음악)	1.59	1.40	1	7	(20)
체육관련	1.70	1.32	1	5	(21)
수학/과학 관련	1.42	0.51	1	2	(11)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1.37	0.50	1	2	(12)
영어	1.91	1.43	1	5	(15)
기타	3.07	2.01	1	5	(5)

주: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의 특별활동 의무 이용 비율은 5세아를 기준으로 과목에 따라 영어가 51.0%로 가장 높고, 수학/과학관련 특별활동의 의무 이용 비율이 47.4%, 예능 33.7%,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31.2%, 체육관련 특별활동 29.7% 순이었다.

표 VIII-3-6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특별활동 의무 이용 비율

단위: %(명)

구분	연령						지역규모			(수)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예능(미술, 음악)	-	52.3	-	8.9	-	33.7	16.6	26.8	-	(20)
체육관련	-	52.3	-	10.9	-	29.7	15.0	29.2	-	(21)
수학/과학 관련	-	-	-	-	-	47.4	34.4	14.4	-	(11)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	-	-	-	-	31.2	-	24.8	-	(12)
영어	-	52.3	-	17.0	-	51.0	33.8	43.7	-	(15)
기타	-	-	-	-	-	60.0	-	60.1	-	(5)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특별활동 비용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월평균 이용비용은 체육관련 특별 활동이 평균 6만 6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예능(미술, 음악)이 평균 5만 8,900원, 수학/과학관련 4만 8,500원,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4만 1,900원, 영 어 3만 9,400원 순이었다. 2015년의 경우에는 수학/과학 관련이 11만 5,400원, 예능 9만 2,300원 등 2018년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다만, 체육관련 수업의 경우 에만 2015년 평균 6만 500원, 2018년 6만 6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VIII-3-7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월평균 이용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 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한글/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기타
전체(평균)	58.9	60.6	48.5	41.9	39.4	89.6
표준편차	70.6	78.7	86.6	62.5	53.5	85.8
최소	0.0	0.0	0.0	0.0	0.0	0.0
최대	260.0	300.0	290.0	200.0	200.0	200.0
2015년 조사	92.3	60.5	115.4	78.6	73.2	182.6
2012년 조사	99.8	35.3	56.6	67.7	57.6	70.0

주: 2015년 조사에서는 과목별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예능은 미술과 음악 이용비용을, 언어는 한글, 한자, 외국 어 이용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값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특별활동 월평균 총비용의 분포를 살펴보면, 20만원 이상 지출한다는 응답이 34.8%로 가장 많고, 무료라는 응답이 31.6%, 5~10만원 20.9% 등이었으며, 평균 16만3,300원이었다. 2015년 조사에서는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특별활동 월평균 총비용이 12만7,800원으로, 2018년도에 3만 6천원 가량 증가하였다. 2015년도에는 5~10만원이라는 응답이 50.6%로 저비용 이용자 비중이 높았던 것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2015년도에는 무료로 특별활동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없었다.

표 VII-3-8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특별활동 월평균 총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무료	5만원 미만	5~10만원	10~15만원	15~20만원	20만원 이상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31.6	-	20.9	6.4	6.2	34.8	100.0 (27)	163.3	209.1
지역규모									
대도시	34.9	-	27.1	6.5	-	31.5	100.0 (12)	176.1	245.9
중소도시	27.6	-	14.1	6.6	12.2	39.5	100.0 (13)	158.1	177.7
읍면지역	56.0	-	44.0	-	-	-	100.0 (2)	22.0	-
2015년 조사	-	-	50.6	13.5	19.6	16.3	100.0 (15)	127.8	105.0
2012년 조사	4.2	16.7	29.2	8.3	31.3	10.4	100.0 (45)	57.6	56.1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3) 특별활동 만족도와 선호도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만족도는 체육관련이 4.3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예능(미술, 음악 등), 영어 순이었다. 특별활동 프로그램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예능(미술, 음악 등)이 3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 체육 21.0%, 영어 15.0% 순이었다. 이는 2015년이나 2012년 조사에서 영어 특별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로, 특별활동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교과 및 학습위주의 활동보다는 음악이나 미술 등 예능 관련 활동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표 VIII-3-9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만족도와 선호도

단위: 점(명), %

구분	전체	(수)	중요하다는 비율	2015년	2012년
예능(미술, 음악 등)	4.2	(20)	35.6	22.2	14.9
체육 관련	4.3	(21)	21.0	17.3	25.5
수학/ 과학	3.9	(11)	8.9	-	-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3.9	(12)	6.6	23.7	12.8
영어	4.1	(15)	15.0	29.1	27.7
기타	3.6	(5)	9.0	7.8	19.1
없음	-	-	4.0	-	-
계	-	-	100.0(27)	100.0(15)	100.0(4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5점 평균은 '매우 만족'1점~'매우 불만족'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매우 불만족'1점~'매우 만족' 5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함.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4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만족도 및 개선 요구

본 절에서는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의 이용 만족도와 항목별 기관으로부터 도움 받은 비율 및 정도,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다.

가. 만족도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5점 기준 4.27점으로 가장 높고, 교직원에 대한 만족도 4.19점, 생활지도 4.15점, 시설설비가 4.07점으로 높았다. 반면, 비용이 3.69점으로 가장 낮고, 급·간식관리 3.87점, 부모참여 및 교육이 3.92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4.02점으로, 2015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표 VIII-4-1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만족도

단위: %, 점(명)

구분	만족 여부					만족한다는 비율	5점 평균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교직원	32.3	56.7	8.8	2.2	-	89.0	4.19
주변환경	23.2	56.3	16.9	2.4	1.2	79.5	3.98
시설설비	21.4	67.4	7.5	3.6	-	88.8	4.07

구분	만족 여부					만족한다는 비율	5점 평균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비용	18.7	38.0	37.1	6.3	-	56.7	3.69
건강관리	25.5	53.8	18.5	0.9	1.3	79.3	4.01
급간식관리	24.0	49.5	17.3	8.0	1.3	73.5	3.87
안전관리	26.8	51.9	19.2	0.9	1.2	78.7	4.02
교육내용	36.9	54.2	7.6	1.3	-	91.1	4.27
생활지도	29.0	57.6	12.5	0.9	-	86.6	4.15
부모참여 및 교육	19.0	54.6	25.4	0.9	-	73.7	3.92
전체	25.7	54.0	17.1	2.8	0.5	79.7	4.02
2015년 조사	22.8	55.6	21.6	-	-	75.8	4.0
2012년 조사	-	-	-	-	-	66.1	3.5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만족한다는 비율'은 각 문항에 대해 '매우 만족' 혹은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임.
 3) 5점 평균은 '매우 만족' 1점 ~ '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함.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4) 2012년도 값은 각 항목별 응답의 전체 평균을 의미함.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나.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으로부터 도움 경험 비율 및 정도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으로 다음과 같은 일에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각 도움 항목 중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41.0%로 가장 높았으나 2015년 대비 큰폭으로 하락하였고, 취업 및 구직에 도움 받았다는 비율은 상승하여(22.4%) 2012년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취업 및 구직 외 나머지 항목에서는 도움이 됐다는 비율이 이전 조사 대비 감소하였다. 하지만, 연도별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사례수의 차이가 있고, 대체적으로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사례의 관측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주의를 요한다.

표 VIII-4-2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도움 경험 비율

단위: %(명)

구분	취업 및 구직	학업 및 취업훈련	양육 부담 완화	후속자녀출산	기타
도움 경험 비율	22.4	11.2	41.0	11.3	-
(수)	(68)	(68)	(68)	(68)	(68)
2015년 조사	5.4	20.1	60.1	12.6	-
2012년 조사	23.9	15.0	90.2	13.5	-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도움 경험은 도움받은 일 '있었음'으로 응답한 비율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 도움 정도는 5점 기준으로 학업 및 취업훈련이 4.8점으로 가장 높고, 취업 및 구직 4.6점, 후속자녀 출산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4.6점, 양육부담 완화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4.3점이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중소도시 거주자가 도움 정도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2015년도와 비교하여,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이 취업 등 질문 항목에 도움이 되었다는 정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표 VIII-4-3 |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도움정도: 5점 척도

구분	단위: 점				
	취업 및 구직	학업 및 취업훈련	양육 부담 완화	후속자녀출산	기타
전체	4.6	4.8	4.3	4.6	-
지역규모					
대도시	4.4	5.0	4.2	4.5	-
중소도시	4.7	4.6	4.4	5.0	-
읍면지역	5.0	-	5.0	5.0	-
2015년 조사	4.2	4.6	4.4	4.0	-
2012년 조사	4.2	4.2	4.0	3.8	-

주: 5점 평균은 '매우 도움 됨' 1점 ~ '전혀 도움 안 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 됨' 5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함.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다. 개선 요구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에 대한 지역규모별 개선 요구 사항을 정리하면, 교육내용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3.9%로 가장 많았으며, 인력의 질 제고 20.0%, 안전관리강화 10.0%, 노후 시설 정비 9.4% 순이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교육내용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약간 더 많은데 반해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력의 질 제고에 대한 요구가 약간 높았다.

표 VIII-4-4 |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의 지역규모별 개선 요구 사항: 1순위

구분	지역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인력 증원	2.4	6.0	-	4.0
인력의 질 제고	24.6	15.3	-	20.0
노후시설 정비	8.2	11.0	-	9.4
내부환경 개선	2.5	2.7	-	2.6

구분	지역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비용 절감	9.1	5.6	68.9	8.2
안전관리강화	8.4	12.1	-	10.0
교육내용 다양화	33.8	34.2	31.1	33.9
모름/무응답	10.9	13.1	-	11.8
계	100.0	100.0	100.0	100.0
(수)	(34)	(31)	(3)	(68)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5 시사점

이상의 결과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의 평균 이용 시간은 평균 6시간 12분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비해 짧고, 이용비용은 월평균 73만3,900원으로 비싼 편에 속한다. 하지만,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용 사유는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2015년도 조사에 비해서도 더 높아진 것으로 이전에는 특기교육을 위한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던 것에서 2018년도에는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들은 아이의 전인적 발달에 사교육 기관인 반일제 이상 학원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영유아 부모들이 사교육 기관이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보육·교육서비스 질에 대한 의구심이 투영된 결과라 사료된다.

둘째, 영어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비용이 비싼 만큼 부담된다는 응답이 많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해서라면 이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절반(54.3%)이 넘었다. 특히나 추가 부담 의사가 있는 비용은 평균 19만9,900원으로, 보육·교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영유아 가구의 높은 선호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영유아 가구들이 비용의 경감 뿐 아니라 보육·교육서비스의 질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로, 정부의 지원이 전반적인 보육·교육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에 좀 더 집중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에 대한 영유아 부모들의 만족도를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4.27점), 교직원(4.19점), 생활지도(4.15점), 시설설비(4.07점) 순이었다. 반면, 이용비용이 비싼 만큼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3.69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으로는 여전히 교육내용의 다양화가 33.9%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다음으로 인력의 질 제고가 20.0%로 다음을 이었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영유아 가구들이 비싼 비용 지불하더라도 보다 다채로운 교육내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의 질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영유아 가구의 과도한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기관의 서비스 질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다만, 영어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자가 매우 소수일 뿐 아니라, 사교육을 선호하는 영유아 부모들의 경향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부모 교육 혹은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기관의 서비스 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IX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및 요구

- IX-1.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특성
- IX-2.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 IX-3. 비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 IX-4. 시사점



IX.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본 장에서는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개인양육지원서비스는 기관이 아닌 조부모,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등 개인으로부터 양육 지원 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아동의 집이 주된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장소가 된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크게 혈연과 비혈연 인력으로 구분된다. 제 1절에서는 서비스 이용 특성을, 2절에서는 혈연 개인양육서비스 이용, 3절에서는 비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조사 내용을 분석하였다.

1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특성

본 절에서는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하는 아동과 가구의 특성, 서비스의 이용 형태, 서비스 제공 현황, 서비스 이용 이유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이용 아동 특성

본 조사에서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전체 아동 중 16.3%에 해당하였다. 영유아로 구분하면 영아 중 17.8%가 이용하여 유아(15.3%)보다 다소 이용률이 다소 높고 연령별로는 0세가 19.9%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19.2%)에서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28.7%) 미취업 상태인 경우에(5.2%) 비하여 이용률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모부재 등의 경우는 사례수는 많지 않지만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률이 63.1%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소득구간별로는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의 가구에서도 10% 이상의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률이 나타나고 있는 동시에 400

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소득 증가에 따라 서비스 이용률이 크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가구소득 700만원 이상 의 경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률이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X-1-1 제 특성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구분	이용(단독, 병행이용)	미이용	계(수)	단위: %(명) χ^2 (df)
전체	16.3	83.7	100.0(3,775)	
영유아구분				
영아	17.8	82.2	100.0(1,522)	4.1(1)**
유아	15.3	84.7	100.0(2,253)	
생활연령				
0세	19.9	80.1	100.0(434)	7.9(5)
1세	15.8	84.2	100.0(553)	
2세	18.1	81.9	100.0(535)	
3세	15.6	84.4	100.0(614)	
4세	14.2	85.8	100.0(615)	
5세 이상	15.8	84.2	100.0(1,024)	
지역규모				
대도시	19.2	80.8	100.0(1,362)	18.0(2)***
중소도시	14.6	85.4	100.0(1,146)	
읍면지역	13.2	86.8	100.0(1,267)	
모취업 여부				
취업	28.7	71.3	100.0(1,588)	394.5(3)***
휴직중	15.5	84.5	100.0(270)	
미취업	5.2	94.8	100.0(1,880)	
모부재 등	63.1	36.9	100.0(37)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2.8	87.2	100.0(142)	204.6(9)***
200~249만원	13.1	86.9	100.0(244)	
250~299만원	6.7	93.3	100.0(300)	
300~349만원	11.2	88.8	100.0(591)	
350~399만원	5.0	95.0	100.0(362)	
400~499만원	12.4	87.6	100.0(727)	
500~599만원	19.1	80.9	100.0(602)	
600~699만원	25.7	74.3	100.0(328)	
700만원 이상	32.8	67.2	100.0(465)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 $p < .001$.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아동 수를 2015년과 비교한 결과 2015년보다는 그 수가 증가하였고, 2012년에 비하여는 감소하였다. 개인양육지원을 단독으로 이용하는 아동수는 2015년보다 증가하였으나 개인양육지원과 기관을 병행 이용하는 아동 역시 2015년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 표 IX-1-2 ■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아동 수와 비율

단위: 명(%)

구분	2018년			2015년	2012년	2009년
	영아	유아	전체			
전체 보육대상 아동(a)	1,479	2,296	3,775	3,560	3,343	3,304
개인양육지원 이용 아동(b=c+d)	263	351	614	387	1,243	852
비율(b/a)	(17.8)	(15.3)	(16.3)	(10.9)	(37.2)	(25.8)
개인양육지원 단독 이용 아동(c)	149	28	176	86	379	312
비율(c/a)	(10.0)	(1.2)	(4.7)	(2.4)	(11.3)	(9.4)
개인양육지원과 기관 병행이용 아동(d)	114	324	438	301	864	540
비율(d/a)	(7.7)	(14.1)	(11.6)	(8.5)	(25.8)	(16.2)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비율은 전체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영유아 중 28.7%였고, 병행하여 이용하는 비율이 71.3%에 해당하였다. 영아는 56.5%가 단독 이용하며, 유아는 7.8%가 단독 이용하며 유아의 경우는 개인양육지원서비스는 주로 기관과 병행하여 이용하는 형태였다(92.2%). 개인양육지원서비스 단독 이용은 연령별로 구분하면 0세가 94.4%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감소하여 5세의 경우 7.3%만이 개인양육을 단독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기관을 병행하여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이용자 중 71.3%를 차지하였으며 단독이용과는 반대의 경향으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병행 이용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0세아가 기관과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병행하는 비율은 5.6%에 불과하였으나 5세에는 92.7%가 병행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아동을 제공자별로 구분하면 혈연에 의한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이 영아 30.9%, 유아 31.4%로 비혈연 각 1.3%, 0.4%에 비하여 높은 비율이었다. 기관 이용과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병행 이용하는 경우도 비혈연 보다는 혈연과 기관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60.4%가 혈연과 개인양육

지원서비스를 병행하였다. 영유아별로는 영아 37.9%, 유아 77.3%로 대부분 서비스 제공을 혈연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연에 의한 양육지원서비스는 개인양육지원서비스 단독 이용 기준으로 2015년도에 비하여 약 10%가량 증가하였다 (31.2%).

표 IX-1-3 영유아 구분 및 연령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률

단위: %

구분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2015년	2012년	2009년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전체				
개인양육 단독이용	56.5	7.8	94.4	58.4	25.2	7.7	8.9	7.3	28.7	22.4	-	-	
혈연	30.9	31.4	32.9	36.1	25.1	27.4	33.0	32.6	31.2	21.5	10.7	8.7	
동거 조부모	12.5	11.6	8.5	16.1	12.6	6.6	13.6	13.1	12.0	12.4	3.4	3.2	
비동거 조부모	18.4	19.8	24.4	20.0	12.5	20.7	19.4	19.5	19.2	8.3	6.5	4.8	
동거 친인척	-	-	-	-	-	-	-	-	-	-	0.2	0.2	
비동거 친인척	-	-	-	-	-	-	-	-	-	0.7	0.7	0.5	
비혈연	1.3	0.4	-	2.8	1.1	1.2	0.5	-	0.8	0.9	0.5	0.9	
공공 아이돌보미	-	0.1	-	-	-	-	0.5	-	0.1	0.5	-	-	
민간육아도우미	1.3	0.3	-	2.8	1.1	1.2	-	-	0.7	0.4	0.3	0.2	
이웃·지인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0.2	0.7	
기관 병행이용 포함	43.5	92.2	5.6	41.6	74.8	92.3	91.1	92.7	71.3	77.6	-	-	
혈연 + 기관	37.9	77.3	5.6	36.6	64.4	78.0	78.7	76.1	60.4	65.6	35.3	23.2	
비혈연 + 기관	4.3	13.2	-	2.2	9.3	12.3	10.2	15.3	9.4	8.9	1.8	1.2	
혈연 + 비혈연 + 기관	1.3	1.7	-	2.8	1.1	2.0	2.2	1.3	1.5	3.1	-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나. 개인양육서비스 제공 특성

1) 서비스 제공자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별 이용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전체 개인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 중 동거조부모 이용은 22.8%, 비동거조부모 이용은 61.8%로 조부모 이용률이 80%를 상회하였으나 비동거의 형태가 많았다. 그 외에 민간육아도우미가 9%로 공공아이돌보미(3.9%)나 비동거 친인척(3.2%) 등에 비하여 그 비율이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민간육아도우미 이용률이 제일 높았고(13.8%),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동거조부모에 의한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공 비율이 기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56.4%). 가구소득별로는 월 소득 700만원 이상의 가구의 민간육아도우미 이용이 가장 컸으며(20.3%), 동거조부모에 의한 지원이 소득 350만원~399만원 구간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50.9%). 한편 사례수는 작지만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에서 공공아이돌보미 이용 비율이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 지원에 의해 그간 저소득 가구에서는 비용 부담으로 이용하기 어려웠던 '비혈연' 인력에 의한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접근성이 제고되었음을 보여준다.

▮ 표 IX-1-4 ▮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별 이용자 특성 분포

단위: %(명)

구분	동거 조부모	비동거 조부모	동거 친인척	비동거 친인척	공공 아이 돌보미	민간 육아 도우미	이웃, 지인	기타 비혈연	전체
전체	22.8	61.8	0.6	3.2	3.9	9.0	1.6	-	(607)
영유아구분									
영아	23.8	63.7	0.6	3.0	3.4	9.1	0.9	-	(272)
유아	22.0	60.4	0.7	3.3	4.2	9.0	2.1	-	(335)
생활연령									
0세	18.5	68.5	2.1	4.4	3.4	8.3	1.4	-	(89)
1세	31.6	59.2	-	2.2	3.4	9.2	-	-	(90)
2세	21.9	63.5	-	2.6	3.5	9.5	1.2	-	(93)
3세	21.2	62.3	-	4.2	2.4	9.1	2.7	-	(95)
4세	24.2	60.2	1.9	1.7	5.9	7.9	0.4	-	(84)
5세 이상	21.3	59.4	0.3	3.7	4.3	9.5	2.7	-	(156)
지역규모									
대도시	14.4	67.8	0.3	1.4	4.9	13.8	2.4	-	(265)
중소도시	21.4	63.3	0.8	5.8	2.9	5.7	0.5	-	(169)
읍면지역	56.4	36.1	1.4	2.1	3.2	1.2	1.3	-	(173)
모취업 여부									
취업	20.6	63.1	0.4	3.8	3.5	10.1	1.8	-	(441)
휴직중	14.9	68.6	-	-	5.8	13.4	-	-	(40)
미취업	29.9	58.8	-	2.1	5.5	3.6	1.1	-	(106)
모부재 등	59.1	28.4	12.6	-	-	-	2.2	-	(20)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27.0	31.6	-	-	32.7	8.7	-	-	(18)
200~249만원	23.9	74.3	-	-	1.8	-	1.4	-	(33)
250~299만원	42.2	49.3	-	2.0	-	-	6.5	-	(27)

구분	동거 조부모	비동거 조부모	동거 친인척	비동거 친인척	공공 돌보미	아이 민간 육아 도우미	이웃, 지인	기타 비혈연	전체
300~349만원	29.8	70.2	-	-	0.7	-	-	-	(70)
350~399만원	50.9	34.1	9.7	5.2	-	-	-	-	(19)
400~499만원	28.1	56.1	1.3	6.7	4.1	7.0	-	-	(89)
500~599만원	15.8	68.9	0.8	4.9	7.0	4.5	1.4	-	(114)
600~699만원	14.4	68.7	-	3.4	2.4	9.1	3.1	-	(86)
700만원이상	21.1	58.0	-	1.8	2.1	20.3	2.1	-	(147)
모름/무응답	26.2	50.4	-	23.4	-	-	-	-	(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서비스 제공자가 돌보는 자녀 수

서비스 제공자가 돌보는 자녀수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당 아동을 포함해 한번에 돌보는 자녀수는 전체 평균 1.8명으로 응답되었다. 2015년 1.6명에 비하여 근소하게 상향한 수치이다. 2명을 돌보는 비율이 49.5%로 가장 컸고, 2명을 돌 볼 경우에는 영아가 45.0%, 유아가 52.8%로 유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가 휴직중인 경우 평균 돌보는 자녀수가 2명으로 평균보다 높았으며,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4명, 가구소득 200만원~249만원 이하 1.6명으로 해당 소득 구간에서 평균보다 낮았다.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구간에서는 평균 돌보는 자녀수가 1.9명으로 평균인 1.8명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X-1-5 】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가 돌보는 자녀 수

구분	단위: %(명), 명							평균	2015년	2012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계(수)			
전체	36.4	49.5	12.2	1.3	-	0.6	100.0 (607)	1.8	1.6	1.7
영유아구분										
영아	43.7	45.0	9.0	1.0	-	1.3	100.0 (272)	1.7	1.6	1.6
유아	30.9	52.8	14.7	1.5	-	0.1	100.0 (335)	1.9	1.6	1.8
지역규모										
대도시	35.4	51.8	11.0	0.7	-	1.0	100.0 (265)	1.8	1.6	1.6
중소도시	38.0	45.7	13.9	2.5	-	-	100.0 (169)	1.8	1.6	1.8
읍면지역	35.5	51.6	11.9	-	-	1.0	100.0 (173)	1.8	1.6	1.9

구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계(수)	평균	2015년	2012년
모취업 여부										
취업	34.6	50.8	13.1	0.9	-	0.7	100.0 (441)	1.8	1.5	1.6
휴직중	43.2	23.5	23.7	9.5	-	-	100.0 (40)	2.0	1.6	1.9
미취업	33.8	59.8	5.5	-	-	0.8	100.0 (106)	1.8	2.0	1.7
모부재 등	79.3	20.7	-	-	-	-	100.0 (20)	1.2	-	-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57.9	42.1	-	-	-	-	100.0 (18)	1.4	-	-
200~249만원	52.9	33.7	13.5	-	-	-	100.0 (33)	1.6	-	-
250~299만원	55.0	45.0	-	-	-	-	100.0 (27)	1.5	-	-
300~349만원	28.1	50.7	21.2	-	-	-	100.0 (70)	1.9	-	-
350~399만원	38.2	37.5	24.4	-	-	-	100.0 (19)	1.9	-	-
400~499만원	38.4	46.3	10.6	1.3	-	3.4	100.0 (89)	1.9	-	-
500~599만원	41.6	38.8	18.8	0.8	-	-	100.0 (114)	1.8	-	-
600~699만원	32.5	56.3	9.2	1.9	-	-	100.0 (86)	1.8	-	-
700만원 이상	29.6	59.6	7.9	2.4	-	0.5	100.0 (147)	1.9	-	-
모름/무응답	49.6	50.4	-	-	-	-	100.0 (4)	1.5	-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다. 이용 이유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단독 이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주변에 있는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양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를 조사하였는바,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너무 어려 기관 적응이 어려워서가 70.7%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기관은)한 사람이 여러 아이를 돌봐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3%, (기관을)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힘들어서 4.5%, 비용이 부담되어서라 3.6%, (기관)대기가 많아서 2.9%,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2.7% 등 순으로 응답되었다. 가장 주된 이유는 2015년 결과와 동일하며,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다는 응답은 2015년 10.2%에서 크게 감소하였으나, 비용부담을 이유로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은 높아져 차이를 보였다.

표 IX-1-6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너무 어려 적응 애로	비용 부담	원하는 시간 이용 힘듦	데리고 다니다기 번거 로움	시설 환경 열악	한 사람이 돌봐 불안	대기자 많음	주변에 마땅한 기관 없음	기관 프로그램 미흡	기타	계(수)
전체	70.7	3.6	4.5	1.7	0.6	7.3	2.9	2.7	0.9	5.2	100.0(182)
영유아구분											
영아	78.3	3.2	1.2	-	0.7	7.0	3.4	2.1	-	3.9	100.0(157)
유아	28.0	5.5	22.8	11.0	-	8.7	-	5.9	5.7	12.5	100.0(25)
지역규모											
대도시	72.0	2.7	2.5	-	-	10.9	4.6	1.4	-	5.9	100.0(70)
중소도시	65.6	6.2	5.8	2.3	1.6	4.0	2.2	4.2	2.2	6.0	100.0(53)
읍면지역	78.9	-	6.7	4.6	-	5.1	-	2.9	-	1.7	100.0(59)
모취업 여부											
취업	71.7	5.6	3.3	2.8	1.2	7.7	2.6	1.3	-	3.8	100.0(91)
휴직중	68.2	-	7.2	-	-	5.5	10.7	4.4	-	4.0	100.0(24)
미취업	70.1	2.4	4.3	0.9	-	7.8	-	4.0	2.5	8.0	100.0(64)
모부재 등	81.4	-	18.6	-	-	-	-	-	-	-	100.0(3)
2015년 조사	72.4	1.4	3.2	2.6	0.5	6.8	-	10.2	-	2.9	100.0(121)
2012년 조사	68.5	2.0	7.2	0.5	1.2	4.1	-	5.9	-	1.2	100.0(391)
2009년 조사	30.6	14.7	9.9	0.7	0.6	2.9	-	13.2	-	24.2	100.0(817)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본 절에서는 혈연이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구체적인 제공자, 기관과의 병행 이용, 이용 빈도, 비용 등 서비스의 전반적인 이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가. 이용 실태

1) 서비스 제공자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비스 제공자는 비동거외조부모가 4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2015년

24.3%에 비하여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동거친조부모 13.5%보다도 3배 이상 높은 비율이며 비동거친조부모와 동거외조부모와 비교할 때에서 훨씬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2015년 조사의 경우 동거 및 비동거 친조부모와 동거 및 비동거 외조부모 비율은 20%선에서 유사한 분포를 보였으나 2018년의 경우 비동거 외조부모의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지역규모별, 모취업여부별 구분을 불문하고 비동거 외조부모 지원 비율이 큰 것으로 보여지는 데 그 중에서도 휴직중인 경우(57.1%), 대도시인 경우(56.3%) 비동거 외조부모의 지원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 지역에서는 동거친조부모가 4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차이를 보였으며 모 부재 등의 경우에는 동거 친조부모가 서비스 제공자인 경우가 가장 많고, 외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없었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대체로 비동거 외조부모의 지원을 받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X-2-1 | 혈연 양육지원자 분포

단위:%(명)

구분	동거 친조부모	동거 외조부모	비동거 친조부모	비동거 외조부모	동거 친인척	비동거 친인척	계(수)	χ^2 (df)
전체	13.5	12.3	21.7	48.2	0.7	3.6	100.0 (545)	
영유아구분								
영아	13.7	12.5	20.2	49.6	0.7	3.3	100.0 (250)	0.7(5)
유아	13.4	12.1	22.9	47.0	0.8	3.8	100.0 (295)	
지역규모								
대도시	7.7	9.5	24.5	56.3	0.4	1.7	100.0 (223)	87.9(10)***
중소도시	9.8	13.7	19.6	49.7	0.8	6.4	100.0 (155)	
읍면지역	41.5	17.2	18.7	18.9	1.5	2.2	100.0 (167)	
모취업 여부								
취업	10.9	12.6	20.1	51.7	0.4	4.3	100.0 (392)	81.9(15)***
휴직중	5.2	12.6	25.1	57.1	-	-	100.0 (34)	
미취업	19.7	13.2	26.2	38.5	-	2.3	100.0 (99)	
모부재 등	59.1	-	28.4	-	12.6	-	100.0 (20)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23.3	22.7	20.7	33.3	-	-	100.0 (13)	84.5(45)***
200~249만원	14.3	10.1	42.5	33.1	-	-	100.0 (32)	
250~299만원	19.1	26.1	14.1	38.6	-	2.1	100.0 (26)	
300~349만원	18.7	11.1	13.3	56.9	-	-	100.0 (70)	
350~399만원	37.3	13.6	15.8	18.3	9.7	5.2	100.0 (19)	
400~499만원	15.4	15.1	20.8	40.0	1.5	7.3	100.0 (84)	

구분	동거 친조부모	동거 외조부모	비동거 친조부모	비동거 외조부모	동거 친인척	비동거 친인척	계(수)	χ^2 (df)
500~599만원	11.3	6.1	25.3	50.9	0.9	5.4	100.0 (102)	
600~699만원	6.1	10.6	21.8	57.6	-	3.9	100.0 (74)	
700만원이상	11.3	14.8	20.7	51.0	-	2.2	100.0 (121)	
모름/무응답	26.2	-	50.4	-	-	23.4	100.0 (4)	
2015년 조사	25.8	25.2	20.4	24.3	0.3	4.1	100.0 (373)	
2012년 조사	21.3	12.7	22.4	35.2	0.9	7.5	100.0 (1,133)	
2009년 조사	31.2	13.5	19.4	25.8	2.4	7.6	100.0 (1,44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취업모에 한정하여 살펴본 결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동거 외조부모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52.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비동거 친조부모가 20.5%를 차지하였다. 연령별로는 2세의 경우가 62.5%로 비동거 외조부모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비혈연과 병행하여 지원 받는 경우가 68.7%를 차지하였다. 한편,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 거주 취업모 가구의 경우는 동거친조부모의 지원 비율이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나 기타 지역 거주 취업모에 비해 차이를 보였다.

표 IX-2-2 취업모의 혈연 양육지원자 분포

단위: %(명)

구분	동거 친 조부모	동거 외 조부모	비동거 친 조부모	비동거 외 조부모	동거 친인척	비동거 친인척	계(수)	χ^2 (df)
전체	10.4	12.6	20.5	52.1	0.4	4.0	100.0 (426)	
영유아구분								
영아	11.1	12.0	19.7	52.5	0.9	3.8	100.0 (183)	3.2(5)
유아	9.9	13.0	21.1	51.8	-	4.1	100.0 (243)	
생활연령								
0세	5.1	12.3	29.6	44.6	3.4	5.0	100.0 (54)	
1세	14.9	15.2	19.8	47.1	-	2.9	100.0 (63)	
2세	12.0	9.0	12.9	62.5	-	3.7	100.0 (66)	31.6(25)
3세	5.9	17.5	18.5	53.8	-	4.3	100.0 (68)	
4세	15.1	11.7	23.7	47.4	-	2.2	100.0 (65)	
5세 이상	9.0	11.3	21.1	53.4	-	5.2	100.0 (110)	
지역규모								
대도시	7.0	9.6	22.7	58.3	0.5	2.0	100.0 (189)	
중소도시	5.0	13.9	18.7	55.6	-	6.8	100.0 (120)	78.1(10)***
읍면지역	39.1	19.9	18.1	18.6	1.1	3.2	100.0 (117)	

구분	동거 친 조부모	동거 외 조부모	비동거 친 조부모	비동거 외 조부모	동거 친인척	비동거 친인척	계(수)	χ^2 (df)
이용유형								
혈연 단독	10.5	13.7	20.8	51.2	0.7	3.2	100.0 (100)	26.3(15)**
혈연+비혈연	-	21.2	2.7	68.7	7.4	-	100.0 (14)	
혈연+기관	11.1	11.9	21.0	51.6	-	4.4	100.0 (302)	
혈연,비혈연,기관	-	12.7	29.4	53.9	-	4.0	100.0 (10)	
2015년 조사	22.1	24.6	24.0	24.5	0.2	4.6	100.0 (272)	
2012년 조사	18.9	15.0	22.8	37.1	0.3	5.8	100.0 (635)	
2009년 조사	20.9	16.0	22.7	31.5	2.2	6.7	100.0 (55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 $p < .001$.

2) 기관 병행 이용 실태

혈연개인양육지원서비스와 기관의 병행 이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혈연개인양육 서비스를 이용중인 경우 이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비율은 26.5%로 혈연양육지원 서비스와 기관을 병행하는 경우(68.3%)보다 그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아의 경우는 혈연이 단독인 경우가 53.5%로 기관과 병행하는 경우보다 비율이 높았으나 유아의 경우는 기관과 병행하는 경우가 89.5%로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보다 현저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기관과 병행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의 경우 혈연의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36.3%로 단독 이용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경우 기관 병행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의 취업상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모가 취업중인 경우 기관과 혈연 이용을 병행하는 경우가 76.8%로 휴직중 혹은 미취업중인 경우보다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5년 결과는 72.8%가 기관과 혈연을 병행한다고 응답하여 다소 감소한 수치이나 여전히 기관과 혈연을 병행하는 경우가 68.3%를 차지함을 유념하여야 한다.

표 IX-2-3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자의 혈연 양육지원자와 보육·교육기관 등 중복 여부

단위: %(명)

구분	혈연 단독	비혈연 보완	기관 보완	비혈연과 기관 모두 보완	계(수)
전체	26.5	3.5	68.3	1.7	100.0 (545)
영유아구분					
영아	53.5	3.5	41.6	1.4	100.0 (250)
유아	5.1	3.4	89.5	2.0	100.0 (295)
생활연령					
0세	87.1	6.9	6.0	-	100.0 (83)
1세	54.6	3.0	39.4	3.0	100.0 (84)
2세	24.4	1.1	73.2	1.3	100.0 (83)
3세	6.6	2.2	88.9	2.3	100.0 (84)
4세	7.0	1.1	89.4	2.5	100.0 (76)
5세 이상	3.3	5.4	89.8	1.5	100.0 (135)
지역규모					
대도시	23.8	4.1	69.0	3.1	100.0 (223)
중소도시	25.9	3.5	70.7	-	100.0 (155)
읍면지역	36.3	1.6	60.3	1.9	100.0 (167)
모취업 여부					
취업	18.1	2.9	76.8	2.2	100.0 (392)
휴직중	53.4	5.4	41.2	-	100.0 (34)
미취업	57.2	5.5	37.3	-	100.0 (99)
모부재 등	10.4	2.4	85.0	2.2	100.0 (20)
2015년 조사	23.8	-	72.8	3.4	100.0 (373)
2012년 조사	30.3	0.2	68.7	0.8	100.0 (1,13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3) 이용 빈도와 이용 시간

혈연양육지원서비스의 주된 이용 시간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불규칙한 경우, 즉 필요시에 이용하는 비율이 28.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하원 후 퇴근 전 27.2%, 출근 후 등원전과 하원 후 퇴근 전 23.5%, 하루 종일 17.7% 순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경우 불규칙한 비율이 가장 컸으나(33.8%), 다음으로 하루 종일 이용한다는 응답도 24.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유아의 경우 '하원 후 부터 퇴근 전'까지가 3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5년 결과에서는 26.8%가 하원 후부터 퇴근 전까지 이용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비중이 가장 컸

나 2018년에는 불규칙(필요시) 이용한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다소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모취업 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취업모의 경우 하원 후 퇴근 전에 가장 혈연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았으나(34.5%), 휴직중이나 미취업 상태인 경우는 불규칙하게 필요시 이용한다는 경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차이를 보였다. 즉, 취업모 가정의 경우 영유아의 기관 이용시간과 부모의 출퇴근 시간 간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혈연의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미취업모 가정이나 휴직중인 경우 정기적인 대리돌봄의 필요보다는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단 시간의 돌봄, 긴급하게 발생하는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혈연의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표 IX-2-4 ▣ 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시간대

단위: %(명)

구분	하루종일	출근후~ 등원전	하원후~ 퇴근전	출근후~등원전, 하원후~퇴근전	불규칙 (필요시)	기타	계(수)	χ^2 (df)
전체	17.7	1.5	27.2	23.5	28.9	1.3	100.0 (545)	
영유아구분								
영아	24.6	1.0	18.1	20.1	33.8	2.4	100.0 (250)	36.1(5)***
유아	12.2	1.8	34.4	26.2	25.1	0.4	100.0 (295)	
지역규모								
대도시	17.6	0.4	31.8	23.9	26.3	-	100.0 (223)	22.0(10)**
중소도시	16.4	1.8	24.7	23.0	30.8	3.3	100.0 (155)	
읍면지역	21.1	3.7	19.5	23.5	32.2	-	100.0 (167)	
모취업 여부								
취업	16.8	2.0	34.5	29.3	16.8	0.6	100.0 (392)	162.4(15)***
휴직중	23.3	-	4.0	13.1	56.5	3.2	100.0 (34)	
미취업	16.2	-	3.5	2.9	73.4	4.0	100.0 (99)	
모부재 등	33.4	-	25.7	14.7	26.2	-	100.0 (20)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7.9	-	22.6	19.2	50.3	-	100.0 (13)	120.0(45)***
200~249만원	19.4	-	8.4	9.6	58.6	4.0	100.0 (32)	
250~299만원	23.2	-	12.5	4.1	60.2	-	100.0 (26)	
300~349만원	24.5	-	22.9	10.8	37.9	3.8	100.0 (70)	
350~399만원	7.5	-	6.1	8.7	71.5	6.3	100.0 (19)	
400~499만원	10.6	1.7	29.2	27.7	29.2	1.5	100.0 (84)	
500~599만원	33.7	1.7	22.4	24.3	17.0	1.0	100.0 (102)	
600~699만원	11.8	-	40.5	31.8	16.0	-	100.0 (74)	
700만원 이상	10.5	3.5	33.2	29.1	23.7	-	100.0 (121)	

구분	하루종일	출근후~ 등원전	하원후~ 퇴근전	출근후~등원전, 하원후~퇴근전	불규칙 (필요시)	기타	계(수)	χ^2 (df)
모름/무응답	-	-	-	26.2	73.8	-	100.0 (4)	
2015년 조사	15.5	5.7	26.8	25.6	26.4	-	100.0 (37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 $p < .001$.

4) 서비스 제공 장소

서비스 제공 장소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76.4%가 아이 집에서 서비스 제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결과 83%가 아이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할 때 그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휴직중인 경우 89.4%가 아이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고 응답하여 취업모보다 아이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중이 다소 컸으며 평균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어머니가 휴직중인 경우 대부분 육아휴직으로 대상 아동이 장소 이동이 어려운 1세 미만 영아가 대부분이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표 IX-2-5 | 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장소

구분	아이 집	돌보는 사람 집	계(수)	χ^2 (df)
전체	76.4	23.6	100.0 (545)	
영유아구분				
영아	75.4	24.6	100.0 (250)	0.2(1)
유아	77.1	22.9	100.0 (295)	
지역규모				
대도시	80.4	19.6	100.0 (223)	13.6(2)***
중소도시	68.4	31.6	100.0 (155)	
읍면지역	84.7	15.3	100.0 (167)	
모취업 여부				
취업	74.6	25.4	100.0 (392)	4.4(3)
휴직중	89.4	10.6	100.0 (34)	
미취업	79.1	20.9	100.0 (99)	
모부재 등	77.6	22.4	100.0 (20)	
2015년 조사	83.0	17.0	100.0 (373)	
2012년 조사	71.1	28.9	100.0 (1,13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돌보는 사람 집에서 돌보는 경우 자녀를 데려오는 주기는 매번 데려오거나 가서 본다는 비율이 73.6%로 가장 컸으며 가끔 데려온다는 비중도 22%였다. 가끔 만나는 경우는 빈도 평균이 4.8일 이었고, 중소도시의 경우 가끔 데려온다는 비중이 29%로 가장 높았다. 빈도는 3.4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도시의 경우 가끔 만나는 경우 7.4일에 한번 자녀를 만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주기는 상대적으로 더욱 긴 것으로 파악된다. 미취업의 경우 가끔 데려온다는 경우도 20.1%로 취업모의 경우 23.1%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으나 데려오는 주기는 9.5일로 상당히 길게 나타났다.

▣ 표 IX-2-6 ▣ (돌보는 사람 집에서 돌보는 경우) 자녀 만나는 빈도 및 주기

단위: %(명), 일

구분	만나는 빈도(%)				가끔 만날 경우 만나는 주기(일)			
	매번 데려오거나 가서 볼	가끔 데려옴	가끔 가서 볼	계(수)	평균(일)	표준편차(일)	(수)	t/F
전체	73.6	22.0	4.4	100.0 (117)	4.8	6.4	(31)	
영유아구분								
영아	75.5	18.0	6.5	100.0 (55)	4.7	4.7	(14)	-
유아	71.9	25.4	2.6	100.0 (62)	4.8	7.5	(17)	
지역규모								
대도시	82.1	13.4	4.5	100.0 (43)	7.4	9.8	(8)	1.3
중소도시	69.3	29.0	1.7	100.0 (47)	3.4	3.4	(13)	
읍면지역	62.8	18.5	18.7	100.0 (27)	6.1	8.3	(10)	
모취업 여부								
취업	74.8	23.1	2.1	100.0 (94)	3.8	4.5	(23)	1.4(a)
휴직중	82.5	-	17.5	100.0 (4)	5.0	-	(1)	
미취업	67.1	20.1	12.7	100.0 (16)	9.5	11.4	(5)	
모부재 등	64.8	23.0	12.2	100.0 (3)	3.0	2.6	(2)	
2015년 조사	78.1	12.4	9.5	100.0 (80)	8.4	6.0	(25)	
2012년 조사	89.2	7.1	3.7	100.0 (339)	11.1	17.5	(44)	
2009년 조사	76.0	19.0	5.0	100.0 (400)	8.5	7.5	(9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나. 이용 비용

1) 비용 지불 여부 및 형태

혈연양육자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불한다는 비중은 38.5%로 지불을 하지 않는다는 비중인 48.9% 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동거 외조부모에게 지불을 안한다는 비율이 72.3%로 가장 컸으며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불한다는 경우는 비동거 친인척의 경우 55.3%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조사의 경우 지불안한다는 비중이 61.4% 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불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지불을 안 하는 경우도 48.9%로 높았는데, 혈연개인양육지원 제공자는 주로 가족의 자녀 양육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무급의 봉사를 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지나, 경제적인 보상 이외 대부분 조부모인 노인들의 시간을 보상하고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 표 IX-2-7 ▣ 혈연 양육지원자 유형별 비용 지불 여부 및 지불 형태

단위: %(명)

구분	정기적 현금 지불	부정기적 현금 지불	현물 지불	지불 안 함	계(수)	χ^2 (df)
전체	38.5	9.5	3.1	48.9	100.0 (545)	67.0(15)***
동거 친조부모	25.6	3.8	-	70.6	100.0 (99)	
동거 외조부모	15.8	11.9	-	72.3	100.0 (73)	
비동거 친조부모	34.0	4.9	4.7	56.5	100.0 (115)	
비동거 외조부모	49.0	12.5	4.3	34.1	100.0 (234)	
동거 친인척	16.3	-	-	83.7	100.0 (5)	
비동거 친인척	55.3	13.4	-	31.3	100.0 (19)	
2015년 조사	30.7	5.8	2.2	61.4	100.0 (373)	
2012년 조사	24.2	8.9	3.7	63.2	100.0 (1,133)	
2009년 조사	90.1	4.2	1.4	4.2	100.0 (71)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 지불 여부 및 형태를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아의 경우 지불을 안하는 비율이 52.4%로 유아보다 높았고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지불을 안한다는 비중이 69.1%로 가장 높았다. 중소도시의 경우 정기적으로 지불한다는 비중이 45.4%로 가장 높았다. 모 취업여

부별로는 미취업의 경우 81.3%가 지불을 안하고 있으나 취업중인 경우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현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56.8%(정기적 지불 45.0% + 부정기적 지불 11.8%)로 비용을 지불하는 비중이 컸고 가구소득이 250-299만원의 경우 93.3%가 지불을 안한다고 응답하여 그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정기적 지불은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에서는 4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7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53.9%가 정기적으로 지불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IX-2-8 제 특성별 혈연 양육지원자에 대한 비용 지불 여부 및 형태

단위: %(명)

구분	정기적 지불	부정기적 지불	현물 지불	지불 안 함	계(수)	χ^2 (df)
전체	38.5	9.5	3.1	48.9	100.0 (545)	
영유아구분						
영아	37.2	7.9	2.5	52.4	100.0 (250)	3.1(3)
유아	39.5	10.8	3.6	46.1	100.0 (295)	
지역규모						
대도시	38.5	10.7	4.0	46.8	100.0 (223)	22.9(6)***
중소도시	45.5	7.7	3.2	43.5	100.0 (155)	
읍면지역	20.3	10.6	-	69.1	100.0 (167)	
모취업 여부						
취업	45.0	11.8	2.1	41.0	100.0 (392)	72.6(9)***
휴직중	39.3	5.5	13.2	42.0	100.0 (34)	
미취업	12.0	2.8	4.0	81.3	100.0 (99)	
모부재 등	21.7	-	-	78.3	100.0 (20)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5.8	13.1	-	71.2	100.0 (13)	81.7(27)***
200~249만원	16.7	6.6	-	76.6	100.0 (32)	
250~299만원	5.2	1.5	-	93.3	100.0 (26)	
300~349만원	20.9	7.2	2.4	69.5	100.0 (70)	
350~399만원	7.5	14.2	6.3	72.0	100.0 (19)	
400~499만원	36.7	2.4	2.5	58.4	100.0 (84)	
500~599만원	46.2	10.5	6.0	37.3	100.0 (102)	
600~699만원	43.7	15.1	4.2	36.9	100.0 (74)	
700만원 이상	53.9	11.7	1.8	32.7	100.0 (121)	
모름/무응답	-	-	-	100.0	100.0 (4)	
2015년 조사	30.7	5.8	2.2	61.4	100.0 (373)	
2012년 조사	24.2	8.9	3.7	63.2	100.0 (1,133)	
2009년 조사	25.5	4.5	2.0	68.0	100.0 (1,446)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2) 비용 수준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현금 또는 현물로 지불한다고 응답한 경우 지불하는 비용을 살펴본 결과, 평균 70.3만원을 지불하였고 2015년도에 62.2만원, 2012년 28.8만원에 비하여 그 금액이 상승하였다. 비동거 외조부모에게는 100만원 이상 지불의 비중이 가장 컸고(35.9%), 비동거 친조부모의 경우에는 50만원에서 59만원 이하 지불의 비중이(35.8%) 가장 컸다. 하지만 이를 일률적으로 단편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들이 제공하는 돌봄 형태나 시간, 주기 등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 표 IX-2-9 ▣ 혈연 양육지원자 비용 지불 시 월 평균 금액

단위: %(명), 만원

구분	동거 친조 부모	동거 외조 부모	비동거 친조 부모	비동거 외조 부모	동거 친인척	비동거 친인척	전체	2015년	2012년	2009년
10만원 미만	-	-	-	-	-	-	-	0.5	25.2	8.8
10-19만원 이하	-	-	7.7	7.1	-	-	5.8	5.1	20.3	29.5
20-29만원 이하	6.9	11.0	6.0	6.6	-	21.3	7.5	8.8	13.6	20.9
30-39만원 이하	-	25.8	4.7	15.7	-	50.5	14.7	9.8	10.9	15.1
40-49만원 이하	3.1	7.3	-	2.4	-	-	2.2	4.9	4.8	6.0
50-59만원 이하	51.2	16.8	35.8	17.5	100.0	-	22.8	30.9	12.2	11.9
60-69만원 이하	-	7.4	1.4	4.7	-	2.7	3.8	4.1	1.2	2.2
70-79만원 이하	6.1	12.4	2.4	6.0	-	16.9	6.3	6.4	4.8	1.3
80-89만원 이하	10.5	-	8.9	4.2	-	-	5.1	3.7	1.8	-
90-99만원 이하	2.8	-	-	-	-	-	0.2	-	-	-
100만원 이상	19.4	19.4	33.0	35.9	-	8.7	31.6	25.9	5.1	-
계(수)	100.0(23)	100.0(18)	100.0(47)	100.0(151)	100.0(2)	100.0(12)	100.0(253)	100.0(136)	100.0(419)	100.0(464)
평균	64.5	56.7	68.0	75.3	50.0	43.5	70.3	62.2	28.8	28.5
표준편차	27.6	34.8	37.1	56.6	-	24.8	49.6	36.3	27.0	23.5
최고	130.0	150.0	150.0	300.0	50.0	100.0	300.0	180.0	150.0	200.5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혈연 양육지원자 비용 지불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영아의 경우 71.2만원, 유아의 경우 69.7만원으로 영아가 다소 높다. 가구소득 300만원에서 349만원 구간 지불 비용이 114.3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의 경우 72.6만원으로 대도시와 읍면지역에 비하여 높았다.

표 IX-2-10 제 특성별 혈연 양육지원자 비용 지불 시 월 평균 금액

단위: 만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대	(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대	(수)
전체	70.3	49.6	300.0	(253)	지역규모				
영유아구분					대도시	70.5	42.5	200.0	(118)
영아	71.2	47.4	300.0	(107)	중소도시	72.6	59.5	300.0	(84)
유아	69.7	51.3	300.0	(146)	읍면지역	58.7	28.9	100.0	(51)
t	0.2				F	0.8(a)			
가구소득					모취업 여부				
199만원 이하	27.1	18.2	60.0	(3)	취업	70.2	50.6	300.0	(212)
200~249만원	20.7	24.8	100.0	(7)	휴직중	70.3	49.3	150.0	(20)
250~299만원	45.4	19.9	50.0	(2)	미취업	66.2	38.4	130.0	(17)
300~349만원	114.3	102.6	300.0	(21)	모부재	97.6	34.3	130.0	(4)
350~399만원	29.5	21.4	70.0	(5)	F	0.4			
400~499만원	70.6	34.6	150.0	(33)	2015년 조사	62.2	36.3	180.0	(136)
500~599만원	61.0	38.3	150.0	(61)	2012년 조사	28.8	27.0	150.0	(420)
600~699만원	61.9	34.8	150.0	(43)	2009년 조사	28.5	23.5	201.0	(463)
700만원 이상	79.7	46.9	200.0	(78)					
F	4.8***(a)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3 비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본 절에서는 비혈연이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구체적인 제공자, 기관과의 병행 이용, 이용 빈도, 비용 등 서비스의 전반적인 이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가. 이용 실태

1) 서비스 제공자

비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민간육아도우미가 62.3%로 가장 큰 비중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공공아 돌보미나 26.9%, 이웃과 지인이 10.8%였다. 2015년 결과 민간 육아도우미 이

용 비율이 57%이었던 것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였다.

영유아 구분별로는 영아가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비율이 67.8%, 대도시가 65.3%, 휴직중인 경우가 69.7%, 가구소득 700만원 이상이 83% 로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공공아이돌보미의 경우 읍면지역, 미취업모 가구, 비교적 저소득 가구에서 이용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표 IX-3-1 비혈연 양육지원자 분포

구분	단위: %(명)				계(수)
	공공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이웃·지인	기타	
전체	26.9	62.3	10.8	-	100.0 (81)
영유아구분					
영아	25.7	67.8	6.5	-	100.0 (33)
유아	27.6	58.6	13.7	-	100.0 (48)
지역규모					
대도시	23.1	65.3	11.6	-	100.0 (56)
중소도시	31.6	62.5	5.9	-	100.0 (15)
읍면지역	55.8	21.2	23.1	-	100.0 (10)
모취업 여부					
취업	22.9	65.5	11.6	-	100.0 (65)
휴직중	30.3	69.7	-	-	100.0 (7)
미취업	53.7	35.4	10.9	-	100.0 (8)
모부재	-	-	100.0	-	100.0 (1)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78.9	21.1	-	-	100.0 (5)
200~249만원	55.7	-	44.3	-	100.0 (2)
250~299만원	-	-	100.0	-	100.0 (1)
300~349만원	100.0	-	-	-	100.0 (1)
350~399만원	-	-	-	-	-
400~499만원	37.0	63.0	-	-	100.0 (8)
500~599만원	54.3	35.0	10.8	-	100.0 (17)
600~699만원	16.7	62.2	21.1	-	100.0 (13)
700만원 이상	8.5	83.0	8.5	-	100.0 (34)
2015년 조사	22.2	57.0	8.7	12.1	100.0 (31)
2012년 조사	26.0	15.1	27.4	11.0	100.0 (84)
2009년 조사	7.0	28.2	38.0	12.7	100.0 (7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3) 2015년 조사와 비혈연 인력의 구분이 다름에 따라, 베이비시터, 파출부 가사도우미는 '민간 육아도우미'로, 이웃보육모는 '이웃·지인', 동거비혈연은 '기타'로 재분류하여 이전 조사 수치를 제시함.

자료: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비혈연 양육지원자 채용 경로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이 34.6%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사설 인력전문기관 소개(24.2%), 지인 소개(20.7%) 등의 순이었다. 영아의 경우 인력을 인터넷으로 구했다는 비중이 39.8%로 특히 컸고 중소도시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구인이 43%, 지인의 소개가 35.7%의 순이었다. 대도시는 인터넷 31.7%, 사설 인력전문기관 28.1%의 순으로 사설 인력전문기관 소개 경로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5년에는 사설인력 전문기관(30.1%), 평소 알던 사람 채용(29.2%)이 비혈연 인력의 주된 구인 경로이며 반면 인터넷을 통한 구인 비율은 13.7%에 불과하였는데, 2018년에는 인터넷을 통한 구인이 활성화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 표 IX-3-2 ■ 비혈연 양육지원자 채용 경로

단위: %(명)

구분	평소 알던 사람	지인의 소개	지역신문광고	인터넷	사설인력 전문기관	기타	계(수)
전체	7.4	20.7	6.6	34.6	24.2	6.6	100.0 (81)
영유아구분							
영아	4.2	10.8	6.6	39.8	21.8	16.7	100.0 (33)
유아	9.4	27.2	6.5	31.2	25.7	-	100.0 (48)
지역규모							
대도시	6.0	16.5	9.3	31.7	28.1	8.4	100.0 (56)
중소도시	5.9	35.7	-	43.0	15.4	-	100.0 (15)
읍면지역	31.5	9.2	-	36.0	10.6	12.8	100.0 (10)
모취업 여부							
취업	7.2	22.8	8.3	34.9	20.1	6.7	100.0 (65)
휴직중	-	28.5	-	44.9	26.6	-	100.0 (7)
미취업	10.9	-	-	25.6	51.7	11.8	100.0 (8)
모부재 등	100.0	-	-	-	-	-	100.0 (1)
2015년 조사	29.2	15.1	8.4	13.7	30.1	3.4	100.0 (31)
2012년 조사	25.6	29.3	0.8	8.4	29.7	6.2	100.0 (84)
2009년 조사	30.6	41.7		12.5	12.5	2.8	100.0 (7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기관 병행 이용 실태

비혈연 양육지원자와 보육 교육 기관 중복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기관 이용을 병행한다는 비중이 57.9%였고 유아의 경우 72.1%가 기관 이용을 병행하였다. 영아의 경우는 비혈연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34.3%로 유아와(2.5%) 큰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0세의 경우 비혈연 단독 이용의 비중이 가장 컸고 대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관과 병행이용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3세의 경우 75.7%로 기관 이용과 병행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모가 취업중일 경우 기관 이용과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를 병행 이용하는 비율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IX-3-3 ▣ 비혈연 양육지원자와 보육·교육기관 등 중복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비혈연 단독	혈연 보완	기관이용 보완	혈연과 기관 모두 보완	계(수)
전체	13.7	18.9	57.9	9.4	100.0 (92)
영유아구분					
영아	34.3	23.9	32.0	9.8	100.0 (33)
유아	2.5	16.2	72.1	9.3	100.0 (59)
생활연령					
0세	50.5	49.5	-	-	100.0 (11)
1세	38.9	21.8	17.2	22.2	100.0 (10)
2세	19.5	7.0	65.5	7.9	100.0 (12)
3세	-	11.8	75.7	12.6	100.0 (16)
4세	11.6	6.5	67.5	14.4	100.0 (13)
5세 이상	-	21.6	72.4	6.0	100.0 (30)
지역규모					
대도시	9.9	15.4	62.7	11.9	100.0 (59)
중소도시	20.1	26.8	53.1	-	100.0 (20)
읍면지역	26.7	20.8	27.2	25.3	100.0 (13)
모취업 여부					
취업	5.0	15.3	67.9	11.8	100.0 (71)
휴직중	52.0	21.3	26.7	-	100.0 (8)
미취업	37.9	35.3	26.8	-	100.0 (11)
모부재 등	-	51.6	-	48.4	100.0 (2)
2015년 조사	7.0	-	69.0	24.0	100.0 (31)
2012년 조사	28.8	3.7	55.2	12.3	100.0 (8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3) 이용 빈도와 이용 시간

비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빈도와 이용시간을 조사하였다. 이용시간대는 ‘출근 후 등원 전, 하원 후 퇴근 전’이 29.7%로 가장 큰 비중이었고, ‘하원 후 퇴근 전까지’의 비중이 25.1%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주당 이용시간은 평균 21.6시간으로 2015년 평균 20.5시간 보다 약 1시간 증가하였다. 영유아별 구분에 의할 경우 영아는 30.2시간, 유아는 16.0시간으로 영아가 이용 시간이 두 배가량 긴 것으로 나타났다. 휴직중인 경우 34.8시간을 이용하여 취업중이나 미취업중인 경우보다 이용 시간이 길었다.

▣ 표 IX-3-4 ▣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시간대 및 주당 이용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시간대						돌보는 시간(주당)		2015년	2012년
	하루 종일	출근후~ 등원전	하원후~ 퇴근전	출근후 ~등원전, 하원후 ~퇴근전	불규칙 (필요시)	계(수)	평균	t/F	평균	평균
전체	11.5	16.9	25.1	29.7	16.7	100.0 (81)	21.6		20.5	25.4
영유아구분										
영아	29.2	3.3	3.8	42.1	21.7	100.0 (33)	30.2	3.3***	25.9	31.7
유아	-	25.8	39.0	21.6	13.5	100.0 (48)	16.0		18.6	17.4
χ^2 (df)	37.5(4)***									
지역규모										
대도시	13.5	13.9	23.4	38.2	11.0	100.0 (56)	23.6	1.4	20.4	33.4
중소도시	5.4	28.0	28.3	6.5	31.9	100.0 (15)	15.8		21.6	18.3
읍면지역	12.8	7.5	34.0	21.0	24.8	100.0 (10)	21.0		16.8	20.2
χ^2 (df)	15.7(8)**									
모취업 여부										
취업	8.5	19.7	30.0	37.5	4.3	100.0 (65)	21.8	3.1** (a)	-	-
휴직중	40.5	14.6	14.6	-	30.3	100.0 (7)	34.8		-	-
미취업	9.9	-	-	-	90.1	100.0 (8)	9.8		-	-
모부재 등	-	-	-	-	100.0	100.0 (1)	4.0		-	-
χ^2 (df)	59.1(1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 $p < .001$.

4) 서비스 장소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장소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의 97.8%가 아이 집이었으며 2015년 81.7%, 2012년 64.2%가 아이 집이었던 경우보다 증가하였다. 영아와 대도시의 경우는 100%가 아이 집에서 돌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X-3-5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장소

단위: %(명)

구분	영유아구분		지역규모			전체	2015년	2012년	2009년
	영아	유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아이 집	100.0	96.4	100.0	94.1	85.3	97.8	81.7	64.2	70.0
돌보는 사람 집	-	3.6	-	5.9	14.7	2.2	18.3	35.8	3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3)	(48)	(56)	(15)	(10)	(81)	(31)	(84)	(90)
χ^2 (df)	1.3(1)		9.2(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5) 비혈연 인력의 결근 시 대처 방법

비혈연 양육지원자의 결근 빈도 및 결근 시 대처 방법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결근은 거의 없음이 71.4%였으나 결근 시에는 조부모 및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42.1%), 부모가 돌보는 경우(41.9%)가 높은 비중이었고 모가 휴직중이거나 미취업인 경우 '결근이 거의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 86.7%와 88.2%로 취업중인 경우(67.1%)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취업모의 경우 결근 시 조부모 및 친인척에 맡긴다는 비율이 44.4%로 가장 높았다.

표 IX-3-6 비혈연 양육지원자 결근 빈도 및 결근 시 대처 방법

단위: %(명)

구분	결근 빈도					결근시 대처						
	자주 있음	가끔 있음	거의 없음	비해 당	계(수)	부모가 돌봄	아이형 제자매	조부모 및 친인척	이웃에 부탁	시간제 보육	기타	계(수)
전체	2.4	23.1	71.4	3.1	100.0(81)	41.9	6.0	42.1	-	-	10.0	100.0(21)
영유아구분												
영아	3.1	25.3	68.5	3.1	100.0(33)	37.6	-	62.4	-	-	-	100.0(9)

구분	결근 빈도					결근시 대처						
	자주 있음	가끔 있음	거의 없음	비해 당	계(수)	부모가 돌봄	아이형 제자매	조부모 및 친인척	이웃에 부탁	시간제 보육	기타	계(수)
유아	2.0	21.6	73.4	3.1	100.0(48)	45.3	10.8	26.1	-	-	17.8	100.0(12)
지역규모												
대도시	3.4	29.8	65.1	1.7	100.0(56)	43.0	6.5	45.6	-	-	4.9	100.0(19)
중소도시	-	5.9	86.3	7.8	100.0(15)	-	-	-	-	-	100.0	100.0(1)
읍면지역	-	10.6	89.4	-	100.0(10)	100.0	-	-	-	-	-	100.0(1)
모취업 여부												
취업	3.1	27.4	67.1	2.4	100.0(65)	38.7	6.4	44.4	-	-	10.5	100.0(20)
휴직중	-	-	86.7	13.3	100.0(7)	-	-	-	-	-	-	-
미취업	-	11.8	88.2	-	100.0(8)	100.0	-	-	-	-	-	100.0(1)
모부재 등	-	-	100.0	-	100.0(1)	-	-	-	-	-	-	-
2015년 조사	3.2	0.7	59.7	-	100.0(30)	13.3	-	-	44.7	42.0	-	100.0(9)
2012년 조사	-	12.2	87.8	-	100.0(78)	42.0	-	58.0	-	-	-	100.0(1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나. 이용 비용

1) 비용 지불 여부 및 지불 형태

비혈연 개인양육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비용 지불 여부 및 지불 형태를 살펴보았다. 정기적으로 지불한다는 비율이 87.2%로 나타났고 부정기적으로 지불한다는 비중이 9.3%였다. 현물로 지불한다는 비중은 없었고, 지불을 안한다는 비중이 3.5%를 차지한 점이 2015년에 비하여 차이가 있다.

읍면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지불한다는 응답이 68.1%로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미취업 상태인 경우도 정기적 지불이 35.4%로 상당히 낮게 응답되었다.

▶ 표 IX-3-7 ▶ 비혈연 양육지원자 비용 지불 여부 및 지불 형태

단위: %(명)

구분	정기적 지불	부정기적 지불	현물로 지불	숙식만 제공	지불 안함	계(수)
전체	87.2	9.3	-	-	3.5	100.0 (81)
영유아구분						
영아	90.3	6.6	-	-	3.1	100.0 (33)
유아	85.2	11.1	-	-	3.7	100.0 (48)

구분	정기적 지불	부정기적 지불	현물로 지불	숙식만 제공	지불 안함	계(수)
지역규모						
대도시	88.9	9.4	-	-	1.7	100.0 (56)
중소도시	86.5	7.6	-	-	5.9	100.0 (15)
읍면지역	68.1	15.9	-	-	16.0	100.0 (10)
모취업 여부						
취업	93.6	4.2	-	-	2.3	100.0 (65)
휴직중	100.0	-	-	-	-	100.0 (7)
미취업	35.4	53.7	-	-	10.9	100.0 (8)
모부재	-	-	-	-	100.0	100.0 (1)
이용유형						
비혈연 단독	79.6	20.4	-	-	-	100.0 (13)
혈연 보완	87.1	-	-	-	12.9	100.0 (8)
기관 보완	93.4	4.5	-	-	2.2	100.0 (49)
비혈연+혈연+기관	60.6	31.2	-	-	8.1	100.0 (11)
2015년 조사	94.7	4.7	0.5	-	-	100.0 (31)
2012년 조사	75.0	1.4	2.8	-	20.8	100.0 (84)
2009년 조사	90.1	4.2	1.4	-	4.2	100.0 (7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비용 지불 수준

비혈연 개인양육서비스 제공자의 유형별 비용 지불 수준은 다음과 같다. 지불 비용 평균은 79.1만원으로 2015년 조사 당시 금액 88.9만원보다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지불하는 최대 금액은 2015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제공자별로는 민간육아도우미에 평균 101.6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웃·지인에게 78.1만원, 공공 아이돌보미에게는 27.1만원을 지불하여 인력별 지불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 표 IX-3-8 ▮ 비혈연 양육지원자별 지불 비용

단위: %(명), 만원

구분	공공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이웃·지인	기타	전체	2015년	2012년
10만원 이하	5.0	-	-	-	1.4	-	0.5
10-19만원 이하	42.5	2.6	5.2	-	13.9	5.9	2.3
20-29만원 이하	9.6	2.3	27.3	-	6.2	1.3	1.4
30-39만원 이하	22.6	11.6	-	-	13.8	7.7	0.3
40-49만원 이하	4.5	2.2	-	-	2.7	0.2	-

구분	공공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이웃·지인	기타	전체	2015년	2012년
50-59만원 이하	5.8	15.5	14.3	-	12.7	16.2	3.1
60-69만원 이하	-	4.0	-	-	2.6	5.2	0.3
70-79만원 이하	4.9	5.5	-	-	4.9	4.3	0.9
80만원 이상	5.0	56.2	53.2	-	41.7	59.1	91.0
계(수)	100.0 (23)	100.0 (48)	100.0 (6)	-	100.0 (77)	100.0 (31)	100.0 (68)
평균(만원)	27.1	101.6	78.1	-	79.1	88.9	58.0
표준편차	21.7	69.0	49.6	-	66.6	52.6	47.1
최고	90.0	250.0	120.0	-	250.0	200.0	18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제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영아의 경우 92.5만원으로 유아 70.2만원보다 비용이 높았고,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87.2만원으로 읍면지역의 경우 45.7만원인 경우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휴직중인 경우 92.9만원으로 취업중인 경우 81.9만원인 경우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었다.

【표 IX-3-9】 제 특성별 비월연 양육지원자 비용 지불시 월 평균 비용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대	t/F	(수)
전체	79.1	66.6	250.0		(77)
영유아구분					
영아	92.5	73.1	250.0	1.5	(32)
유아	70.2	61.0	240.0		(45)
지역규모					
대도시	87.2	68.9	250.0	1.8	(55)
중소도시	60.5	55.5	180.0		(14)
읍면지역	45.7	65.5	160.0		(8)
모취업 여부					
취업	81.9	64.2	240.0	1.5	(63)
휴직중	92.9	69.9	250.0		(7)
미취업	44.3	78.4	250.0		(7)
2015년 조사	88.9	52.6	200.0		(31)
2012년 조사	58.0	47.1	180.0		(6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4 시사점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아동의 특성 및 이용 실태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16.3%로 10.9%이었던 2015년 보다는 증가하였고 37.2%였던 2012년보다는 그 수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절대적인 증감수치로 다른 보육서비스의 안정화나 다양화의 효과를 논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개인양육지원서비스만을 이용하는 가구가 4.7%로 증가하였으나 기관과 병행하는 아동 역시 11.6%로 각각 2015년보다 증가하였기에 부모의 선택의 폭은 확장되었으나 기존 서비스로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이 여전히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둘째,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아동은 대부분 혈연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다. 동거와 비동거 조부모, 친인척을 합하면 88.4%의 아동이 혈연에 의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는 또 다른 형평성에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고려하여야 할 점으로 보인다.

셋째,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너무 어려서 기관 적응에 애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사유로 개인양육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 아이돌보미 확충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공인화 정책 등을 고려해볼만 하다.

넷째,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에 있어 비동거 외조부모의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혈연의 유무에 따른 사회적 형평성의 재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이때 비용 지불과 관련하여 지불을 안한다는 비중이 48.9%였는데 황혼 육아의 가치 내지는 경제적 부담 효과 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정책을 요한다.

마지막으로 비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에 있어 출근 후부터 등원 전, 하원 후부터 퇴근 전에 이용한다는 비중이 컸는데 관련하여 개인양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차원의 노동정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X

시간제 교육기관 및 개별교육 이용 실태

- X-1. 시간제 교육기관 및 개별교육 이용 아동 특성
- X-2.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실태
- X-3. 개별교육 이용 실태
- X-4. 시사점



X. 시간제 교육기관 및 개별교육 이용 실태

본 장에서는 시간제 교육기관과 개별교육 이용 실태를 분석하였는데, 본 조사에서의 시간제 교육기관은 반일제 이상 학원을 제외한 아동의 특기교육을 위한 학원, 보습 학원, 문화센터 등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또한, 개별교육은 개인 또는 그룹지도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교재교구를 활용한 교육, 예체능 교육, 학습지 등을 모두 포괄한다.

1 시간제 교육기관 및 개별교육 이용 아동 특성

본 절에서는 아동의 연령, 거주지역, 모취업 여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가구소득 등 시간제 교육기관 및 개별교육서비스 이용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가. 제 특성별 시간제 교육기관 및 개별교육 이용 비율

시간제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영유아 중에서 체육과 관련된 시간제 학원이나 문화센터 등 사설 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가 1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예능(미술, 음악) 10.9%,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3.3%, 수학/과학 2.9%, 영어 2.6%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인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대도시인 경우, 모가 취업중인 경우,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영어학원 등)에 다니는 경우,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때 비교적 시간제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영어 프로그램의 경우 7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에서 이용 비율이 6.7%로 가장 높았다.

표 X-1-1 제 특성별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비율(전체아동 대상)

단위: %(명)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 과학 관련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기타	(수)
전체	10.9	11.5	2.9	3.3	2.6	1.8	(3,775)
영유아구분							
영아	3.7	4.1	0.2	0.4	0.2	1.5	(1,522)
유아	15.6	16.3	4.7	5.1	4.2	2.0	(2,253)
생활연령							
0세	3.1	1.2	-	-	-	2.5	(434)
1세	3.2	5.4	-	-	0.2	1.4	(553)
2세	4.4	5.1	0.4	1.1	0.2	0.8	(535)
3세	6.9	6.2	1.1	1.8	2.0	1.7	(614)
4세	12.8	14.4	2.5	3.4	2.8	2.1	(615)
5세 이상	21.9	22.8	7.8	7.9	6.2	2.1	(1,024)
지역규모							
대도시	13.1	14.1	3.4	4.1	3.7	2.1	(1,362)
중소도시	10.7	11.8	3.2	3.2	2.4	2.0	(1,146)
읍·면지역	6.3	4.7	1.0	1.4	0.5	0.7	(1,267)
모취업 여부							
취업	13.5	13.4	4.2	4.5	3.6	1.5	(1,588)
휴직중	8.4	8.5	0.5	0.8	-	1.9	(270)
미취업	9.0	10.2	2.2	2.5	2.1	1.9	(1,880)
모부재 등	14.2	25.3	-	13.1	1.5	8.7	(37)
기관 이용 유형							
어린이집	7.3	7.5	1.8	2.4	1.6	1.3	(1,753)
유치원	19.9	22.2	5.2	5.8	4.9	1.6	(1,009)
반일제 이상 기관(영어학원 등)	24.4	28.2	20.0	11.7	12.5	4.9	(68)
반일제 이상 기관 미이용	6.1	5.2	0.5	1.1	0.9	2.6	(945)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1.8	6.0	0.9	-	0.3	0.9	(142)
200~249만원	6.1	3.8	1.9	3.2	0.6	1.1	(244)
250~299만원	7.6	10.7	2.6	3.8	1.4	1.9	(300)
300~349만원	8.7	8.9	2.5	2.0	2.2	2.5	(591)
350~399만원	8.6	7.8	1.1	1.7	0.6	0.3	(362)
400~499만원	10.0	11.3	2.6	3.2	2.4	2.7	(727)
500~599만원	13.3	13.7	3.4	5.4	3.0	1.2	(602)
600~699만원	16.9	13.8	3.3	3.0	1.9	1.0	(328)
700만원이상	15.6	18.5	5.3	4.0	6.7	2.6	(465)
모름/무응답	-	8.0	-	14.5	-	-	(1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개별교육 중 학습지 이용 비율이 1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습지는 영아(2.6%)보다는 유아(25.3%)의 이용률이 현저히 높고, 그 외 모든 개별교육 이용은 공통적으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습지는 또한 영유아 거주 지역규모에 따라 이용률에 차이를 보였다. 즉,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의 이용률이 각 16.3%, 16.9%로 읍면지역 15.2%에 비해 높았고, 취업모 가정 아동의 이용률이 19.4%로 다소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용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표 X-1-2 제 특성별 개별교육 이용 비율(전체아동 대상)

단위: %(명)

구분	개별 또는 그룹지도	학습지	교재교구 개별 교육	통신 교육	(수)
전체	2.4	16.4	2.3	0.4	(3,775)
영유아구분					
영아	0.8	2.6	1.6	0.1	(1,522)
유아	3.3	25.3	2.6	0.6	(2,253)
생활연령					
0세	-	0.3	0.6	-	(434)
1세	0.6	1.0	1.0	0.2	(553)
2세	1.6	5.6	3.0	0.2	(535)
3세	1.8	14.1	3.0	0.4	(614)
4세	2.9	24.6	2.1	0.4	(615)
5세 이상	4.5	31.6	2.8	0.8	(1,024)
지역규모					
대도시	3.5	16.3	3.0	0.4	(1,362)
중소도시	1.8	16.9	2.0	0.6	(1,146)
읍·면지역	0.9	15.2	1.2	0.1	(1,267)
모취업 여부					
취업	2.6	19.4	3.1	0.6	(1,588)
휴직중	1.0	5.6	3.8	0.5	(270)
미취업	2.3	15.3	1.2	0.3	(1,880)
모부재 등	8.3	20.7	4.8	-	(37)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	9.1	2.7	-	(142)
200~249만원	1.9	10.0	-	0.7	(244)
250~299만원	1.6	17.6	0.8	-	(300)
300~349만원	1.2	13.2	1.1	0.7	(591)
350~399만원	1.9	17.4	0.8	-	(362)
400~499만원	2.6	17.1	2.2	0.7	(727)

구분	개별 또는 그룹지도	학습지	교재교구 개별 교육	통신 교육	(수)
500~599만원	3.1	19.1	2.4	0.3	(602)
600~699만원	1.8	19.5	2.4	-	(328)
700만원이상	4.3	16.1	6.1	0.7	(465)
모름/무응답	-	43.7	-	-	(1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나.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아동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비율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아동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유치원이 49.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어린이집 32.6%, 이용 안함 11.9%,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영어학원 등) 5.7%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사례수가 적지만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의 대다수는 영아(67.9%)였고, 휴직중인 모의 자녀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37.2%로 가장 높았다. 2015년에 비해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아동의 유치원과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은 다소 증가하였고, 어린이집 이용은 다소 감소하였다.

표 X-1-3 |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영유아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현황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이용안함	계(수)
전체	32.6	49.8	5.7	-	11.9	100.0 (741)
영유아구분						
영아	32.1	-	-	-	67.9	100.0 (107)
유아	32.7	58.2	6.6	-	2.5	100.0 (634)
$\chi^2(df)$			452.6(3)***			
지역규모						
대도시	31.7	49.5	8.2	-	10.6	100.0 (347)
중소도시	31.4	50.5	3.9	-	14.1	100.0 (248)
읍·면지역	42.9	47.7	0.5	-	8.8	100.0 (146)
$\chi^2(df)$			16.4(6)**			
모취업 여부						
취업	37.6	51.4	8.3	-	2.7	100.0 (366)
휴직중	44.5	15.2	3.1	-	37.2	100.0 (45)
미취업	25.8	51.6	3.2	-	19.4	100.0 (319)
모부재 등	16.4	72.2	-	-	11.4	100.0 (11)
$\chi^2(df)$			111.1(9)***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이용안함	계(수)
2015년	35.1	48.6	3.3	0.9	12.1	100.0 (522)
2012년	45.2	43.3	5.8	0.5	-	100.0 (614)
2009년	20.1	38.4	6.2	-	-	100.0 (42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기준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 $p < .001$.

2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실태

본 절에서는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아동의 구체적인 이용 실태, 즉 이용하는 시간제 프로그램 수와 종류, 이용시간, 지출 비용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가. 시간제 교육기관 프로그램 이용 수

이용하는 시간제 교육기관 프로그램의 수를 알아본 결과, 조사대상 영유아 중 77.7%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할 경우 1개 이용 중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13.6%), 2개 5.5%, 3개 1.7% 순으로 응답되었다. 이용 프로그램의 수는 연령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4세 이상은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대비 유치원이나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모가 취업중인 경우에 시간제 교육기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가 시간제 교육기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3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는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영어학원 등) 이용 아동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제 교육 프로그램 이용률이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아동이 2015년도에는 17.5% 정도였던 것에 비해 4.8%p 정도 증가하였다.

표 X-2-1 이용하는 총 시간제 교육 프로그램 수(전체아동 대상)

단위: %(명)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계(수)
전체	77.7	13.6	5.5	1.7	1.0	0.5	100.0(3,775)
영유아구분							
영아	91.7	6.0	2.0	0.2	-	0.1	100.0(1,522)
유아	68.6	18.5	7.7	2.7	1.6	0.8	100.0(2,253)
생활연령							
0세	93.2	6.0	0.8	-	-	-	100.0(434)
1세	91.4	5.9	2.6	-	-	-	100.0(553)
2세	91.0	6.1	2.2	0.5	-	0.2	100.0(535)
3세	86.4	9.3	2.6	1.1	0.2	0.4	100.0(614)
4세	72.5	18.4	6.3	1.5	1.0	0.2	100.0(615)
5세 이상	57.0	23.5	11.3	4.2	2.7	1.4	100.0(1,024)
지역규모							
대도시	73.7	15.6	5.8	2.5	1.5	0.9	100.0(1,362)
중소도시	77.4	13.5	6.4	1.4	0.9	0.4	100.0(1,146)
읍·면지역	88.1	9.0	2.5	0.5	-	-	100.0(1,267)
기관이용 유형							
어린이집	84.3	10.8	3.2	0.9	0.5	0.3	100.0(1,753)
유치원	58.9	25.0	10.8	3.5	1.4	0.5	100.0(1,009)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56.3	10.7	9.8	9.3	8.2	5.7	100.0(68)
미이용	88.8	6.6	3.3	0.4	0.5	0.3	100.0(945)
모취업 여부							
취업	73.6	15.1	6.7	2.2	1.6	0.8	100.0(1,588)
휴직중	82.7	14.9	1.5	0.5	0.5	-	100.0(270)
미취업	80.7	12.1	4.8	1.5	0.5	0.4	100.0(1,880)
모부재 등	57.6	22.0	20.4	-	-	-	100.0(37)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90.4	8.5	1.1	-	-	-	100.0(142)
200~249만원	87.6	8.5	3.0	0.2	-	0.6	100.0(244)
250~299만원	81.0	13.0	3.3	2.2	0.4	-	100.0(300)
300~349만원	82.0	12.0	3.1	1.4	0.7	0.8	100.0(591)
350~399만원	82.6	13.6	3.0	0.4	0.4	-	100.0(362)
400~499만원	77.2	14.7	5.8	1.0	0.9	0.3	100.0(727)
500~599만원	75.6	11.8	7.9	2.1	2.0	0.6	100.0(602)
600~699만원	72.0	16.9	6.9	2.7	1.0	0.5	100.0(328)
700만원이상	67.3	17.6	8.8	3.7	1.5	1.1	100.0(465)
모름/무응답	77.5	22.5	-	-	-	-	100.0(14)
2015년	82.5	12.0	3.9	1.1	0.4	0.2	100.0(3,56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기준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나. 이용 프로그램 종류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아동의 프로그램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체육 프로그램의 참여 비율이 51.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예능 49.0%, 언어 14.7% 수학 13.0%, 영어 11.7%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0세를 제외하고 체육과 예능 프로그램 참여 비율이 높은 경향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0세의 경우에는 예능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45.9%로 높은 것이 특징적이었고, 3세는 언어나 수학/과학에 비해 영어 프로그램 참여 비율이 높았고, 4세는 한글과 같은 언어프로그램 참여 비율이 높았으며, 5세는 언어와 수학/과학 프로그램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가까워질수록 한글과 같은 언어 프로그램 참여가 높아져 특히 5세에는 초등학교 준비를 위한 한글과 수학프로그램 참여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규모, 모의 취업여부,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체육 프로그램의 참여 비율이 매우 높은 유사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예능 프로그램 참여 비율은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에서는 현저히 낮게 나타났으며 (18.6%) 그 이상의 소득 대에서는 40% 이상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구소득 600~6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60.4%가 이용하고 있어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조사결과 대비 예능 프로그램 이용 비율이 크게 높아졌고, 이밖에도 수학/과학 관련 프로그램, 언어, 영어 프로그램도 이용률이 증가하였다.

▣ 표 X-2-2 ▣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아동의 제 특성별 프로그램 이용 현황

단위: %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기타
전체	49.0	51.7	13.0	14.7	11.7	8.1
영유아구분						
영아	44.3	50.0	2.0	4.9	1.9	18.0
유아	49.8	52.0	14.9	16.4	13.3	6.4
생활연령						
0세	45.9	17.4	-	-	-	36.7
1세	37.9	63.1	-	-	2.6	16.2
2세	49.0	56.3	4.8	11.8	2.3	9.4
3세	50.9	45.9	8.0	13.4	14.7	12.3
4세	46.5	52.2	9.2	12.5	10.2	7.8
5세 이상	50.8	53.0	18.2	18.3	14.3	4.9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기타
지역규모						
대도시	49.8	53.8	13.0	15.6	14.0	7.8
중소도시	47.3	52.0	14.0	14.3	10.6	8.8
읍·면지역	52.6	39.6	8.5	11.5	4.0	6.2
모취업 여부						
취업	51.3	50.9	15.8	17.1	13.8	5.8
휴직중	48.8	49.0	2.6	4.7	-	11.2
미취업	46.9	52.8	11.6	12.7	11.0	10.0
모부재 등	33.6	59.6	-	30.8	3.5	20.6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8.6	62.2	9.7	-	2.9	9.5
200~249만원	48.9	30.4	15.7	25.9	5.2	9.3
250~299만원	40.0	56.6	13.7	20.0	7.3	9.8
300~349만원	48.6	49.4	13.8	11.0	12.5	13.8
350~399만원	49.2	44.9	6.2	9.6	3.6	1.6
400~499만원	44.0	49.6	11.4	14.2	10.7	11.8
500~599만원	54.3	56.1	14.0	22.1	12.3	5.1
600~699만원	60.4	49.3	11.8	10.8	6.7	3.5
700만원이상	47.8	56.5	16.2	12.2	20.6	8.1
모름/무응답	-	35.5	-	64.5	-	-
2015년	41.7	53.0	9.4	12.3	7.5	18.9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다.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시간

시간제 교육기관의 주당 총 이용시간은 평균 3.7시간으로 2012년 4.03시간에 비해 짧아졌지만, 2015년 3.6시간과는 비슷하였다. 이용시간 비율은 1~2시간이 47.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6시간 24.4%, 3~4시간 15.2% 순이었으며, 9시간 이상도 8.4%로 나타났다. 영아(1.7시간)보다는 유아(4.1시간)의 이용시간이 길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용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나 사례수가 많지는 않지만 0세의 평균 이용시간도 1.8시간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3.8시간)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2.9시간) 주당 총 이용시간이 길었는데, 이는 결국 기관 이용 여부와 관련 있는 아동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반일제 이상 기관 중에서는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주당 5.2시간을 이용하여 시간제 교육 기관 이용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주당 총 4.2시간을 이용하여 미취업 3.4시간, 휴직중 2.3시간에 비해 영유아의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시간이 길었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대체로 소득이 높은 가구가 낮은 가구보다 시간제 교육기관 총 이용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이 평균 3.8시간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길었다.

▮ 표 X-2-3 ▮ 시간제 교육기관 주당 총 이용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1~2 시간	3~4 시간	5~6 시간	7~8 시간	9시간 이상	계(수)	평균
전체	47.3	15.2	24.4	4.7	8.4	100.0 (741)	3.7
영유아구분							
영아	86.1	7.9	4.9	-	1.0	100.0 (107)	1.7
유아	40.7	16.4	27.7	5.6	9.7	100.0 (634)	4.1
생활연령							
0세	87.4	4.1	4.1	-	4.5	100.0 (25)	1.8
1세	80.8	10.8	8.4	-	-	100.0 (43)	1.9
2세	90.1	7.5	2.4	-	-	100.0 (39)	1.5
3세	61.6	18.1	12.3	0.9	7.1	100.0 (81)	2.8
4세	47.8	20.2	27.1	2.7	2.1	100.0 (151)	3.2
5세 이상	34.4	14.7	30.5	7.4	13.0	100.0 (402)	4.6
지역규모							
대도시	44.8	15.6	25.1	5.9	8.7	100.0 (347)	3.8
중소도시	50.0	16.4	21.2	4.0	8.4	100.0 (248)	3.6
읍·면지역	48.0	7.4	35.4	2.1	7.1	100.0 (146)	3.6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여부							
이용	43.7	15.4	27.0	5.4	8.5	100.0 (653)	3.8
미이용	73.5	13.7	5.3	-	7.5	100.0 (88)	2.9
반일제 이상 기관 유형							
어린이집	56.9	15.3	19.4	2.6	5.8	100.0 (247)	3.0
유치원	35.4	16.2	33.5	6.1	8.8	100.0 (378)	4.2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40.5	8.8	13.1	15.2	22.4	100.0 (28)	5.2
미이용	73.5	13.7	5.3	-	7.5	100.0 (88)	2.9
모취업 여부							
취업	41.5	14.7	25.1	7.7	11.0	100.0 (366)	4.2
휴직중	73.3	9.5	12.4	-	4.8	100.0 (45)	2.3
미취업	49.5	16.7	25.5	2.1	6.2	100.0 (319)	3.4
모부재	76.2	10.3	13.5	-	-	100.0 (11)	2.4

구분	1~2 시간	3~4 시간	5~6 시간	7~8 시간	9시간 이상	계(수)	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57.8	-	42.2	-	-	100.0 (12)	2.9
200~249만원	63.6	10.1	21.1	-	5.2	100.0 (24)	2.6
250~299만원	50.2	10.8	30.7	4.2	4.2	100.0 (46)	3.5
300~349만원	40.7	17.8	26.8	5.3	9.4	100.0 (90)	4.2
350~399만원	55.6	15.6	24.8	0.6	3.5	100.0 (59)	2.9
400~499만원	52.2	14.4	23.2	2.1	8.1	100.0 (151)	3.5
500~599만원	41.9	21.0	17.2	8.5	11.3	100.0 (134)	4.1
600~699만원	51.0	12.1	25.0	3.1	8.8	100.0 (83)	3.6
700만원이상	42.0	14.0	26.9	7.4	9.7	100.0 (139)	4.0
모름/무응답	-	35.5	64.5	-	-	100.0 (3)	4.3
2015년	45.8	14.4	28.4	5.0	6.3	100.0 (510)	3.6
2012년	41.8	10.9	33.6	5.1	8.7	100.0 (614)	4.0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라.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비용

1) 아동연령별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비용

시간제 교육기관의 각 프로그램별 부모부담 비용을 살펴보면, 영아가 119,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체육 102,500원, 예능 100,200원, 수학/과학 91,000원, 언어 79,300원 순이었다. 프로그램별 비용은 연령별 편차가 컸으며, 영아보다는 유아의 비용이 높은 경향을 보이거나 개별 프로그램의 특성과 질이 비용에 반영되어 비용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경향성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 표 X-2-4 ▣ 시간제 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아동연령별 월 평균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전체 (표준편차)	(수)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예능(미술, 음악)	64.8	105.5	68.9	64.9	62.7	77.7	97.0	113.2	100.2(64.6)	(363)
체육관련	64.9	108.6	126.7	61.0	58.3	77.3	107.7	113.5	102.5(64.5)	(375)
수학/과학 관련	52.7	91.9	-	-	52.7	104.5	102.6	88.9	91.0(60.5)	(85)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53.9	80.6	-	-	53.9	79.5	93.9	77.3	79.3(49.6)	(101)

구분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전체 (표준편차)	(수)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영아	22.5	121.2	-	30.0	15.0	121.6	147.8	114.0	119.0(74.9)	(80)
기타	56.4	77.0	35.9	62.4	90.9	38.6	87.1	87.0	70.3(56.3)	(5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부모 및 가구특성별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비용

시간제 교육기관 프로그램 이용비용은 월평균 145,200원이었으며, 비용 분포를 살펴보면, 10~15만원 미만 32.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만원 미만 19.6%, 20~30만원 미만 13.8%, 5~10만원 미만 13.2%, 30만원 이상 10.9%, 15~20만원 미만 9.8% 순으로 나타났다. 영아(75,400원)보다는 유아(157,000원)의 비용이 약 2배 정도 높았으며, 연령별로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지역이 156,900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휴직중인 경우 시간제 교육 프로그램 이용비용이 88,600원으로 취업모(162,600원)나 미취업모(132,000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휴직중인 경우는 대부분 육아휴직일 가능성이 높아 해당 아동 연령이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아에 집중되어 있을 수 있고, 앞서 제시하였던 결과처럼 동일 종류의 프로그램에서도 유아보다는 영아 대상 프로그램의 비용이 낮은 현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표 X-2-4 참조).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5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비교해볼 때, 가장 많은 비용 분포는 10~15만원으로 유사하였으나, 10만원 미만 분포는 줄어든 반면 20만 원 이상의 비용 분포는 약 1.9배가량 증가하였다. 이는 2018년 조사대상자 중 시간제 교육기관 지출 비용 수준이 높은 취업모 비율이 증가한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결과라 사료된다.

표 X-2-5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아동특성별 이용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15만원 미만	15~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계(수)	평균
전체	19.6	13.2	32.8	9.8	13.8	10.9	100.0 (741)	145.2
영유아구분								
영아	48.2	19.4	21.9	4.9	2.7	2.8	100.0 (107)	75.4
유아	14.8	12.1	34.6	10.6	15.7	12.2	100.0 (634)	157.0
생활연령								
0세	71.1	3.7	17.2	-	3.9	4.1	100.0 (25)	66.8
1세	37.4	25.4	29.8	4.5	-	2.8	100.0 (43)	74.0
2세	45.3	22.7	17.5	7.9	4.4	2.2	100.0 (39)	81.3
3세	28.7	19.3	30.4	4.7	8.9	8.0	100.0 (81)	116.7
4세	15.9	16.7	34.5	12.8	9.0	11.1	100.0 (151)	144.3
5세 이상	12.0	9.1	35.4	10.7	19.3	13.4	100.0 (402)	168.6
지역규모								
대도시	19.6	14.7	29.0	7.7	15.3	13.6	100.0 (347)	156.9
중소도시	20.9	11.0	33.8	11.8	13.3	9.2	100.0 (248)	137.4
읍·면지역	13.9	14.9	47.9	10.9	8.2	4.3	100.0 (146)	119.5
모취업 여부								
취업	16.0	12.5	29.3	12.2	16.4	13.7	100.0 (366)	162.6
휴직중	45.3	7.4	36.1	1.1	4.7	5.3	100.0 (45)	88.6
미취업	20.8	14.6	36.2	8.4	12.2	7.7	100.0 (319)	132.0
모부재 등	10.3	17.3	35.6	-	6.0	30.8	100.0 (11)	159.9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16.8	7.6	66.7	-	8.8	-	100.0 (12)	104.4
200~249만원	30.8	15.3	17.6	11.7	10.6	13.9	100.0 (24)	123.7
250~299만원	20.2	15.5	45.4	6.0	6.8	6.2	100.0 (46)	118.3
300~349만원	24.5	14.6	37.1	5.3	7.7	11.0	100.0 (90)	142.0
350~399만원	21.6	15.6	44.9	8.2	3.4	6.2	100.0 (59)	110.2
400~499만원	22.2	10.0	34.1	9.5	19.3	4.9	100.0 (151)	136.0
500~599만원	18.2	12.9	26.7	11.7	16.6	13.9	100.0 (134)	151.7
600~699만원	19.9	10.5	32.0	12.1	17.8	7.6	100.0 (83)	148.9
700만원이상	12.7	15.7	25.8	11.9	14.4	19.5	100.0 (139)	176.5
모름/무응답	35.5	-	64.5	-	-	-	100.0 (3)	91.6
2015년 조사	20.8	21.6	34.4	10.2	7.4	5.7	100.0 (510)	116.8
2012년 조사	25.6	28.8	30.3	7.0	4.8	3.5	100.0 (614)	99.7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시간제 교육기관의 프로그램별 비용을 살펴보면, 시간제 교육기관의 이용비용을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별로 분석한 결과, 사례수가 편포되어 있어 지역 특성, 모취업 여부에 따른 일반적 경향성을 발견하기 어려우나 대도시나 취업 중인 어머니의 영유아 자녀에 대한 예능, 체육, 수학/과학 프로그램 비용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고, 영어 프로그램의 경우 대도시지역에서의 비용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X-2-6 ▣ 제 특성별 시간제 교육기관 프로그램 월평균 이용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지역규모			모취업 여부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모부재 등	
예능(미술, 음악)	평균	107.2	92.5	97.1	109.9	82.1	90.2	106.6	100.2
	(수)	(171)	(117)	(75)	(186)	(22)	(151)	(4)	(363)
체육관련	평균	101.8	103.4	101.8	111.8	81.4	95.0	93.3	102.5
	(수)	(185)	(131)	(59)	(182)	(22)	(165)	(6)	(375)
수학/과학 관련	평균	97.4	86.1	77.3	93.1	30.0	89.5	-	91.0
	(수)	(41)	(34)	(10)	(51)	(1)	(33)	-	(85)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평균	80.6	73.2	106.1	75.9	88.7	78.5	150.0	79.3
	(수)	(50)	(32)	(9)	(57)	(2)	(40)	(2)	(101)
영어	평균	131.5	101.7	98.8	124.0	-	111.5	130.0	119.0
	(수)	(48)	(25)	(7)	(46)	-	(33)	(1)	(80)
기타	평균	65.2	72.9	88.1	79.4	32.9	68.8	85.5	70.3
	(수)	(28)	(22)	(8)	(19)	(5)	(32)	(2)	(58)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가구소득 구간에 따른 프로그램별 월평균 비용을 살펴본 결과도 뚜렷한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아 개별 프로그램의 특성이 비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표 X-2-7 ▣ 가구소득별 시간제 교육기관 월 평균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199	200~	250~	300~	350~	400~	500~	600~	700	모름/ 무응답	전체
		만원 이하	249 만원	299 만원	349 만원	399 만원	499 만원	599 만원	699 만원	116.8 이상		
예능 (미술, 음악)	평균	176.3	107.7	76.9	82.9	90.7	105.0	100.4	106.2	116.8	-	100.2
	(수)	(2)	(13)	(46)	(18)	(66)	(33)	(71)	(50)	(64)	-	(363)
체육관련	평균	96.7	97.1	95.0	133.0	94.1	103.6	96.7	102.0	113.5	40.0	102.5
	(수)	(8)	(6)	(54)	(15)	(64)	(33)	(72)	(41)	(81)	(1)	(375)

구분		199	200~	250~	300~	350~	400~	500~	600~	700	모름/ 무응답	전체
		만원 이하	249 만원	299 만원	349 만원	399 만원	499 만원	599 만원	699 만원	만원 이상		
수학/과학 관련	평균	100.0	87.2	53.8	117.1	96.9	97.2	81.9	99.7	95.0	-	91.0
	(수)	(1)	(3)	(10)	(6)	(11)	(8)	(17)	(9)	(20)	-	(85)
언어(한글, 한자, 기타외국어 등)	평균	-	85.8	73.4	76.0	90.7	76.1	68.4	72.4	95.7	120.0	79.3
	(수)	-	(5)	(13)	(4)	(16)	(11)	(27)	(7)	(16)	(2)	(101)
영어	평균	10.0	43.0	130.3	174.6	105.2	131.4	96.7	167.7	118.2	-	119.0
	(수)	(1)	(1)	(11)	(2)	(11)	(6)	(17)	(5)	(26)	-	(80)
기타	평균	16.0	35.6	63.0	36.9	50.8	114.9	86.5	102.7	62.2	-	70.3
	(수)	(1)	(2)	(14)	(4)	(9)	(8)	(7)	(3)	(10)	-	(58)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마. 시간제 교육기관 만족도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수학/과학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4.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체육, 영어가 4.0, 예능 3.9점으로 만족하는 정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X-2-8 | 시간제 교육기관 프로그램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5점 평균 (표준편차)	계(수)
예능(미술, 음악)	-	2.3	19.9	60.1	17.7	3.9(0.7)	100.0(363)
체육관련	0.3	0.4	19.7	58.3	21.4	4.0(0.7)	100.0(375)
수학/과학 관련	-	-	17.1	59.1	23.8	4.1(0.6)	100.0(85)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0.9	0.4	32.5	46.3	19.9	3.8(0.8)	100.0(101)
영어	-	0.9	13.2	66.5	19.3	4.0(0.6)	100.0(80)
기타	1.8	4.6	22.2	54.4	17.0	3.8(0.8)	100.0(5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5점 평균은 '매우 높음' 1점~ '매우 낮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역코딩하여 산출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시간제 교육기관 프로그램 만족도를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영어 프로그램의 경우 만족도가 대도시 4.0점, 중소도시 4.1점이나 읍·면지역은 3.2점으로 도시지역에서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취업모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영유아별에 따른 프로그램 만족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X-2-9 제 특성별 시간제 교육기관 프로그램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기타	(수)
전체	3.9	4.0	4.1	3.8	4.0	3.8	(741)
영유아구분							
영아	3.9	4.0	4.2	4.2	4.5	3.8	(107)
유아	3.9	4.0	4.1	3.8	4.0	3.8	(634)
χ^2	0.1	0.2	0.2	1.3	1.2	0.2	
생활연령							
0세	3.5	4.0	-	-	-	3.5	(25)
1세	3.8	3.9	-	-	5.0	3.8	(43)
2세	4.2	4.1	4.2	4.2	4.0	4.4	(39)
3세	3.8	3.9	4.0	3.5	3.8	3.9	(81)
4세	4.0	4.1	3.9	3.5	4.2	4.1	(151)
5세 이상	3.9	4.0	4.1	3.9	4.0	3.6	(402)
F	2.3**(a)	1.1	0.4	2.5*	1.7	1.7	
지역규모							
대도시	3.9	4.0	4.0	3.8	4.0	3.6	(347)
중소도시	4.0	4.0	4.1	3.8	4.1	4.0	(248)
읍·면지역	4.0	4.1	3.8	3.9	3.2	3.8	(146)
F	0.8	0.9	0.6	0.1(a)	3.5**	2.7*(a)	
모취업 여부							
취업	4.0	4.0	4.1	3.9	4.1	3.8	(366)
휴직중	3.8	3.8	4.0	4.0	-	3.3	(45)
미취업	3.9	4.0	4.0	3.9	4.0	3.9	(319)
모부재 등	3.2	3.6	-	3.3	3.0	3.6	(11)
F	2.2*(a)	1.8	0	0.6(a)	0.7(a)	0.7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사례수: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아동수임(각 과목마다 이용 만족도로 사례수는 다름).

3) 5점 평균은 '매우 높음'1점~ '매우 낮음'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역코딩하여 산출함.

4)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1$.

시간제 교육기관의 프로그램별 이용시간당 비용을 산출한 결과, 프로그램 종류 중 시간당 비용이 가장 높은 것은 수학/과학 프로그램으로 시간당 비용이 15,600 원이었으며, 다음은 언어 15,000원, 기타 14,000원, 영어 13,400원 순이었다.

표 X-2-10 시간제 교육기관 프로그램별 이용비용, 이용시간 비교

단위: 천원, 시간

구분	월평균 이용비용(A)		주당 이용시간(B)		시간당 비용 (A/B*4.3)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예능(미술, 음악)	100.2	64.6	2.5	2.0	13.2
체육관련	102.5	64.5	2.8	2.0	12.3
수학/과학 관련	91.0	60.5	1.7	1.2	15.6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79.3	49.6	1.7	1.4	15.0
영어	119.0	74.9	3.3	2.6	13.4
기타	70.3	56.3	1.5	1.6	14.0

주: 시간당 비용 산출 수식에서 4.3의 산출 근거를 제시하면, 4.3시간= 48시간(주간 근로시간, 유휴 1일 8시간 포함)/208시간(근로기준법상의 한 달 근로시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3 개별교육 이용 실태

본 절에서는 개별교육서비스 이용 아동의 구체적인 이용 실태, 즉 이용하는 종류별 개별교육 이용률 및 이용 개수, 이용시간, 지출 비용, 만족도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가. 개별교육 이용 현황

학습지 등 개별교육을 이용하는 아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학습지는 이용 비율이 83.5%로 영유아가 매우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개별교육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개별 또는 그룹지도 12.0%, 교재교구 활용 11.5%, 통신교육 2.1% 순이었다. 서비스별 평균 이용 개수는 학습지가 1.6개, 다른 서비스는 평균 1.1~1.3개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이용시간은 프로그램별로 약 37분~110분(약 1시간 50분) 범위 정도로 나타났다. 개별교육의 월평균 이용비용은 전체 평균 93,000원 정도이고 종류별로는 ‘개별 또는 그룹지도’ 프로그램이 148,5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재교구 활용 프로그램 94,300원, 통신교육 80,900원, 학습지 74,900원 순이었다. 2015년도에 비해 개별교육 월평균 비용은 상승하였으며, 특히 통신교육 비용이 크게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개별교육 이용 만족도는 2015년도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X-3-1 개별 교육 이용 현황

단위: %, (명), 개, 분, 천원, 점

구분	이용 비율		평균 이용 개수		주 평균 이용시간		월평균비용		만족도 (5점 평균)		(수)
	2018	2015	2018	2015	2018	2015	2018	2015	2018	2015	
개별 또는 그룹지도	12.0	-	1.3	-	109.9	-	148.5	-	4.1	-	(80)
학습지	83.5	81.0	1.6	1.6	36.9	-	74.9	67.1	3.7	3.7	(584)
교재교구활용	11.5	12.2	1.2	1.1	45.5	-	94.3	78.3	4.1	3.9	(78)
통신교육	2.1	1.5	1.1	1.0	82.7	-	80.9	39.3	3.9	3.9	(13)
총계	100.0	-	1.6	-	51.0	-	93.0	-	-	-	(69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5점 평균은 '매우 불만족' 5점, '매우 만족' 1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역코딩하여 산출함.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제 특성별 개별교육 이용률을 살펴보면, 영아와 유아 모두 학습지 이용률이 각각 56.0%, 86.2%로 가장 높았으나 영아의 경우, 교재교구 이용률도 36.1%로 유아에 비해 높았다. 연령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세 이상에서는 학습지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나 0세와 1세는 교재교구 활용 프로그램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개별 또는 그룹지도를 이용하는 비율이 16.9%로 가장 높았고, 학습지 이용은 읍·면 지역에서 90.3%로 가장 높았으며, 교재교구 활용은 대도시가 14.5%로 가장 높았고, 통신교육은 중소도시가 2.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학습지 이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와 비교해볼 때, 학습지와 교재교구 활용이 조금 줄어든 반면, 통신교육 이용은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다.

표 X-3-2 제 특성별 개별 교육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개별 또는 그룹지도	학습지	교재교구활용	통신교육	(수)
전체	12.0	83.5	11.5	2.1	(698)
영유아구분					
영아	18.2	56.0	36.1	3.2	(63)
유아	11.4	86.2	9.0	2.0	(635)
생활연령					
0세	-	32.3	67.7	-	(3)
1세	23.2	38.8	39.6	8.1	(15)
2세	18.1	62.3	33.0	2.0	(45)
3세	10.2	80.4	17.1	2.3	(107)
4세	10.0	85.8	7.4	1.5	(171)

구분	개별 또는 그룹지도	학습지	교재교구활용	통신교육	(수)
5세 이상	12.4	87.9	7.7	2.2	(357)
지역규모					
대도시	16.9	78.9	14.5	1.8	(276)
중소도시	9.3	85.8	9.9	2.9	(212)
읍·면지역	5.5	90.3	7.2	0.8	(210)
모취업 여부					
취업	10.9	82.6	13.3	2.4	(359)
휴직중	10.7	60.4	41.4	4.9	(24)
미취업	12.9	86.3	7.0	1.7	(306)
모부재 등	32.3	81.2	18.8	-	(9)
2015년	-	84.6	12.8	1.5	(521)
2012년	-	91.6	13.9	0.4	(1,057)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조사대상 영유아의 개별교육 서비스의 이용 개수를 살펴 본 결과, 개별교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80.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1개 이용 10.6%, 2개 6.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유아들은 대체로 개별교육을 이용하지 않거나 2개 이내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아보다는 유아가 개별교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취업모 자녀가 이용하는 비율이 미취업모 자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X-3-3 개별 교육 이용 개수

단위: %(명)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계(수)
전체	80.4	10.6	6.5	1.6	0.6	0.2	0.1	-	100.0(3,775)
영유아구분									
영아	95.4	3.3	0.8	0.3	0.1	0.1	-	-	100.0(1,522)
유아	70.7	15.4	10.3	2.4	0.9	0.2	0.1	-	100.0(2,253)
생활연령									
0세	99.1	0.6	0.3	-	-	-	-	-	100.0(434)
1세	97.4	2.2	0.1	0.4	-	-	-	-	100.0(553)
2세	91.0	6.3	1.8	0.4	0.2	0.2	-	-	100.0(535)
3세	82.5	10.9	4.7	1.1	0.4	0.2	-	0.2	100.0(614)
4세	71.3	17.3	9.6	1.5	0.2	-	-	-	100.0(615)
5세 이상	64.1	16.6	13.6	3.6	1.5	0.4	0.2	-	100.0(1,024)
지역규모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계(수)
대도시	79.3	11.5	6.7	1.7	0.4	0.2	0.2	0.1	100.0(1,362)
중소도시	80.3	10.4	6.7	1.6	0.8	0.2	-	-	100.0(1,146)
읍·면지역	83.2	9.1	5.9	1.2	0.5	0.2	-	-	100.0(1,267)
모취업 여부									
취업	76.5	12.7	8.1	1.6	0.8	0.2	0.1	0.1	100.0(1,588)
휴직중	90.7	6.8	2.0	0.5	-	-	-	-	100.0(270)
미취업	82.3	9.5	5.8	1.7	0.5	0.2	0.1	-	100.0(1,880)
모부재 등	74.4	12.0	7.8	4.3	1.5	-	-	-	100.0(37)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88.7	4.1	6.4	0.8	-	-	-	-	100.0(142)
200~249만원	88.1	7.7	3.3	0.9	-	-	-	-	100.0(244)
250~299만원	80.4	9.3	8.0	1.5	0.5	-	0.4	-	100.0(300)
300~349만원	84.7	8.4	5.1	1.1	0.4	0.2	-	-	100.0(591)
350~399만원	81.1	10.4	5.5	2.9	0.1	-	-	-	100.0(362)
400~499만원	79.6	10.6	7.8	1.1	0.5	0.5	-	-	100.0(727)
500~599만원	77.1	13.8	7.1	1.3	0.5	0.1	-	-	100.0(602)
600~699만원	78.7	10.7	7.7	1.4	1.5	-	-	-	100.0(328)
700만원이상	76.3	12.9	6.3	2.7	1.1	0.3	0.3	0.2	100.0(465)
모름/무응답	56.3	35.7	8.0	-	-	-	-	-	100.0(14)
2015년	83.4	9.1	5.5	1.4	0.5	0.1	-	-	100.0(3,560)
2012년	66.2	15.5	13.5	3.6	0.6	0.4	-	-	100.0(3,34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나. 개별교육 이용비용

1) 아동연령별

개별교육 서비스의 이용비용을 살펴보면, 개별 또는 그룹지도 프로그램이 월평균 148,5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재교구활용 94,300원, 통신교육 80,900원, 학습지 74,900원 순이었다. 영아보다는 유아의 평균 월평균 비용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통신교육의 경우에는 영아가 더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개별 또는 그룹지도의 경우에는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다른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연령별로 일관성 있는 경향은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는 일반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일지라도 개별 프로그램의 특성이 단가에 반영되어 실제 가격의 편차가 크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X-3-4 연령 및 영유아별 개별교육 프로그램 월 평균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생활연령기준)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개별 또는 그룹지도	평균	94.8	157.1	-	79.9	99.8	160.6	118.8	171.1	148.5
	(수)	(12)	(68)	-	(4)	(8)	(9)	(17)	(42)	(80)
학습지	평균	65.4	75.5	60.0	68.5	65.1	74.2	69.4	78.7	74.9
	(수)	(33)	(551)	(1)	(6)	(26)	(89)	(146)	(316)	(584)
교재교구활용	평균	88.0	96.8	32.6	93.0	94.2	93.3	112.9	91.5	94.3
	(수)	(23)	(55)	(2)	(5)	(16)	(16)	(14)	(25)	(78)
통신교육	평균	87.9	79.8	-	30.0	150.0	159.0	30.2	74.3	80.9
	(수)	(2)	(11)	-	(1)	(1)	(2)	(2)	(7)	(13)

주: 1) 비용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부모 및 가구특성별

개별교육을 이용하는 가구별 월평균 이용비용은 93,000원이었으며, 이는 2012년 월평균 이용비용 75,900원보다 17,100원 정도 상승한 수치이다. 비용의 분포를 살펴보면, 5~10만원 미만이 3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만원 미만 29.4%, 10~15만원 20.2% 순으로 나타났다. 영아(88,400원)보다는 유아(93,400원)의 월평균 비용이 높았고, 읍·면지역 거주 영유아의 지출이 81,100원으로 대도시(94,100원), 중소도시(95,800원)에 비해 낮았다.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98,500원을 지출하여, 미취업이거나(87,100원) 휴직 중인 경우(80,900원)에 비해 개별교육 비용 지출 수준이 상당히 높았으며,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138,800원을 지출하여, 양육수당을 받지 않는 영유아의 88,000과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표 X-3-5 부모 및 가구 특성별 개별교육 월평균 이용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15만원 미만	15~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계(수)	평균
전체	29.4	35.8	20.2	7.6	4.4	2.7	100.0(698)	93.0
영유아구분								
영아	32.8	32.5	21.1	5.4	6.2	2.0	100.0(63)	88.4
유아	29.0	36.1	20.1	7.8	4.2	2.8	100.0(635)	93.4
생활연령								
0세	67.7	32.3	-	-	-	-	100.0(3)	41.5

구분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15만원 미만	15~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계(수)	평균
1세	31.8	51.1	3.6	-	13.5	-	100.0(15)	84.4
2세	30.6	27.6	27.2	7.2	4.6	2.7	100.0(45)	92.7
3세	32.2	29.4	19.2	8.0	8.0	3.2	100.0(107)	95.6
4세	37.5	29.7	19.1	10.4	2.5	0.8	100.0(171)	80.3
5세 이상	24.2	40.9	20.7	6.5	4.0	3.7	100.0(357)	99.1
지역규모								
대도시	29.1	37.3	19.1	7.8	3.3	3.3	100.0(276)	94.1
중소도시	27.4	35.1	21.5	8.4	5.1	2.5	100.0(212)	95.8
읍·면지역	35.8	33.3	19.2	4.8	5.1	1.8	100.0(210)	81.1
모취업 여부								
취업	25.1	35.4	23.6	8.9	3.2	3.8	100.0(359)	98.5
휴직중	25.9	50.6	16.2	-	7.4	-	100.0(24)	80.9
미취업	34.8	35.0	16.8	6.4	5.5	1.5	100.0(306)	87.1
모부재 등	16.6	41.1	9.9	17.0	-	15.3	100.0(9)	115.1
양육수당								
받음	30.3	31.3	11.1	4.6	8.1	14.7	100.0(56)	138.8
안받음	29.3	36.3	21.1	7.9	4.0	1.5	100.0(642)	88.0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25.2	54.3	16.2	-	4.3	-	100.0(19)	73.6
200~249만원	31.2	40.6	12.5	5.3	5.6	4.8	100.0(26)	96.5
250~299만원	24.8	50.1	18.2	2.8	2.2	2.0	100.0(50)	79.9
300~349만원	40.6	34.3	14.9	6.5	3.7	-	100.0(85)	75.7
350~399만원	37.4	32.3	16.3	4.7	7.3	2.2	100.0(71)	92.8
400~499만원	27.5	33.7	19.4	13.0	6.0	0.4	100.0(134)	94.9
500~599만원	36.7	24.3	22.8	10.4	4.8	1.1	100.0(136)	85.5
600~699만원	15.8	51.6	27.5	1.9	-	3.2	100.0(66)	88.2
700만원 이상	20.5	35.0	22.7	7.7	4.3	9.8	100.0(105)	123.7
모름/무응답	65.5	34.5	-	-	-	-	100.0(6)	44.4
2015년	33.7	45.5	11.2	5.3	3.4	0.9	100.0(521)	75.9
2012년	44.7	38.7	11.7	3.0	1.6	0.3	100.0(1,053)	65.9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개별교육 프로그램별 월평균 이용비용을 살펴보면, 개별 또는 그룹지도 프로그램은 도시지역이, 통신교육은 읍·면 지역에서 조금 더 큰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취업 여부별로는 통신교육을 제외하고는 취업모 가구의 영유아가 미취업모 가구의 영유아 보다 전반적으로 더 큰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일반적인 경향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표 X-3-6, X-3-7 참조).

표 X-3-6 개별교육 프로그램별 월평균 이용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지역규모			모취업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모부재 등	
개별 또는 그룹지도	평균	154.2	149.9	89.7	164.2	66.6	140.7	113.2	148.5
	(수)	(45)	(21)	(14)	(35)	(3)	(40)	(2)	(80)
학습지	평균	68.4	80.4	76.8	77.1	63.5	72.9	85.1	74.9
	(수)	(217)	(181)	(186)	(300)	(15)	(261)	(8)	(584)
교재교구활용	평균	88.9	107.6	73.0	110.7	66.8	74.3	50.0	94.3
	(수)	(40)	(22)	(16)	(46)	(9)	(22)	(1)	(78)
통신교육	평균	68.5	78.4	188.8	89.1	159.0	50.0	-	80.9
	(수)	(5)	(6)	(2)	(7)	(1)	(5)	-	(13)

주: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표 X-3-7 개별교육 이용 아동의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월 평균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199	200~	250~	300~	350~	400~	500~	600~	700	모름/ 무응답
		만원 이하	249 만원	299 만원	349 만원	399 만원	499 만원	599 만원	699 만원	700 이상	
개별 또는 그룹지도	평균	-	256.6	122.6	99.1	177.6	132.6	120.5	126.3	185.3	-
	(수)	-	(3)	(5)	(7)	(7)	(16)	(19)	(5)	(18)	-
학습지	평균	66.2	64.1	72.9	66.0	79.5	79.6	72.1	74.1	83.7	44.4
	(수)	(16)	(23)	(45)	(74)	(64)	(112)	(113)	(59)	(72)	(6)
교재교구활용	평균	85.6	-	110.0	63.3	28.5	84.0	73.9	87.0	123.1	-
	(수)	(4)	-	(1)	(5)	(4)	(16)	(14)	(8)	(26)	-
통신교육	평균	-	38.0	-	135.1	-	63.2	95.4	-	54.6	-
	(수)	-	(1)	-	(4)	-	(3)	(2)	-	(3)	-

주: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다. 개별교육 이용 만족도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개별교육 서비스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3.7점~4.1점의 범위를 보여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별 또는 그룹지도 및 교재교구활용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각 4.1점으로 가장 높고, 통신교육은 3.9점, 학습지 3.7점 순이었다. 2015년과 비교할 때, 학습지와 통신교육의 만족도는 동일한 반면, 개별 또는 그룹지도 및 교재교구 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증가하였다.

표 X-3-8 개별교육 프로그램별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5점 평균		계(수)
						2018	2015	
개별 또는 그룹지도	-	1.3	11.9	63.3	23.4	4.1	4.0	100.0 (80)
학습지	0.8	3.0	28.4	59.2	8.8	3.7	3.7	100.0 (584)
교재교구활용	-	3.1	16.5	50.8	29.5	4.1	3.9	100.0 (78)
통신교육	-	-	23.3	62.5	14.1	3.9	3.9	100.0 (1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5점 평균은 '매우 만족' 1점~ '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역코딩하여 산출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개별교육 서비스의 제 특성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통신교육은 영아(3.0점)보다는 유아(4.1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지역규모별로는 통신교육의 만족도가 중소도시가 높았다. 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가구소득에 따른 일관성 있는 경향은 없었으나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의 경우 학습지에 대한 만족 점수가 높았다.

표 X-3-9 제 특성별 개별 교육서비스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개별 또는 그룹지도	학습지	교재교구활용	통신교육
전체(수)	4.1	3.7	4.1	3.9
영유아구분				
영아	4.2	3.8	4.2	3.0
유아	4.1	3.7	4.0	4.1
χ^2	0.4	0.8	0.9	-2.7**
생활연령				
0세	-	4.0	3.5	-
1세	4.2	4.0	4.3	3.0
2세	4.1	3.8	4.2	3.0
3세	4.0	3.8	4.2	4.0
4세	4.3	3.7	4.1	4.0
5세 이상	4.0	3.7	3.9	4.1
F	1	0.5	1.1	1.4
지역규모				
대도시	4.0	3.7	4.1	3.5
중소도시	4.3	3.7	4.1	4.2
읍·면지역	3.8	3.6	3.7	3.4
F	2.2	1	0.9	4.3**

구분	개별 또는 그룹지도	학습지	교재교구활용	통신교육
모취업 여부				
취업	4.0	3.7	4.1	4.0
휴직중	4.0	3.7	3.9	4.0
미취업	4.2	3.7	4.1	3.8
모부재 등	4.0	3.8	4.0	-
F	0.5	0	0.2	0.1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	3.6	2.9	-
200~249만원	4.0	3.8	-	4.0
250~299만원	4.0	3.7	3.0	-
300~349만원	4.2	3.5	4.0	4.0
350~399만원	4.3	3.6	3.8	-
400~499만원	4.3	3.8	4.4	4.3
500~599만원	3.8	3.6	4.0	3.7
600~699만원	4.4	3.8	4.4	-
700만원 이상	4.0	3.9	4.1	3.4
모름/무응답	-	3.5	-	-
F	1.2	2.3**(a)	2.8**	0.9(a)
2015년	4.0	3.7	3.9	3.9
2012년	3.9	3.8	4.0	3.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3) 5점 평균은 '매우 만족' 1점~ '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역코딩하여 산출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4 시사점

본 장에서는 시간제 교육기관과 개별교육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였다.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2015년도에 비해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고, 개별교육의 경우에는 학습지와 교재교구 활용이 조금 줄어든 반면 통신교육 이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교육기관의 이용은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아동이거나 취업모의 자녀인 경우에 이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의 종료 시간 이후, 취업모가 귀가하기 전의 돌봄 공백을 메꾸려는 방안으로 시간제 교육기관이 활용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개별교육에서는 학습지가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는데, 이는 신체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자유롭게 놀아야 하는 영유아에게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최근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바람에 부응하여 어린 영유아들이 시간제 교육기관이나 집에서 학습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대신 학교 운동장과 같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뛰놀 수 있는 안전한 공간 마련 및 성인의 보호 등을 수반하는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통신교육 이용의 증가 등 영유아의 미디어 매체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영유아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을 포함한 미디어 매체 노출을 가능한 한 줄이는 방안 및 이러한 노출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서 건전하게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 및 건강하고 건전한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교육 및 국가적 심의 등이 필요하다.

XI

육아정책 관련 인식

- XI-1. 영유아 가구의 육아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 XI-2. 영유아 보육·교육 인프라 관련 인식
- XI-3. 영유아 보육·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 XI-4.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 인식 및 만족도
- XI-5. 육아지원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XI. 육아정책 관련 인식

제11장에서는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영유아 가구의 인식, 보육 교육서비스의 접근성,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의 인지와 이용, 그리고 육아지원에 관한 의견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제1절에서는 먼저 정부가 추진해야 할 육아지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영유아가구의 인식과 공감 여부를 살펴보고, 이어 2절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급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교육 인프라에 관한 의견, 제3절에서는 보육·교육기관의 커리큘럼에 대한 인지, 제4절에서는 보육료·교육비 지원정책 인식 및 만족도, 제5절에서는 육아지원 전반에 관한 의견을 각각 다루었다.

1 영유아 가구의 육아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본 절에서는 영유아 가구 육아지원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과 영유아부모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육료 일부 부담 의향 등 영유아 가구의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2018년 보육실태조사에서는 그간 육아지원정책 분야에서 지향해 온 정책 방향에 대해 정책의 수요자인 영유아 가구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설문문을 추가하여 각 항목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영유아 가구의 공감 정도를 살펴보았다. 필요성 정도의 측정은 ‘보통 수준의 필요성’ ④를 중심으로 ‘매우 낮음’ ①에서 ‘매우 높음’ ⑦ 사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표 XI-1-1〉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가구의 응답자들은 제시된 모든 항목의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평균 6점 이상으로 필요성을 높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평균 6.3점), 이외에도 ‘육아지원 서비스 질 제고’와 ‘남성의 양육참여 지원 확대’가 모두 6.2점, ‘영유아가구 양육비 경감 지원 확대’, ‘보육·교육, 육아지원 서비스 다양화’가 평균 6.1점,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확대’, ‘가정양육지원 확대’ 6.0점 순으로 응답되었다.

즉, 제시된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성은 모두 영유아 부모들이 그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일-가정 양립 지원’의 확대가 가장 필요한 정책방향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다만, 이는 일하는 부모가 안심하고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질적인 대리 돌봄 인프라 구축을 요구하는 것만이 아닌, 일하는 부모도 자녀와의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부모권’을 누릴 수 있는 지원의 확대, 말 그대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외 육아지원 정책에서도 ‘성평등’의 관점 강화를 통해 특히 여성 위주, 어머니 위주의 육아로 치우치지 않도록 남성을 위한 육아 참여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이 깊은 공감을 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요구로 육아지원 ‘서비스의 질 제고’ 필요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었으며, 반면에 육아지원 서비스 인프라의 ‘양적’ 확충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 가구의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반영함과 동시에 향후 영유아 인구 증감의 예측이 긍정적이지 않음을 고려하여, 육아지원 서비스의 인프라는 무조건적 확충 보다는 ‘양질의 서비스’ 기관의 적정 수준 유지에 더 방점을 두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하겠다.

한편, 그간 2012년 이후 무상보육·교육의 실현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²⁶⁾, 2018년 아동수당 도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영유아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이 지속 확대되어 왔으나, 그럼에도 본 조사결과에서 영유아가구의 응답자들은 여전히 양육비 경감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구의 양육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을 고려하여²⁷⁾, 영유아가구의 양육비를 효과적으로

26) 2019년 예정임.

27) 본 보고서의 V~VII장의 ‘비용’관련 내용 참조할 것.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표 XI-1-1 ▣ 영유아 가구 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단위: %(명), 점

구분	필요성							계(수)	평균 (표준편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확대	0.4	0.6	1.5	8.9	16.4	26.3	45.9	100.0(2,533)	6.0(1.1)
영유아가구 양육비 경감 지원확대	0.4	0.9	1.6	7.1	14.9	22.5	52.6	100.0(2,533)	6.1(1.2)
육아지원 서비스 질 제고	0.2	0.4	0.7	6.0	13.9	24.7	54.1	100.0(2,533)	6.2(1.0)
가정 양육 지원 확대	0.5	0.6	1.5	9.1	15.8	27.0	45.4	100.0(2,533)	6.0(1.2)
보육·교육, 육아지원 서비스 다양화	0.2	0.4	1.1	7.4	16.1	25.5	49.4	100.0(2,533)	6.1(1.1)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0.3	0.2	1.3	5.4	11.7	24.2	56.9	100.0(2,533)	6.3(1.0)
남성의 양육참여 지원 확대	0.5	0.4	1.2	6.9	14.5	25.2	51.4	100.0(2,533)	6.2(1.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필요성은 가장 낮은 수준 ①~ 가장 높은 수준 ⑦ 사이에서 필요성 정도를 응답하도록 한 결과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다음으로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을 충분히 보장하고,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일부를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와 보육료를 일부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응답하도록 하였는바, 그 결과는 다음 <표 XI-1-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XI-1-2>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라면 보육료를 일부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 가구의 44.0%에 해당하였고, 이러한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38.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7.7%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육료 일부 자부담 의사는 응답 가구의 거주지역, 모 취업 여부, 가구 소득, 기관 이용 경험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보육료를 자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대도시 거구 가구에서 47.7%로 중소도시 44.6%, 읍·면지역 38.0%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휴직중이거나(53.7%) 또는 취업중인 경우(50.6%) 미취업모 가구(37.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보육료 일부 자부담 의향이 뚜렷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서,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29.5%만이 자부담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가구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62.6%가 자부담 의향을 보였다.

응답가구의 기관 이용 경험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어린이집

과 유치원을 모두 이용해 본 가구에서 보육료 일부 자부담 의향이 45.3%로 가장 높았고, 어린이집만 이용해 본 가구 44.1%, 기관 미이용 가구 41.2%, 유치원만 이용한 가구 40.2% 순으로 '어린이집'의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보육료의 일부 자부담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었보였다. 이는 어린이집을 이용해 본 경우,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한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모두 이용해 본 응답자가 가장 자부담 의향이 높게 나타난 것은 두 기관을 모두 경험함으로써 유치원의 유아학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가 저렴함을 인지하고 있어 일부 자부담에 대해 부담을 적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앞서 제시한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는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해 더욱 민감한 집단이 취업모 가구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미취업모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또 절대적으로 오랜 시간의 어린이집 이용을 필요로 하므로 자녀가 오랜 시간을 보내는 기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비용 부담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구소득에 따른 자부담 의사의 차이에서 나타나 듯,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어머니가 미취업 중인 외벌이 가구에 비해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높아 보육료 일부 부담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도 해석 가능하다.

표 XI-1-2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육료 일부 자부담 의사 및 이유

단위: %(명)

구분	보육료 일부 자부담 의향				보육료 일부 자부담 의향 이유				
	있다	없다	잘 모름	계(수)	더 좋은 서비스 가능	전계층 무상지원 보다 공평	눈치 보지 않고 어린이집 이용 가능	기타	계(수)
전체	44.0	38.3	17.7	100.0(2,533)	81.6	9.5	8.8	-	100.0(1,098)
지역규모									
대도시	47.7	34.8	17.6	100.0(946)	81.4	10.2	8.4	-	100.0(446)
중소도시	44.6	37.1	18.3	100.0(782)	80.0	10.5	9.5	-	100.0(343)
읍면지역	38.0	44.6	17.4	100.0(805)	84.1	7.1	8.8	-	100.0(309)
χ^2 (df)	20.6(4)***				2.9(4)				
모취업 여부									
취업	50.6	34.2	15.2	100.0(1,093)	83.2	7.8	9.0	-	100.0(542)
휴직	53.7	29.8	16.5	100.0(179)	80.8	10.6	8.6	-	100.0(96)
미취업	37.4	43.1	19.6	100.0(1,229)	80.0	11.6	8.5	-	100.0(458)

구분	보육료 일부 자부담 의향				보육료 일부 자부담 의향 이유				
	있다	없다	잘 모름	계(수)	더 좋은 서비스 가능	전계층 무상지원 보다 공평	눈치 보지 않고 어린이집 이용 가능	기타	계(수)
모부채 등	6.6	52.2	41.2	100.0(32)	51.8	-	48.2	-	100.0(2)
χ^2 (df)	74.5(6)***				8.8(6)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29.5	58.2	12.3	100.0(100)	77.3	6.1	16.6	-	100.0(27)
200~249만원	32.7	44.6	22.7	100.0(172)	70.3	16.6	13.1	-	100.0(57)
250~299만원	31.1	38.6	30.3	100.0(197)	84.5	7.2	8.4	-	100.0(57)
300~349만원	38.7	42.6	18.7	100.0(382)	82.3	9.1	8.5	-	100.0(48)
350~399만원	37.1	46.0	16.9	100.0(246)	80.3	15.0	4.7	-	100.0(94)
400~499만원	45.9	37.8	16.3	100.0(482)	81.8	7.5	10.6	-	100.0(218)
500~599만원	45.2	37.8	17.0	100.0(405)	82.9	9.7	7.4	-	100.0(183)
600~699만원	54.1	30.2	15.7	100.0(220)	81.4	8.7	9.8	-	100.0(119)
700만원 이상	62.6	23.8	13.6	100.0(321)	83.5	9.1	7.4	-	100.0(194)
모름/무응답	7.2	85.5	7.2	100.0(8)	100.0	-	-	-	100.0(1)
χ^2 (df)	129.8(18)***				17.1(18)				
기관이용 경험									
어린이집만 이용	44.1	37.4	18.5	100.0(1,037)	83.4	8.0	8.6	-	100.0(451)
유치원만 이용	40.2	39.7	20.0	100.0(75)	81.7	13.8	4.4	-	100.0(29)
둘 다 이용	45.3	40.8	13.8	100.0(1,054)	79.8	10.6	9.6	-	100.0(466)
미이용	41.2	34.6	24.2	100.0(367)	82.0	9.7	8.3	-	100.0(152)
χ^2 (df)	24.9(6)***				3.9(6)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01.

한편, 보육료를 일부 자부담하겠다는 의향이 있는 경우 가장 큰 이유는 ‘일부 보육료를 내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로 81.6%가 이에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이용가구가) 보육료 일부를 내는 것이 전계층 무상 지원 보다 오히려 공평하다’라는 이유는 9.5%, 보육료를 넘으로써 ‘필요한 만큼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8.8%에 해당하였다. 보육료 자부담 의사가 있는 이유에는 가구의 제 특성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보육료를 일부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경우, 보육료를 일부 부담하게 한다면 가장 적절한 기준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제시된 기준 중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보육료를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44.0%), 다음으로 가구소득(35.1%), 취약계층 여부(20.8%) 순으로 응답



되었다.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는 응답가구의 가구소득에 따라 응답에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가구소득에 따라 살펴본 결과, 가구소득이 낮은 응답 집단에서는 보육료 자부담의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즉,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가구소득'을 보육료 자부담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6%에 달하였으나, 가구소득 200~249만원에서는 41.7%, 300~349만원에서는 36.8%, 500~599만원에서는 29.6% 등 대체로 가구소득 증가에 따라 '가구소득'을 자부담 부여 기준으로 한다는 응답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보육료 자부담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은 반대로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높고,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는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응답 경향을 통해 이용시간에 따라 일부 보육료를 자부담하도록 하더라도, 장시간의 이용이 불가피한 저소득 맞벌이 가구, 취약계층 가구 등을 고려한 보완 기준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 받을 수 있다.

표 XI-1-3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보육료 일부 부담의 적절한 기준

단위: %(명)

구분	가구소득	어린이집 이용 시간	취약계층 여부	계(수)	χ^2 (df)
전체	35.1	44.0	20.8	100.0(1,098)	
지역규모					
대도시	32.8	46.2	21.0	100.0(446)	6.7(4)
중소도시	33.6	43.9	22.5	100.0(343)	
읍면지역	41.2	40.2	18.5	100.0(309)	
모취업 여부					
취업	34.8	43.4	21.8	100.0(542)	7.8(6)
휴직	31.5	54.7	13.8	100.0(96)	
미취업	36.3	42.7	21.1	100.0(458)	
모부재 등	51.8	-	48.2	100.0(2)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55.6	20.6	23.7	100.0(27)	30.4(18)**
200~249만원	41.7	27.9	30.5	100.0(57)	
250~299만원	43.4	36.9	19.7	100.0(57)	
300~349만원	36.8	46.4	16.8	100.0(148)	
350~399만원	39.3	42.0	18.7	100.0(94)	
400~499만원	35.6	49.5	14.9	100.0(218)	
500~599만원	29.6	47.5	22.9	100.0(183)	
600~699만원	29.9	46.4	23.7	100.0(119)	

구분	가구소득	어린이집 이용 시간	취약계층 여부	계(수)	χ^2 (df)
700만원 이상	32.2	43.2	24.6	100.0(194)	
모름/무응답	100.0	-	-	100.0(1)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1$.

보육료일부 자부담의 의향이 있으며, 보육료 일부 부담의 기준으로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국가가 모두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상보육시간’은 몇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적절한 무상보육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58.8%로 가장 높았고, 4시간~6시간 사이가 34.1%, 6시간~8시간 미만이 7.1%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3.4시간으로 집계되었다.

▣ 표 XI-1-4 ▣ 적절한 무상보육지원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4시간 미만	4시간~6시간 미만	6시간~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58.8	34.1	7.1	-	100.0 (482)	3.4(1.10)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59.1	34.5	6.3	-	100.0 (320)	3.4(1.10)
유아	58.3	33.5	8.2	-	100.0 (162)	3.5(1.12)
지역규모						
대도시	60.2	34.1	5.7	-	100.0 (204)	3.3(1.05)
중소도시	54.4	34.9	10.7	-	100.0 (152)	3.6(1.18)
읍·면지역	61.6	33.2	5.1	-	100.0 (126)	3.3(1.10)
모취업 여부						
취업	60.3	33.5	6.2	-	100.0 (232)	3.4(1.04)
휴직	63.5	25.6	10.9	-	100.0 (53)	3.4(1.24)
미취업	55.5	37.4	7.2	-	100.0 (197)	3.5(1.1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영유아 보육·교육 인프라 관련 인식

본 절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양적·질적 충분성 인식과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 및 이용 경험, 시간제보육서비스에 대한 인지 및 이용 경험에 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충분성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집 또는 거주지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자녀를 믿고 보낼만한 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는바, 응답 결과는 <표 XI-2-1>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근거리 내에 보낼 기관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어린이집은 45.0%, 유치원은 27.7%로 조사되었고, '불충분하다'는 각각 44.5%와 55.4%였으며 이는 2015년 대비 '충분하다'는 응답이 하락한 결과이다. 또한 믿고 보낼만한 기관에 대해서는 '1~2곳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양 기관 모두에서 가장 높아, 어린이집은 60.2%, 유치원은 54.1%로 2015년 대비 어린이집은 동일하게 응답되었으며 유치원은 1~2곳 있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하였다. '믿고 보낼만한 기관이 없다'는 응답은 어린이집 14.0%, 유치원 16.5%로 어린이집에 비해 유치원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설치의 충분성과 '믿고 보낼만한 곳'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을 때, 지속적인 어린이집·유치원의 확충 기조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구에서 인식하는 접근성 수준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특히 유치원의 공급은 더욱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린이집의 경우도 2015년 대비 설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과 함께 '아이를 믿고 보낼만한 곳'이 많다는 응답은 3.9%p 하락한 반면, '없다'는 응답은 1.9%p 상승하여 응답자가 믿고 이용할만한 기관의 접근성은 더욱 낮게 체감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XI-2-1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일반적 설치와 아이를 보낼만한 곳에 관한 의견

단위: %(명)

구 분	일반적 설치			아이를 보낼만한 곳				계(수)
	불충분	충분	잘 모름	없음	1~2곳 있음	많음	잘 모름	
어린이집	44.5	45.0	10.5	14.0	60.2	9.8	16.1	100.0(2,533)
유치원	55.4	27.7	16.9	16.5	54.1	6.0	23.4	100.0(2,533)

구 분	일반적 설치			아이를 보낼만한 곳				계(수)
	불충분	충분	잘 모름	없음	1~2곳 있음	많음	잘 모름	
2015년 조사								
어린이집	37.3	51.8	10.8	12.1	60.2	13.7	14.0	100.0(2,593)
유치원	46.5	33.7	19.8	13.8	49.9	9.6	26.7	100.0(2,593)
2012년 조사								
어린이집	36.9	57.1	6.0	18.1	62.2	10.3	9.3	100.0(2,528)
유치원	49.4	38.5	12.1	21.0	55.8	6.1	17.1	100.0(2,528)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1) 어린이집 공급수준에 대한 인식

좀 더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공급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을 제 특성별로 살펴보았다. 어린이집의 설치가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45.0%, ‘불충분하다’는 응답은 44.5%로 유사한 응답 비율을 보였고, 믿고 보낼만한 기관은 ‘1~2곳 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60.2%). 제 특성별로는 응답 가구의 최연소 자녀구분, 지역규모, 모취업 여부, 가구소득, 기관이용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최연소 자녀가 유아인 경우(50.8%)가 영아인 경우보다(40.6%), 중소도시지역 거주 가구가(50.5%) 대도시, 읍·면지역 거주 가구에 비해 일반적 설치가 충분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는 0-2세 영아가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며, 지역적으로도 중소도시 외 대도시, 읍·면지역 어린이집의 설치 수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아이를 믿고 보낼만한 어린이집’에 대해 ‘없다’는 응답이 최연소 자녀가 영아인 경우(14.9%)가 유아인 경우(12.7%)에 비해 높고,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 거주시(15.1%)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인 설치가 상당부분 ‘지리적 접근성’, 양적 ‘배치’의 수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곳’에 대한 의견은 ‘서비스 질’에 대한 개별적인 기준에 의한 다분히 주관적인 의견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자녀가 어릴수록, 특히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은 영아를 둔 부모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 질’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한편, 기관 이용 경험에 따른 응답 차이를 살펴보면,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어린이집이 일반적으로도,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도 더 적다고 생각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이용 가구의 자녀가 일반적으로 연령이 낮아 영아 가구의 특성이 반영된 것일 수 있으며, 또한 미이용 가구가 어린이집의 설치와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에 대한 인식이 낮아 이용을 안하고 있는 가구일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진다.

표 XI-2-2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 분	일반적 설치			아이를 믿고 보낼만한 곳				계(수)
	불충분	충분	잘 모름	없음	1~2곳 있음	많음	잘 모름	
전체	44.5	45.0	10.5	14.0	60.2	9.8	16.1	100.0(2,533)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46.9	40.6	12.4	14.9	57.8	8.7	18.5	100.0(1,633)
유아	41.3	50.8	7.9	12.7	63.3	11.2	12.8	100.0(900)
χ^2 (df)	35.5(2)***			22.2(3)***				
지역규모								
대도시	46.2	42.3	11.6	12.9	61.7	6.9	18.6	100.0(946)
중소도시	38.0	50.5	11.5	15.1	57.1	11.1	16.7	100.0(782)
읍면지역	49.0	43.0	8.0	14.4	61.2	12.6	11.8	100.0(805)
χ^2 (df)	25.3(4)***			32.7(6)***				
모취업 여부								
취업	45.9	46.3	7.8	12.8	64.5	10.1	12.7	100.0(1,093)
휴직	52.0	29.4	18.6	12.0	59.6	1.9	26.5	100.0(179)
미취업	42.2	46.2	11.7	15.1	56.5	10.7	17.6	100.0(1,229)
모부재 등	43.1	42.7	14.2	22.7	52.0	9.3	16.1	100.0(32)
χ^2 (df)	36.2(6)***			46.8(9)***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40.6	50.9	8.5	10.3	64.1	8.3	17.3	100.0(100)
200~249만원	43.2	45.3	11.5	17.0	56.4	10.4	16.2	100.0(172)
250~299만원	43.4	42.0	14.6	14.2	10.4	11.1	18.4	100.0(197)
300~349만원	42.1	44.1	13.8	15.9	16.2	15.7	17.5	100.0(382)
350~399만원	41.8	47.1	11.1	13.8	52.8	8.2	17.5	100.0(246)
400~499만원	41.7	47.8	10.5	17.1	12.7	17.4	9.4	100.0(482)
500~599만원	46.9	45.7	7.4	12.3	20.4	9.7	13.0	100.0(405)
600~699만원	44.8	48.2	7.1	12.9	55.2	4.0	17.8	100.0(220)
700만원 이상	52.0	37.5	10.5	9.9	11.9	6.4	18.1	100.0(321)
모름/무응답	85.5	14.5	-	-	17.0	-	-	100.0(8)
χ^2 (df)	32.6(18)**			51.1(27)***				
기관이용 경험								
어린이집만 이용	45.8	48.3	5.9	11.0	67.4	9.8	11.9	100.0(1,037)
유치원만 이용	46.4	39.9	13.8	16.2	54.0	4.1	25.7	100.0(75)
둘 다 이용	42.1	51.1	6.8	12.8	64.4	12.4	10.4	100.0(1,054)

구 분	일반적 설치			아이를 믿고 보낼만한 곳				계(수)
	불충분	충분	잘 모름	없음	1~2곳 있음	많음	잘 모름	
미이용	46.8	25.8	27.4	22.3	37.1	5.3	35.4	100.0(367)
χ^2 (df)	212.4(6)***			247.3(9)***				
2015년 조사	37.3	51.8	10.8	12.1	60.2	13.7	14.0	100.0(2,59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1$, *** $p < .001$.

2) 유치원 공급수준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유치원 공급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을 제 특성별로 살펴보았다. 유치원의 공급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27.7%인 반면 ‘불충분하다’는 55.4%로 조사되었다. ‘믿고 보낼만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1~2곳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4.1%로 가장 높았으나, ‘없다’는 응답도 16.5%로 적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유치원이 충분하다는 인식은 33.7%에서 27.7%로 6%p 감소하였으며,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이 없다는 응답은 13.8%에서 16.5%로 증가해서, 유치원은 2015년 보다 전반적인 설치와 믿을 수 있는 기관 모두 더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유치원의 수가 부족하다는 인식은 대도시지역 거주 가구에서 57.3%로 중소도시 53.9%, 읍·면지역 54.2%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취업모 가구가 58.5%로 미취업모 가구 53.6%에 비해 불충분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한편, 아이를 믿고 보낼만한 유치원이 없다는 응답은 기관 미이용 가구에서 24.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XI-2-3 | 유치원 설치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 분	일반적 설치			아이를 믿고 보낼만한 곳				계(수)
	불충분	충분	잘 모름	없음	1~2곳 있음	많음	잘 모름	
전체	55.4	27.7	16.9	16.5	54.1	6.0	23.4	100.0(2,533)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52.6	24.3	23.1	18.6	46.4	5.6	29.4	100.0(1,633)
유아	59.1	32.3	8.6	13.8	64.3	6.6	15.3	100.0(900)
χ^2 (df)	97.0(2)***			98.8(3)***				
지역규모								
대도시	57.3	25.3	17.4	16.5	53.4	4.5	25.6	100.0(946)

구 분	일반적 설치			아이를 믿고 보낼만한 곳				계(수)
	불충분	충분	잘 모름	없음	1~2곳 있음	많음	잘 모름	
중소도시	53.9	25.5	20.6	16.6	49.7	6.1	27.7	100.0(782)
읍면지역	54.2	33.5	12.3	16.6	59.6	8.1	15.7	100.0(805)
χ^2 (df)	28.8(4)***			42.5(6)***				
모취업 여부								
취업	58.5	26.7	14.8	15.1	56.5	6.4	22.0	100.0(1,093)
휴직	48.4	20.7	30.9	13.8	40.9	2.9	42.4	100.0(179)
미취업	53.6	29.4	16.9	18.2	53.7	6.1	22.0	100.0(1,229)
모부재 등	52.0	37.5	10.5	18.8	57.1	8.0	16.1	100.0(32)
χ^2 (df)	35.9(6)***			44.9(9)***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58.7	26.2	15.1	17.5	54.6	5.3	22.5	100.0(100)
200~249만원	61.8	23.5	14.7	22.8	54.3	2.2	20.7	100.0(172)
250~299만원	52.7	26.1	21.2	14.1	52.5	6.6	26.8	100.0(197)
300~349만원	48.7	30.4	20.9	18.5	47.0	8.4	26.1	100.0(382)
350~399만원	52.6	30.2	17.2	17.7	54.8	5.3	22.2	100.0(246)
400~499만원	55.1	27.7	17.1	18.0	53.5	7.4	21.2	100.0(482)
500~599만원	56.2	30.3	13.5	14.1	57.3	7.7	21.0	100.0(405)
600~699만원	55.8	30.2	14.0	18.4	54.4	3.8	23.4	100.0(220)
700만원 이상	61.0	21.6	17.4	11.2	58.0	3.3	27.5	100.0(321)
모름/무응답	47.4	52.6	-	10.3	89.7	-	-	100.0(8)
χ^2 (df)	28.3(18)*			47.1(27)***				
기관이용 경험								
어린이집만 이용	54.8	24.4	20.8	17.2	47.5	6.0	29.3	100.0(1,037)
유치원만 이용	59.0	35.6	5.4	7.8	78.9	4.6	8.7	100.0(75)
둘 다 이용	60.2	35.1	4.7	13.1	69.7	7.5	9.7	100.0(1,054)
미이용	45.5	17.5	37.0	24.0	29.9	3.0	43.1	100.0(367)
χ^2 (df)	271.8(6)***			331.1(9)***				
2015년 조사	46.5	33.7	19.8	13.8	49.9	9.6	26.7	100.0(2,59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5$, *** $p < .001$.

나. 아이돌봄서비스 인지 및 이용 경험

여성가족부의 주관 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제공·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고, 이용해 본적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인지 및 이용 경험은 전반적으로 ‘알지만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서, 시간제 돌봄이 59.9%, 종일제 돌봄

58.2%이나,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서비스는 ‘잘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57.8%로 인지율 자체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현재 또는 과거에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시간제 돌봄이 7.1%로 이용 경험이 가장 높은 유형이었고, 영아종일제 돌봄은 6.0%,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서비스는 1.4%로 가장 낮았으나, 2015년에 대비 각 유형별 서비스 이용률은 다소 증가하였다.

■ 표 XI-2-4 ■ 아이돌봄 서비스 인지 및 이용경험

단위: %(명)

구 분	이용 경험				계(수)
	현재 이용	과거 이용	알지만 이용 경험 없음	잘 모름	
2018년 조사					
시간제 돌봄	2.0	5.1	59.9	33.0	100.0(2,533)
영아종일제 돌봄	3.6	2.4	58.2	35.7	100.0(2,533)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0.3	1.1	40.8	57.8	100.0(2,533)
2015년 조사					
시간제 돌봄	1.7	4.6	52.3	41.4	100.0(2,593)
영아종일제 돌봄	2.5	1.9	53.7	41.9	100.0(2,593)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	0.7	40.6	58.7	100.0(2,593)
2012년 조사					
시간제 돌봄	1.1	3.5	95.4	-	100.0(1,468)
영아종일제 돌봄	0.2	1.9	97.9	-	100.0(1,468)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인지 및 이용 경험

1) 시간제보육 인지 및 이용 경험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운영 중인 ‘시간제보육반’, 즉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36개월 미만)가 지정된 기관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보육료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알고 이용해본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이러한 시간제보육서비스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 비율은 35.9%여서 응답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알고 있으나 이용 경험이 없음’ 35.4%, ‘들어본 적 있으나 이용 경험은 없음’ 21.5%, ‘이용 경험 있음’ 7.1%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2015년 조사결과 40.0%에서 2018년 35.9%로 4.1%p 감소하여 인지도가 상승하였고, 이용 경험은 3.3%에서 7.1%로 두 배 이상 상승하였다.

가구의 시간제보육반 인지 및 이용률은 최연소 자녀가 유아인 경우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영아가구 보다 적어, 인지도는 유아가가구 영아가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지역의 이용 경험과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읍면지역 거주 가구의 시간제보육 이용 경험은 6.0%로 대도시(7.9%), 중소도시(7.1%)에 비해 낮았으며,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 가구의 시간제보육 경험률이 휴직중이거나 미취업 상태인 경우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양육수당 지원 여부에 따라 인지도와 이용 경험을 살펴 본 결과, 가정양육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집단에서 서비스 인지도와 이용 경험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보육서비스는 주로 기관을 종일제로 이용하지 않는 영아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고, 기관을 정기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돌봄 수요에 대응한다는 목적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아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양육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서 시간제보육에 대한 인지도와 경험률이 낮다는 점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것이다.

표 XI-2-5 영아 대상 시간제보육반 인지 및 이용 경험

단위: %(명)

구분	전혀모름	알고 있으나 이용 경험 없음	들어 본 적 있으나 이용 경험 없음	이용 경험 있음	계(수)
전체	35.9	35.4	21.5	7.1	100.0(2,533)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39.8	32.6	20.6	7.0	100.0(1,372)
유아	32.4	38.0	22.4	7.2	100.0(1,161)
χ^2 (df)		16.0(3)***			
지역규모					
대도시	31.7	35.9	24.5	7.9	100.0(946)
중소도시	39.5	28.5	24.9	7.1	100.0(782)
읍면지역	38.1	42.0	13.9	6.0	100.0(805)
χ^2 (df)		59.0(6)***			
모취업 여부					
취업	33.8	35.0	23.8	7.4	100.0(1,093)
휴직중	33.2	34.4	25.6	6.8	100.0(179)
미취업	37.7	36.3	19.2	6.8	100.0(1,229)
모부재 등	57.1	25.9	9.2	7.8	100.0(32)
χ^2 (df)		19.5(9)**			
가정양육수당 지원 여부					
현재 받음	46.7	31.0	18.0	4.3	100.0(931)

구분	전혀모름	알고 있으나 들어 본 적 있으나		이용 경험 있음	계(수)
		이용 경험 없음	이용 경험 없음		
현재 받지 않음	30.2	37.8	23.4	8.6	100.0(1,602)
χ^2 (df)		72.8(3)***			
2015년 조사	40.0	31.3	25.4	3.3	100.0(2,59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시간제보육을 알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거주지역(시·군·구)내에서 이용 가능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제공기관을 인지하게 된 경로를 질문하였다.

▣ 표 XI-2-6 ▣ 거주지역 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인지 및 인지 경로

단위: %(명)

구분	거주지역 내 시간제보육기관 인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인지 경로							
	인지율	(수)	아이사랑 홈페이지	보건 복지부, 지자체 홍보물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홍보물	인터넷·모바일 매체	지인 소개	이용 보육 기관	기타	계(수)
전체	25.9()	(1,656)	31.6	8.5	19.0	14.8	21.4	2.5	2.2	100.0(424)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27.4()	(864)	37.3	8.5	16.5	16.1	17.0	2.2	2.4	100.0(236)
유아	24.6()	(792)	26.5	8.6	21.2	13.6	25.3	2.8	2.0	100.0(188)
χ^2 (df)	1.8(1)				8.9(6)					
지역규모										
대도시	27.7()	(665)	33.8	6.6	21.0	15.1	19.2	3.6	0.7	100.0(180)
중소도시	27.2()	(479)	35.9	8.8	19.2	16.2	13.5	1.1	5.3	100.0(128)
읍면지역	21.6()	(512)	21.6	12.2	14.6	12.3	35.8	2.1	1.4	100.0(116)
χ^2 (df)	5.9(2)*				34.6(12)***					
모취업 여부										
취업	26.0()	(738)	29.7	7.7	21.7	14.3	19.4	4.3	2.7	100.0(185)
휴직중	37.8()	(124)	37.0	15.5	6.0	22.8	17.0	1.7	0.0	100.0(44)
미취업	24.1()	(781)	32.4	7.7	19.5	13.4	24.8	0.7	1.5	100.0(194)
모부재 등	8.7()	(13)	-	-	-	-	-	-	100.0	100.0(1)
χ^2 (df)	13.4(3)***				63.5(1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시간제보육을 '전혀 모른다'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3)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5$, *** $p < .001$

〈표 XI-2-6〉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거주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시간제보육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 중 25.9%에 해당하였다. 제공기관 인지 경로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통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31.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인의 소개’(21.4%),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홍보물’(19.0%), ‘맘카페, 밴드 등 인터넷, 모바일 매체’(14.8%), ‘보건복지부, 지자체의 홍보물’(8.5%)이며, 이용하고 있는 기관에서 소개하였다는 응답이 2.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낀 영유아 가구에서 적극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는 경우는 아이사랑홈페이지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각종 ‘홍보물’의 효과도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영유아부모에게는 인터넷, 모바일 매체의 접근성이 높다는 점도 시사받을 수 있다. 시간제보육의 이용률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육아 관련 종합 정보 제공 사이트의 이용편의성 제고와 함께 홍보물의 제작, 배포에 대한 예산 투입과 적극적 노력도 요구된다고 보인다.

제 특성별로는 읍·면지역 거주자, 미취업모 가구, 모 부재 가구의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발견되는 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층 외에 정보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집단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시간제보육 이용/미이용 이유

다음으로 시간제보육 이용 경험 가구를 대상으로 시간제보육 이용 이유를 살펴보았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한 가장 주요한 이유는 ‘긴급 상황 발생 시 필요해서’로 40.7%가 이에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아이가 어려 종일 기관 이용이 부담되어서’ 27.9%, ‘자녀 양육 이외의 개인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어서’가 24.4%, ‘현재 종일제 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서’ 4.5% 순으로 응답되었다. 이러한 응답을 제 특성별로 살펴 본 결과, 최연소 자녀구분,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고, 지역규모별로 응답 경향의 차이를 보였다. ‘긴급상황 발생 시 필요해서’라는 응답은 특히 중소도시 거주 가구에서 높게 응답되었고(54.4%), 읍·면지역 거주 가구의 경우 ‘자녀 양육 외 개인시간이 필요해서’ 시간제보육을 이용했다는 응답이 35.4%

로 대도시(24.9%), 중소도시(14.6%)에 비해 특히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시간제보육 이용 이유를 살펴 본 결과, '시간제'의 돌봄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인해 이용한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나, 이외에도 상당수의 가정에서 '종일보육'의 대체재로서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도 발견되었다. 즉, 특별히 '시간제'로 아이를 맡길 필요성이 발생해서가 아닌 자녀의 기관 선택의 측면에서 '아직은 종일제로 보내기가 부담되어' 우선 시간제로 부담 없이 이용한다거나, 종일제 기관을 이용하기 원하나 현재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대체재로 이용하는 중이라는 응답도 적지 않아, 현재 시간제보육은 영유아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기 전에 적응 차원에서 부담 없이 기관 돌봄을 경험해 보는 수준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XI-2-7 시간제보육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아이가 어려서 종일 기관 이용 부담	자녀 양육 이외에 개인시간 필요	긴급상황 발생 시 필요해서	현재 종일제 기관 사용 할 수 없어서	기타	계(수)
전체	27.9	24.4	40.7	4.5	2.7	100.0(185)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27.8	25.0	38.2	6.3	2.7	100.0(103)
유아	27.9	23.8	42.8	2.8	2.7	100.0(82)
χ^2 (df)			1.1(4)			
지역규모						
대도시	30.4	24.9	40.4	-	4.3	100.0(80)
중소도시	19.0	14.6	54.4	12.0	-	100.0(58)
읍면지역	34.0	35.4	24.2	3.4	2.9	100.0(47)
χ^2 (df)			26.3(8)***			
모취업 여부						
취업	32.5	21.8	37.6	5.6	2.4	100.0(85)
휴직중	31.6	27.5	23.4	5.1	12.4	100.0(13)
미취업	23.5	25.5	46.1	3.3	1.5	100.0(85)
모부재 등	-	52.2	47.8	-	-	100.0(2)
χ^2 (df)			13.7(1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01$.

다음으로 시간제보육 미경험자를 대상으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하였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시간제보육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로 71.0%가 응답하였다. 이는 즉, 영유아가 종일 보육 기관에 다니고 있거나 가정에서 돌볼 사람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응답된 이유는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없어서'(8.4%)였으며, 유사한 비율로 '아이가 낯설어함'(8.3%)이 응답되었다. 그 외 '집에서 멀어서'(3.8%), '신청절차가 어려워서'(3.3%), '제도를 몰라서'(2.6%), '비용 부담(1.5%) 순으로 응답되었다. 즉, 시간제보육은 현재 이용 필요성이 원천적으로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하는 시간에 즉각 이용할 수 없거나 신청절차의 어려움 등 제도 자체의 편의성 부족이 이용의 주된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지리적 접근성, 정보 접근성의 부족, 단시간의 1회성 서비스로서 가지는 한계 등이 주된 미이용의 이유임을 파악할 수 있다.

제 특성별로는 읍·면지역에서 '집에서 멀어서'(4.7%)와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없음'(10.9%)이 여타 지역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간제보육의 수요 대비 읍·면지역의 인프라가 충분치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취업여부별로는 취업모가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없음'에 10.6%로 응답해 실질적으로 취업모가 이용하기 어려운 특성을 보여주었다.

▣ 표 XI-2-8 ▣ 시간제보육 이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이용할 필요가 없음	아이가 낯설어함	집에서 멀어서	제도를 몰라서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없음	신청절차 어려움	비용 부담	기타	계(수)
전체	71.0	8.3	3.8	2.6	8.4	3.3	1.5	1.0	100.0(1,471)
최연소 자녀 구분									
영아	69.9	8.9	3.8	2.7	7.7	3.7	1.3	2.0	100.0(761)
유아	71.9	7.7	3.8	2.6	9.0	3.0	1.7	0.3	100.0(710)
χ^2 (df)					10.5(7)				
지역규모									
대도시	71.1	10.3	3.6	2.3	7.5	3.2	1.5	0.4	100.0(585)
중소도시	69.0	8.0	3.3	3.6	7.3	4.6	2.0	2.2	100.0(421)
읍면지역	72.8	5.4	4.7	2.1	10.9	2.1	1.2	0.8	100.0(465)
χ^2 (df)					28.4(14)**				
모취업 여부									
취업	68.2	9.0	3.3	3.2	10.6	3.0	1.3	1.3	100.0(653)

구분	이용할 필요가 없음	아이가 낯설어함	집에서 멀어서	제도를 몰라서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없음	신청절차 어려움	비용 부담	기타	계(수)
휴직중	76.1	5.9	5.4	7.2	1.4	2.7	1.2	-	100.0(111)
미취업	72.7	7.8	4.2	1.3	7.6	3.8	1.7	0.9	100.0(696)
모부재 등	81.6	9.3	-	-	-	-	9.1	-	100.0(11)
χ^2 (df)					38.1(2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1$.

한편, 시간제보육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종일제 기관 이용, 집에서 종일 돌봄 사람 있음 등)를 제외하고 그 외의 미이용 이유만을 산출한 결과는 <표 XI-2-9>에 제시된 바와 같다. 즉, 시간제보육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중 가장 주된 이유는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없어서’(29.1%), ‘아이가 낯설어 함’(28.5%), ‘집에서 멀어서’(13.2%), ‘신청절차가 어려움’(11.3%), ‘제도를 몰라서’(9.0%), ‘비용 부담’(5.3%) 순으로 응답되어, 시간제보육이 취지와는 달리 실제 잠깐의 돌봄이 필요한 때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인프라의 부족과 단시간의 비정기적 서비스가 가지는 한계가 발견되고 있었다.

■ 표 XI-2-9 ■ 시간제보육 이용하지 않은 이유(‘이용할 필요가 없어서’ 제외)

단위: %(명)

구분	아이가 낯설어함	집에서 멀어서	제도를 몰라서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없음	신청절차 어려움	비용 부담	기타	계(수)
전체	28.5	13.2	9.0	29.1	11.3	5.3	3.6	100.0(441)
최연소 자녀 구분								
영아	29.6	12.8	8.9	25.7	12.2	4.3	6.5	100.0(237)
유아	27.5	13.6	9.1	31.9	10.6	6.2	1.1	100.0(204)
χ^2 (df)					9.8(6)			
생활연령								
0세	34.6	13.1	13.1	19.5	8.7	5.8	5.2	100.0(71)
1세	30.4	11.8	7.9	28.5	9.4	6.7	5.3	100.0(84)
2세	25.1	13.5	6.4	27.8	17.8	0.7	8.7	100.0(82)
3세	28.7	10.9	6.4	35.5	7.7	8.0	2.7	100.0(74)
4세	34.4	10.9	12.0	27.1	10.4	4.2	1.0	100.0(58)
5세 이상	21.5	17.6	9.1	32.7	13.0	6.2	-	100.0(72)
χ^2 (df)					30.8(30)			

구분	아이가 낯설어함	집에서 멀어서	제도를 몰라서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없음	신정절차 어려움	비용 부담	기타	계(수)
지역규모								
대도시	35.7	12.6	8.0	26.0	11.1	5.1	1.5	100.0(184)
중소도시	25.7	10.6	11.6	23.6	14.9	6.4	7.1	100.0(121)
읍면지역	19.8	17.2	7.6	40.2	7.7	4.5	3.0	100.0(136)
χ^2 (df)	27.0(12)***							
모취업 여부								
취업	28.5	10.5	10.0	33.4	9.3	4.1	4.2	100.0(216)
휴직중	24.9	22.5	30.4	5.9	11.2	5.1	-	100.0(29)
미취업	28.7	15.2	4.8	27.8	13.9	6.2	3.4	100.0(194)
모부재 등	50.6	-	-	-	-	49.4	-	100.0(2)
χ^2 (df)	39.8(1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 응답을 제외한 분석 결과임.

3)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01$.

3) 시간제보육 이용 계획

한편, 본 조사의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시간제보육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6.4%로 가장 높았으나, 이용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주 이용 + 가끔 이용)도 19.8%로 나타났다. 제 특성별로는 최연소 자녀가 영아인 경우 향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26.1%) 유아 가구에 비해(14.1%) 높고,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 거주자의 향후 이용의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22.0%). 어머니의 취업여부별로는 어머니가 휴직중인 경우 34.3%가 향후 이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해서 어머니가 취업중인 가구(16.7%), 미취업중인 가구(20.5%)에 비해 현저히 높은 의사를 보였다. 한편 지금까지의 시간제보육 이용 경험에 따라 살펴본 결과, 시간제보육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의 이용 의사가(46.6%) 이용 경험이 없는 가구에(17.8%) 비해 현저히 높았다. 향후 이용 의사는 2015년 25.7%에서 2018년 19.8%로 하락하였고, '잘모르겠다' 응답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XI-2-10 | 시간제보육 이용 계획

단위: %(명)

구분	자주 이용할 계획	가끔 이용할 계획	이용 계획 없음	잘 모르겠음	계(수)	χ^2 (df)
전체	3.8	16.0	56.4	23.8	100.0(2,533)	
최연소 자녀 구분						
영아	5.4	20.7	46.4	27.4	100.0(1,372)	100.1(3)***
유아	2.4	11.7	65.4	20.5	100.0(1,161)	
지역규모						
대도시	3.9	13.5	60.4	22.2	100.0(946)	25.9(6)***
중소도시	4.2	17.8	49.7	28.3	100.0(782)	
읍면지역	3.3	17.5	57.8	21.3	100.0(805)	
모취업 여부						
취업	2.9	13.8	59.9	23.5	100.0(1,093)	51.7(9)***
휴직중	9.3	25.0	37.9	27.8	100.0(179)	
미취업	3.7	16.8	56.2	23.3	100.0(1,229)	
모부재 등	10.1	13.4	47.2	29.3	100.0(32)	
시간제보육 이용 경험 유무						
있음	20.4	26.2	35.4	18.1	100.0(185)	170.6(3)***
없음	2.6	15.2	58.0	24.2	100.0(2,348)	
2015년 조사	1.2	24.5	74.3	-	100.0(66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15년도 조사는 시간제보육 미경험자만을 대상으로 향후 계획을 분석한 결과임.
 3)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01$

향후에 시간제보육 이용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하여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향후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 계획이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로 74.5%가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아이가 낯설어서’ 10.6%, ‘특별한 이유 없음’ 4.5%,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없음’ 3.3%, ‘집에서 멀어서’ 2.2%, ‘신청절차가 어려워져서’ 1.3%, ‘비용이 부담되어서’ 1.2%의 순서로 응답되었다.

향후 시간제보육 서비스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 경험자의 응답에서 나타난 이용의 장애 요인인 긴급한 돌봄 욕구예외의 대응 부족, 미흡한 보육 환경, 비용 부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XI-2-11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1순위)

단위: %(명)

구분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	아이가 낯설어함	집에서 멀어서	보육 환경 마음에 들지 않음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없음	신청 절차 어려움	비용 부담	특별한 이유 없음	기타	계(수)
전체	74.5	10.6	2.2	1.7	3.3	1.3	1.2	4.5	0.7	100.0(1,426)
최연소 자녀 구분										
영아	75.3	11.2	2.5	2.3	3.1	0.8	0.8	2.9	1.0	100.0(665)
유아	74.0	10.1	1.9	1.3	3.5	1.7	1.4	5.5	0.5	100.0(761)
χ^2 (df)	12.5(8)									
지역규모										
대도시	70.3	13.2	2.8	2.2	3.1	1.8	1.5	4.3	0.7	100.0(571)
중소도시	74.7	09.3	1.9	1.4	4.9	0.8	0.4	5.4	1.2	100.0(398)
읍면지역	80.5	07.8	1.5	1.2	2.4	1.1	1.4	3.9	0.1	100.0(457)
χ^2 (df)	27.7(16)**									
모취업 여부										
취업	73.5	11.2	2.1	1.3	4.0	2.1	1.6	3.9	0.3	100.0(657)
휴직중	67.8	12.5	6.7	6.7	3.8	0.6	-	1.8	-	100.0(74)
미취업	76.2	10.0	1.6	1.7	2.7	0.7	1.0	5.0	1.1	100.0(679)
모부재 등	75.5	-	7.3	-	-	-	-	17.2	-	100.0(16)
χ^2 (df)	50.6(24)***									
시간제보육 경험 유무										
있음	58.7	14.1	1.7	4.7	7.8	2.4	3.2	7.4	-	100.0(63)
없음	75.2	10.4	2.2	1.6	3.1	1.3	1.1	4.4	0.7	100.0(1,363)
χ^2 (df)	16.2(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1$, *** $p < .00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향후 이용 계획이 없는 응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 1,2순위의 응답을 합산한 결과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80.9%), 이외 ‘아이가 낯설어함’ 32.3%,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없음’ 23.0%, ‘비용이 부담되어서’ 15.3%, ‘신청절차가 어려움’ 15.1%, ‘보육환경이 맘에 들지 않아서’ 13.2%, ‘집에서 멀어서’ 8.7% 순으로 응답되었다.

표 XI-2-12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1순위+2순위)

단위: %(명)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	아이가 낯설어함	집에서 멀어서	보육환경 마음에 들지 않음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없음	신청절차 어려움	비용 부담	특별한 이유없음	기타	(수)
80.9	32.3	8.7	13.2	23.0	15.1	15.3	4.5	2.5	(1,426)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4) 시간제보육 지원 적절성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모든 응답자에게 2018년 현재 시간제보육 이용에 대해 지원하는 비용과 지원시간에 대해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2018년 현재 양육수당을 받는 가정에게는 시간당 4,000원 중 정부가 3,000원을 월 80시간까지 지원하고, 80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4,000원 전액을 부모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질문하였다.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 받는 아동의 경우도 정부 지원 없이 시간당 4,000원 전액을 가정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도 제시하여 시간제보육에 대한 지원 내용을 정확히 알고 적절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먼저, 지원 비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적절+매우 적절)가 84.0%에 달하였다. 2015년의 경우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지원 비용의 수준이 달라 시간당 3,000원이 지원되는 취업모의 경우 81.1%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시간당 2,000원이 지원되는 미취업모의 경우는 지원 비용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다소 낮게 응답된 바 있다(74.8%).

2018년에는 취업 여부에 따른 차등 없이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받는 영아 가구에는 동일하게 시간당 3,000원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는 인식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8년 보육실태조사에서 ‘지원 시간에 대한 적절성’도 추가로 질문하였는바, 80시간이라는 지원 시간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은 83.3%로 비용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XI-2-13 시간제보육 지원액 및 지원시간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비용의 적절성					시간의 적절성					계(수)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평균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평균	
전체	1.8	14.2	74.2	9.8	2.9	2.3	14.3	74.9	8.4	2.9	100.0(2,533)
최연소 자녀 구분											
영아	1.9	13.5	75.7	8.9	2.9	2.5	13.4	76.5	7.7	2.9	100.0(1,372)
유아	1.8	14.8	72.9	10.5	2.9	2.1	15.2	73.6	9.1	2.9	100.0(1,161)
지역규모											
대도시	1.5	12.4	75.0	11.2	3.0	2.3	13.6	73.3	10.7	2.9	100.0(946)
중소도시	1.8	13.4	75.7	9.0	2.9	2.4	13.5	76.9	7.2	2.9	100.0(782)
읍면지역	2.4	17.5	71.6	8.6	2.9	2.1	16.1	75.3	6.5	2.9	100.0(805)
모취업 여부											
취업	2.2	14.2	73.3	10.3	2.9	2.7	14.8	73.8	8.6	2.9	100.0(1,093)
휴직중	-	11.3	76.3	12.4	3.0	1.1	12.1	75.1	11.8	3.0	100.0(179)
미취업	1.6	14.2	75.1	9.1	2.9	2.1	13.8	76.1	8.0	2.9	100.0(1,229)
모부재 등	6.5	28.3	63.8	1.4	2.6	3.3	25.1	70.2	1.4	2.7	100.0(32)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8.4	12.7	68.7	10.2	2.8	9.9	12.0	71.3	6.8	2.8	100.0(100)
200~249만원	2.2	24.2	64.2	9.4	2.8	2.2	23.8	67.1	6.8	2.8	100.0(172)
250~299만원	2.6	15.1	72.3	10.0	2.9	4.3	13.7	74.4	7.6	2.9	100.0(197)
300~349만원	1.4	11.2	77.5	10.0	3.0	1.6	12.0	78.5	7.9	2.9	100.0(382)
350~399만원	1.2	14.0	74.7	10.1	2.9	1.6	16.3	73.5	8.6	2.9	100.0(246)
400~499만원	1.1	15.1	72.9	10.9	2.9	1.8	13.3	74.9	9.9	2.9	100.0(482)
500~599만원	1.2	13.9	76.0	8.9	2.9	1.5	14.2	75.2	9.1	2.9	100.0(405)
600~699만원	1.9	9.6	80.3	8.2	2.9	2.2	11.7	78.5	7.6	2.9	100.0(220)
700만원이상	2.0	14.3	74.2	9.5	2.9	1.8	14.9	75.1	8.2	2.9	100.0(321)
모름/무응답	-	-	81.0	19.0	3.2	-	-	81.0	19.0	3.2	100.0(8)
시간제보육 경험유무											
있음	2.5	16.2	69.1	12.1	2.9	2.8	17.2	68.5	11.4	2.9	100.0(185)
없음	1.8	14.0	74.6	9.6	2.9	2.3	14.1	75.4	8.2	2.9	100.0(2,348)
2015년 조사 ³⁾ (취업모)	1.7	17.2	78.5	2.6	2.82	-	-	-	-	-	100.0(669)
2015년 조사 ³⁾ (미취업모)	3.4	21.8	72.0	2.8	2.74	-	-	-	-	-	100.0(669)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적절성 평균은 '매우 적절' 1점 ~ '매우 부적절' 4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매우 부적절' 1점 ~ '매우 적절' 4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한 결과임. 점수가 높을수록 적절하다는 의견임.
 3) 2015년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36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를 응답 대상으로 한 결과임.
 2018년은 영유아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임.
 4)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3 영유아 보육·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본 절에서는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0-2세 표준보육과정,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대상 공통과정인 3-5세 누리과정을 운영토록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표준보육과정 25.9%, 누리과정 31.8%였고, ‘모른다’는 응답은 표준보육과정 28.6%, 3-5세 누리과정 23.8%로 응답되어 영유아가 있는 가구에 표준보육과정보다 3-5세 누리과정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 모두 최연소자녀가 유아인 경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최연소 자녀가 영아인 경우보다 높았다.

최연소 자녀의 연령 뿐 아니라, 모취업 여부, 가구소득, 기관이용 경험에 따라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 등 영유아 보육·교육과정에 대한 인지도도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모가 표준보육과정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28.5%, 3-5세 누리과정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34.2%로 해당 응답에 대한 미취업모의 응답 비율 24.2%, 31.3% 보다 높았다. 또한 기관 이용 경험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였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 양 기관을 모두 이용해 본 가구의 응답자가 표준보육과정(33.2%), 누리과정(44.8%)을 잘 안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해 본 경우, 유치원만 이용한 경우, 기관 미이용의 순으로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5년에 비해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모두 감소하였으나, 이는 2015년 조사는 어린이집 이용 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반면, 2018년 조사에서는 미이용 가구를 포함한 전체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8년 조사결과 중 어린이집만 이용하였다는 응답자가 표준보육과정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28.5%, 누리과정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31.3%로 2015년 어린이집 이용자의 응답과 비교시 어린이집 이용자의 인지도 자체도 다소 하락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XI-3-1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관련 인식

단위: %(명)

구 분	표준보육과정				3-5세 누리과정			
	잘 압	대략 압	모름	계(수)	잘 압	대략 압	모름	계(수)
전체	25.9	45.6	28.6	100.0(2,533)	31.8	44.4	23.8	100.0(2,533)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22.7	44.4	32.9	100.0(1,633)	24.2	42.8	33.1	100.0(1,633)
유아	30.1	47.1	22.7	100.0(900)	42.1	46.5	11.5	100.0(900)
χ^2 (df)	37.1(2)***				186.2(2)***			
모취업 여부								
취업	28.5	47.4	24.1	100.0(1,093)	34.2	47.2	18.6	100.0(1,093)
휴직	23.1	35.0	41.9	100.0(179)	23.3	38.9	37.8	100.0(179)
미취업	24.2	45.4	30.4	100.0(1,229)	31.3	42.5	26.2	100.0(1,229)
모부재 등	13.7	47.4	38.9	100.0(32)	17.5	44.7	37.9	100.0(32)
χ^2 (df)	33.7(6)***				46.9(6)***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9.9	37.3	42.8	100.0(100)	32.3	32.0	35.7	100.0(100)
200~249만원	24.1	36.3	39.5	100.0(172)	30.1	35.4	34.5	100.0(172)
250~299만원	23.9	43.2	33.0	100.0(197)	27.7	44.8	27.5	100.0(197)
300~349만원	25.4	47.7	26.9	100.0(382)	33.6	44.2	22.3	100.0(382)
350~399만원	24.0	46.5	29.5	100.0(246)	32.9	41.3	25.8	100.0(246)
400~499만원	27.8	47.6	24.6	100.0(482)	33.5	45.7	20.7	100.0(482)
500~599만원	25.3	43.7	31.0	100.0(405)	30.0	45.3	24.8	100.0(405)
600~699만원	30.3	47.3	22.5	100.0(220)	33.3	48.3	18.5	100.0(220)
700만원 이상	26.8	49.5	23.6	100.0(321)	31.4	49.1	19.5	100.0(321)
모름/무응답	19.0	66.5	14.5	100.0(8)	19.0	73.7	7.2	100.0(8)
χ^2 (df)	39.2(18)***				40.5(18)***			
기관이용 경험								
어린이집만 이용	28.5	48.3	23.2	100.0(1,037)	31.3	47.9	20.9	100.0(1,037)
유치원만 이용	10.4	43.4	46.2	100.0(75)	24.1	56.3	19.6	100.0(75)
둘 다 이용	33.2	47.6	19.2	100.0(1,054)	44.8	45.0	10.2	100.0(1,054)
미이용	7.0	35.9	57.1	100.0(367)	6.1	33.8	60.1	100.0(367)
χ^2 (df)	290.9(6)***				511.0(6)***			
2015년 조사	29.9	47.0	23.1	100.0(1,480)	33.5	48.6	17.8	100.0(1,480)
2012년 조사	21.6	39.2	39.2	100.0(1,297)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3) 2012, 2015년은 어린이집 이용 가구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01$.

4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 인식 및 만족도

본 절에서는 영유아 대상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정책의 수혜 경험 및 만족도에 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비용 지원 정책 인지도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행 영유아 대상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러한 정부의 보육·교육비 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미취학 영유아에 대해 보편적으로 지원 되는 ‘가정양육수당’이 가장 높아서 68.9%가 ‘잘 안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반적인 인지율(잘 앎+ 대략 앎)도 95.5%에 달하였다. 이외 ‘0-2세 종일반 보육료 지원’ (62.6%),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교육비 지원’ (55.7%)은 응답 대상 가구의 50% 이상이 ‘잘 안다’고 응답한 비용 지원 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용 지원 정책 인지율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해당 연령대 아동에 대해 보편적으로 지원 되는 정책에 대해 인지율이 높음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러한 보편적인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잘 안다’는 응답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2016년 7월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라 보육료 지원도 종일반과 맞춤형에 달리 지원되고, 맞춤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보육바우처’도 지원되게 되었으나 맞춤형 보육 도입에 따른 차등화된 보육료 지원과 긴급보육바우처에 대한 인지는 일반적인 종일반 기준 보육료 지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장애아 보육료 지원처럼 대상이 일부에 한정되거나, 시간제보육료, 시간연장형 보육료, 유치원방과후과정비 지원 등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에 대한 인지율이 대체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XI-4-1 정부의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인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잘 앎	대략 앎	모름	계(수)	잘 앎 + 대략 앎	
					2018	2015
0-2세 종일반 보육료 지원	62.6	32.3	5.1	100.0(2,533)	94.9	98.0
0-2세반 맞춤형 보육료 지원	45.8	34.7	19.5	100.0(2,533)	80.5	-
맞춤반 이용아동 긴급보육바우처 지원	29.1	30.9	40.0	100.0(2,533)	60.0	-

구분	잘 알	대략 알	모름	계(수)	잘 알 + 대략 알	
					2018	2015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교육비 지원	55.7	30.4	13.9	100.0(2,533)	86.1	96.0
0-5세 가정양육수당 지원	68.9	26.6	4.6	100.0(2,533)	95.5	97.5
장애아 보육료 지원	10.1	18.9	70.9	100.0(2,533)	29.0	-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17.6	31.5	51.0	100.0(2,533)	49.1	59.8
시간제보육료 지원	14.7	29.0	56.2	100.0(2,533)	43.7	54.0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지원	20.5	28.1	51.4	100.0(2,533)	48.6	53.7
지방정부 수당	48.8	29.0	22.2	100.0(2,533)	77.8	-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015년도 결과와 비교 시 인지율이 높은 비용 지원 제도의 종류는 거의 동일하나, 2015년 대비 모든 비용 지원 제도의 인지율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0-2세 보육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교육비', '가정양육수당' 지원의 보편화가 2015년 조사 실시 이전인 2012~2013년 사이에 이루어져서, 제도 도입 시점에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졌음을 고려하면 주요 제도의 보편화, 도입 시점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시점인 2015년도 조사에서 인지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제 특성별로 이들 정책의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최연소 자녀의 연령, 거주 지역규모, 모취업 여부, 가구소득, 기관 이용 경험 전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최연소 자녀가 유아인 경우 0-2세 영아 맞춤형 보육료 지원, 0-2세 맞춤형 긴급보육바우처 지원, 가정양육수당 등 영아반 대상이거나 영아가 주로 이용하는 비용 지원 정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최연소 자녀가 영아인 가구보다 비용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이는 최연소자녀가 영아인 경우는 1명의 영아 자녀만이 있는 가구도 포함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최연소 자녀가 유아인 경우보다 자녀양육의 기간이 짧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육아 관련 정보를 접하여 온 기간 자체가 더 짧고 축적된 육아 정보의 양 자체가 적을 수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지역이 정부의 비용 지원 정보에 대한 인지율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여서, '0-2세 보육료지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교육비 지원', '지방정부 수당'을 제외한 모든 보육료·교육비 지원에 대한 인지율이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비해 높았다. '0-2세 보육료 지원', '3-5세 누리과정 지원', '지방정부 수당'은 읍면지역 거주 영유아 가구의 인지율이 가장 높았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도 제도별 인지율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모 가구는 ‘0-2세 보육료 지원’, ‘0-2세 맞춤형 보육료 지원’, ‘3-5세 누리과정 지원’, ‘시간 연장형 보육료’,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지원에 대한 인지율이 미취업모 가구에 비해 높아 보육·교육기관 이용과 관련된 비용 지원 전반, 장시간 기관 이용 관련 비용 지원에 대한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반대로 어머니가 휴직중이거나, 미취업 상태인 경우는 ‘가정양육수당’ 인지율이 현저히 높았고, ‘시간제보육료 지원’에 대한 인지율이 휴직중인 경우 55.1%, 미취업 상태인 경우 45.5%로 취업모 가구의 41.1%, 모 부재 등의 경우 15.6%에 비해 매우 높은 인지율을 나타냈다. 이는 제도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각 비용 지원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을 시사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가구소득은 350~399만원 수준인 경우 비용 지원에 대한 인지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소득 가구는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았다. 기관이용경험에 따라서는 어린이집만 이용한 경우에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된 ‘0-2세 보육료 지원(99.9%)’, ‘0-2세 맞춤형 보육료 지원(86.3%)’, ‘0-2세 맞춤형 긴급보육바우처 지원(68.4%)’에 대한 인지율이 가장 높았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모두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된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을 제외한 전반적인 인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어린이집 등 기관 미이용 가구는 기관 이용 가구에 비해 가정양육수당을 제외한 이외 정책들에 대해 인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XI-4-2 제 특성별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인지 비율

구분	단위: %(명)										
	0-2세 보육료 지원	0-2세 영아 맞춤형 보육료 지원	0-2세 맞춤형 긴급보육 바우처 지원	3-5세 누리과정 지원	가정양육수당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시간 연장형 보육료	시간제 보육료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지원	지방 정부수당	(수)
전체	94.9	80.5	60.0	86.1	95.5	29.0	49.1	43.7	48.6	77.8	(2,533)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94.6	80.8	61.0	76.5	97.2	27.8	46.6	43.6	43.0	78.1	(1,633)
유아	95.2	80.2	58.6	99.0	93.7	30.8	52.3	44.1	56.1	77.4	(900)
χ^2 (df)	0.4(1)	1.7(1)	1.5(1)	262.8(1)***	18.6(1)***	2.7(1)	8.1(1)**	0.1(1)	42.8(1)***	0.2(1)	
지역규모											
대도시	94.8	82.4	65.5	86.3	95.9	30.4	54.4	47.0	50.9	75.6	(946)
중소도시	94.6	78.9	55.8	82.8	94.6	28.5	44.4	39.9	44.4	75.7	(782)
읍·면지역	95.2	79.6	56.4	89.3	95.6	27.7	46.3	43.2	49.7	83.0	(805)
χ^2 (df)	0.3(2)	3.9(2)	22.7(2)***	13.7(2)***	1.7(2)	1.7(2)	20.6(2)***	9.1(2)**	8.1(2)**	16.3(2)***	

구분	0-2세 보육료 지원	0-2세 영아 맞춤형 보육료 지원	0-2세 맞춤형 긴급보육 바우처 지원	3-5세 누리과정 지원	가정양육 수당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시간 연장형 보육료	시간제 보육료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지원	지방 정부수당	(수)
모취업 여부											
취업	96.0	82.2	60.7	89.9	94.1	26.9	49.7	41.1	49.9	77.5	(1,093)
휴직중	93.6	81.6	65.6	77.7	100.0	34.9	56.3	55.1	46.4	81.1	(179)
미취업	94.2	79.5	59.4	83.6	96.9	30.8	48.2	45.5	48.5	78.5	(1,229)
모부재 등	88.5	58.8	29.3	93.0	83.6	12.5	21.1	15.6	22.9	46.4	(32)
χ^2 (df)	7.3(3)*	14.4(3)***	16.9(3)***	31.4(3)***	31.9(3)***	11.7(3)***	15.5(3)***	25.2(3)***	11.2(3)**	23.3(3)***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90.3	67.4	43.6	82.6	90.0	27.7	40.7	36.3	39.4	72.4	(100)
200-249만원	94.6	69.0	52.9	81.0	95.5	26.7	45.6	38.3	41.3	76.2	(172)
250-299만원	93.7	78.4	50.8	84.3	96.2	28.9	45.3	42.5	47.5	77.2	(197)
300-349만원	94.1	77.4	55.7	84.7	95.8	28.4	45.4	40.8	47.3	80.7	(382)
350-399만원	95.7	81.6	67.7	84.5	97.8	31.1	50.4	45.0	51.5	83.6	(246)
400-499만원	95.6	84.0	65.6	89.7	97.3	31.0	55.9	48.7	51.8	79.6	(482)
500-599만원	95.6	85.4	60.8	83.7	95.6	30.5	48.2	41.1	50.0	77.2	(405)
600-699만원	95.1	84.6	62.5	91.5	95.0	28.6	53.8	51.4	52.6	74.6	(220)
700만원 이상	95.5	81.4	62.3	87.9	94.3	25.8	47.5	43.7	46.1	73.2	(321)
모름/무응답	75.6	68.4	68.4	100.0	75.6	33.5	12.7	31.8	59.8	75.6	(8)
χ^2 (df)	8.6(9)	43.5(9)***	40.1(9)***	20.1(9)**	19.8(9)**	4.3(9)	21.0(9)**	17.9(9)**	13.9(9)	14.8(9)*	
기관이용경험											
어린이집만 이용	99.9	86.3	68.4	87.1	94.6	28.5	52.7	45.0	41.1	77.4	(1,037)
유치원만 이용	85.9	57.4	41.4	100.0	88.7	30.3	39.4	36.3	51.4	71.1	(75)
둘 다 이용	95.9	85.7	63.0	99.5	94.6	32.0	54.3	48.2	64.7	82.3	(1,054)
미이용	83.6	61.2	39.0	53.0	100.0	23.9	31.7	32.9	28.8	69.8	(367)
χ^2 (df)	188.8(3)***	177.1(3)***	128.9(3)***	598.0(3)***	33.9(3)***	10.5(3)**	75.2(3)***	33.1(3)***	201.4(3)***	31.7(3)***	
2015년 조사	98.0	-	-	96.1	97.5	-	59.8	53.9	53	-	(2,59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3) '정책인지 비율'은 <표 XI-4-1>에서 '잘 안다' 혹은 '대략 안다'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5$, ** $p < .01$, *** $p < .001$

나. 비용 지원 정책 수혜 경험 및 만족도

1)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 수혜 경험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해 '잘 안다', 또는 '대략 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하여 수혜 경험을 질문하고, 2015년과의 비교를 위해 '비인지자'의 경우는 '받았적 없음(수혜 경험 없음)'에 포함하여 응답 결과를 제시하였다(표 XI-4-3 참조). 전체 영유아 가구 중 '보육·교육비 지원' 제도별로 수혜 경험을 살펴 본 결과, 현재 수혜 중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원은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교육비 지원'(57.3%)이며, 다음으로 '가정양육수당' 34.4%, '0-2세 보육료' 32.3%, '0-2세 영아 맞춤형

보육료 지원' 15.3%,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지원' 10.2%, '0-2세 맞춤형 긴급보육 바우처 지원' 5.1%, '지방정부 수당' 4.2%,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2.7%, '시간제보육료 지원' 0.5%, '장애아보육료 지원' 0.4% 순으로 조사되었다.

현재와 과거 수혜 경험을 모두 합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원 유형은 '가정양육수당지원'으로 영유아 가구의 84.4%가 가정양육수당의 수혜 경험(현재+과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영유아 가구의 수혜 경험이 가장 낮은 지원 유형은 '장애아보육료 지원'으로 1.3%만이 수혜 경험이 있었고, '시간제보육료 지원'도 3.4%만이 수혜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영유아 가구를 위한 보육·교육비 지원 중 가정양육수당이 가장 대표적인 지원임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지원 대상의 연령이 미취학연령 전반에 해당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가 넓고, 아무리 영유아의 기관 이용 시기가 빨라지더라도 잠시라도 가정양육을 하는 시기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영유아기를 통틀어 한번쯤은 수혜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XI-4-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과거 수혜 경험'이 가장 높은 지원 유형이 '가정양육수당'이라는 점은(50.0%) '가정양육수당'이 수혜를 받는 기간은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지원 등 기관 이용에 대한 지원에 비해 짧을 수 있으나, '한번쯤' 수혜 받을 가능성은 가장 높은 지원 유형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 표 XI-4-3 ▣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수혜 여부

단위: %(명)

구 분	현재 받은	과거 받은	받은 적 없음	계(수)	수혜율(현재받은+과거받은)	
					2018	2015
0-2세 보육료 지원	32.3	42.3	25.4	100.0 (2,533)	74.6	70.2
0-2세 영아 맞춤형 보육료 지원	15.3	29.8	54.9	100.0 (2,533)	45.1	-
0-2세 맞춤형 긴급보육바우처 지원	5.1	10.6	84.3	100.0 (2,533)	15.7	-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교육비 지원	57.3	6.1	36.6	100.0 (2,533)	63.4	73.9
가정양육수당 지원	34.4	50.0	15.6	100.0 (2,533)	84.4	65.4
장애아 보육료 지원	0.4	0.9	98.7	100.0 (2,533)	1.3	1.0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2.7	3.3	94.0	100.0 (2,533)	6.0	3.7
시간제보육료 지원	0.5	2.9	96.6	100.0 (2,533)	3.4	3.1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지원	10.2	4.8	85.0	100.0 (2,533)	15.0	9.2
지방정부 수당	4.2	49.8	46.0	100.0 (2,533)	54.0	31.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받은 적 없음'에는 정책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한편, 2015년도 수혜율(현재 받음+과거 받음)과 비교시, 가정양육수당의 수혜 경험률이 65.4%에서 84.4%로 대폭 증가하였고, '0-2세보육료 지원'은 2015년과 유사하나 소폭 증가하였다. 한편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이 2015년 대비 3.7%에서 6.0%로 수혜율이 증가하고,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지원'도 9.2%에서 15.0%로 증가하였는바,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의 기관 이용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영유아의 보육·교육비 지원의 현재 수혜율을 제 특성별로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자녀 연령, 거주지역규모, 모취업 여부, 월 가구소득, 기관이용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최연소 자녀가 영아인 경우는 현재 0-2세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수혜율이 각각 56.4%와 55.6%였고, 최연소 자녀가 유아인 경우는 '3-5세 누리과정 지원'의 현재 수혜율이 94.5%로 조사되었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에서 '0-2세 영아맞춤형 보육료 지원'을 수혜 받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18.1%), 역시 중소도시지역의 '0-2세 맞춤형 긴급보육바우처 지원' 수혜율(7.4%)도 대도시(5.1%), 읍면지역(2.9%)에 비해 높아 중소도시의 어린이집 맞춤형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취업중일 경우 '0-2세 보육료 지원'(34.9%),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교육비 지원'(68.0%),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3.7%),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지원'(12.9%)의 현재 수혜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어머니가 취업중일 경우 기관이용률이 높고 상대적으로 더 긴 시간 기관을 이용하는 특성이 드러났다. 반면에 어머니가 휴직중인 가구에서는 '가정양육수당'의 수혜율이 72.3%로 취업모(16.6%), 미취업모(46.1%)에 비해서도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의 어머니가 휴직중인 경우 휴직의 종류가 육아휴직일 가능성이 높는데, 이 경우 본인이 직접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가능성이 높아 기관 이용에 대한 보육료·교육비 지원보다는 가정에서 양육할 때 수혜 받는 '가정양육수당' 수혜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0-2세 맞춤형보육료 지원'은 가구소득 500~599만원 수준의 가구에서 받고 있는 비율이 19.7%로 가장 높았으며, '가정양육수당'은 월가구소득이 250~299만원인 가구에서 현재 수혜 받는 비율이 가장 높고(46.7%),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가정양육수당 수혜율은 3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받는 경우 부모가 자녀를 가정에서 직접 돌볼 사람이 있는 외벌이 가구인 경우가 많고 이러한 특징이 가구소득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 표 XI-4-4 ■ 제 특성별 정부 비용지원 현재 수혜 비율 단위: %(명)

구분	0-2세 보육료 지원	0-2세 영아 맞춤형 보육료 지원	0-2세 맞춤형 간접보육 바우처 지원	3-5세 누리과정 지원	가정양육 수당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시간제 보육료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지원	지방정부 수당	(수)
전체	32.3	15.3	5.1	57.3	34.4	0.4	2.7	0.5	10.2	4.2	(2,533)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56.4	26.7	9.0	29.5	55.6	0.3	2.7	0.6	5.4	6.4	(1,633)
유아	-	-	-	94.5	6.0	0.7	2.6	0.4	16.7	1.2	(900)
χ^2 (df)	903.8(1)***	342.0(1)***	102.5(1)***	1070.6(1)***	675.4(1)***	2.0(1)	0.0(1)	0.4(1)	85.0(1)***	42.1(1)***	
지역규모											
대도시	32.7	15.3	5.1	55.6	35.3	0.1	3.0	0.4	9.6	4.0	(946)
중소도시	31.9	18.1	7.4	54.2	35.3	0.4	2.3	0.4	10.9	3.4	(782)
읍-면지역	32.1	12.3	2.9	62.9	32.1	1.0	2.7	0.6	10.5	5.3	(805)
χ^2 (df)	0.1(2)	10.0(2)**	16.1(2)***	13.7(2)**	2.2(2)	7.4(2)*	1.0(2)	1.0(2)	1.0(2)	3.6(2)	
모취업 여부											
취업	34.9	16.8	3.8	68.0	16.6	0.2	3.7	0.6	12.9	3.2	(1,093)
휴직중	29.4	18.1	7.3	25.7	72.3	-	1.2	0.8	4.2	6.7	(179)
미취업	30.8	13.9	6.3	51.3	46.1	0.7	1.8	0.3	8.7	4.8	(1,229)
모부재 등	16.2	3.2	-	80.8	7.0	1.3	6.9	-	8.7	-	(32)
χ^2 (df)	9.7(3)*	9.3(3)*	11.2(3)*	153.1(3)***	56.4(3)***	4.5(3)	14.1(3)**	1.2(3)	18.2(3)***	8.3(3)*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23.6	11.1	5.0	59.3	36.1	1.3	3.3	-	6.2	6.2	(100)
200~249만원	31.4	14.9	6.8	49.0	38.9	1.1	3.2	0.7	8.1	6.6	(172)
250~299만원	28.0	11.8	5.3	50.0	46.7	0.9	1.0	-	7.5	2.1	(197)
300~349만원	30.2	13.0	3.9	56.5	42.6	0.8	1.7	-	9.3	4.0	(382)
350~399만원	33.3	14.6	5.1	53.4	41.0	0.3	3.9	-	8.8	8.1	(246)
400~499만원	30.5	15.9	6.3	59.7	32.3	0.4	3.6	0.1	11.0	3.3	(482)
500~599만원	37.2	19.7	5.8	58.7	26.7	-	3.3	1.5	12.9	3.4	(405)
600~699만원	37.3	15.6	3.2	60.6	25.4	-	2.4	0.9	11.3	5.2	(220)
700만원 이상	33.1	15.6	4.4	60.9	28.7	0.2	1.3	0.8	11.4	2.4	(321)
모름/무응답	12.7	5.5	5.5	100.0	20.0	-	5.5	-	7.2	5.5	(8)
χ^2 (df)	14.9(9)	12.1(9)	6.5(9)	19.8(9)*	55.8(9)***	7.6(9)	11.6(9)	17.4(9)*	9.9(9)	20.8(9)*	
기관이용경험											
어린이집만 이용	61.7	29.2	9.8	48.7	23.1	0.9	4.1	-	-	4.0	(1,037)
유치원만 이용	-	-	-	90.2	25.2	-	-	-	15.6	1.5	(75)
둘 다 이용	21.5	10.3	3.4	89.4	15.5	0.2	2.7	0.8	24.3	3.7	(1,054)
미이용	-	-	-	-	100.0	-	-	0.8	-	6.2	(367)
χ^2 (df)	698.6(3)***	262.4(3)***	78.6(3)***	1121.1(3)***	1114.9(3)***	9.1(3)*	22.7(3)***	8.5(3)*	386.0(3)***	7.0(3)	
2015년 조사	29.3	-	-	66.9	31.1	0.4	2.3	1.6	7.0	1.9	(2,59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3) <표 XI-4-3>에서 '현재 받음'에 응답한 비율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5$, ** $p < .01$, *** $p < .001$.

2018년 보육실태조사의 응답가구 내 영유아 자녀 3,775명 중 어린이집·유치원의 정규적 이용에 따른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을 제외하고 기타 현재 받고 있는 지원이 있는지 응답하도록 한 결과, 가장 현재 수혜율이 높은 지원의 유형은 ‘가정양육수당’으로 26.8%의 영유아가 현재 수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양육수당 외 시간제보육료(1.0%),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0.7%), 영유아 대상 각종 사회서비스 바우처 지원(1.3%)은 모두 현재 수혜율이 1.0% 내외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지원을 받는 경우 월 평균 지원 받는 금액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월 평균 156,400원이고, 최소 20,000원에서 최대 661,000원 지원 받아 대상별로 지원액의 편차가 매우 컸다. 가정양육수당은 월 평균 152,200원, 시간제보육료는 월 평균 99,600원을 지원받으며 최대 250,000원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시간제보육료’를 지원받는다는 응답이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다른 비용 지원들의 현재 수혜율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지원받을 경우 지원받는 금액은 2015년 대비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양육수당을 제외한 기타 지원액수는 사례수가 매우 희소하여 2018년의 결과는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표 XI-4-5 정규적 보육료·교육비 외 지원 수혜여부 및 액수

단위: %, (명), 천원

구분	현재 수혜율	(전체수)	2015년	지원액수					(응답수)
				평균	2015년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시간제보육료	1.0	(3,775)	2.0	99.6	150.9	70.7	15.0	250.0	(39)
양육수당	26.8	(3,775)	22.0	152.2	154.1	41.8	100.0	200.0	(1,013)
아이돌봄비 비용	0.7	(3,775)	0.3	156.4	252.8	131.3	20.0	661.0	(26)
바우처(학습지 등)	1.3	(3,775)	0.9	70.3	97.6	49.5	10.0	210.0	(45)
기타	-	(3,775)	0.9	-	101.6	-	-	-	-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 만족도

영유아 보육료·교육비를 과거 또는 현재에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5점 척도 기준으로 ‘0-2세 보육료 지원’이 3.9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교육비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지원’이 모두 3.8점, ‘0-2세 영아 맞춤형

형 보육료 지원', '0-2세 맞춤형 긴급보육바우처 지원'이 3.7점, '시간제보육료 지원' 3.6점, '가정양육수당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 3.5점, '지방정부수당' 3.4 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XI-4-6 비용 지원 정책의 만족도

단위: %(명), 점

구 분	수혜 비율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5점 평균	
								2018	2015
0-2세 보육료 지원	74.6	0.2	2.5	14.6	72.8	9.9	100.0 (2,008)	3.9	3.9
0-2세 영아 맞춤형 보육료 지원	45.1	1.8	5.2	23.8	55.1	14.1	100.0 (1,240)	3.7	-
0-2세 맞춤형 긴급보육바우처 지원	15.7	3.0	6.5	27.4	46.7	16.3	100.0 (430)	3.7	-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교육비 지원	63.4	1.0	3.8	23.4	55.0	16.7	100.0 (1,706)	3.8	3.8
가정양육수당 지원	84.4	1.8	10.6	32.5	45.0	10.1	100.0 (2,178)	3.5	3.6
장애아 무상보육	1.3	1.9	10.9	31.7	48.1	7.4	100.0 (34)	3.5	4.1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6.0	0.9	4.8	27.1	50.3	16.8	100.0 (153)	3.8	4.1
시간제보육료 지원	3.4	1.6	9.0	31.6	42.1	15.8	100.0 (91)	3.6	3.9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지원	15.0	1.5	3.4	27.4	53.7	14.0	100.0 (407)	3.8	3.9
지방정부수당	54.0	3.5	10.6	32.6	45.0	8.3	100.0 (1,450)	3.4	3.6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수혜비율은 전체응답가구 수(2,533가구) 대비 비용 지원 수혜가구(현재 받음+과거 받음) 수 비율로, <표 XI-4-3>에서 '현재 받음' 혹은 '과거 받음'으로 응답한 경우에 해당함.
 3) '잘 모름' 응답은 제외함.
 4) 만족도 평균은 '매우 만족' 1점 ~ '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5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한 결과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또한 각 제도별로 만족하는 비율(만족+매우 만족)을 살펴본 결과,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았던 '0-2세 보육료 지원'에 대한 만족 비율이 82.6%로 가장 높았고, '3-5세 누리과정 지원'(71.8%), '0-2세 영아 맞춤형 보육료 지원'(69.2%), '유치원방과후과정비 지원'(67.7%),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67.2%), '0-2세 맞춤형 긴급보육바우처 지원'(63.1%)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양육수당'은 '시간제보육료 지원'(57.9%), '장애아 무상보육'(55.5%) 보다도 낮은 55.1%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중앙정부 정책 중 만족비율이 가장 낮은 비용 지원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 특성별로 이들 정책의 수혜경험가구가 만족하는 비율(만족+매우 만족)을 살펴본 결과, '시간제보육료'를 제외하면 읍면지역 거주 영유아 가구의 만족비율이 도시지역 거주 영유아 가구에 비해 높아 지역규모별 차이가 뚜렷하였다. 또한 '가정양육수당'은 영아 가구보다는 유아가구에서의 만족도가 높고, 미취업모 가구에



비해 취업모나 휴직중인 경우에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각 비용지원정책에 대한 수혜 경험이 있는 영유아 가구들이 응답한 결과를 살펴 보면, 2018년에는 2015년에 비해 비용 지원 수혜경험자들의 만족도가 다소 낮아 지고 지원 간 만족도 편차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상대적으로는 보편적인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대상이 한정되거나 이용자가 적은 지원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는 한편,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이나 유치원방과후과과정비 지원처럼 추가적인 기관 이용 시간에 대한 비용 지원에도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2015년에 비해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은 이용경험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는 바, 장애아 보육 지원이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해 파악하여 지원 수준 및 내용의 보완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XI-4-7 제 특성별 정부 비용지원 정책 만족 비율

단위: %(명)

구 분	0-2세 보육료 지원	0-2세 영아 맞춤형 보육료 지원	0-2세 맞춤반 간급보육 바우처 지원	3-5세 누리과정 지원	가정양육 수당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시간 연장형 보육료	시간제 보육료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지원	지방정부 수당
전체	82.6	69.2	63.1	71.8	55.1	55.5	67.2	57.9	67.7	53.2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84.2	70.0	64.8	72.0	53.3	42.9	70.8	57.9	67.6	52.5
유아	81.0	68.2	60.6	71.7	58.1	61.6	64.1	57.8	67.7	54.4
χ^2 (df)	3.5(1)	0.4(1)	0.7(1)	0.0(1)	4.6(1)*	0.7(1)	0.7(1)	0.0(1)	0.0(1)	0.5(1)
지역규모										
대도시	83.3	66.3	61.4	71.7	55.4	48.2	58.9	64.1	60.6	53.2
중소도시	78.8	66.2	59.8	66.4	51.1	36.5	67.3	49.6	64.5	43.4
읍·면지역	85.6	77.1	73.2	77.0	58.7	69.2	79.6	58.4	80.4	60.3
χ^2 (df)	9.7(2)***	12.3(2)***	4.2(2)	13.4(2)***	7.7(2)**	3.3(2)	5.3(2)*	1.1(2)	11.9(2)***	23.2(2)***
모취업 여부										
취업	83.7	71.2	65.8	73.4	59.2	66.6	66.9	61.0	71.4	57.1
휴직중	81.5	56.8	60.7	67.7	56.4	-	86.6	75.3	62.3	47.2
미취업	81.8	67.9	60.8	70.2	51.9	50.9	64.5	54.3	63.3	50.7
모부재 등	74.7	83.4	60.9	73.9	43.5	-	100.0	-	57.0	49.7
χ^2 (df)	2.0(3)	7.0(3)*	1.1(3)	2.8(3)	11.7(3)***	2.2(3)	2.1(3)	2.2(3)	2.9(3)	6.6(3)*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80.8	83.6	81.5	72.2	55.2	69.8	61.9	48.8	80.0	63.0
200-249만원	80.5	60.6	62.7	71.2	52.4	87.1	54.4	57.2	50.1	46.8
250-299만원	77.7	63.5	54.2	69.2	47.2	82.3	52.8	14.8	56.3	49.8
300-349만원	83.5	72.7	66.6	70.9	54.7	28.0	60.5	10.5	71.1	50.0
350-399만원	85.0	75.4	62.3	77.5	56.6	51.8	82.7	100.0	62.4	54.2

구분	0-2세 보육료 지원	0-2세 영아 맞춤형 보육료 지원	0-2세 맞춤반 긴급보육 바우처 지원	3-5세 누리과정 지원	가정양육 수당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시간 연장형 보육료	시간제 보육료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지원	지방정부 수당
400-499만원	82.9	68.0	55.5	72.0	58.0	48.9	61.2	32.0	65.2	50.4
500-599만원	83.0	71.3	69.9	71.1	58.9	-	78.6	90.7	72.4	56.5
600-699만원	82.5	67.3	63.1	73.4	57.5	66.7	68.9	100.0	73.4	55.7
700만원 이상	83.1	65.7	62.9	69.7	49.7	57.3	66.6	47.1	69.1	56.7
모름/무응답	100.0	100.0	100.0	75.6	100.0	-	100.0	-	100.0	100.0
χ^2 (df)	4.2(9)	10.7(9)	6.8(9)	3.7(9)	15.6(9)*	4.9(8)	5.9(9)	32.6(8)***	7.9(9)	11.4(9)
(수)	(2,008)	(1,240)	(430)	(1,706)	(2,178)	(34)	(153)	(91)	(407)	(1,450)
2015년 조사	73.1	-	-	70.4	60.1	75.4	78.4	68.1	69.8	56.5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응답 대상은 <표 XI-4-3>에서 '현재 받음', '과거 받음' 으로 응답한 경우임.
 3) '만족비율'은 <표 XI-4-4>에서 '만족' 혹은 '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임.
 4)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5$, ** $p < .01$, *** $p < .001$.

앞서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만족 비율은 55.1%로(표 XI-4-7 참조) 만족 비율이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현재 아동이 양육수당을 수혜 받고 있는 경우 금액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평정한 금액 만족도 점수도 3.0점으로 '보통' 정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에 대한 만족도는 영아가 유아보다 높고, 0세(3.3점)와 1세의(3.1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2세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2.6점) 나타나 연령별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700만원 이상 가구에서 2.9점으로 가장 금액만족도가 낮았으나, 그 외에는 대체로 저소득 가구에 비해 고소득 가구의 양육수당 금액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 표 XI-4-8 ▮ 제 특성별 양육수당 금액 만족도 및 적정 금액

단위: %(명), 점, 만원

구분	만족도						적정 금액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5점 평균	평균 (수)	
전체	6.9	23.6	32.7	34.0	2.7	100.0(1,013)	3.0	43.1 (319)	
영유아 구분									
영아	3.6	25.5	33.0	35.3	3.1	100.0(863)	3.1	43.7 (245)	
유아	20.6	15.8	31.4	28.6	2.8	100.0(145)	2.7	35.0 (51)	
χ^2 (df)	75.0(4)***								
생활연령									
0세	2.1	18.8	32.5	44.0	2.5	100.0(413)	3.3	47.8 (86)	
1세	3.7	25.2	35.4	32.8	2.9	100.0(346)	3.1	45.0 (98)	

구분	만족도							적정 금액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5점 평균	평균	(수)	
2세	7.9	46.8	28.8	15.2	1.2	100.0(109)	2.6	37.2	(61)	
3세	16.6	13.7	37.3	28.0	4.3	100.0(54)	2.9	27.7	(16)	
4세	19.3	18.9	28.9	27.5	5.3	100.0(44)	2.8	40.8	(16)	
5세 이상	24.5	15.2	28.4	29.8	2.0	100.0(47)	2.7	35.5	(19)	
χ^2 (df)	142.8(20)***									
모취업 여부										
취업	12.1	18.8	33.6	33.0	2.4	100.0(212)	2.9	45.9	(80)	
휴직중	7.7	19.1	33.9	34.9	4.4	100.0(139)	3.1	39.5	(33)	
미취업	5.0	26.2	32.2	34.1	2.4	100.0(660)	3.0	42.5	(205)	
모부재 등	-	26.4	-	73.6	-	100.0(2)	3.5	20.0	(1)	
χ^2 (df)	21.2(12)***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3.6	32.2	36.5	26.2	1.5	100.0(45)	2.9	42.8	(19)	
200~249만원	4.8	28.0	35.1	30.5	1.6	100.0(76)	3.0	37.6	(26)	
250~299만원	1.3	30.8	39.0	28.9	-	100.0(100)	3.0	43.2	(33)	
300~349만원	7.7	24.5	32.5	32.4	3.0	100.0(193)	3.0	51.5	(63)	
350~399만원	3.3	24.9	29.0	40.4	2.3	100.0(118)	3.1	47.2	(33)	
400~499만원	5.9	24.0	25.1	41.8	3.3	100.0(171)	3.1	38.3	(52)	
500~599만원	7.0	18.4	40.0	31.9	2.8	100.0(133)	3.1	40.7	(35)	
600~699만원	5.7	19.6	34.8	34.4	5.4	100.0(59)	3.1	46.2	(16)	
700만원 이상	17.3	18.0	30.0	31.2	3.4	100.0(115)	2.9	37.9	(41)	
모름/무응답	-	31.9	31.9	36.2	-	100.0(3)	3.0	30.0	(1)	
χ^2 (df)	57.0(36)***									
2015년 조사	4.8	30.8	37.5	25.9	1.0	100.0(1,022)	2.9	33.4	(336)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응답 대상은 <표 XI-4-5>에서 해당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을 '현재 받음'으로 응답한 경우임.
 3) 만족도 평균은 '매우 만족' 1점~'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한 결과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4)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 $p < .001$.

5 육아지원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본 절에서는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정책과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가.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부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정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중요한 순서대로 3순위까지 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육아지원정책 1순위의 결과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으로 응답된 것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35.9%가 응답하였으며, 이외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17.5%, ‘보육·교육비 지원 단가 인상’ 11.7%,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휴직 시 소득보장’ 10.2%, ‘가정양육수당 인상’ 7.8%, ‘유연근무제 확대’ 6.5%, ‘다양한 보육유형 확대’ 5.7%,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3.7% 순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에는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8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띄는 변화라 하겠으며, 이외 응답 경향은 2015년과 유사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최연소 자녀 연령, 거주지역, 모의 취업 여부, 월가구소득, 기관 이용 경험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였다. 우선, 최연소 자녀가 영아인 경우 가정양육수당 인상에 대한 요구가 9.8%로 유아에 비해 두 배가량 높은 비중으로 응답되었고 ‘육아휴직 제도 정착 및 확대’에 대한 요구도 유아 가구에 비해 높았다. 반면 최연소 자녀가 유아인 경우는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이 19.3%로 평균에 비해 높았고, 영아 가구에 비해 보육교육비 지원 단가 인상, 보육유형 다양화, 유연근무제 확대 등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요구를 나타냈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지역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요구가(40.1%) 중소도시(33.2%) 읍면지역(32.7%)에 비해 확연히 높았으며, 읍면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19.9%). 또 대도시, 중소도시 등 도시지역에서는 육아휴직제도와 유연근무제에 대한 요구가 읍면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게 응답되었는데, 이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일자리가 도시지역에 더욱 많이 분포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취업모는 미취업모에 비해 시간연장형 등 다양한 보육유형 확대,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미취업모는 가정양육수당의 인상 요구가 더 높았다. 또, 휴직중인 경우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확대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22.6%), 해당 사례가 한정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이용 경험자로서 육아휴직제도의 효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육아 정책으로서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제시한 응답 결과는 더욱 의미 있다고 할 것이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특히 '비용' 지원 관련한 요구에 소득수준별 차이를 엿볼 수 있었는데, 가구소득 300~349만원에 해당하는 가구가 '비용 지원(보육료교육비 지원 인상)'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요인이 관련 될 수 있으나, 이 소득대의 가구는 기초수급가구 등 양육비 외에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집단보다는 소득이 높으나,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으로 양육비를 넉넉히 부담할만한 경제적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여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높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확대에 대한 요구는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의 계층과 600만원 이상의 소득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응답되었다. 최상위 소득 계층과 가장 저소득 계층에서 동시에 높은 요구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먼저 영유아 가구 중 최상위 소득계층의 경우 맞벌이 비중이 높았던 결과와 관련하여 취업중인 부모에게 비용 지원 보다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휴가휴직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 가구의 육아휴직 제도 정착과 확대 요구가 높은 것은 취업 중인 직장에서 휴가·휴직제도의 미정착으로 인한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외별이 가구의 요구와 육아휴직제도의 낮은 급여 대체율로 인해 경제적 부담으로 육아휴직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요구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표 XI-5-1 정부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 정책(1순위)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어린이 집 확충	보육 교육비 지원 인상	양육 수당 인상	기관 서비스 질 향상	보육 유형 다양화 확대	아이 돌보미 지원 확대	육아휴직 제도 정착 및 확대	육아 정보 상담 제공	유연 근무제 확대	기타	계(명)
전체	35.9	11.7	7.8	17.5	5.7	3.7	10.2	0.9	6.5	-	100.0 (2,533)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36.8	10.8	9.8	16.1	4.5	4.0	11.1	0.9	6.1	-	100.0 (1,633)
유아	34.7	13.1	5.2	19.3	7.4	3.4	9.1	0.9	7.0	-	100.0 (900)
χ^2 (df)											36.5(8)***
지역규모											
대도시	40.1	9.8	6.1	16.5	4.0	3.8	11.6	1.0	7.2	-	100.0 (946)
중소도시	33.2	12.5	9.7	16.5	5.6	3.3	11.1	0.5	7.7	-	100.0 (782)
읍면지역	32.7	13.7	8.4	19.9	8.3	4.1	7.4	1.3	4.2	-	100.0 (805)
χ^2 (df)											60.0(16)***
모취업 여부											
모취업	34.3	11.0	4.6	17.8	7.2	4.5	11.4	0.8	8.5	-	100.0 (1,093)
휴직중	33.6	7.1	8.9	8.8	5.2	2.6	22.6	2.1	9.1	-	100.0 (179)
미취업	37.9	13.1	10.7	18.1	4.3	3.1	7.6	0.8	4.4	-	100.0 (1,229)
모부재 등	28.4	14.6	8.4	28.5	10.1	10.0	-	-	-	-	100.0 (32)
χ^2 (df)											129.6(24)***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34.1	15.3	13.6	12.4	6.1	2.6	14.1	-	1.9	-	100.0 (100)
200~249만원	41.4	13.9	11.6	17.2	3.4	2.3	3.6	1.3	5.2	-	100.0 (172)
250~299만원	37.8	10.6	12.8	14.0	5.5	2.1	9.1	0.6	7.4	-	100.0 (197)
300~349만원	31.4	19.8	9.8	16.0	5.9	3.3	9.1	0.7	4.0	-	100.0 (382)
350~399만원	35.0	13.0	8.4	22.0	6.6	4.2	4.4	1.3	5.2	-	100.0 (246)
400~499만원	38.6	12.4	5.9	16.2	5.4	4.4	11.6	0.9	4.6	-	100.0 (482)
500~599만원	39.7	8.5	6.0	14.4	7.2	4.4	9.3	1.6	8.9	-	100.0 (405)
600~699만원	32.0	5.0	5.0	25.8	5.0	2.9	17.4	-	6.8	-	100.0 (220)
700만원 이상	31.4	8.0	5.3	19.7	5.2	4.7	13.1	1.1	11.5	-	100.0 (321)
모름/무응답	56.2	-	14.5	19.0	-	-	10.3	-	-	-	100.0 (8)
χ^2 (df)											169.2(72)***
기관이용 경험											
어린이집만 이용	36.3	11.9	5.4	17.4	6.4	2.9	11.3	1.3	7.2	-	100.0 (1,037)
유치원만 이용	38.9	4.6	12.2	20.6	5.3	4.5	5.3	-	8.6	-	100.0 (75)
둘 다 이용	34.1	13.2	6.1	19.2	6.5	4.0	9.5	0.6	6.8	-	100.0 (1,054)
미이용	38.3	9.3	16.1	13.4	2.6	4.8	10.4	0.9	4.1	-	100.0 (367)
χ^2 (df)											94.1(24)***
2015년 조사	23.3	19.5	8.0	26.6	3.9	4.5	9.0	0.3	4.7	0.3	100.0 (2,59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01$.

한편, 3순위까지 응답한 결과를 합산하여 살펴보았는바, 역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나(58.8%), ‘기관 서비스 질 향상’도 57.9%로 거의 유사한 비율로 응답되었다. 이외 ‘보육·교육비 지원 단가 인상’(38.0%), ‘육아휴직 제도 정착 및 확대’(36.5%), ‘유연근무제 확대’(27.3%), ‘양육수당 인상’(25.5%), ‘보육유형 다양화’(24.4%),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22.3%), ‘육아정보·상담 제공’(9.3%)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 응답과 응답 비중의 순위에는 거의 차이가 없으며, 단 ‘유연근무제 확대’ 요구가 1순위 응답만으로 집계했을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져 ‘양육수당 인상’ 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표 XI-5-2 정부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 정책(1+2+3순위)

단위: %(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기관 서비스 질 향상	보육교육비 지원인상	육아휴직 제도 정착 및 확대	유연 근무제 확대	양육수당 인상	보육유형 다양화	아이 돌보미 지원 확대	육아정보 상담제공
58.8	57.9	38.0	36.5	27.3	25.5	24.4	22.3	9.3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정부에게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들에 대한 응답 결과들로부터 국가가 육아지원기관을 설립·운영·관리하기를 원하는 영유아 부모들의 요구가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는 결국 두 번째 순위의 요구로 나타나는 ‘기관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요구와 다르지 않다고 보여진다. 국공립 기관에 부모들이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양질의 인력에 의해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일 것이며, 국가가 설립, 운영 주체로 관여할 때 이러한 질적인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공립 보육서비스에 대한 기대, 질적인 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나. 부모 교육에 대한 요구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받아 본 경험여부, 받아 본 부모교육 내용, 부모교육 실시 장소와 방식, 희망하는 부모교육 내용과 방식에 대해 응답하도록 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1) 부모교육 경험

응답자 중 37.2%가 이전에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은 최연소 자녀연령,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취업 여부, 기관 이용 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최연소 자녀가 영아인 경우(27.8%)에 비해 유아인 경우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45.6%),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서는 45세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어머니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9세 이하인 경우 27.5%가 부모교육 경험이 있었으나, 40~44세의 어머니는 46.4%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가장 부모교육 경험이 높고(39.6%), 미취업중인 경우 36.2%, 휴직중인 경우 32.3%로 나타났다. 취업중인 경우 부모교육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오히려 휴직중이거나 미취업상태인 경우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적게 나타난 것은 본 조사의 응답 대상의 특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즉, 어머니가 미취업중이거나 휴직중인 경우 자녀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의 비중이 높았던 본 조사의 응답자 특성을 고려할 때 휴직중이거나 미취업중이라 하더라도 영아를 두고 부모교육을 받기는 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기관 이용 경험에 따라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9.0%)에 비해 부모교육 경험이 높았으며,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이용해 본 경우에는 특히 부모교육 경험이 높았다(48.1%). 이는 영유아를 둔 부모들에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주된 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본 조사결과로부터 제 특성별 차이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영유아 부모의 부모교육 경험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그리고 관련된 경향으로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교육 경험이 낮았는데, 이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 부모교육을 받기 위한 시간과 대리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려운 부모들의 부모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표 XI-5-3 부모교육 경험 여부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χ^2 (df)
전체	37.2	62.8	100.0(2,533)	
최연소 자녀 구분				
영아	27.8	72.2	100.0(1,372)	86.4(1)***
유아	45.6	54.4	100.0(1,161)	
지역규모				
대도시	38.0	62.0	100.0(946)	0.5(2)
중소도시	36.3	63.7	100.0(782)	
읍면지역	36.9	63.1	100.0(805)	
모연령				
29세 이하	27.5	72.5	100.0(190)	40.4(5)***
30 - 34세	32.7	67.3	100.0(597)	
35 - 39세	37.4	62.6	100.0(1,139)	
40 - 44세	46.4	53.6	100.0(494)	
45세 이상	35.9	64.1	100.0(78)	
부재, 모름	15.0	85.0	100.0(35)	
모취업 여부				
취업	39.6	60.4	100.0(1,093)	11.7(3)***
휴직중	32.3	67.7	100.0(179)	
미취업	36.2	63.8	100.0(1,229)	
모부재 등	16.7	83.3	100.0(32)	
기관 이용 경험				
어린이집만 이용	39.2	60.8	100.0(1,037)	213.6(3)***
유치원만 이용	38.5	61.5	100.0(75)	
둘 다 이용	48.1	51.9	100.0(1,054)	
기관 이용 경험 없음	9.0	91.0	100.0(367)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01$.

부모교육 경험자에 한하여 어떤 내용의 부모교육을 받았는지 질문하였다. 부모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부모교육은 ‘영유아 성장 관련 정보·양육방법(대화법, 놀이방법 포함)’으로 78.7%가 이 같은 내용을 교육 받은 경험이 있었다. 다음으로 ‘보호자의 역할’(48.2%), ‘영유아의 인권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35.8%), ‘가족의 건강·영양·안전교육’(26.7%), ‘미디어·인터넷 중독 예방교육’(15.6%), ‘가족 윤리 및 예절’(10.9%) 순으로 응답되었다.

최연소 자녀 구분별로는 최연소 자녀가 유아인 경우 ‘미디어·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경험 비율(17.1%)이 영아인 경우(13.0%)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아동 연령의 증가에 따라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거나, 해당 교육 경험 기회가 증가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이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지역에서 '영유아 성장관련 정보·양육방법', '가족의 건강·영양, 안전교육' 경험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 각각 82.4%, 31.3%가 경험한 것으로 응답되었다. 또 대도시(18.5%), 중소도시(18.0%) 등 도시지역에서 '미디어·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에 대한 경험비율이 읍면지역(8.8%)에 비해 눈에 띄게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도시지역 영유아들의 미디어·인터넷 노출이 보다 높거나 이러한 현상 때문에 관련 교육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는 부모들이 영유아들의 미디어·인터넷 중독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별로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미취업모 가구에서 다양한 내용의 부모교육을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영유아 성장 관련 정보·양육방법 경험 비율'은 취업 상태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이 높게 나타났으나, 미취업모 가구에서는 이외의 부모교육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취업중 또는 휴직중인 경우에 비해서도 모두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이고 있었다. 앞서 <표 XI-5-3>에서 부모교육은 취업모 가구에서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나, 미취업모 가구 중에서도 부모교육을 경험한 집단은 부모교육을 받은 횟수나 받은 부모교육 내용이 더욱 다양한 집단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부모교육에 있어서도 부모교육을 받을 가용 시간과 정보 접근성, 그리고 관심도를 바탕으로 부모교육을 풍부히 받는 집단과 부모교육 기회에서 소외되는 집단이 차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같은 결과로부터 모든 영유아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모교육에 관심이 적었던 집단, 정보가 부족한 집단, 부모교육을 위한 기회가 제한된 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 받을 수 있다.

한편 기관 이용 경험에 따라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경험이 없는 가구에서는 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집단에 비해서 부모교육 경험이 낮다는 문제 외에도, '아동 인권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15.7%) 경험이 현저히 낮고, '가족 윤리 및 예절교육'(10.5%)도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가 발견되었다. 기관 이용을 통해 주어지는 교육에 비해, 보호자 스스로 선택하는 교육의 내용에서 이러한 내용이 부

족하다는 점은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과 올바른 양육 측면에서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이다. 기관을 통해 부모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관 이용 가구에 비해 기관 미이용 가구는 양육의 폐쇄성과 아동 인권에 대한 낮은 인식 등 위험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건강한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미이용 가구 대상의 부모교육 기회를 다양한 전달체계를 통해 확대·제공하고 특히 부족할 수 있는 내용을 집중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표 XI-5-4 부모교육 경험 내용(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부모교육경험		부모교육 경험 내용							
	경험 비율	계(수)	영유아 성장관련 정보·양육 방법	보호자 역할	인권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가족 윤리 및 예절	가족의 건강, 영양, 안전교육	미디어·인터넷 중독 예방	기타	(수)
전체	37.2	100.0(2,533)	78.7	48.2	35.8	10.9	26.7	15.6	0.1	(965)
최연소 자녀 구분										
영아	27.8	100.0(1,372)	77.2	47.6	31.9	10.5	28.9	13.0	-	(430)
유아	45.6	100.0(1,161)	79.5	48.5	37.9	11.2	25.5	17.1	0.2	(535)
지역규모										
대도시	38.0	100.0(946)	82.4	47.8	36.0	9.9	31.3	18.5	0.2	(371)
중소도시	36.3	100.0(782)	76.7	49.7	36.9	11.3	24.7	18.0	0.2	(287)
읍면지역	36.9	100.0(805)	75.2	47.4	34.2	12.0	22.1	8.8	-	(307)
모연령										
29세 이하	27.5	100.0(190)	78.5	42.4	30.2	13.8	30.7	12.1	-	(54)
30 - 34세	32.7	100.0(597)	80.7	50.1	34.3	9.0	25.6	13.9	-	(212)
35 - 39세	37.4	100.0(1,139)	78.7	48.0	36.6	11.0	27.7	14.0	-	(435)
40 - 44세	46.4	100.0(494)	77.8	49.0	36.2	11.6	24.3	18.1	0.5	(231)
45세 이상	35.9	100.0(78)	77.5	41.8	37.8	13.7	32.6	32.5	-	(28)
모부재 등	15.0	100.0(35)	57.1	53.3	32.7	-	32.7	-	-	(5)
모취업 여부										
취업	39.6	100.0(1,093)	79.8	42.9	35.4	9.0	25.9	15.3	0.3	(448)
휴직중	32.3	100.0(179)	73.5	45.9	19.5	9.5	31.8	10.7	-	(60)
미취업	36.2	100.0(1,229)	78.5	53.9	38.3	13.3	26.8	16.8	-	(452)
모부재 등	16.7	100.0(32)	57.1	53.3	32.7	-	32.7	-	-	(5)
기관 이용 경험										
어린이집만 이용	39.2	100.0(1,037)	79.0	47.0	37.3	8.1	27.2	12.0	0.2	(381)
유치원만 이용	38.5	100.0(75)	79.4	59.1	46.2	15.9	11.3	35.0	-	(29)
둘 다 이용	48.1	100.0(1,054)	77.7	48.2	35.7	12.9	26.7	17.4	0.1	(489)
기관 이용 경험 없음	9.0	100.0(367)	86.0	52.0	15.7	10.5	33.8	12.9	-	(4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부모교육을 받은 기관은 '어린이집'이 55.1%에 달하고, 유치원 29.3%, 육아종합지원센터 12.1%, 공공기관 8.5%, 의료기관 6.7%, 직장 5.3%, 종교기관 4.1%, 건강가정지원센터 3.7%, 기타 1.0% 순으로 응답되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교육기관을 통해 제공받은 비율이 높아 영유아 대상 보육·교육기관, 특히 어린이집이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 부모들에게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보육·교육기관 외에 다양한 기관과 지역사회 육아지원기관도 부모교육 제공 전달체계로 기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는 특히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 대한 주요한 부모교육 제공 전달체계일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제공하는 필수 부모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해 보인다.

제 특성별로 부모교육을 받은 기관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규모별로 대도시지역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포함하여 기타 지역사회 전달체계가 고르게 응답되었으며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부모교육경험이 15.6%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여 대도시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주었으며, 읍·면지역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부모교육경험 비율이 8.2%로 가장 낮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접근성이 읍·면지역에 부족함을 짐작케 하였다. 반면, 읍·면지역은 어린이집을 통한 부모교육 경험(60.4%)이 지역규모 중 가장 높고, 의료기관을 통한 경험도 9.2%로 부모교육제공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다른 지역 보다 한층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어린이집과 읍·면지역 보건소, 보건지소 포함 의료기관이 읍·면지역의 주요한 부모교육제공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읍·면지역의 어린이집과 의료기관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부모교육 역할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중인 어머니와(7.2%) 휴직중인 어머니는(9.5%) '직장'에서 부모교육을 받았다는 비율이 미취업모에 비해(3.0%)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현재 취업중인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부모교육 경험 비율은 10.2%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취업중일 경우 시간적 기회가 한정되기 때문에 자녀가 이용하는 기관 외에 기타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며, 직장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이 유용한 기회가 됨을 보여준다 하겠다. 취업 여부를 불문하고 영유아 부모들의 지역사회 전달체계에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직장으로의 찾아가는 부모교육의 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XI-5-5 부모교육을 받은 기관(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직장	종교기관	공공기관	의료기관	기타
전체	55.1	29.3	12.1	3.7	5.3	4.1	8.5	6.7	1.0
지역규모									
대도시	55.4	31.8	15.6	2.1	5.6	4.9	8.6	5.8	1.1
중소도시	49.6	32.1	11.1	5.3	5.2	5.3	8.8	5.7	1.2
읍면지역	60.4	22.7	8.2	4.5	5.1	1.7	8.0	9.2	0.6
모취업 여부									
취업	60.3	28.7	10.2	3.8	7.2	3.5	6.4	5.8	0.5
휴직중	53.6	16.0	18.6	5.5	9.5	3.4	7.4	9.5	2.6
미취업	49.7	31.7	13.5	3.2	3.0	4.6	10.9	7.4	1.3
모부재 등	77.6	22.4	-	22.4	-	22.4	-	-	-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부모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요구

한편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인식을 살펴본 결과, 81.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영유아 부모들이 부모교육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소 자녀 구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부모교육이 필요 없다는 인식은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14.9%), 어머니가 부재한 경우(25.7%), 부모교육경험이 없는 경우(18.0%)에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중 어머니가 부재한 경우에 부모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은 조손가구, 한부모 가구 등 취약계층 가정의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의 측면에서 추가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모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경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해서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부모들도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교육이 부모의 가치관과 인식에 따른 선택의 영역에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XI-5-6 부모교육 필요 여부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잘 모름	$\chi^2(df)$	계(수)
전체	81.6	12.7	5.8		100.0(2,533)
최연소 자녀 구분					
영아	82.2	12.0	5.8	1.0(2)	100.0(1,372)
유아	81.0	13.3	5.7		100.0(1,161)
지역규모					
대도시	81.9	12.8	5.2	10.1(4)**	100.0(946)
중소도시	84.3	10.3	5.4		100.0(782)
읍면지역	78.2	14.9	6.9		100.0(805)
모취업 여부					
취업	81.5	13.2	5.4	40.6(6)***	100.0(1,093)
휴직중	85.4	10.0	4.6		100.0(179)
미취업	82.1	12.2	5.7		100.0(1,229)
모부재 등	48.2	25.7	26.1		100.0(32)
부모교육 경험					
있음	95.2	3.7	1.2	185.9(2)***	100.0(965)
없음	73.5	18.0	8.5		100.0(1,568)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1$, *** $p < .001$.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원하는 부모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영유아 성장관련 정보·양육방법’에 대해 교육받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69.4%), 다음으로 ‘보호자 역할’(17.1%), ‘아동 인권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4.9%), ‘미디어·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3.1%), ‘가족의 건강, 영양, 안전교육’(2.8%), ‘가족윤리 및 예절’(2.5%) 순으로 응답되었다.

제 특성별로 원하는 부모교육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최연소 자녀 구분, 어머니의 취업 여부, 부모교육 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최연소 자녀가 영아인 경우 ‘영유아 성장 관련 정보·양육방법’에 대한 요구가 (75.6%) 최연소 자녀가 유아(63.7%)인 경우에 비해 높았으며, 반면 유아 가구에 서는 ‘보호자의 역할’(19.5%), ‘미디어·인터넷 중독예방교육’(4.6%)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 가구에 비



해 어머니가 휴직중이거나 미취업 상태인 경우에 ‘영유아 성장관련 정보·양육방법’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 부재 등의 경우에는 비록 사례수가 매우 작기는 하지만 ‘보호자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어떤 교육보다 높은 수준(44.0%)으로 응답되었다. 모 부재 가구가 전반적으로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이 낮았으나, 부모교육을 원하는 경우 부모가 있는 가구와는 다른 욕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적으로 모 부재 등 가구의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XI-5-7 희망하는 부모교육 내용

단위: %(명)

구분	영유아 성장관련 정보·양육방법	보호자 역할	인권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가족윤리 및 예절	가족의 건강, 영양, 안전교육	미디어·인터넷 중독 예방	기타	계(수)
전체	69.4	17.1	4.9	2.5	2.8	3.1	0.3	100.0(2,072)
최연소 자녀 구분								
영아	75.6	14.5	3.9	2.3	2.3	1.4	0.1	100.0(1,134)
유아	63.7	19.5	5.7	2.7	3.2	4.6	0.6	100.0(938)
χ^2 (df)			45.2(6)***					
지역규모								
대도시	72.9	14.2	4.1	2.3	2.8	3.2	0.5	100.0(770)
중소도시	66.7	18.5	6.0	3.1	3.0	2.4	0.3	100.0(661)
읍면지역	67.3	19.8	4.8	2.0	2.4	3.7	-	100.0(641)
χ^2 (df)			18.5(12)					
모취업 여부								
취업	66.6	17.5	4.8	3.7	3.2	3.9	0.3	100.0(894)
휴직중	70.0	18.5	5.2	3.6	1.2	1.4	-	100.0(154)
미취업	72.4	16.0	4.9	1.2	2.7	2.3	0.4	100.0(1,010)
모부재 등	41.6	44.0	-	-	-	14.4	-	100.0(14)
χ^2 (df)			47.1(18)***					
부모교육 경험 여부								
있음	65.0	18.6	6.1	3.4	2.5	3.6	0.7	100.0(917)
없음	72.7	15.9	3.9	1.8	3.0	2.7	-	100.0(1,155)
χ^2 (df)			27.9(6)***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01$.

다음으로 원하는 부모교육의 방식과, 부모교육 방식 중 ‘집합교육’을 선호할 경우의 선호하는 장소를 응답하도록 한 결과를 <표 XI-5-8>에 제시하였다.

부모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모교육의 방식은 ‘집합교육’이었으며(48.8%), 다음으로 ‘1:1 컨설팅’ 33.5%, ‘온라인 교육’ 17.5%, 기타 0.2% 순으로 나타났다.

■ 표 XI-5-8 ■ 원하는 부모교육 방식

단위: %(명)

구분	원하는 부모교육 방식					선호하는 장소				
	집합 교육	1:1 컨설팅	온라인 교육	기타	계(수)	자녀가 다니는 기관	직장	육아종합 자원센터 등 전문기관	기타	계(수)
전체	48.8	33.5	17.5	0.2	100.0(2,072)	67.3	5.8	26.4	0.5	100.0(1,050)
최연소 자녀 구분										
영아	42.6	36.7	20.4	0.3	100.0(1,134)	64.3	7.4	27.9	0.4	100.0(531)
유아	54.4	30.5	14.9	0.1	100.0(938)	69.4	4.7	25.3	0.6	100.0(519)
χ^2 (df)	30.5(3)***					4.8(3)				
지역규모										
대도시	45.5	33.7	20.6	0.2	100.0(770)	68.3	6.5	24.5	0.7	100.0(352)
중소도시	43.3	41.5	15.0	0.1	100.0(661)	58.7	6.1	35.2	-	100.0(301)
읍면지역	59.7	24.0	15.8	0.4	100.0(641)	73.1	4.8	21.4	0.7	100.0(397)
χ^2 (df)	58.3(6)***					19.8(6)***				
모취업 여부										
취업	46.3	35.5	17.9	0.3	100.0(894)	70.9	10.5	18.5	0.2	100.0(435)
휴직중	36.3	46.9	16.4	0.5	100.0(154)	49.4	11.4	39.3	-	100.0(61)
미취업	53.1	29.2	17.6	0.1	100.0(1,010)	66.0	1.6	31.6	0.9	100.0(547)
모부재 등	47.5	45.4	7.1	-	100.0(14)	83.7	-	16.3	-	100.0(7)
χ^2 (df)	29.1(9)***					59.8(9)***				
부모교육 경험										
있음	58.4	28.9	12.4	0.2	100.0(917)	70.6	5.4	23.1	1.0	100.0(553)
없음	41.3	37.0	21.5	0.2	100.0(1,155)	63.7	6.3	29.9	-	100.0(497)
χ^2 (df)	63.9(3)***					11.3(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1$, *** $p < .001$.

최연소 자녀 구분별로 살펴보면, 최연소 자녀가 영아인 경우 ‘1:1 컨설팅’(36.7%) 방식과 ‘온라인 교육’(20.4%)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아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은 ‘집합교육’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으로 높



게 나타났고(59.7%), 중소도시는 '1:1컨설팅'에 대한 요구가 높고(41.5%), 대도시 지역에서는 '온라인 교육'(20.6%)에 대한 요구가 다른 지역보다 높아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별로는 미취업모 가구가 특히 '집합교육'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으며(53.1%), 휴직중인 경우(46.9%), 어머니가 부재한 경우 등(45.4%)에서는 '1:1 컨설팅'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가 부재한 경우 등에서 '1:1 컨설팅'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이 일반 가정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에 적합한 집합교육보다는 상담을 겸한 좀 더 심도 있는 교육에 대한 욕구가 잠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부모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 부모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에 비해 '1:1 컨설팅', '온라인 교육'을 원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그간 '자발적으로' 부모교육을 받지 않거나 '비자발적으로' 받지 못한 부모교육 미경험 집단은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이거나, 보편적인 교육이 아닌 심도 있는 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은 집단이기 때문이었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부모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많은 미경험자들에게 부모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미경험 부모들이 선호하는 방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접근성 확대를 추진하며, 보편적인 교육 내용을 넘어서 심도 깊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내용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집합교육을 선호하는 경우에 집합교육 실시 장소로는 '자녀가 다니는 기관'이 가장 많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67.3%),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26.4%, '직장' 5.8%, '기타' 05.% 순이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별로는 휴직중이거나 미취업 상태인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을 선호하는 비율이 각 39.3%, 31.6%로 30% 이상 응답된 반면,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는 18.5%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취업모 가구는 '자녀가 다니는 기관'을 선호하는 비율이 70.9%로 높았다. 이는 취업모 가구의 자녀가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할 경우 취업부모의 참여가 가능한 시간대에 개설하는 등 참여의 접근성이 높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취업부모를 위해서는 자녀 이용기관을 통한 부모교육 기회 확대가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3) 부모교육과 정부지원 연계에 대한 인식

앞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를 대상으로, 만약 양육수당, 아동수당, 보육료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할 때 부모교육을 실시한다면 부모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응답하도록 하였는바, 부모교육을 받겠다는 응답은 17.8%, 받을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82.2%로 나타났다. 이는 곧 처음부터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부모들의 경우, 대부분 부모교육을 원하지 않는데 정부지원 때문에 받을 수는 없다는 의사가 확고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XI-5-9 양육수당, 아동수당, 보육료 등 정부 지원 신청 시 부모교육 받을 의향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χ^2 (df)
전체	17.8	82.2	100.0(328)	
최연소 자녀 구분				
영아	17.6	82.4	100.0(169)	0.0(1)
유아	18.0	82.0	100.0(159)	
지역규모				
대도시	14.1	85.9	100.0(130)	5.4(2)*
중소도시	26.4	73.6	100.0(85)	
읍면지역	16.1	83.9	100.0(113)	
모취업 여부				
취업	22.4	77.6	100.0(144)	6.7(3)*
휴직중	7.8	92.2	100.0(19)	
미취업	13.7	86.3	100.0(155)	
모부재 등	29.0	71.0	100.0(10)	
부모교육 경험				
있음	26.3	73.7	100.0(35)	2.0(1)
없음	16.8	83.2	100.0(29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5$.

6 시사점

앞서 살펴본 영유아 부모들의 보육정책 관련 인식을 토대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은 ‘취업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강화하여 추진하며, 육아에 있어서도 ‘성평등’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8년도 보육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육아지원정책 방향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영유아부모들이 가장 필요성이 높다고 공감한 정책방향은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로 7점 중 6.3점에 해당하였으며, 이외 ‘남성의 양육참여 지원 확대’도 6.2점으로 다음 순위로 응답되었다. 다만,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취업부모를 대리한 ‘안심하고 맡길 수 있으며 충분한 이용 시간이 보장되는 기관’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일하는 부모의 ‘부모권’의 확대를 위한 방향이 동시에 고려되어 진정한 ‘일-생활의 균형’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영아와 유아에 대한 육아지원정책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본 조사에서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영아 가구의 경우 ‘가정양육수당 인상’(9.8%), ‘육아휴직 제도 정착 및 확대’(11.1%)가 유아가구보다 높게 나타나, 영아를 둔 가구는 ‘가정 내 양육 지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종합하면, 영아 가구의 요구는 취업한 부모라도 휴가·휴직제도를 통해 부모가 직접 영아를 돌볼 수 있는 부모권의 확대까지 포함한 가정 내 양육 지원의 요구라 볼 수 있어, 영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제도의 정착과 급여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부담 때문에, 혹은 직장에서의 눈치 때문에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아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보육·교육 이용이 이미 보편화된 상태로, 무엇보다 영유아가 이용하는 기관의 질 향상과 관련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국공립보육·교육기관으로 대표되는 양질의 서비스 기관 확대와 전반적인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해 보육·교육기관이 ‘영유아의 행복한 어린시절’을 제공해 주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보육·교육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제고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본 조사결과, 이용 가능한 기관이 충분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어린이집의 경우는 약 45%, 유치원의 경우는 약 27.7%이며, 이는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결과 대비 감소한 결과이며, 아이를 믿고 보낼만한 곳이 주변에 ‘없다’는 의견도 2015년 보다 각각 증가하여 그간의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가구에서 인식하는 접근성 수준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또한 영유아 가구에서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나타났으며(35.9%) 특히 대도시지역의 국·공립 확충의 요구가 높아(40.1%),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역별 균형적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어린이집, 유치원 외의 보육·교육인프라 중 ‘시간제보육반’의 이용경험은 7.1%에 불과하며, 아이돌봄서비스도 유형별로 최고 7.1% 이하의 영유아 가구만 이용경험이 있어 가정양육 가구를 위한 다양한 보육·교육인프라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어린이집·유치원은 무상보육·교육으로 대표되고 있는 만큼, 특히 서비스 이용기회의 형평성 측면이 더욱 중요하므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기관, 이를 대표하는 ‘국공립’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보접근성이 낮은 영유아 가구 집단에 대한 적극적이며 효과적인 정책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조사에서 보육·교육비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지원 대상이 보편적인 경우(예: 0-2세 보육료 지원, 3-5세 누리과정 지원, 가정양육수당)에 제도 인지도가 높았고, 영유아 가구 특성별로는 지원제도별로 해당 집단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제도에(예: 취업모 가구의 경우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유치원방과후 과정비 지원’ 등) 대해 많이 인지하고 있는 특징이 드러났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잘 인지하고 이용하면 문제가 없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하고도 정보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 접근성이 다소 낮게 나타나는 영아 가구, 모 부재 가구, 저소득 가구를 위한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 중 수혜자의 만족도가 낮은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 중 수혜 경험자의 만족도가 특히 낮았

던 제도는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보육료 지원’, ‘시간제보육료 지원’이었다. 가정양육수당은 곧 금액 수준이 만족도의 결정적 요인일 수 있어, 가정의 실제 양육비 부담에 근거한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시간제보육은 인프라의 확충과 신청절차의 편의성 증진으로 무엇보다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일차적인 방안이라 사료된다. 또한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은 2015년 대비 수혜 경험자의 만족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원 항목이었는데, 장애아 보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비용 지원수준을 포함해 종합적인 장애아 보육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여섯째, 시간제보육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 홍보 방안과 이용률 증진을 위한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본 조사결과 시간제보육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경우가 35.9%로 2015년의 40.0% 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용 경험도 7.1%에 불과하였다. 2015년 대비 인지도와 이용경험 모두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지속적인 인지도, 이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거주 지역 내 시간제보육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25.9%여서,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사례 중에서도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지역 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성도 제기되며,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기관 인지도 제고를 위해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과 함께 다양한 홍보물의 제작·배포, 지역카페를 통한 홍보 등 영유아 부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곳이 없는 ‘접근성 부족’,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없거나 신청절차의 어려움 등 ‘이용의 편의성 부족’, 아이가 낯설어 해서 이용이 어렵다는 ‘영유아 대상 서비스로서 1회성 서비스가 갖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에 우선 접근성의 확대가 필요한데, 시간제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영유아를 데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 확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타 가급적 동일한 인력에 의한 보육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일 요일, 동일 시간대의 안정적인 인력 배치 등 세심한 운영 관리도 필

요할 것이다.

일곱째,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의 부모교육 제공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기관 미이용 가구를 위한 부모교육 기회 확대와 필수적 교육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조사결과, 영유아 부모 중 부모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37.2%로 높지 않았으며,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교육기관 이용 경험자의 부모교육 경험은 30%~40%로 나타나는 반면, 기관 미이용 가구는 9.0%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부모교육경험이 낮을 뿐 아니라 보호자가 내용을 선택하므로, ‘아동학대 예방’ 등 필수적인 부모교육의 경험이 매우 낮게 나타나서 (15.7%) 우려를 자아내었다.

여덟째, 향후 부모교육 내용을 심도 있게 구성하고, 연령별·가구특성별 관심사항에 따라 특화, 심화하여 제공하며, 교육 대상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본 조사결과, 자녀 연령별로 원하는 교육 내용에 차이가 있었고, 어머니가 부재한 경우에는 ‘보호자의 역할’에 대한 교육 희망 비율이 현저히 높아(44.0%), 일반적인 가구와는 다른 내용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방식에 있어서도 영유아 연령, 부모 취업 여부 등에 따라 선호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었는데, 보편적인 가구에 대한 일반적인 부모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집합교육 방식’이 적합할 수 있으나, 특수한 욕구를 지닌 가구에 대해서는 교육 방식에 있어서도 ‘상담을 겸한 1:1 컨설팅 방법’을 활용하는 등 맞춤형 교육으로 부모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XII

정책 제언

- XII-1. 취업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XII-2. 육아정책의 성평등 관점 반영 강화
- XII-3. 돌봄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XII-4. 영아가구를 위한 양육 지원 강화
- XII-5. 보육·교육서비스 인프라의 접근성 제고
- XII-6.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 XII-7. 비용지원의 효과성 제고
- XII-8. 부모교육 지원 강화
- XII-9. 육아취약계층의 양육지원 강화
- XII-10. 유치원 유아교육서비스 개선



XII. 정책 제언

본 장에서는 2018년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수행을 통해 나타난 영유아 가구의 전반적인 영유아 양육실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실태와 만족도, 어린이집 이용 실태와 만족도, 정부의 영유아 양육 지원에 대한 영유아 가구의 인지도와 수혜 경험, 만족도 등을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도출된 시사점을 통합, 재구조화하여 향후 보육정책이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1 취업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보육실태조사에서는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취업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영유아 가구의 모 취업률은 2012년 조사에서 35.4%였으나, 2015년 36.8%, 2018년 44.2%로 증가하여, 취업모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취업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본 조사결과를 통해 향후 강화되어야 할 취업부모 일-가정 양립 지원의 방향은 1)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 보육·교육서비스 확대와 내실화, 2) 틈새 보육 지원 강화, 3) 취업부모의 '부모권' 제고로 요약될 수 있다.

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 보육·교육서비스 확대와 내실화

먼저, 취업부모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대리 돌봄 서비스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 보육·교육서비스'임을 고려하여, 이용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 가정에서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 보육·교육서비스의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특히 기관 이용 필요 시간이 상대적·절대적으

로 길 수밖에 없는 맞벌이 가구를 위해서는 장시간을 맡기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기관’의 접근성 확대가 무엇보다 절실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조사결과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지역별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며, 특히 믿고 맡길만한 기관은 더욱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양적인 측면에서 영유아 인구 대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결코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확대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입장에서 믿고 맡길만한 충분히 신뢰할만한 기관은 부족한 상황이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와 보육·교육서비스 기관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으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의 확충과 접근성의 균형적 확대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은 부족하다는 영유아 부모의 인식은 반대로 이용자가 믿고 맡길만한 기관으로 인식하는 ‘국·공립’ 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절대적인 요구로 나타나고 있어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의 지역적 균형을 고려한 확충을 지속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더라도 기관 보육·교육서비스의 장시간 이용을 필요로 하는 맞벌이 가구 등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는 이용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어린이집은 12시간의 운영시간을 유지하여 맞벌이 가구 등 장시간의 이용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는 필요로 하는 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018년 보육실태조사결과 어린이집은 이용 가구의 부모 취업률이 다른 기관보다 높고, 이용 목적도 부모의 대리 돌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어린이집의 취업부모 지원 기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어린이집은 이러한 기초를 유지하여, 취업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관 보육서비스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과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의 이용 가구의 경우 희망이용시간은 취업모 가구는 9시간 6분, 미취업모 가구는 7시간 48분으로 취업모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의 이용 희망시간이 길고, 취업모 가구는 현재 실제 이용 시간보다 적어도 한 시간 이상의 추가 이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부모의 근로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고려한 최소 필요 이용 시간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기관 이용 외 추가적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현재 모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대부분 17시 전에 하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시간 이용을 필요로 하는 취업모 가구의 경우에도 어린이집의 충분한 이용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어린이집 이용가구의 다빈도 이용 패턴에 맞추어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 시간을 조정하고 취업모 가구등 장시간 이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취업활동 등에 충분한 이용을 하지 못하는 이유와 원인 파악을 통해 충분한 이용의 장애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도 있다. 즉, 이러한 취업부모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2019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향에 반영하여, 기관의 12시간 운영은 보장하고, 취업부모의 근로를 위한 희망이용시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을 강화, 추가 이용시간에 대한 지원에도 부모의 취업여부를 고려한 기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나. 틈새 보육 지원 강화

이처럼, 취업부모가 가장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보육·교육서비스 기관이 충분히 확대되고, 충분한 이용시간을 보장하는 방향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기관 보육·교육서비스 외에 취업부모의 기관 이용과 출퇴근 시간 간 발생하는 돌봄 공백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여 수요자의 선택성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18년 보육실태조사결과, 혈연·비혈연(공공,민간)의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및 시간제 사교육 이용이 틈새 보육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이 나타났으며, 특히 시간제 사교육의 활용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 드러났다. 개인양육지원서비스는 주로 기관 이용시간과 부모의 출퇴근 시간 사이의 시간에 활용되고 있으며, 시간제 사교육은 하원 후 부모 퇴근 시간 전까지 활용되고 있었다.

개인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84.6%가 조부모에 의한 돌봄이며, 비혈연 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도 공공서비스보다는 민간의 육아도우미 활용 경향이 뚜렷하였는 바, 개인양육지원서비스는 개별 가구의 사적 관계망과 경제력 수준에 의존하여 사적으로 해결되고 있는 부분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용 비용 부담도 높아, 개별 가정 간 이용 가능한 자원과 경제적 부담 수준의 격차가 큰 부분이었다. 시간제 사교육도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사회구성원 간의 위화감, 박탈감을 증가시킬 수 있어 이러한 부분에 특히 맞벌이 가구의

틈새 돌봄 기능을 맡겨 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다.

장기적으로는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활용도 제고 등 다양한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기관 보육과 부모의 출퇴근 시간 간의 틈새를 줄여가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중·단기적으로는 현재 발생되고 있는 돌봄 틈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공공 아이돌보미의 확대와(인프라 확대) 비용 지원 소득 계층의 확대(2019년 시행 예정), 민간 육아도우미의 관리 방안 등 틈새 보육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다. 취업부모의 부모권 제고

취업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 양질의 믿을 수 있는 대리 돌봄 시스템의 구축 뿐 아니라, 진정한 ‘일-생활의 균형’을 지향하여 취업 부모라도 직접 자녀를 돌보고 함께 할 시간을 보장하는 ‘부모권 제고’ 방향도 강조되어야 한다. 2018년 조사결과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정책 지원 중 부모의 시간 지원과 관련되는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확대’, ‘유연근무제 확대’에 대한 요구도 2015년 조사결과 대비 요구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어머니가 취업중이거나 휴직 중인 경우 이러한 부모권 확대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육아휴직은 법적인 접근성은 매우 높은 상태이나, 직장 문화 등 이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상황이며, 유연근무제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향후 부모권 확대의 측면에서 육아휴직 급여 수준의 상향으로 맞벌이 가구 뿐 아니라, 외벌이 가구의 가장, 저소득 취업부모까지도 부담없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대기업, 공공기관 근로자 위주의 이용에서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육아정책의 성평등 관점 반영 강화

2018년 조사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4년제 대학 졸업 비율은 각각 45.4%, 44.2%로 2015년도 조사에 비해서도 부모 간 학력 격차가 더욱 감소하여 동등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처럼 부모의 학력수준이 거의 동등해졌으나, 취업률에는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이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취업률이 2015년 조사 대비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44.2%) 여전히 5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한편, 유사한 맥락에서 맞벌이 가구라도 어머니가 주로 육아를 맡는 역할분담으로 인해, 출산·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 둔 경험은 어머니가 40.3%로 2015년 32.3% 대비 증가하였고, 육아휴직도 여성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일-가정 양립 지원’도 주로 ‘취업부모’가 아닌 ‘취업모’를 대상으로 인식하여 취업여부를 불문하고 여성이 ‘육아’를 전담하는 경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향후에는 육아지원제도를 남녀 모두가 활용하여 ‘자녀를 함께 키우는 양육문화’를 형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상대적으로 부족한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확대와 이용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이는 2018년 조사에서 신규로 질문한 ‘영유아 가구 육아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의 필요성에 대해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외에 가장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된 정책 지원의 방향성이 ‘남성의 양육참여 지원 확대’(필요성에 대한 동의도 7점 중 6.2점)임을 근거로 한다.

가. 대국민홍보, 부모교육을 통한 ‘성평등한 육아’에 대한 인식 제고

육아정책에 ‘부모가 함께 하는 육아 지원 정책’이라는 성평등 관점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국민의 인식과 직장의 근로문화가 함께 변화해야 한다. 이에 ‘육아’가 여성만의 역할이 아니며, 부모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부모교육을 통해 영유아 부모에게는 특히 ‘성평등 육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아버지 교육을 통해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육아참여 방법, 관련 제도 등 정보를 제공하여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확대하고 부모간 양육 역할의 균형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

나. 남성의 가사, 육아참여 지원 제도 접근성 확대

2018년 보육실태조사결과, 자녀 돌봄에 대한 참여정도가 아버지는 5점 중 3.6 점, 어머니는 4.7점으로 아버지는 여전히 자녀 돌봄에 대한 참여 정도가 낮았고, 부부간 가사 분담, 자녀 양육 분담 비율도 어머니가 전체 10 중 7 이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균형이 여전하였다.

즉, 성평등한 육아를 위해서는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의지만이 아니라, 제도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먼저, 아버지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정책과 연계된 직장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일-생활의 균형을 찾는 정책이 전 사업장의 근로환경에서 정착되어야 하며,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직장의 '문화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여성 위주의 육아 역할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의 육아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우선적인 정책 지원으로 남성의 가사, 육아참여율 증진을 위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돌봄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2018년 보육실태조사결과에서도 핵가족화, 만혼화, 고령출산 경향에 따라 부모 이외에는 양육의 지원자가 없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자녀 양육을 직접 도와주는 인력이 '없다'는 응답이 55.2%로 2015년 결과(51.3%)에 비해서도 증가하였다.

부모 외 조력자가 있는 경우에도 주로 조부모의 도움에 의존하는 형태가 드러났는데, 향후 만혼화, 출산의 고령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개인별 격차가 큰 네트워크인 조부모 등 혈연공동체에의 높은 육아지원 의존도는 결코 긍정적인 상황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에 향후 사적관계망에 대한 육아지원 의존도는 낮출 필요가 있다.

만혼화, 출산의 고령화에 따라 혈연 네트워크가 부재하거나, 활용할 수 없는 경우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반대로 육아지원에 있어서 기관 보육·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기관보육·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육아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더라도, 기관보육교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돌봄서비스 수요, 기관 미이용 가구의 양육의 조력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체계와 지역 중심의 긴급 돌봄 서비스 확대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4 영아가구를 위한 양육 지원 강화

가. 어린이집의 영아보육 기능 강화

2018년 보육실태조사에서도 이전 조사결과와 동일하게 영유아가 가장 먼저 이용하는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은 어린이집(9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이용 시기도 지속적으로 하향화되어, 55.7%가 생후 24개월 미만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시작하며, 평균 이용 시작시기도 2015년 24.1개월에서 2018년 22.7개월로 빨라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어린이집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최초의 집단보육 경험을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즉, 장기적으로는 어린이집의 경험이 국민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결정적일 수 있으며, 이미 영아기에 어린이집 이용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어린이집의 '영아보육'의 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어린이집 외에 유치원이라는 대체제가 있는 유아보육·교육서비스 기관에 비해, 대체제가 없는 영아보육기관에 대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선 확대를 추진하며, 영아보육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질 관리 등 집중적 질 개선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나. 영아 가정양육가구 지원 강화

한편, 영아기 자녀에 대해 부모들이 선호하는 양육 방식은 여전히 기관보육보다는 '가정 양육'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한적인 형태로나마 가정양육을 하는 영아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 방향은 1)취업부모의 직접 돌봄 지원, 2)가정 내 양육 지원 인프라의 접근성 확대와 내실화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취업한 부모라도 영아의 직접 돌봄을 지원하는 방안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는 취업부모의 부모권 확대와 연관된다. 가장 대표적인 취업부모의 자녀 직접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인 육아휴직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대체율을 지속 확대하며, 실질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 공기업 중심의 이용에서 저소득 근로자, 민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이용이 확대 되도록 사업장 부담을 경감시키고 근로자의 이용이 오히려 사업장에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 내 양육을 하는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가정 내 양육 지원 인프라를 확대하여, 가정 내 양육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행복한 가정 내 양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즉, 가정 내 양육을 할 경우의 우려점인 폐쇄적 육아, 독박육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모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종합 양육지원 인프라를 통해 양육 상담, 놀이 및 발달 지원 프로그램 등 가정양육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긴급한 단시간 대리돌봄 수요 외에도 부모의 휴식과 여유도 지원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의 접근성과 인지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특히, 기관 보육만이 아닌 가정 내 양육도 '양질의 가정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양육의 주체인 부모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즉, 장시간 대리 돌봄이 아니더라도 부모에게도 휴식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휴식 제공과 양육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시간제 보육,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보미 등 다양한 양육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대, 접근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부모교육, 부모-자녀 프로그램 등 부모의 역할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5 보육·교육서비스 인프라의 접근성 제고

부모의 취업 지원, 자녀의 발달에 대한 기대 등 보육·교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다양한 만큼,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도 다양한 기능의 보육·교육서비스의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우선,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서비스로서,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기관 보육·교육서비스’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이며, 이제는 단순히 양적인 공급을 넘어서, 소중한 자녀를 믿고 맡길만한 ‘양질의 서비스 기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집중하여야 한다. 즉, 부모들이 가장 신뢰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인식하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확대하며, 특히 지역별로 국·공립 기관이 균형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별 공급 수준을 고려한 확충의 추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매일 일정 시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단시간’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의 구축도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지정된 어린이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인데, 2018년 조사결과 시간제보육의 이용 경험률은 전체 영유아 인구 중 7.1%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2015년의 3.3%에 비하면 증가율이 매우 높으나, 절대적인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므로, 이용률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경험률이 6.0%로 도시지역에 비해 낮은 읍·면지역에서 시간제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은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간제보육 인프라가 특히 부족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시간제보육 제공 어린이집 확대가 필요하다.

한편,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시간제보육에 대한 인지도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18년도 조사결과, 시간제보육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35.9%에 달해 제도 인지도가 낮았고, 지역 내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25.9%로 더욱 낮았다. 향후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접근성 제고, 홍보물 제작, 배포, 지역카페를 통한 홍보 등 영유아 부모에게 친근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 적극적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한편,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역 종합육아지원전달체계도 지역별로 인프라의

차이가 커서, 특히 읍·면지역이 인프라가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설치 시 기존의 설치율을 고려해 미설치 지역부터 확충하며, 좀더 인프라 확대가 손쉬운 주요 기능에 집중한 분소를 확충하거나, 이동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단기적으로는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외 타부처의 사업이나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가정 양육 인프라 확충과 지원 대상 확대로 전반적인 가정 내 양육 지원의 인프라를 갖추어 접근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6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2018년 보육실태조사결과에서도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가구들의 ‘서비스 질’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한 예로 비용을 더 많이 내더라도 질 높은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겠다는 의사가 42.5%로 2015년보다(29.6%) 증가하였다.

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전반적인 어린이집·유치원의 질 제고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에 대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요구가 어떠한 정책에 대한 요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공립 기관은 ‘양질의 서비스’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국민의 요구도가 높으므로, 보육정책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지속적 확충을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 하겠다. 다만, 무리한 양적 확충을 추진함으로써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낮아진다면, 전반적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철저한 질 관리가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나. 보육료 조정 및 인력 증원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

한편, 전반적인 질 제고의 방향으로 어린이집은 보육서비스 질 제고로 유치원과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전 조사결과에 이어 2018년 조사결과에서는 영아기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유아기에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어린이집의 유아보육 경쟁력 강화와 이를 위한 서비스 질 제고가 필요하다.

한편, 어린이집 서비스 개선 요구 중 ‘인력증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는데, 영유아 부모들은 개별 인력의 자격 수준 등 상향 보다는 ‘증원’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낮추는 것이 아동과의 질적인 상호작용 등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결정적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린이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우선적으로, 기관의 운영 시간 보장과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인력 추가 배치 등 인력 증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인력 증원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보육료 단가에 대한 조정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2018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유치원의 이용 비용은 2015년 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2015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물가상승을 고려 시 오히려 감소하였다고 보여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부모 부담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결과로도 볼 수 있으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 여건의 차를 유발하여 결국 서비스 질의 격차로 이어질 개연성도 높음을 고려하면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최소한 무상 보육·교육 기관 간에는 동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육료 단가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장애아보육 환경 개선

다음으로, 장애아보육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가구조사결과, 영유아 부모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여 장애가 있는 자녀를 조기에 진단, 적절한 양육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영유아의 보육기관 이용률은

23.0%로 높지 않은 편이며, 보육기관 이용 시의 애로사항은 등하교의 불편, 특수 교사의 부족, 편의시설 부족 등이 지적 되었다. 이에 장애아보육기관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장애아보육 전문 인력 양성 및 적절 배치를 지원하며, 편의시설 등 장애아보육을 위한 보육환경 구축을 통해 장애영유아가 조기에 적절한 보육환경에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편하고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아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야 한다. 한편 장애아보육료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2015년 대비 대폭 하락하였는 바, 장애아보육을 위한 적절한 비용 지원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라. 긴급돌봄지원서비스의 이용 편의성 제고

마지막으로 시간제 보육 등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2018년 보육실태조사결과, 시간제 보육의 미이용 이유는 ‘집에서 땀’(접근성 부족),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없음’, ‘신청절차 어려움’(이용 편의성 낮음), ‘아이가 낯설어 함’(1회성 단시간 서비스의 한계) 등이 주요한 이유로 지적되었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확충을 통해 접근성을 확대하여 긴급한 돌봄 서비스 필요 시 이용 가능성 증대, 신청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또한 발달 특성상 시간제보육 활용이 어려운 영영아 등을 위한 가정으로의 긴급돌봄 서비스 인력 등 파견 서비스 연계(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및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7 비용지원의 효과성 제고

2018년 조사결과, 영유아 가구가 보육교육기관 이용에 지출하는 비용이 2015년 평균 96,500원에서 149,600원으로 증가하고, 가구소득 대비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에서 보육교육기관 이용 지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 가구에서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나므로, 비용지원의 대상효율성을 제고하여 저소득 가구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결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이용하겠다는 의사가 40.5%로 2015년 대비 증가하였고, 특히 비용 부담이

낮은 어린이집은 추가 비용 부담 의사가 42.5%로 타 기관 유형 대비 더 높았다. 또한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보육료를 일부 자부담할 수 있다는 응답도 44.0%가 응답하여 부모들이 일부 비용 부담을 하더라도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비용 부담 의사는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보육료지원체계 개편 시 일부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화 되는 자부담 체계 도입을 고려하여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은 줄여 대상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국가의 재정 부담도 경감할 필요가 있다.

8 부모교육 지원 강화

본 조사결과, 영유아 부모 중 81.6%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은 37.2%에 불과하였다.

향후 더 많은 부모에 효과적인 부모교육 제공을 위해, 부모교육의 인프라 접근성 제고, 부모교육 콘텐츠 내실화, 수요자 맞춤형 부모교육 제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 부모교육 인프라 접근성 제고

우선,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의 부모교육 제공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본 조사에서 부모교육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55.1%), 유치원(29.3%)에서 받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향후 부모교육을 받고 싶은 기관도 자녀가 다니는 보육·교육기관으로 응답되었다. 즉, 어린이집·유치원의 부모교육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콘텐츠, 강사 양성 및 파견 등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기관은 공식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부모와의 다양한 채널의 소통 강화(부모 상담, 자녀발달 관련 상담 등)가 필요함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부모교육 인프라 확대의 일환으로, 이러한 보육·교육서비스 기관 미이용 가구를 위한 부모교육 기회도 확대되어야 한다. 2018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기관 미이용 시 부모교육 경험은 9.0%에 불과하였는바, 이동이 어려운 영아 부모를 위해 '찾아가는 1:1 컨설팅' 등 접근이 용이한 부모교육 인프라를 다양화·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는 자녀 돌봄서비스를 교육과 함께 제공하는 등 이용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부모교육 콘텐츠 내실화

형식적인 부모교육이 아닌 내실 있는 부모교육, 효과적인 부모교육을 위해 자녀연령별 희망 교육 내용 반영, 특수육구별 콘텐츠 개발 등 콘텐츠 내실화가 필요하다. 장애아 부모, 조손 가정 보호자, 이주민 가정의 부모, 한부모 등 특수한 양육의 애로사항을 지닌 집단을 위한 심도 있는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수요자 맞춤형 부모교육 제공

1) 육아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부모교육 제공

일률적·형식적 부모교육이 아닌, 수요자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부모교육 제공이 필요하다. 우선 취업부모의 경우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서의 교육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기관에서 부모교육 제공 시에는 취업부모를 배려한 부모교육 제공 시간 등을 조정하며, 직장에서는 영유아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 부모교육 이수에 대한 기회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등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부모교육 강사의 직장 파견 교육 제공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한다.

이외, 이주민 가정, 한부모, 조손가정 등 주된 양육역할을 하는 ‘어머니’가 부재하거나, 어머니가 양육 역할을 하기에 어려운 계층, 특수한 욕구를 지닌 아동이 있는 가정 등 ‘육아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 교육이 지원되어야 한다. 이들은 육아정보의 접근성이 낮고 특수한 욕구를 지닌 가정으로, 모 부재 가정, 이주민 부모 가정, 조손 가정, 장애아동 가정 등을 위한 심도 있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예: 각 가구유형별 아동 양육의 특성과 유의점, 보호자의 역할 등)하고, 효과성 높은 1:1 컨설팅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부모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보육·교육기관 미이용 가구를 위한 맞춤형 부모교육 제공 및 관리

한편,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는 부모교육 경험률이 낮아(9.0%), 부모교육의 사각지대로 분류될 수 있었다. 가정 내 육아 조력자가 없는 가정 내 양육 가구가 부모교육을 받기에 편리한 부모교육 방식과 장소를 활용하여 부모교육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어린이집·유치원 외의 다양한 지역사회 부모교육 전달체계를 통한 기회 확대. 가정으로 찾아가는 1:1 컨설팅과 자녀 발달 상담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기관 미이용 가구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필수적 부모교육 중 일부는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나므로,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 지원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아동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 교육은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9 육아취약계층의 양육지원 강화

부모교육 외에도 저소득 가구, 이주민 가구, 한부모 가구 등 육아취약계층에 대한 전반적인 양육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주민 가구, 한부모 가구 등 육아취약계층이 2018년 조사에서 2015년 대비 상당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 이러한 육아취약계층의 양육지원 욕구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읍·면지역 어머니 중 12.3%가 이주민으로 나타났으며, 읍면지역 거주 이주민 가구의 경우 아이의 사회부적응, 양육방식갈등, 대인관계 관련 부적응 등의 양육의 어려움을 도시지역 거주 이주민 가구에 비해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에는 한부모 비율도 증가하였다. 어머니가 없는 한부모 가구의 경우 육아정보의 접근성이 부족하며, 정부 정책 인지율도 낮게 나타나 정부정책지원의 수혜에서 누락될 가능성도 엿보였고, 보호자의 부모교육 참여 비율도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육아취약계층의 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취약계층에 대한 육아지

원제도의 정보 제공을 위한 적극적 홍보로 정보접근성을 증진시키며, 육아취약계층의 욕구별 맞춤형 부모교육 제공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저소득가구의 경우 보육·교육비 부담이 고소득 가구에 비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격차 없는 양육환경 제공을 위해, 전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양육비 경감 대책이외에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선별적인 지원 대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 유치원 유아교육서비스 개선

마지막으로 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과 함께 우리나라 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 기관 보육·교육서비스의 한 축인 ‘유치원’ 유아교육 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제언한다.

가. 지역 균형을 고려한 유아교육 인프라 구축

저렴하며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유치원의 지역별 균형 배치가 중요하다. 조사결과, 대도시지역은 유치원 이용 아동수(40.5%) 대비 국공립 이용 아동수(25.3%)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 바, 향후 대도시의 취약지역 중심으로 국공립유치원의 우선 확충이 요구된다.

나. 유치원의 취업부모 지원 기능 강화

유치원의 경우도, 취업부모 이용률이 2015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취업모가 현재 이용을 희망하는 시간(8시간 48분) 보다 실제 이용 시간이 1시간 6분가량 짧은 것으로 나타나며, 조기 등원 및 6시 이후 하원 수요도 실제 이용 보다 높게 나타나므로, 필요로 하는 시간만큼의 이용시간 연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다. 사립유치원 비용 절감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

본 조사결과,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비용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고, 사립유치원은 고비용에 비해 서비스 만족도가 국공립유치원보다 전반적으로 낮았다. 2015년 대비 사립유치원의 비용은 증가폭이 매우 컸는 바, 부모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부모 참여 기회 확대 등 사립유치원에서 특히 만족도가 낮은 서비스 부분을 중심으로 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훈·이재희·이혜민(2017).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운진·양미선·김정민(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경기도(2018). 2018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 대한민국 정부(2017). 100대 국정과제.
-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7a). 어린이집·유치원 포함 시설 이용률.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2017b).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 보건복지부(2018a). 보육정책 DW 시스템(2018. 11. 기준).
- 보건복지부(2018b). 2018 보육사업 안내.
-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울특별시(2018). 2018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 인천광역시(2018). 2018 인천시 보육사업 안내.

〈홈페이지〉

- 강원도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gw/gnews/sub04_01?mode=readForm&articleSeq=20180118173627240(2018. 11. 13. 인출).
- 경상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gyeongnam.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2018. 11. 13 인출).
- 경상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s://gyeongbuk.childcare.go.kr/ccef/comm>

- unity/notice/NoticeSl.jsp?flag=Sl&BBSGB=47&BID=146574&clsfccode=&offset=(2018. 11. 13 인출).
- 광주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gwangju.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flag=Sl&BBSGB=47&BID=146495> (2018. 11. 08 인출).
- 교육통계, 행정구역별 설립별 학생 수.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4203&survSeq=2018&itemCode=01&menuId=m_010108&uppCd1=010108&uppCd2=010108&flag=A(2018. 11. 14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077&efYd=20181224#>(2018. 11. 12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596&efYd=20180921#>(2018. 11. 12 인출).
- 대전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daejeon.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flag=Sl&BBSGB=47&BID=146477> (2018. 11. 13 인출).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daegu.go.kr/woman/index.do?menu_id=00050121(2018. 11. 08 인출).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busan.go.kr/mom/2017nurcare>(2018. 11. 13 인출).
-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http://www.sejong.go.kr/prog/announce/kor/sub02_03_03/listC/view.do?namno=23716&an_search_con=announce_subject&searchWrd=보육정책위원회&pageindex=1(2018. 11. 13 인출).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ulsan.go.kr/rep/ubnotify/24976?gosiGbn=A>(2018. 11. 13 인출).
- 전라남도 홈페이지. <http://www.jeonnam.go.kr/J0203/boardView.do?seq=15723&menuId=jeonnam0203000000>(2018. 11. 13 인출).
-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board/view.jeonbuk?boardId=JEONBUK_ANNOUNCE&menuCd=DOM_000000102001002001&startPage=49&keyword=수납한도액&dataSid=1670153(2018. 11. 13 인출).
-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jeju.childcare.go.kr/ccef/commun>

- ity/notice/NoticeSl.jsp(2018. 11. 13 인출).
- 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1978(2018. 11. 13 인출).
-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s://chungbuk.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flag=Sl&BBSGB=47&BID=146518>(2018. 11. 13 인출).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8). 소득10분위별 가계 수지(전국, 2인이상).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H008&conn_path=I2(2018. 10. 31 인출).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2018). 성/취업시간별 취업자.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29S&conn_path=I2(2018. 10. 31 인출).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17). 시도별 평균 초혼연령.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conn_path=I2(2018. 10. 31 인출).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17). 시도/출산순위별 모의 평균 출산연령.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0&conn_path=I2(2018. 10. 31 인출).
- 통계청 보도자료(2017년 12월 15일) 2018 일·가정 양립 지표.
- 통계청 E-나라지표: 한부모 가구비율.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578&board_cd=INDX_001(2018. 10. 31 인출).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27.101.213.4/index.jsp#>(2018. 11. 13 인출).

부록

1. 부록 표
2. 가구조사표
3. 아동조사표

▣ 부표 IV-2-1 ▣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육아정보 제공

단위: %(명), 점

구 분	인지를	이용경험					도움정도(5점 평균)	
		주1회 이상	월 1~3회	분기별 1~3회	연 1~3회	이용경험 없음	평균	(수)
전체	83.0	2.9	6.7	7.3	16.4	66.7	3.6	(302)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81.2	3.5	5.9	7.5	14.9	68.3	3.7	(158)
유아	84.8	2.3	7.4	7.1	17.9	65.3	3.6	(144)
$\chi^2(df)/t$				3.2(4)			0.6	
지역규모								
대도시	87.1	3.4	6.6	8.0	16.9	65.0	3.6	(162)
중소도시	79.3	3.3	5.9	7.1	15.0	68.7	3.5	(72)
읍·면	78.1	1.1	7.6	5.8	16.8	68.7	3.7	(68)
$\chi^2(df)/F$				5.4(8)			0.8	
모취업 여부								
취업	83.7	1.3	4.8	7.7	20.2	66.1	3.6	(130)
휴직중	86.0	7.9	4.8	6.7	17.1	63.5	3.7	(24)
미취업	81.6	3.3	8.0	7.3	12.6	68.9	3.6	(141)
부재, 모름	91.3	10.7	29.0	.0	21.3	39.1	3.6	(7)
$\chi^2(df)/F$				40.7(12)***			0.1	
모연령								
29세 이하	81.4	1.3	11.2	9.5	15.8	62.3	3.4	(22)
30~34세	84.0	3.5	3.6	9.1	14.8	69.1	3.7	(64)
35~39세	81.6	3.3	6.7	5.3	17.2	67.4	3.7	(144)
40~44세	85.8	1.7	5.9	9.3	16.6	66.4	3.5	(57)
45세 이상	76.0	-	13.6	7.3	14.1	65.0	3.7	(8)
부재, 모름	91.3	10.7	29.0	-	21.3	39.1	3.6	(7)
$\chi^2(df)/F$				32.0(20)**			0.9	
기관이용경험								
어린이집만 이용	82.3	3.2	6.6	8.7	16.9	64.6	3.7	(134)
유치원만 이용	79.0	8.1	4.9	5.9	4.7	76.4	4.4	(6)
둘 다 이용	83.7	1.9	6.7	7.0	17.4	67.1	3.5	(124)
미이용	83.6	3.6	7.0	5.1	15.0	69.2	3.5	(38)
$\chi^2(df)/F$				10.0(12)			4.5***(a)	
		자주	가끔	1-2번	경험없음			
2015년	85.2	2.5	32.4	23.4	41.6		3.8	(100)
2012년	21.5	0.6	2.8	1.8	94.8		3.79	(11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3) 기관이용경험은 과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중인 경우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1$, *** $p < .001$

▮ 부표 IV-2-2 ▮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부모상담 및 검사

단위: %(명), 점

구 분	인지율	이용경험					도움정도(5점 평균)	
		주1회 이상	월 1~3회	분기별 1~3회	연 1~3회	이용경험 없음	평균	(수)
전체	59.4	1.7	2.2	5.6	8.7	81.8	3.6	(125)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57.4	2.0	2.0	5.5	8.5	82.0	3.7	(67)
유아	61.4	1.5	2.3	5.6	9.0	81.6	3.6	(58)
$\chi^2(df)/t$				0.5(4)			0.2	
지역규모								
대도시	60.7	1.3	1.9	5.3	9.3	82.3	3.6	(61)
중소도시	57.1	3.3	1.2	5.5	9.4	80.5	3.6	(31)
읍·면	59.0	1.1	3.8	6.1	6.9	82.1	3.8	(33)
$\chi^2(df)/F$				6.4(8)			0.8	
모취업 여부								
취업	60.5	2.0	2.7	5.3	8.9	81.1	3.6	(54)
휴직중	58.2	-	-	1.8	7.8	90.4	3.1	(6)
미취업	58.2	1.8	2.1	5.3	8.6	82.1	3.7	(61)
모부재 등	70.6	-	-	35.7	12.3	52.1	3.5	(4)
$\chi^2(df)/F$				24.6(12)**			0.6	
모연령								
29세 이하	53.5	-	5.9	4.8	9.7	79.6	2.9	(10)
30~34세	62.9	0.9	0.8	3.3	11.3	83.6	3.6	(26)
35~39세	56.7	2.0	2.6	5.7	8.7	81.0	3.8	(60)
40~44세	62.4	2.8	2.0	5.8	6.3	83.2	3.5	(22)
45세 이상	59.9	-	2.4	3.7	3.3	90.5	3.7	(3)
부재, 모름	70.6	-	-	35.7	12.3	52.1	3.5	(4)
$\chi^2(df)/F$				31.6(20)**			1.7	
기관이용경험								
어린이집만 이용	60.3	1.3	2.4	7.7	9.4	79.2	3.8	(58)
유치원만 이용	70.8	5.9	2.7	-	5.2	86.1	3.0	(3)
둘 다 이용	59.6	2.0	2.6	4.6	9.6	81.3	3.7	(54)
미이용	54.8	1.3	0.6	3.7	5.6	88.8	3.1	(10)
$\chi^2(df)/F$				10.4(12)			2.7**	
		자주	가끔	1~2번	경험 없음			
2015년	63.2	0.3	14.3	12.5	72.8		4.0	(39)
2012년	18.5	0.1	1.1	1.2	97.5		3.73	(49)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3) 기관이용경험은 과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중인 경우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1$

▣ 부표 IV-2-3 ▣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부모교육

단위: %(명), 점

구 분	인지를	이용경험					도움정도(5점 평균)	
		주1회 이상	월 1~3회	분기별 1~3회	연 1~3회	이용경험 없음	평균	(수)
전체	66.7	2.2	1.7	3.9	12.8	79.4	3.9	(152)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64.9	2.2	2.0	3.6	11.9	80.3	3.9	(83)
유아	68.5	2.1	1.5	4.2	13.6	78.6	4.0	(69)
$\chi^2(df)/t$				0.8(4)			-0.5	
지역규모								
대도시	66.2	1.6	1.4	3.4	13.1	80.5	3.9	(65)
중소도시	63.7	2.6	1.1	3.6	9.6	83.0	3.9	(32)
읍·면	70.9	2.7	3.1	5.2	15.3	73.6	4.0	(55)
$\chi^2(df)/F$				9.4(8)			0.4	
모취업 여부								
취업	70.1	2.4	1.7	3.4	14.3	78.3	3.9	(68)
휴직중	61.0	3.0	.0	6.2	11.3	79.5	4.1	(12)
미취업	64.4	1.9	2.1	3.7	11.0	81.3	3.9	(68)
모부재 등	70.3	.0	.0	12.3	30.5	57.1	4.1	(4)
$\chi^2(df)/F$				8.5(12)			0.4	
모연령								
29세 이하	60.1	1.8	6.9	10.6	9.5	71.1	4.0	(13)
30~34세	70.4	1.7	-	2.3	11.9	84.1	3.9	(28)
35~39세	63.8	2.2	2.5	4.2	12.5	78.6	4.0	(73)
40~44세	71.8	2.9	1.1	2.9	15.3	77.8	3.8	(33)
45세 이상	57.5	-	-	2.5	-	97.5	3.0	(1)
부재, 모름	70.3	-	-	12.3	30.5	57.1	4.1	(4)
$\chi^2(df)/F$				28.5(20)*			0.7	
기관이용경험								
어린이집만 이용	67.1	1.2	2.4	3.0	13.6	79.9	3.8	(64)
유치원만 이용	75.7	11.7	2.6	6.0	10.4	69.3	3.8	(6)
둘 다 이용	67.2	2.2	1.7	3.8	12.4	79.8	4.0	(64)
미이용	62.9	2.4	-	5.9	12.3	79.4	4.0	(18)
$\chi^2(df)/F$				17.9(12)			0.9(a)	
2015년	65.2	자주 1.6	가끔 13.7	1-2번 19.4	경험 없음 65.3		3.9	(5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3) 기관이용경험은 과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중인 경우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5$

▮ 부표 IV-2-4 ▮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놀이·체험 프로그램

단위: %(명), 점

구 분	인지를	이용경험					도움정도(5점 평균)	
		주1회 이상	월 1~3회	분기별 1~3회	연 1~3회	이용경험 없음	평균	(수)
전체	76.0	2.6	7.3	9.0	16.0	65.0	3.9	(284)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74.8	3.5	7.2	7.8	15.8	65.6	3.9	(149)
유아	77.2	1.8	7.5	10.1	16.2	64.4	3.9	(135)
$\chi^2(df)/t$				3.2(4)			0.3	
지역규모								
대도시	78.2	2.2	6.0	10.6	18.5	62.7	3.9	(152)
중소도시	69.8	4.2	8.8	6.8	14.3	65.9	3.9	(66)
읍·면	77.9	2.1	8.9	7.6	12.3	69.1	3.8	(66)
$\chi^2(df)/F$				12.1(8)			0.7	
모취업 여부								
취업	76.2	1.6	6.5	9.2	15.6	67.1	3.8	(112)
휴직중	80.3	5.5	4.7	4.4	19.9	65.5	4.0	(24)
미취업	74.5	3.2	7.8	9.7	15.7	63.5	3.9	(142)
모부재 등	97.0	.0	25.7	7.6	17.9	48.8	3.7	(6)
$\chi^2(df)/F$				17.4(12)			1.8	
모연령								
29세 이하	65.9	-	17.4	14.9	15.4	52.3	3.7	(20)
30~34세	75.3	2.7	5.9	9.7	11.1	70.6	3.9	(56)
35~39세	74.5	2.9	7.1	9.0	18.6	62.4	4.0	(144)
40~44세	82.5	3.2	5.8	7.9	14.8	68.3	3.7	(52)
45세 이상	68.6	-	3.3	2.1	25.0	69.6	3.7	(6)
부재, 모름	97.0	-	25.7	7.6	17.9	48.8	3.7	(6)
$\chi^2(df)/F$				31.0(20)*			1.1	
기관이용경험								
어린이집만 이용	76.1	0.6	7.5	8.8	17.4	65.7	3.9	(119)
유치원만 이용	79.3	13.4	8.3	5.9	9.7	62.7	3.8	(8)
둘 다 이용	77.5	2.4	6.9	9.2	16.0	65.5	3.9	(119)
미이용	72.0	6.2	7.7	9.6	14.0	62.6	3.8	(38)
$\chi^2(df)/F$				22.7(12)**			0.3	
		자주	가끔	1-2번	경험없음			
2015년	84.6	8.4	33.0	29.4	29.2	4.0	(115)	
2012년	19.8	0.3	1.3	1.2	97.2	3.92	(7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3) 기관이용경험은 과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중인 경우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5$, ** $p < .01$

▣ 부표 IV-2-5 ▣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장난감·도서 대어

단위: %(명), 점

구 분	인지율	이용경험					도움정도(5점 평균)	
		주1회 이상	월 1~3회	분기별 1~3회	연1~3회	이용경험 없음	평균	(수)
전체	87.5	2.5	14.2	9.2	15.6	58.6	4.0	(387)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87.4	2.6	15.9	10.4	14.8	56.4	4.0	(223)
유아	87.6	2.3	12.5	8.0	16.4	60.8	3.9	(164)
$\chi^2(df)/t$				4.3(4)			1.4	
지역규모								
대도시	87.8	2.1	12.6	11.3	15.9	58.2	4.0	(185)
중소도시	85.7	4.3	16.6	7.2	16.9	55.1	4.1	(106)
읍·면	89.0	1.3	15.0	6.8	13.5	63.3	3.8	(96)
$\chi^2(df)/F$				13.4(8)*			3.5**(a)	
모취업 여부								
취업	86.2	2.2	12.9	9.5	16.1	59.4	3.9	(154)
휴직중	91.2	2.0	23.9	9.2	21.4	43.4	4.2	(42)
미취업	87.8	2.9	13.3	8.9	14.6	60.4	4.0	(186)
모부재 등	100.0	-	25.7	8.7	3.0	62.7	3.6	(5)
$\chi^2(df)/F$				15.8(12)			2.6**	
모연령								
29세 이하	82.7	-	18.5	7.8	12.7	60.9	3.8	(23)
30~34세	89.1	5.0	17.0	8.8	11.1	58.1	4.2	(90)
35~39세	87.1	1.7	12.5	9.2	18.6	57.9	4.0	(191)
40~44세	87.8	2.6	12.8	11.0	14.9	58.7	3.9	(71)
45세 이상	83.0	-	12.9	-	20.4	66.7	3.6	(7)
부재, 모름	100.0	-	25.7	8.7	3.0	62.7	3.6	(5)
$\chi^2(df)/F$				26.9(20)			2*	
기관이용경험								
어린이집만 이용	86.1	1.5	14.0	7.5	18.5	58.5	4.0	(169)
유치원만 이용	89.2	7.2	20.1	2.5	11.6	58.7	3.7	(12)
둘 다 이용	87.8	2.6	10.7	8.6	15.9	62.2	3.9	(144)
미이용	89.7	3.5	21.2	15.2	9.0	51.0	4.1	(62)
$\chi^2(df)/F$				33.3(12)***			1.2	
		자주	가끔	1-2번	경험없음			
2015년	92.8	18.6	27.9	28.0	25.5	4.1	(136)	
2012년	28.7	1.3	2.7	2.3	93.6	3.91	(17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3) 기관이용경험은 과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중인 경우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5$, ** $p < .01$, *** $p < .001$

▣ 부표 IV-2-6 ▣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이용경험 및 도움정도: 육아카페

단위: %(명), 점

구 분	인지를	이용경험					도움정도(5점 평균)	
		주1회 이상	월 1~3회	분기별 1~3회	연1~3회	이용경험 없음	평균	(수)
전체	66.5	4.0	8.9	8.9	8.4	69.7	3.9	(224)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66.6	5.5	7.6	8.6	8.6	69.7	3.8	(126)
유아	66.4	2.6	10.3	9.3	8.2	69.6	3.9	(98)
$\chi^2(df)/t$				5.3(4)				-0.3
지역규모								
대도시	66.0	3.7	9.1	11.9	4.8	70.5	3.9	(104)
중소도시	65.8	6.7	9.0	5.3	11.2	67.8	3.8	(60)
읍·면	68.4	1.9	8.4	6.5	13.2	70.0	3.8	(60)
$\chi^2(df)/F$				25.0(8)***				0.5
모취업 여부								
취업	67.9	2.5	10.0	7.3	8.9	71.2	3.9	(86)
휴직중	65.9	7.9	7.7	9.3	9.6	65.4	3.8	(19)
미취업	65.0	4.7	8.0	10.4	8.1	68.9	3.8	(116)
모부재 등	78.6	9.4	10.1	10.6	-	69.9	4.0	(3)
$\chi^2(df)/F$				8.7(12)				0.2
모연령								
29세 이하	67.3	2.8	10.2	10.4	2.5	74.0	3.9	(12)
30~34세	65.7	4.6	5.4	7.9	7.5	74.6	3.8	(44)
35~39세	65.6	4.0	9.9	9.2	10.3	66.6	3.9	(116)
40~44세	69.8	3.1	10.0	9.1	8.5	69.2	3.8	(44)
45세 이상	55.3	7.7	7.1	7.6	2.6	74.8	3.6	(5)
부재, 모름	78.6	9.4	10.1	10.6	-	69.9	4.0	(3)
$\chi^2(df)/F$				12.6(20)				0.2(a)
기관이용경험								
어린이집만 이용	66.3	3.6	8.6	10.3	12.5	65.0	3.8	(109)
유치원만 이용	59.8	14.8	3.2	-	6.2	75.7	3.7	(4)
둘 다 이용	67.8	2.3	10.6	8.2	5.3	73.6	4.0	(83)
미이용	65.2	7.4	6.7	8.9	6.3	70.7	3.9	(28)
$\chi^2(df)/F$				28.1(12)***				0.8
		자주	가끔	1-2번	경험 없음			
2015년	66.3	9.0	25.6	20.8	44.6		4.0	(71)
2012년	14.7	0.2	0.3	0.5	99.0		3.79	(2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3) 기관이용경험은 과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중인 경우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01$

■ 부표 V-3-1 ■ 이용기관별 하원 시 소요시간

단위: %(명), 분

구분	10분 이하	11~20분	21~30분	31분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69.1	24.7	5.0	1.2	100.0(2,830)	11.2	7.4	30.7***(a)
어린이집	72.5	21.7	4.3	1.4	100.0(1,753)	10.8	7.5	
유치원	66.7	27.9	4.9	0.5	100.0(1,009)	11.5	6.6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37.2	41.8	16.0	5.1	100.0(68)	16.3	9.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이용 아동2세(보육연령) 아동 4명을 포함.
 3) 평균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 부표 V-7-1 ■ 기관유형별 도움 정도: 도움 받은 비율(매우 도움됨+도움됨)

단위: %(명), 점

구분	2015년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수)	$\chi^2(df)/F$
			전체	영아	유아				
도움 받은 비율									
취업 및 구직	89.8	93.5	92.2	91.8	92.7	95.6	100.0	(526) 5.5(6)	
학업 및 취업 훈련	78.9	91.0	92.1	90.4	94.4	86.4	100.0	(155) 9.4(6)	
양육부담 완화	91.7	92.6	92.6	93.0	92.1	93.1	86.8	(1,269) 7.6(8)	
후속자녀출산	78.3	93.1	92.3	92.4	92.2	94.0	100.0	(290) 4.4(6)	
기타	-	-	-	-	-	-	-	-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Ⅱ 부표 Ⅷ-1-1 Ⅱ 지역 및 모취업 여부별 반일제 학원 선택시 고려 사항

단위: %(명)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모부재 등
원장	2.5	5.4	-	2.0	-	8.4	-
교사	7.7	7.9	-	8.1	23.3	4.5	-
운영시간	-	-	-	-	-	-	-
비용	-	-	-	-	-	-	-
프로그램	44.8	44.8	70.7	44.3	29.9	49.4	-
건강·영양	7.2	-	-	3.5	-	4.8	-
기관 학급 규모	2.6	5.6	-	6.2	-	-	-
실내환경	6.8	-	-	5.5	-	-	-
안전한 보호	6.8	7.9	-	5.5	-	12.1	-
집과의 거리	11.3	5.6	-	7.4	46.7	4.8	-
기관 시설·설비	-	14.5	-	4.7	-	12.2	-
국공립 여부	-	-	-	-	-	-	-
주변의 평판	7.5	8.2	-	10.1	-	4.0	-
주변환경	-	-	-	-	-	-	-
차량 운행 여부	-	-	-	-	-	-	-
특별활동	-	-	29.3	0.6	-	-	-
형제 자원 여부	-	-	-	-	-	-	-
기타	2.8	-	-	2.3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수)	(34)	(31)	(3)	(43)	(4)	(21)	-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작성기관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2018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표)

조사표 종 류	가구번호	시도번호
1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의뢰로 보육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전국 보육실태조사' 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한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조사와 아동 개인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 대상 가구의 선정은 전국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받는 가구 중 무작위 추출되었으며, 귀 닻이 표본 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바쁘시더라도 조사원의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 자료로만 이용되고, 절대 비밀이 보장되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8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신희

조사내용 문의처: (주)한국리서치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팀(02-3014-1055, 0993)
육아정책연구소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팀(02-398-7758, 7767)

주 소	_____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읍/면/동 _____ 로 _____ 길 _____		
	_____ 통리 _____ 번지 (공동주택명 _____ 동 _____ 호)		
가구주 성명	응답자 성명	전화번호	집() - C.P () -
조사원 성명	(인)		



조사기준일 : 2018년 9월 1일(토)

I. 기구원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기구원 원래번호	2. 이름 원래 데에 함께 살고 있는 영유아(미결혼) 자녀의 부모와 친(이)즈부모, 영유아의 이들을 가장 어린 자녀부터 차례로 마쉴해 주자기 바랍니다. ※ 귀원소 아동의 부모는 미동거 중이라면 조사에 포함합니다.	3. 성별 이 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1) 남자 2) 여자	4. 생년월 이 분의 생년월은 언제입니까? 기종으로 기록합니다. (※ 조사원은 총생년도를 등록 경우 생년월을 기입함)	5. 교육정도		6. 건강상태 장애 및 질병여부 이 분은 장애 또는 질병이 있습니까? 1) 장애 있음 2) 질병 있음 3) 장애/질병 모든 있음 4) 없음 5) 모르겠음	7. 혼인상태 이 분은 결혼하십니까? 사실상의 결혼 상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1) 순배우 (사실혼 포함) 2) 사별 3) 열거(이혼 전제) 4) 이혼 5) 미혼 부모	8. 구직여부 이 분은 취업하십니까? 1) 취업 2) 휴직중 3) 미취업 (※월단 9) 9) 도태(※월단 9)	8. 경제활동	
				5-1. 학교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대학 (3단계 이하) 5) 대학교 (4단계 이상) 6) 대학원 이상 7) 미취학(※월단 6) 8) 무학(※월단 6)	5-2. 졸업여부 이 분은 졸업을 하셨습니까? 1) 졸업 2) 수료 3) 중퇴 4) 휴학 5) 재학				8-1. 취업여부 이 분은 취업하십니까? 1) 취업 2) 휴직중 3) 미취업 9) 도태(※월단 9)	8-2. 활동분야 원래 어떤 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 조사원은 다니고 있는 직장과 하는 일을 질문하여 저질서의 직업분류표에서 확인하고 기입함) 01 연가자 02 연가자 및 관련 종사자 03 서부 종사자 04 서비스 종사자 05 판매 종사자 06 농업/임업/수렵 종사자 07 가사/간호 및 관련기능종사자 08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09 단순노무 종사자 10 군인 99) 모름
0 1 (만 네)										
0 2										
0 3										
0 4										
부 0 5										
모 0 6										
친조부 0 7										
친조모 0 8										
외조부 0 9										
외조모 1 0										

(※ 조사원을 포함하여, 아동이 부모로 살고 있는 경우는 어떤 비동거 부모 유형에 대해 기입을 부탁드립니다.)

미동거 부 1										
미동거 모 1										

9. 현재 살고 있는 가구의 가구원 수를 기입하십시오. 가구원수 ()명
10. 가족 유형을 기입하십시오.
- | | | |
|--|--------------|---------------|
| ① 조부모+부모+자녀 | ② 조부모+한부모+자녀 | ③ 한 조부모+부모+자녀 |
| ④ 한 조부모+한부모+자녀 | ⑤ 부부+자녀 | ⑥ 어머니 한부모+자녀 |
| ⑦ 아버지 한부모+자녀 | ⑧ (한)조부모+자녀 | ⑨ 친인척+자녀 |
| ⑩ 기타() | | |

11. 이 태에 동거하는 가구원을 기입하십시오.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자녀 | <input type="checkbox"/> ② 부 | <input type="checkbox"/> ③ 모 |
| <input type="checkbox"/> ④ 친조부 | <input type="checkbox"/> ⑤ 친조모 | <input type="checkbox"/> ⑥ 외조부 |
| <input type="checkbox"/> ⑦ 외조모 | <input type="checkbox"/> ⑧ 부의 형제자매 | <input type="checkbox"/> ⑨ 모의 형제자매 |
| <input type="checkbox"/> ⑩ 부 형제자매의 자녀 | <input type="checkbox"/> ⑪ 모 형제자매의 자녀 | <input type="checkbox"/> ⑫ 친조부모의 형제자매 |
| <input type="checkbox"/> ⑬ 외조부모의 형제자매 | <input type="checkbox"/> ⑭ 기타 친족 | <input type="checkbox"/> ⑮ 비혈연 동거인 |
| <input type="checkbox"/> ⑯ 기타() | | |

12. 이 태에 거주하는 가구원 중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가구원을 기입하십시오.
(절문 11에서 해당 가구원 번호를 찾아 각각 기입하십시오.)
- | 1) 장애 | 2) 질병 | 3) 장애·질병 |
|-------------------------|-------------------------|-------------------------|
| (), (), ()번 | (), (), ()번 | (), (), ()번 |

13. 이 태의 자녀 수를 아동 별로 각각 기입하십시오.
(※ 영아와 유아의 연령은 2018년 9월 1일 기준임. 대상이 없는 경우 0을 기입함.)
- | ① 영아
(36개월 미만) | ② 유아
(만 3세 이상 미취학) | ③ 초등학생 | ④ 중학생 이상 | ⑤ 총 자녀 수 |
|-------------------|-----------------------|--------|----------|----------|
| 명 | 명 | 명 | 명 | 명 |



II. 아동 부모에 관한 질문입니다.

※ 최연소 아동의 부모에 관한 질문입니다

※ 조사원 확인

최연소 아동의 부모가 현재 아동과 동거하고 있는가를 구분하고, 동거하지 않는 경우 1번 문항을 질문합니다.

- ① 동거(☞질문 2로) ② 비동거(☞질문 1로)

1. 동거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이혼 및 별거 ② 직장 때문에
- ③ 사망 ④ 임대(병역 의무)
- ⑤ 기타()

2. 아동의 현재 부모는 이주민(다문화, 결혼이민자, 귀화자)입니까?

- ① 그렇다(☞질문 2-1로) ② 아니다 (☞질문 3으로)

2-1. 부모의 출신지는?

- ① 한국 ② 중국 ③ 중국(한국계)
- ④ 일본 ⑤ 대만/홍콩 ⑥ 베트남
- ⑦ 필리핀 ⑧ 그 외 동남아시아 ⑨ 남부아시아
- ⑩ 몽골/러시아/중앙아시아 ⑪ 미주/유럽/대양주 ⑫ 기타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인 경우에만 응답(3-9번)

3. 아동의 부모는 현재 어떤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에도 기입함, 조사기준 기간의 취업형태를 응답함)

- ① 규칙적으로 출퇴근 ② 불규칙하게 출퇴근
- ③ 출퇴근하지 않음(제택,농어민) ④ 휴직 중
- ⑤ 비해당(미취업) ⑥ 모름

4. 아동 부모의 현재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 중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에도 기입함, 조사기준 기간의 취업형태를 응답함)

- ①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 ② 정규직 임금근로자
- ③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④ 무급가족 종사자
- ⑤ 비해당(미취업) ⑥ 무응답, 모름

5. 토요일에 일을 하십니까?

- ① 매주 전일 ② 매주 반일 ③ 격주 전일
- ④ 격주 반일 ⑤ 휴무 ⑥ 비해당(미취업, 휴직중)
- ⑦ 무응답, 모름

6. 일요일에 일을 하십니까?

(※ 보기는 5번 질문과 동일함.)

7. 평일 출근시각을 기록합니다.

(※ 예 08:00, 무직과 부재, 휴직중은 8888, 모름은 9999 기입)

(※ 집에서 출발하는 시각을 24시간 기준으로 기록합니다.)

__시__분 __시__분

8. 평일 퇴근시각을 기록합니다.

(※ 예 18:00, 무직과 부재, 휴직중은 8888, 모름은 9999 기입)

(※ 집에 도착하는 시각을 24시간 기준으로 기록합니다.)

__시__분 __시__분

	부	모
9. 1주일당 평균 근로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무직과 부재, 휴직중은 8888, 모름은 9999 기입) (※ 출퇴근, 휴식시간은 제외하고 평일(월-금)기준으로 기입)	___시간___분	___시간___분
10. (부 또는 모가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은 경우) 부모님이 향후 취업할 계획이 있습니까? ① 현재 구직 중 (☞ 질문 10-1) ② 취업교육, 학업, 훈련 중 (☞ 질문 10-1) ③ 아이가 좀 더 크면 일을 알아볼 생각 (☞ 질문 10-1) ④ 기타() (☞ 질문 10-1) ⑤ 계획 없음 (☞ 질문 11) ⑥ 모름 (☞ 질문 11)		
10-1. (부 또는 모가 취업할 계획이 있는 경우) 언제쯤 취업할 계획입니까? ① 3개월 이내 ② 6개월 이내 ③ 1년 이내 ④ 2년 이내 ⑤ 3년 이내 ⑥ 5년 이내 ⑦ 10년 이내		

11. 자녀출산과 양육을 위하여 부 또는 모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습니까?
- ① 어머니가 그만둔 적 있음 (☞ 질문 11-1로) ② 아버지가 그만둔 적 있음(☞ 질문 11-1로)
③ 부모 모두 그만둔 적 있음 (☞ 질문 11-1로) ④ 부모 모두 그만둔 적 없음 (☞ 질문 12로)

↓

11-1. (부 또는 모가 그만둔 경험이 있다면) 직장을 그만둔 때는 언제였습니까? 여러 번 있을 경우에는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최초 시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어	① 임신했을 때	① 임신했을 때	① 임신했을 때
머	② 출산·출산휴가 후 바로	② 출산·출산휴가 후 바로	② 출산·출산휴가 후 바로
니	③ 만 1세 이전	③ 만 1세 이전	③ 만 1세 이전
	④ 만 1~2세 때	④ 만 1~2세 때	④ 만 1~2세 때
	⑤ 만 3세~취학 전까지	⑤ 만 3세~취학 전까지	⑤ 만 3세~취학 전까지
	⑥ 취학 이후	⑥ 취학 이후	⑥ 취학 이후
아	① 배우자가 임신했을 때	① 배우자가 임신했을 때	① 배우자가 임신했을 때
버	② 배우자의 출산·출산휴가 후 바로	② 배우자의 출산·출산휴가 후 바로	② 배우자의 출산·출산휴가 후 바로
지	③ 만 1세 이전	③ 만 1세 이전	③ 만 1세 이전
	④ 만 1~2세 때	④ 만 1~2세 때	④ 만 1~2세 때
	⑤ 만 3세~취학 전까지	⑤ 만 3세~취학 전까지	⑤ 만 3세~취학 전까지
	⑥ 취학 이후	⑥ 취학 이후	⑥ 취학 이후

11-2. (부 또는 모가 그만둔 경험이 있다면) 직장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가지만 응답해 주세요.

- ① 소득 보다 아이를 외부에 맡기는 비용이 큼
② 직장에서 일 하는 것보다 육아를 전담하는 것이 가치가 크다고 생각해서
③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
④ 일이 많아서 육아에 지장을 주어
⑤ 육아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⑥ 직장 내 육아지원 서비스가 없어서
⑦ 동시에 여러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서
⑧ 기타()

부	모

12. 자녀 양육을 위하여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어머니가 육아휴직 한 적 있음(☑️ 질문 12-1로) ② 아버지가 육아휴직 한 적 있음(☑️ 질문 12-1로)
 ③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한 적 있음(☑️ 질문 12-1로) ④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한 적 없음(☑️ 질문 13으로)

↓

12-1. (있다면) 부모님이 육아휴직을 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자녀별로 그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시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어 머 니	① 출산 휴가 후 바로~생후 6개월 이전 ② 생후 6개월 이후~만 1세 이전 ③ 만 1-2세 때 ④ 만 3세~취학 전까지 ⑤ 초등학교 1학년 입학 후 ⑥ 초등학교 2학년	① 출산 휴가 후 바로~생후 6개월 이전 ② 생후 6개월 이후~만 1세 이전 ③ 만 1-2세 때 ④ 만 3세~취학 전까지 ⑤ 초등학교 1학년 입학 후 ⑥ 초등학교 2학년	① 출산 휴가 후 바로~생후 6개월 이전 ② 생후 6개월 이후~만 1세 이전 ③ 만 1-2세 때 ④ 만 3세~취학 전까지 ⑤ 초등학교 1학년 입학 후 ⑥ 초등학교 2학년
아 버 지	① 배우자의 출산휴가 후 바로~생후 6개월 이전 ② 생후 6개월 이후~만 1세 이전 ③ 만 1-2세 때 ④ 만 3세~취학 전까지 ⑤ 초등학교 1학년 입학 후 ⑥ 초등학교 2학년	① 배우자의 출산휴가 후 바로~생후 6개월 이전 ② 생후 6개월 이후~만 1세 이전 ③ 만 1-2세 때 ④ 만 3세~취학 전까지 ⑤ 초등학교 1학년 입학 후 ⑥ 초등학교 2학년	① 배우자의 출산휴가 후 바로~생후 6개월 이전 ② 생후 6개월 이후~만 1세 이전 ③ 만 1-2세 때 ④ 만 3세~취학 전까지 ⑤ 초등학교 1학년 입학 후 ⑥ 초등학교 2학년

12-2. (육아휴직 경험이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었나요?
 (여러 자녀에 대해 여러 번 육아휴직 경험이 있다면 총 기간을 합산해 답해 주십시오)

부	모
총 ___년 ___개월	총 ___년 ___개월

13. (응답자가 아동의 주양육자이며 현재 취업중인 경우) 응답자가 현재 직업에 종사하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데 어려움은 각각 어느 정도입니까?
 (※ 주양육자가 비취업 중일 경우 비해당 8을 기입함)

구분	① 어렵지 않음	② 별로 어렵지 않음	③ 보통	④ 약간 어려움	⑤ 매우 어려움	⑧ 비해당
1) 이른 출근으로 아침시간에 아이를 맡기는 어려움						
2) 늦은 퇴근(아간근무 등)으로 저녁시간까지 아이를 맡기는 어려움						
3) 토요일, 근무자의 날, 대체휴일 근무로 아이를 맡겨야 하는 어려움						
4) 긴급상황 시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겪는 어려움						
5) 아이 보육교육기관에서 부모참여에 대한 부담으로 겪는 어려움 (※ 기관 미이용시 비해당)						

※ 다음은 이주민(다문화, 결혼이민자, 귀화자) 부모의 자녀양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14. (이주민 부모 가구만 응답) 자녀를 기르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이주민 부모 입장에서 각 질문에 대해 어려운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매우 어려움	② 어려움	③ 보통	④ 어렵지 않음	⑤ 전혀 어렵지 않음
1) 아이와 의사소통능력 부족(한국어 구사 능력으로 인한)					
2) 양육비 등 경제적 상황					
3) 양육방식을 둘러싼 배우자 또는 가족과의 갈등					
4) 태외적 자신감 결여					
5) 아이의 사회적 부적응에 대한 대응					
6) 아이 돌보기를 도와주는 사람이나 기관 없음					
7) (영유아 포함)자녀지도교육					
8) 대인관계 관련 부적응					



Ⅲ. 자녀 양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다음은 귀하의 자녀에 대한 양육 정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에 해당하는 번호를 써주십시오.

구분	[보기]	
	① 매우 그렇다 ③ 보통 ⑤ 전혀 아니다	② 그렇지 않다 ④ 아니다
1) 아이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2)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있다		
3) 아이 때문에 자기계발, 자아실현 기회를 포기할 때가 있다		

2. 평소 자녀돌보기(놀이주기, 책 읽어주기, 공부 봐주기, 밥 먹고 옷 입는 것 도와주기 등)에 부부가 각각 어느 정도 참여하십니까? (※ 한 부모, 조손 가정인 경우 비해당)

① 적극 참여함	② 대체로 참여함	③ 보통 정도로 참여함	어머니	아버지
④ 참여하지 않음	⑤ 전혀 참여하지 않음	⑥ 비해당		

3. 현재 자녀양육과 가사를 어떻게 분담하고 계십니까? 합이 10이 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머니 8: 아버지 2, 어머니 5: 아버지 5, 어머니 2: 아버지 8)

(※ 한 부모, 조손 가정인 경우 비해당)

□ 비해당

양육	가사
어머니 vs 아버지 (:)	어머니 vs 아버지 (:)

4. 현재 아동의 부모(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 이외에 아동양육 등에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보기에서 해당 번호를 골라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번호	【보기】
1) 아이 직접 돌보기		① 아동의 친조부모 ② 아동의 외조부모
2) 경제적인 지원		③ 아빠의 형제자매 ④ 엄마의 형제자매
3) 가사 지원 등		⑤ 이웃, 엄마·아빠 친구 ⑥ 기타()
		⑨ 없음

5. 아동의 연령별로 귀하가 선호하는 양육형태는 무엇입니까? 연령별로 두 가지 양육 형태 중 선호하는 양육 형태를 기입해 주십시오(※ 모든 칸에 기입해 주십시오)

① 만1세 미만	② 만1세 이상 2세 미만	③ 만2세 이상 3세 미만	④ 만3세 이상 4세 미만	⑤ 만4세 이상 5세 미만	⑥ 취학전 (만 5세 이상)
【보기】					
① 가정 양육		② 기관보육		③ 잘 모르겠음	

6. 이이를 키우면서 육아 관련 정보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주로 누구(어디)의 도움을 받으십니까? 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집안어른(사부모, 친정부모) ② 형제자매 ③ 친구, 동료
 ④ 육아관련 사이트 ⑤ 육아관련 전문가(의사, 상담사 등) ⑥ 관련 서적
 ⑦ 육아종합지원센터 ⑧ 기타() ⑨ 없음

7. 귀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도 또는 구에서 운영하며, 영유아기 자녀양육 및 보육 정보와 교육서비스 및 체험공간 등을 제공함.)

- ① 알고 있음(☞ 질문 7-1) ② 모름(☞ 질문 8)

7-1. 귀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고 이용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용해 보았다면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구분	1) 인지여부	2) 이용경험	3) 이용 시 자녀양육 도움정도
	① 안다 ② 모른다(☞ 질문 8)	① 주 1회 이상 ② 월 1-3회 ③ 분기별(3개월에) 1-3회 ④ 연 1-3회 ⑤ 이용 경험 없음(☞ 질문 8)	① 매우 도움됨 ② 도움됨 ③ 보통 ④ 안됨 ⑤ 전혀 안됨
1) 육아정보 제공			
2) 부모상담 및 검사			
3) 부모교육			
4) 놀이체험 프로그램			
5) 장난감도서 대여			
6) 육아 카페			
7) 기타()			

□ 다음은 정부의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지와 수혜 경험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각각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보육료·교육비 등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받아본 적이 있다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구분	2. 인지 여부	3-1. 수혜 경험	3-2. 만족도
	① 잘 안다 ② 대략 안다 ③ 모른다(= 질문 4)	① 현재 받음 ② 과거 받음 ③ 받은 적 없음 (= 질문 4)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⑥ 잘 모름
1) 0-2세 보육료 지원			
2) 0-2세 영아 맞춤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시간과 비용을 12시간 종일반과 6시간 맞춤반으로 구분하여 지원)			
3) 0-2세 맞춤반 긴급보육바우처 지원(맞춤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아에 대해 월 15시간 추가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4)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교육비 지원			
5) 0-5세 가정양육수당지원(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가정)			
6) 장애아 보육료 지원			
7) 시간연장형 보육료지원(시간연장, 야간보육, 휴일보육 등 이용시 지원 등)			
8) 시간제 보육료 지원 (기관에 다니지 않더라도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지정 어린이집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 이용 시 지원)			
9)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지원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 방과후과정을 이용할 경우 지원)			
10) 지방정부 수당(출산 시 지자체에서 일시금이나 월단위로 지급하는 출하금 등 지원금)			

4.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확대하고 출산력을 증진함과 동시에 아동을 잘 길러서 국가 인력으로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육아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정부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 정책은 무엇입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3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 ② 보육료·교육비 지원단가 인상
- ③ 기관 미이용자에 지급하는 양육수당 인상
- ④ 보육·교육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 ⑤ 시간연장형(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보육, 시간제보육 등 다양한 보육유형 확대
- ⑥ 아이돌봄비 지원 확대
- ⑦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휴직 시 소득 보장
- ⑧ 육아정보상담 제공
- ⑨ 유연근무제 확대(시차출근제, 단시간근로 등)
- ⑩ 기타()

5. 영유아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고, 보육교사 추가 배치 등을 통해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더 많은 재정 투자가 필요합니다. 더욱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어린이집 이용 가구가 보육료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면, 부담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질문 5-1, 5-2)
- ② 없다(☞ V 질문 1)
- ③ 잘 모르겠다(☞ V 질문 1)

5-1. 보육료 일부 부담을 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일부 보육료를 내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 ② 일부 보육료를 내는 것이 전체중 무상 지원보다 공평한 것 같아서
- ③ 일부 보육료를 내면, 필요한 만큼 눈치 보지 않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 ④ 기타()

5-2. 어린이집 이용 가구가 보육료를 일부 부담하는 기준으로는 다음 중 어떤 기준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구 소득
- ② 어린이집 이용 시간(☞ 문 5-2-1로)
- ③ 취약계층 여부(조손가구, 한부모 가구, 장애아 가구 등에 보육료 부담을 낮게 책정)
- ④ 기타()

5-2-1.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따라 가정에서 부담하는 보육료 부담액을 정한다면, 국가가 모두에게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시간은 하루 몇 시간가량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 () 시간



V.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 본 경험이 있습니까?

1) 어린이집	① 과거에 이용함	② 현재 이용 중	③ 이용한 적 없음
2) 유치원	① 과거에 이용함	② 현재 이용 중	③ 이용한 적 없음

※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질문 2-7)

2. 정부가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인어린이집(공공형, 서울형)을 아십니까?

※공공형 : 민간, 가정, 법인단체 어린이집 중 우수한 기관을 선정해 국공립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
 ※서울형 : 서울시에서 보육환경과 서비스가 우수한 기관을 선정해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

- ① 들어봤고 내용도 알고 있음(☑ 질문 2-1) ② 명칭 정도만 들어봤음(☒ 질문 3)
 ③ 잘 모름(☒ 질문 3)

2-1. 공인어린이집(공공형, 서울형)을 안다면, 공인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이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이 유사 ② 약간 유사 ③ 약간 다름 ④ 매우 다름 ⑤ 잘 모름

2-2. 귀하는 공인(공공형, 서울형)어린이집이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국공립어린이집과 보육료가 동일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1) 운영비	① 잘 알고 있음	②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름	③ 잘 모름
2) 보육료	① 잘 알고 있음	②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름	③ 잘 모름

2-3. 귀하는 공인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공보육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거의 비슷하다 ② 약간 다르다 ③ 전혀 다르다

3. 정부는 2014년부터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info.childcare.go.kr)을 통해 어린이집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알고 있고, 이용해 본 적 있습니까? 이용해 보았다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인지 여부	이용 경험	전반적 만족도
① 잘 알고 있음	① 1주일에 1회 이상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② 대충 알	② 한 달에 1-3회	③ 보통 ④ 불만족
③ 들어본 적 없음	③ 분기별(3개월에) 1-3회	⑤ 매우 불만족
④ 모름	④ 연 1-3회	
	⑤ 이용 경험 없음	

3-1.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서는 어린이집의 위반사실(보조금 부정 수령, 허위아동 등록, 운영기준 위반 등)을 공표하여 이용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알고 있고, 어린이집 위반 사실을 포털에서 조회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조회해 본 적 있음 ② 들어본 적은 있으나 조회해 본 적 없음
 ③ 전혀 알지 못함

4. 귀댁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정보를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info.childcare.go.kr)에서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찾아본 적 있음(☞질문 4-1) ② 찾아본 적 없음(☞질문 5) ③ 잘 모름(☞질문 5)

4-1.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보를 찾아본 적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 정보공시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귀댁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도움 됨(☞질문 5) ② 도움 됨(☞질문 5) ③ 보통(☞질문 5)
 ④ 별로 도움 안 됨(☞질문 4-2) ⑤ 전혀 도움 안 됨(☞질문 4-2)

4-2.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정보가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 정보공시포털에서 어떠한 정보가 더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교직원 관련(☞질문 4-3-1) ② 특별활동 관련(☞질문 4-3-2) ③ 급식 관련(☞질문 4-3-3)
 ④ 환경안전 관련(☞질문 4-3-4) ⑤ 보육과정 관련(☞질문 4-3-5) ⑥ 경비 관련(☞질문 4-3-6)
 ⑦ 회계 관련(☞질문 4-3-7) ⑧ 기타()

4-3. (질문 4-2에 응답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 교직원	① 교사 자격	② 교사 근무기간	③ 기타 교직원 현황	④ 기타()
2) 특별활동	① 제공업체	② 주당 운영횟수	③ 1회 운영시간	④ 기타()
3) 급식	① 급식운영방식	② 식중독발생여부	③ 조리인력 관련 정보	④ 기타()
4) 환경안전	① 비상제해대비시설 설치	② 환경위생관리	③ 전기가스소방안전점검	④ 기타()
5) 보육과정	① 공통과정	② 주당 운영시간	③ 보육과정 운영계획	④ 기타()
6) 경비	① 보육비용	② 연령별 최대 수납액	③ 필요경비 이외	④ 기타()
7) 회계	① 예산서	② 결산서	③ 공시시기	④ 기타()

5. 귀하는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부모 모니터링단, 부모 자원봉사 어린이집 참관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이는 보육의 질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십니까? 또한 앞으로 이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내용	참여 여부	도움 정도	앞으로 참여 의향
	① 적극 참여 ② 소극 참여 ③ 미참여 ④ 모름(☞질문 6) ⑤ 없음(☞질문 6)	① 매우 도움 됨 ② 도움 됨 ③ 보통 ④ 도움 안 됨 ⑤ 전혀 도움 안 됨	① 있음 ② 없음 ③ 모르겠음
1)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2) 부모모니터링단			
3) 부모 자원봉사			

6. 귀하는 열린 어린이집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잘 알고 있음 ② 대충 알 ③ 들은 적 있음 ④ 모름

7. 정부는 부모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별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인증여부, 등급, 평가결과서, 평가인증이력)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잘 알고 있음 (☞ 질문 7-1) ② 대충 알 (☞ 질문 7-1) ③ 들어본 적 있음 (☞ 질문 7-1) ④ 모름

7-1. 귀하는 온라인으로 귀택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평가인증결과(인증여부 등)를 직접 찾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음(☞질문 7-2, 7-3) ② 없음(☞질문 7-3)

7-2. 귀하는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가 보육서비스 수준을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어느 정도 일치 ② 아닌 편 ③ 전혀 관계가 없음 ④ 잘 모름

7-3. 귀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⑤ 잘 모름

※ 모든 영유아에게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8. 현재 집 또는 거주지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아이들을 믿고 보낼만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기관의 수	아이들 믿고 보낼만한 곳
	① 충분 ② 불충분 ③ 잘 모름	① 많음 ② 1-2곳 있음 ③ 없음 ④ 잘 모름
1) 어린이집		
2) 유치원		

9. 정부는 어린이집 0-2세 표준보육과정과 어린이집과 유치원과와 공통교육과정인 3-5세 누리과정을 제정하여 어린이집에서 이를 활용하여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1) 0-2세 표준보육과정	① 잘 안다 ② 대략 안다 ③ 모른다
2) 3-5세 누리과정	① 잘 안다 ② 대략 안다 ③ 모른다

10. 정부는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36개월 미만)가 지정된 기관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보육료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제 보육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고 있고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이용 경험 있음 (☞ 질문 10-1, 10-3, 10-4, 10-5)
 ② 들어 본 적 있으나 이용 경험 없음 (☞ 질문 10-2, 10-3, 10-4, 10-5)
 ③ 알고 있으나 이용 경험 없음 (☞ 질문 10-2, 10-3, 10-4, 10-5)
 ④ 전혀 모름 (☞ 질문 10 4, 10 5)

10-1. (시간제 보육 이용 경험자) 귀택에서 시간제 보육을 이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아이 연령이 어려 종일 기관 이용이 부담되어서
 ② 자녀 양육 이외의 개인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어서
 ③ 예상할 수 없었던 긴급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필요해서
 ④ 입소 대기 등 현재 종일제 기관을 이용할 수 없으나, 향후 어린이집을 이용할 생각이라서
 ⑤ 기타()

11. 귀하는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없음
- ② 있음(☞ 질문 11-1)

11-1. 귀하가 받은 '부모교육' 은 다음 중 어떤 내용입니까? 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골라주십시오(중복응답).

- ① 영유아 성장 관련 정보·양육 방법(대화법, 놀이방법 포함)
- ② 보호자의 역할
- ③ 영유아의 인권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 ④ 가족윤리 및 예절
- ⑤ 가족의 건강·영양·안전교육
- ⑥ 미디어·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 ⑦ 기타()

11-2. (부모교육을 받아온 경험이 있다면)

귀하는 '부모교육' 을 어느 기관에서 받았습니까? 받아본 경험이 있는 기관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어린이집
- ② 유치원
- ③ 육아종합지원센터
- ④ 건강가정지원센터
- ⑤ 직장(상사파견 등)
- ⑥ 종교기관
- ⑦ 기타()

12. 귀하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 '부모교육' 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있음(☞ 질문 12-1, 12-2)
- ② 없음(☞ 질문 12-3)
- ③ 잘 모름

12-1. 부모교육을 받는다면, 다음 중 어떤 내용을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희망하는 교육 내용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영유아 성장 관련 정보·양육 방법(대화법, 놀이방법 포함)
- ② 보호자의 역할
- ③ 영유아의 인권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 ④ 가족윤리 및 예절
- ⑤ 가족의 건강·영양·안전교육
- ⑥ 미디어·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 ⑦ 기타()

12-2. 부모교육을 받는다면 어떤 방식을 원하십니까? 가장 희망하는 방식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집합 교육 (☞ 질문 12-2-1로)
- ② 1:1 컨설팅 방식
- ③ 온라인 교육
- ④ 기타()

12-2-1. 부모교육이 실시될 장소로 귀하는 어디를 선호하십니까?

- ① 자녀가 다니는 기관(예: 어린이집, 유치원 등)
- ② 직장(상사 파견)
- ③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전문 기관
- ④ 기타()

12-3. 만약,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 지원되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보육료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할 때 부모교육을 실시한다면, 받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음
- ② 없음

3. 귀택의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지출액(소비+비소비)은 얼마나 되는지요?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저축 및 적금, 저축성 보험, 펀드, 증권, 부동산 구입, 귀금속 구입 등) 및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부동산 대출 상환, 기타대출상환 및 전세금 반환, 자산이전 등)은 제외

가구 총 지출액 월 _____ 만원

3-1. 귀택이 지난 1년 동안 귀택의 '영유아' 자녀를 위해 지출한 월평균 양육비 지출액(소비+비소비)은 얼마나 되는 지요? 귀택의 자녀 중 비취학 영유아 자녀에 한정하여 지출한 양육비를 답하여 주십시오.

※ 양육비: 자녀 양육을 위해 지출한 모든 항목(교육·보육, 사교육비, 식비·의류 구입비, 자녀 관련 보험 지출액 등 모두 포함)

월 _____ 만원

4. 귀택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계십니까?

- ① 그렇다 →
- ② 아니다

4-1. 받고 계신다면 현금으로 월 얼마를 받으십니까?
월 총 _____ 만원

※ 조사원 확인사항

5. 현재 응답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유형을 확인하여 표시하십시오.

- ①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 ② 아파트
- ③ 연립·다세대 주택
- ④ 영업용 건물 내 주택
- ⑤ 기타()

◆ 질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p>답례품 수령 확인</p>	<p>본인은 유아정책연구소의 「2018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참여에 동의하여 조사를 완료하고, 답례품()을 수령하였음.</p> <p style="text-align: right;">응답자: _____ (인)</p>
-----------------------------	---



작성기관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2018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표)

조사표 종 류	가구번호	아동 가구원 번호	아동조사 일련번호
2			

주 소	_____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읍/면/동 _____ 로 _____ 길 _____ _____ 통리 _____ 번지 (공동주택명 _____ 동 _____ 호)		
가구주 성명	아동 성명		
응답자 성명	응답자 전화번호	집() -	C.P() -
조사원 성명	(인)		

※ 조사원은 가구원 사항에서 아동의 가구원 번호와 이름을 옮겨 적고, 이 아동에 관하여 질문하십시오.

아동 가구원 번호 () 이름 _____



조사기준일 : 2018년 9월 1일(토)



I. 보육·교육 이용과 지원 개요

※ 모든 아동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1. 이 아이는 몇 번째 자녀입니까?
() 명의 자녀 중, () 번째 자녀
2. 현재 낮 시간 동안에 이 아이를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01) 부 02) 모 03) 부모의 형제자매 04) 친조부모
05) 의조부모 06) 기타 친인척 07) 비혈연(가사도우미 등) 08) 육아전문인력
09) 주로 기관에 맡김 10) 없음(혼자, 형제끼리 지냄)
3. 이 아이가 처음으로 이용한 기관(반일제 이상 기관)은 무엇입니까?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학원(반일제 이상)
④ 기타() ⑤ 기관 이용경험 없음(☞ 질문 4로)

- 3-1. 이 아이가 처음으로 기관(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한 것은 몇 개월 때부터입니까?
()개월 때
- 3-2. 이 아이가 기관을 처음 이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 선택)
01)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02)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03) 특기교육을 위하여 04) 부모가 취업으로 돌보기 어려워져서
05) 사회적 발달을 위하여 06) 주위에 놀이 상대가 없어서
07) 보육료·교육비가 전액 지원되어서 08)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09) 부 또는 모가 미취업상태이나 다른 일로 바빠서 10) 기타()

4. 이 아이의 각 연령대별로 보육 또는 교육을 위하여 주로 어디 또는 누구를 이용했습니까? 그리고 이때 부모가 취업 중이었습니까? 각 순위에 해당하는 번호를 세 개까지 기록해 주십시오. 이 아이를 많이 돌보는 사람 또는 이용 시간이 긴 순서대로 기입합니다.(※ 2018년 9월 1일 기준이며 현재 연령 이후는 비 해당 88 기입함.)

구분	【보기】			모의 취업상태	부의 취업상태
	1순위	2순위	3순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만1세 이상 2세 미만					
만2세 이상 3세 미만					
만3세 이상 4세 미만					
만4세 이상 5세 미만					
만5세 이상 취학 전					

5. 이 아이가 전에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둔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 ② 없다

5-1. 그때 다니던 어린이집을 중간에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가장 최근에 그만 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기입함.)

- 1) 다니던 어린이집 관련 불만 때문에(시설, 실내 환경, 프로그램, 원장, 교사, 주변 환경 등)
- 2) 아이가 어린이집에 적응을 못해서
- 3) 가정과 어린이집의 소견이 맞지 않아서
(집과의 거리가 멀, 이용시간이 맞지 않음, 해당 연령반이 없어서)
- 4) 어린이집에 내는 비용이 부담돼서
- 5) 기관의 폐원이나 이전 때문에
- 6) 다른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놀이학원, 학원 등)에 보내려고
- 7) 집에서 양육하고 싶어서
- 8) 안전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 9) 기타()

6. 이 아이는 2018년 9월 현재 정규적인 어린이집 보육료나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다면 지원받는 액수는 월 얼마입니까? (※ 2018년 9월 1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지원비용 수혜여부		지원 액수
	① 현재 받음	② 현재 받고 있지 않음	월 총 ()천원
1) 시간제보육료(시간제보육 이용 시 이용료 4,000원 중 3,000원 지원하고, 1,000원만 지불함)			천원
2) 가정양육수당			천원
3) 아이돌보미 비용			천원
4) 바우처(학습지 등)			천원
5) 기타()			천원
총계			천원

※ 조사원은 가구조사표에 의거하여 해당아동에게 조사할 내용의 해당여부를 표시하고, 해당되는 부분만 조사하십시오.
 (※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아무 것도 기록하지 않음)

III. 미취학 아동 중, 현재 보육 또는 교육기관 이용(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반일제 이상 이용) 아동	① 해당 ⑧ 비해당
IV. 미취학 아동 전체	① 해당
V. 전체 아동 중, 현재 특기교육/보습 학원 및 문화센터 등 시간제 학원 이용 아동	① 해당 ⑧ 비해당
VI. 전체 아동 중, 현재 개별/그룹지도학습지 등 교육 이용 아동	① 해당 ⑧ 비해당
VII. 전체 아동 중, 장애인 아동	① 해당 ⑧ 비해당
VIII. 전체 아동 중, 현재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친인척이나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이용 아동	① 해당 ⑧ 비해당



III. 미취학 아동 중, 현재 보육·교육 기관 이용 아동에 질문

※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영아미술학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을 규칙적으로 이용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다니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보육·교육 기관에 다니지 않으면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이용 기관 일반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현재 이 아이가 다니고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01) 국공립어린이집	08) 국공립유치원	10) 반일제 이상 기관(영어학원 등)
0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09) 사립유치원	
03)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04) 민간어린이집		
05) 가정어린이집		
06) 직장어린이집		
07) 협동어린이집		

2. 이 아이가 현재 이용하는 기관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1가지)는 무엇입니까?

- | | |
|---------------------|-----------------------------|
| 01)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 02)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
| 03) 특기교육을 위하여 | 04)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질문 2-1로) |
| 05) 사회적 발달을 위하여 | 06) 주위에 놀이상대가 없어서 |
| 07)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 08) 비용 부담이 적어서 |
| 09) 기타() | |

2-1.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집에 돌볼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 | |
|-------------|-------------|
| ① 아무데도 안 보냄 | ② 기관에 계속 보냄 |
|-------------|-------------|

9. 부모 사정으로 이 아이가 평소 이용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 ① 월 1회 이하 ② 월 2~4회 ③ 주 2-3회
 ④ 주 4-5회 ⑤ 매일 ⑥ 시간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음

10. 이 기관의 시작 시각과 끝나는 시각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시작 시각	① 만족	② 너무 이르다	③ 너무 늦다	④ 기타()
2) 끝나는 시각	① 만족	② 너무 이르다	③ 너무 늦다	④ 기타()

11. 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을 마음대로 선택한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정하고 싶으십니까?

(※ 예: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인 경우, 07시 30분 ~ 19시 30분)
 ()시 ()분 ~ ()시 ()분

[이용 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2. 이 아이가 다니는 기관에 매월 부모님이 별도로 지출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아래 표에 해당 비용을 각각 기입해 주십시오. (※ 조사는 원은 년 1회 또는 분기별로 낸 경우 월 평균으로 환산하여 천원 단위로 기입함. 없으면 0 기입함.)
 (※ 2018년 9월 1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금액
부모가 별도로 내는 월 보육료 및 교육비(정부지원금 제외)		월평균 ()천원
남부 현금	1) 특별활동비/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비	월평균 ()천원
	2)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	월평균 ()천원
	3) 급간식비	월평균 ()천원
	4) 차량운행비	월평균 ()천원
	5) (유치원)방과후과정비(종일반비)	월평균 ()천원
	6) 교재비	월평균 ()천원
	7) (어린이집)시도특성화비	월평균 ()천원
	8) 기타()	월평균 ()천원
	9) 소계	월평균 ()천원
총계		월평균 ()천원

13. 이 아이가 다니는 기관에 입학할 때, 입학준비금이나 입학금은 얼마를 내셨습니까? 원복과 체육복 비용 등 입학할 때에만 내는 비용을 별도로 지불한 경우 합계를 작성해 주십시오.

(※ 조사는 원은 지불한 금액이 없으면 0을 기입해 주십시오.)
 (20)년도에 ()천원

14. 귀댁의 생활수준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이 아이를 위해서 매월 보육 또는 교육기관에 내는 비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담됨 ② 부담되는 편 ③ 적당함
 ④ 부담되지 않음 ⑤ 전혀 부담되지 않음

15.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이 아이를 보육 또는 교육기관에 보낼 생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16. 더 좋은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있다면, 비용을 더 많이 내더라도 이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질문 17로)

↓

16-1. (더 좋은 보육 및 교육을 위하여 비용을 더 많이 낼 의사가 있다면) 월 최고 얼마까지 추가로 더 부담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현재보다 추가로 월 최고 ()천원까지 더 부담할 수 있음
--

17. 이 아이는 보육 또는 교육기관에 주로 어떻게 등원, 하원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등원시 ()	하원시 ()
---------------	---------------

【보기】

- ① 기관 차량을 이용해서(☞질문 17-1, 17-2로) ② 가족이 자가용으로(☞질문 17-1로)
 ③ 가족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질문 17-1로) ④ 보호자와 동반하여 걸어서(☞질문 17-1로)
 ⑤ 자녀 혼자 걸어서(☞질문 18로) ⑥ 기타()(☞질문 17-1로)

17-1. 등하원 시, 원장 또는 교사와 이 아동의 개별사항 또는 기관 이용 관련 정보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교류합니까? ① 매일 ② 주 1-2회 ③ 월 1-2회 ④ 전혀 안함

- 17-2. 기관의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원 하는 경우, 교직원 이 차량에 동승하고 있습니까?

- ① 등하원시 모두 동승한다 ② 등원시만 동승한다
 ③ 하원시만 동승한다 ④ 동승하지 않는다
 ⑤ 모르겠다

18. 위의 방법으로 등원에 걸리는 시간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18-1. 등원	18-2. 하원
()분	()분

19. 이 아이가 다니는 기관의 인력, 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 비용 등에 만족하십니까?

구분	만족 여부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01) 교직원(원장, 교사)					
02) 주변환경					
03) 시설설비(교재,교구)					
04) 비용					
05) 건강관리					
06) 급간식관리					
07) 안전관리					
08) 교육내용					
09) 생활지도					
10) 부모참여 및 교육					

20. 귀하께서는 이 아이가 다니는 기관으로부터 다음의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받으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하십시오.

서비스 내용	제공/참석	만족도
	① 매일 ② 매주 1회 ③ 월 1회 ④ 분기 1회 ⑤ 연 1~2회 ⑥ 제공 안함 ⑦ 모름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⑥ 비해당(제공 안함/모름)
1) 보육·교육 계획표 제공		
2) 급식·간식 식단제공		
3) 가정통신문(안내문 등) 제공		
4) 자녀발달평가 결과지 제공		
5) 부모상담		
6) 부모교육 자료 제공		
7) 부모참여 프로그램 제공		
8) 양방향 알림장		

21. 다음은 이 아이가 다니는 기관에서 받고 있는 특별활동프로그램(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수, 부모가 선택하는지 여부, 비용은 얼마이며, 일주일간 이용 빈도는 몇 회이고, 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는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수가 0일 경우, 1) 문항에 프로그램 수 0만 기입하고 2)번 문항 이후에는 아무 것도 기입하지 않음)

특별활동 (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	1) 이용하는 프로그램 수 기록 (미이용시 0을 기입하고 이후 빈칸)	2) 부모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①선택 가능 ②무조건 이용	3) 월평균 비용은 얼마입니까? ※ 비용을 천원 단위로 기록 (미지불 888)	4) 일주일간 몇 회 이용합니까? ※ 일주일 기준 으로 횟수 기입	5) 해당 특별활동에 대체로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 예능(미술, 음악 등)	개		천원	회	
2) 체육 관련	개		천원	회	
3) 수학/과학 관련	개		천원	회	
4)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개		천원	회	
5) 영어	개		천원	회	
6) 기타	개		천원	회	
총계	총 개		총 천원	총 회	

22. 특별활동(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 프로그램 중 귀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 21번 질문에 제시되어 있는 프로그램 번호 기입, 특별활동(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비해당 8 기입함)

※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경우 질문 4-10번까지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4. 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까?
- ① 평가인증 받음(☑️ 질문 4-1)
 - ② 평가인증 안 받음(☒ 질문 5)
 - ③ 평가인증 받았는지 아닌지 잘 모름(☒ 질문 5)
 - ④ 평가인증이 무엇인지 모름(☒ 질문 5)

4-1.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가 이 아이가 다닐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쳤습니까?

- ① 많이 영향 미침
- ② 어느 정도 영향 미침
- ③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5. 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입니까?
- ① 공공형(☑️ 질문 5-1)
 - ② 서울형
 - ③ 잘 모름
 - ④ 공공형이 아닌 어린이집

5-1. (공공형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 여부가 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쳤습니까?

- ① 매우 그러함
- ② 대체로 그러함
- ③ 그렇지 않음
- ④ 전혀 그렇지 않음

5-2. (공공형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추가 보육료 지원
- ②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 ③ 질 높은 교사
- ④ 원장의 보육철학
- ⑤ 기타()
- ⑥ 장점 없음

6.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귀하는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아동학대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효과가 큼
 - ② 어느 정도 효과 있음
 - ③ 별 효과 없음
 - ④ 전혀 효과 없음
7. 어린이집 내 CCTV(네트워크 카메라 등) 설치 의무화에 대해 일부에서는 다른 아동 및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아동학대 방지 위해 전혀 문제될 게 없음
 - ② 다른 아동 또는 보육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③ 잘 모르겠다
8. 귀하는 아동의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 열람을 신청하는 절차와 방법, 요건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알고 있음(☑️ 질문 9로)
 - ② 모름(☒ 질문 10으로)
9. 귀께서는 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 등) 열람을 신청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음(☑️ 질문 9-1, 9-2로)
 - ② 없음(☒ 질문 10으로)

9-1. (열람신청 경험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① 아동학대 의심
- ② 안전사고 의심
- ③ 단순 의심

9-2. (열람신청 경험 있다면) 열람 신청 후 언제 열람하셨습니다?

- ① 즉시 열람함
- ② 신청 당일 열람함
- ③ 신청 후 10일 이내 열람함
- ④ 신청 후 10일 이후 열람함
- ⑤ 열람을 거부당함(☒ 질문 9-3으로)

9-3. (열람 신청을 거부당한 경우) CCTV 열람 신청이 거부당했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① 기간 경과(60일)
- ② 사생활 침해
- ③ 영상자료 훼손
- ④ 신청 사유 부적합
- ⑤ 단순 거부

2. 앞으로 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어떠한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시기에 이용할 의향이 있는 기관의 번호를 한 가지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아이가 이용하고자 할 때 모든 기관이 언제든 이용이 가능하다고 가정된 상태에서 응답해주시시오.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1) 국공립 어린이집	8) 공립 유치원	10) 반일제 이상 기관(영아학원 유치부 등)	
2)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9) 사립 유치원		
3)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4) 민간 어린이집			
5) 가정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7) 직장어린이집			

기준년도	출생 연도별 기관 이용 의향											
	2013년생		2014년생		2015년생		2016년생		2017년생		2018년생	
	보육연령	기관	보육연령	기관	보육연령	기관	보육연령	기관	보육연령	기관	보육연령	기관
2019년	5세		4세		3세		2세		1세		0세	
2020년			5세		4세		3세		2세		1세	
2021년					5세		4세		3세		2세	
2022년							5세		4세		3세	
2023년									5세		4세	
2024년											5세	

3.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집에 보내시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비용이 저렴해서	② 신뢰가 가서	③ 집에서 가까워서	④ 교사가 우수해서
⑤ 보육내용이 좋아서	⑥ 기타()		

4. (공립유치원에 보내시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비용이 저렴해서	② 신뢰가 가서	③ 집에서 가까워서	④ 교사가 우수해서
⑤ 교육내용이 좋아서	⑥ 기타()		

5. 현재 이 아이에게 다음과 같은 보육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과거에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시간연장 보육은 월 60시간까지 이용가능하며, 평일은 19:30~24:00, 토요일은 15:30~24:00에 이용할 수 있음.

구분	필요성 정도	(최근 6개월 간)	주로 이용하는
		이용 빈도	요일 및 이용시간
	① 상시 ② 1주일에 1~2번 ③ 한 달에 1~2번 ④ 1년에 1~2번 ⑤ 필요 없음	① 주당 3회 이상 ② 주당 1~2번 ③ 월 3~4회 ④ 월 1~2회 ⑤ 없음	※ 주로 이용하는 요일과 시간을 기준으로 응답.
1) 늦은 시간까지 이용하는 경우 (시간연장 보육)			① 월~금 (:) ~ (:) ② 토요일 (:) ~ (:)
2) 1박 2일 등 2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24시간보육)			
3) 휴일에 이용하는 경우(휴일보육)			

6. 긴급한 상황이나 아이가 아플 때 이 아이를 주로 누가(어디서) 돌보아줍니까?

1) 긴급한 상황	① 부모 ④ 시간제보육반	② 조부모 및 친인척 ⑤ 아이돌보미(건강가정지원센터)	③ 비월연(베이비시터 등) ⑥ 기타()
2) 아이가 아플 때	① 부모 ④ 어린이집	② 조부모 및 친인척 ⑤ 아이돌보미	③ 비월연 ⑥ 기타()

7. (자녀 연령이 6-36개월 미만인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이 아이는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내용에 응답해주시시오.

구분	1) 이용 주기	2) 이용 건당 평균 이용 시간	3) 서비스 제공기관 (주 이용기관)	4) 방문 시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5) 이용 시 만족도	6) 이용 시 자녀양육 도움정도
보기	① 매일 ② 1주일에 2-3번 ③ 1주일에 1번 ④ 한 달에 1-2번 ⑤ 1년에 1-2번 ⑥ 이용경험 없음 (=V의 질문 1로)	()분	① 어린이집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③ 기타()	① 도보 ()분 ② 대중교통 ()분 ③ 자가용 ()분 ④ 기타() ()분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① 매우 도움 됨 ② 어느 정도 도움 됨 ③ 보통 ④ 도움되지 않음 ⑤ 전혀 도움되지 않음

V. 전체 아동 중, 현재 특기교육학원 또는 보습 학원 및 문화센터 등의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아동에 질문

※ 현재 특기교육학원 또는 일반 보습학원, 문화센터 등의 시간제 교육기관에 다니는 아동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1. 이 아이가 특기교육을 위해 다니는 시간제 학원 및 문화센터 등 사설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몇 개이며, 1주간 평균 이용시간과 1개월간 학원에 내는 비용은 모두 얼마나 됩니까? 또한 다니는 학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 이용하지 않는 종류의 경우, 프로그램 수에는 0을 기입하고 이용시간, 비용, 만족도는 모두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 각 프로그램은 별도 비용을 지불한 경우임.)

이용	1) 프로그램 수	2) 이용시간 주 평균 () 시간	3) 비용		4) 전반적 만족도	
	() 개		월 총()천원	원	① 매우 높음 ③ 보통임 ⑤ 매우 낮음	② 높음 ④ 낮음
1) 예능(미술, 음악 등)	개	시간		천원		
2) 체육관련	개	시간		천원		
3) 수학/과학 관련	개	시간		천원		
4)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개	시간		천원		
5) 영어	개	시간		천원		
6) 기타	개	시간		천원		
총계	총 개	총 시간	총	천원		



Ⅶ. 전체 아동 중, 현재 개별·그룹지도 및 학습지 등 교육서비스 이용 아동에 질문

※ 현재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 개별·그룹 교육 지도 및 학습자교재교구 활용교육을 받는 아동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1. 이 아이가 학습지, 교재교구 방문지도, 개별 또는 그룹지도, 통신교육을 받는 경우 종류별로 몇 개의 지도를 받고 있고, 지난 1개월간 낸 비용은 모두 얼마나 되고,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유료로 이용한 경우에만 응답하며,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개수 0 기입하고, 이용시간, 비용, 만족도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항목	1) 개수	2) 이용시간	3) 비용	4) 만족도
	() 개 (0개는 이후 공란)	주 평균 () 분	월 총()천원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 개별 또는 그룹지도	개	분	천원	
2) 학습지	개	분	천원	
3) 교재교구활용	개	분	천원	
4) 통신교육(전화인터넷)	개	분	천원	
총계	총 개	총 분	총 천원	



Ⅶ. 전체 아동 중, 장애 아동에 질문

※ 일반 아동의 경우 질문 1-4번까지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1. (영유아가 장애가 있는 경우) 이 아이의 등록장애 유형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관정받은 장애 유형을 선택해 주십시오. 중복장애의 경우 상위등급 2가지에만 표시해주십시오)
- ① 지체장애 ② 뇌병변장애 ③ 시각장애
 ④ 청각장애 ⑤ 언어장애(의사소통 장애) ⑥ 지적장애
 ⑦ 지체성장애 ⑧ 심장장애 ⑨ 안면장애
 ⑩ 기타() ⑪ 특수교육진단평가 결과통지서

1-1. 장애 등급은 몇 급입니까?(※ 장애등급은 1-6급 중 기입, 중복장애는 상위등급 기입)
()급 (※ 특수교육진단평가를 받은 경우는 88 기입함.)

2. 현재 이 아이는 보육교육기관에 다니니까? 다니다면 기관유형은 무엇이고, 1일 평균 몇 시간 정도 이용합니까? 또한 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관 유형	1일 평균 이용시간	이용 시 만족도
① 일반 어린이집 ② 장애아전문어린이집 ③ 장애아통합어린이집 ④ 유치원 일반학급 ⑤ 유치원 특수학급 ⑥ 유아특수학교 ⑦ 특수학교 유치원(부) ⑧ 기타() ⑨ 다니지 않음(☞질문 2-1로)	평균 ()시간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1. (기관에 다니지 않는 경우) 기관에 다니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잘 몰라서 ②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③ 기관을 믿지 못해서
 ④ 비용이 부담돼서 ⑤ 등하원이 힘들어서 ⑥ 아이가 어려서
 ⑦ 기타()

2-2.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에 다니는 경우)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가지 선택)

- ① 교사의 이해 부족, 편견 ② 다른 아동부모의 이해 부족, 편견 ③ 교사의 지나친 관심
 ④ 편의시설 부족 ⑤ 보육교육 내용 부적합 ⑥ 특수교사 부족
 ⑦ 등하원 시 불편 ⑧ 기타() ⑨ 어려움 없음
 ⑩ 비혜당(미이용)

3. 이 아이는 언제 장애를 발견하여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까?

※ 장애등록(복지카드 발급), 병원 진단서나 의사의 소견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의 진단 및 평가 모두를 포함합니다.

- ① 출생 이전 ② 출생 ~ 만1개월 미만
 ③ 만1개월 이상 ~ 만12개월 미만 ④ 만12개월 이상 ~ 만24개월 미만
 ⑤ 만24개월 이상 ~ 만36개월 미만 ⑥ 만36개월 이상 ~ 만48개월 미만
 ⑦ 만48개월 이상 ~ 만60개월 미만 ⑧ 만60개월 이상

4. 이 아이의 장애 진단을 받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부모(나와 배우자)의 판단 ② 조부모 및 기타 가족의 권유
 ③ 원장 및 교사의 권유 ④ 지인의 권유
 ⑤ 영유아건강검진 ⑥ 기타 ()



VIII 전체 아동 중, 현재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아동에 질문

※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란, 부모가 아닌 조부모, 친인척, 비혈연인 등이 자녀를 돌봐주는 것을 말합니다.
 ※ 문1-문14는 현재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1. ※ 조사원 확인:
 보육교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반일제 이상 학원) 및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 (동거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 포함) 중복 확인
- | | | |
|---------|----------|-------------|
| ① 혈연 | ② 비혈연 | ③ 혈연+비혈연 |
| ④ 혈연+기관 | ⑤ 비혈연+기관 | ⑥ 혈연+비혈연+기관 |

2. (1번에서 ①~③번에 응답한 경우) 주변에 있는 기관에 아이를 보내지 않고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
- | | |
|-------------------------------|-------------------------------|
| ①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관에 적응하기 힘들까봐 | ③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워서 |
| ② 비용이 부담되어서 | ④ 한사람이 여러 아이를 같이 돌보는 것이 불안하여서 |
| ④ 매일 데리고 다니기 번거로워서 | ⑤ 시설 환경이 열악하여서 |
| ⑥ 한사람이 여러 아이를 같이 돌보는 것이 불안하여서 | ⑧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
| ⑦ 이용 희망 기관에 대기자가 많아서 | ⑩ 기타() |
| ⑧ 기관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어서 | ⑨ 비해당(기관 이용) |
3. 현재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조부모나 친인척, 비혈연 분께서는 이 아이를 포함하여 몇 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까? ※ 본인 영유아 자녀 포함하여 아동 수 기입
- 조사 대상 아동을 포함하여 총 () 명

※ 조부모나 친인척이 돌봐주는 경우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 조부모나 친인척이 돌봐주지 않는 경우 4-7번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4. 다음 중 이 아이를 가장 많이 돌봐 주는 가족이나 친인척은 누구입니까?
- | | | |
|------------|-----------|------------|
| ① 동거 친조부모 | ② 동거 외조부모 | ③ 비동거 친조부모 |
| ④ 비동거 외조부모 | ⑤ 동거 친인척 | ⑥ 비동거 친인척 |
5. 주로 어디서 돌보고 있습니까?
- | | |
|-----------------|-----------------------|
| ① 아이 집(☑️ 질문 6) | ② 돌보는 사람 집(☑️ 질문 5-1) |
|-----------------|-----------------------|

5-1. (돌보는 사람 집에서 돌보는 경우) 아이를 매일 데려오십니까?

① 매일 데려오거나 가서 봄	② 가끔 데려옴(☑️ 질문 5-1-1)
③ 가끔 가서 봄(☑️ 질문 5-1-1)	

5-1-1. 며칠에 한 번씩 데려오거나 가서 보십니까?

평균 ()일에 한번

6. 이 아이를 돌봐 주는 분이 주로 언제 돌보고 있습니까?
- | | |
|----------------------|------------------------------------|
| ① 하루 종일 | ② 부모 출근 후-이용 기관 등원 전 |
| ③ 이용 기관 하원 후-부모 퇴근 전 | ④ 부모 출근 후-이용 기관 등원 전, 하원 후-부모 퇴근 전 |
| ⑤ 필요할 때마다(불규칙적으로) | ⑥ 기타() |

